SEOUL MY SOUL

서울문화재단 20년

서울문화재단

서울문화재단 20년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2004 —— 2023

서울문화재단 | 20th

CAFE
QUA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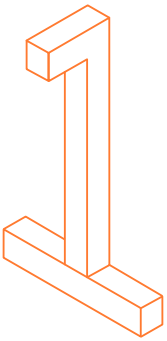
서울문화재단 대학로센터
2024

서울문화재단 20년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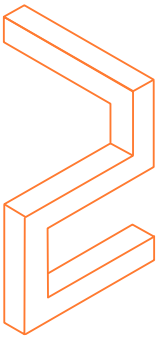
2004 —— 2023

발간사 024
축사 026
축하 메시지 0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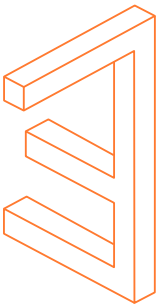
재단

1.1. 특별 대담 | 유인촌 초대 대표이사 이창기 현 대표이사 038
1.2. 특별 기고 | 서울시 문화정책 20년, 그리고 미래 의제 0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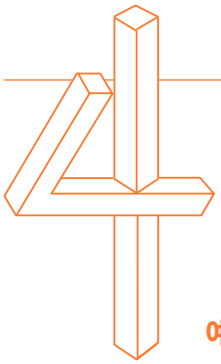
20

2.1. 주요 연혁 2004-2023 058
2.2. 20대 뉴스 066
2.3. 숫자로 읽는 서울문화재단 20년 0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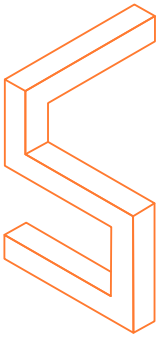
사람

3.1. 예술인 좌담회1 094
3.2. 예술인 좌담회2 102
3.3. 직원 | 좋아서-서울문화재단 106
3.4. 시민 | 메모리[人] 서울문화재단 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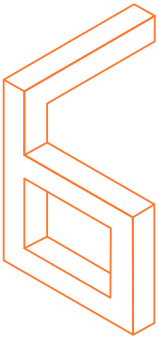
예술

4.1.	예술지원	124
	4.1.1. 예술창작지원	132
	4.1.2. 경력단계별지원	142
	4.1.3. 예술확산	146
4.2.	창작기반	150
	4.2.1. 창작공간	156
4.3.	대학로	172
	4.3.1. 문화공간	174
	4.3.2. 간접지원	192



문화

5.1.	축제	202
	5.1.1. 예술축제	204
	5.1.2. 축제 지원 및 인프라	218
5.2.	문화향유	230
	5.2.1. 생활문화	232
	5.2.2. 문화복지	248
	5.2.3. 시민문화	254
5.3.	예술교육	264
	5.3.1. 서울형 예술교육	272
	5.3.2. 지역형 예술교육	294
	5.3.3. 예술교육 공간	304



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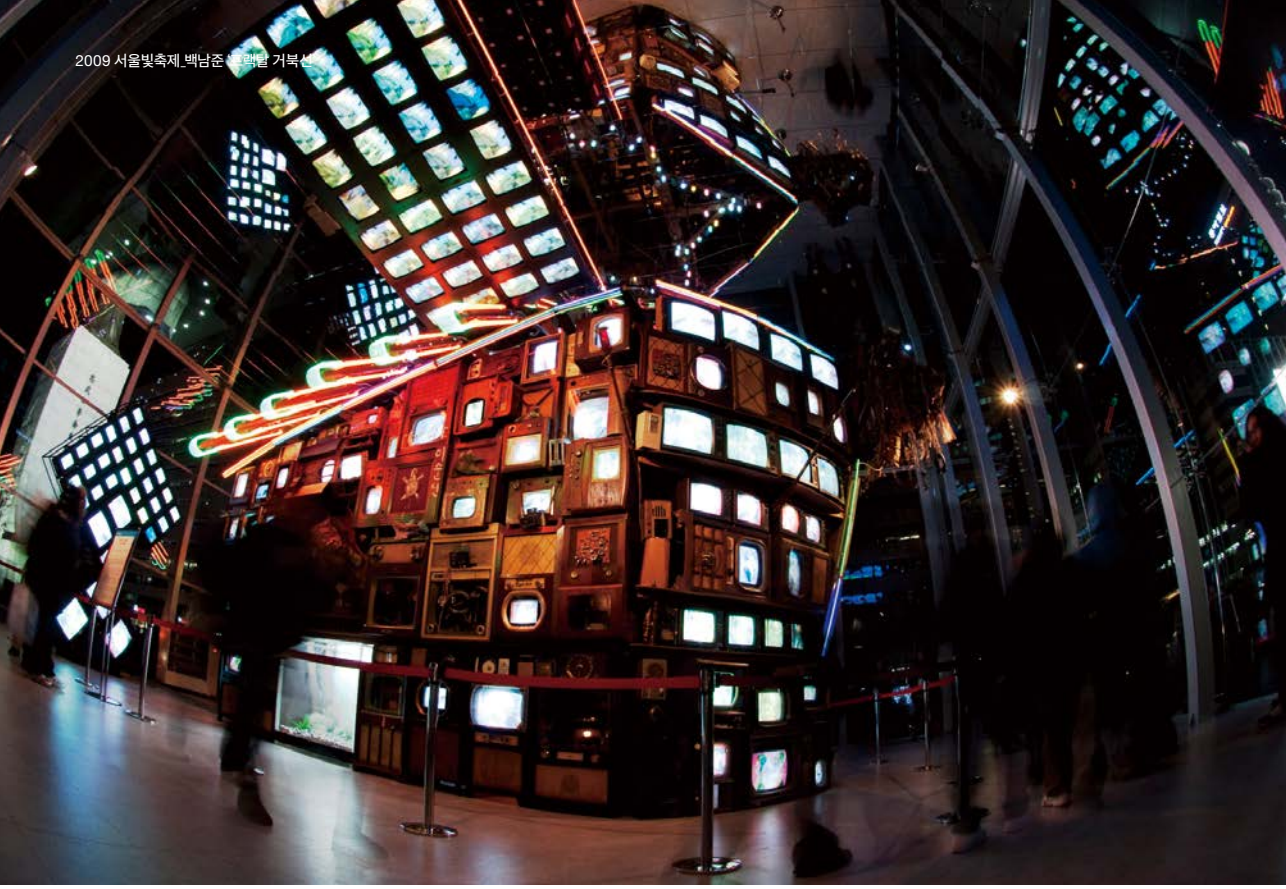
6.1.	문화환경	328
	6.1.1. 공공공간	330
	6.1.2. 공공예술	336
6.2.	지역문화	346
	6.2.1. 지역 활성화	348
	6.2.2. 자치구 협력	356
6.3.	정책협력	364
	6.3.1. 정책·네트워크	366
	6.3.2. 제휴협력	382
	6.3.3. 홍보마케팅	396
종합대담 | 예술+문화+서울		404
임직원 명단		410

2009 하이서울페스티벌

DOUZONE
PRESIDENT

2023 서울거리예술축제 개막 공연

2023 한강노들섬발레 〈백조의 호수〉



2009 서울빛축제_백남준 '백만불 거북선'

2023 서울융합예술페스티벌_백남준 '시스틴 채플'

2008 하이서울페스티벌 여름(한강)

2022 한강노들섬오페라 〈마술피리〉

2009 남산예술센터 개관 축하공연

대학로극장 쿼드 개관 페스티벌_천하제일탈공작소 〈아가멤논〉

2015 유망예술지원 MAP_윤제호 'Soundhue'

2022 서울융합예술페스티벌_윤제호 'P.O.REST' ©정효섭

2014 좋아서-예술동아리 페스티벌

2022 서울생활예술페스티벌

2013 서울댄스프로젝트

2022 서울생활예술페스티벌 사전공연

2010 생각하는 호기심 예술학교

2016 서서울예술교육센터 학교 연계 프로그램

2011 책 읽는 서울 '책, 영화와 만나다'_서울연극센터

2023 서울연극센터 재개관 프로그램 '퇴근 후 공연 전'

2012 연희문학창작촌 목요낭독극장

2022 연희문학창작촌 서울스테이지11

2005 서울예술포럼_삼청각

2022 서울문화예술포럼_시민청

신한은행

2023 서울문화재단 본관

명칭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SFAC
Seoul Foundation for Arts & Culture

설립

2004년 3월 1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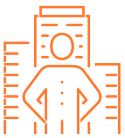
설립 근거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설립 목적

서울의 문화예술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창작·보급과 시민의 문화예술활동 지원

미션



문화와 예술로
행복한 도시 만들기

비전

문화와 예술의 다양한 가치를 발현시키고
시민과 함께 공감하는 선도적 문화예술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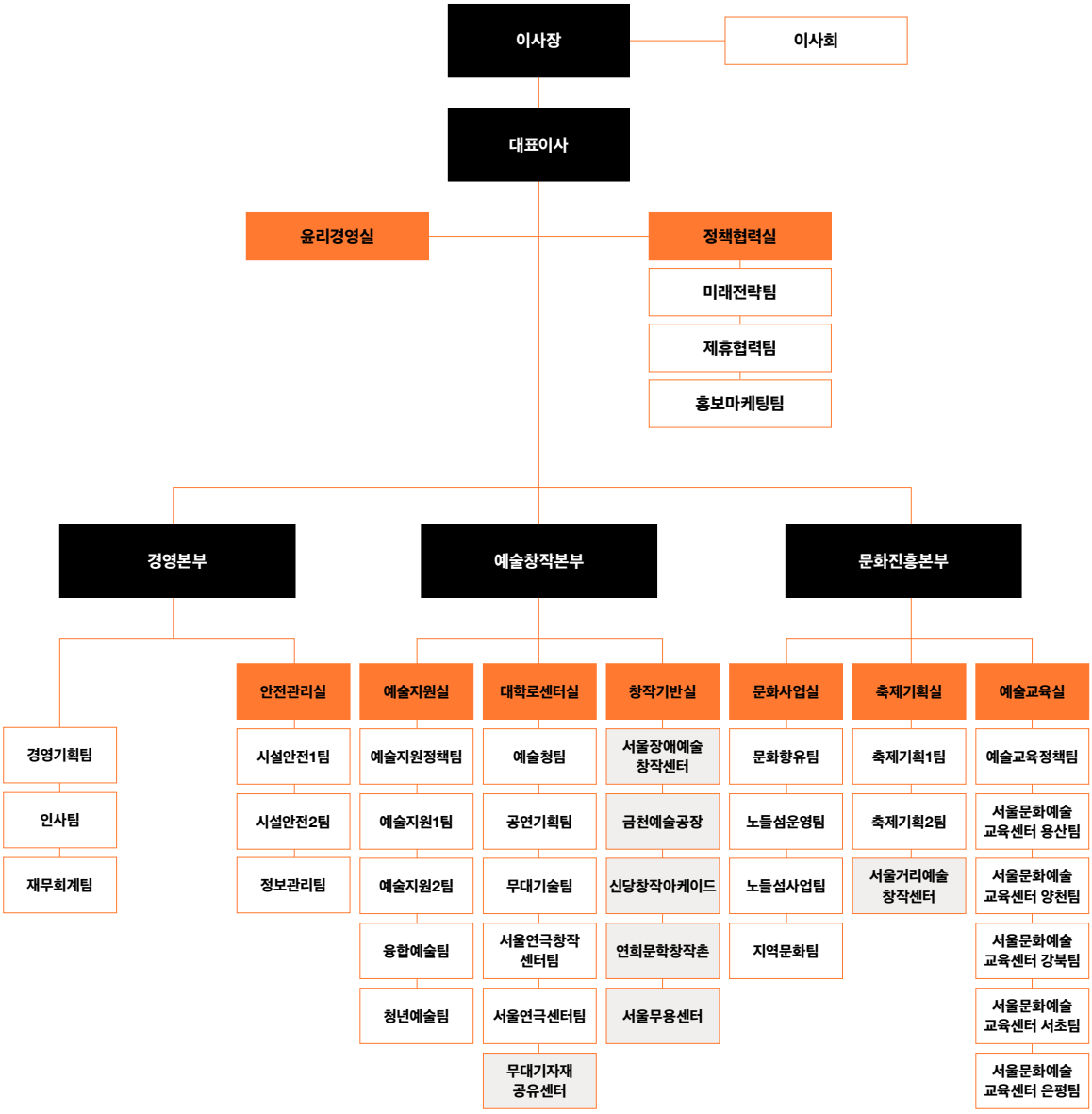
*2024.01.31. 기준(현원)

조직

3본부, 9실, 31팀, 7단위 조직

직원 현황

286명



2004년 3월에 창립한 서울문화재단이 스무 살 생일을 맞이합니다.
지난 성장의 시기를 되돌아보고 다가올 미래를 힘차게 준비하면서
20년 백서를 발간합니다.

예장동에서 시작해 용두동과 대학로까지 예술계와 더 가까이 일터를 넓히고,
서울광장과 남산에 이어 노들섬까지 시민과 더 많이 만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예술창작지원을 시작으로 창작공간 조성과 서울예술인지원센터까지,
사계절 내내 시민과 함께 나눈, 크고 작은 예술축제와 공연 전시들,
서울 곳곳에서 펼친 생활예술과 예술교육의 현장들,
지역문화와 정책 거버넌스를 선도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ESG경영과 제휴협력까지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축적된 사업 기록물과 발자취의 정리를 넘어,
온 열정을 쏟아온 직원들의 소중한 기억과 여정,
그리고 함께 길을 걸어온 예술가들의 이야기까지 모아 정리하였습니다.
지난 20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20년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데
이 백서가 소중한 자료가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서울문화재단은
안정적 창작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여
예술 하기 좋은 도시, 예술 누리기 좋은 도시
예술특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이 창 기

무한한 가능성으로 글로벌 TOP5 서울을 위해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문화예술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인류의 발전에서 문화예술은 삶의 풍요로움과 아름다움을 위해
우리 사회의 발전과 함께해 왔습니다. 문화예술은 우리 사회의 영혼을 빛내며,
새로운 아이디어와 창의성을 통해 미래를 열어갑니다.
문화예술은 우리의 삶에 풍요를 더하고 아름다움으로 상상의 세계를 만들어 왔으며,
지금도 인류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많은 예술가들의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도시로서 문화예술 또한 국제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서울문화재단이 20년간 서울의 문화예술을 주도하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자부하며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라 자신합니다.

서울문화재단이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서울의 문화예술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예술이 되었고 그 중심에는
서울문화재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문화재단 20주년을 맞아 발행되는 백서는
그동안 서울문화재단의 성과와 경험을 되돌아보는 소중한 자료로 남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문화와 예술이 어떻게 우리 사회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는지,
그 영향력을 점검하고 미래로의 비전을 공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서울문화재단은 다양한 예술과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에게
문화의 즐거움을 전해 왔고, 예술가들이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과 역할을
다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서울문화재단이 예술과 문화의 발전을 선도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예술 기관으로서, 지속적으로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시민들의 문화적 향유를
확장하여 더욱 풍요로운 서울을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서울문화재단 20주년 백서의 발간을 위해 노력해 주신 관계자와 참여 예술가 및
시민들께 감사드리며, 시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문화재단 이사장 **박 상 원**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장 오세훈입니다.
서울문화재단 창립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2004년 출범한 서울문화재단은 '문화와 예술로 행복한 서울 만들기'라는 비전 아래
서울의 문화 경쟁력과 예술 품격을 높이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지난 20년간 시민에게는 문화의 즐거움을 선사하고,
예술가에게는 창의적인 활동의 장을 제공해 온 서울문화재단의 노력 덕분에
서울이 글로벌 문화예술 중심지로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애써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의 생활 영역 전반이 하나의 문화 현상이 되고,
세계인이 함께 향유하는 시대입니다.
서울문화재단이 선보일 감동의 콘텐츠가 서울시민 삶의 질뿐 아니라,
글로벌 도시경쟁력을 키워나가는 동력이 되길 기대합니다.
서울시 또한 서울 도시 곳곳에 재미와 매력을 더할 수 있도록 서울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서울문화재단 창립 20주년을 축하드리며, 재단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오세훈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김현기 의장입니다.
서울을 '21세기 문화예술의 성지'로 탈바꿈하고 있는
서울문화재단의 창립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문화와 예술로 행복한 서울 만들기를 위해 힘써주시는 서울문화재단 이창기 대표이사님,
박상원 이사장님, 재단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에 예술이 흘러야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서울은 서울문화재단 덕분에 예술가와, 시민 모두 건강하고 즐거운 도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예술가에게 서울문화재단은 '문화예술의 신(新)실험실'입니다.
순수예술부터 응용예술에 이르기까지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예술가를
지원하고 발굴하며 'K-컬처'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는 사시사철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축제와 공연을 풍성하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서커스페스티벌, 서울비보이페스티벌, 서울거리예술축제,
한강노들섬클래식, 서울생활예술페스티벌 등 연중 펼쳐지는 축제는 시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문화 경쟁력이 곧 도시 경쟁력입니다. 서울문화재단이 20년간의 운영 노하우를 발판 삼아
올해 공간과 조직을 재정비해 새로운 20년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서울문화재단이 '예술특별시 서울'을 실현하고, 서울 문화 경쟁력과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기관이 되도록 입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김 현 기 김현기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입니다.

서울문화재단 창립 20주년이라는 빛나는 순간을 함께하게 되어 무척 영광입니다.
재단의 지난 역사를 촘촘히 엮어낸 백서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백서 발간을 위해
힘써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전합니다.

벌써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2004년, 서울문화재단 초대 대표로 취임한 것이 말입니다.
당시 수많은 문화예술단체, 예술가, 시민들을 직접 만나 묻고 우리 문화계와 재단이
나아갈 방향을 고민하며 머리를 맞댔던 시간이 아직도 제 기억 속에 생생합니다.
그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희로애락을 나누었던 경험은 향후 제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역임하는 데 큰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문화예술은 사람의 영혼을 빛나게 합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예술적 영감은 우리의 일상을
다채롭게 만듭니다. 지난 20년간 서울문화재단이 수행한 여러 활동은 이러한 문화예술의
기능을 최대한으로 발현하기 위한 여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정책과 현장의
연결고리로서 창작자가 필요로 하는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때로는 시민 곁에서 문화향유의
지평을 넓혀온 서울문화재단에 박수를 보냅니다.

이번 백서는 지난 20년간 쉼 없이 달려온 재단의 발자취와 성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재단 관계자 여러분께는 자부심으로, 또 문화예술인에게는 길잡이로 활용되는 소중한 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서울문화재단이 우리 문화예술계를 선도하고 서울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믿으며, 문화체육관광부도 항상 그 길에 동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문화재단 초대 대표이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 인 촌**

제4회
서울문화예술포럼

는 이제
문화재단
생생에서
다"

축하 메시지 Congratulations

예술가들에게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시민들에게는 행복한 삶의
순간들을 만들어온
서울문화재단 창립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 성장의 시기를
함께해 온 저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이서울페스티벌 궁 축제,
서울시 창작공간, ISPA 총회
등 많은 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갑니다.

앞으로도 서울문화재단이
예술가와 시민에게
사랑받는 세계 최고의
문화예술기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20년간
서울의 문화예술을 견인해
온 서울문화재단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와 열정에
진심으로 격려와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제2대 대표이사
세종문화회관 사장
안 호 상

2014년에 우리 재단은
문화예술인들, 그리고
광역 및 기초 문화재단들과
함께 문화정책에 대해
토론하고 아이디어를 모으는
'거버넌스' 프로그램들과
함께 10주년을 맞았습니다.
당시는 전국 광역
시도들이 거의 문화재단을
갖춰가고 서울시 자치구에
기초문화재단들이
늘어나면서 문화정책
전달체계가 새롭게
편성돼가는 중이었습니다.

이제 완성과 성숙의 단계에
있는 문화정책 시스템
안에서 서울문화재단은
여전히 기준과 모범을
보여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서울문화재단이
20년을 맞기까지
임직원들이 애써오셨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더
넓게 멀리 보면서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제3대 대표이사 조 선 희

재단에 들어오고 두 달쯤
지난 2016년 가을 어느
직원이 나에게 대표님의
꿈이 뭐냐고 물었다.
느닷없는 질문에 나의
대답은 엉뚱하고 솔직했다.
"저의 꿈은 행복한
전임자(前任者)가 되는
겁니다."

탄생 스무 해를 맞은
서울문화재단의 경이로운
성장을 마주할 때 그
시절 품었던 꿈이 오롯이
이루어져 감을 실감하고
그래서 나는 지금 행복하다.

스무 살의 설렘을 노래한
윤종신의 '오래전 그날'은
이렇게 시작한다.
'몇 해 지나 얼핏 너를
봤을 때 누군가 널 그처럼
아름답게 지켜주고
있었음을' 재단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는 '지원'이었다.
"지원(志願)하세요."
"지원(支援)해 드리겠습니다."
꿀벌과 나비가 사라지면
꽃은 꽃밭이 될 수 없다.
문화예술의 든든한
매개로서 시민들의 삶을
'더' 새롭게 '다' 즐겁게
해주려 헌신하는
서울문화재단 임직원들에게
깊은 사랑과 경의를 전한다.

제4대 대표이사 주 철 환

스무 번째 생일을
축하합니다. 재단 나이
15~17세 시절에 대표를
맡아 세 번의 생일을 함께
했던 경험을 돌아보니
스무 살의 모양과 속살은
어떠한지 궁금하네요.

서울의 시민 현장, 예술
현장, 청년 현장과 많은
협치를 새로 운영하면서
겪은 희로애락의 장면마다
겹치는 직원들의 얼굴은
지금도 상기된 표정으로
떠오릅니다. 진심이었고
열심이었던 그 얼굴 한 분
한 분에게 축하와 응원의
마음을 전하고 싶네요.
당신이 별이 되는 순간은
누군가를 위하는 진심과 그
일에 열심을 다 하는 매 순간
당신 안에 있다고요.

창립 20주년을 맞아
재단 직원들과 여러 현장
동료들에게 오늘 그대가
있음을 축하합니다.

제5대 대표이사 김 종 휘

안녕하십니까 정병국입니다.
2004년, 16대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으로
서울문화재단의 창립을
축하드렸었는데 어느덧
벌써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오랫동안 예술가들의
창작활동과 시민의 문화향유
신장을 위해 온 힘을
다하신 여러분들의 노력이
오늘날 세계 속의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토대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50년,
새로운 100년의 역사를
위해 새롭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며,
서울문화재단의 2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지난 20년간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세계 속의 문화도시 서울,
그리고 대한민국을 함께
이끌어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정 병 국

일상 속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서울문화재단의
한결같은 노력이 어느덧
20주년이라는 값진
이정표를 맞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앞으로도 젊은 예술인들의
꿈을 이루어 주기 위한
서울문화재단의 여정에
포르쉐코리아도 계속해서
함께하며 또 다른 뜻깊은
20년이 이어지기를
희망합니다.

포르쉐코리아 대표
홀가 게어만 Holger Gerrmann

서울문화재단의 창립
스무 해 맞이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20년간 세계의 크고
빠른 변화의 흐름 속에서
서울문화재단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행보를
이어왔습니다.
창립으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재단의 노고는
빛을 발하여 문화와 예술로
행복한 서울로 이끌고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키워 왔습니다.
삶에서 다음에 어떠한
풍경을 마주하게 될지,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상상하게 됩니다.
서울문화재단이 열어갈
미래는 기대와 희망으로
가득합니다.
서울의 문화
예술 분야를 이끌어온
선도적 문화예술기관으로
앞으로도 확대와 발전을
확신합니다.
올해 뜻깊은 한해에 이어
앞으로도
힘차게 날아오르길
응원합니다.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
이 경 돈

그동안 서울문화재단은
서울의 예술을 위해 많은
일을 해 오셨습니다.
문화인의 한 사람으로서
재단이 없었다면
어땠을지, 정말 큰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개관을 앞둔
서울연극창작센터의 시작을
응원하며, 조직과 규모가
커지는 만큼, 내실을 다질 수
있는 재단이 되길 바랍니다.

배우 박 정 자

예술가와 호흡하고,
시민들과 예술로 함께하는
서울문화재단의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서울의 문화예술을
견인하는 서울문화재단의
앞으로 100년도
기대하겠습니다.

서울시 명예시장/ 전 국립발레단장
최 태 지

20주년
20th Anniversary

서울문화재단 창립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동안 많은
문화예술인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든든한 기둥이
되어주신 서울문화재단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을 위해
객관적인 시선으로
현장에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극장협회 이사장 **임 정 혁**

서울시민과 예술가들의
동반자가 되어 준
서울문화재단의 창립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풍요로운
문화예술의 꽃밭을 더욱
향기롭게 만드는 데 앞장
서 주시길 바랍니다.

거문고 연주가
제 1회 서울예술상 대상
허 윤 정

서울문화재단 20주년을
축하드리며, 그간 문화로
꽃 피우는 세계 일류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귀 재단의 눈부신 노력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현대의 다양한
문화예술뿐만 아니라 오랜
전통문화가 살아 숨 쉬는
동북아시아의 역사도시
서울이 우리 시민들과
국민들에게는 뿌듯한
문화적 자긍심을 드리고,
서울을 찾는 이웃 나라
사람들에게는 평화와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지구촌의 문화 선진 도시로
기억되도록 앞으로도
서울문화재단이 더욱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립국악원장 **김 영 운**

서울문화재단의
20년은 단단한 초석이었고,
앞으로의 시간은 빛날
것입니다. 그 역사 속에
장애예술인이 함께하고
있어서 더욱 반짝입니다.
태어나서 지금껏 단 한 번도
주거지가 서울을 벗어난
적이 없는 서울 토박이로서
서울문화재단의 성년을
온 마음으로 축하드립니다.

한국장애예술인협회 회장
방 귀 희

20년 성년이 되는
서울문화재단의 성장과
발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술인들을
위한 다양한 창작공간 운영,
시민들과 함께 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
축제 등을 통해 활기차고
아름다운 도시, 서울을
가꾸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재단을 늘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수도 서울의
문화정책을 선도하는
기관으로서 앞으로
더욱 크고 넓은 행보를
기대합니다.

부산문화재단 대표이사 **이 미 연**

벌써 재단과의 인연도
5년이 되어가네요. 그동안
다양한 활동을 하며
지속적으로 진화 발전해
온 서울문화재단 2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많은
예술가와 관계자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왔고 서울
시민들의 삶에 예술이라는
귀중한 선물을 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멋진 행보 기대합니다.

아트센터 나비 관장 **노 소 영**

서울의 문화를 꽃 피우는 곳 서울문화재단

서울문화재단의
이십 년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작가들에게
든든하고 울창한
방풍림이 되어 주세요.

소설가 편 혜 영

지난 20년간,
서울문화재단이 있어
서울은 예술 하기 좋은 도시,
그리고 문화가 있는 도시로
눈부시게 성장했습니다.
서울문화재단의 20주년
생일과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며,
앞으로도 예술인과
시민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기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서울관광재단도 서울이
문화, 예술 그리고
관광하기 좋은
매력특별시로 성장하는데
함께 고민하고,
힘을 보태며
길을 걸어 나가겠습니다.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 길 기 연

서울문화재단의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서울시의 문화예술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재단 구성원
한분 한분의 열정과
노력의 결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세계L&B와 2019년부터
이어온 인연이 지금까지
지속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재단 담당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난 20년의
여정을 넘어 문화와 예술의
다양한 가치를 위해
더욱 발전하고 시민에게
사랑받는 서울문화재단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신세계L&B 대표이사 송 현 석

효성과 서울문화재단의
인연은 2018년부터 7년째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장애인 창작 레지던시
잠실창작스튜디오에서부터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까지,
서울문화재단과 함께할
수 있어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문화재단이
문화와 예술로 행복한
서울을 만들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서울문화재단 20주년,
축하합니다!

효성그룹

안녕하세요? 서울문화재단
2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문화와 예술이 융성한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 힘든
여건에서도 20년간 예술가
지원사업 및 시민들을
위한 다채로운 공연,
축제로 서울시 문화지형을
바꿔주신 서울문화재단
대표님, 이사장님 이하
구성원분들 모두에게
서울시민의 한사람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세월에 이룬 것보다
앞으로 더 많은 것들을
펼쳐나가시길 기원합니다.^^

서울시립교향악단 사장 손 은 경

축하합니다, 스무 살!
2004-2023

짧지 않은 세월, 우리
무용인들과 함께 걸어온
서울문화재단이 이제
20살의 청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무용가,
예술가가 예술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는 울타리가
되어 주길 바랍니다.
서울문화재단의 창립
20주년을 축하합니다.

한국무용협회 이사장 조 남 규

서울문화재단의 창립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여 년간 서울문화재단의
다양한 노력 덕분에 서울
시민과 예술인들을 위한
알차고 다양한 예술
프로그램과 교육,
성장 플랫폼들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세계 문화도시로
더욱 주목받고 있는
2024년 서울에서
시민과 예술가들을 위한
서울문화재단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과 예술가들
모두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서울문화재단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예술의전당 사장 장 형 준

대한민국 하면 서울이
떠오르고 그 서울의
문화를 꽃피우는 곳이
서울문화재단입니다.
경제로 세계 10대 강국인
대한민국이 문화예술
분야별로는 세계
1위 국가가 됐습니다.
그 중심에서
서울문화재단이
지금까지 힘써 노력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와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화이팅 서울문화재단!

한국음악협회 이사장
이 철 구

빛나는 열정으로
성장하는 20년 동안,
문화 예술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중한 순간을 함께
축하할 수 있어서
기쁜 마음입니다.
더 나은 예술 도시를
위한 재단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더 많은 발전을
기원합니다.

배우 손 숙

서울문화재단의 지난
20년간의 성과는 많은
예술인에게
큰 영감과 도전의식을
주었으며, 앞으로의
20년도 현장예술인들과
소통하면서 더 큰
발전과 성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한국연극협회 이사장
손 정 우

연희문학창작촌에서
글을 쓰며 지낸
시간은 창작의 기쁨과
씨름이 교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술가의 삶과 창작을
지지하고 응원해 준
지난 20년을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재단의
번창을 기원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소설가 성 석 제

안녕하세요 소프라노
박혜상입니다.
지난 가을 함께한
노들섬에서의 추억이
아직도 여운에
남습니다. 추운데
여러모로 애써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좋은 콘텐츠와 여러
문화사업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한 시민의
구성원으로서
그리고 음악가로서
함께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소프라노 박 혜 상

SECTION 1

재단

FOUNDATION

서울문화재단 대학로센터
예술은 작은 세계의 발화 이다
예술은 심미안의 새싹을 자라게 하는 햇빛샤워 이다
예술교육은 감정의 발견 이다
예술교육은 재미 이다
예술교육은 언러닝 이다
예술교육은 상상 이다
seoul performing arts festival
2022 서울국제공연예술제

1.1.

특별 대담

과거-현재-미래

일시: 2024년 2월 8일

장소: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참석: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초대 대표이사)
이창기(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2004년 설립된 재단 정책 목표는 문화도시 서울의 창조였습니다.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과제로 삼았던 문화예술 지원활성화, 문화예술 창작환경 조성, 네트워크 기능 강화, 시민문화향수 확대는 20년이 지나는 세월동안 더 촘촘하게 다져지면서 지금도 재단의 주요한 방향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문화예술 선순환 생태계 조성, 일상에서 누리는 문화예술 가치 확산 등 문화예술의 다양한 가치를 발현시키고, 시민과 함께 공감하는 문화를 이끌어가겠다는 비전이 더해질 수 있었던 건, 오랜 시간 켜켜이 쌓인 과정들이 만들어낸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초대 대표이사를 역임했던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현 서울문화재단 이창기 대표의 대담을 통해, 서울문화재단의 지난 20년을 돌아보고 문화예술 전문기관으로서 새로운 역할과 비전을 담아봅니다.

유인촌
이창기

이창기 서울문화재단이 올해로 20년을 맞았습니다. 초대 대표이사로 재단의 기틀을 만들어주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배우로 생활하셨고 또 문화예술 행정가로 활동하시다가 내려 놓으셨는데 다시 중책을 맡게 되셨습니다.

유인촌 어쩌다가 이 일을 하게 되었을까 생각해보면 팔자타령을 해야 하는데요. 재단 3년, 문체부 3년, 다시 또 행정 일을 하게 됐네요. 그 외에 문화특보나 예술의전당 이사장 등을 했지만, 정말 예기치 않은 일들이 2004년부터 지난 10년 동안 있었어요. 이후에 다시 연극을 하면서는 이쪽 일을 잊어버리고 관여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서울문화재단은 자전거를 타고 청계천 건너편으로 많이 지나다니긴 했습니다ㅎㅎ. 세월을 따져보면 이쪽 일이 벌써 20년이 넘어가니까 오랜 시간을 문화예술행정 안에 있었구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창기 재단 대표로서 활동하셨을 때와 중앙에서 활동하는 것이 아무래도 차이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서울'이라는 도시를 상상하고 고민했던 것과 규모와 체계도 다를 테니까요.

유인촌 재단에서 일할 때는 정치 환경에서 벗어나서 일할 수 있었던 게 좋았던 것 같아요. 중앙정부로 넘어오는 순간 정치 한복판에 던져지고, 재단에서 일할 때 느끼지 못했던 정무적 판단을 요구하는 일도 많아요. 큰 의미를 두지 않았던 것들이 굉장한 의미로 커지기도 하고, 일과 관계없는 외적인 요소들이 담기기도 해요. 중앙정부 일은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여러 부처가 같이 협업을 해야 하는 일이어서, 재단보다는 복잡하고 다양한 것을 가지고 있죠. 장관으로 일하는 게 두 번째인데 전보다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보내고 있죠.

이창기 20년 전 재단에서 활동하셨을 때와 지금은 많이 달라졌는데, 그동안 예술현장에서 재단을 바라보셨을 때 느끼시는 변화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무엇인가요?

유인촌 일단 조직 자체가 커졌죠. 그때는 직원이 37명이었는데요. 지금은 300명이 넘나요?

이창기 전체 인원을 다 하면 300명 정도 됩니다. 재단 설립 때보다 약 10배 가까이 규모가 늘어났다고 볼 수 있겠네요.

유인촌 그러니까요. 저는 직원을 뽑을 때 모두 제가 인터뷰해서 뽑았어요. 정관, 조례 처음 만들 때 복잡한 작업들을 같이 했었죠. 지금은 공간도 많겠지만, 그때는 작은 사무실 두 개에서 시작했어요. 그런 점에서는 보람도 느껴져요. 그때 제가 청계천 본사 건물을 만들어놓고 나왔어요ㅎㅎ. 지금 들여다보면 일하고 있는 범위도 넓어졌고, 직원들 전문성도 높아진 것 같고, 그만큼 세분화되었다고 느껴요. 처음 살림을 꾸리고, 직접 사람을 뽑고, 책상도 세팅하면서 시작했던 곳이라 여전히 애착이 많이 가는 곳이에요.

예술공간 운영

이창기 말씀처럼 당시에는 청사도 없었는데, 장관님께서 만들고 가셨죠ㅎㅎ. 지금은 재단에서 운영하는 예술 공간이 올해 개관하는 것까지 포함하면 20개까지 확대되었으니 그만큼 양적, 질적으로 성장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저는 단순히 공간을 늘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각 거점에서 특화된 예술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수요자 중심의 문화 활동이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유인촌 공간은 일차적으로 창작 환경이니까 공간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만큼 중요해요. 개인적으로는 예전부터 예술가들에게 지원금보다는 공간을 지원해 주자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직접 지원도 좋지만 사람, 환경, 공간, 홍보마케팅 이런 것을 더 지원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이창기 삼선교 사거리에 새로 생기는 서울연극창작센터 같은 경우도 대학로에 있는 서울연극센터와 달리 공연장, 스튜디오 등 연극 창작과 발표, 연극인의 활동을 위한 거점으로 조성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어요. 올해 강북, 서초, 은평에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가 개관할 예정이기도 한데,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예술 공간은 예술가들의 창작활동 공간이자 지역의 새로운 문화예술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유인촌 그런 것이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은 문화예술밖에 없거든요. 예술 공간이 만들어지면 지역이 살아나는 거에요. 서울시가 자치구에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면, 문체부는 광역시도에 그런 예술 공간, 예술단체를 만들려고 고민하고 있어요. 지역에 예술 무대를 만들어 서울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이 많이 내려갔으면 좋겠어요. 지역에서는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이창기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긍정적인 일인데 시행과정이 쉽진 않겠어요.

유인촌 단체를 관리운영하고 도에서 일어나는 일을 전담하는 기획자를 붙여주려고 해요. 올해 예술단 10개를 만들어서 운영해보고 성과가 좋으면 내년에 더 확대해서 예술가들 일자리 창출도 고려하는 거예요. 계약 형태로 운영하다 자리 잡으면 단원으로 활동하는 방식이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어요. 이를테면 공립이라는 타이틀을 주고 활동하게 하고, 작품 할 때 출연료를 주면서 안정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준다면, 예술가들에게도 지역의 시민들에게도 문화향유의 기회를 넓힐 수 있는 일이 될 거고요.

이창기 재단 창립 시절에도 서울열린극장 창동 같은 문화공간들을 통해 시민들을 가까운 곳에서 만날 수 있는 시도들을 해왔다고 생각해요.

유인촌 재단은 그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지역 재단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게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예술가들에게 필요한 공간을 지원하면서, 시민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건 좋은 정책이죠. 재단은 어디선가 건물을 더 많이 얻어와야 합니다. 서울시장님을 더 설득해야 해요(웃음).

예술지원

이창기 문화예술 분야 예산을 늘려 지원을 확대하되 잘 쓰일 수 있도록 사후지원제도 같은 사업을 강조하셨죠. 저도 공모사업 뿐만 아니라 예술지원을 통해 발표된 결과물이 확산될 수 있는 지원도 필요하다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인촌 예술지원정책이라는 것은 다 간담회를 통해 만들어졌다고 생각해요.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정책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 의견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전체적으로 이게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렇게 가게 되는 거죠. 요즘에는 제가 서울문화재단을 많이 벤치마킹하고 있어요. 그만큼 일을 잘하고 디테일하게 하고 있다는 건데, 재단은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세밀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좋은 정책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창기 지금 우리 사회에 AI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사회, 문화, 경제 등 전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기도 하죠. 저는 예술정책도 현재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전환하고 변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재단이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유인촌 맞아요. 지원은 끊임없이 변해야 해요. 이렇게 했다가 내일은 또 이렇게도 해보면서 계속 바꿔야하는데, 한편으로는 뭔가 바꾸는 것에 대해 알레르기도 있죠. 하지만, 정답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지금도 순수창작 지원, 향유자 지원은 구분이 되면 좋겠고, 예술가를 지원한다면 분명 결과물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해요. 올림픽 선수를 지원할 때 확실하게 메달을 딸 수 있게 지원해야 하는 것처럼, 확실하게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해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창기 얼마 전 당혹스럽다고 느꼈던 게, '창작지원사업에 떨어졌는데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죠'라는 말을 들을 때였어요. 지원제도의 현실적 한계를 보는 것 같았죠. 높은 경쟁률 때문에 불가피하게 공모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기는 하지만, 세금으로 마련된 지원금이 좋은 작품을 만드는 데에 잘 쓰이고, 국민의 문화향유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도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술가와 작품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켜 티켓파워를 높이고 예술단체의 재정적 경쟁력을 되살리는 한편, 시민들에게는 양질의 결과물을 확산해 시민의 우수작품 향유 기회가 넓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서울예술상, 서울희곡상 등이 이러한 맥락에서 레퍼토리 개발과 확산을 위해 시작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인촌 저 역시 현장에서 활동하면서 느끼지만, 지원금이 좋은 효과가 있는 반면, 잘못하면 독이 되는 측면도 있다는 거죠. 지원이 없으면 작품을 하지 않는, 오히려 지원금의 부작용이랄까요. 너무 의지하다보니 지원금이 없으면 창작을 하지 못한다는 건 심각한 현실인 것 같아요.

이창기 단순히 서류보고 지원금 주는 형태를 벗어나서 지원방식의 새로운 관점의 전환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말 그대로 촘촘한 그물망처럼 정교한 지원을 통해 지원 사각지대를 줄이고,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 기반을 마련하려 하고 있어요. 청년예술지원이나 원로예술지원 같은 경우가 그렇고, 융합예술분야의 신진 예술가를 지원하는 것도 같은 선상에서 추진하고 있는 최근의 변화이기도 합니다.

유인촌 극장 중심의 지원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극장은 좋은 작품을 구성하기 위해 노력할 테니까 더 명확한 심사 기준을 갖게 되는 거죠. 관객 입장에서 좋은 작품을 올리는 곳이라고 평가받으면 그 극장은 브랜드를 갖게 되는 거니까 정말 객관적으로 지원단체를 선정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죠. 참고로 외국의 소극장들은 이미 전문화되어 있는 곳들이 있어요. 창작극 초연만 하는 극장도 있고, 실험극으로 널리 알려진 극장도 있죠. 재단에서 그런 시도를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지만, 몇 개 프로그램으로 시도해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이창기 새롭게 시도해 볼 여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유인촌 요새 24시간 이런 생각만 하고 있어요ㅎㅎ. 뜬금없는 이야기도 많이 하지만, 제가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현장 예술가들을 도울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광역문화재단

이창기 서울지역 광역재단으로서 재단의 역할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습니다. 요즘 서울 지역 자치구 문화재단들의 공통된 의견 중에서, 전체 예술인 중 많은 분들이 서울에 거주하거나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정작 중앙정부 지원은 배제되어 있어서 역차별이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인구대비 향유 비율을 본다면 지방보다 열악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유인촌 사실 그 부분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늘려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25개 자치구에 구립 오케스트라, 극단 다 만들어야 하고, 서울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문체부 예산으로 하는 것이 한계가

있는 거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중앙정부, 지자체, 재단 매칭으로 의논할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급여를 주는 고용방식 말고, 예를 들어 시즌단원으로 종로구 예술단을 만들든,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지역별로 특화해도 좋고요. 지역에 따라 인구가 4~5만인 곳도 있는데, 서울시 자치구는 50만이 넘잖아요. 우리가 공동기획을 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해요. 중앙정부와 서로 잘 조정하면 안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예산을 늘려가야 해요. 광역문화재단으로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창기 2023년에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장으로 선출되면서 광역문화재단 간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소통, 정책 및 교류사업 개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문화재단을 비롯해 전국에 17개 광역재단이 있는데,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 확대, 예술가를 위한 지원, 기초문화재단과의 연계를 위해 어떤 부분을 더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유인촌 서울시는 시장님의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서 정책적 지원이나 예산지원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모든 지자체가 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지자체장의 관심 정도에 따라 문화예술 정책지원이나 예산지원의 수준이 달라지고 이에 따라 지역재단의 발전이나 위상도 달라질 수 밖에 없죠. 지자체장들이 애정을 갖고 예산도 지원해주고 지역재단이 역할을 하게 해주면 좋겠는데 그게 조금 아쉬워요. 예산도 적고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일하고 싶어도 활동의 범위가 너무 좁은 거죠. 문화재단의 역할 중 하나는 지자체장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계속 설득하며 하나씩 사업을 함께 하면서 중요하다고 설명을 해야 합니다. 쉽지 않다는 걸 잘 알지만, 재단 대표들이 정말 공무원, 지자체장, 지역주민을 부지런히 찾아다니며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재단의 향후 20년

이창기 오늘 말씀 나누면서 재단이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어떻게 가다듬고 만들어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고민하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정책 부분 외에 한 사람의 예술가의 입장에서 서울의 연극이 어떤 부분에서 더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요.

유인촌 지금 보면 예술계가 중간세대가 없고, 어른들도 몇 분 안 계신 것 같아요. 대학로도 젊은 세대들로 다시 시작되는 느낌이고요. 전에는 단체 안에 다양한 세대가 활동했는데, 지금은 다양한 세대와 함께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게 좀 아쉬워요. 예술은 천재적으로 그 지형을 깨뜨리고 끌고 갈 사람이 있어야 해요. 그런 사람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하죠. 대학로는 철저하게 실험공간으로서 그 안에서 끊임없이 실험하고, 부딪히면서 자기 것을 찾는 게 중요해요. 거기서 성장해 완성도 높고 예술성 높은 작품을 만들게 되는거죠. 제가 작년에 출연한 〈파우스트〉나 얼마 전 공연한 〈고도를 기다리며〉 같은 경우도 한번 보세요. 티켓 오픈하면 매진되잖아요. 예술은 가치 있는 작품, 특별한 경험의 공간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걸 잘 기획하면 충분히 흥행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무대에 올랐을 때 믿음을 줄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창기 재단에서 향후 20년을 바라보며 고민하는 것도 바로 그런 지점에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재단은 양적으로 많은 확장을 해 왔어요. 창립 당시에 비해 사업예산 규모가 10배 이상 늘어났고 조직 규모도 많이 커졌어요. 비정규직을 줄이고 정규직 중심으로 효율화시키면서 안정적 운영기반도 만들었어요. 또 20년간 25개의 공간을 운영했는데 현재는 일부 공간을 자치구와 민간 운영주체로 전환시키고 광역재단으로서 새로운 거점공간 중심으로 운영구조를 재편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다각적인 창작지원 확대에 중점을 뒀다면, 지금은 사각지대 없는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예술가들의 역량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서 시민들이 양질의 문화향유를 더 누릴 수 있도록 구조화함으로써 예술계가 자생력과 지속가능성을 갖추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화향유 사업 또한 축제나 문화행사의 개최에 그치지 않고, 시민들의 여가문화활동 변화에 따라 생활권 예술향유와 참여적 예술경험을 확대하고 관광과도 연계한 실효성 높은 사업으로 기획해 가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수준 높은 향유 욕구가 K아트의 자양분이 되고 이것이 다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그야말로 '예술 하기 좋은 도시, 예술 누리기 좋은 도시' 서울을 만드는데 앞장서는 것이 재단의 미래비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때로는 선도적으로 혹은 과감하게 기존에 해왔던 사업뿐만 아니라 공간과 조직을 재정비해 새로운 20년을 시작하려는 출발 지점에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재단 20주년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소회와 기대를 들으며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촌 서울문화재단이 있고 없고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단의 주도 하에 서울의 문화예술정책이 현장 중심으로 개선된 것도 많고요. 대도시는 규모도 크고 이해관계도 복잡한데 어려운 시도를 계속 해나갈 수 있는 것도 재단이 있어서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문체부나 서울시가 직접 다 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전문성이 필요해서 재단을 만든 거잖아요.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는 분야별로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듣고 정리하느라 바빴는데요, 올해는 재단과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문체부, 서울시, 재단이 함께 만나서 우리나라의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함께 논의할 수 있을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술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통해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더 가깝게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1.2.

특별 기고

서울시 문화정책 20년, 그리고 미래 의제

라도삼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문화정책

문화란 한 사회를 보여주는 투영물이다. 우리는 문화를 통해 그 사회를 알 수 있고, 그 사회가 가진 욕망과 기호(嗜好), 태도를 알 수 있다. 문화는 때론 예술(적 행위)로 표현되기도 하고, 기호적 형태의 행위나 일상의 태도로 드러나기도 한다. 이에 우리는 좀 더 미학적으로, 또 왜곡됨 없이 문화가 드러나도록 예술을 발전시키기도 하고, 다양성 보전을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를 통해, 또 다양한 문화기반을 만들어 모든 시민이 자신을 표현하고 살 수 있게 한다.

또한 문화는 자신의 정체성과 이미지를 형성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어떤 성격과 색깔을 가졌는지 보여주고 태도를 결정하도록 만든다. 이에 각 도시는 문화를 통해 자신의 이미지를 만들고, 도시에 대한 긍정적이고 호감 있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도시를 마케팅하는 수단으로서, 경쟁력의 전략으로서 문화를 활용하는 것이다.

지방자치제 이후 서울시는 나름의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문화정책을 추진해왔다. 한편에서 시민들의 문화를 육성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다른 한편에서 서울의 역사와 정체성 제고를 위해 예술 도시로서 다양한 예술을 꽃피우는 한편, 도시 창의성을 높이기 위해 힘써 왔다. 시민의 삶과 도시의 정체성,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온 것이다.

이 과정에서 서울의 문화는 발전해 왔다. 그 모든 것이 정책에 의해 결정되었다고 볼 순 없지만, 정책 또한 다양한 측면에서 현재의 서울문화를 만드는 데 이바지해 왔다. 이 글은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1995년 이후 서울시 문화정책을 살펴봄으로써 현재의 문화를 이해하고 앞으로 주어질 주요 정책 방향을 논의해보는 데 목적이 있다. 과연 서울시가 어떤 시대 의제에 반응해 어떤 정책을 시행해 왔는지가 이 글의 논점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 문화정책을 총 다섯 가지의 시기로 나눠보았다.

민선 1~2기
(1995-2001)

문화도시 서울을 향해 첫발을 내딛다

1991년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1995년 단체장이 선출되며 지방자치제가 열렸지만, 곧바로 지자체 중심의 문화정책이 이뤄진 것은 아니다. 여기엔 정책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다. 따라서 지방자치제 초기인 민선 1기는 자체 정책보다는 정부 정책에 따라 관련된 정책을 집행하는 데 집중했다. 이 시기 이루어진 주요한 시책은 김영삼 정부의 '문화복지' 정책에 따라 시행된 '문화의 거리' 조성이나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같은 문화기반을 확충하는 것이었다.

문화의 거리란 길이 1~3km 거리에 각종 조형물과 조각품을 설치하거나 가로등, 벤치, 보도블록 등 각종 가구 디자인을 개선해 거리의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일상에서 예술을 접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사업 목적이었다. 정부의 정책에 호응해 서울시는 2000년 6월을 기준으로 문화의 거리 총 21개소를 조성한다. 그러나 이 문화의 거리는 점차 정책의 관심에서 사라져 2000년 이후 노원문화의 거리(2008년)를 마지막으로 조성되지 않는다.

문화예술회관(이하 문예회관)은 1995년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에 따라 설치한 것이다. 개정된 법 제9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 진흥 및 문화 향수 기회 확대를 위해 문예회관을 설치하고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1995-2002년 사이 총 5개소의 문예회관을 건립한다. 이후에도 꾸준히 건립되어 2023년 12월 기준 서울시 내 문예회관은 총 19개소에 이른다.

지방문화원도 이때 설치되었다. 1994년 「지방문화원진흥법」이 제정되었고, 이를 계기로 각 자치구에 지방문화원이 설치된다. 현재 25개 모든 자치구에 지방문화원이 있다.

서울시가 나름대로 의지를 갖고 정책을 추진한 것은 민선 2기다. 민선 2기에 들어 세계적으로 일기 시작한 친환경 도시 조성 흐름에 서울이 가진 역사자원을 활용해 도시를 마케팅하고자 **역사문화 탐방로**를 조성한다. 역사문화자원을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가로 시스템을 바꾸고, 안내판을 설치한 것이다. 이 계획에 따라 '인사동길', '대학로', '명동길', '돈화문 앞 고궁길', '성균관길', '경복궁길', '정동길', '낙산길' 등이 '역사문화 탐방로'로 조성된다. 또한 '북촌마을 만들기'와 인사동 보전 사업이 펼쳐진다. 그 결과 2002년 인사동이 문화지구로 지정되어 관리·운영된다.

민선 3기
(2002-2006)

본격적인 문화정책의 출발
문화도시 서울을 향한 지반을 만들다

2002년 월드컵(2002.5.31.-6.30.) 종료와 더불어 민선 3기가 시작된다. 그 어떤 월드컵보다 뜨거웠던 **2002 한일월드컵**은 폭발적인 거리 응원을 통해 축제의 가능성과 문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더불어 1990년대 초중반부터 불기 시작한 친환경 사회로의 전환과 뉴어바니즘(New Urbanism)으로 불리는 새로운 도시발전 전략은 서울의 발전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꾼다. 환경과 문화를 바탕으로 도시를 발전시키는 새로운 전략이 형성된 것이다.

청계천 복원과 서울광장 조성과 같은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 체계가 형성되고 보행공간이 확대되는 한편, 뉴타운을 통해 새로운

주거환경을 조성한다. 이에 문화정책 또한 기반을 강화하고, 서울의 문화를 확장하기 위해 여러 사업을 펼친다.

우선, 문화정책의 기반을 조성한다. 2004년 **서울문화재단**을 설립했고, 2006년 2월 서울시 문화 기본계획인 「**비전 2015, 문화도시 서울**」을 발표한다. 이어 2006년 7월 서울시 문화도시 계획의 사업 방향과 거버넌스 구조를 담은 「서울시 문화도시 조례」가 제정된다. 문화정책 시행을 위한 기관, 계획, 조례 등을 갖추게 된 것이다.

서울문화재단은 2004년 설립 당시 360여억 원 규모로 조성되어 있던 '서울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기본재산으로 출범한다. 문화예술정책을 이끌어가는 또 다른 주체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2024년 창립 20주년을 맞는 서울문화재단은 '문화와 예술로 행복한 서울 만들기'를 목표로 '문화예술의 다양한 가치를 발현시키고, 시민과 함께 공감하는 선도적 문화예술기관'으로 나아가기 위해 서울 문화예술 인프라의 강화, 서울 문화예술 선순환 생태계 조성, 일상에서 누리는 문화예술 가치 공유, ESG 사회적 책임 강화 및 지속 경영 혁신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비전 2015, 문화도시 서울」은 서울시가 수립한 첫 번째 문화계획이다. **'문화로 행복한 도시, 세계 일류도시 서울'**을 비전으로 문화예술, 문화공간, 문화복지, 문화산업, 시민문화 등 총 5개 분야 27대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주목할 점은 당시 여타(지역)의 문화계획과 달리 도시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계획으로 이뤄졌다는 점이다. 계획 당시 서울시는 문화국장을 단장으로 실국장 13명이 참여하는 '문화도시기획단'을 만들었고,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문화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해 계획을 수립한다. 최초의 도시 단위 종합 문화계획이었던 것이다.

「비전 2015, 문화도시 서울」의 실행기반으로 문화도시 조례가 제정되었다. 인간중심적인 문화도시 구현을 목표로 제정된 문화도시 기본조례는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문화예술의 육성,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문화복지 증진, 문화산업 육성, 시민문화 정착 등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규정했다. 또한 문화도시발전 계획을 수립해 시행토록 하고, 시민 의견 수립 및 민간협력체계로서 서울문화포럼을 구성하도록 했다. 이에 「비전 2015, 문화도시 서울」에 참여한 위원을 중심으로 (사)서울문화포럼(2006년 11월 출범)을 조직·운영하게 된다. 이 포럼은 2012년 조례 개정에 따라 문화도시정책자문위원회로 바뀐다.

한편, 민선 3기 공연예술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을 기반으로 여러 예술기반 시설이 조성된다. 상암동에 방송단지인 DMC(Digital Media City)가 착공(2004)되었고, 세종문화회관이 리모델링(2003-2004)을 거쳐 재개관된다. 다른 한편 세계적인 시립교향악단을 만들고자 한강대교 한복판에 있는 노들섬에 오페라하우스를 건립하겠다는 계획(2005)아래 정명훈을 새로운 지휘자로 영입(2006)한다. 예술 기반을 강화하는 여러 정책이 취해진 것이다. 참고로 **노들섬**은 맹꽁이가 발견되는 등 여러 문제를 낳다가 민선 5기인 2013년 전문가 포럼 끝에 적정 규모의 문화시설 조성으로 방향이 바뀌었다. 2017년 '노들꿈섬'이란 이름으로 착공, 2019년 9월 공사를 완료해 현재와 같은 복합문화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예술·문화 지역의 상업화에 대응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 중 하나였다. 지역 곳곳에서 예술(가)이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현상을 경험하며 서울시는 이들 지역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한다. 2002년 인사동을 문화지구로 지정하고, 2004년 **대학로**를 **문화지구**로 지정한다. 문화지구는 이후 경기도 헤이리 예술인 마을(2009), 인천 개항장, 제주 저지 예술인 마을(이상 2010), 서초동 악기 상가(2018) 등이 지정되었으며, 2023년 기준 서울시에는 총 3개소의 문화지구가 운영되고 있다.

월드컵 이후 활성화된 시민 열기를 지속하고, 세계에 서울을 알리는 다양한 도시 마케팅 전략이 추진된다. 2002년 새로운 도시브랜드인 '하이서울'(Hi Seoul)을 만들고, 이에 기반해 2003년 도시 브랜드 축제인 **하이서울페스티벌(Hi Seoul Festival)**을 개최한다. 본래 10월에 열리던 '시민의 날' 행사를 5월로 옮겨 다양한 예술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방식의 축제를 개최한 것이다. '하이서울페스티벌'은 이후 2008년에 사계절 축제로 바뀐다. '하이서울'은 2016년 새로운 도시브랜드로, 'I·Seoul·You'가 나오며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민선 4기
(2006-2010)

창의문화도시(Seoul Culturenomics)
창의 도시를 위한 도시환경을 만들다

1990년대를 지나며 부상하기 시작한 신자유주의는 2000년대 창조도시라는 새로운 도시 상을 만들어 낸다. 창조도시란 '새로운 가치나 자원이 창출되는 도시'이다. 각 도시는 창조도시 주창자인 리차드 플로리다(Richard Florida)와 찰스 랜드리(Charles Landry), 사사키 마사유키 등의 조언을 바탕으로 창조적인 계급과 산업을 유치하고자 도시환경 개선에 주력한다. 첨단의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미학적이고 개방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 도시 경관을 정비하고 역사적인 자원을 존중하는 한편, 편리한 교통 환경을 구축하고 여유로운 삶의 질을 만드는 공원과 문화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한다. 도시를 상징하는 랜드마크와 여러 문화시설이 건립되는 것도 이때다. 이에 서울시 또한 창조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나선다.

세계 도시 서울을 목표로 여러 사업을 추진한 민선 3기에 이어 민선 4기는 "'그저 좋은 것'(something good)이 아닌 '오직 위대한'(something great) 도시가 되어야 한다"며 더욱 강한 도시 경쟁력과 도시 혁신을 요구한다. 민선 4기에 추진된 도시는 '디자인 도시' 다. 산업주의인 '하드 시티'(Hard City)를 넘어 '소프트 시티'(Soft City)로 발전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서울시는 문화를 넣어 "서울을 새롭게 발전하는 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한다. 그것이 2008년 4월 **서울 컬처노믹스(Seoul Culturenomics)**란 이름으로 발표된 **「창의문화도시 마스터플랜」**이다.

이 계획은 세계 수준의 창의 문화 인구 창출과 디자인을 통해 브랜드 가치 창조를 목표로 '예술창의기반'과 '도시 문화환경 창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도시의 유휴시설을 활용한 창작공간 조성과 장르별 창작스튜디오 조성, 문화예술지역의 보전, 한강 문화공간 조성 등과 같은 목표를 제시한다. 그 결과 서울시 곳곳에 창작공간 조성이 추진되고, 문화특화지역 육성 사업이 추진되는 한편, 한강르네상스를 활용한 문화공간 조성사업과 서울 곳곳에 예술시설을 건립하는 **문화의 샘** 사업이 추진된다.

가장 중요한 사업은 **창작공간 조성**이다. 2009년 6월 19일 문을 연 **서교예술실험센터**를 시작으로 같은 해 **남산예술센터**(2009.06.08.), **금천예술공장**(2009.10.07.), **신당창작아케이드**(2009.10.16.), **연희문학창작촌**(2009.11.05.) 등이 문을 열었고, 그 뒤를 이어 **문래예술공장**(2010.01.28.)과 **성북예술창작센터**(이후 서울예술치유허브, 2010.7.28.),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2010.12.17.), **홍은예술창작센터**(현 서울무용센터, 2011.05.11.) 등이 건립·운영된다. 서울시는 **청계창작스튜디오**(2007.12.27.), **남산창작센터**(2007.10.10.), **서울시장애인미술창작스튜디오**(2007.10.05. 현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 **서울연극센터**(2007.11.10.) 등을 포함한 창작공간 운영을

서울문화재단에 위탁(이후 일부는 고유사업화)한다. 남산예술센터는 본래 건물 소유주인 서울예술대학교로 반환되고, 남산창작센터, 서울예술치유허브,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서교예술실험센터 등이 운영을 종료하는 등 서울시 창작공간은 이후 여러 변화를 거쳤다.

문화특화지역 육성 사업은 서울의 상징적인 문화거점을 특화지역으로 육성하는 사업이었다. 당시 서울시는 도심 4축과 연계하여 1축(경복궁~숭례문) 역사문화거리, 2축(명동~을지로) 관광문화거리로, 3축(창경궁~남산) 녹지문화거리, 4축(대학로~동대문~장충단공원) 복합문화거리 조성계획을 발표한다. 이어 문화자원이 밀집한 인사동과 대학로, 홍대 등을 3대 거점으로, 9대 문화자원 밀집 지역(정동길, 삼청동, 평창동, 삼청동, 청담동, 문래동, 신사동, 삼각지, 서초동, 답십리 등)을 보전·발전시키는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인사동과 대학로에 한정되었던 예술거점 지역을 서울 전역으로 확장하여 추진하기 시작한 것이다.

한강르네상스 사업을 활용한 문화공간 조성사업으로 반포한강공원에 플로팅 아일랜드(Floating Island, 현 세빛섬)가 건립(2006-2011)된다. 노들섬 또한 오페라하우스 건립을 위한 국제 설계경기가 추진되었으나 여러 이유로 건립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문화의 샘 차원에서 여러 예술시설이 건립된다. 창동에 현재도 추진 중인 다목적 공연장 창동아레나 건립을 시작(2008)하고, 한남동 면허시험장 부지에 뮤지컬 전용 극장인 블루스퀘어(2009-2011)가 들어선다. 남산국악당이 개관(2007)하고, 삼청각이 고품격의 전통문화체험공연장으로 바뀌며, 서울을 대표하는 '서울대표도서관(현 서울도서관)' 건립이 추진된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Dongdaemun Design Plaza)도 이 시기에 착공(2009.04.29.)된다.

한편, 서울마케팅을 위한 사업도 강화돼 '서울문화의 밤'이라는 행사가 새롭게 개최(2008)된다. '서울문화의 밤'은 최초의 야간문화관광 프로그램으로 매년 8월 하순 개최되어 서울 소재 미술관, 박물관, 공연장을 심야까지 관람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2017년까지 시행되다 2018년 '문화로 바캉스'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후 2020년 코로나19로 행사가 전면 취소되면서 종료된다.

공공미술 차원에서 '도시갤러리' 사업이 추진된 것도 주목할 만하다. '도시가 작품이고 삶이 예술이다'란 모토 아래 공공장소에 예술품을 설치해 장소의 정체성을 높이는 데 주력한 사업이다. 2006년 공공미술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진된 **도시갤러리 프로젝트**는 2007년 총 30개, 2008년 28개, 2009년 20개 사업을 시행했고, 2010년에는 4개, 2011년에 6개 사업을 시행했다. 이 사업은 2012년 이후 종료되었다가 2016년 **서울은 미술관**으로 변경·시행되었다.

민선 5~7기
(2010-2021)

문화시민도시
시민의 문화권과 예술가의 도시권을 열다

창조도시가 번성했던 2000년대와 달리 2010년대는 전혀 다른 분위기 속에 시작된다. 무엇보다 국제금융위기(2007-2008)가 현실화하며 신자유주의에 바탕을 둔 '경쟁'보다는 '욜로'(YOLO: You Only Live Once)나 '웰빙'(well-being) 같은 개인의 행복과 삶의 가치를 중심으로 한 사회 환경이 펼쳐진다. 창조도시를 대신해 '공유도시'가 부상하고, 가치와 자원, 사람을 공유하는 가운데 서로 의존하고 사는 '공동체도시'가 떠오른다. 2000년대와는 전혀 다른 도시 비전이 형성된 것이다.

문화정책 또한 마찬가지다. 시민 행복과 삶의 질 관점에서 문화적 권리가 강조되고, 예술가들 또한 단순한 창작지원을 넘어 인간답게 살 권리, 도시적 권리가 강조된다. 문화의 민주화를 대신한 문화민주주의가 부상하고, 국민의 문화권을 보장하는 **「문화기본법」**과 **「문화다양성법」**, 그리고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2014)된다. 또한 「예술인복지법」(2011)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설립(2012)되어 예술인의 복지와 권리를 우선으로 하는 정책이 추진된다. 2000년대가 창조적인 계급을 중심으로 한 도시환경 창출과 예술을 활용한 지역 환경 조성이었다면, 2010년대는 시민의 문화적 권리와 예술가의 삶의 권리가 강조된 시기라 할 수 있다.

이에 맞춰 서울시 또한 시정의 변화를 꾀한다. 우선 마을을 중심으로 한 문화시정을 펼친다. 서울시 곳곳에 '마을예술창작소'가 조성되고 운영된다. 마을예술창작소는 주민이 운영하는 공간을 지원해 마을 단위의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2013년 시작되어 2022년까지 총 165개의 공간을 조성했다. 사업이 종료된 2023년에도 총 76개의 마을예술 창작소가 운영되고 있을 정도로, 단단한 주민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서울시는 문화분야 기본계획인 「비전 2015, 문화도시 서울」의 계획 종료 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변화된 시대 환경에 맞춰 다음 미래를 준비할 새로운 문화계획을 수립한다. 그 어떤 계획보다 시민참여를 존중한 「시카고 문화계획」(City of Chicago Cultural Plan 2012)을 모델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3년에 걸쳐 수립된 문화계획 **「비전 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2016), 새롭게 부상한 시민 행복에 맞춰 「비전 2015」에서 제시한 '문화도시'를 '문화시민도시'로 바꿔 시민을 중심으로 한 계획으로 개편한다. 이에 「비전 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은 시민 개개인의 행복에 맞춰 개인, 공동체, 지역, 도시적 차원에서 제기되는 문화 의제를 설정하고, 이를 집행할 행정 의제를 제시함으로써 계획을 완성한다.

개인 차원에서 제시된 것은 문화적 권리다. 이에 노동시간 축소를 비롯한 시민 주도의 예술체계 전환 등이 포함되어 있다. 공동체 차원에서는 공동체 활동과 포용 사회로의 전환을 목표로 문화 상생을 비전으로 내세우고 있고, 지역 차원에서는 일상의 문화공간과 문화적 도시재생을, 도시 차원에서는 도시의 역사성과 창조성, 예술성 등을 비전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리고 행정 차원에서는 시민 참여형 문화정책인 문화 거버넌스를 내세운다.

예술인 계획도 수립되었다. **「비전 2030, 서울예술인 플랜」**(2016)이 그것이다. 도시에서 예술가로 살아가는 어려움을 토로하고 생을 마감한 고(故) 최고은 작가 5주기를 맞아 서울시는 예술가의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높이고자 희망을 나타내는 'HOPES'를 키워드로 예술가의 주거(Housing, 주거 및 공간), 활동기회(Opportunity), 창작활동(Promotion), 교육과 교류(Education & Exchange), 지속가능한 생태계(Sustainability) 등을 목표로 새로운 계획을 세운다.

계획의 목표는 세계 10위의 예술인 도시를 조성하는 것이었다. 일본 모리기념재단 도시전략연구소가 측정한 도시경쟁력 지표를 보면, 서울은 40개 도시 중 6위로 높은 경쟁력을 보여주었으나 예술 분야는 35위로 최악이었다. 이에 예술가의 삶과 창작환경을 개선하여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계획한 것이다.

민선 5~7기에 주목할 것 중 하나는 생활 유산의 보전이다. 도시의 성장과 변화가 빠른 만큼, 도시의 생활 속에 남겨진 유산이 많아 이를 보전하고자 한 것이 민선 5~7기다. '미래유산' 프로젝트를 실행하여 '시민생활', '정치역사', '산업노동', '도시관리', '문화예술' 등의 분야에 등록된 미래유산은 2023년 기준 총 502개이다.

다른 한편, 생활 유산 보전을 위해 **박물관 도시** 사업도 추진했다. 2015년 테마박물관 조성사업으로 시작된 박물관 도시는 서울 곳곳에 특색 있는 박물관을 만드는 것으로, 이 시기

백남준기념관(2017), 돈의문역사관(2018), 이음피움 봉제역사관(2018) 등이 건립되었고, 새로 13개 박물관을 건립한다는 계획에 따라 서울생활사박물관(2019), 서울우리소리박물관(2019), 서울공예박물관(2021), 평창동서울시립아카이브(2023) 등이 건립되고 서울사진미술관(2024 예정),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2024 예정), 서서울미술관(2025 예정) 등이 개관 및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한 박물관·미술관이 건립된 것이다.

그 외 여러 문화시설도 건립되었다. 한남동 자동차면허시험장 부지를 활용한 블루스퀘어(2011)가 문을 열었고, 돈화문 앞 주유소부지를 활용한 돈화문국악당(2016)과 세종문화회관 내 S-씨어터(2018)가 개관했다. 폐관 위기에 빠진 **삼일로창고극장**(2018)도 거버넌스 체계로 운영되는 새로운 공공극장으로 문을 열었다.

공연장 외의 다양한 예술시설도 확충된다. 옛 구의취수장을 활용한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2015)가 문을 열었고, 김포가압장을 리모델링한 **서서울예술교육센터**(현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양천, 2016), 대전차방호시설을 활용한 평화문화진지(2017), 1931년 건축된 체부동 성결교회를 활용한 서울생활문화센터 체부(2021) 등도 새롭게 조성되었다. 또한 '지식문화도시'를 비전으로 옛 서울시청사가 서울도서관(2012)으로 리모델링된다.

한편, 세계 도시와 연계를 맺는 국제교류도 강화했다. 2013년부터 영국 런던에서 주관하는 도시문화정책 네트워크인 **세계도시문화포럼(WCCF:World Cities Culture Forum)**에 가입해 세계 도시와의 문화교류를 강화했다. 특히 2017년 '창조도시를 넘어서: 문화시민도시에서의 문화와 민주주의'를 주제로 서울 총회를 개최해 문화도시로서 서울의 성과를 보여주었다. 또한 2017년 동경, 베이징, 상해, 선전, 후에, 싱가폴, 시드니, 홍콩, 자카르타 등이 참여하는 **아시아도시문화포럼(ACCF:Asia Cities Culture Forum)**을 개최했다. 이 포럼은 2019년까지 개최되었으나, 2020년 코로나19 확산 이후 더 개최되고 있지 않다.

민선 8기
(2021 - 현재)

디지털·기후위기·양극화
문화 위기의 시대, 새로운 도전에 맞서다.

10년을 단위로 한 변화는 이 시기에도 찾아온다. 무엇보다 새로운 감염병인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얼어붙게 만들며, '코로나 이후'(Post-Corona)라는 새로운 사회를 만든다. 코로나 발생 전과 후가 다른 새로운 사회가 열린 것이다.

급속한 감염병 확산으로 대면 접촉이 금지되며 다중모임을 전제로 한 공연이나 전시, 관광, 여가활동 등은 모두 위기에 빠진다. 위기는 감염병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지진이나 참사 등에도 공연이나 전시 등 예술 활동은 멈춘다. 이 일상화 된 위험으로부터 대응할 방법을 모색해야 할 시기가 된 것이다.

2020년대 문화정책의 첫 방향은 생존이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거의 모든 정부가 예술(가)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지원정책을 펼친다. 창작지원을 위해 직접적인 비용을 투입하는 한편, 예술인 고용보험 등을 통한 생활 안정화를 위해 노력한다. 유네스코는 당시 예술회복(ResiliArt)●을 내세우고 예술인에 대한 직접 지원, 문화창의산업 지원, 문화산업 경쟁력 제고 등을 권고(2021)했다.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되자 나타난 것은 '일상 회복'이었다. 떨어진 사회 활력을

● UNESCO ResiliArt, https://www.unesco.org/en/articles/resiliart

어떻게 제고하며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인가? 뉴욕이나 런던 등 세계 대도시는 이 일상 회복에 주력했고, 우리 또한 일상 회복을 위해 문화이용권을 확대 발급하는 한편, 소득공제 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문화 활동에 참여하도록 독려한다. 이 시기(2021) **통합문화이용권**은 국민 197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씩 지급했다.

이 시기에 다른 한편으로 놀라운 것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었다. 대면접촉이 금지되며 온라인에 기반한 다양한 대화와 활동을 위한 기술이 발전해 메타버스(metaverse)라는 새로운 공간이 만들어졌고, AI라는 가상 주체가 등장했다. 이제 인간만 지능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닌, 가상의 주체가 활동하는 사회가 탄생한 것이다.

이에 각 도시는 디지털로의 전환에 빠르게 대응하기 시작한다. 서울 또한 2022년 3월 새로운 문화계획인 **「디지털 감성문화도시 서울」**을 발표하고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에 대응하고자 했다. '문화로 연결되는, 문화로 행복한 도시'를 비전으로 제시한 이 계획은 디지털 감성 문화도시, 시민문화향유도시, 2천년 역사도시 등을 3대 전략으로 10대 과제를 제시하였다. 10대 과제는 예술과 기술의 융복합, 다양한 미디어 예술 창출, 스마트 박물관·미술관 구현, 한강 및 지천 내 문화공간 조성, 사계절 축제 개최, 문화시설 확충, 문화예술 융성, 역사문화자원 복원·활용, 역사문화유산시설 건립, 성곽의 가치 제고 등이다.

코로나를 포함한 각종 재난의 확산과 디지털화 등으로 나타난 문제 중 하나는 양극화다. 경제적 양극화를 포함해 사회적 양극화, 정치적 양극화 등 모든 것은 극단으로 치닫는다. 세계 질서 또한 미국이 세계경찰 국가로서 위상을 다지던 때를 지나 모든 국가가 경쟁하며 다투는 시대로 귀환, 즉 '밀림으로 귀환'(R.Kegan, 2018)했다.

이에 양극화 해소를 위해 **동행·매력특별시**를 선언한 서울시는 시민 누구나 문화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문화동행'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준비한 것이 '서울청년문화패스'다. **서울청년문화패스**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19세에서 22세 청년에게 다양한 장르의 예술관람 기회를 부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기준) 청년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약 28,000명에게 1인당 20만 포인트(1포인트 1원)를 지급한다. 이 카드로 연극, 뮤지컬, 클래식·오페라, 발레·무용, 국악, 전시 등을 보도록 해 취약한 청년의 문화자본 축적 및 예술시장의 소비를 진작하겠다는 것이다.

'공연봄날'도 추진한다. '공연봄날'은 초중고 대상의 예술관람 지원 프로그램이다. 초등학교 6학년과 중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예술관람을 지원한다. 2022년에는 359개교 4만1천 명이 2023년에는 550개교 6만 5천 명이 참여했다.

예술교육시스템도 강화한다. **권역별 예술교육센터** 건립을 추진해 기존 도심권과 서남권 외 동북권 및 동남권, 서북권 등에도 예술교육센터가 운영되도록 한다. 특히 각 예술교육센터를 특화하여 부문별 예술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것도 주요한 전략 중 하나다. 이에 도심권 예술교육센터(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용산)는 '미디어' 중심으로, 서남권 예술교육센터(양천)는 '조형미술', 동북권(강북)은 연극·뮤지컬, 동남권(서초)은 음악, 서북권(은평)은 무용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른 한편 서울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상징적 문화시설 건립에도 주력한다. 상암동 하늘공원에는 '런던아이'(London-Eye, 런던)나 '아인 두바이'(Ain Dubai, 두바이)와 유사하지만 다른, 살 없는(spokeless) 형태의 '서울링'이 조성될 예정이고, **노들섬**은 '글로벌 예술섬'으로 디자인될 전망이다. 여의도 한강공원에는 새로운 랜드마크로 제2세종문화회관이 들어설 전망이며,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은 완전 리모델링을 거쳐 새로운 대극장과 클래식 홀로

개편될 예정이다. 이미 서울시는 세계적 시향을 위해 네덜란드 출신 음악감독 얍 판 츠베덴(Yaap van Zweden)을 영입(2023)한 바 있다.

문화정책이란 한 사회의 문화 발전과 문화적인 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정책이다. 전자가 좀 더 다양한 문화를 갖게 하는 것이라면, 후자는 그 문화를 바탕으로 사회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사회가 더 단단한 예술적 상태와 창의적 동력, 포용성 등을 갖게 하고, 이를 통해 사회 구성원은 좀 더 나은 삶의 질을, 사회는 좀 더 높은 상태의 경쟁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 문화정책이다. 이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와 각 도시는 치열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시 또한 마찬가지다. 2023년을 기준으로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1995년부터 지금까지 시대가 요구하는 의제에 대응하여, 서울의 문화를 다양화하고 이를 통해 도시를 발전시키려 노력해 왔다. 1990년대는 기본적 문화시설 확충과 보행권 확충 등 시민의 도시적 권리 제고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2000년대는 창조도시의 부상에 맞춰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예술기반 시설을 건립하고, 창작공간을 확보하는 등 예술생태 강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이후 개인의 행복이 존중된 2010년대는 시민의 행복을 위해 마을과 공동체 단위의 문화와 시민의 문화권, 예술가의 도시적 권리를 확장하려 노력했고, 2020년대는 급속히 확산된 감염병과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에 맞춰 위축된 예술시장의 복원과 일상 회복, 디지털 문화기반 강화, 문화동행 등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노력해 왔다. 나름의 원리를 갖고 시대 변화에 대응해 온 것이다.

이제 서울시는 또 다른 변화를 앞두고 있다. AI가 주도하는 새로운 문화 환경에 대응해야 하고, 실체로 다가온 기후 위기에도 대응해야 하며, 더 치열해지는 사회 갈등과 예술에 대한 욕망, 더 나은 도시의 환경과 문화에 대한 요구에도 대응해야 한다. 무엇보다 각 자치구에 설립된 문화재단과 공동의 협력 체계도 만들어야 하고, 시민 사회와 새로운 거버넌스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 지금까지 과제와는 전혀 다른 과제가 앞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 과제 앞에 어떤 답을 써 갈 것인가? 준비된 자에게 미래는 그저 내일일 뿐이다. 지금처럼 현재를 잘 준비하고 대응하면 내일이 올 것이다. 그 내일이 오늘처럼 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언제나 준비된 자의 몫으로, 지금처럼 떳떳하게 당당하게.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의 파이팅을 기대한다.

지방자치제 이후 서울시 문화정책 발전 과정

	민선 1~2기	민선 3기	민선 4기	민선 5~7기	민선 8기
연도	1995-2002	2002-2006	2006-2010	2011-2021	2021-현재
발생 사건	지방자치제 도입 신도시주의	월드컵 개최 신자유주의 부상	창조도시 부상 국제금융위기	행복가치 부상 문화기본법 제정	코로나19 사태
시대 정신	도시의 시민권	도시 경쟁력 제고	창조도시	공동체 문화 시민 거버넌스	갈등과 대립 (밀림의 귀환)
주요 정책	· 기본적 문화환경 조성 · 역사문화자원 보전 및 활용	· 도시공간의 문화적 혁신 · 문화기반 강화	· 창의기반 도시 문화환경 조성 · 도시디자인 혁신 · 창작공간 조성	· 마을 중심 문화행정 · 일상과 생활문화 보전 및 활성화 · 예술인의 권리	· 재난 위기 대응 · 디지털 및 기후 위기 대응 · 양극화 등 갈등 사회 대응
문화 계획	서울 도시문화발전 방안	비전 2015 문화도시	창의문화도시 (Seoul Culturenomics)	· 비전 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 · 비전 2030 서울예술인 플랜	디지털 감성문화도시

SECTION 2

20

TWENTY

정책 대토론회 서울문화재단 10+10 열린 제안, 열띤 토론
2013.06.28
서울문화재단,
이랬으면 좋겠네

2.1.

주요 연혁 2004-2023

기관 경영

◆ 조례, 이사회
● 조직, 정책, 전략
■ 청사, 공간 변화

주요 사업

• 예술

• 문화

• 서울

03

- 07.15.「서울특별시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제정
- 08.01. 서울문화재단 설립 발기인 총회 개최

- 05.24.-25. 제1회 하이서울페스티벌 시작

04

- 03.12. 초대 이사장 취임(정연희) 및 제1차 이사회 개최
- 03.13. 초대 대표이사 취임(유인촌)
- 03.15. 서울문화재단 법인 등록(창립 기념일)
- 05.18. 재단 출범식
- 1사무처 3국 8부(기획운영국, 문예지원국, 문화사업국), 정원 40명으로 출범
- 재단 청사(중구 예장동 4-6) 입주
- 09.10. 서울열린극장 창동 개관
- 12.27. 대학로연습실 개관

- 서울시 시민문화예술지원(문예진흥기금), 무대공연작품제작지원(2004-2009) 재단 이관, 예술창작지원사업 시작
- 최초 다년 지원사업 '문화예술 집중육성프로그램 (이후 유망예술프로그램 집중육성)' 연극, 무용 신설(2004-2008)

- 05.01-09. 하이서울페스티벌 개최(2004-2015)
- 서울광장 예술프로그램 시작(2004-2008)
- 책 읽는 서울 시작(2004-2012)
- 청소년 문화벤쳐단 사업 시작(2004-2007)

- 문화가 있는 놀이터 시작(2004-2012)
- 민간 후원 확대 행사 개최 (기업 문화공헌 세미나 개최, CEO모임 운영)
- 05.18. 재단 누리집 개설, 서울문화예술정보플랫폼 Arts@Net 운영(2004-2009)
- 07.15. 제1회 서울문화포럼 개최(2004-2006)
- 11.26.-27. 제1회 서울국제축제기획자 네트워킹 세미나(SINSFO) 개최(2004-2007)
- 12.23. 예술현장 실무매뉴얼 시리즈 발간 (홍보, 국제교류, 문화마케팅)(2004-2005)

05

- 조직 개선 및 중장기 발전 전략 개발 연구(4월-9월)
- 05.18. 재단 출범 1주년 기념행사
- 12.29. 청사 이전 결정 (중구 예장동→동대문구 청계천로)

- 서울시 수탁 사업 중심에서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으로 개편
- 젊은예술가 지원사업 NArT 개시, 실연심사 도입 (2005-2009)

- 청계천 축제(이후 청계천 예술축제) 시작(2008-2012)
- 시민 문화향수 기회 확대를 위한 '시민문화예술활동지원' 시작(2005-2013)
- 12.16.-18. 서울시민예술축제 개최(장르별 경연과 시상)
- 서울 사랑의 문화나눔(소외계층 찾아가는 공연) 시작(2005-2011)
- 청계천 아티스트(이후 서울거리아티스트) 시작(2005-2012)
- 서울문화예술교육 운영과정 운영(사회, 학교, 관계자 재교육)

- 문화가 있는 놀이터 첫 모델 시공(연남동, 5월)
- 공공예술 사업 운영 시작(2005-2010), 예술사랑 문화나눔(9월)
- 공공예술 사업 운영-예술마을 가꾸기(2005-2010), 우리동네 문화가꾸기(2005-2009)
- 문화서울후원상 운영(2005-2007)
- 시청사 모뉴먼트 프로젝트(8월)(2006-2010)
- 해외대학생 초청 국제문화교류 프로그램 운영 (2005-2006)
- ISPA, AAPAF 회원 활동 개시
- [문화+서울] 창간(연 2회 무크지)(6월)

- 신청사 리뉴얼 연계 'C-9 생생 프로젝트'(3월-6월)
- 06.28. 신청사 리뉴얼 준공 '생생 집들이'
- 01.03. 용두동 신청사 사무실 이전
- 03.30. 용두동 신청사 리뉴얼 공사 착공

- 사후지원, 창작 뮤지컬 대상으로 시작

- 04.28.-05.07.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 시작 (2006-2012)
- 서울문화예술총서 발간
- 국비 매칭 방과후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 시범사업으로 학교예술교육 시작(2006-2022)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랑티켓 지원사업 수탁 운영(2006-2007, 2016)

- 공공예술 사업 통합, 문화환경가꾸기 운영 (2006-2008)
- 서울문화예술네트워킹 생생목요토론회 개최 (8월~9월)
- TBS 라디오 공익문화캠페인 제작 등 캠페인·홍보 강화

06

- 01.01.제2대 이사장 취임(박범신)
- 02.01.제2대 대표이사 취임(안호상)
- 10.10. 남산창작센터 개관
- 11.10. 서울연극센터 개관
- 12.27. 청계창작스튜디오 개관

- 서울시 축제(연극제·무용제·아시테지) 지정 지원으로 재단 이관
- 시각·문학 창작활성화 지원사업 개시 (공연 지원 집중 탈피)
- 대학로 문화지도 발행(격월, 2007-2019)

- 문화는내친구(이후 서울문화예술탐방 프로젝트) 운영(2007-2011)
- 05.04.-06. 국내 첫 고궁뮤지컬 '화성에서 꿈꾸다' 개막(2007-2012)
- 12.06. 서울빛축제 개최 시작(2007-2009)
- 서울문화예술아카데미 TA 양성과정 시작 (예술인·매개자 교육과정 전문화)
- 서울시 시민문화예술교육지원 (꿈꾸는 청춘예술대학) 수탁 시작
- 국비 매칭 사회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수탁 시작

- 문화가 있는 놀이터 현대건설, 관악구, SH공사 등과 협력 확대
- 서울문화예술회관연합회(이하 서문연) 창립(12월)
- [문화+서울]월간지로 개편 발간(7월)
- 사무자동화시스템(전자문서시스템 등) 구축

07

- '서울시 창작공간 조성사업' 시작, 재단 내 창작공간조성TFT 운영(9월)

- 공연창작활성화 지원, 사후 지원으로 운영
- 자치구 문화공간 활성화 지원사업 운영 (2008-2011)
- 서울예술축제지원, 지정 지원으로 운영

- 하이서울페스티벌 사계절 축제(궁, 한강, 예술, 빛)로 확산
- 서울문화예술탐방 프로젝트 통한 책자, 문학지도 발간
- 예술교육사업 미적체험교육 중심으로 전면 개편
- TA(Teaching Artist) 개념 도입
- 12.03-04. 링컨센터예술교육원 초청 예술교육 국제 심포지엄 및 워크숍 개최

- 자치구 네트워크 지원(서문연)사업 운영 시작 (2008-2012)
- 공공예술 사업, 우리동네 문화가꾸기 운영 (2008-2009)

08

05.28.조례 제명 변경「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09.23. 新비전 공유를 위한 SFAC Way 선포식 개최
06.08. 남산예술센터 개관
06.19. 서교예술실험센터 개관
10.06. 대학로연습실 2관 개관
10.07. 금천예술공장 개관
10.16. 신당창작아케이드 개관
11.05. 연희문학창작촌 개관
청계창작스튜디오 사업 이관(서울시설공단)

09

11.16.-17. 서울예술지원박람회 최초 개최 (2009-2010)
국비 매칭 지역협력형 지원사업 지역 이관
국비 매칭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시범사업 전국 최초 시작
대학로 문화활성화 지원사업 개시(2009-2011)
서울연극센터, 대학로 연극투어 운영(2008-2014)

'시민문화예술지원' 사업 '생활 속 예술지원'과 '시민축제지원'으로 분리
'예술로희망드림' 개시 및 기업 후원 기부 유치 (2009-2015)
09.12. 링컨센터예술교육원과 MOU 체결로 예술교육 국제교류 본격화
TA 양성과정 체계화
어린이TA '예술로 플러스' 시작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설치로 문체부 문화예술교육 사업 이관
09.26. 예술교육정보자료관 개관 (현 온라인정보자료관 전환)

10.08. 서울시창작공간 국제심포지엄 시작 (2009-2018)
디자인경영 체계화(디자인가이드북 제작 등)
11.19. 재단 공식 블로그 개설

01.01. 제3대 이사장 취임(박범신)
02.01. 제3대 대표이사 취임(안호상)
01.28. 문래예술공장 개관
05.11. 홍은예술창작센터 개관
07.28. 성북예술창작센터 개관
12.17.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개관
06.10. 가든파이브 문화특구 수탁 운영

예술지원사업 체계화(예술창작활성화지원 (2010-2013), 시민문화 구분)
연구, 평론, 작품집, 문학 연계 콘텐츠 등 지원 분야 확대
NArT 협업형 지원사업으로 확장 (NArT in 하이서울, NArT in 페스티벌 場)
서울예술축제지원 공모 신설
금천예술공장, 다빈치 아이디어 공모 시작 (2010-2019)
문래예술공장 문래창작촌 예술가 대상 지원사업 'MEET' 시작(2010-2017)

하이서울페스티벌 넌버벌 공연예술축제로 전환
서울문화예술탐방 코스 소개 책 3권 출간
05.21.-25. 링컨센터에듀케이션 초청
첫 서울국제예술교육워크숍(SEW) 개최
문체부 서울 지역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재단 이관(2010-2016)

문화배달서비스 일환, 예술마을 가꾸기 운영
ISPA 총회 서울 유치 확정(1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연계 서울문화재단 보조금관리시스템 도입 운영

10

01.01. 서울시장애인미술창작스튜디오 (현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 수탁 운영 시작
05.11. 홍은예술창작센터(현 서울무용센터) 개관
서울열린극장 창동 폐관(5월)

대학로 연극실태조사 최초 시행(2011. 2013. 격년 진행)
서울형 문화기업 육성지원 추진(2011-2013)
9.30.-10.03. 2011 서울시창작공간 페스티벌 개최

05.05.-10. 하이서울페스티벌 한강 축제로 개최
08.12. 1회 서울국제창의예술교육심포지엄 개최(2011-2017, 총 3회)
재단 예술교육 통합브랜드 구축(창의예술교육) 및 개념 정립
청소년 창의예술교육: 서울창의예술 중점운영학교 시작(2011-2016)
예술교육총서 발간 시작(12월, 총7권)

ISPA사무국TF 신설(5월)
시민기자단(이후 스팍기자단) 1기 활동 시작 (10월)
모바일 서비스 시작, 대학로공연정보·무료문화정보 앱 개발
문화정책동향 보고서(SFAC Policy Review) 발행 시작(2011-2017)

11

12

- 03.26. 제4대 이사장 취임(김정헌)
- 03.26. 제4대 대표이사 취임(조선희)
- 新비전전략체계 연구 및 발표(8월)
- 4본부 체제 시작
  (경영기획, 문화사업, 예술지원, 창작공간)(8월)
- 서울시 창작공간 재단 고유사업으로 확정
  (금천, 신당, 연희, 문래, 홍은, 잠실)(12월)
- 01.01. 잠실창작스튜디오
  (현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로 명칭 변경

- 06.07. 서울연극센터 웹진 [연극in] 창간(격주 발행)
- 서울연극센터 'PLAY-UP 아카데미' 개설
- 남산예술센터 희곡 창작 및 초연 제작 극장 기능 강화, 국내 최초 드라마터그 시스템 도입

- 10.01.-07. 하이서울페스티벌 '거리예술축제'로 콘셉트 변화
- 아트캠페인 '바람난 미술' 시작(2012-2016)
- 문예위 문화바우처(현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수탁 운영 시작
- 12.06. 서울예술교육포럼 시작
- 문체부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사업 수탁

- 서울메세나 지원사업 시작
- 06.11.-16. 2012 ISPA 서울 총회 개최
- 10.26. 시도문화재단대표자회의 출범
- 11.20. 서울문화재단 문화정책위원회 발족 및 1차 회의 개최(2012-2018)

- 창작공간 6개, 서울연극센터, 남산창작센터 고유사업화 및 사업계약직 무기계약직 전환
- 서울문화재단의 지나온 10년, 앞으로 10년 전략 연구 추진
- 01.12. 시민청 개관
- 잠실창작스튜디오 공간 개선 및 재개관
- 대학로연습실 2관 운영 종료

- 수시 기획 지원(계기성 지원) 10년 만에 폐지
- NArT 창작공간 연계 강화, 유망예술지원으로 변경
- 신당창작아케이드 입주작가 협동조합 설립, 지역 활성화 축제 '황학동별곡' 개최(2012-2015)
- 잠실창작스튜디오 조아제약 후원 '프로젝트A' 신설 (2013-2020)
- 서교예술실험센터 민간 거버넌스 '공동운영단' 운영 시작(2013-2023)
- 남산예술센터 '남산희곡 페스티벌' 개최 (2013-2017)

- 10.02.-06. 하이서울페스티벌 2013, 거리예술축제 개최
- 서울시 대표 비보이단 지원 시작
- 서울축제지원센터 신설(2013-2021)
- 서울댄스프로젝트 시작(2013-2016)
- 01.17.-19. 서울예술교육페어 개최
- 예술교육사업 체계 정비(어린이/청소년/아카데미 체계)
- 예술교육 총서 출판, 교재 개발, 유럽 4개국 현장 방문(10월)

- 도시게릴라 프로젝트 시작(2013-2016)
- 메모리[人]서울 프로젝트 시작(2013-2016)
- 06.28. 서울문화재단 10주년 기념 대토론회 개최
- 서울-북경 문화교류 프로젝트 추진(2013-2016)
- ISPA SFAC 레거시 프로그램 진행
- 세계도시문화포럼(WCCF) 회원 활동 시작(11월)
- 재단 누리집 통합 운영 및 특성화 사이트 구축
- 재단 공식 유튜브 채널 개설(3월)

13

- 03.14. 서울문화재단 창립 10주년 기념 행사(시민청)
- 10.21. 서울연극센터 부분 리모델링 후 재개관
- 구의취수장,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조성 시작
- 가든파이브 문화특구 수탁 운영 종료(12월)

- 예술지원체계 정비(공연단체 다년간 지원 신설, 예술작품 지원/예술가 지원 구분)
- 유망예술지원 4개 창작공간 연계
  본격화(서울연극센터 NEWStage, 문래예술공장 MAP, 서울무용센터 DOT, 서교예술실험센터 99°C)
- 금천예술공장 다빈치 아이디어 공모, 다빈치 크리에이티브 페스티벌로 확장
- 11.05.-06. 제 1회 홍대 앞 문화연구포럼 개최(서교예술실험센터)
- 서울연극센터, '10분희곡 페스티벌' 시작(2014-2018)
- 11.27.-30. 시도문화재단 창작공간 통합 페스티벌 최초 개최(시민청)

- 시민문화예술활동지원 공모 중단, 동아리 연합 발표 방식 '좋아서_예술동아리'로 전환(2014-2016)
- 거리예술 시즌제 시작(4월), 거리예술활성화사업 개시(2014-2017)
- 05.12. 서울예술교육포럼 시작
- 10.07.-12. 시민예술축제 '좋아서 예술동아리' 개최
- 10.28.-31. 서커스 시르코르 초청 서울미적체험워크숍 진행
- 11.29. 제1회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페스티벌 '예술로 꿈틀' 개최

14

- 01.11.-31. 시민청 개관 1주년 기념 행사
- 도심 메이커 운동 연계 '서울 상상력발전소 프로젝트' 시작(2014-2019)
- 03.21. 도시게릴라 프로젝트 'Wonder-Present' 운영 시작(DDP)
- 온라인 기부 플랫폼 '아트서울! 기부투게더' 시작(2014-2022)
- 11.06. 예술후원 캠페인 '미스터 기부로' 운영 시작
- 문화정책 시민 아이디어 '소소한 상상 소소한 변화' 공모 및 워크숍(2~3월)
- 서울 문화통계 조사 시작(서울문화지표 조사연구,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
- 문화정책위원회 2기 출범

15

◆ 03.26. 제4대 대표이사 취임(조선희)
◆ 05.27. 제5대 이사장 취임(김광림)
● 4개 본부(경영기획, 창작지원, 시민문화, 예술교육 신설)로 직제 개편(6월)
● 창작지원팀+창작공간 조직 개편: 장르별 창작지원사업 창작공간 이관(7월)
● 메르스 긴급 추경 예산 편성
■ 04.24.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개관

• 예술지원 전면 개편: 정기 공모 지원사업 5개 창작공간에서 추진
• 메르스 극복 예술창작활동지원(추경)

• 바람난 미술 상설 '그림가게' 시민청에 설치(8월)
• 메르스 긴급 추경 '2015 함께서울 문화나눔 사업' 추진
• 예술교육본부 신설로 서울예술치유허브,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창작공간에서 예술교육본부로 이관(6월)
• 꿈꾸는 청춘예술대학, 서울시민예술대학으로 전환

• 시민청 월요 휴관제 폐지
• 도시게릴라 프로젝트 '마음약방' 1호점 설치(3월)
• '메모리인[人] 서울'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20주기 추모 행사(6월-7월)
• 기업 후원 협력 사업 확대(올림푸스한국 등)
• ISPA 뉴욕 총회 참가
• 한-불 상호교류의 해 사업(2015-2016)
• 한국-호주 파트너십 기반 공연 제작 협업(4월)
•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 자치구 조사 시범도입
• 문화정책위원회 3기 출범
• [문화+서울] 100호 발간(6월호)

16

◆ 09.01. 제6대 대표이사 취임(주철환)
● [서울시] 「비전 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 「서울예술인플랜」 발표에 따른 후속 사업 추진
● 서교예술실험센터 고유사업화
● 옛 동숭아트센터 MOU 체결 및 운영 기본계획 수립
■ 서울예술치유허브 명칭 변경(옛 성북예술창작센터)(4월)
■ 04.08. 서울무용센터(옛 홍은예술창작센터) 명칭 변경 및 재개관
■ 10.08. 서서울예술교육센터 (현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양천) 개관

• 청년예술인 지원 시범사업 개시(10월)
• 서교예술실험센터, '비기너스 프로젝트' 최초예술지원, 소액多컴 시작, 시상금 무정산 적용
•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연속 지원 폐지, 공공 공연장으로 제한
• 서울무용센터 웹진 [춤in] 창간(6월)(2016-2022)
• 서울무용센터, 국제 레지던시 특화 운영 (2016-2018)
• 남산예술센터, 장르 및 영역 확대(2016-2020)

• 하이서울페스티벌, 서울거리예술축제로 명칭 변경

• 아트서울 기부투게더 디자인 리뉴얼 및 캐릭터 확장 개발
• 문화정책위원회 4기 출범 및 운영
• 서울시 문화정책의 지역화전략 보고서 발간
• 시도문화재단대표자회의,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로 정식 출범(5월)

17

● 예술창작지원-예술작품지원 재원 변경 (문예진흥기금→지특회계(균특회계))
● 지역문화본부, 생활문화지원단 신설(1월)
● 전국 문화예술기관 최초, 근로자 이사 임명(4월)

• 청년예술지원사업 개시(최초예술지원, 청년예술공간지원)
• 민간 창작공간 임대료 지원 개시
• 유망예술지원 다년(2년) 지원 전환
• 예술지원 심사제도 개선 (심사위원 공개추천제, 블라인드 심사제 도입)
• 장애예술인 창작활성화 지원사업 개시(잠실창작스튜디오)
• 연희문학창작촌 웹진 [비유] 창간(12월)

• 위댄스 프로젝트 시작(2017-2020)
• 서울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 시작, 자치구 협력 생활문화 거버넌스 사업 추진(2017-2022)
• 서울생활예술오케스트라축제 운영 (2017-2020)
• 생활문화 인력양성(2017-2021), 생활문화 공간 지원(2017 -2020) 추진
• 청소년TA 중학교 자유학기제 연계 '예술로 함께'(2017-2022)시작
• 예술치유총서 발간(총2권)

• 지역문화진흥사업(자치구 공모 지원 도입) 신설
• 자치구 문화예술회관 네트워크 지원 시작 (서문연 연계)
• 예술의 사회적 활동 지원사업 '서울을 바꾸는 예술' 시작(2017-2020)
•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 조사 주기 격년 전환
• 문화정책위원회 5기 출범
• 11.01.-03. 아시아 최초 세계도시문화포럼(WCCF) 서울 총회 개최
• 10.30.-11.02. 아시아도시문화포럼(ACCF) 개최(2017-2019)

09.20. 제6대 이사장 취임(이경자)
09.20. 제7대 대표이사 취임(김종휘)
예술인 종합서비스 플랫폼 '예술청' 조성 운영계획
서울연극센터 리모델링 추진 기본 계획 수립
대학로센터 설계 공모
창작지원사업, 예술지원사업부로 업무 이관
04.28. 삼각산시민청 개관 및 수탁 운영 시작
06.22. 삼일로창고극장 수탁 운영 시작
서울시-마포구 간 공유재산(서교예술실험센터) 무상사용허가(2018-2020)

예술창작지원사업 전 장르 통합 운영
서울시 '서울청년예술단' 사업, 서울문화재단 이관(2017) 운영 시작
성폭력 관련 지원 대상 제제, 지원사업 지원금 관리규정 개정
잠실창작스튜디오, 효성그룹 입주작가 프로그램 후원 시작
신당창작아케이드 입주작가 역량강화 사업 확대(신당아트랩)
문래예술공장 MEET 지원사업, GS홈쇼핑 후원 유치
삼일로창고극장 공동운영단 1기 출범(2018-2023)

18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 25개 자치구 협력 체계 확대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주민센터 및 온라인 동시 발급

재단 후원 기업 [문화+서울] 정기 연재 통한 홍보 및 협력 강화
자치구 문예회관 지원사업, 협력형 사업으로 변경
2017 서울문화지표 조사연구 추진, 일부 지표 개정
문화정책위원회 5기로 활동 종료(2월)

[서울시] 민선7기 핵심 공약 '글로벌 음악도시 서울 조성' 추진
예술지원사업 구조 관련 조직 개편(창작공간에서 예술기획팀으로 통합)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기록물 목록화 기초조사 연구 추진
서울연극센터 건물 설계 공모
대학로센터 실시설계(2020-2021)

예술작품지원_청년예술지원사업
자기주도형평가로 변경 및 개선, 다년 지원 재개
12.19. 'THE 넓은 라운드테이블' 개최 (예술인 100인), 'THE 듣는 공청회' 개최
예술지원체계 전면 개편, '2020 서울예술지원' 공모에 적용
홍대 인디음악 생태계 활성화 '서울라이브' 시작, 추진단 출범(2019-2023)
신당창작아케이드 개관 10주년 기획전시 개최, 신세계 L&B 협력사업 시작
장애·비장애 문화예술동행 프로젝트 '같이 잇는 가치' 시작
연희문학창작촌, 서울국제작가축제 공동 기획 운영(2019-2021)
문래예술공장 지역 거버넌스 추진
서울무용센터, 국내 예술가 입주 확대
예술청 기획단 운영

서울 연희단 육성 지원사업 시작(2019-2020)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전화(ARS) 재충전 서비스 개시
02.11. 핀란드 헬싱키 아난딸로 아트센터와 MOU 체결로 예술교육 국제교류 시작
문체부 문화예술교육 사업 광역지자체 단계적 이관 시작(유아예술교육, 문화예술교육사)

19

공공예술사업 '소원반디' 및 연계 배리어프리 인식캠페인 운영
지역문화진흥사업 'N개의 서울' 시작
지역문화기관 대상 역량강화교육 추진
지역극장 모델발굴 시범사업 시작(생활밀착형 소극장 활성화 2009-2022)
현장 예술인 전문가 거버넌스 100인의 정책위원회 신설, SFAC 정책라운드테이블(2019-2020) 개최

코로나19 팬데믹 선언(3월) 및 코로나19 관련 추경사업 운영
예술청 조성 사업 기본계획 수립(2월)
문화시민본부, 융합예술 TFT 신설
예술창작지원_예술작품지원, 재원 변경 (지방 이양으로 국비 제외)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분류체계 연구 진행
08.21. 청년예술청 개관
11.05. 서울예술교육센터(용산) (현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용산) 개관
삼각산시민청 수탁 운영 종료(12월)
남산창작센터 운영 종료(12월)
남산예술센터 수탁 운영 종료(12월)

서울예술지원 신규 시행: 경력단계별 지원 시작, 예술기반지원, 예술창작지원 구분 운영
코로나19 피해 관련 긴급예술지원공모, 온라인 미디어 예술활동 지원 사업 운영
다빈치 크리에이티브, 언폴드 엑스(Unfold X)로 명칭 변경 및 10주년 기획전시 개최
문래예술공장 사운드아트 특화 사업 '사운즈 온' 시작
서울연극센터 준공 및 보완 공사 추진
예술청 운영준비단 운영
남산예술센터, 극장 운영 거버넌스 '공공극장 특별운영위 준비단'활동

생활문화사업 자치구 이양 준비: 역량강화 및 네트워크 지원 확대
코로나19 상황 반영 '일상문화탐색' 지원 운영
서울형 예술교육_학교예술교육TA, 온라인 비대면 교육 전환 운영
서울예술교육아카데미, 서울예술교육랩 전환, 온라인 병행

'N개의 서울' 자치구 사전준비금 지원 시범 도입
예술후원 DIY 키트 개발 아이디어 공모
WCCF 운영회의 참여 및 온라인 교류 활동 지속

20

◆ 10.18. 제7대 이사장 취임(박상원)
◆ 10.18. 제8대 대표이사 취임(이창기)
● 서울문화재단 예술공간 운영 재구조화 전략 방향 연구 추진
■ 서울문화재단 대학로센터 개관(6월)
■ 10.27. 예술청 개관
■ 대학로센터 극장 쿼드 공연장 등록(11월)
■ 서울시-마포구 간 공유재산(서교예술실험센터) 무상사용 허가(2021-2023)
■ 서울예술치유허브 운영 종료(7월)
■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운영 종료(12월)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예술지원 기준 완화 조치: 비대면 발표 전환
• 코로나19 극복, 온라인 기반 예술활동 지원, 창작 준비 지원 확대
• 유망예술지원사업 '비넥스트(BENXT)'로 통합 운영
• 홍대 인디음악 생태계 활성화 '서울 라이브', 서교예술실험센터 사업으로 편입
• 서교예술실험센터 소액多컴, 과정 중심 '링크'로 개편 운영
• 서울무용센터 민관협력 거버넌스 '파트너스' 운영 시작
• 예술청 공동운영단 운영(2021.04.-2023.03.), 개관 기념 프로그램 개최(10월)

21

• 코로나19, 온라인 비대면 시민향유 프로그램 전환 운영
• 자치구 단위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 지역문화 진흥사업 내 통합 진행
• 통합문화이용권 자동 재충전 제도 시행
• 서울생활예술페스티벌 시작
• 지역예술교육TA '예술로 가까이' 시작 (서울시 거점형 키움센터 연계)
• 서서울예술교육센터, 조아제약 후원 '빼꼼' 시작
• 서울축제지원센터 운영 종료, 서울시 이관

• 지역문화 진흥사업, 자치구문화재단 중심 운영
• 자치구 문화예술회관 네트워크 지원, 자치구문화재단 협력 사업으로 사업명 변경
• 사회공헌활동 트렌드 분석 연구 추진
• 02.22. 광역 단위 최초 서울문화예술지원시스템(SCAS) 구축 및 운영 시작
• 민간 제휴협력 사업 지속 및 확대
• 문화예술분야 최초 기업 대상 설명회 운영

● '3대 전략, 10대 혁신안' 수립 및 발표'(1월)
● 신(新)대학로 시대 선포, '창작클러스터' 단계별 조성
● 기관 최초 창작공간 협력사업 시작(서울스테이지11)
● 3본부(경영, 예술창작, 문화진흥) 9실 체제로 개편(7월)
● 문래예술공장, 융합예술팀 통합 운영
● 신(新) 비전전략체계 및 중장기 경영목표 수립(8월)
● 재단 운영 공간 재분류:예술창작·예술교육·플랫폼
■ 07.20. 대학로센터 극장 쿼드 개관
■ 11.22. 잠실창작스튜디오 대학로 임시 이전 및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로 명칭 변경(동행식 개최)
■ 대학로연습실 운영 종료(10월)

22

• 위드 코로나 예술지원 기조 유지: 온라인 플랫폼 기반 활동 및 발표 허용 등
• 서울무용센터 웹진 [춤in] 잠정 휴간
• 서울연극센터 리모델링 공사
• 대학로센터 극장 쿼드 개관 페스티벌 개최(7월-8월)
•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사업 지방 이양으로 사업 재설계
• 서울예술인 NFT 플랫폼 구축 및 공공 부문 최초 공연예술인 NFT 발행
• 아트페스티벌 서울 연계 '제1회 서울융합예술 페스티벌' 추진
•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 전 장르 장애예술인 지원 플랫폼으로 개편

• 재단 운영 창작공간 중심 '서울스테이지11' 시작(4월)
• 재단 통합 축제 브랜드 '아트페스티벌 서울' 런칭: 한강노들섬클래식_오페라, 서울비보이페스티벌 시작(9월)
• 서울예술교육TA 통합 공모
• 10.17.-11.01. 서울예술교육페스티벌 개최
• 문체부 문화예술교육 국고 보조금 사업 100% 지방 이양으로 지원사업 개편 준비
• 학교예술교육TA 사업 종료(2006-2022)

• 'N개의 서울' 내 자치구별 담당자 제도 도입
• 문화예술분야 최초 '문화예술을 활용한 ESG 경영 제안' 설명회 개최(7월)
• 서울 문화예술 전문가 거버넌스, 서울문화예술포럼 출범(9월)
• 2021 서울문화지표 조사연구, 권역별 표기 자치구별 현황으로 변경
• 서울예술인희망캠페인 시작(6월)

23

● 서울스테이지11 참여공간(거점·특화·일반) 재포지셔닝을 통한 콘텐츠 차별화
● [서울시] 성북연극창작지원시설(가칭) 수탁 운영 준비 협조 요청
● 서울시-서울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센터 운영위수탁 협약 체결
● 12.11. 서울문화재단 ESG경영위원회 출범
■ 04.12. 서울연극센터 재개관
■ 10.11. 서울예술인지원센터 개관
■ 서교예술실험센터 운영 종료(12월)
■ 삼일로창고극장 서울시 수탁 운영 종료(12월)
■ 시민청 서울시 수탁 운영 종료(12월)

• 02.28. 서울예술상 제정 및 1회 수상자 시상
• 예술지원, 연 2회 통합 공모로 전환
• 청년예술지원, 첫 데뷔(발표)지원 사업 신설
• 원로예술지원 신설
• 06.15. 예술청팀 사업운영 개선계획 수립
• '서울예술인지원센터' 설립방안 및 추진계획, 운영계획 수립
• 서울희곡상 신설 및 시상(12월)
• 공연 물품 공유 플랫폼 'Re:Stage Seoul(리스테이지 서울)' 시범운영 시작(12월)
• 서울무용센터, 국내 입주예술가 인큐베이팅 지원 방식으로 개편
• 연희문학창작촌 웹진 [비유] 휴간 및 재개(3월호, 11월호)

• 아트페스티벌 서울_한강노들섬 발레 시작(10월)
• 서울생활문화플랫폼 구축(2월)
• 생활예술 활성화 지원. 공공/민간 분야 신규 운영
• 서울생활예술주간 신설(10월)
• 서울시 청년문화패스 사업 수탁 운영 시작(4월)
• 서울시청 '약자와의 동행' 연계 '찾아가는 서울스테이지11' 신규 추진
• '서울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으로 통합 개편 운영
• 권역별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3개소 개관 준비(명칭 확정)
• 서울시민예술대학, '서울시민예술학교'로 개편, 권역별 운영

• 지역문화 'N개의 서울'과 '생활문화 25' 사업 일원화
•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 '약자와의 동행' 반영 장애인 및 다문화 시범조사 실시
• 서울문화예술포럼 운영위원 추가 위촉(총62명)
• 이창기 대표이사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제6대 회장 선출(2월)
• [문화+서울] 200호 발간(10월호)

20대 뉴스

20/20 • 재단 • 예술 • 문화 • 서울

재단

#1	2006	서울문화재단 청사, 용두동으로 이전
#2	2021	서울문화재단 대학로센터 개관과 함께 '신(新) 대학로 시대' 열어

예술

#3	2005	젊고 유망한 예술가 발굴 지원, 청년예술지원으로 확대
#4	2008	서울시 창작공간, 도심 유휴공간 활용 조성
#5	2010	융합예술 분야 선도적 지원, 융합예술플랫폼 언폴드엑스(Unfold X) 브랜드 확립
#6	2011	장애예술 공존과 가치 확산 노력, 서서히 빛을 발해
#7	2015, 2019-2021	메르스·코로나19, 감염병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8	2022, 2023	예술지원의 다각화, 서울예술상·서울희곡상 신설

문화

#9	2004	서울을 빛낸 문화사업, 창의적 기획으로 브랜드화
#10	2005	서울시민이 주인공, 생활 속 예술활동 활성화
#11	2008, 2022	하이서울페스티벌 사계절 축제 전환, 아트페스티벌 서울로 이어져
#12	2006-2022	TA(Teaching Artist) 제도 도입, 예술교육 분야 독자 모델 구축
#13	2016	국내 최초 예술교육 전용 공간 개관, 권역별 문화예술교육센터 시대 열어

서울

#14	2004	재단의 든든한 후원자, 민간 기업 협력 확대와 시민 기부 문화 전파
#15	2005	[문화+서울] 및 장르별 전문 웹진, 온·오프라인 콘텐츠 확산
#16	2007	'자치구'를 재단 협력 주체로, 지역문화 중심 연계사업 확대
#17	2010, 2017	대규모 국제 행사 유치 및 성공적 개최, 서울 대표 문화기관 위상 높여
#18	2012	함께 만드는 서울문화정책, 거버넌스 협의체 운영
#19	2014	서울시와 자치구 문화정책의 기초 자료, 통계 조사 정례화
#20	2021	광역지자체 최초, 서울문화예술지원시스템(SCAS) 오픈

재단

2006

서울문화재단 청사, 용두동으로 이전

#1

C-9 생생 프로젝트

- 남산을 떠나 청계천 앞 용두동 본관 시대 개막
- 공공 기관 청사만이 아닌 시민과 예술가 모두에게 열린 문화공간으로 조성
- 건물 리뉴얼 과정 자체를 공공예술로, C-9 생생 프로젝트 진행
- 시민 그림 100장으로 만든 공사 가림막으로 청사 이전 알려

서울문화재단 본관 리모델링 전

본관 리모델링 준공 후 2023년 모습 ©송광찬

재단

2021

#2

서울문화재단 대학로센터 개관과 함께 ‘신(新) 대학로 시대’ 열어

- 2018년 옛 동숭아트센터 매입 후 설계 공모와 리모델링 공사 추진
- 용두동 본관 기능 일부 대학로센터로 옮기며 ‘신 대학로 시대’ 선포
- 2022년 대학로극장 쿼드(QUAD)개관과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 임시 이전, 2023년 재개관한 서울연극센터와 더불어 대학로 창작 클러스터 조성
- 대학로 중심 예술인 통합 지원 플랫폼 구축, 침체된 대학로에 활력 불어넣어

예술

2005

#3

젊고 유망한 예술가 발굴 지원, 청년예술지원으로 확대

2015 유망예술지원 선정자_장원영

- 2005년 재단만의 차별화된 젊은예술가 지원사업 NArT(New Artist Trend, 나트) 시작
- 최초로 쇼케이스 형식의 실연 심사제 도입, 공연예술계 확산 효과
- 창작공간, 하이서울페스티벌, 예술의전당 등과 연계 사업 추진. 유통 단계까지 고려
- 장르별 4개 창작공간 운영 거쳐 청년예술청에서 유망예술지원 지속 운영
- 2008 NArT 선정 김아영 작가, 프리 아르스 일렉트로니카(Prix Ars Electronica)2023 최고상 한국 최초 수상

2009_NArT 실연심사 및 리허설

서울시 창작공간,
도심 유휴공간 활용 조성

금천예술공장 조성 전후 모습

- 2008년 유휴공간 활용 도심 재생 프로젝트 일환으로 서울시창작공간 조성 개시
- 2009년 6월 서교예술실험센터를 시작으로, 시각예술, 문학, 다원예술, 공예, 무용, 장애예술 등 장르별 창작공간 잇따라 개관
- 서울 곳곳에 위치한 다양하고 특화된 창작공간 운영하며 재단 규모 확대
- 동시대 창작 플랫폼으로 다양한 예술 실험, 창작, 교류 이어지는 공간으로 자리잡아
- 2010 서울시창작공간 페스티벌, 2014 시도문화재단 창작공간 통합 페스티벌 개최

문래예술공장 개관식

예술

2010

#5

융합예술 분야 선도적 지원, 융합예술플랫폼 언폴드엑스(Unfold X) 브랜드 확립

- 2010년 금천예술공장 다빈치 아이디어 공모, 다빈치 크리에이티브 거쳐 2020년 언폴드엑스(Unfold X)로 브랜드화
- 중앙정부에 앞서 융합예술지원 이끌며, 창·제작, 전문 인력 양성, 축제 등 지원 체계 갖춰
- 2022년 서울융합예술페스티벌로 확대, 2023년 시민 약 2만 명 찾으며 국내 대표 융복합 예술 축제로 자리매김
- 2024년 세계적 수준의 융복합 전시 플랫폼으로, 글로벌 진출 확대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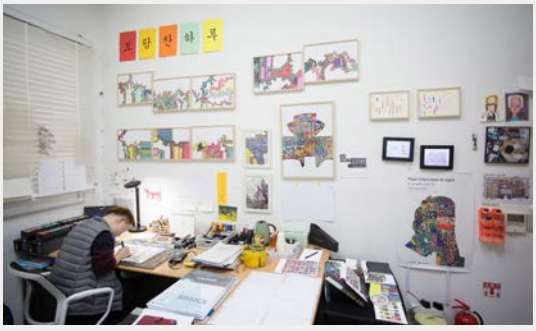
2014 다빈치 크리에이티브 페스티벌

2022 언폴드엑스_상현 '원룸바벨'

예술

2011

#6



김원영 작가 스튜디오

2020 같이 있는 가치

장애예술 공존과 가치 확산 노력, 서서히 빛을 발해

- 2011년 국내 유일 장애예술인 창작 레지던시 '잠실창작스튜디오' 운영 시작
- 입주작가 정은혜, 김현우, 김원영×프로젝트 이인의 〈무용수-되기〉 등 통해 장애예술 확산
- 기업과 장기 후원 관계 유지하며 장애아동 창작 지원(프로젝트A)
- 장애·비장애 동행 프로젝트 '같이 잇는 가치' 통해 경계를 넘은 교류 모색
- 2022년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 명칭 변경, 장애예술 전 장르 지원과 담론 확산 플랫폼으로 도약

예술

2015,
2019-2021

#7

메르스·코로나19, 감염병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2020 서울서커스페스티벌 언택트 진행

포르쉐 두 드림_사이채움

- 갑작스런 감염병 유행과 팬데믹 위기에도 창작과 향유 활동 단절되지 않게 발 빠른 조치
- 2015 메르스(MERS) 극복 위한 긴급 추경 예술지원, 학생과 취약계층 공연 관람 기회 제공
-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공연예술계 수입 감소 대응하는 지원사업 설계
- 행사와 축제, 인원 제한과 사전 예약제, 비대면 온라인 콘텐츠 제작과 실시간 중계 등으로 전환하며 신속하게 대응
- 택배 시스템과 온라인 채팅방 활용 예술교육 '문 앞의 예술놀이', 기획 아이디어 공모 '예술인이 재난을 대하는 가지가지 비법' 등 화제 모아

예술

2022,
2023

#8

예술지원의 다각화, 서울예술상·서울희곡상 신설

- 2023년 창립 이래 처음, 순수예술분야 우수 지원 작품 시상하는 '서울예술상' 제정
- 예술가에게는 창작 동기 부여, 시민에게는 수준 높은 작품 소개 효과
- 수상작 브랜드 가치 인증해 국내외 레퍼토리로 확산 기대
- 2024년 2회부터 상금 규모 상향, 시상 부문 다양화, 선정의 공정성 강화
- 미발표 창작 희곡 발굴 위한 서울희곡상 공모, 수상작 대학로극장 쿼드(QUAD) 무대화
- 공연예술분야 서울예술인NFT 발행 지원으로 미래형 예술지원 모델 제시

제1회 서울예술상_ 연극부문 최우수상 _맹〈 코너스톤〉

2022 서울예술인 NFT 제작발표회

문화

2004

#9 서울을 빛낸 문화사업, 창의적 기획으로 브랜드화

- 출범 첫 해부터 독창적인 문화 브랜드 사업, 직원이 상상력 발휘해 직접 기획하고 실행
- 2004년 시작한 '책 읽는 서울' 야외 도서관 콘셉트, '책읽는 서울광장'으로 이어져
- '문화가 있는 놀이터' 공공 공간에 대한 인식 변화와 아파트 거주 문화에 영향
- 일상 공간을 갤러리로 바꾼 '바람난 미술', 미술 작품 판매와 소유 문화 확산 계기
- 마음의 병 치유하는 문화예술 처방전 발행 '마음약방' 자판기, 10년 앞선 현대인의 예술치유
- 동시대 시민의 목소리로 서울을 기록한 '메모리[人]서울', 중요 사료로 남아

바람난미술

메모리인서울

도시게릴라프로젝트_마음약방

문화

2005

#10 서울시민이 주인공, 생활 속 예술활동 활성화

- 2005년 아마추어 동호회 등 시민참여형 문화활동 활성화 위한 '시민문화예술지원' 공모 진행
- 일상에서 시민들이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하고 즐기는 '서울댄스프로젝트', '좋아서-예술동아리' 등 기획사업 운영
- 오케스트라, 합창단 등 연합 공연으로 생활예술인 교류와 네트워킹 확대
- 시민 참여 축제 '서울생활예술페스티벌', 자치구 연계 '생활예술주간' 운영으로 생활예술 활성화 지속

서울댄스프로젝트

하이서울페스티벌 사계절 축제 전환, 아트페스티벌 서울로 이어져

2008 하이서울페스티벌_오월의 궁

2022 한강노들섬오페라 〈마술피리〉

- 하이서울페스티벌 2008년 봄(궁), 여름(한강), 가을(예술), 겨울(빛) 주제를 달리한 사계절 축제로 전환, 재단 운영 축제 정체성 확립
- 사계절 내내 서울을 축제 분위기로 만들며 서울시민에게 '서울문화재단' 이름 각인시켜
- 닫혀 있던 '궁' 최초로 개방, 고궁 활용 문화행사 확산의 기폭제 역할
- 2022년 재단 축제 통합 브랜드 '아트페스티벌 서울'로 사계절 시즌제 부활
- 순수예술 분야 야외 축제 '한강노들섬오페라'로 시작해 2023년 '발레'로 확대, 국내 최초 한강 배경 전막 공연에 예매 시작 1분 내 매진으로 호응

2008 하이서울페스티벌_봄

문화

2006-2022

#12

TA(Teaching Artist) 제도 도입, 예술교육 분야 독자 모델 구축

- TA(Teaching Artist) 개념 도입 및 미적체험 통합예술교육 철학 확립, 정규 교과 연계 팀티칭 운영
- 2006년부터 공교육 현장에서 수많은 아동·청소년 만나며 공교육 내 예술교육 위상 높여
- 재단 고유의 예술교육 모델 전파하며 국내 예술계와 교육계에 영향
- 링컨센터에듀케이션, 아난딸로 아트센터 등과 국제교류 통해 전문 인력 양성
- 관련 노하우 학교 밖 지역사회로 확장해 '지역예술교육TA' 운영

2008 Lincoln Center institute 초청 심포지엄

예술로 플러스 수업 현장

#13

문화

2016

국내 최초 예술교육 전용 공간 개관, 권역별 문화예술교육센터 시대 열어

- 2016년 국내 최초 아동·청소년 예술교육 전용 공간 서서울예술교육센터(현 양천) 개관
- 꿈꾸는 예술터 등 전국 유사 공간 조성 시 대표 참고 사례, 국내외 답사 잇따라
- 2020년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용산 개관, 강북·서초·은평 3개소 연달아 개관 앞둬
- 5대 권역별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에서 수요자 중심의 장르별 특화 문화예술교육 펼칠 계획

서서울예술교육센터 개관 행사

서울

2004

#14

재단의 든든한 후원자, 민간 기업 협력 확대와 시민 기부 문화 전파

- 재단 출범 첫 해부터 문화제휴 모델 연구, 문화가꿈 CEO 클럽 개최 등 민간 후원 확대 도모
- 2004년 청계천 문화의 다리 조성 위한 '문화가꿈 달리기'행사로 시민 기부 참여 유도
- 2007년 문화가 있는 놀이터 기업 연계 조성 등 다수 기업과 장기 파트너십 형성
- 온라인 플랫폼 '아트서울! 기부투게더', '미스터 기부로' 등 캠페인으로 예술기부 공감대 마련
- 시민 소액 기부금 활용, 2016년 청년예술인 위한 '최초예술지원' 사업 운영
- 2021년 문화예술분야 최초 기업 대상 설명회. 2022년 '문화예술을 활용한 ESG 경영 제안' 설명회 개최

2005 문화서울후원상

2015 '미스터 기부로' 캠페인

2022 문화예술을 활용한 ESG경영 설명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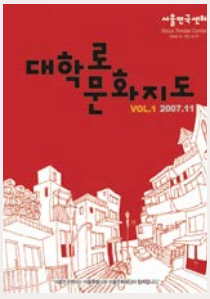
#15

서울

2005

[문화+서울] 및 장르별 전문 웹진, 온·오프라인 콘텐츠 확산

- 2005년 6월 정책 무크지로 창간, 2007년 7월 월간지 전환 이후 매월 휴간 없이 발행
- 사업명 '문화예술간행물 발간'으로 재단 단일 사업 중 최장기 지속 운영
- 유사 기관지 폐간과 웹진 전환 흐름 속에도 2023년 10월 200호 발간
- 재단 운영 사업과 서울의 문화예술 정보를 담은 기록물로서의 가치
- 서울연극센터 대학로 문화지도(2007-2019), 웹진 [연극in], [비유], [무용in] 특화 콘텐츠로 사랑 받아



대학로 문화지도 1호

[문화+서울] 창간호

서울

2007

#16

‘자치구’를 재단 협력 주체로, 지역문화 중심 연계사업 확대

- 재단 후원으로 2007년 12월 서울문화예술회관연합회 (현 서울시자치구문화재단연합회) 창립
- 자치구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사업 등 지속하며 25개 자치구와 상시 협력 채널 유지
- 2017년 지역문화 진흥사업 개시, ‘N개의 서울’로 광역과 기초 간 협력망 공고히
- 자치구 역량 강화와 인력 양성 지원 병행, 지역 주체 발굴과 지역문화 생태계 구축

16.지역문화

서울

2010, 2017

#17

대규모 국제 행사 유치 및 성공적 개최, 서울 대표 문화기관 위상 높여

- 2010년 국제공연예술협회(ISPA), 2017년 세계도시문화포럼(WCCF) 서울 총회 아시아 최초 개최
- 2013년 세계 공연예술계 전문가와 공연예술단체, 2017년 세계 28개 회원도시, 100여 명의 문화정책 전문가 한자리에 모여
- 2005년 ISPA(International Society for the Performing Arts) 회원 가입, 2009년 유치 확정, 이후 ISPA SFAC 레거시 프로그램으로 이어져
- 2013년 WCCF(World Cities Culture Forum) 회원 가입, 공동 연구보고서 발간 등 도시 교류 지속, 2017년부터 3년간 아시아도시문화포럼(ACCF) 주관

2012 ISPA 서울 총회

2017 WCCF 서울 총회

서울
2012

#18

함께 만드는 서울문화정책, 거버넌스 협의체 운영

2017 문화정책위원회 토론회

- 문화거버넌스 구현과 문화정책 자문 담당하는 '문화정책위원회' 공식 직제 운영(2012-2018)
- 서교예술실험센터 공동운영단, 창작공간별 운영위원회 등 다양한 유형의 열린 거버넌스 실험
- 현장 예술가, 전문가, 시민이 의견 내고 공간 운영·사업 기획 등에 직접 참여
- 2004년 문화예술계 정보 교류와 네트워킹 위한 서울문화포럼, 2022년 출범한 서울문화예술포럼으로 취지 이어

서울
2014

#19

서울시와 자치구 문화정책의 기초 자료, 통계 조사 정례화

- 2014년부터 서울문화지표 조사연구,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 정례화
- 서울시 맞춤형 통계 체계 구축, 서울 문화정책의 토대 마련
- 환경 분석과 연구 통해 시대에 맞는 조사 항목과 방식으로 개편, 정책 대응력 키워
-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자치구별 통계 제공, 광역문화재단 역할 수행

서울
2021

#20

광역지자체 최초, 서울문화예술지원시스템(SCAS) 오픈

- 서울 예술지원 사업의 효율적 운영 위한 맞춤형 서울문화예술지원시스템(SCAS) 개발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과는 별도의 지역 특화 지원 시스템 구축은 서울이 최초
- 공고, 신청, 심사, 정산까지 원스톱 서비스, 서류 발급, 모바일 정산 등 편리한 서비스
- 2024년 1차 예술지원 통합 공모부터 전용 상담 매니저 AI 챗봇 도입 등 서비스 진화

*20대 뉴스 선정에는 재단 남미진 대학로센터실 실장, 이규승 예술교육실 실장, 서명구 미래전략팀 팀장, 이주영 홍보마케팅팀 팀장이 함께했다.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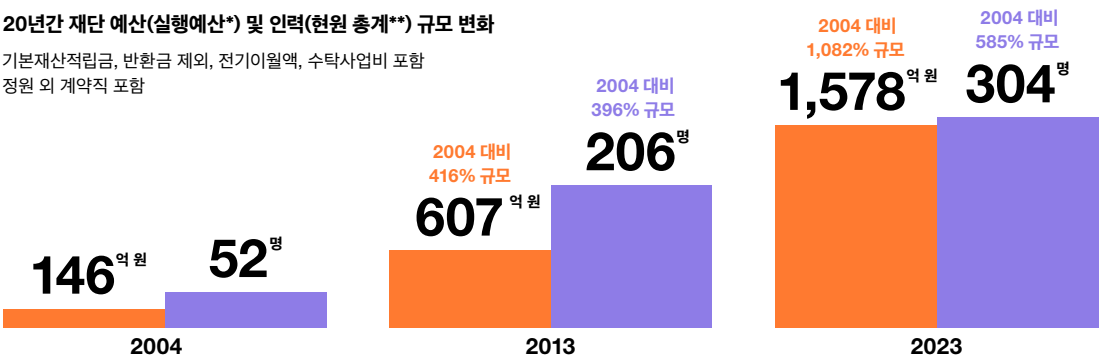
숫자로 읽는 서울문화재단 20년

조직

■ 실행예산 ■ 현원

20년간 재단 예산(실행예산*) 및 인력(현원 총계) 규모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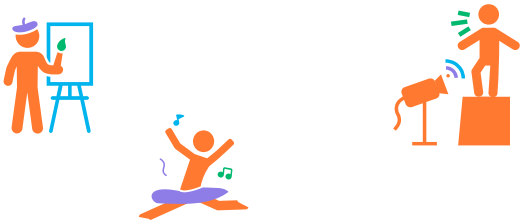
* 기본재산적립금, 반환금 제외, 전기이월액, 수탁사업비 포함
** 정원 외 계약직 포함



창작지원

23,163건

예술가·예술단체 총 신청 101,056건 중 선정 지원



창작공간

11,794,939명

참여 시민

51,739명

활동 예술인·단체

2,449명(팀)

입주작가

문화참여

5,024,000명 참여

도심 축제

하이서울페스티벌부터 아트페스티벌 서울까지

22,060,000명 관람

시민 관람형 문화행사

예술교육

169,127명

공교육 연계 어린이·청소년 예술교육 교육프로그램 참여 학생

초등학교 방과후돌봄교실 연계 예술교육
2006-2017(11년간), 2,671개 학교, 52,534명

청소년 중고등학교 창의예술교육
2007-2022(16년간), 1,962개 학급 및 학교 동아리, 43,301명

초등학교 정규 교과 연계 예술교육
2009-2022(14년간), 3,097개 학급, 73,292명

567,966명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참여 시민

꿈꾸는청춘예술대학(시민문화예술교육지원) 어르신 대상 예술교육
2007-2015(9년간), 208건, 195,544명 교육 지원

지역특성화(사회)문화예술교육지원
2007-2022(16년간), 437건, 233,070명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2012-2022(11년간), 374건, 181,944명

1,909명

TA(교육예술가) 양성

2006-2022(17년간), 어린이TA 1,279명, 청소년TA 630명

정책협력

266개 기업

서울문화재단 제휴기업
2013-2023(13년간)

83,711건

언론 보도

1,586건

보도자료 배포
2007-2023(17년간)

1,445,000부

[문화+서울] 총 발행 부수
2005-2023(19년간)

204,187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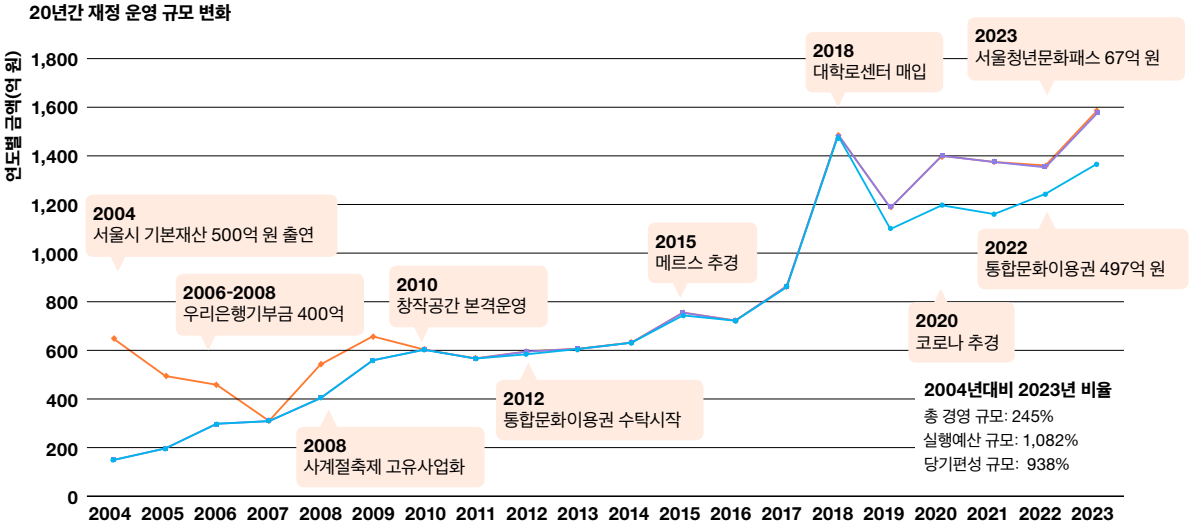
대표 누리집 회원수
2023년 12월 기준

20년간 10배로 커진 사업규모, 서울시 문화정책 내 역할 비중은 약 4배 증가

서울문화재단(이하 재단)이 연간 운영하는 모든 자금의 흐름, 즉 '총 경영규모(추경 반영, 연말 최종예산 기준)'◆는 2023년 158,845백만 원으로, 2004년 64,590백만 원 대비 245% 규모로 확대되었다. 그런데 이 금액에는 서울시의 재단 기본재산 출연금이 포함되어 있어, 실질적인 사업과 조직 운영에 투입되는 예산 규모의 증가분을 비교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하다. 이중 기본재산 적립금, 국고 및 위탁사업 반환금을 제외 실제 사업 수행과 조직 운영에 투입된 '연간 실행예산'은 2023년 157,830백만 원으로 2004년 14,590백만 원 대비 1,082% 규모였다. 즉 20년 동안 사업 실행예산 규모는 10배 이상 확대되었다.

매년 정책 의지를 반영해 편성되는 재원 흐름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연간 실행예산 중에서 이월된 예산을 제외한 '당기편성 재정규모'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 당기편성 재정규모는 2023년 136,838백만 원으로 2004년 14,590백만 원 대비 938%에 해당한다. 20년간 9배 이상 확대된 것이다. 이를 다시 서울시 문화담당 부서의 당기편성 재정규모와 비교하면 서울시 문화정책 영역 안에서 재단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볼 수 있다. 재단이 집행한 당기편성 재원(서울시 수탁사업비 포함) 규모는 2004년 당시 문화국 당기편성 재원(재단 기본재산 출연금 제외)의 6%에서 2023년 현 문화본부의 23%로 약 4배 증가했다. 2004년 문화국의 담당업무 영역이었던 '문화+문화재+관광+체육+청소년' 중 '관광+체육+청소년'을 제외한 예산 규모로 비교하면, 2004년 재단은 문화국 예산 총액의 10%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행했다. 따라서, 2004년에 비해 세분화된 서울시 문화정책 영역 중 일부를 담당하는 문화본부의 당기편성재원 기준으로 보면 재단의 역할 비중은 23%로, 2004년 10%에서 두배 이상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2004년 문화국 업무가 2023년 문화본부 외에 관광체육국과 평생교육국으로 분화된 점을 고려해 이를 합할 경우 문화재단이 담당하는 규모는 서울시 확장된 문화정책 사업의 약 10%에 해당한다.

20년간 재정 운영 규모 변화



◆ 총 경영규모(추경 반영, 연말 최종예산 기준): 기본재산 적립금, 수탁사업비, 국비, 전기 이월금 등을 포함한 연간 모든 자금의 흐름

■ 실행예산 규모: 총 경영 규모 중 기본재산 적립금, 반환금 제외한 사업 및 조직 운영에 실제 투입되는 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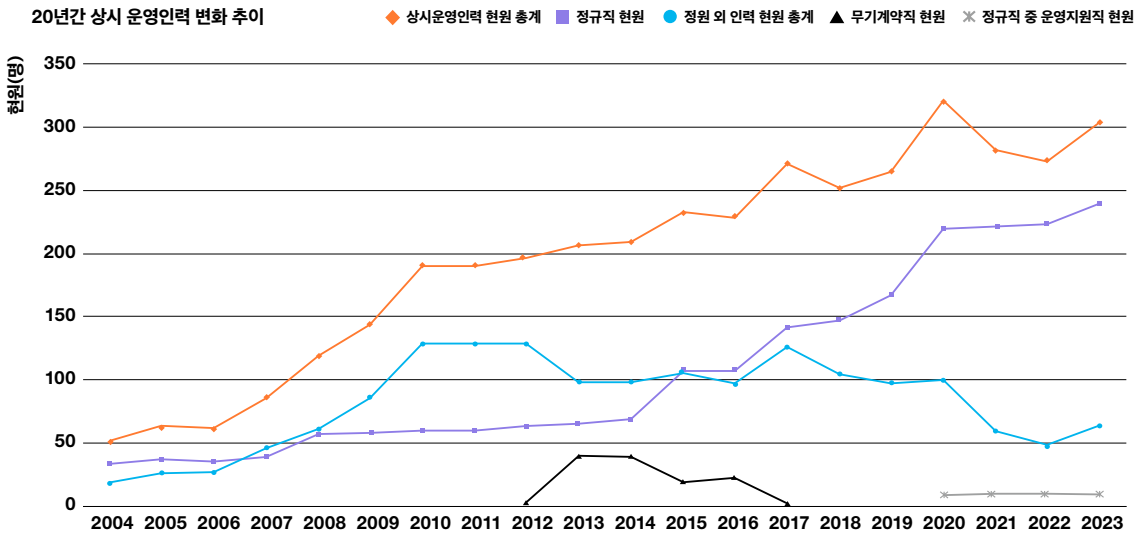
● 당기편성 재정: 실행예산 중 전기 이월금 제외하고 당해 연도를 위해 편성된 예산

6배로 많아진 인력, 3배 이상 확장된 조직

2004년 '1사무처3국8부'로 출범했던 서울문화재단의 조직은 2023년 '3본부9실32팀9단위조직'으로 확대되었다. 조직에 배속된 상시 운영 인력의 규모(임시직 포함, 현원)는 2004년 52명에서 2023년 304명으로, 약 6배 늘어났다. 이들이 부서 단위로 묶인, 가장 낮은 의사결정 조직의 개수는 2004년 총 8개(부)에서 2023년 41개(팀+단위조직)로, 약 5배 증가했다. 2023년 12월 기준, '실-팀'을 거느린 3개 본부 규모의 조직은 각각 2004년 전체 재단을 통괄한 1개 사무처에 견줄 정도로 커졌다. 즉 의사결정 단계를 고려한 조직편제 규모를 비교하면 20년간 최소 3배 이상 확장된 것으로 가늠할 수 있다.

이렇게 재단 조직 구조가 3~4배 확장된 것은 '컬처노믹스'부터 '동행매력특별시'까지 서울시 문화정책 기조에 따라 시기별로 요구된 사업 수행과, '지역협력형 예술지원', '지방 이양' 등의 명목으로 내려온 중앙정부 시책 사업에 반응한 결과이다. 우리나라의 문화정책은 1973년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설립된 이래 전통문화보전과 문예진흥 중심으로 지속되다가 2000년대 들어 문화분권, 예술교육, 문화복지, 생활문화, 지역문화, 예술인복지 등으로 분화되어 왔다. 이에 재단은 최초에 '문화사업부'로 통틀어 호명하던 부서를 '문화교육', '시민문화', '문화나눔', '생활문화', '지역문화' 등으로 이름을 바꾸거나 세분화 하는 방식으로 정책기조 변화에 대응했다. 공무원 문화행정을 대신할 문화재단의 설립 취지 자체가 거버넌스형 문화정책으로의 전환이었던 점에 부응해, 2012년에는 '문화정책위원회'가 공식 직제로 편제되어 2018년까지 운영되기도 했다.

재단은 공간운영 부서의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이다. 초기에 주로 서울시의 위탁으로 운영하기 시작한 창작공간들은 그 규모와 고유사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일부는 '팀' 규모로 관리되었으나 대부분 매니저가 관할하는 '단위조직'으로 운영되었다. 2023년 12월 기준 공간사업을 담당하는 팀 규모의 조직은 '15팀8단위조직'으로, 그 비중이 전체(39개 조직) 대비 59%에 해당한다. 갈수록 확대되는 공간운영사업에 대응하고 2021년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따라 시설 및 안전관리 업무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운영지원 부서 안에 편제되었던 시설 및 안전관리 업무가 2019년부터 분화해 경영본부 내 '시설계약팀'으로 운영되다가, 2021년 '시설안전팀', 2022년부터 '안전관리실' 내 2개 팀으로 편제되었다. 시설안전 담당 2개 팀까지 포함하면 재단 전체 조직에서 공간 운영과 관련 최하위 조직의 비중은 64%를 넘는다.



한때 68%까지 육박했다가 2023년 21%로 안착된 비정규 인력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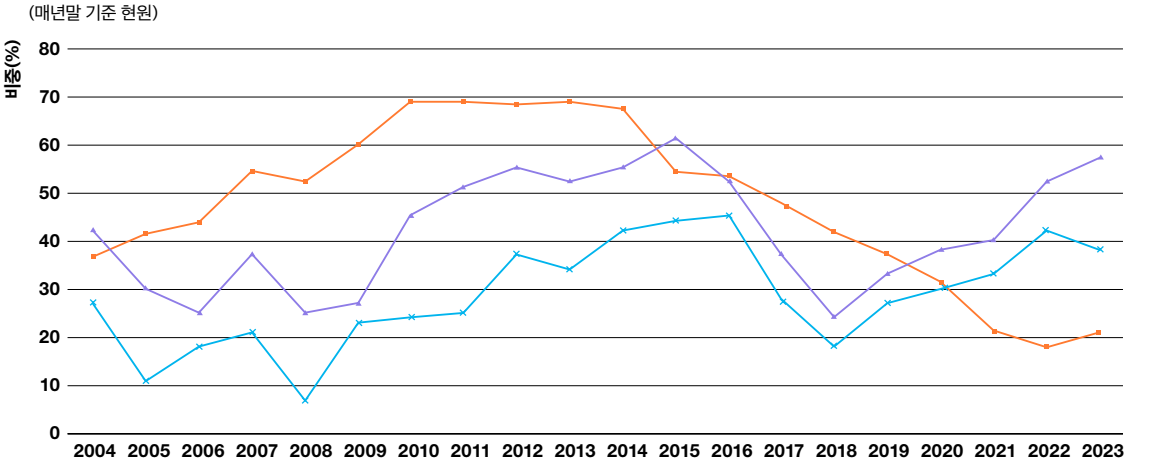
정원 외 상시운영 인력(무기계약직 제외)의 규모는 2004년 19명에서 2012년 130명으로, 무려 6.8배로 증가했다. 전체 현원에서 정원 외 인력과 무기계약직 현원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37%에서 줄곧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68%에 이르며 최고치를 기록했다. 주로 창작공간 등 서울시 수탁사업의 기간제 계약직으로 채용했다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거나, 사업 규모의 급격한 증가에 대응해 임시직 행정스태프를 활용한 것이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인력 구조가 고착된 원인이었다.

20년 동안 재단 상시운영 인력 규모는 약 6배(585%)로 늘어났지만, 당기편성 재정규모의 증가 비율(938%, 9배 이상) 또는 당해연도 실행예산 규모(전기 이월금 포함)의 증가 비율(1,082%, 10배 이상)에 크게 못 미친다. 최근 예산이 급증하고 있는 통합문화이용권, 서울청년문화패스 등 '분배형 사업'은 예산 규모가 다른 사업을 압도하지만 담당 인력 증가를 동반하지 않아 위와 같은 현상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공공기관으로서 경영 효율성을 높이려는 재단의 노력이 일부 작용한 것이지만, 동시에 사업 규모의 증가에 걸맞게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불균형 상태라고 파악할 수 있다. 재단은 서울시와 줄기찬 협상을 통해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기간제계약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고, 이후 적정 수준의 정원을 확보하고 공개 채용절차를 통해 정규직 인력으로 치환하는 등, 정규직 중심의 인력운영 체제 정립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 결과 무기계약직은 2017년 2명을 끝으로 모두 정규직이 되었고, 2023년 정원 외 상시인력의 비율은 21%로 감소했다. 2020년부터는 정규직 정원에 '문화행정직' 외에 '운영지원직' 정원을 신설했다. 재단은 주어진 인력으로 시민들에게 보다 많은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일-생활 균형', 주 52시간 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변화된 노동 관련 정책 환경에 적절히 대응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20년간 재단 예산(실행예산) 및 인력(현원 총계) 규모 변화

	2004(출범 원년)	2013(10주년)	2023(20주년)
실행예산	146억 원	607억 원	1,578억 원
조직 및 인력	1사무처 3국 8부 현원 52명	1위원회 1실 4본부 12팀 13단위조직 (2TFT포함) 현원 206명	3본부 9실 32팀 9단위조직 현원 304명

정원 외 인력+무기계약직 현원의 비중과 수탁사업과의 관계 비교
(매년말 기준 현원)



20년 동안 총 66,462㎡, 25개 공간 운영

서울문화재단은 2004년 이동식텐트극장 '서울열린극장 창동'과 공연예술연습실 '대학로연습실'을 시작으로, 2021년 개관한 대학로센터까지, 20년 동안 총 26개 공간(용두동 청사 포함)을 운영해왔다. 이 중 2023년 12월 운영이 종료된 시설은 총 11개이다. 2023년까지 20년 동안 실제 운영한 26개 공간(청사 포함)의 연면적 합계는 66,462㎡이고 공간 당 평균 2,646㎡이다. 운영공간 총 연면적이 가장 넓었던 해는 서울예술교육센터(현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용산)와 청년예술청까지 포함해 가장 많은 21개의 공간을 동시에 운영했던 2020년이었다. 이때 총 연면적은 49,074㎡으로 2004년 4,505㎡ 대비 1,089%규모였다. 2020년 이후 남산창작센터, 남산예술센터, 서울예술치유허브, 삼각산시민청 등의 운영 종료되면서 총 운영 연면적은 축소되기 시작했다. 2023년 12월 기준 총 연면적은 40,434㎡으로, 2004년 대비 898% 규모에 해당한다.

공간 운영사업은 다른 분야 보다 서울시 문화시정 기조의 영향을 더 강하게 받는 측면이 있다. 시설 건립에 서울시 공유재산을 활용해야 하고 대규모 재정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재단이 최초로 운영한 시설인 '서울열린극장 창동'은 서울시 문화국의 2003년 업무계획 상 주요시책 '⑦소외지역에 문화시설인프라 확충'에 포함되어 있었다. 반면 2008년 '창작공간추진단TF'를 설치해 조성 단계부터 재단이 관여했다가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수탁운영한 서울시 창작공간(금천예술공장, 문래예술공장 등)의 조성 배경은 「서울시 컬처노믹스 전략 1.0」에서 찾을 수 있다. 컬처노믹스 전략에서는 '예술적 창의기반', '도시의 문화환경', '도시가치와 경쟁력'에 기여하도록 '유휴시설의 활용을 통한 창의기반 조성'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이런 서울시정 기조에 따라 20년 동안 서울문화재단이 운영한 문화사업공간 25개(청사 제외) 중 '창작-유통-소비'를 주 기능으로 하는 공간은 각각 '14개-2개-9개'로 파악할 수 있다. 출범 초기에는 예술가를 위한 '창작'지원 기능에 집중한 공간이 많았고, 후기로 올수록 시민의 문화 '향유' 공간으로서 기능하는 시설의 비중이 많아지고 있다. 서서울예술교육센터(현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양천) 등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는 예술가들이 시민과 함께 창작하는 '예술교육LAB'을 지향한 측면에서 '창작' 지원 기능이 적지 않지만, 궁극적으로 시민의 예술 체험과 참여를 지향하기 때문에 '향유'를 주 기능으로 구분했다. 향후 개관할 공간은 규모, 장르 간 융합과 문화 참여의 중요성이 커지는 트렌드 등을 고려할 때, 예술가의 '창작'과 시민 '향유' 활동을 연결해주고, 재단이 발굴한 우수 예술 콘텐츠의 확산을 지원하는 '유통'기능까지 장착한, 복합 기능 공간으로서 운영 전략을 적절히 수립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통해 재단이 운영하는 공간은 새로운 '문화창조의 플랫폼'으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간운영 사업비(조성비 제외)가 재단 전체 실행예산(적립금, 반환금 등 제외, 전기 이월금 포함)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4년 4%에서 2010-2011년 29%로 최대치를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2023년 12%로 떨어졌다. 재단이 운영하는 공간의 수와 연면적은 지속적으로 늘었지만 공간운영에 고정적으로 소요되는 경상비 성격의 예산 외 사업운영 예산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재단 전체 예산 중 공간사업 예산 비중도 2010년 이후 하락세를 보인다. 공간사업 예산 비중이 2013년을 기점으로 급속히 하락하는 양상은 서울시 정책기조 변화와 사업수행 방식의 변화와 관련지을 수 있다. 서울시가 컬처노믹스 전략에 따라 2009년부터 집중 투자한 창작공간 6개가 재단에 한꺼번에 위탁되었다가, 2013년에는 그 중 총 8개 공간이 고유사업으로 전환되었다. 서울시 위탁 공간이 개관 이후 안정 궤도에 들어가며 재단의 총 예산 실링 안에서 공간사업비가 축소되면서 공간의 단위면적당 예산 규모는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2015년 이후 계속 최저 수준으로 유지되다가 대학로센터가 개관해 본격 운영된 2021년부터 유의미한 증가세로 전환 기미가 보인다. 이후 근소하게 증가한 2023년 공간 연면적 당 사업비는 제곱미터당 484천원이었다. 이는 재단이 대학로센터를 대학로 활성화의 거점으로 삼고 집중 투자한 효과가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2004년 2개로 시작하여 약 10배 증가한 공간을 운영하는 2023년 단위면적당 예산은 최고치를 보였던 2006년(1,543천원) 대비 겨우 31%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서울문화재단 전략보고서 - 유휴시설을 활용한 서울시예술창작공간조성』(이선철 외, 서울문화재단, 2009)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공간이 단순 대관자형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매개자형, 기획자형 운영으로 나아가는 데는, 관계 형성의 계기가 되어 줄 문화프로젝트 기획 예산과 늘 열려있고 편안한 공간으로 운영해 줄 인적 자원의 확보가 관건이다.

20년간 공간 운영 개요

연번	공간명	개관일	재단 최종 운영년도	연면적 (㎡)	조성 방식		주 기능 구분		
					재생	기타	창작	유통	향유
1	서울열린극장 창동	2004.09.10.	2011	3,850		신축		△	O
2	대학로연습실	2004.12.27.	2022	655		임대	O		
3	남산창작센터	2007.10.10.	2020	1,966	O		O		
4	서울연극센터	2007.11.10.		943	O		△		O
5	청계창작스튜디오	2007.12.27.	2008	333		임대	O		
6	남산예술센터	2009.06.08.	2020	3,079		임대		O	△
7	서교예술실험센터	2009.06.19.	2023	551	O		△		O
8	금천예술공장	2009.10.07.		3,070	O		O		
9	신당창작아케이드	2009.10.16.		1,389	O		O		
10	연희문학창작촌	2009.11.05.		1,480	O		O		
11	문래예술공장	2010.01.28.		2,832	O		O		
12	가든파이브 문화특구	2010.06.10.	2014	9,594		신축		△	O
13	서울예술치유허브	2010.07.28.	2021	1,997	O		O		△
14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2010.12.17.	2021	403	O				O
15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	2007.10.05.		300		임대	O		
16	서울무용센터	2011.05.11.		2,044	O		O		
17	시민청	2013.01.12.	2023	8,150		신축			O
18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2015.04.24.		7,701	O		O		
19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양천	2016.10.08.		1,190	O		△		O
20	삼각산시민청	2018.04.28.	2020	540		신축			O
21	삼일로창고극장	2018.06.22.	2023	417		임대	O	△	
22	청년예술청	2020.08.21.		1,877		신축	O		△
23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용산	2020.11.05.		2,143		신축	△		O
24	대학로센터-예술청	2021.10.27.		7,590	O		O		△
25	대학로센터-쿼드	2022.07.20.		-	-		△	O	
26	서울연극창작센터	2024 예정		미반영		(신축)			
27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강북	2024 예정		미반영		(신축)			
28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서초	2024 예정		미반영		(신축)			
29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은평	2024 예정		미반영		(신축)			
30	본관 청사	2005.12.29.		2,368	O				
				66,462㎡	**15건**	**10건**	**14**	**2**	**9**

평균 21% 재단 자체확보, 60% 서울시 의존 비율을 보인 재정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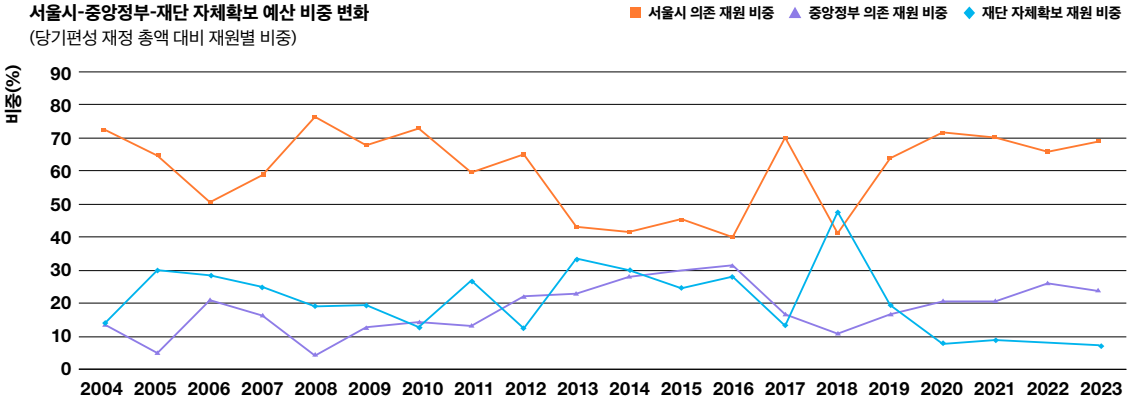
2004년(14,590백만 원) 대비 2023년(136,838백만 원) 당기편성 재정규모가 938%로 증가하는데 큰 영향을 준 요인은 주로 서울시 시책사업 수탁, 중앙정부 국비 매칭, 기본재산 원금 사용, 기부금 유치 등이었다. 20년간 출처별 재원의 비중 변화를 살펴보면 서울시 재원(출연금, 수탁사업비 포함, 기본재산 출연금 제외, 당기편성재정 규모 기준)이 가장 주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그 비중의 20년 전체 평균은 60%이고, 이 중 재단 기본재산 원금이 사업비로 투입된 특이 상황 8년(2011, 2013-2019)을 제외한 평균은 67%였다. 20년 동안 서울시 재원 비중이 가장 높았던 2008년(76%)은 서울시 사계절 축제 예산이 출연금으로 편성되며(101억) 고유사업비가 전년 대비 90%나 증가했던 때이다. 재단 출범 원년에는 기본재산 이자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서울시 의존 비중이 높았고(72%), 이후 서울시의 주요 신규 시책사업이 재단에 위탁되는 시기와 중앙정부 국비매칭 예산이 감소하는 시기에 서울시 재원 비중이 두드러지는 증가세를 보인다. 서울시 창작공간이 재단에 위탁되고 본격적으로 운영되는 2010년(73%), 학교예술강사 사업(102억) 등 국비사업이 종료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2017년(70%), 코로나 긴급 추경이 편성되었던 2020년(72%), 다양한 청년 관련 사업이 확대된 2020년(70%)이 이에 해당한다.

재단 자체 확보재원 비중의 20년 전체 평균은 21%지만, 기본재산 원금을 사업비나 대학로센터 건립비로 편성했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16%에 그친다. 재단 자체확보 재원은 기본재산 이자수입, 위탁 수수료 등 사업수입과 기부금이 중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2011년부터 기본재산 원금을 사업비로 사용하며 현금성 기본재산 총액이 2013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한데다 낮아진 이자율로 이자수입은 2009년 최고치(5,888백만 원) 이후 줄곧 축소되었다. 이에 따라 이자수입이 연간 실행예산 규모에 기여한 바는 미미하다. 기부금 또한 출범 초기 기본재산 적립금으로 사용된 우리은행의 고액 기부와 하이서울페스티벌 등 서울시로부터 이관된 사업 연계 협찬금 성격의 기부금을 제외하면 연간 실행예산에 대한 기여분은 미미한 수준이다.(20년 전체 평균 2%, 기본재산 원금 사용 시기 제외한 평균 3%)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부금이 재단 자체확보 재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년 평균 11%(기본재산 원금 사용 시기 제외 시 16%)로 유의미한 수준이었다.

국비매칭 후 서울시를 통해 위탁되거나 중앙정부 산하기관이 집행하는 국비보조금으로 내려온 중앙정부 재원 비중의 20년 평균은 19%였다. 국비의 편성은 재단 기본재산 원금이 서울시 재원을 대체한 상황과 무관하기 때문에 해당 시기(2011, 2013-2019) 중앙정부 재원 비중은 17%로 19%와 큰 차이가 없다.

당해연도에 수행되는 총 사업규모를 가늠하는 '실행예산' 총액 중 재단이 서울시와 사업단위별 '수탁' 계약 방식으로 집행하는 예산의 비중은 20년 평균 38%였다. 서울시 수탁 비율은 메르스 사태에 대응한 추경예산이 재단에 긴급 위탁되었던 2015년에 50%로 최고치를 보였다. 2020년 이후 국비매칭 통합문화이용권 사업비가 급증해 2023년 495억 원에 이르렀다. 게다가 서울시 청년문화패스(67억)와 같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분배형' 사업 비중이 커져가는 추세에 따라 서울시 수탁비율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중앙정부-재단 자체확보 예산 비중 변화
(당기편성 재정 총액 대비 재원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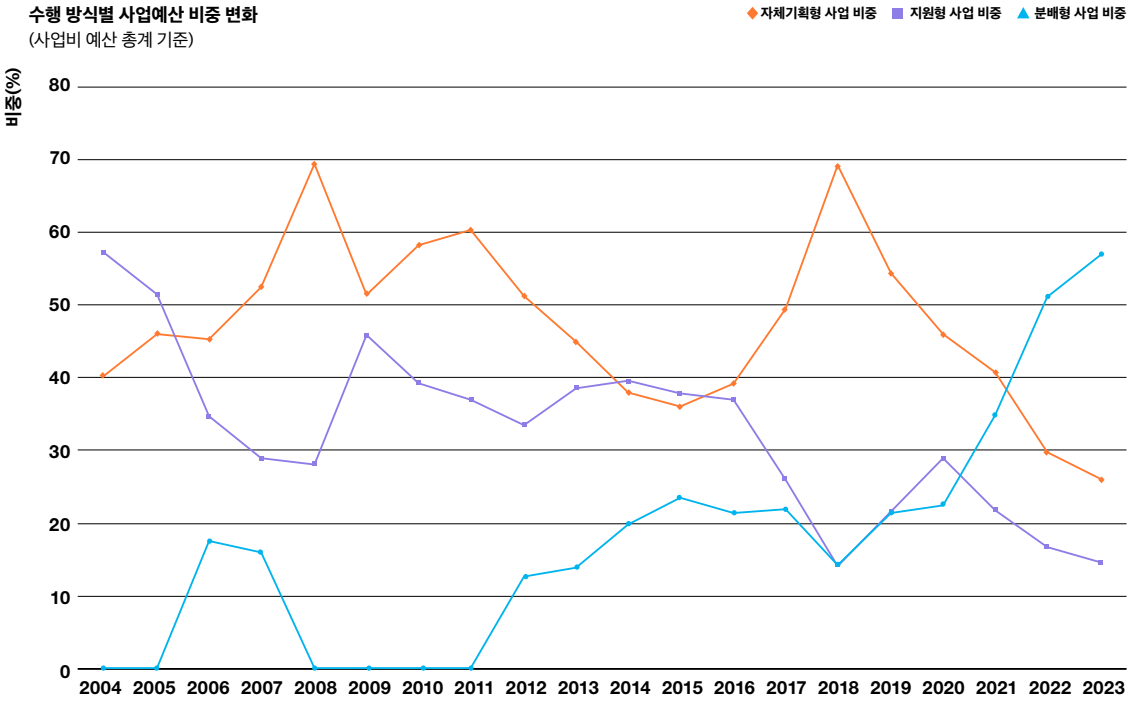


2004년에는 '지원형' 사업이, 2023년에는 '분배형' 사업이 57%를 차지

지난 20년 동안 집행된 사업비 예산(경상비 제외)을 시기와 대상별로 필요한 문화서비스와 콘텐츠를 기획-제작-전달하는 과정을 재단이 직접 '자체기획'하는 방식, 관련 생태계의 주체들에게 '지원'하여 수행토록 하는 방식, 그리고 서비스의 수혜자로서 특정 조건에 부합하는 대상자들에게 일괄 '분배'하는 방식으로 구분했다. 재단이 대학로 청사 건립에 거액을 투입해 '자체기획'형 사업 비중이 급증한 2018-2019년을 예외로 하면, '분배형' 사업의 비중은 국비매칭으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을 수탁하기 시작한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특히 2020년 이후에는 급증세를 보이며, 서울시 청년문화패스까지 추가된 2023년에는 '분배형' 사업 비중이 57%(자체기획:지원 = 29%:15%)으로 늘어났다. 공교롭게도 이는 2004년 '지원형' 사업의 비중과 동일하다.

문화복지 사업의 중요성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분배형' 사업 비중이 재단의 의지가 아니라 중앙정부의 의지에 따라 급증하는 양상에 대해서는 점검과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관련 생태계의 예술단체에 대한 '지원형' 사업에서는 지원 대상자 선정 절차의 공정성을 담보할 내부 관리역량 확보와 외부 전문가 참여시스템 운영이 출범 초기부터 지속되어온 과제이다. '예술인복지' 사업의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창작자에 대한 '분배형' 사업을 '지원형' 사업과 차별화하여 정립하는 것도 재단이 당면한 과제이다. 재단이 '자체기획'하는 방식도 중요한데, 특히 공간운영 사업은 이 방식이 대부분이다. 재단은 창의적인 문화기획력으로 시대 변화에 맞춘 다양한 문화사업들을 '자체기획' 방식으로 진행해왔다. 신규 추진한 사업의 우수성이 확인된 경우 이를 서울시 전역으로 확산하기 위해서는 광역-기초 문화정책 주체들 간의 협력과 정책전달체계 확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필요한 정책 거버넌스와 제휴협력 역량의 확보도 재단이 당면한 과제 중 하나이다.

수행 방식별 사업예산 비중 변화
(사업비 예산 총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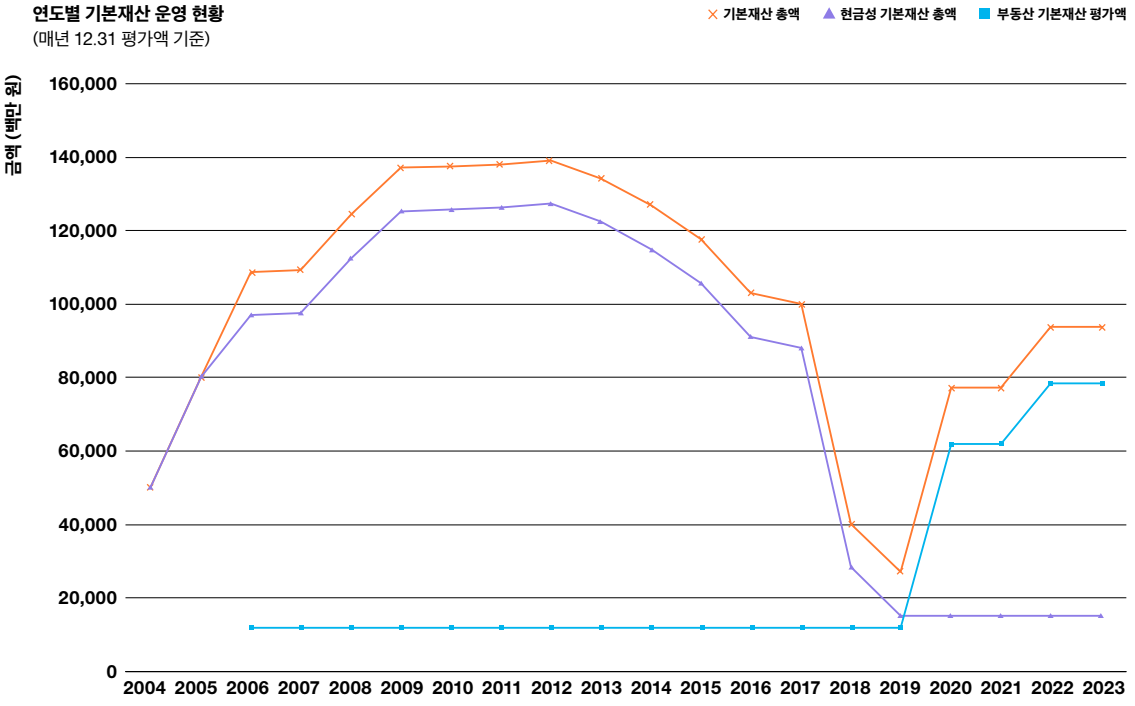


84%가 부동산으로 전환된 937억의 기본재산은 연결자·매개자·촉진자 역할을 위한 밑천

2023년 12월 기준, 서울문화재단의 기본재산 총액은 93,753백만 원이다. 이중 현금성 기본재산은 정기예금으로 운영되는 15,212백만 원이다. 나머지는 용두동 청사와 대학로청사 부동산으로, 이들의 평가액은 총 78,541백만 원이고 기본재산 총액의 84%를 차지한다. 서울시는 2004년 재단 설립 직후 문예진흥기금 300억을 포함, 총 500억 원을 재단 기본재산으로 출연했고, 2005년에는 300억 추가해 총 800억 원의 현금 기본재산을 출연했다. 당초 출연목표 1천억 원 대비 부족했던 200억 원은 결국 현금으로 출연되지 못했다. 대신 서울시에서는 2006년 재단 청사 현물을 출연했고, 서울시 주거래 금고인 우리은행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총 400억 원을 기부하도록 주선했다.
작은 규모이지만 재단의 자체적인 기부금 유치 노력까지 합쳐 재단의 기본재산 현금은 2012년 127,513백만 원으로 최고치에 달했다.

2011년부터 서울시 재정 악화에 따라 재단 사업비 출연 규모를 축소해야 하는 상황에 봉착했다. 재단은 예술계 현장에 가해질 충격을 고려해 사업 규모를 유지해야 하는 딜레마를 안고 서울시와 예산 협의 과정에서 부득이 기본재산 원금을 사업비로 사용하게 되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사업비로 사용된 기본재산 원금은 총 458억 원(결산서 기준)이다. 낮은 이자율과 감소된 원금 총액으로 기본재산 이자수입도 급감하면서 기본재산의 효용성 자체가 줄어들고, 다시 기본재산을 모두 사용하자는 서울시 예산담당 부서의 목소리도 커지는 악순환이 계속되었다. 2016년 당시 수준으로 원금 사용 기조를 유지할 경우 4~7년 후 완전 고갈될 상황이 예측되었다. 이에 재단은 기본재산 지키기의 정책적 의미를 서울시와 공유하고자 노력했다.

연도별 기본재산 운영 현황
(매년 12.31 평가액 기준)



최초 문예진흥기금으로 조성된 문화재단 기본재산은 서울시 문화정책 의지를 표방하는 상징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서울시에 의존하는 예산 구조 안에서 좀 더 자유롭고 창의적인 문화사업의 씨드머니로 활용될 수 있다는 입장을 정립했다. 이후 재단에서는 기본재산을 부동산으로 치환해 그 규모를 유지하면서 예술가의 창작을 지원하는 공간 자원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수립했다. 이를 토대로 2017년에 서울시장을 설득했고, 2018년부터 옛 동숭아트센터 구입과 리모델링 사업비를 기본재산 원금을 활용해 편성했다. 리모델링 공사 완료 후에는 부동산 평가액과 건축 설비투자액 등을 부동산 기본재산으로 등재하여 관리하고 있다.

민법에 따라 운영되는 민간 재단법인으로서 법인격을 갖춘 지역문화재단에 요청된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기부 및 민간 자원 유치 사업이었다. 재단 2004년 출범 시 기부 업무만 전문으로 담당하는 '문화네트워크2부'를 독립부서로 편제해 적극적으로 기부유치에 나섰다. 출범 초기에는 주로 기본재산으로 적립된 고액 기부가 유치되었으나, 이후 연간 기부유치 규모는 축소되었다. 2017년부터는 증가세를 보여 2020년 20억 원에 이르렀지만, 상대적으로 재단 총 예산규모로 급격히 증가하면서 당기 편성 총 규모 대비 재정 기여도는 20년 평균 2%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단 자체확보 재원 중 기부금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이후 4개년 평균 약 19%를 유지하고 있으며(최대 21.9%: 2020년, 20년 평균 11%) 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기부는 규모 차원에서의 실적만이 아니라 제휴협력을 통해 문화예술의 가치가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는 상징적 효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라도삼 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3)에서 재단 설립목적과 사업방향으로, '문화자원의 연결자(Networker), 민관협력의 대행자(agent), 문화예술활동의 촉진자(promotor)'역할을 제시했다. '민관협력의 대행자(agent) 역할'을 수행하는 데는 '기부금품의 모금 및 다각적인 형태의 문화예술 지원(후원, 협찬, 투자 등 포괄적인 기업메세나 활동)을 촉진한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재단 출범 10년차를 준비하며 작성한 『서울문화재단 비전과 전략 2012』에서는 '문화거버넌스 시대에 시민뿐만 아니라 다양한 파트너들과 소통·협력하는, 개방성과 전문성을 갖춘 문화정책 기관으로서 거듭나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문화정책 구현의 민간 전문 파트너', 지역문화네트워크 안에서 '신뢰받는 중간 지원기관', 민간기업의 '창의적인 제휴 파트너'로서 '전문성과 개방성을 확대하는 재단의 위상 설정 전략'을 제시했다. 이는 설립 20년 차에도 여전히 유효한 전략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기부 유치를 넘어 제휴협력의 플랫폼으로서 자리매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시기별 문화정책 흐름을 반영하며 선도하기도 한 '예술·시민·도시' 3개 영역의 사업들

서울문화재단은 각 시기별 서울시 문화시정에 상응하는 경영전략 체계를 설정해왔다. 2004년 서울시 문화시정의 비전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도시, 서울'이었고 2023년은 '모두가 누리는 365일 활력있는 문화매력도시 서울'이다. 재단은 '아름다운 서울문화21 창조'(2004), '문화예술로 행복한 서울 만들기'(2023)라는 미션과 비전 아래 '예술창작-시민문화-문화도시' 세 영역별로 단위사업을 수행해 왔다. '예술창작-시민문화-문화도시' 세 영역별 단위사업의 명칭 변화와 세분화 양상은 시기별로 강조된 서울시정 기조뿐만 아니라 국가의 문화정책 흐름을 반영하는데, 이는 관련 법률 제정 연혁과도 연관 지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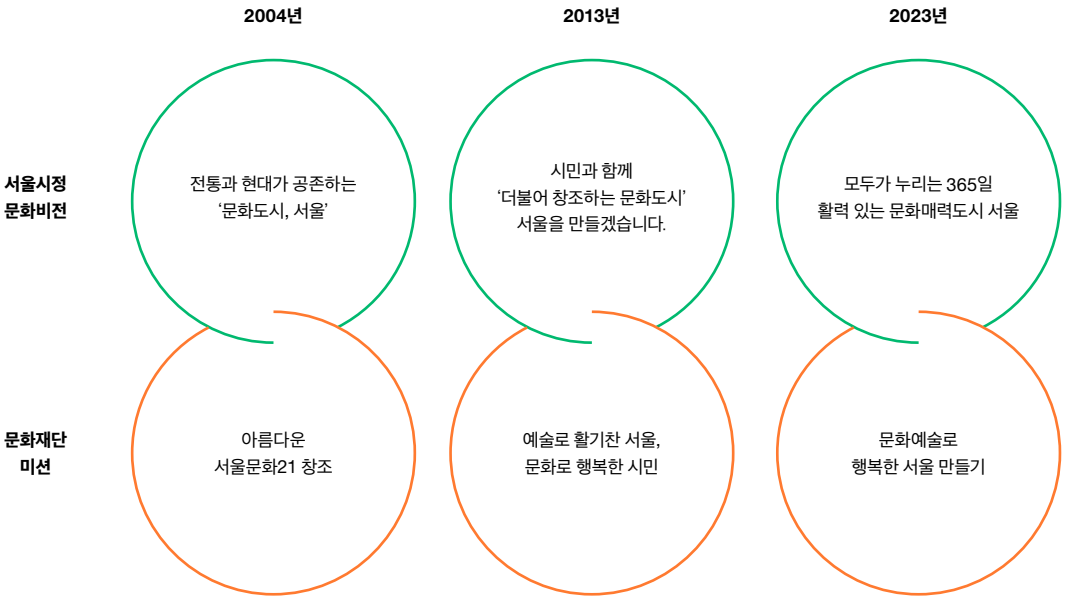
'예술창작'영역의 지원사업은 1972년 제정된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해 서울시가 직접 운영해 오다가 2004년 재단 출범과 함께 이관되었다. 2009년 서울시 창작공간 수탁운영 이후에는 공간 기반의 기획형 지원사업, 지원금과 공간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창작지원 프로그램이 다변화되었다. 단순 지원금 지급방식에서 벗어나 정보제공, 창업지원 등 다양한 방식의 창작지원 프로그램이 시도되었고, 2009-2010년에는 지원사업 정보를 한자리에서 보여주는 '서울예술지원박람회'가 전국 최초로 개최되었다. 재단은 정부의 지역문화분권 기조에 따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지역협력형' 예술지원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처음 시도한 공연장상주단체지원사업을 2009년 전국 최초로 기획해 시행했다. 2011년 「예술인복지법」 제정 이후 창작활동 지원 이외에 일자리 제공, 창업지원 등의 시책이 중시되었다. 이때를 전후로 재단이 담당했던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2010-2016), '서울문화기업육성지원'(2011-2013) 등이 그 궤를 같이한다. 2020년에 「장애예술인지원법」이 제정되었는데, 재단에서는 그동안 운영해오던 장애예술 전용 창작스튜디오(잠실창작스튜디오)의 운영예산과 별도로 '장애인 창작활성화 지원사업'(2017-) 등 기획형 지원사업이 추가되었다. 2021년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 이후에는 창작지원사업 안에서 예술인 권익보호를 위한 법률상담 서비스 등이 강화되었고, 2023년에는 대학로센터 2층에 '서울예술인지원센터'가 개설되었다.

'시민문화' 영역에서는 출범 초기부터 시민들의 문화향유를 위한 질 높은 프로그램 공급에 노력했다. 2013년 「문화기본법」 제정 이전부터 재단은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체험교실(2005), 서울 사랑의 문화나눔(2005-2011), 예술로희망드림 프로젝트(2009-2015) 등의 문화복지사업을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2012년부터 국비-시비 매칭 후 재단에 위탁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문예진흥법」에 근거하지만, 국민의 문화적 기본권을 강조한 문화기본법 제정 이후 모든 정권에서 문화 분야 국정과제의 핵심지표로 채택되면서 예산 규모가 급증했다.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을 계기로 시민들이 문화 창조의 주체로 참여토록 지원하는 방식이 강조되었다. 재단에서는 2004년부터 '생활 속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 사업 영역 아래 '일반문예지원 공모사업'으로 시민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해오고 있었다. '시민문화예술지원'(2005-2013) 등의 사업명으로 창작지원사업 영역 안에서 시민들의 예술활동을 지원해오던 것이 2015년 '문화도시 생활예술 활성화'라는 별도 예산사업 영역으로 구분되었다. '시민예술활동 활성화', '서울댄스프로젝트', '좋아서-예술동아리' 등 다양한 기획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던 생활예술 활성화 사업은 2017년 '생활문화지원단'으로 전담 조직이 편제되면서 '생활문화매개자 양성'과 자치구 단위까지 이어지는 생활문화 네트워크 구축이 강조되었다.

'문화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영역에서는 축제를 통한 도시 이미지 마케팅, 국제교류, 문화정책개발 역량 강화, 정책네트워크 확대까지 다양한 관점의 사업이 진행되었다. 2004년 출범 시 '문화도시 서울의 이미지 창조' 영역에서 시행되었던 '하이서울페스티벌'을 바라보는 관점이 도시마케팅, 시민참여축제, 축제를 통한 예술콘텐츠 유통 지원까지 다양하게 변모해왔다. 2014년 제정된 「지역문화진흥법」은 기초 단위 지역문화재단의 설립 근거가 되었고 문화도시 사업을 본격화하는 동력이 되었다. 서울도 지방이 아닌 지역으로서 문화를 통한 도시 활력 만들기 사업이 이 법의 영향으로 강화되었다. 2013년 시범 실시되었다가 2019년까지 지속된 '서울상상력발전소 프로젝트',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진행된 '복작복작 예술로 골목길 프로젝트'가 이에 해당하는 사업들이다.

서울시정 문화비전과 서울문화재단 미션 비교



서울문화재단은 중앙정부 시책의 흐름과 관계없이 '책 읽는 서울', '문화가 있는 놀이터', '메모리[人]서울', '문화는 내친구', '바람난 미술' 등 독창적인 문화사업을 기획해 시행했다. 특히 서울이라는 독특한 도시 공간을 활용한 기획사업은 시민들이 도심 곳곳에서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향유 지원 효과뿐만 아니라 도시 공간을 매력적으로 인식시키는 장소 마케팅의 효과도 있었다. '서울거리(청계천)아티스트(2005-2012)', '시청사 모뉴먼트(2005-2012)', '고궁뮤지컬(2017-2012)', '달리는 문화철도(2017-)' 등은 청계천, 서울광장, 고궁, 도시철도 등 도시 인프라 운영 주체들의 협조 없이는 실행이 불가능했을 프로젝트들이다.

재단은 새로운 흐름으로 부각되는 문화정책이 법 제정 후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기에 앞서 시범사업으로 실험하거나 정부 정책과 관련 없이 그 흐름을 주도하기도 했다. 2005년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정 이전부터 '청소년문화벤처단' 등 예술교육사업을 수행했고, 2006년부터 '방과후교실 학교예술교육사업'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중앙정부 예술교육 사업을 수행하기 시작했다. 2010년 문체부의 학교예술강사 사업을 수탁하기 전인 2009년부터 'TA(Teaching Artist)' 양성을 시작하며 서울형 예술교육의 차별화를 위해 노력했다. 특히 2016년 개관한 서서울예술교육센터(현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양천), 2020년 개관한 서울예술교육센터(현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용산) 등 권역별 문화예술교육센터는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예술교육이 아니라 예술가와 시민이 함께 창작하는 '예술교육LAB'을 지향하며 서울형 예술교육의 차별성을 확고히 했다.

서울문화재단의 문화사업은 문화정책 안에서의 변화 이외에 타 영역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기도 한다. 특히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집중한 일자리 창출과 청년 관련 정책은 예산 규모면에서 많은 영향을 주었다. 재단은 2018년부터 ‘뉴딜일자리’ 사업을 수탁해오고 있고, 2020년 ‘청년예술청’을 개관했다. 2021년에는 ‘도시문화LAB’ 등 다양한 청년 관련 사업이 재단에 위탁되었다. 일정기간 정책 기조에 따라 지속되는 시책 외에 메르스(2015), 코로나19(2020-2021)와 같이 긴급 상황에서 추가 편성된 예산을 재단이 수탁해 위기에 빠진 예술 현장에 도움을 주기도 했다.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라도삼 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3)에서 제시한 내용은 서울시 문화국의 재단 설립 시장 방침의 기초가 되었다. 하지만 2004년 출범 원년부터 사업 실행 현장에서 부딪치는 문제를 해결하고 중장기 비전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했다. 재단은 2005년 ‘정책연구팀TF’를 설치해 서울시정개발연구원(현 서울연구원)과 함께 『서울문화재단 중장기 발전전략 및 조직개선』 연구를 시행했다. 2006년에는 대표이사 직속으로 ‘전략기획팀’을 두고 『문화예술로 행복한 서울만들기를 위한 - 2기 경영전략보고서』를 발간했다. 이후 2012년에는 출범 10주년을 준비한 『서울문화재단 비전과 전략 2012』 연구, 2022년에는 출범 20주년을 준비하며 『서울문화재단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중장기 전략수립 연구』를 발간하는 등, 주요 변곡점마다 환경 변화에 대응한 경영전략을 수립해왔다. 재단은 2022년 연구에서 ‘문화와 예술로 행복한 서울 만들기’로 기관 미션을 재정립하고 ‘문화예술의 다양한 가치를 발현시키고 시민과 함께 공감하는 선도적 문화예술기관’을 비전으로 설정했다. 특히 비전 달성을 위한 정량적 경영목표 관리에 집중하여, 2023년에는 핵심성과목표(KPI)를 재구성하는데 전사적 노력을 기울였다. 그리고 높아지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구현과 ESG 경영 실천 요구에 부응해 2023년에 ‘ESG경영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2024년 창립 20주년을 앞두고 ‘창의혁신TF’ 활동을 통해 ‘미래비전 선포를 위한 10대 핵심과제’를 선정하기도 했다.

20세기 시민들이 밀레니엄 버그와 함께 ‘문화의 세기’로 고대했던 21세기의 초반에는 창조도시와 창조경제 붐이 세계를 휩쓸었다. 서울문화재단도 ‘경제문화중심도시’를 지향하는 민선 4기 서울시장의 요청에 따라 2006년에 『문화예술을 통한 도시가치 창출 - 서울문화재단 전략보고서』를 발간했다. 그로부터 20년 후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사태를 겪은 유네스코는 2022년 『Culture in Times of COVID-19: Resilience, Recovery and Revival(코로나-19 시기의 문화_회복탄력성, 복구, 재활성화)』를 발간했다. 세계도시문화포럼(WCCF)은 2023년 상파울루 총회에서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중 문화 분야 목표 채택을 위한 「상파울루 선언문(A Goal for Culture: São Paulo Manifesto)」을 발표했다.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는 서울문화재단이 회장기관으로 활동한 2023년 부설 정책연구소 주관 공동연구로 『사회문제해결 문화정책 현장_사례와 시사점』을 발간했다. 2024년에는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지역문화 매력·활력 증진방안』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 거의 사반세기가 지났지만 여전히 유효한 ‘문화도시’와 ‘문화활력’에 더해, 세계 주요 문화정책 주체가 주목하고 있는 ‘포스트 코로나 회복’, ‘기후위기 대응’, ‘사회적 문제해결’ 등은 문화정책이 맡아야 할 당면 과제들이다.

아울러 2022년 말 이후 불과 1년 만에 인간 존재의 기반을 흔들 정도로 거칠게 몰아치고 있는 AI기술의 회오리는 ‘우리가 인간임을 알려주는 문화’의 가치를 보여줘야 할 문화재단에게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창립 20주년을 맞는 2024년은 서울문화재단이 ‘모두가 누리는 365일 활력 있는 문화매력도시 서울’, ‘예술 하기 좋은 도시 예술특별시 서울’의 문화비전을 너머 새로운 문화정책의 비전을 제시해야 할 시점이다.

김 해 보 정책협력실 전문위원

SECTION 3

사람

PEOPLE

3.1.

예술인 좌담회 ①

일시: 2024년 1월 5일
장소: 서울문화재단 대학로센터
참석: 고선웅, 남인우, 안은미

예술은 섞여야 확장된다

서울문화재단은 지난 20년간 축제, 지원, 교육, 창작공간 등 다양한 문화사업을 통해 시민들이 더 가깝게 예술을 만나고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도전과 시도를 이어왔다. 하지만 그 기저에는 정책이나 기금으로 해결될 수 없는 중요한 요소가 하나 더 있다. 바로 예술 현장의 이해를 바탕으로 조금 더 도발적인 상상력을 더해줄 수 있는 예술가와의 협업이다. 이러한 예술가와의 파트너십은 재단의 주요한 정책을 다듬고 발전시키는 초석이 되기도 했고, 예술가들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활용되기도 했으며, 사업의 목표와 지향을 확장하여 시민의 접근성을 높이는 기회를 만들어 왔다. 무용가 안은미, 연출가 고선웅, 남인우 역시 마찬가지다. 각각 축제, 공연, 교육 등 재단과 맺었던 분야와 영역은 다르지만,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 함께 진행했던 활동들은 재단의 주요한 흔적으로 남아있다. 재단 운영의 중요한 전환점에 함께 했던 세 명의 예술가와 함께 지난 시절의 활동과 경험을 나누고, 20년을 맞으며 성인이 된 재단에 대한 또 다른 바람과 희망을 담았다.

남인우

극단 북새통의 예술감독 및 상임 연출로 활동하고 있는 남인우 연출은 연극놀이 강사, 국립극단 어린이 청소년극 연구소 책임연구원 등을 역임했다. 2020-2023년까지 재단 이사로 활동했으며 2012년 '창의예술교육전문가(AiE Specialist) 교육과정'부터 예술교육사업에 참여했다.

고선웅

극공작소 마방진의 예술감독 및 2022년부터 서울시극단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고선웅 연출은 2009년 남산예술센터 개관작 〈오늘 손님 오신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남산예술센터와 신시컴퍼니가 공동 제작한 〈푸르른 날에〉 연출로 참여했다.

안은미

안무가. 무용가. 작가 및 안은미컴퍼니 대표로 활동하고는 안은미 무용가는 대구시립무용단장,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개폐회식 안무, 부산국제무용제 프로그래머를 역임했으며, 2008-2009년 하이서울페스티벌 봄 축제 예술감독으로 참여했다.

고선웅
안은미
남인우
Collection
Collection
Collection
Collection
Collection

인연과 경험 서울문화재단 설립 20주년을 맞아 재단의 역사에 함께 하셨던 세 분을 모셨습니다. 사실, 세 분 모두 재단의 사업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셨던 역할과 시기가 다르지만, 중요한 공통 분모가 하나 있다면, 바로 재단의 중요한 전환점에서 깊은 인연을 맺었다는 사실 같은데요. 먼저 재단과의 첫 인연부터 소개 부탁드립니다.

고선웅 2009년 남산예술센터 개관기념 작품으로 참여하면서 처음 연을 맺었다. 당시 재단에서 '처음 문을 열고 손님을 모신다'는 콘셉으로 〈오늘 손님 오신다〉라는 작품을 기획했다. 한 무대에서 세 개의 작품을 섞어서 동시에 진행하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형태였다.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자체가 혼돈이었다ㅎㅎ. 어떤 하나의 서사를 가지고 작품을 한 것이 아니라 여러 인간군상의 세 이야기를 동시에 섞어 놓은 작품이었으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복잡한 형식이라고 느꼈는데 막상 공연을 올려놓고 보니, '따로 또 같이' 같은 느낌이랄까, 다양한 묘미가 있었다. 결과적으로는 아주 흥미롭고, 보람찼던 경험이었고, 지금 생각해 보면 서울문화재단이 걸어가야 하는 복잡다단한 이야기들이 그 작품에 녹아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남인우 첫 인연이 두 개가 생각나는데, 하나는 재단이 설립되고 얼마 안 된 뒤, 2005년쯤인가, 재단 기금을 받아 정산했을 때다. 처음이라 엉망진창이었던 자료를 당시 재단에서 근무했던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엑셀 하나하나 배우고, 고치며 정산했던 기억이 있다. 그때 서울문화재단이 이렇게 예술가들의 부족한 점을 도와주는 곳이구나, 하는 걸 느꼈던 것 같다. 처음엔 혼내려고 부른 줄 알았는데ㅎㅎ.

안은미 혼내고 싶었는데 딱 보니까, '아! 이 사람 혼내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 같다ㅎㅎ.

남인우 두 번째 인연은 예술교육팀이 남산으로 이전했을 때, 당시 대학원 지도교수님의 추천으로 예술교육 강의를 하면서부터다. 이후 계속 예술교육 사업에 참여했는데, 재단이 링컨센터와 MOU를 맺었을 때 링컨센터 연수도 가고, 서울대 곽덕주 교수님, 재단 직원들과 함께 유럽 예술교육센터들을 방문하며 기록한 것을 묶어 책으로 발간하기도 했다. 그때 서울문화재단이 한국에서 유일하게 '티칭 아티스트(Teaching Artist)'라는 단어를 만들어 냈다. 당시 예술교육이 중요했었는데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의 자살률, 학교 교육에서 예술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한 문제가 대두될 시기였다. 재단이 중요한 역할을 선도했고, 그때 예술교육팀에서 서울시 교육청을 찾아가 직접 예산을 따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재단 자체가 소명 의식과 열정을 갖고 행동했던 시기에 함께했던 것 같다.

안은미 대구시립 단장 임기를 끝내고 서울 왔을 때 재단이 생겼다. 조직과 거리가 멀었던 사람이었고 지원금 시스템도 잘 몰랐던 시기였는데, 당시 재단 대표님의 제안으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2년 연속 하이서울페스티벌의 예술감독으로 참여했다. 미리 잡혀 있던 해외 일정이 있었지만, 재밌는 제안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독일에서 축제팀과 영상으로 회의하며 주제와 컨셉을 정했고, '궁 축제'라는 제목을 정하고 그런 과정에서 궁과 협업하고 시민과 연계해야 하는 '오월의 궁'이라는 주제가 나왔다. 서울의 역사, 서울의 궁을 모두 엮어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광화문에 사무실을 빌려 거의 매일 야근하며 2시간씩밖에 못 자고 일했다. '오월의 궁'이라는 나이트 광장처럼 만들려고 건축가를 섭외하여 조명을 제작해 LED 샹들리에를 만들었는데, 그때 인스타그램이 있었으면 엄청난 이슈였을 거다. 궁을 주제로 프로그램 짜는 게 여러 가지 신경이 많이 쓰였지만 돌아보면 성황리에 잘 끝났던 것 같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남산예술센터 개관, 창의예술교육 티칭 아티스트 프로그램, 그리고 2008년 사계절 축제로 변모한 하이서울페스티벌 등은 재단의 여러 사업 중에서도 중요한 전환기를 갖게 한 중요한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서울문화재단에 대한 인지도를 넓히고, 예술가와의 파트너십을 만들어 가는 중요한 시기이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인연을 통해 얻게 된 개인적인 경험이나 재단에 대해 새롭게 인식한 부분도 있을까요?

안은미 축제를 관람할 때 클럽처럼 스탠딩으로 볼 수 있게 만들었고, 놀이동산처럼 무대를 세 개 만들어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많은 움직임을 할 수 있게 했다.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많았는데, 돗자리를 들고 와서 낮부터 몇 시간씩 기다리는 분들도 있었고, 너무 많은 사람이 몰려 뛰어놀다 보니 잔디가 상하기도 했다. 서울에 시민이 그렇게 많은지 그때 알았다ㅎㅎ. 땅이 꺼지는 거 아닌가 하는 안전 문제를 걱정한 경험도 처음이었고. 첫 번째 감독 경험 후 아직 공부할 부분이 많다고 느끼면서 더 잘하고 싶었던 것 같다. 축제 감독으로 일하면서 개인이면 하지 않을 일을 할 수 있어서, 전체의 공간 안에서 누군가를 위해 일할 수 있었던 기회와 힘을 가질 수 있었던 건 굉장한 경험이었다. 예술감독으로서 뛰어다니며 축제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을 받는 것 역시 보람 있던 일이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아침 여덟 시에 새까만 양복을 입은 공무원들 앞에서 빨간 땡땡이 치마를 입고 축제에 대해 발표(PT)했던 일이다. 한국 근대사의 한 단편처럼 느껴졌는데, 퍼포먼스까지 하며 그들을 설득했던 경험이 잊히지 않는다ㅎㅎ. 큰 프로젝트를 어떤 단계로 어떻게 빌드업해야 하는지 배웠던 시간이다.

고선웅 2011년 초연 이후 2015년까지 〈푸르른 날에〉로 남산예술센터에서 재공연을 5번을 했는데 그런 경우가 거의 없다. 정말 특별한 행운이었고 지금도 감사한 경험이라고 생각한다. 지나고 보니, 남산예술센터가 참 좋았다는 기억이 많이 난다. 창작자에게 극장은 굉장히 중요하다. 어떤 극장이냐에 따라 창작자의 생각과 정서가 달라지고, 품위도 생긴다. 정말 좋은 극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경험들 때문인지 남산예술센터가 폐관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마음이 많이 아팠다. 극장으로서 자리도 잡았고, 그곳을 올라가는 남산길도 예쁜데, 왜 지속할 수 없었을까 하는 의문이 많았다. 남산 올라가는 길에 남산을 기억한다는 현수막을 보면서 안타까웠던 기억도 난다. 공연을 진행할 때 극장팀에서 많은 부분을 도와주려고 애써주었던 기억도 있다. 홍보나 운영, 모객 등을 담당하고, 우리는 공연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것 같다. 관객이 정말 많았고, 그래서 재공연도 많이 할 수 있었는데, 다만, 프로덕션 쪽에서는 객단가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서 손해를 많이 보기도 했다ㅎㅎ.

남인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문화예술교육의 정책과 방향을 만드는 역할을 하지만, 당시에는 예술인 강사를 만드는 것에 집중했던 것 같다. 마치 '예술강사'라는 직업군을 뿌리는 거 같은 느낌이랄까. 그때 재단에서 예술강사 제도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진짜 예술의 본질을 경험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티칭 아티스트(Teaching Artist)' 개념을 가져왔다. 훈련하고, 교육청에 찾아가서 방과 후 프로그램을 시도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개념을 만들고 확장하는 역할을 같이했다. 시민들을 위해서 예술을 서비스하는 것, 예술가들에게 예술의 창작 기반을 만드는 것, 예술 그 자체를 다양한 방식으로 향유할 수 있게 하는 것, 특히 교육 현장 안에서 예술가와 접목하게 했던 것 등이 참 중요했고 잘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창의예술교육'이라는 개념을 처음 만들 때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게 재단 분들의 열정이다. 수업에 같이 들어오고, 같이 울기도 하고, 재단에서 예술을 다루는 이유가 이런 거구나 하고 느꼈던 순간이었던 것 같다.

안은미 분위기와 느낌이 같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 그 운동성을 만들어 낸 거다. 동기부여가 되고 목적이 명확한 거고. 물론, 단체니까 안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방향이 있어서 그 흐름이 멈추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고선웅 그렇다. 투지가 있었다. 옆에서 봐도 아주 열심히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남인우 재단 식구들이 그 당시 정말 뜨거웠다ㅎㅎ. 재단 직원들과 유럽을 2~3주 같이 갔었는데, 토론을 엄청나게 많이 했던 기억이 있다. 젊고, 패기 있었고, 소명 의식이 있다는 걸 느꼈다. 물론 지금이 그렇지 않다는 건 아니다ㅎㅎ.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느끼지 못했던 열정이랄까. 굉장히 신선했고, 그래서 같이 일하고 싶었던 것 같다.

고선웅 저 역시 공간에서 만났을 때 베풀었던 환대가 좋았다. 친절했고, 합리적이고 대화도 잘 됐다. 깨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느낌이 있었다. 지금 재단 대표님도 열정적으로 무엇을 개선하려고 하시고 의지가 있는 분인 것 같고, 재단 역시 고여 있지 않고, 변화와 혁신을 좇는 느낌이다.

성과와 한계 서울문화재단의 20년은 예술지원기관으로서 그간의 성과와 한계를 돌아보는 계기도 되지만, 지난 20년간 서울의 문화예술정책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간 다양한 방식으로 변화해 왔던 지원 체계와 흐름에 대해 긍정적인 것 또는 개선해야 한다고 느꼈던 지점이 있다면요.

안은미 말씀 들으면서 제안하고 싶은 게 있는데, 홍제동 서울무용센터, 신당동 신당창작아케이드, 문래예술공장 등 다양한 창작공간들이 있는데, '무용센터'라고 해서 무용가들만 모아두면 안 된다. 지금 시대에 안 맞는다. 서로 만나게 해야 하는 것이 진정한 융합이다.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토론해야 하는데, 이렇게 구분되어 있으면 같은 언어만 사용하게 된다. 예술가들은 충격도 받고, 영향도 받아야 한다. 그래야 집에 가서 몰래 칼을 갈면서 공부하는데, 자극이 없는 건 좋지 않다. 긴장감이 있어야 세상을 바라보는 날카로움에 힘이 생기는데 너무 친하다. 마치 동창회 같다. 레지던시는 절벽 위에 지어져야 한다. 잘못하면 떨어질 수 있도록!

남인우 적극적으로 공감하는데 장르별로 왜 다 구별해 두는 건지 모르겠다. 카테고리를 인위적으로 나누는 것이 그렇게 현명한 방법은 아닌 것 같다.

고선웅 경향이 변하고, 새로운 예술적 수요가 생겨서 특별한 지원제도를 신설할 순 있겠지만 그렇다고 이전 것을 무조건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다. 어떤 순서나 개요를 변화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해서 바꿀 수 있지만, 그에 맞춰 모든 걸 뒤집었을 때 더 복잡해지는 것도 많이 느꼈다. 어떤 것들은 그것대로 가지고 가고, 또 새로운 것을 만드는 조율이 필요하다.

남인우 그간 재단이 보여줬던 성과 중 몇 개 기억나는 게 있는데, 젠더 이슈가 있을 때, 재단이 적극적으로 심사위원 풀을 수용하고, 현장 예술가들의 의견을 들으려 노력했던 과정들은 정말 칭찬해 주고 싶었던 것들이다. 반면, 조직이 커지면서 직원들 간의 밀접한 관계가 없다는 것은 좀 아쉽다. 각각의 전문성은 깊어지지만, 소통 없이 전문성만 높아지면 전문성 있는 재단 직원의 아이디어만 중요해지고 더 '탑/다운' 방식의 수직적인 설계들만 많아질 수 있다. 과거에 재단의 패기와 열정이 더 돋보였던 건 그분들의 전문성이 지금보다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현장과 더 밀접하게 만나려고 했던, 예술현장의 전문성을 더 지원하고자 했던 노력이었던 것 같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재단을 더 커지게 한 힘이었다고 생각한다.

고선웅 재단이 20년 동안 잘해왔고, 진화하면서 품질도 좋아졌다고 생각한다. 예술가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려고 집중하고 고민했던 흔적이 있는데, 그걸 예술가들에게 더 실질적으로 알려주는 방법도 필요하다. 아날로그적인, 원시적인 설명회가 필요한 이유다. 예술가들은 그게 더 편하다. 얼굴 보면서 궁금한 거 물어볼 수도 있고, 자연스럽게 친화력도 생기고, 성의가 있는 것처럼 보이면서 좋은 이미지를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람도 많아지고, 재원도 많아지면서 세분화 된 거 같은데, 한편으로는 찾아 들어가는 경로가 더 복잡해진 느낌도 있다. 헌법처럼 쉬워야 하는데 신용카드 약관 같은 느낌이랄까. 조금은 아날로그 감수성을 가지고 예술을 둔탁하게 다뤄 줬으면 좋겠다.

남인우 얘기를 듣다 보니 생각났는데, 고선웅 단장님을 처음 뵀을 때가 기억났다. 재단이 최초로 지원금에 대해 예술인들에게 했던 설명회가 있었는데, 그때 설명회 앞에서 야상을 입은 고선웅 단장님과 서성거렸던 기억이 난다ㅎㅎ. 같은 말인데, 공간도 지원금도 너무 구획을 짓지 말고, 접근성을 편하게 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다.

고선웅 언급돼서 이야기하는 거지만 지원금 설명회가 참 좋은 것 같다. 지원금 신청서도 모르겠고, 그 글의 문맥을 이해하기도 어렵다. 지금 보면 뭔가 비주얼적으로 작명하고, 말하는데 그게 참 어렵다. 또 설명해 주는 말을 들어봐도 그게 잘 매칭된다는 생각보다 4차원 같은 느낌이 든다. 좀 더 일반적이게, 쉽게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뭔가 멋있어 보이는데 뭘 홍보하고 뭘 하려는지 사실 알기 힘들다.

"예술가들은 충격도 받고, 영향도 받아야 한다. 그래야 집에 가서 몰래 칼을 갈면서 공부한다. 자극이 없는 건 좋지 않다. 긴장감이 있어야 세상을 바라보는 날카로움에 힘이 생긴다."

"설계는 논리적으로 하되, 그것을 접근하는 방식은 더 직관적으로 해야 한다. 공간도 그렇고, 장르를 벗어나는 것도 그렇고, 심사의 방식도 그렇고, 접근하는 방식도 그렇고, 그런 것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다."

"같이 갈 수 있는 호흡을 가지고 가야 한다. 왠지 모르게 앞사람이 너무 열심히 하게 되면 자꾸 팔짱을 끼게 된다. 같이 이해하고 앞으로 가다가 뒷사람에게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여유가 중요하다."

안은미 시스템과 심사풀 운영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다. 저는 보통 워크숍에 대한 섭외 전화를 많이 받는다. 비보이 그룹, 연희패 등 내 경험을 공유하면서 최선을 다해 몸을 불살라 가르쳤는데 다음 내용이 없다. 언젠가 젊은 친구들을 심사했을 때 "우리 무급으로 끝까지 이 친구들 다 멘토 하는 게 어때요?"하고 제안, 그 당시 참여했던 심사위원들이 모두 동의하고, 가는 사람 불러와서 다시 인터뷰 심의를 한 적이 있다. 적힌 글과 얼굴이 매치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남이 도와주고, 자기 것이 아닌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물어봤을 때 대답하지 못한다. 나중에 진행된 진짜 인터뷰를 통해 심사 결과를 낼 수 있었는데, 그 후에도 돈 받지 않고, 피드백을 해주며 공연까지 가서 챙겨 봤다. 젊은 사람들에게 그런 시스템, 조금 무서운 사람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고선웅 어떤 의미에서는 배심원제가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본다. "무용하는 사람이 연극을 어떻게 심사해?"라고 생각할 게 아니다. 다른 분야의 사람들이 훨씬 더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볼 수 있고, 보면 다 알 수 있다. 이 사람은 심장으로 썼고, 이 사람은 머리로 썼고, 이건 누가 써준 게 보인다. 그런 관점을 털어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

안은미 이것도 중요하다. 지원금에 대한 개념을 좀 더 정확히 알리고 시작해야 할 거 같다. 지원금은 조금 지원해 주는 거지, 뭘 제작하라는 것이 아니다. 지원금은 자기 욕망에 누가 보태 주는 것이다. 이것을 제작비로 생각했을 때 자기 생명력을 갖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지원금은 제작비가 아니다. 지원금은 공공이 힘을 보태면 개인의 아이디어가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다. 이 지원금으로 살려고 해선 안 된다는 것을 인식시켜 주는 것이 중요하다. 지원금 없이 예술가로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 서른 살 전에 이런 고민을 끝내야 한다. "돈 없어도 살아남을 수 있어야 한다. 그게 art다."라고 (웃음).

역할과 지향 20년의 세월 동안 재단의 역할과 기능이 많이 확장된 것은 사실인데, 그것이 실제적인 체감으로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시민들의 문화향유를 확대한다는 설립 목적을 견지하고 다양한 역할과 기능을 하기 위해 달려왔는데요. 지난 과정의 공과 실을 돌아보는 것은 앞으로의 시간이 더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이후 재단의 역할에 대한 당부와 기대를 부탁드립니다.

안은미 공공성에 대한 인식이 정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공이 가지고 있는 파워, 그것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개인이 가질 수 있는 공간은 집이다. 작고 한정되어 있는데 극장, 미술관, 문화재단 같은 큰 공간이 개인이 가진 제한된 공간감을 위로하고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공공의 역할이다. 그래서 디자인 하나하나가 중요한 것이고 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다. 그렇지만 공공의 결은 디자인이

전부가 아니라, 역사성도 있어야 한다. 감각의 세계만 늘여 두는 것도 창피하다. 공공이 역사성을 놓치면 허접해진다. 해외의 좋은 사례를 보면 방향이 정확할 때 두드러진다. 암스테르담에서 시립, 국립미술관 전시의 소장전을 봤는데, 옛날 작품부터 동시대적인 작품까지 다 전시되고 설명되어 있다.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 역사를 읽게 되는 것이다. 히트 치지 않아도 괜찮다는 기반을 재단이 만들어 줘야 한다.

고선웅 너무 열심히 잘하고 있는 거 같은데, 앞사람이 너무 뜨겁게 가버리면 뒷사람이 데인다는 것도 생각해야 한다. 같이 갈 수 있는 호흡을 가지고 가야 한다. 왠지 모르게 앞사람이 너무 열심히 하게 되면 자꾸 팔짱을 끼게 된다. 같이 이해하고 앞으로 가다가 뒷사람에게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여유가 중요하다.

남인우 그런 의미에서 발걸음을 늦추진 않되, 어떻게 옆에 있는 시민들에게 또 예술가들에게 접근이 용이할 수 있을까? 직관적으로 소통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한다. 또 광역문화재단으로서 해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을 잘 정리할 필요도 있다. 내가 가진 줄기를 쳐내기도 하고, 딱 가져가야 할 줄기를 남기기도 하면서 가지치기를 잘했으면 좋겠다.

안은미 대부분 기초문화재단에는 예산이 없다. "선생님 초대하고 싶지만 돈이 없어요" 한다. 기초재단도 광역재단이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사업을 신청해 운영하기 때문이다. 예술가를 지원하든, 교육사업을 하든 모든 부분이 예산과 결부되다 보니 더 답답하고 아쉬운 순간들이 많다. 지방의 경우는 더하다. 그러니 광역재단으로서 기초문화재단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할 필요도 있다. 맏형으로서 역할이 있다는 말이다. 맵(map)을 그리는 큰 역할을 해야 한다. 옛날과 같은 예술가 지원 위주가 아니라 구조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해진 시기가 아닌가 싶다. 공간도 논의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어떤 방향이 좋은지 밀고 나가는 부분도 있어야 하고, 그것을 설득해야 하는 머리도 필요하다.

남인우 초기에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같은 목적을 공유하는 힘으로 갔는데 지난 20년 동안 규모가 굉장히 커졌다. 큰 공간도 많아지고. 인생에 비교하면 지금이 재단의 청년기이니 정체성을 확립하고 쫙 몰아가야 할 거 같다. 처음 시작부터 함께한 팀원과 이제 막 오는 팀원이 있을 텐데 어떻게 잘 섞이고 힘을 발휘하는가가 중요하다. 제게도 재단이 떠오르기보다는 이를 통해서 만났던 직원분들이 기억에 남는다. 중요한 건 재단 안에서의 사람이다.

안은미 시작할 때는 모르고 방황할 수 있지만, 메인 구조와 방향을 정확하게 잡는 파워를 가지지 않고 커지면 문제가 생기고 팀워크도 생기지 않는다. 지금은 대표님이 직원들 이름도 모를 수 있다. 조직이 커지면서 생기는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생각해야 한다. 효율적으로! 효율성이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 효율성을 극대화해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혜택을 받아야 하는 대상을 누구로 집중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이런 부분이 재단이 나아가야 할 방향인 것 같다.

고선웅 진짜 서로 알아야 시너지가 생길 수 있다.

안은미 퍼포먼스를 좀 하든지, 예술계에서 일하면서 감각적으로 해프닝을 경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효과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말도 안 되는 걸 경험해야 말 안 되는 사람을 상담할 수 있다. 우리는 헛소리하는 사람들이니까ㅎㅎ.

고선웅 쿼드(QUAD) 같은 경우도 한 예다. 쿼드로 공연을 보러 가자고 제안하면 "뭐라고? 스펠링이 어떻게 돼? 쿼드가 뭐야?"라고 늘 질문 받는다. 소통이 너무 어렵다. 어떤 기획을 할 때 수용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도 쉽고 설명하기도 쉽고, 이해하기에 좀 더 편안한 방식이 되면 좋겠다.

남인우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직관적으로 들어오지 않는다. 재단이 줄기를 내리려면 뿌리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자꾸 바뀌는 느낌이다. 이름도 바뀌고, 사람도 바뀌고, 운영 체계도 바뀌는데, 서울문화재단만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이 무엇인지, 이 사람들이 무엇을 뿌리로 갖고 있지? 생각해 보면 부족한 느낌이 든다.

안은미 규모가 커지는 건 다행이다. 왜냐하면 문화적 혜택을 줄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더 커지는 것을 목표로 하되 운영 방향을 정확히 잡아야 한다. 커졌을 때 어떤 것을 중심기둥으로 잡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 책임감에 대한 논의도 같이 해야 한다. 저는 지원금도 없었던 시기에 활동했다. 미국에서 처음 지원금을 접하며 우리나라에도 이런 제도가 생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우리도 그런 제도가 생겼고 성장해 왔다고 생각한다. 이런 일종의 '문화 권력'을 잘 유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문화예산 증가를 더 요구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미안하다는 인식은 잘 못 된 거다. 그걸 놀고먹는다고 생각하지 말자. 서양의 좋은 점은 아플수록 더 많이 나누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화가 엔터테인먼트라고 생각하지 말고, 예술이 꼭 같이 가야 할 친구라고 인식하고, 인간의 역사에서 필요한 것이라는 철학과 파워를 가지고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남인우 기억을 돌이켜보면 재단 자체보다 재단에 속한 사람이 재단의 이미지로 남으니까, 여기에 속한 사람 한 명 한 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된다. 일하는, 행정 하는 사람이 아니고 예술가와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갖고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술교육 활동을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났다. 철학, 음악, 미술 등 다양한 관점으로 예술을 바라보는 이들과 계속 대화하다 보니 많이 스스로 많이 성장하게 된 것 같은데, 재단이 그런 기회를 주지 않았으면 아마 그런 분들을 만나기 쉽지 않았을 것 같다. 그래서 재단이 다른 사람들을 서로 만나게 하는 쟁반 같은 역할을 계속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다.

안은미 나이가 있는 사람이면 자신의 세계를 구축하고 있지만, 젊은 사람들이 땅을 다질 땐 계속 밟아줘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이 필요하다. 젊은 사람들은 적극성을 가져야 하고 그런 장을 마련해 주는 건 재단이어야 한다. 재단은 '문화 리더'로서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

남인우 설계는 논리적으로 하되, 그것을 접근하는 방식은 더 직관적으로 해야 한다. 공간도 그렇고, 장르를 벗어나는 것도 그렇고, 심사의 방식도 그렇고, 접근하는 방식도 그렇고, 그런 것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다.

고선웅 처음 재단의 설립 취지에 모든 답이 있다고 생각한다. 시의회를 통과하며 내놓았던 문화예술 지원과 향유 정책, 예술가들을 도와주려는 내용들이 있었다면 그것을 잘 생각했으면 좋겠다. 20년 동안 정신없이 오면서 아마 방안에 잡동사니들이 많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다면 예술가들도 이 방이 어떤 곳인지 더 잘 볼 수 있을 것 같다.

3.2.

예술인 좌담회 ②

일시: 2024년 1월 22일
장소: 서울문화재단 서울예술인지원센터
참석: 김아영(시각예술가)
서효인(시인)
안재현(봉앤줄 대표)
윤푸름(윤푸름 프로젝트 대표)
정은혜(시각예술가)
장차현실(화가)

담론 생성과 확장의 역할 필요

예술가의 창작활동은 분명히 예술창작 환경 기반과 흐름에 따라 많은 부분이 영향을 받는다. 각 분야와 장르마다 창작자들의 활동방식이 다르고, 관객을 만나는 지점도 다양하지만, 여전히 독립적인 예술 활동이 쉽지 않은 국내 예술 생태계에서 공공의 지원은 예술가의 활동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대부분 공공기금의 방식으로 활동을 지원하지만, 동시대의 예술적 담론을 공유하고, 미래의 확장성을 위해 고민하는 판을 만드는 것 역시 중요한 화두이자 역할로 생각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오늘 좌담에 참여한 예술가들 역시, 때로는 직접 지원의 방식으로 혹은 재단 사업의 협력 예술가로 함께 했던 창작자들이다. 공공지원을 통해 예술세계를 확장했던 경험과 그 과정에서 느꼈던 재단의 역할, 20년을 맞은 재단에 대한 바람을 창작자의 목소리로 담았다.

서로 다른 인연과 계기

서효인 2006년 데뷔해서 시인으로 활동하고 있고, 출판사도 운영하고 있다. 데뷔한 이후 서울에 상경해서 글만 쓰고 있던 중에 서울문화재단 창작공간 구인공고를 보고 지원해 연희문학창작촌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다. 이후 재단에서 창작지원금도 2번 정도 선정돼 도움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재단에서 불러주는 일이면 무조건 다 참여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다ㅎㅎ.

김아영 시각예술가로 미디어아트 분야에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2000년대 후반 영국에서 처음 작가로 활동을 시작할 때, 굉장히 파격적인 방식으로 재단에서 운영하던 'NArT(뉴 아티스트 트랜드)'라는 젊은 예술가 지원사업에 선정된 것을 계기로 첫 개인전을 서울에서 진행할 수 있었다. 저 역시 그 이후로도 5~6차례 지원금을 받았던 것 같은데 2008년부터 지금까지 작품 활동에 큰 도움을 받고 있다.

정은혜 뉴욕에서 전시를 했고,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에서 이영옥의 쌍둥이 친언니 '이영희'로 출연했었다. 2019년에 서울문화재단 잠실창작스튜디오(현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에 들어가서 10기, 11기 입주 작가로 활동했다. 그림을 그리고 다른 작가님들과 같이 만나고, 같이 점심도 해먹었던 그런 추억이 있다. 작가님들, 직원 분들하고도 많이 친해졌다.

장차현실● 정은혜 작가가 그림을 그린 지는 10년 정도 된다. 한국 사회에서 발달장애 청년이 살기 참 힘들다. 2016년에 양평 프리마켓에서 사람들의 얼굴을 라이브로 그려주는 작업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본인의 의지, 몸의 변화 같은 것을 겪고 치유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지금까지 그린 사람의 수가 4,600명 정도 된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서울문화재단에 장애인 레지던시가 있었고 거기에서 활동하게 됐다. 재단에 들어가면서 은혜 작가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기대가 생겼던 것 같다. 전시, 포럼은 물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은혜 작가에게 다른 차원의 삶이 시작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잠실창작스튜디오가 그런 역할을 정말 잘해줬다고 생각하고 있다.

● 장차현실님은 화가이자 정은혜 작가의 어머니로 이번 좌담에 함께 참여하여 정은혜 작가의 작품 활동 과정에 대한 소통에 도움을 주셨습니다.

안재현 서커스 분야에서 줄타기, 봉 타기를 하고 있다. 봉 타고, 줄타기 전에는 연극배우로 활동했었고, 남산예술센터 제작공연이었던 〈됴화만발〉에 참여하기도 했었다. 이후 좀 뒤늦은 나이에 서커스를 하게 됐다. 8년 전에 시작했을 때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가 개관했고, 거기서 워크숍에 참여하면서 시작된 활동이 오늘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윤푸름 어린이 TA(티칭 아티스트)라는 재단 예술교육 사업에 참여하면서 전에는 알지 못했던 세계를 경험했던 것 같다. 어린이 TA, 시민들을 위한 예술교육, 부모 대상 프로그램 개발에도 참여했었는데, 한정적이었던 미적 관점이 좀 더 관객에게 다가가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다. 어린이와 부모님들, 어르신들까지 관객층이 다양하게 확장되는 경험들이 활동방향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요즘은 제 작업에 집중하고 있는데, 재단이 저를 키워줬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성장과정의 중심에 있었다고 생각한다.

창작활동 과정과 경험 아주 작은 인연이 또 다른 변화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만남의 방식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또 다른 지점은 재단의 지원을 통해 새롭게 전환된 예술적 경험, 그리고 그것이 가져온 창작활동의 변화와 확장이다.

정은혜 전시도 같이 하고, 나의 활동이 어떤 의미인지 같이 들어보고 하는 것이 낯선 일이었지만 의미 있었다. 북한강에서는 개고생 했다ㅎㅎ. 잠실에 오면서 자화상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뉴욕●●에서는 키우던 개를 그려서 전시하고 있다.

●● 뉴욕 데뷔작 〈나의 강아지, 지로〉 (2023.12.14.-2.17) 뉴욕, 리코/마레스카 갤러리

장차현실 이전에는 연필 하나로 작업을 했다면, 입주 작가로 활동하면서부터 자화상 작업을 시작하고 여러 가지 채색작업을 하는 변화가 있었다. 다른 작가 분들의 작업, 전시도 많이 보게 된 경험들이 작품 활동의 확장성을 갖게 해줬다고 생각한다. 장애를 가진 이들이 작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공지원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020년

재단 지원을 받아 전시를 하던 중 노희경 작가를 만나는 기회가 생겼고, 드라마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은혜 작가에게 따뜻하고 큰 선물이었던 것 같다.

서효인 연희문학창작촌에서 일하면서 시인, 소설가를 많이 만났던 것이 작품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됐다. 첫 시집을 내고, 두 번째 책 「백 년 동안의 세계 대전」은 창작지원금을 받아서 출간하기도 했고, 이듬해 김수영 문학상을 받았다. 이후 「여수」라는 시집으로 대산문학상을 받기도 했는데, 문인들에게 연희문학창작촌은 활동을 주목받는 하나의 검증된 과정처럼 여겨지고 있다. 현재는 연희문학창작촌에서 발행하는 「비유」의 편집위원으로 일을 하고 있다. 일하는 직원들이 신인작가들에게 도움이 되는 매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인지 젊은 작가들을 주목하는 순기능이 있다고 생각한다.

윤푸름 예술교육 활동을 하면서 인상적이었던 건 〈아버집〉이라는 프로젝트였다. 육아하는 다른 아버지를 대상으로 연구하며 그 삶을 들여다보기 위해 인터뷰도 많이 했다. 독립예술가의 삶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속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 사회 시스템과 전혀 다르게 스스로의 삶을 개척하고 있는 사람들과 진솔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 그런 분들에게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우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 보이지 않는 가치에 대해 느끼게 됐던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 경험이었다.

안재현 2015년까지 연극 배우였고 당시에는 모든 장르 중에 최고는 연극이라 생각했었다.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에서 진행된 워크숍에 참여했던 것도 배우로서의 특기를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워크숍 마지막 과정으로 8개월 동안 프랑스 연수에 뽑혀 국립 서커스단에 참여하고, 그곳의 아티스트를 만나면서부터 달라졌다. 봉 타고, 줄 타는 것 자체가 너무 재밌고, 그 과정을 통해 바뀌는 스스로를 보는 게 재밌다. 지금은 세계에서 유일한 장르를 내가 만들어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ㅅㅎㅅ. 올해 이슈는 자립이다. 8년 동안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를 잘 이용했고, 상주 단체로 지원을 받다가 나와서 활동을 하고 있다.

김아영 2008년만 해도 젊은 예술가는 제도권 미술 안에서 훨씬 연령대가 높았다. 그 안에 들어가는 것조차 힘들었던 때라 지원사업에 선정돼 기금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다. 2008년 첫 개인전을 했고, 2012년 재단 지원으로 두 번째 개인전을 열었는데 그 때부터 영상작업을 시작하게 됐다. 2013년에는 프로젝트 지원으로, 2014년에는 유망예술지원 맵(MAP)으로 참여하며 문래예술공장 블랙박스 씨어터라는 독특한 공간에서 2년 연속 작품을 진행했는데 그 과정들이 제 작품을 확장하는 아주 특별한 계기가 됐던 것 같다.

창작자로서의 바람과 희망 예술가들이 공공에 기대하는 것은 비단 지원금의 유무에만 있지 않다. 오히려 예술가의 창작활동을 인식하는 방식, 관객을 만날 수 있는 환경 조성, 예술가 간 경계를 넘나드는 생태계의 확장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역할과 만남이다.

윤푸름 최근 몇 년간 재단의 모든 사업이 굉장히 건강하다는 생각이 든다. 예를 들어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통해 작가와 작업을 공유하는 방식, 코로나에 더 많아졌던 간담회, 미래에 대한 질문과 확장성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일들이 그렇다. 특히 「춤in」이라는 매체를 통해 독립 예술가들의 연대와 소통에도 많은 도움을 받았다. 어떤 작가로 성장해야 하는지, 지향과 방향을 어떻게 고민해야 하는지, 신체에 대한 질문과 확장을 키워나가는 데 있어 자극을 많이 받았던 것 같다. 담론의 생산과 확장의 창구였는데 매체가 폐간된 것이 굉장히 아쉬웠다. 서로의 창작과정을 공유하고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재단에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장차현실 장애인의 목소리를 어떻게 끌어내야 하는지에 대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소통 구조에 대한 지원이 더 필요하다. 발달장애인은 비언어적 소통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 맞춰져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창의적인

공공의 행사, 포럼 등을 통해 자신의 활동을 알리고 공유하던 프로젝트가 2020년 동대문 디자인플라자(DDP)에서 있었는데, 그런 프로그램이 없어진 것도 좀 아쉽다.

서효인 문학은 특성상 보수적인 면이 있어서 크게 변화하지 않는 지원형태와 규모를 갖고 있다. 12년 전 1천만 원 지원이 아직 그대로다ㅎㅎ. 그런 것들이 물리적 소외 같은 것인데, 그래서 문래동에 가거나 서교예술실험센터에서 만난 인연들이 더 큰 자극이 되었던 것 같다. 예술가들은 장르를 넘나들 준비가 되어 있는데, 공간도 다 나뉘어 있고 지원금도 나뉘어져 있고, 행정체계도 다 구분되어 있다. 시, 소설, 비평, 희곡이 다 나눠져 있다는 것이 조금 답답한 부분이다. 처음부터 나눠져 있어서 그 구분을 넘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랄까. 장르 경계에 대한 상상력을 좀 더 키우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안재현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는 역사도 짧고, 서커스나 거리예술이 다른 장르에 비해서 활동 이력이 깊지 않다. 그래서 소통 창구가 아직 잘 형성되어 있지 않기도 하고, 정치적 변화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는 것 같다. 서커스 전문 단체가 10여 개 밖에 안 된다. 지금 있는 단체도 제가 자체 워크숍을 할 때 참여한 분들이 만든 건데, 단체 간 중복되는 사람이 많아 인원이 많지도 않다. 아직 자리 잡지 못한 장르고, 성과를 내기에 급하니, 좀 더 긴 호흡을 갖고 지켜봐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정은혜 센터가 여기 대학로로 이사 오기 전, 잠실에 있을 때 당시 재단의 황기성 주임님 소개로 이승주 매니저님을 만나면서 오랜 인연이 됐다. 이승주 매니저님과 친했는데 다른 곳으로 가게 되면서 잘 못 보게 돼 아쉬웠다. 양평에서도 혼자 그린 게 아니라 동료들과 같이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근무하면서 프로그램도 하고, 카페에 가거나 산책 같은 활동도 같이 했었다.

장차현실 작가들과 관계를 쌓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동료 작가와 함께 있는 것도 엄청 소중한 경험과 추억이다. 지금 은혜 작가의 작품 주제가 사람이고, 관계인데, 지난 과정에서 그것을 풀어나가는 것이 좋은 경험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김아영 작년부터 서울문화재단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 시기가 겹쳤는데 사실 좀 힘들었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단계별로 조금 나뉘어져 있을 때 다음 라운드가 있다고 생각하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작년에 모든 사업이 한 번에 결정되면서 일 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더라. 이런 부분들도 재단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고민해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장차현실 잠실창작스튜디오가 만들어진지가 1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은혜 작가의 삶이 정말 많이 달라졌다. 장애인들에게 예술지원은 그들의 삶과 그를 둘러싼 가족의 삶을 열어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조금 더 문이 열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그게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한다.

윤푸름 결과물이 중요하고 또 다음을 기약할 수 있는 성취감을 줄 수 있는 것은 맞다. 그러나 그런 결과물은 과정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 그 과정이 촘촘하고 치열하지 않으면 차별화된 결과물을 낼 수 없다. 어떤 문제의식도 마주해야 하고, 그 시간들과 투철하게 싸워야 할 때도 있다. 과정을 축소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 방식을 치열하게 나눌 수 있게 탄탄하게 만들어야 한다. 현재 활동하는 예술가들의 목소리를 경청할 수 있는, 건강한 공론의 장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서효인 제가 일을 할 때 아키비스트 전담으로 계약직 11개월이었는데, 그때 많지 않은 급여로 거의 밤샘하며 일했던 것 같다ㅎㅎ. 문득, 일하는 분들이 예술가들과 소통을 잘하고 양질의 지원이 되려면 좋은 인적자원이 필요한데, 반대로 예술가들은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다. 앞으로의 20년은 재단에서 일하는 분들도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에서 예술가와 즐겁게 소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3.3.

직원

좋아서-서울문화재단

서울문화재단 창립 20주년을 맞아, 역사를 함께 써 내려온 직원들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다.
2004년 창립과 함께 입사해 근속 20년을 맞은 원년 멤버에서부터 아직 1년이 안된 신입 직원까지 참여해 **다섯 가지 질문**에 답했다.

❶ 서울문화재단과의 첫 인연
❷ 기억에 남는 순간, 감동 받은 순간
❸ 재단 직원 원픽, 사업·프로젝트·공간
❹ 서울문화재단은 ( )다
❺ 스무 살 재단에게 한마디

❶ 서울문화재단과의 첫 인연

직접 참여

- 예술창작활동지원사업 신청자
- 2020 예술인이 재난을 대하는 가지가지 비법 참여
- 서울문화재단 지원사업 참여와 시민청 공간 대관
- 2009 하이서울페스티벌 자원활동가
- 2013 하이서울페스티벌 리더 길동이
- 2013 하이서울페스티벌 길동이가 2023 서울거리예술축제 담당자가 되었어요.
- 청계천 아티스트 자원활동가
- 시민청 다이음 프로그램 참여
- 2013년 서울댄스프로젝트 춤단 활동

일로 만난 사이

- 프리랜서로 서울문화재단 과업 수행
- 하이서울페스티벌 PD
- 'N개의 서울' 참여 자치구 PM으로 인연
- 남산예술센터 행정스태프
- 2009 하이서울페스티벌 자원활동가
- 2016년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프랑스의 가을' 페스티벌 외부 협력업체 직원
- 2016 서울문화재단 다원예술 시민모니터링 위원
- 2005년 부산비엔날레 근무 시절 서울시와 협업 추진

한 명의 시민으로

- 하이서울페스티벌 거리 현수막
- 덕수궁 클래식 공연과 뮤지컬
- 2012년, 청계천에서 연인과 산책 중 하이서울페스티벌 제네릭 바푀(Generic Vapeur)의 공연을 보고
- 2014년 면접 망하고 넋이 나가 집에 돌아가던 중 덕수궁 돌담길에서 우연히 만난 하이서울페스티벌
- 시민청 마음약방
- 대학원 시절 아르바이트 하던 갤러리에서 [문화+서울]을 보고
- 대학생 때 교양수업 교수님의 추천으로 남산예술센터 연극을 재밌게 본 기억이 나요
- 학생 시절 아는 극작가의 공연이 삼일로창고극장 지원사업에 당선되어 공연으로 만들어지는 걸 보고 궁금해서 찾아본 덕에 만나게 된 서울문화재단. 이렇게 예술계를 지원하고 활성화 시키는 기관이 있다는 걸 체감하게 된 첫 만남
- 서울청년문화패스 연령대가 아닌데 자꾸 신청하라는 연락이 와 슬퍼하면서
- 책 읽는 서울 '책 영화와 만나다'
- 동숭아트센터와 MOU 체결 소식으로

기타

- 구인 사이트 채용 공고.
- 친구, 전 직장 동료, 교수님 등 소개

❷ 기억에 남는 순간, 감동 받은 순간

예술인 곁에서 혹은 뒤에서

원로예술인 선생님이
일일시호일(日日是好日)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한 해 동안 작가님과 지지고 볶고 하다가
마지막 날 송별회 할 때.

입주작가가 한 해를 마무리하며
전시나 공유회의 형태로 본인의 작업을
보여줄 때 항상 감동이다.

작가님들이
지원금 혹은 공간 지원 등을 통해
전시를 하고 본인이 만족할 때.

나를 가장 힘들게 했던 예술가가
진심으로 고맙다고, 덕분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입주작가가 들뜬 얼굴로 잘된 일을
자랑하러 왔을 때

무대 뒤에서
마지막 곡을 들었을 때.

기획사업에서 담당자로
할 수 있는 만큼 지원했는데
고맙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리고
지원했던 팀이 잘 되서 다른
프로젝트에서도 승승장구 할 때.

시민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

서울거리예술축제 부대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때, 부스로 마련한 컨테이너
2층에 올라가 서울광장에서
가을 정취에 축제를 즐기는 시민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는데 말할 수 없는
행복감이 몰려오더라고요.
선배에게 당시 소감을 말씀드렸는데
그 때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그 맛에 축제하는 거야."

2022년 서울거리예술축제
마지막 날 비가 오는데 시민들과 마지막
공연을 비를 맞으며 난장으로
함께 마무리하며 축제의 의미와 가치를
몸소 느낀 일.

참여자의 즐거워하는 얼굴과
만족하는 소감이 주는 보람, 하나의
축제나 행사를 만드는 과정에서의
치열함이 결과로 실현되는 순간의 쾌감.

예술로 희망드림 캠프 발표회.

꿈꾸는 청춘예술대학 운영 당시,
어르신 예술교육 현장을 방문해 삶의
이야기가 담긴 활동 결과물을 보며 함께
울고 웃었던 기억.

서서울예술교육센터 주말 커뮤니티
프로그램에 아이가 꾸준히 참석해서
결과공유회에 본인 작품 설명했을 때.

베리어프리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문화콘텐츠 접근이 어려웠던 분들과 함께
감동을 나눌 수 있었던 일

새로운 경험, 성장과 인정의 순간

늘 재단을 새롭게 하고 발전시키는 일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

2019년 예술지원사업 지연 사태 이후,
체계 개선을 통해 2020년 지원사업
공모를 올렸을 때.

여러 공간에서 일하면서
장르별 작가와 마을을 섭렵(!).
이보다 더한 경험은 없을 것이다.

용역으로 일하면서 숨은
일꾼상 수상.

고생 고생해서 몸도 마음도 무너졌던
한 해를 보내고 표창 대상자로
안내 받아 공적 조서 쓰던 순간,
다시 시작할 힘이 되었습니다.

서울을 더 알게 된 포럼,
문제의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준 '서울을 바꾸는 예술'.

함께하는
협업 주체들(예술인, 예술단체 등)에게,
재단 직원이 아니라 함께하는
'동료'라는 피드백을 받았을 때, 담당한
사업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기획팀'이라고
칭찬 세례를 받았을 때.

늘 재단을 새롭게 하고 발전시키는
일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

청계천 미술제 기간 중 집중호우로
도룡뇽처럼 생긴
'공화국 수비대' 작품이 밧줄에
묶여 물 위에 동동 부유했던 상황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2009년 겨울 빛 축제를 위해
백남준의 '프랙탈 거북선'을 서울광장에
설치하고 스위치를 '온(ON)' 했을 때
가장 감동이었다.

힘이 되는 직장 동료

짧게 같이 일한 동료와의 헤어짐
(그리고 손편지 등 나름의 회고)

팀을 옮기거나 퇴사할
때마다
작은 선물과 카드를 남겨주셨던
분들을 통해 따뜻한 마음을
많이 느꼈습니다.
감사했던 기억으로 제가 부서 이동을
할 때도 선물과 카드를 드린
기억이 있어요.

팀원들이 챙겨준 첫 생일.

재단 입사하고 팀원들에게
첫 생일 축하를 받은 날!

함께하는 동기들의 한결같은 우애.

특별한 순간보다
평소에는 쉽게 상대를 찾지 못하는
문화와 예술에 대한
대화가 되는 이들이
내 주변에 있다는 사실에
힘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재단을 오래 다니진 않았지만,
전 직원 워크숍이나 스팍데이 때 직원끼리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오랜만에 근무하던
공간에 가면 미화·경비 선생님들이
환대해 주실 때.

2018년 12월 31일,
사업계약직으로 근무했기에
마지막 출근이었습니다.
업무 관련 정리를 하느라 자정에
가까워 퇴근하려고 보니 본관 3층에
혼자 남아 있었고 앉았던 의자를
보는데도 눈물이 났습니다.
더 성장해서 좋은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다짐했는데
생각보다 금방 돌아와서
동료들과 다시 만났네요.

저는 계약직이라
매년 정규직에
도전하고 있는데,
올해도 아쉽게 최종에서
고배를 마셨어요.
끝나고 함께 일했던 본부장님, 팀장님,
동료들이 많이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경력과 실력은 충분하니
자신감을 가지라고
피드백도 주셨고요.
내년에는 꼭 입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것에도 감동

집 없는 자의 설움을 한방에 날려 버린
재단 소유 청사(용두동)로의 첫 출근.

공간에 노약자,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를 고려한 베리어프리 디자인이
적용된 것을 보고 감동.

몇 년 전에는
너무 막연했던 입찰을 그냥 다
해버릴 때.

입사하고 첫 부서 출근 후
10일 정도 지났을 때 올렸던 첫 계획(안)
상신 무사통과.

매 순간 감동입니다.

순간순간이 다 추억.

지금 이 순간.

❸ 재단 직원 원픽, 사업·프로젝트·공간

❹ 서울문화재단은 (　　)다

20년을 문화예술을 위해 일했다는 건 참 대견하고 자랑스러운 일이야, 서울문화재단이 나아가는 길이 문화예술의 길잡이가 되길!

모두에게 응원을.

만수무강해요.

문화예술경영을 전공으로 택한 순간 서울문화재단 문화기획행정직 입사를 꿈꿨습니다. 선망하던 곳에서 20대를 보내고 올해 30살이 되었습니다. 늘 처음 마음 기억하며 더 고민하고 잘 실천하겠습니다. 오래오래 함께해요, 스팍!

성년을 맞이하여 경제적으로 자립하자.

너도 욕봤다.

재단아, 20주년 축하하고, 아직 많이 어리니까 앞으로 열심히 하자. 무슨 말인지 알지?

짧다고 할 수 없는 기간 동안 서울시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달려온 시간이 앞으로도 쭉 이어지길 바랍니다.

앞으로 서울시민의 문화향유를 위해 40년, 60년, 100년까지 달려보아요!

20세는 약관이라는 갓을 쓰는 나이라고 합니다. 더 성숙하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또 다른 20년을 향해 묵직한 발자취를 남겨가길 바랍니다.

20주년이라는 시간은 길지도 짧지도 않은 시간인 듯합니다. 200주년까지 쭉 갔으면 합니다.

학창 시절 기본기를 다지기 위해 공부하다 갓 새내기가 된 대학생처럼, 스무 살 재단도 그동안 쌓은 노력을 바탕으로 더욱더 멋진 문화예술기관으로 성숙해나가길 바랍니다.

재단 식구들, 재단과 함께한 모든 분들 그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서울의 문화예술은 앞으로도 재단이 책임진다!

늘 젊고 안전하며 합리적인 모습으로 시민과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수고 많았지만, 앞으로도 서울의 문화예술 잘 부탁할게!

언제나 앞서기보다 뒤에 있기를 자처해야 하는 재단의 모든 직원들에게, 누구보다 앞선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의 노력이 더없이 빛나길!

'젊고, 건강하고, 진취적인 재단'으로 앞으로의 20년도 기대할게요!

시민들이 꼭 필요하다고 느끼는 기관으로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세대 아울러 영원한 서울문화재단.

20년, 40년, 60년 영원하길!

이제 스무 살이 되었으니, 세계로 뻗어 나가자!

다들 고맙고 사랑합니다.

예술가와 시민, 공공, 세 점 사이 어딘가 정체성을 찾아가고 있는 재단을 응원하고 힘내자.

항상 진보하는 회사, 사람을 아끼는 회사가 되기를.

❺ 스무 살 재단에게 한마디

서울문화재단, 성인이 되었네. 진짜 어른의 모습을 기대할게.

이상한 길로 빠지지 말자. 원래 가졌던 목적을 잊지 말고!

조금 더 자랑해봅시다, 우리.

재단아, 20년 생일 축하해. 그동안 과도기인 청소년기를 지내온 것 같은데, 그럼에도 문화예술반 선두 주자로 잘 커왔구나.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는 것 알지? 지금부터가 진짜야. 앞으로 좋은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옆에서 응원할게.

예술가와 시민, 공공, 세 점 사이 어딘가 정체성을 찾아가고 있는 재단을 응원하고 힘내자.

나라 구한 분만 들어올 수 있는 멋진 재단이 되길...

시민에게도, 직원에게도 더 좋은 재단이 되길!

언제나 지금처럼.

200주년 갑시다!

서문재야 20년이면 이제 너도 성인인데, 그간 성장의 고통을 겪어오느라 고생이 참 많았다. 사람도 20살, 30살, 40살 도전하기에 따라 삶의 궤도를 달리할 수 있는 것처럼, 너도 그러한 기점에 선 것 같아. 이제까지 일군 너의 도전과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너의 10년을 응원해! 비록 모습과 방식은 바뀌더라도 예술로 세상을 살 만하게 풍요롭게 만들겠다는 그 본질은 잃지 않기를 바라며 너의 20주년에 큰 박수 보낸다.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서울시의 문화예술을 책임지던 재단의 20주년을 함께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40주년 때도 함께할 수 있도록 체력단련, 정신수양에 전념하겠습니다.

지난 15년간 서울문화재단의 성장에 이바지했으니 남은 기간은 서울문화재단을 통해 나의 인생 2막 성장의 밑거름을 만들고자 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더 나은 문화예술계를 위해 고생해 주시길...

모두 200주년 기념식에 참석할 수 있기를.

굳세어라 서울문화재단! 더 성숙한 모습으로 앞으로의 20년을 잘 부탁한다.

직장인의 숙명이기에 매일 출퇴근을 반복하고 있는 '애증의 회사이자 일터'이면서, 예술에 대한 애정과 소명을 담아내는 그릇인 SFAC. 돌이켜보니 애증의 회사를 애정하게 만드는 원동력은 SFAC를 함께 보듬어가고 있는 선배, 동료, 후배님들 같습니다.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함께해 온, 앞으로도 함께할 재단의 모든 분들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재단 20주년 축하합니다! 앞으로도 서울문화재단이 지켜야 할 위치와 역할을 잊지 말고,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대외 가시적 효과보다 이렇게 되도록 회사를 지켜온 직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으면.

모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힘내서 앞으로 또 함께 나아가 보아요!

20주년이 되기까지, 보이는 곳 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신 직원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일을 계속 해왔다는 것, 생존했다는 것 자체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축하합니다. 30주년, 40주년에도 함께하고 싶습니다.

우리 조직 자체보다는 조직의 존재 근거가 되는 예술과 시민이 우선이었으면 합니다.

재단의 정체성은 직원들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단이 가진 한계와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재단 직원들의 동기 부여에 힘쓰고 성장을 응원해주는 재단이 되길 바랍니다!

정신없었을 20년, 앞으로도 정신없겠지만 누구보다 빛나는 곳이 되길.

100주년을 맞이할 때까지 영원하라!

고생했다. 앞으로도 천년 더 살아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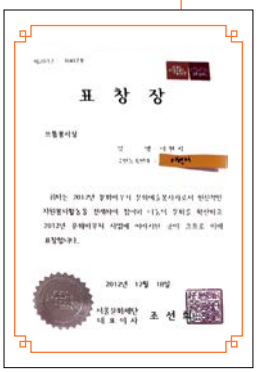
시민

메모리[人] 서울문화재단

스무 살 성인이 된 서울문화재단은 시민 곁에서
20년을 함께하며 쑥쑥 성장해왔다.
시민의 기억 속 서울문화재단은 어떤 모습일까.
20주년 기념 시민 이벤트를 열어 재단을 알게 된 계기,
지원을 받았거나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한 경험,
축제 현장에서 신나게 즐겼던 추억, 감명 깊게 본
공연이나 전시 등에 대한 사연과 사진을 모았다.

*기간: 2024년 1월 15일-31일

1 재단과 한 장의 추억



은뜸봉사상 표창장

하이서울페스티벌 자원활동가&문화예술봉사단

서울문화재단은 저의 20대 초반의 나날을 문화예술과 나눔으로 가득 채워준 감사한 곳이에요. 대학교 입학 후 생애 처음으로 해본 자원봉사활동인 하이서울페스티벌 2011, 그리고 2012년 문화바우처 문화예술봉사단. 서울시민들의 삶 속에 녹아든 문화예술행사의 즐거움을 체감한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하이서울페스티벌 2011'에서는 자원활동가로 활동하면서 시민들을 응대하고 공연 전에 필요한 준비를 했어요. 제일 인상 깊었던 건 '안은미댄스컴퍼니'의 공연을 난생처음 봤던 것! 말없이도 몸짓, 손짓, 눈짓만으로도 많은 메시지를 담을 수 있다는 것을 강렬하게 느낀 순간이에요. 문화예술봉사단은 2012년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활동했는데요, 첫 활동에 혜화 동성고등학교 운동장에서 클라이언트들을 처음 만나 공연장까지 안내하고, 그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며 저도 덩달아 즐거웠던 기억이 나네요. 가장 뿌듯했던 순간은 우수자원봉사자로 선정되어 '으뜸봉사상' 표창을 받은 것!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움직임이 여러 사람들에게 닿았고, 그걸 인정받았다는 생각에 뿌듯함이 컸습니다.

이후엔 서울을 떠나 타지 생활을 했지만, 결국 풍성한 문화생활을 하러 돌아오는 곳은 서울이었습니다. 최근엔 대학로 서울연극센터와 쿼드(QUAD)를 지나다니며 내·외부에 조성된 카페와 라운지공간에서 휴식을 취하곤 한답니다. 이렇듯 서울문화재단은 제 20대의 서막을 축제로 만들어준, 예술나눔의 가치를 알게 해준, 힐링을 주는 고향 같은 곳입니다. 20년간 서울 시민들에게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을 기획해주시고 선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타지생활을 끝내고 다시 서울로 돌아가게 된 지금, 서울문화재단과 함께 할 앞으로의 나날들이 기대돼요.

이현지

문화지킴이

어엿한 스무 살 축하합니다! 저 또한 두 번째 스무 살에 접어들기에 축하 인사를 그냥 넘길 수 없었습니다. 취업 준비와 아르바이트 등으로 바빠야 할 대학교 3학년 시절(2007년), 저는 서울문화재단에서 놀았습니다(?). 서울문화재단의 열혈 자원봉사자 '문화지킴이'로 팀장님과 인턴의 일손을 도우러 즐거운 마음으로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특히 2007년 당시 매월 넷째 주 일요일 열리던 '문화는 내 친구-서울 속 문화자원 투어'에 시민들이 질서 있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명감과 자부심 가득 준비하여 뛰어다녔답니다.

사진은 서울문화재단에서 자원봉사 스태프를 초대해 연간 행사 마무리를 위한 시간을 열었는데, 그 때 제작한 리플렛 같습니다. 아쉽게도 상세한 기억은 나지 않지만 함께했던 사람들의 열정, 따스한 분위기는 참 좋은 느낌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저의 파릇했던 20대 초반 시절을 다채롭게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자윤

문화지킴이

꿈꾸는 청춘예술대학

2 재단과의 동행

꿈꾸는청춘예술대학

본격적으로 문화예술교육을 하겠다고 단체를 만든 첫 해. 서울문화재단의 지원사업 '꿈꾸는 청춘예술대학'에 덜컥 선정되었습니다. 저희 단체가 배정 받은 곳은 장충단공원. 지원사업을 처음 받는 상황이라 어리둥절했는데 수업 장소까지 공원이라 정말 난감했죠. 하지만 서로 조율한 덕에 용산과 약수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어르신 대상 수업을 시작했고,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8년 동안 노인 영화교육을 진행할 수 있었어요. 다른 지원사업과 달리 서울문화재단 사업은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타 단체와의 협력 수업 등을 통해 단체가 성장할 수 있었으며, 개인적으로는 여러 장르의 선생님들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제 기억 속 서울문화재단은 문화예술교육으로서 영화교육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는 시간과 많은 학습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준 아주 감사한 곳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함께하지 못하고 있지만 뉴스레터를 통해 다양한 이야기를 접할 수 있는 점도 너무 좋습니다.

얼마 전 클라우드 속에 저장되어 있던 영상 하나를 발견했는데요. 2010년 '서울문화재단 파트너스 데이' 행사에서 강사를 대표해 무대에 올라가 감회 등을 얘기하는 장면이었어요. 14년이 흐른 지금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저에게 많은 생각이 들게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든 단체로든 문화예술교육자로서 다양한 교육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준 서울문화재단에 다시 한 번 감사함을 표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쭉 더 많은 발전이 있으시길 바라고, 문화예술교육자들에게 더 많은 문을 열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 보이시겠지만 제 마음의 선물이 지금 배송되고 있으니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황보성진

서울거리아티스트

안녕하세요. 저희는 세계어린이크레용기금(W.C.C.F.)이라는 비영리 민간단체입니다. 마음의 상처로 인해 치유가 필요한 지구촌의 어린이들에게 다가가 그림을 통해 희망과 미래의 꿈을 심어주기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활동을 해오던 중 서울문화재단의 서울거리아티스트 오디션에 참가해 1기부터 청계천에서 서울거리아티스트로 꾸준히 활동했습니다. 시각예술 분야로는 유일한 단체였어요. 시민들이 그림을 그리면서 자신을 찾아가는 것을 보면서 매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청계천에서 시민들과 그림으로 소통하며 지낸 시간들이 그립습니다. 한강레인보우페스티벌, 하이서울페스티벌 등 저희를 필요로 하는 곳에는 아낌없이 가서 그림 그리는 장을 열었지요. 어린이부터 어르신, 외국인, 장애인 등이 참가해 행복해 하는 것을 보면서 그림은 마음을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이자 인간의 본능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느 시점부터 시민청 아티스트로 시민청 내부에서 진행하면서 외부 활동 규모가 축소되었고, 코로나19 시대에 접어들면서 서서히 활동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따금 서울거리아티스트 때 찾아와 그림으로 마음을 표현했던 사람들이 그 시간을 그리워하며 연락을 하기도 하지요. 서울문화재단 20주년을 맞이하면서 초창기 싱그러웠던 때를 그리워하며 글을 남깁니다. 창립 20주년을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서울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멋진 활동을 기대해봅니다.

백낙선

3

예술의 길 열어준 지원

문학청년 활동지원

작가 나희덕 손바닥

최초예술지원

'서울문화재단'이라니,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요. 저는 현재 동화와 청소년소설을 쓰고 있는데요. 수년 전 등단을 위해 수많은 공모전에 지원했지만 낙방했어요. 사실 공모전에 맞는 원고가 별로 없었어요. 대부분 30매의 단편을 요구하는데 제 원고는 중편 분량이 많았거든요. 고민하던 차에 2017년 최초예술지원사업 '문학청년 활동지원' 공모 요강을 보는데, 중편동화 분량의 원고를 모집하기에 냉큼 지원했지요. 당선이 되니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어요. 이를 계기로 자신감을 얻어서 다른 공모전에서도 상을 받고 등단을 인정받아서 미약하나마 작품 활동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연희문학창작촌에서 열린 선정 작가 간담회 때는 제가 정말 좋아하고 존경하는 유은실 작가님과 나희덕 작가님 손바닥이 보여서 기를 받고자 사진을 찍었어요.

제 작품은 이듬해 2018년에 문학 웹진 [비유]에 실렸어요. 힘 빠진 작가 지망생에게 좋은 기회를 주어서 작가가 되게 해준 서울문화재단에 늘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더 열심히 글을 써서 [비유]에서 원고 청탁도 받고 싶네요.

김채현

RE:SEARCH

창작 작품을 만들어 간다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많은 품과 애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엄마가 되고 나서는 최소한의 품과 애정도 내기 어려운 창작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더불어 2020년 태어난 아기와 겪게 된 코로나19 시국은 작품 활동 자체를 생각하기 어려웠습니다. 하루 종일 함께 보내야 하는 아기와의 시간은 엄마로서는 행복했지만 창작자로서는 갈증이 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창작을 하고픈 제 마음을 고이 간직하며 아기의 놀이를 관찰하고 함께 놀며 시간을 보내던 중, 아기와 할 수 있는 연극적 고민을 서울문화재단의 'RE:SEARCH' 사업을 통해 녹여 놓았고 감사하게도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작지만 아기와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연극적 놀이를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되었고, 영유아와의 연극적인 소통의 언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시작점으로 느리지만 창작 작업을 이어왔고 2023년 영유아극을 공연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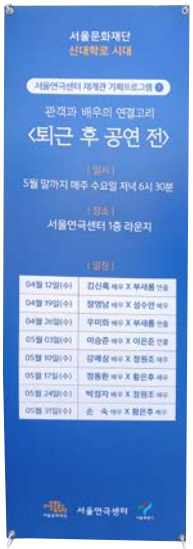
저에게 서울문화재단은 예술 하는 엄마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해 준 귀한 인연입니다. 비로소 삶과 예술의 접점을 만들어준 특별한 경험이고 기회였습니다. 어떠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예술을 놓지 않고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저는 지금 지난해에 올린 영유아극을 다시 발전시키는 과정에 있고 엄마 예술가로서 더 단단해지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2024년 어느덧 20주년을 맞이한 서울문화재단에 감사와 축하를 전하며 더 다양한 시도들로 예술가들이 예술을 포기하지 않고 제법 예술가답게 상상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박주아

4

공연, 새로운 경험

서울연극센터 기획 프로그램



◆ 서울연극센터&삼일로창고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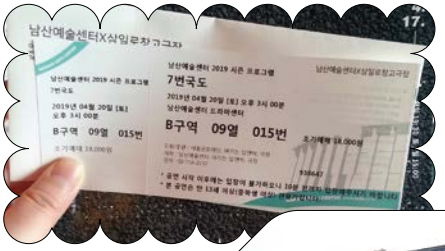
아, 혹시 '그곳에 우산이 있을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의 문화 세력의 의식은 어디에 있을까, 보이지 않고, 잡히지도 않았던 내 촛불의 심지에 방화를 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다. 아, 나는 예술에 미지한 인간이다. 모른다. 모르는 것이 자랑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곳을 기웃거렸는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왔던 길인데, 나의 여정을 소감으로 남길 줄은.

나의 첫 번째 여정은 배우와 관객의 만남에서 시작되었다. 서울연극센터라는 존재 자체가 나에게는 낮은 언덕의 동네에서 밤하늘 아래 야경을 보는 흥미로운 것이었기 때문이라고 해두고 싶었다. 같은 한 공간에서 예술이라는 업을 생각하는 사람을 우연히 만난 기분이 들었다. 그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 내가 가고 싶었지만 가보지 못했던 미술관에 있는 기분이라고 하고 싶었다. 어느 한 배우가 준 커피 음료를 잘 마셨다.

여정의 두 번째는 희곡 읽기. 벽에 매달려 있는 희곡이라는 화분을 신중히 집어 들어 조용히 잠깐이지만 나의 자리로 와서 물을 주는 마음으로 읽어 보았다. 희곡이 태어나는 과정이 마냥 궁금했는지도. 그리고 그 화분을 가져다 놓은 주인에게 글 몇 자를 적어 보았다.
끝으로 삼일로창고극장의 발자국과 모인 모두가 점으로 변해 나무에서 타버린 옹이의 흔적으로 하나가 되는 순간이 아니었는지 소감에 소감을 더해 본다.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나는 길을 나선다. 혹시 우산이 그곳에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찾으러 나간다. 잃어버린 듯하다. 버스에서.

제이



남산예술센터 시즌 프로그램 '7번 국도'

◆ 남산예술센터

서울문화재단 창립 20주년 축하드려요! 남산예술센터에서 좋은 공연 보고 서울문화재단을 처음 알게 되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덕분에 이후에도 울림이 있는 작품들 많이 만났고 여운에 취해 즐거운 사색의 시간을 가졌어요.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들 기대하겠습니다.

박고은

대학로극장 쿼드, 황수현 〈Zzz〉

◆ 대학로극장 쿼드

서울문화재단 대학로극장 쿼드에서 황수현의 〈Zzz〉를 보았습니다. 무슨 공연인지도 모르고 동기가 보러 가자고 해서 무작정 예매했는데요. 대학교에 입학해서 과제와 공연에 떠밀려 잠을 줄였던 터라, 공연 당일 잠을 못 자고 갔습니다. 동기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이번 공연에서는 절대 안 잘 거야'하는 단호한 마음으로 커피 한 캔 마시고 쿼드로 향했습니다. 저와 동기는 한 달에 1~2번 연극을 같이 봤는데, 2학기부터 극장에서 둘 다 잠드는 일이 유독 많아졌습니다. 공연을 보지 못했으니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저 자신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극을 올린 사람들에게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비싼 티켓을 어렵게 구매해놓고는 잠을 자고 나오다니요.

이런 상황에서 마음먹고 들어갔는데 웬걸. 푹신한 쿠션과 담요가 마련되어 있고 먼저 입장한 관객은 저마다 자리를 잡고 누워있었습니다. 이상하다고 느껴 급하게 공연 소개를 읽었습니다. 잠을 자도 된답니다. 아니, 잠을 자라고 하더라고요. 무대로 보이는 영역에서 이미 퍼포머가 잠을 자고 있더군요. 저와 동기도 멋쩍게 웃으며 자리를 잡았고, 공연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일어나 보니 3시간이 지나있었고, 퍼포머 분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을 거시더군요. 동기는 공연이 끝난 줄도 모르고 옆에서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참 위로되는 공연이었습니다. 몽롱한 상태로 극장을 나서며 이상한 위로라고 끔뻑이던 그날의 감각이 생생하고도 그립습니다.

정다은

5

배움의 즐거움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서커스 예술놀이터'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안녕하세요. 저는 저글링을 제법 잘하는 고2 백진우라고 합니다. 제가 저글링을 잘하는 이유는 2016-2017년 여름방학,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의 '서커스 예술놀이터'에 참가할 수 있는 행운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수업 내용은 서커스 저글링, 바디 드럼, 아크로바틱, 타이트 와이어 체험이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이던 2016년에는 프로그램 종료 후 떨리지만 인터뷰를 한 것도 좋은 추억이 되었어요. TV에서만 보던 서커스를 친구들과 선생님에게 배웠던 시간은 신기하면서도 자신에 대한 도전과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던 소중한 사건이었습니다. 2017년에는 동생도 같이 수업에 참가해 서커스 기술도 배우며 형제애도 쌓고 좋은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수업 후 부모님 앞에서 하는 시연은 서툴렀지만 공연을 잘 마무리하면서 매우 뿌듯했습니다. 체험은 여름방학 하루지만, 예술적 상상력과 표현력을 마음껏 발산하기에는 충분하고 보람찬 시간이었습니다. 행복한 추억 만들어주신 서울문화재단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20주년을 맞이한 서울문화재단 창립을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청소년과 어린이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밝고 건강한 문화지킴이가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백진우

서울예술교육랩&언폴드엑스(Unfold X)

저희 가족은 2023년 우주 과학을 좋아하는 초등학생 아이의 최근 관심사와 맞닿아 있는 교육프로그램과 전시에 참여했어요. 먼저 10월부터 5주간 매주 토요일, 서울예술교육랩 프로그램으로 EBS '허풍선이 과학쇼'를 만드는 기업 그래피직스에서 진행한 '몸짓LAB With Motion Capture'에 초등학생 아이가 참여했는데요. 음악적인 상상력을 시각적인 그림으로 그리고 자기가 그린 캐릭터를 움직임으로 표현하는, 상상력, 시각, 청각, 능동성까지 결합된 그 어디서도 경험해 본 적 없는 창의적인 과정이었어요. 우주를 상상하며 AI를 활용해 이미지와 배경 영상을 제작하고, 안무를 배워 모션 캡처 특수 장비를 착용하고 아이의 움직임과 캐릭터를 일치시키는 과정이 내내 흥미로웠어요. 예술과 기술이 결합된 디지털 영역을 만나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지 실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죠.

2023년 말 문화역서울284에서 열린 언폴드엑스 〈달로 가는 정거장〉 전시도 너무 좋았어요. 시간 여행하듯 플롯이 있고 유기적으로 연결된 멋진 전시들. 기차가 다니던 옛 역이 우주로 가는 출발역이 된 것 같아 아이와 저는 시간여행 하듯 작품 사이를 오가며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다양한 예술작품에 감탄했습니다. 전시를 기획했던 문화재단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문화예술분야에서 재단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김남경

♣ 서울시민예술대학

2019년, 갑작스럽게 찾아온 공백의 시간. 불안함을 이겨내기 위해 무엇을 할지 고민하다가, 서울문화재단의 일반 시민 대상 프로그램을 우연히 알게 되어 '스튜디오 레아'의 '내가 그린 그림책'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오랫동안 나의 그림과 이야기를 풀어놓고 싶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가, 그림책을 만들 기회가 생긴 거예요. 프로그램에서 만난 분들은 참 다양했습니다. 연극을 하는 예술인, 은퇴 후 여행을 다니는 멋진 어르신, 작가를 꿈꾸는 학생 등 저의 한정된 세상 속에서는 볼 수 없는 많은 분들과 담아둔 이야기를 나누고, 그림으로 그리는 시간은 참 행복했습니다. 각양각색의 사람들과의 만남은, 일을 그만두며 단절되었던 사람들과의 만남을 이어가는 다리가 되었고, 내 마음에 어지럽게 담겨있던 이야기를 말로 써내고, 글로 정리하고, 그림으로 그리는 시간은 나를 이해하는 과정이기도 했어요. 이야기를 짜고, 페이지를 구성하고, 한 권의 책으로 만들고, 또 그림책을 전시하기까지의 과정은 마치 내 앞에 어지럽게 흩어진 그간의 경험과 시간을 모아서 정리하는 느낌이었어요. 잊을 수 없는 기억을 만들어준 2019년 서울시민예술대학 프로그램. 이게 바로 예술의 힘, 창작의 소중함 아닐까요? 창작의 경험으로 삶을 풍요롭게 하는 서울문화재단의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운영되어 많은 분들이 삶의 의미와 즐거움을 찾아가길 바랍니다.

황신해

내가 그린 그림책 프로그램 참여 사진

♠ 6 댄스, 댄스, 댄스

2015 서울댄스프로젝트 시민춤꾼 '춤단' 활동

♠ 서울댄스프로젝트

먼저 서울문화재단이 스무 살 성인이 된 걸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서울문화재단 서울댄스프로젝트 2015년 춤단 3기에 참여했는데 그때 함께 춤을 췄던 사람들과 춤을 췄던 느낌, 공기, 습도까지 아직까지 저에게 너무나도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잠수교, 뚝섬, 선유도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추면서 느꼈던 그 '희열!'은 아직도 잊지 못해요. 다음해 4기들이 서울무도회 공연할 때도 춤추러 갔는데... 추억이네요. 나중에 취업이다 직장이다 뭐다 현생이 너무 빡빡해서 비록 지금 예전만큼은 문화생활을 못해도 언젠가 기회가 생기면 '춤단'처럼 다양한 사람들과 호흡하고 즐기는 프로그램을 꼭 다시 하고 싶어요. 앞으로도 재밌고 좋은 전시, 좋은 공연, 좋은 문화예술 프로그램 많이많이 만들어주세요.

이주영

100인의 시민 춤단 컨셉 촬영 사진

♠ 서울댄스프로젝트

서울문화재단과 함께한 시간이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처음 하이서울페스티벌을 시작으로 100인의 시민춤단, 축제모니터링단, 서울시민예술대학 등 정말 다양한 서울의 문화예술 활동을 서울문화재단과 함께해 왔습니다. 10년간 쌓아온 재단과의 추억 덕분에 이렇게 행복과 즐거움이 가득한 삶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프로그램과 축제 뒤에는 묵묵히 고생하며 일해주시는 재단 직원들이 계신 것을 알아요.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스무 살, 서울문화재단의 20주년을 축하드리며 삶이 예술이고 일상이 축제인 서울문화재단의 다음 20년을 응원하겠습니다.

P.S. 예술인을 위한 정책도 좋지만 다시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이 복원되었으면 합니다. 10년의 흐름을 보면 예술전문가 프로그램은 증가했으나 시민 참여형은 줄어든 것으로 느껴집니다.

허웅

♠ 위댄스캠프(WeDance Camp)

서울시민과 함께한 20살, 성년 맞이 생일을 축하합니다. 서울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우연히 마주한 장소에서 '좋은 전시다', '좋은 행사다'라고 생각한 것은 서울문화재단 주관 행사였던 경우가 매우 많았어요. 제가 시민으로서 서울문화재단을 확실히 인지하게 된 건 '위댄스캠프'를 통해서입니다. 스윙댄스 동호회에서 활동한지 4년째, 서울문화재단에서 동호회 댄서를 위한 공연 자리를 마련한다고 해서 댄서 분들과 연습실을 잡고 연습하며 알찬 시간을 보냈던 게 매우 기억에 남아요. 앞으로도 서울시민의 문화향유를 위해 계속해서 다양한 사업과 행사의 자리를 마련해주세요.

황신아

7

서울, 일상의 행복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인형극

●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양천

서서울예술교육센터(현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양천)에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많은 추억이 새록새록 쌓였습니다. 아이들이 특히 좋아하던 훌륭한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인형극도 보고, 비누방울 놀이와 여러 공연 덕분에 제목 그대로 엄마아빠 행복은 물론, 아이들도 행복한 온 가족 행복 프로젝트였답니다. 음료 제공, 스태프의 안전 지도 등 모든 분들의 애씀이 느껴져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좋은 프로그램 제공해주셔서 감사하고, 올해에도 가족의 행복한 추억 만들 수 있게 좋은 시간 마련해주세요.

최지은

가족 소통 프로젝트 '빼꼼'

●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양천

부산에서 처음 서울로 상경해 첫 아이를 낳고 주민센터 팜플렛을 보고 서울문화재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셋째 아이가 태어나기까지 쭉 저희 가족 문화생활을 따뜻하게 지켜준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특히 2022년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양천에서 가족 소통 프로젝트 '빼꼼'에 참여한 기억이 선명해요. 가족과의 소통과 사랑으로 꽉 찬 시간으로 아직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문화재단에서 하는 많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박수산나

● 시민청&서울거리예술축제

서울문화재단과의 첫 만남은 시민청 다이음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등산 동호회를 운영하면서 문화예술과 환경을 접목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에 지원사업을 찾아보던 중 회의 장소와 홍보 채널을 이용할 수 있는 알찬 지원사업이라 신청했어요. 서울에 위치한 산의 전경을 표현하고자 노력하고 환경보전과 관련한 프로그램도 병행하면서 나름 재미난 활동을 했습니다. 짜릿했던 첫 만남을 계기로 서울문화재단의 다양한 문화행사에 관심을 두게 되었고, 서울거리예술축제를 접하면서 서울문화재단의 문화적 다양성과 방향성을 보며, 예술의 힘이 무엇인지 왜 이 많은 시민들이 열광하는지를 제대로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대한민국 문화재단 중 이렇게 화려하고 큰 규모의 행사를 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일지, 문화를 편견 없이 바라볼 수 있는 곳이 얼마나 있을지 찾아보면 단연코 서울문화재단만큼 하는 곳은 없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주년의 경험치는 계속 쌓일 것이기에 앞으로가 더욱더 기대되며, 공공기관 특성상 정치적 성향에 따라 여러 정책이 바뀌기에 취약한 곳인데 서울문화재단만큼은 시민들의 문화향유, 다양성, 예술을 위한 정책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최승혁

● 아트페스티벌 서울

코로나19로 몇 년간 꽁꽁 싸맸던 일상은 2023년 전환기를 맞았습니다. 다른 곳에서의 변화는 소소했지만 일상에서의 문화향유는 더 커졌는데, 그 중심에 서울문화재단이 있었더라고요. 2023년에는 그동안 못 하던 것을 보복 소비하듯 마구 찾아다니며 즐겼는데, '아트페스티벌 서울'이 제 일상 문화향유에 큰 몫을 했습니다. 송현동에서 '서울서커스페스티벌'을 접한 후 일 년 동안의 모든 페스티벌을 다 찾아보리라 다짐했어요. 다 가진 못했지만 '서울거리예술축제', '서울융합예술페스티벌'에 참여해 즐겼고, 서울에 굉장히 좋은 문화예술축제가 있었다는 걸 새삼 느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왜 진작 찾아다니며 보지 못했을까 싶을 정도로 프로그램이 좋고 규모도 컸고요. 특히 추석 기간 열린 '서울거리예술축제'엔 축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향유하는 시민들이 정말 많다는 걸 목도했고, 시민 참여 프로그램도 많아 즐거웠어요. 개막식 공연은 여러 면에서 감탄 그 자체였습니다. '한강노들섬클래식'도 신청했는데, 공연을 앞두고 폭우로 당일 취소되어 아쉬웠네요. 예약할 때도 조기 매진될까봐 마음 졸이던 기억도 있고요. 올해는 꼭 다 참여해서 문화 축제로 2024년을 꽉 채우려합니다. 20주년 축하드리고, 늘 일상에서 모두가 소외됨 없이 즐길 수 있는 축제, 행사 기획,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박지영

2023 서울서커스페스티벌

명동예술극장 앞에 설치된 피아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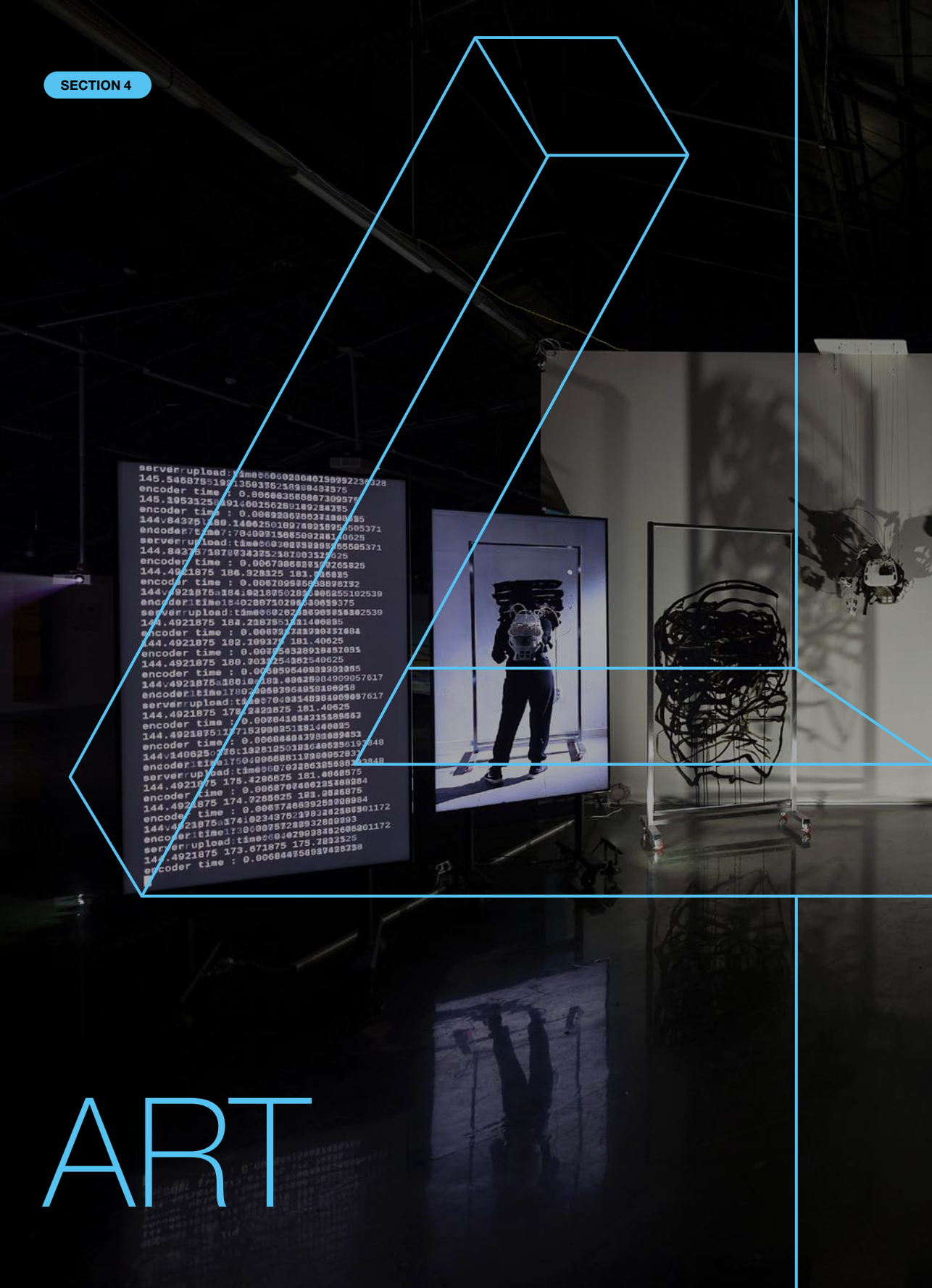
● 피아노 서울

저는 2023년 크리스마스 이브, '피아노 서울' 덕분에 명동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명동예술극장 앞에 피아노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조율이 정말 훌륭하게 되어 있는 피아노였습니다. 건물 앞 구석지지 않은 자리에 있고 보도는 넓어서, 연주자는 연주에 집중하고 지나가던 이들은 반원으로 넓게 둘러서서 감상하고 박수 치기 좋은 위치였어요. 피아니스트 급 실력자들의 멋진 연주를 들으면서 피아노 옆에 놓인 팻말을 통해 피아노가 서울문화재단의 지원임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런 축제와 같은 날을 보낸 것에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어요. 그날 밤 축제 분위기를 같이 느껴 보시라고 사진 첨부합니다.

좀 더 많은 악기를 사람들이 접했으면 하지만 소리가 좋은 피아노를 설치한 것만으로도 시민을 위한 멋진 지원이라고 생각해요. 피아노를 배우지 않았거나 관심 없는 이들도 누구든지 음악의 아름다움을 접하고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어요. 스무 살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서울 어디에서나 어렵지 않게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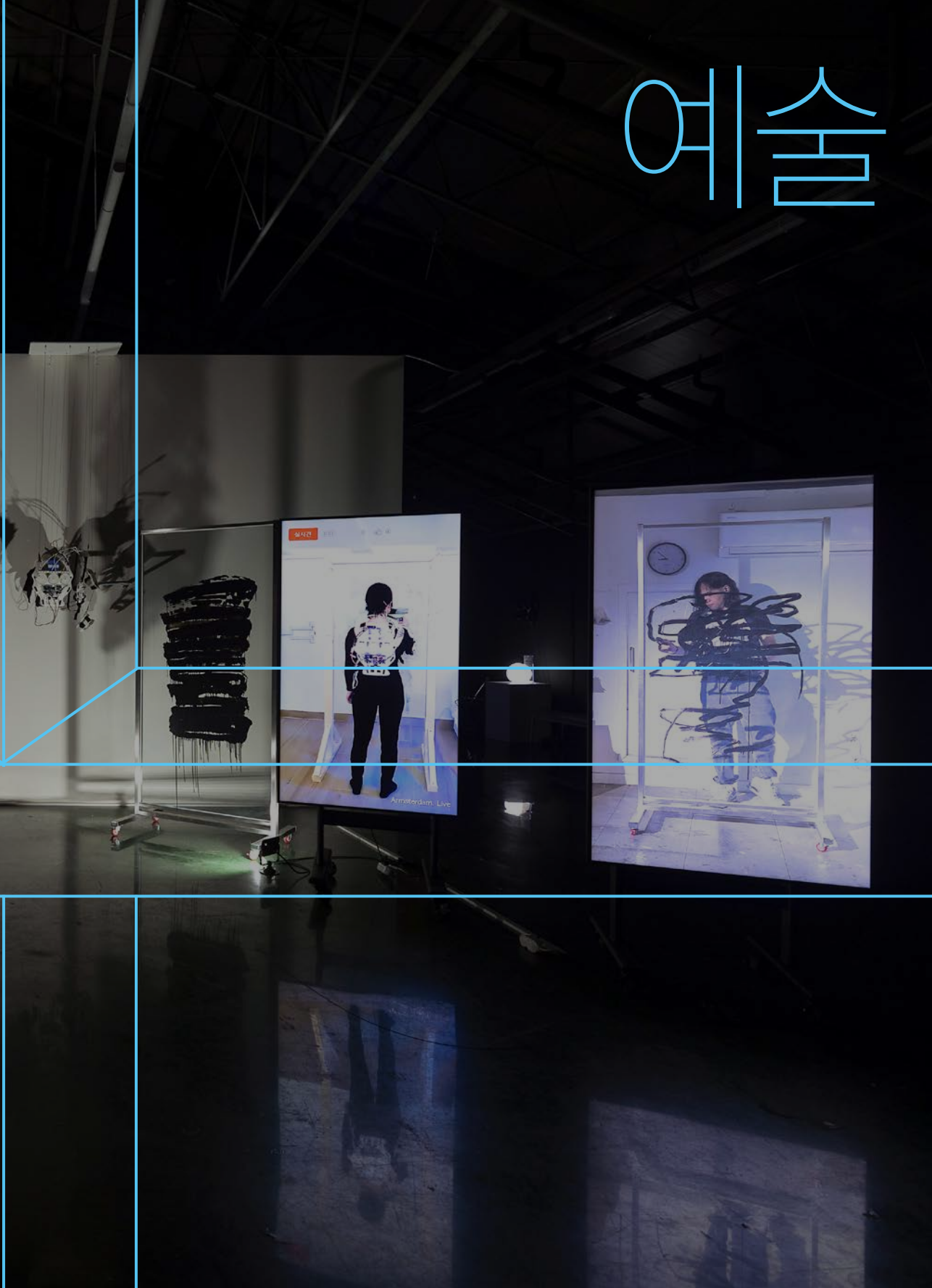
안희재

SECTION 4



ART

예술



4.1.

예술지원

서울문화재단의 예술지원은 2004년 설립 당시부터 최근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변화 되어왔다.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문화예술정책이 바뀌거나 시절마다 달라지는 사회문화적 이슈와 흐름에 따라, 마치 예술지원정책과 제도의 숙명이 그러하듯, 동시대에 적합한 현장 중심의 예술지원체계를 만들어 가기 위한 논의는 현재에도 쉼 없이 진행 중이다. 변화는 다양하지만, 목적은 분명하다. 예술지원은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을 돕는 일이다. 그것이 창작활동을 위한 직접지원이든, 기반 지원을 통해 인프라를 조성하는 사업이든, 다양한 플랫폼과 공간을 활용한 간접지원의 형태이거나 유통과 확산을 통한 지속성을 만들어 가는 일련의 모든 지원사업의 목적은 예술가의 창작활성화에 있다. 하여, 서울문화재단의 지난 20년은 국내 예술지원체계의 지형을 읽을 수 있는 또 다른 기준점이 된다. 지난 2004년부터 최근까지 예술지원체계의 주요 흐름 속에 이러한 변화의 지점이 녹아있다.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 20년

2004-2007
재단 고유의 특화사업 추진

2004년 재단 예술지원의 시작은 시민문예사업과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사업이었다. 시민문예사업의 경우 서울시 문예진흥기금이 폐지된 이후 그대로 승계받은 사업이었던 것과 달리, 무대공연 작품제작 지원은 위탁사업이기는 했지만 공연예술영역의 4개 장르를 포함, 2006년부터 다원예술이 추가되면서 5개 장르로 지원이 확장되는 등 고유한 브랜드 사업을 가져갈 수 있는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후 '선택과 집중, 사후지원'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재단은 새로운 형태의 사업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사업들이 탄생했다. 바로 집중육성지원사업, 젊은예술가지원사업 NArT(실연심사 도입), 사후 지원사업 등이 그렇다.

연도	주요변화
2004	• 시민문예지원,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재단으로 이관 • 집중육성지원사업 개시
2005	• 젊은예술가지원사업 NArT 개시(실연심사 도입)
2006	• 사후 지원사업 개시(창작뮤지컬 대상으로 시작)
2007	• 시각·문학 창작활성화지원사업 개시(공연 지원 집중 탈피) • 연극제·무용제·아시티지축제 지정지원 재단으로 이관
2008	• 공연창작활성화지원(사후지원) • 대학로 순수예술작품 제작지원 • 서울예술축제지원사업(지정지원)
2009	• 국비 매칭 지역협력형 지원사업 지역 이관(생활속예술지원, 예술표현활동지원, 공연단체 집중육성지원 등) •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시작 • 대학로문화활성화지원사업 개시(2009-2011)

신진 예술가지원사업이었던 **나트(New Artist Trend)**는 활동경력이 길고 우수한 전문예술단체 중심으로 전개되던 지원시스템을 탈피하고, 역량 있는 젊은 예술가들을 발굴, 활동 기회를 확대한다는 목적으로 진행되어 현재까지 다양하게 변화하며 운영되고 있다. 당시, 쇼케이스 형식을 통한 실연심사를 도입, 신진 예술가들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가능성을 직접 선보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연예술계 전체적으로 실연심사의 폭을 확대하는 효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사후지원제도** 역시 재단에서 최초로 선보였다. 서류심사로 지원하는 기존의 지원 체계와는 다른 유형의 사업으로서 예술가들의 선호도가 높았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지원방향을 세웠던 재단 초기 예술지원은 지원방식의 다변화를 통해 사후지원제도, 실연심사를 통해 젊은 예술가 육성, 공연예술단체 집중육성 등 예술가 및 작품지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기 위한 다각화를 시도했다고 볼 수 있다.

2010-2014
공연예술집중육성지원 확대

재단 초기 예술지원의 흐름은 '간접지원 확대', '사후지원제도 확대', '전문 심의관제도 도입', '시민 향유 예술지원'을 골자로 한 문화체육관광부의 '2010 예술지원 제도 개선안'이 발표되면서 변화를 맞는다. 여기에 더해 국고와 지자체가 매칭하여 지역단위의 예술사업을 지원하는 '지역협력형 사업' 시작으로 서울의 국고 지원비율이 급감, 재단의 예술지원 예산이 감소하는 등 지원사업의 연속성 및 창작지원 프로그램의 기금 축소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기도 했다. 2004년 재단 출범 이후 지원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에서 다양한 시도가 이어졌고, 충분하지 않지만 재단 재원만으로도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가능했던 시기와 달리, 재단 고유의 특화사업을 확장하는 데 제한적 요소가 되었기 때문이다.

연도	주요변화
2010	• 예술지원사업 체계화(창작활성화, 시민문화 구분/단순화) • 연구, 평론, 작품집, 문학연계콘텐츠 등 지원 분야 확대 • NArT를 협업형 지원사업으로 개선(하이서울, 페스티벌 장(場)) • 서울예술축제지원사업 공모 신설
2011	• 대학로 연극실태조사 최초로 시행 • 서울형 문화기업 육성지원 개시(2011-2013)
2012	• NArT 유망예술육성지원 개선 - NArT in Partners (창작공간, 하이서울, 예술의전당 연계 제작 사전단계 지원) • 서울메세나 지원사업 개시
2013	• 수시기획지원(계기성지원) 10년만에 폐지 • 시민예술활동지원 기획형 분야 신설(시민-아티스트 협력 등) • NArT 창작공간 연계 강화(홍은 닻(DOT), 문래 MAP(Mullae Arts Plus), 서교 99℃)
2014	• 공연단체 다년간 지원 신설 • 예술지원체계 정비(작품 지원/작가 지원 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년부터 재단의 예술지원정책은 보다 큰 틀에서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내고, 성과가 좋았던 사업을 다른 사업과 연계하여 확장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갔다.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을 시작하며 예술단체 집중지원의 필요성을 제시했고, 2010년부터 연구, 평론, 작품집, 문학연계 콘텐츠 등 지원분야를 확대했다. 2010년 '서울예술축제지원사업' 공모 확대, 2012년 'NArT'를 하이서울페스티벌, 페스티벌 장과 연계한 협업형 지원사업으로 개선, 2014년 '공연예술단체 다년간 지원사업' 등을 통해 예술현장에 필요한 다각적인 지원사업을 개선, 신설했다.

또 다른 주요변화는 예술지원체계의 정비다. 10년 동안 진행되던 수시 기획지원이 폐지됐고, 지원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구축(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으로 DB 전산화)을 정립하는 등 예술지원의 안정화를 위한 노력이 병행되었다.

2015-2018
창작공간 중심의 장르별 특화지원

2015년부터 2018년 사이 주요 변화는 재단에서 운영하는 창작공간을 중심으로 한 장르별 특화지원 운영이었다. 창작지원팀을 총괄로 창작공간의 특수성, 전문성, 현장성을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운영하면서 재단과 예술가의 파트너십이 강화되는 성과를 가져왔다.

또 다른 변화 중 하나가 **청년예술인지원**의 신설이었다. 2016년 서교예술실험센터가 주관한 비기너스 프로젝트, 신진예술가를 위한 '최초예술지원' 사업에서 시작해, 2017년부터 예술지원사업 내에 청년예술지원 유형이 별도로 신설되었다. 2017년 **청년예술공간지원사업**, 2018년 **서울청년예술단** 등 신진예술가들의 진입경로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과 지원제도가 눈에 띄게 늘어난 시기이기도 했다.

청년예술지원 사업과 함께 시행된 변화 중 주목할 만한 부분은 소액다건 사업에 적용한 '무정산' 적용이었다. 이러한 변화는 예술지원의 집행 및 정산에서 기존에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방식으로 향후 예술가 개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지원 등으로 확장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예술가들이 직접 심사에 참여하여 투표를 통해 지원대상을 선정했던 '동료심사제', 민간 창작공간의 임차료 지원사업, 단년 사업이었던 유망예술지원, 최초예술지원, 서울청년예술단 사업의 다년지원 확대는 물론 블랙리스트 사태 이후 촉발된 심의위원 공개추천제 및 블라인드 심사제 같은 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진행된 시기였다. 이러한 지원체계는 2019년 지원사업 선정 발표 지연을 겪으며 새롭게 재구성되는 변화를 갖는다.

연도	주요변화
2015	• 예술지원사업 구조 관련 조직개편 • 창작지원팀(지원 총괄)+창작공간(장르별 지원사업 특화 운영)
2016	• 서울예술인플랜 발표 및 청년예술지원 시범사업 개시 - 비기너스 프로젝트(최초예술지원) 시행 • 소액다건 시상금(무정산): 작품지원 영역에 시상금 확대 적용 • 동료심사제 본격화: 예술가들이 직접 심사에 참여
2017	• 청년예술지원사업 개시(최초예술지원/청년예술공간지원사업) • 민간 창작 공간 운영 지원사업(창작공간, 연습실지원사업) • 유망예술지원 다년 지원 전환 • 예술창작지원-예술작품지원 재원 변경 (문예진흥기금→지특회계(균특회계)) • 심의위원 공개추천제 도입, 블라인드 심사제 도입
2018	• 서울청년예술단 사업 이관 (2018년 서울시에서 서울문화재단으로 이관) • '성폭력' 관련 지원대상 제재
2019	• 다년 지원 재개시: 최초예술지원 및 서울청년예술단 • 예술지원사업 구조 관련 조직개편 - '창작지원팀+창작공간' 구조를 '예술기획팀(1개 팀)'의 통합운영 • 예술지원체계 개편: 〈서울예술지원〉 시행 적용

2019-2023
경력단계별 지원체계를 통한 예술가 중심 지원 확대

2020년 재단의 예술지원은 대대적인 변화를 맞이했다. 2019년 예술지원사업 선정발표 지연사태 이후, 예술 현장의 제도개선 의견 수렴을 거친 이후 제시된 방향이 '서울예술지원'이다. 서울예술지원은 '배분, 관리, 통제' 관점에서 '예술현장의 파트너'로 예술가를 인식하고, '예술작품/결과발표' 중심 지원에서 '창작활동 주체인 예술인' 중심 지원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 것이 골자다. 특히 청년예술/기성예술로 양분화 되어 불필요한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하던

지원구조를 폐지, **경력단계별(A_신진/B_유망/C_중견)**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 활동주체, 창작주기, 경력단계를 총체적으로 고려한 입체적 예술지원체계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 때부터 예술창작활동지원과 예술기반지원으로 지원체계의 주요 유형이 분리 운영되는 등 촘촘한 예술지원체계가 구현되어 이어져오고 있다.

2020년 발생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피해 예술인을 지원한 **코로나19 피해 관련 긴급 예술지원사업**, 비대면 전환에 따른 온라인 미디어 예술활동 지원사업 **ART MUST GO ON** 등 환경변화를 반영한 지원사업이 운영되기도 했다. 재단 전용 시스템을 통해 예술지원 선정자들의 실질적인 사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서울문화예술지원시스템(SCAS)' 운영, '첫 데뷔(발표)'에 집중하여 진입장벽을 낮추는 지원사업으로 개념을 전환한 '청년예술지원', 물리적 나이로 인해 경력단절을 겪는 원로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한 '원로예술지원' 신설 역시 예술지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체계 고도화의 일환으로 진행 중이다.

이 외에도 기초예술 분야 생태계 지원 다각화를 위해 2022년부터 시행된 **서울예술인 NFT**, 재단에서 운영하는 예술창작활동지원사업 선정 작품을 대상으로 '창작동기 고취, 예술인 브랜드 가치 상승, 시민 향유기회 확대, 유통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2022년 **서울예술상**을 신설하는 등 재단은 향유, 확산의 전 과정을 선순환하는 구조를 통해, 예술가 중심의 지원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병행하고 있다.

2020	• '서울예술지원' 시행 - 트랙별(A_신진/B_유망/C_중견)로 지원하는 경력단계별 지원 도입 • 코로나19 관련 추경사업 운영 • 예술창작활동지원, 예술기반지원 트랙 운영
2021	• 서울문화예술지원시스템(SCAS) 본격 도입
2022	•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의 지방(서울) 이양에 따라 서울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으로 재설계 • 서울예술인 NFT 신설 • 서울예술상 신설
2023	• 청년예술지원 신설
	• 원로예술지원 신설

2019 THE 넓은 라운드테이블

2023 100인의 예술인에게 듣는다

<table>
<tr><th></th><th>2004</th><th>2005</th><th>2006</th><th>2007</th><th>2008</th><th>2009</th><th>2010</th><th>2011</th><th>2012</th><th>2013</th></tr>
<tr><td rowspan="6">예술창작지원</td><td></td><td></td><td></td><td></td><td></td><td>공연예술작품
공모창작지원</td><td rowspan="4" colspan="2">예술창작활성화지원
(문학, 시각, 공연)
*공연예술창작활성화
수탁사업 예산(2010-)
포함 운영</td><td rowspan="4" colspan="2">예술창작지원
(문학, 시각, 공연)</td></tr>
<tr><td></td><td></td><td colspan="2">사후지원(공연)</td><td colspan="2">공연창작활성화지원
(사후지원)</td></tr>
<tr><td colspan="6">무대공연작품제작지원 *국비 매칭</td></tr>
<tr><td></td><td></td><td></td><td></td><td></td><td rowspan="2">예술표현
활동지원
*국비 매칭
고유</td></tr>
<tr><td></td><td rowspan="2">예술창작활성화
프로그램
*시각/문학/공연/
지역/협회</td><td></td><td colspan="3" rowspan="2">창작활성화지원(시각, 문학)</td></tr>
<tr><td></td><td></td><td>문학창작
활성화지원</td></tr>
<tr><td rowspan="3">예술기반지원</td><td></td><td></td><td colspan="2">조건부기부금지원
(공연예술전문서적)</td><td></td><td></td><td colspan="4">예술연구서적발간지원</td></tr>
<tr><td></td><td colspan="3"></td><td></td><td colspan="3"></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예술평론활성화지원</td><td></td><td></td><td></td></tr>
<tr><td>예술창작지원
(다년간 지원)</td><td colspan="5">유망예술프로그램 집중육성(3년 지원)</td><td>공연예술단체 집중 육성 지원
*국비 매칭</td><td></td><td></td><td></td></tr>
<tr><td>대학로 지원</td><td></td><td></td><td></td><td></td><td>대학로
순수예술작품
제작지원</td><td colspan="3">대학로 문화활성화 지원(2009-2011)</td><td></td><td></td></tr>
<tr><td>융합예술지원</td><td></td><td></td><td></td><td></td><td></td><td></td><td colspan="4">다빈치 아이디어 공모
(금천예술공장)</td></tr>
<tr><td>공연장상주단체
육성지원</td><td></td><td></td><td></td><td></td><td></td><td colspan="5">공연장상주예술단체 육성지원</td></tr>
<tr><td>유망예술지원</td><td></td><td colspan="4">젊은예술가지원 NArT
*실연심사 도입</td><td colspan="2">유망예술가 육성지원
NArT in Festival</td><td>유망예술
육성지원
NArT in
Partners</td><td>유망예술
지원
(3개
창작공간+
연극)</td></tr>
<tr><td>청년예술지원</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원로예술지원</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간접·확산 지원</td><td></td><td></td><td></td><td></td><td></td><td colspan="2">서울예술지원박람회</td><td colspan="3">서울형
문화기업 지원</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기타 지원</td><td colspan="5">계기성문화예술지원</td><td colspan="4">수시 기획 지원</td><td></td></tr>
</table>

더 보기
예술지원 선정자 검색

<table>
<tr><th>2014</th><th>2015</th><th>2016</th><th>2017</th><th>2018</th><th>2019</th><th>2020</th><th>2021</th><th>2022</th><th>2023</th></tr>
<tr><td colspan="6">예술작품지원: 연극, 무용, 음악, 전통, 다원, 시각
*메르스 추경 예술창작활동지원(7개 장르)</td><td colspan="4" rowspan="2">경력단계별 트랙(A트랙-신진, B트랙-유망, C트랙-중견):
연극, 무용, 음악, 전통, 다원, 시각, 문학
*코로나19 긴급예술지원(2020),
온라인 미디어 예술활동 지원(2020-2021)</td></tr>
<tr><td colspan="6">예술가지원: 문학 창작집 발간
문학 첫 책 발간 추가
시각예술중견작가작품집, 예술연구서적</td></tr>
<tr><td></td><td></td><td colspan="3">민간창작공간운영지원</td><td>창작작업실
연습실지원</td><td colspan="4">예술기반지원
창작준비, 공간, 연구, 기록</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3">공연단체 다년간 지원: 연극·무용
(2014-2016)</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6" rowspan="2">(다빈치 크리에이티브 확장) 다빈치 아이디어 공모</td><td colspan="4">언폴드엑스(Unfold X): 창제작지원</td></tr>
<tr><td colspan="3">미래예술창작지원(일반/전문가)</td><td>미래예술
창작지원
(전문가)</td></tr>
<tr><td colspan="10">공연장상주예술단체 육성지원 연극, 무용, 음악, 전통 *국비 매칭(2009-2021), 지방 이양(2022-)</td></tr>
<tr><td colspan="7">유망예술지원 연극, 무용, 음악·전통·다원, 시각, 4개 창작공간 중심 운영
서울무용센터: 닻(DOT), 문래예술공장: 맵(MAP)
서교예술실험센터: 99°C, 서울연극센터: 뉴스테이지(NEWStage)</td><td>비넥스트
(BENXT)
연극, 무용,
음악·전통·
다원·시각</td><td>비넥스트
(BENXT)
공연, 시각
(문래예술
공장)</td><td>유망예술지원
청년예술청</td></tr>
<tr><td></td><td></td><td>*최초예술지원:
서교예술
실험센터
비기너스
프로젝트</td><td colspan="4">최초예술지원, 청년예술공간지원,
서울청년예술단(2018-2019)</td><td></td><td></td><td>청년예술지원
첫 작품 발표</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원로예술지원</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 colspan="2">서울예술인 NFT</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 colspan="2">서울예술상</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4.1.1.

예술창작지원

- 예술창작활동지원
- 예술기반지원
- 융합예술지원＆미래예술창작지원
-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예술창작활동지원

+ 2004-
÷ 예술지원팀

예술창작활동지원사업(2004-)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창작역량을 강화하고 창작활동을 촉진하여 예술인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재단의 대표적인 예술지원사업이다. 서울에서 예술 창작 활동을 하는 모든 예술인(단체)이 지원할 수 있으며, 2020년부터 지원체계를 개선, 예술 생태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경력단계별로 트랙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연극, 무용, 음악, 전통, 다원, 시각, 문학 분야의 창작활동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장르별 특성에 따라 공모 시기 및 운영 방식의 차이가 있다. 공연예술분야의 경우, '예술창작활동을 통해 서울에서 작품 제작 및 발표를 진행하고자 하는 예술인(단체)'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다원 분야는 장르의 특성을 고려하여 활동경력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또한 창작지원금 외에 창작자의 창작과정 전반의 활동을 인정하여 창작활동비를 별도 지원한다. 문학 분야의 경우 '집필 원고에 대한 발간이 가능한 작가'를 선정하여 시상금 형태의 정액 지원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첫 책 발간지원', '창작집 발간지원' 등 두 가지 유형을 지원하고 있다.

예술창작활동지원사업은 그간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2004-2009)**, **예술창작활성화지원(2010-2013)**, **예술작품/예술가지원(2014-2019)**, **예술창작활동지원(2020-)** 등으로 사업명을 달리하며 운영되었으나, 시절에 맞는 지원유형을 새롭게 적용, 예술가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예술의 가치를 대내외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의 근간으로 자리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공연된 작품 중 다수가 '백상예술대상', '이데일리문화대상', '동아연극상', '두산연강예술상', '무용예술상' 등의 국내 대표적인 예술상을 수상하는 등 대내외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도 주목할 만한 지점 중의 하나다.

2013 예술창작지원 문학 선정자 시상식

예술창작활성화지원(2010-2013)

구분	2010		2011		2012		2013	
	지원건수	지원액	지원건수	지원액	지원건수	지원액	지원건수	지원액
공연창작활성화	37	346,000	34	440.000	33	340,000	51	486,000
문학창작활성화	56	529,000	56	570,000	57	570,000	40	400,000
시각예술창작활성화	107	853,000	124	880,000	128	960,000	105	831,000
다원창작활성화	39	561,000	34	482,000	35	522,000	29	433,000
예술연구및서적발간	9	55,000	8	80,000	11	110,000	9	90,000
예술평론활성화	5	30,000	3	18,000	-	-	-	-
합계	253	2,374,000	259	2,470,000	264	2,502,000	234	2,240,000

예술작품지원(2014-2019)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지원건수	지원액	지원건수	지원액	지원 건수	지원액	지원 건수	지원액	지원건수	지원액	지원건수	지원액
연극	47	1,102,000	48	1,223,000	41	1,001,000	50	1,190,000	46	1,142,000	42	1,112,000
무용	51	678,000	43	758,000	33	576,000	44	750,000	37	712,000	28	619,000
음악	65	753,000	73	870,000	32	732,000	71	740,500	59	707,400	61	791,000
전통	69	720,000	78	775,000	57	529,000	63	611,500	57	583,000	59	612,000
다원	30	521,000	29	522,000	22	437,000	24	490,000	22	513,500	25	624,000
시각	123	981,000	131	1,094,000	125	915,000	123	1,010,000	113	966,000	124	1,126,330
합계	385	4,755,000	402	5,242,000	310	4,190,000	375	4,792,000	334	4,623,900	339	4,884,330

예술가지원(2014-2019)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지원건수	지원액	지원건수	지원액	지원건수	지원액	지원건수	지원액	지원건수	지원액	지원건수	지원액
문학 첫 책 발간지원	-	-	-	-	-	-	-	-	50	500,000	20	200,000
문학창작집 발간지원	40	400,000	40	400,000	46	400,000	40	400,000			30	300,000
시각예술 중견작가 작품집 발간지원	7	70,000	7	70,000	7	70,000	7	70,000	7	70,000	7	70,000
예술연구서적 발간지원	7	70,000	9	90,000	9	90,000	8	80,000	8	80,000	10	100,000
합계	54	540,000	56	560,000	62	560,000	55	550,000	65	650,000	67	670,000

예술창작활동지원(2020-2023)

구분	2020		2021		2022		2023	
	지원건수	지원액	지원건수	지원액	지원건수	지원액	지원건수	지원액
연극	77	1,938,000	71	1,867,500	54	1,367,000	67	1,940,000
무용	71	1,195,000	49	1,162,000	38	875,500	50	1,353,000
음악	104	1,532,000	119	1,761,500	92	1,413,000	124	1,991,000
전통	68	1,244,000	67	1,336,000	48	986,000	63	1,465,000
다원	58	1,041,000	46	1,017,000	37	768,000	45	1,034,000
시각	172	2,534,900	162	2,621,100	114	2,020,000	127	2,740,000
문학	50	500,000	50	500,000	50	500,000	50	500,000
합계	600	9,984,900	564	10,265,100	433	7,929,500	526	11,023,000

* 단위: 건수, 천원, 서울문화재단 연도별 결산보고서 기준

예술기반지원

+ 2020-
÷ 예술지원팀

예술기반지원(2020-)사업은 새로운 실험과 도전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여 예술 창작활동의 준비 및 계획 단계에서도 안정적으로 활동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연구, 공간, 기록 등 예술생태계를 구성하는 기반 요소에 따라 예술창작 준비 과정을 지원, 창작 활동이 안정적으로 선순환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물론, 창작 발표와 직접 연관된 활동을 추진하는 현장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2019년 예술지원 체계 개편과 함께 2020년 **예술기반지원 유형**이 신설되었으며, 이전까지 분산되어 있던 사업을 통합, 예술기반 조성에 적합한 5가지 세부 사업들을 모아 재편했다.

예술기반지원 주요사업(2023)

사업	지원 내용
RE:SEARCH	구체적 작업계획 수립 전 준비 및 구상단계의 창작준비활동 지원
창작예술 공간지원	예술활동의 기반이 되는 창작예술공간 임차료 지원
예술연구 활동지원	동시대 예술현장과 연관된 연구 활동 지원
시각예술작품집 발간지원	시각예술 분야 우수작가 작업을 집대성한 작품집 발간 지원
공연예술 영상기록지원	공연예술 분야 대상 작업철학이 담긴 포트폴리오형 영상 기록 지원

예술생태계와 인프라, 다양한 활동주체를 지원하기 위한 예술기반지원은 창작공간부터 연습실, 작품의 창작과정, 연구활동 및 기록 등 예술의 확장성을 위해 필요한 부분을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 예술계의 창작환경을 개선하는 성과를 가져오고 있다. 2022년까지는 RE:SEARCH(예술창작 준비지원), 창작예술공간 임차료 지원, 시각예술작품집 발간지원, 우수예술작품 기록지원, 예술전문서적 발간지원, 예술인 연구모임 지원 등 총 6가지 세부 사업으로 운영되었다. 2023년부터 **예술전문서적 발간지원**을 **예술연구 활동지원**과 통합 운영하고, **우수예술작품 기록지원**을 **공연예술 영상기록지원**으로 개편하는 등 유사한 성격의 사업을 통합하여 장르적 특성을 반영한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예술지원의 다양화를 모색하고 있다.

예술기반지원(2020-2023)

구분	2020		2021		2022		2023	
	지원건수	지원액	지원건수	지원액	지원건수	지원액	지원건수	지원액
RE:SEARCH (예술창작 준비지원)	400	800,000	300	900,000	300	900,000	300	900,000
창작예술공간(임차료) 지원	82(연습실)	347,643	125	677,000	121	676,420	114	671,650
	14(예술공간)	270,000						
시각예술작품집 발간지원	5	50,000	5	50,000	5	50,000	5	50,000
우수(공연)예술작품 기록지원	7	70,000	7	70,000	7	70,000	10	99,000
예술전문서적 발간지원	7	70,000	8	80,000	10	70,000	-	-
예술인 연구모임(활동) 지원	15	137,897	15	150,000	15	150,000	15	149,600
합계	530	1,745,540	460	1,927,000	458	1,916,420	444	1,870,250

* 단위: 건수, 천원, 서울문화재단 연도별 결산보고서 기준

융합예술지원 &미래예술창작지원

× 융합예술지원(2020), 미래예술창작지원(2020-)
÷ 금천예술공장, 융합예술팀

융합예술지원

융합예술지원은 예술 현장에서의 창작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선도할 수 있는 예술인, 예술단체, 창·제작자, 기획자, 비평가, 연구자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창·제작 환경을 조성하고 국내외 전문기관, 기업 및 활동 주체 간 교류를 지원하는 플랫폼을 통해 동시대 예술과 기술이 결합된 융합예술 분야의 새로운 지형을 그려가고 있다. 시민을 대상으로 융합예술과 기술, 미래 경향에 관한 온·오프라인 강연 프로그램 및 융합예술 분야 기획자 발굴과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융합예술 생태계의 저변을 확장해 가고 있다.

금천예술공장에서 국내 기술기반 미디어아트의 프로덕션을 지원하여 예술과 기술의 관계를 보여주었던 **다빈치 크리에이티브(2010-2019)** 사업에서 출발한 융합예술지원은 그간 축적된 인프라 및 성과를 기반으로 융합예술 분야의 발전과 지속가능성을 확장하기 위해 **융합예술플랫폼**으로 사업을 개편, 2020년부터 언폴드엑스(Unfold X)라는 명칭으로 운영하고 있다. 2020년 다빈치 아이디어 사업이 걸어온 10년과 **융합예술플랫폼(Unfold X)**이 그려 나갈 10년을 곱하여 도출된 100년의 시간 동안 융합예술의 확장을 의미하는 전시 〈Xhibition 2010-2020〉(20.10.10-20.10.20, 블루스퀘어 네모)를 시작으로, 2021년 〈Unfold X 2021 - Digital Storytellers〉(21.11.15-11.28, DDP) 기획전시를 선보였으며, 2022년 **제1회 서울융합예술페스티벌 Unfold X 2022 - Shaping the Future**(22.11.07-11.19, 성수동 에스팩토리)을 개최하며 융복합 예술지원의 또 다른 전환점을 열어가고 있다. 2023년에는 그 규모를 확대하여 문화역서울284에서 **제2회 서울융합예술페스티벌 Unfold X - 달로 가는 정거장**(23.11.10-12.13)을 개최하는 등 융복합 예술 분야의 확장성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연도	주요 사업 변화
2010-2019	다빈치 아이디어 공모: 금천예술공장
2014	다빈치 크리에이티브로 확장
2020	융합예술플랫폼(Unfold X)으로 사업명 변경 - Unfold X 10년 기획전시 〈Xhibition 2010-2020〉
2021	- 〈Unfold X 2021 - Digital Storytellers〉 전시 - 해외 작품 전시 초대(유니버셜 에브리씽, 타츠오 미야지마, 로랑 그라소) 및 LGU+, 파라다이스 아트랩, ACC 콘텐츠 전시 참여
2022	- 아트페스티벌 서울 연계 서울융합예술페스티벌 개최 - 파라다이스 아트랩 페스티벌 콘텐츠 교류 (*이재형 작가 전시 참여) ZKM, HEK, G.MAP MOU 체결
2023	- 몬트리올 일렉트라(캐나다) MOU 체결 - 융합예술창제작지원사업 선정예술가 '상희'● 프리 아르스 일렉트로니카(Prix Ars Electronica) (오스트리아 린츠) 특별상(Award of Distinction) 수상

● 상희(SANGHEE, 본명 이상희)는 2022년 융합예술플랫폼 창제작 지원사업 선정예술가로 데뷔작 〈원룸바벨(Oneroom-Babel)〉을 제1회 서울융합예술페스티벌 전시를 통해 발표했다.

융합예술지원 운영 결과(2020-2023)

	창·제작지원	토론·네트워크(다이얼로그 엑스)	언폴드엑스(융합예술작품 전시)
2020	6건(177,800천원)	• 융합분야 주요 기관 간 연합 체계 기반 사업 협업, 교류 통한 담론형성 및 연구	• 국내 융합예술/단체 8팀, 10개 작품 및 다빈치 크리에이티브 10년 116팀 아카이브 전시 • 오프라인전시 1,103명 방문, 온라인 2,469뷰, 온라인 누적 방문수 3,569명 • 융합 분야 7개 유관기관 협업
2021	6건(175,000천원)	• '메타버스 속에서의 예술생태계' 주제 인터뷰 5회, 간담회 및 회의 16회	• 기획전시 관람객 5,077명 - 창·제작 선정 6팀 - 국내외 대표 융복합 작품 초청 해외(영국, 프랑스, 일본) 3건, 국내 3건 • 융합분야 4개 기관 기업 협업
2022	7건(175,000천원)	• 온라인 강의 5건, 현장 강의 2회 진행 • 융합예술 대표 해외기관(ZKM, HEK) 디렉터, 큐레이터 방한 및 강연	• 제1회 서울융합예술페스티벌 Unfold X 2022 • 기획전시 관람객 7,523명 • 참여예술가 총 19팀 • 국내외 융합예술 전문기관 6개 협약 및 협력전시 참여 • 시민체험 및 워크숍 운영
2023	5건(210,000천원)	• 렉처(초청강연) 1회 • 아티스트 토크 1회	• 제2회 서울융합예술페스티벌 Unfold X 2023 - 전시 〈달로 가는 정거장〉 18팀, 23개 작품 - 융복합공연 노브컴파일 〈Invariable〉 진행 - 참여예술가 19,279명, 국내외 융합예술전문기관, 기업 10개 협력

출처: 서울문화재단 연도별 결산보고서 기준

2015 다빈치 크리에이티브 페스티벌

2017 다빈치 크리에이티브

2022 제1회 서울융합예술페스티벌 Unfold X

김아영, 딜리버리 댄서의 구(아르스 일렉트로니카 수상작)

미래예술창작지원

미래예술창작지원사업(2020-)은 일반 시민 및 전문가 대상의 융합예술 특화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2019년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어, 융합예술에 대한 이해 및 정보 공유, 관련 분야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는 예술가들의 기술 활용에 따른 창작 범위 확대를 주축으로 하는 전문가 과정 **커넥트 플러스(Connect +)**, 전문기획자 양성 과정 **언폴드엑스(Unfold X) 기획자학교**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 공유 등 시민들의 인식개선을 주축으로 하는 일반인 과정 **커넥트 투모로우(Connect TMRW)** 등으로 운영되었다. 융합예술분야 관련 전문가의 현장 강의 및 온라인 공개 강의를 통해 융합예술에 대한 인식을 높였던 것은 물론, 전문기관과의 협력(메디치교육센터, 중앙대학교)을 통해 VR기반 융합예술 콘텐츠 교육을 실시, 예술현장에 필요한 융합예술인력 전문가를 양성했다는 성과를 가져왔다. 2022년을 마지막으로 일반인 대상 온오프라인 강연 '커넥트 투모로우'는 종결했고, 2023년 현시점까지 예술분야 전문기획자를 양성하기 위한 〈언폴드엑스 기획자학교〉를 지속 운영하며, 선정한 기획자를 대상으로 '기술-기획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 기획자들이 제안한 기획아이디어의 실제적 구현을 지원하고 있다.

미래예술창작지원 운영 결과(2020-2023)

	전문 창작자 과정 **커넥트 플러스**	일반 과정 **커넥트 투모로우**	전문 기획자 과정 **언폴드엑스 기획자학교**
2020	• VR기반 융합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 20회차 100시간, 22명 수강	• 융합예술의 이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예술창작 활성화 등 8개 온라인 강의 운영	
2021	• VR 기반의 융복합 창작전문가 양성과정 운영 - 총 32회차, 150시간, 25명 수강 • 결과작품 전시 〈VR CONNECT+〉	• NFT, 인공지능, 로봇, 사운드아트 등 온라인 강의 8개 운영	• 입문과정: 18명, 4팀, 4개 프로젝트 실행 • 심화과정: 10팀, 10개 프로젝트 실행
2022	-	• 현장 5회, 온라인 13회차(2021년 8개 포함) - 현장 115명 참여, 누적 조회수 58,502회	• 5팀 선정, 5개 프로젝트 발표 • 기획자 8명 참여
2023	-	-	• 5개 단체, 총 232백만 원 지원 • 결과발표 전시 5회(문래예술공장)

2022 언폴드엑스 기획자캠프 〈중간계 생산〉 전시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 2009-
÷ 예술지원1팀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은 대표적인 '선택과 집중' 방식에 의한 지원사업으로, 전문 공연예술단체의 안정적인 창작활동 기반 마련, 공연장과 예술단체 간 파트너십 개발, 공연장 가동률 제고, 시민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 등을 목적으로 시행된 사업이다. 2009년 시범사업에 이어 2010년부터 전국 사업으로 시작되어 2023년 현재까지 다양한 변화를 거치며 운영되고 있다.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내용

사업목적	공연장과 공연단체 간 상생협력을 통해, 안정적 창작환경에서 공연단체의 예술적 창작역량 강화 및 우수 작품 제작·발표 촉진 공연장 운영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
지원대상	(공연 및 공공프로그램 협력수행이 가능한) 공연장 및 공연단체 - 공연장: 공공성을 목적으로 하는 서울 소재 공연장으로서, 공연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 공연단체: 연극, 무용, 음악, 전통 분야의 창작 및 공연 활동을 전문적으로 행하는 공연단체
지원내용	창작지원금 최대 1억 5천만 원, 창작활동비 300만 원 정액 별도
지원분야	4개 분야(연극, 무용, 음악, 전통)

2010 예술지원정책개선안으로 발표된 **선택과 집중, 간접지원, 사후지원, 생활 속의 예술 확대** 등 이른바 예술지원 4대 원칙에 근거하고 있으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예진흥기금과 16개 광역자치단체(문화재단)와의 예산 매칭으로 진행된 지역협력형 사업이다. 일회성 지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2006년에 도입한 **공연예술단체 집중육성지원**(3년 연속 지원)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사업 실시 4년차인 2009년 공연예술단체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의 주요 변화

시기	주요 내용	비고
2006-2008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단체집중육성지원사업'이 전신	1회 선정 시 3년 연속지원
2009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으로 변경하여 시범사업 실시	1회 선정 시 2년 연속지원 지자체 및 국고 매칭, 지역협력형 사업으로 실시
2010-2015	전국 사업으로 확대	공공 및 민간 공연장 포함
2016	연속지원 폐지 지원대상을 공공 공연장으로 제한	1회 선정 시 2년 연속지원 체계 폐지 (평가에 따라 연속지원 가능) 학교 및 민간 공연장 제외

집중육성 지원사업을 16개 시도에 이관, 서울과 인천 지역의 전문예술단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2010년부터 서울문화재단을 비롯해 10개 지역으로 확대되었고, 이후 전국 17개 광역시로 확대 운영되고 있다.

2015년까지 다년간 지원형태로 운영되던 본 사업은 2016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침 변경으로 변화를 맞았다. 사업의 신청 주체가 예술단체에서 공연장으로 변경되었으며, 민간 공연장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년 연속으로 운영하던 다년간 지원의 방식도 단년 지원으로 변경되기도 했다. 서울문화재단이 사업의 변화를 주기 시작한 건, 재단의 예술지원체계가 '서울형예술지원'으로 변경되어 발표된 2020년부터다.

공연단체의 창작역량 강화와 자치구 공연장별 고른 성장, 공연단체와 공연장의 지속가능한 지역별 공연예술 창작 파트너십 구축을 주요 개선 방향으로 신청주체와 매칭방식, 선정방식, 지원기간 등 사업의 전반을 새롭게 재편했다.

2020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주요 개선사항

	기존	2020년
신청주체	공연장 - 공연단체 협약 후 공연단체 주체로 신청	공연장 및 공연단체 각각 개별 신청
매칭방식	공연장 - 공연단체 사전 임의매칭 후 신청	개별 신청 후 심의를 통한 사후 매칭
공연장 PT	심의를 위한 공연장 - 공연단체 협력 PT	사업참여 신청한 공연장이 공연단체 대상 직·간접 지원방안에 대한 공개 PT 진행
현장실사	심의위원 주도 공연장 현장실사 진행	공연단체의 공연장 현장실사 진행, 공연장의 직·간접 지원방안 실사
진입단계 마련	공연장과의 사전 매칭 탈락 후 사업 진입불가	심의 시 심의위원 제안을 통한 매칭가능 → 신규 진입단계 마련
선정방식	사전 매칭된 〈공연장 + 공연단체〉 간 경쟁	공연장 신청 → 공연단체 신청 → 공연단체 서류심의 → 공연장과 공연단체의 선호도 조사 → 심의를 통한 매칭
지원기간	1년 (단년)	2년 (다년)

주요한 변화 중의 하나는 매칭 방식이다. 공연장 자체 공모 또는 자율 선정을 통한 매칭 방식에서 재단 주관 전문가 심의를 통한 매칭 방식으로 개선, 사전 매칭 단계에서 공연장의 공모 기준에 따라 공연단체의 참여가 제한되었던 것을 희망하는 모든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공연단체가 직접 공연장에 방문하여 공연장의 지원사항을 검토하고 사업 실행의 적합성을 판단 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으며, 1개 공연장당 3개 단체까지 매칭하던 방식에서 1개 자치구, 1개 공연장, 1개 공연단체 매칭으로 변경, 서울지역 25개 자치구의 참여기회를 확대했다. 무엇보다 중장기 계획수립이 가능한 다년지원(2년)으로 변경, 예술단체의 창작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의 본래 목표를 위한 재단만의 특화된 지원체계로 개선, 운영하고 있다.

2009-2022 선정단체수

연도	선정단체	분야(건수)			
		연극	무용	음악	전통
2009	23	7	5	8	3
2010	11	4	3	1	3
2011	22	8	4	6	4
2012	15	4	4	3	4
2013	22	5	2	8	7
2014	36	11	5	10	10
2015	33	12	4	10	7
2016	28	10	4	7	7
2017	24	9	3	7	5
2018	25	10	3	7	5
2019	22	8	4	6	4
2020	16	6	3	4	3
2021	19	7	4	4	4
2022	19	6	4	5	4
계	315	107	59	86	70

2013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4.1.2.

경력단계별지원

- 유망예술지원
- 청년예술지원 & 원로예술지원

유망예술지원

+ **2005-**
÷ **문래예술공장, 청년예술청**

도전적이고 독창적인 시도로 예술계에 새로운 흐름을 제시할 수 있는 공연예술 및 시각예술 분야의 유망예술인/단체를 지원, 예술인의 창작 역량강화는 물론, 예술생태계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2005년 **젊은예술가지원사업 NArT(New Artist Trend)**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유망예술지원사업**은 재단의 대표적인 신진예술가 발굴, 육성지원 사업이다.

국내 최초로 실연 심사를 도입, 쇼케이스 무대를 통해 스스로의 가능성을 발현시킬 수 있도록 구성했던 기획을 시작으로, 문화예술계 페스티벌 등과 연계한 협업형 지원으로 발전시켰던 시절을 지나, 지난 2020년까지 장르별 특성에 따른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재단 내 창작공간에서 특화된 프로그램을 이어왔다.

2021년부터 비넥스트(BENXT)라는 사업명으로 통합, 선정된 작품의 발표 및 전시 등을 페스티벌로 확대, 신진예술가들의 다양한 실험과 완성도 있는 무대가 시민들의 관심을 높였다. **비넥스트(BENXT)**는 '다음 세상을 여는 예술인'이라는 뜻을 담은 기획형 예술창작지원사업으로, 동시대를 바라보는 예술적 관점을 제시하고,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는 독창적인 신작 및 재창작 작품을 지원했다.

연도	사업명	비고
2005-2009	젊은예술가지원사업 NArT (New Artist Trend)	실연 심사 도입
2010-2011	신진예술가 육성지원 NArT in Festival	협업형 지원사업으로 확장
2012-2013	유망예술가 육성지원 NArT in Partners	
2014-2020	- 유망예술지원사업 연극: NEWStage 무용: DOT 음악·전통·다원: MAP(Mullae Arts Plus) 시각: 99°C	서울연극센터, 서울무용센터(옛 홍은예술창작센터), 문래예술공장, 서교예술실험센터 등 창작공간으로 이관, 장르별 특성 연계
2021-2023	비넥스트(BENXT)	공연, 시각 2개 분야 통합, 문래예술공장 운영(2022) 비넥스트(BENXT) 페스티벌 개최(2022)
2023-	유망예술지원	청년예술청 운영(2023)

2023년부터 보다 직관적인 의미 전달을 위해 유망예술지원으로 사업명을 변경하고 사업 효과 확대를 위해 청년예술청으로 이관됐다. 이를 통해 청년예술인의 첫 데뷔를 지원하는 청년예술지원사업과 데뷔 3~10년 이내의 예술인/단체를 지원하는 유망예술지원사업으로 단계적 예술지원 추진체계를 마련했다. 신작의 경우 관객 대상 공연/전시로 발표한 적 없는 순수 창작물로 중간과정 공유회 및 최종작품발표(공연/전시)가 가능한 작품이어야 하며, 재창작의 경우

지원 대상	데뷔 3년 이상 10년 이하 공연/시각 예술인·단체 유망예술인(단체)
지원 목적	유망예술인(단체)의 발굴 및 성장 과정 지원을 통한 창작역량 강화
지원 내용	창작지원금: 공연, 시각 분야 최대 3,000만 원 이내 작품개발지원: 중간 과정 공유회 개최(청년예술청 공간/보유장비 지원) 발표 및 연습 지원, 선정예술인/단체 및 선정작 관련 온/오프라인 홍보

2015 문래예술공장 MAP

2022 비넥스트 페스티벌

기존 작업에서 현격한 변화 및 도약을 계획 중인 작품을 대상으로 한다. 창작지원금뿐 아니라 전문가 멘토링, 발표회 공간, 대외 홍보 및 마케팅 등 예술가들의 창작활동 과정이 조금 더 수월할 수 있도록 통합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유망예술지원(2014-2020) *건수, 천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지원 건수	지원액	지원 건수	지원액	지원 건수	지원액	지원 건수	지원액	지원 건수	지원액	지원 건수	지원액	지원 건수	지원액
연극	3	57,000	3	51,300	4	73,000	5	70,,000	5	172,500	3	48,000	2	48,000
무용	3	57,300	3	57,900	3	60,000	5	75,000	5	148,000	3	54,000	3	52,000
음악	2	21,000	4	57,000	2	30,000	2	30,000	2	57,500	2	28,000	2	31,000
전통	3	45,000	3	39,000	3	45,000	4	60,000	4	117,500	3	48,000	2	36,000
다원	3	44,000	3	56,700	4	52,500	7	105,000	7	179,000	3	54,000	3	50,000
시각	5	35,000	5	28,000	6	4,150	5	33,000	5	68,000	3	30,000	3	30,000
합계	19	259,300	21	289,900	22	264,650	28	373,000	28	742,500	17	262,000	15	247,000

출처: 서울문화재단 연도별 결산보고서 기준

비넥스트(2021-2022)

2021	공모내용: 총 12건 선정, 229,207천원 지원 선정분야: 연극 2(연출 1, 극작 1), 무용 2, 음악 1, 전통 2, 다원 3, 시각 2
2022	공모사업: 총 9건(공연 7건, 전시 2건), 230,000천원 지원 창작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멘토링 및 네트워킹 프로그램, 총 32회 진행 비넥스트 페스티벌: 관람객 4,040명, 예술인 102명 참여

유망예술지원(2023-)

2023	지원금 지원: 총 6건(공연분야 4건, 시각전시분야 2건), 180,000천원 지원 간접지원1: 창작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멘토링 및 네트워킹 프로그램, 총 30회 지원 간접지원2: 6개 작품 발표를 위한 공간 및 운영 지원

청년예술지원 & 원로예술지원

× **청년예술지원(2023-)**
원로예술지원(2023-)

진입 단계의 청년예술인 지원 확대를 통해, 안전한 예술창작 활동 기반 마련하고, 경력단계별 예술창작활동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청년예술지원(2023-)과 예술 활동의 기회가 적은 원로예술인들의 지속가능한 활동을 지원하고자 신설된 원로예술지원(2023-) 등은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새로운 지원 방식으로 인식되고 있다.

청년예술지원(2023-)은 청년예술인의 첫 작품 발표를 지원, 새로운 창작활동을 위한 실험과 도전이 가능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예술인으로서의 예술계 내 진입을 독려한다는 목적을 갖고 2023년 신설되었다. 예술 창작활동을 통해 서울에서 작품 제작 및 발표를 진행하고자 하는 만 39세 이하 예술인(단체)을 대상으로, 작품 제작/발표 외에도 창작, 실연, 연주 등 예술 활동 전반을 지원한다. 장르를 특정하여 구분하지 않고, 연극, 무용, 음악, 전통, 다원, 시각, 문학 단일장르 및 융복합, 장르 융합, 탈경계 등 예술 전반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 주요한 특징이다. 창작지원금 외 작품개발을 위한 멘토링 및 크리틱, 워크숍,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이 간접지원으로 병행된다.

원로예술지원(2023-) 역시 2023년 신설된 지원사업이다. 원로예술인의 예술 활동 준비 및 발표를 지원하여 지속 가능한 창작 활동을 촉진한다는 목적을 갖고 서울에서 예술활동을 하는 최소 25년 내외 경력을 가진 만 60세 이상의 원로예술인을 대상으로 300만 원을 시상금 형태로 정액 지원한다. 공연, 전시, 발간, 낭독회, 쇼케이스, 워크숍 등의 창작활동을 자유롭게 계획할 수 있으나, 반드시 대외 발표 활동을 진행해야 하는 사업으로 연극, 무용, 음악, 전통, 시각, 문학 등 전 장르를 대상으로 한다.

청년예술지원 운영 결과(2023)

구분	지원건수	지원액(원)
연극	5	45,950,000
무용	2	20,000,000
음악	1	9,959,000
전통	5	49,554,050
다원	6	59,802,328
시각	19	189,925,500
문학	1	9,519,200
기타	1	10,000,000
합계	40	394,710,078

원로예술지원 운영 결과(2023)

신청건수	선정건수	선정비율	지원액(원)
560	140	25%	420,000,000

※ 선정자별 3백만 원 정액 지원

4.1.3.

예술확산

- 서울예술인 NFT
- 서울예술상

서울예술인 NFT

+ 2022-
÷ 제휴협력팀

주요목적

- NFT(Non-Fungible Token) 시장 확대, 미래예술 분야에 대한 시민·예술계 관심 증가 등 시대적 변화에 발맞춘 재단의 선도적 역할 지속
- 예술인들의 미래예술 적응과 자생력을 돕는 새로운 예술지원 시스템 구축

기초예술분야 예술인 NFT 사업은 서울시의 '디지털 감성문화도시' 정책방향과 블록체인 기술 활용도 증가, NFT 시장 확대 등 변화하는 미래예술 환경에 대응한다는 취지를 담고 2022년 시행된 사업이다. 블록체인, NFT 등 미래기술 분야에 대한 접근이 취약한 기초예술인, 그 중 특히 장르적 특성상 NFT 환경 진입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공연예술 분야 예술인들을 중심으로 NFT 작품 제작부터 발행, 유통 전반을 지원하여 디지털 예술 환경 진입과 자생력 확보를 돕는데 목적이 있다. 선정 예술인·단체 대상 NFT 작품 제작 지원, 예술인 NFT 작품 발행 및 대외 발표·홍보 지원, 외부 플랫폼 및 재단 구축 플랫폼 통한 NFT 콘텐츠 유통 지원 등 제작부터 유통까지 사업전반을 통합 지원한다.

2022년 시범사업에는 연극, 무용, 전통예술, 음악 분야 총 30명의 개인 및 단체를 지원했다. 예술가는 각자의 콘셉트를 기획하고, 이를 영상·모션그래픽·애니메이션·사운드 등 다양한 형태로 담아 작품을 제작, 이후 제작된 NFT 작품은 재단과 제휴를 맺은 NFT플랫폼 메타갤럭시아를 통해 각 50개씩 발행되었다. 판매수익이 최소한의 플랫폼 수수료를 제외하고 전액 예술인에게 전달되는 새로운 예술후원 시스템으로,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원화결제도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 접근성을 높이는 등 예술가의 정체성을 담아 제작한 작품으로 소장가치를 지녔다고 평가받았다.

박정자

블랙토무용단(이루다)

2022년 참여예술인

무용			연극		
1	김용걸	발레리노	1	극단 산울림(임영웅)	연출가
2	김재덕	현대무용가	2	김남언	연극배우
3	김지영	발레리나	3	김명곤	연극배우
4	차진엽	현대무용가	4	남명렬	연극배우
5	고블린파티(지경민)	무용단체	5	박정자	연극배우
6	블랙토무용단(이루다)	무용단체	6	윤상화	연극배우
7	앰비규어스댄스컴퍼니(장경민)	무용단체	7	이혜연	연극배우
8	툇마루무용단(이동하)	무용단체			

전통예술			음악		
1	민은경	판소리꾼	1	강순미	작곡가
2	박경소	가야금 연주자	2	김동현	바이올리니스트
3	박다울	거문고 연주자	3	김상진	비올리스트
4	방지원	타악 연주자	4	박종훈	피아니스트
5	사단법인 공명	전통예술단체	5	서선영	성악가(소프라노)
6	유홍	대금 연주자	6	연광철	성악가(베이스)
7	이광수	사물놀이 명인	7	이범주	성악가(테너)
8	하윤주	정가 보컬리스트			

2022년 시범사업 이후 2023년 서울예술인 NFT는 조금 더 확장된 플랫폼 운영을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적용했다. 세부장르 다양화를 통한 공연예술 전반 확대로 전년대비 10%가 증가한 33명의 예술인을 선정하였으며, 3자 협약으로 진행되었던 플랫폼 운영을 2자 협약으로 전환하여 유통 수수료를 절감했다. 언론에 한정되었던 제작발표회를 '예술인 NFT 작품 발표 행사 (오프라인 기획 전시)'로 확대, 본 사업의 대외 인지도를 높여 작품 홍보 및 판매 촉진을 활성화함으로써 예술인들의 수익구조를 개선, 향후 사업의 확장성을 기대하게 하고 있다.

2023년 참여예술인

연극			**무용**		
1	주호성	연극배우	1	김설진	현대무용가
2	박지일	연극배우	2	최수진	현대무용가
3	차유경	연극배우	3	김성용	현대무용가
4	전국향	연극배우	4	신창호	현대무용가
5	김정호	연극배우	5	정석순	현대무용가
6	백석광	연극배우	6	박슬기	발레리나
7	강선영	연극배우	7	국수호	한국무용가
8	노경식	극작가	8	남수정	한국무용가
9	김아라	연출가	9	와이즈발레단	무용단체

전통예술			**음악**		
1	이희문	민요	1	김민석	성악가(테너)
2	김준수	판소리	2	김기훈	성악가(바리톤)
3	유태평양	판소리	3	진 솔	지휘자
4	강권순	정가	4	양성원	첼리스트
5	허윤정	거문고	5	안종도	피아니스트
6	강은일	해금	6	민유경	바이올리니스트
7	이일우	피리	7	배장흠	클래식기타리스트
8	김소라	타악			

2023 63인의 서울예술인 NFT 전시

서울예술상

+ 2022-
÷ 예술지원정책팀

서울예술상은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의 선정 작품 중 경쟁력 있는 우수 작품을 선발하는 순수 예술분야의 시상 제도로 2022년 연극, 무용, 음악, 전통, 시각 등 5개 장르로 시작했다. 그간 예술작품 창작과정 및 활동지원 중심에 집중해 온 예술지원을 작품의 성과와 피드백을 연결하여 우수작품을 발굴, 시상함으로써 수상작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국내외 레퍼토리 확산 계기를 마련, 예술지원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제1회 서울예술상은 7월부터 12월까지 공연된 총 242건의 작품을 대상으로 총 34명(연극 6인, 무용 6인, 전통 6인, 시각 8인, 음악 8인)의 심의위원을 구성, 전수 현장평가를 진행했다. 이후 서류, 토론 심의를 거쳐, 각 분야별 전문가 1인, 문화예술전문기자단 3인으로 구성된 최종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수상작을 선정, 2023년 2월 28일 시상식을 개최했다.

2022년 수상작

대상	〈악가악무-절정絶靜〉(전통, 허윤정)
최우수상	〈맹〉(연극, 코너스톤), 〈율.동.선〉(음악, 음악오늘), 〈안녕, 나의 그르메〉(무용, 정보경댄스프로덕션), 〈직각 마음〉(시각, 이은우)
우수상	〈정희정〉(연극, 래빗홀씨어터), 〈2022 사운드 온 디 엣지 III-업데이티드, 2022 사운드 온 디 엣지 V- 재창조〉(음악, 사단법인 팀프앙상블) 〈Edge of Angle〉(무용, 정형일 Ballet Creative) 〈流-심연의 아이〉(전통, 김용성), 〈괴·수·인〉(시각, 돈선필)

제2회 서울예술상은 기존 5개의 장르에서 '다원' 분야를 포함, 총 6개의 장르로 확대하였고, 2022년 7월-12월 공연된 작품을 대상으로 진행한 것과 달리, 사업이 운영되기 전 1월-6월 작품은 영상평가로 대체하여 예술인의 참여 기회를 넓혔다.

작품당 1인의 전문가 매칭은 2~3회로 확장하고, 시상 규모 역시 대상, 최우수상 외 우수한 유망예술가의 작품을 시상하는 프런티어상, 서울문화재단 예술창작활동지원 선정작 외 2023년 서울 전역에서 발표한 우수 작품을 조명하는 심사위원 특별상(작품 부문), 장애예술 분야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우수 창작활동 보여온 장애예술인을 시상하는 심사위원 특별상(장애예술인 부문) 등 시상 종류를 신설 및 확대하여 다양화를 꾀했다.

이전과 달리 창작활동의 동기를 유발하고, 제작된 작품의 예술적 가치를 확산할 수 있는 문화예술 분야의 시상제도를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서울예술상'은 기초예술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에게 활력을 주는 또 다른 의미의 지원 방식으로 주목되고 있다.

4.2.

창작기반

2008년 도심의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도심 재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작된 창작공간 조성사업은 연극, 무용, 다원예술, 문학, 미술, 거리예술, 예술치료, 어린이, 장애인 등 분야별 특화된 예술 활동을 다각적으로 지원하는 전문공간으로 성장했다. 2009년 서교예술실험센터를 시작으로 조성된 창작공간은 일부 공간이 통합, 운영종료 등의 과정을 거쳐 2023년 현재 14개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전문예술인들을 위한 창작공간이자 시민과 소통하고 교류하며 예술 생태계의 동시대적 화두를 공유하는 거점 공간으로 자리하고 있다.

창작공간 조성 배경과 흐름

2023년 현재, 서울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 예정인 창작공간(문화예술공간 포함)은 총 20개소에 이른다. 물론 여기에는 2024년 개관 예정인 공간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2008년 '서울시 창작공간조성사업'으로 출발한 재단의 창작공간들이 지난 15년간 급격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에 이견이 없을 만큼 예술지원 체계의 중요 거점 공간으로 확장하고 있다.

본 원고에서는 서울문화재단 창작공간이지만, 타 사업으로 소개된 공간을 제외한 8개의 창작공간을 중심으로 기술함(서교예술실험센터, 금천예술공장, 신당창작아케이드, 연희문화창작촌, 문래예술공장,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 서울무용센터, 청년예술청)

서울문화재단 창작공간 현황(2023.12 기준)

장르특화(9개)	금천예술공장, 문래예술공장, 서교예술실험센터,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서울무용센터, 서울연극센터, 신당창작아케이드, 연희문화창작촌, 서울연극창작센터(예정)
예술교육(5개)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양천,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용산,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서초, 강북, 은평(이상 예정)
복합문화공간(2개)	청년예술청, 노들섬복합문화공간
기타 특성화(3개)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 서울예술인지원센터, 무대기자재공유센터
공연장(1개)	대학로극장 쿼드(QUAD)

창작공간에 대한 개념이 대두되었던 배경에는 1999년 제정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으로부터 출발한다. 2000년대 초반, 미술 장르에서 민간협회를 중심으로 공간조성을 시작, 이후 국공립미술관을 중심으로 국공립 창작스튜디오가 조성됐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역별 산업 유휴시설을 활용한 문화기반시설 조성사업을 진행하면서 창작공간에 관심이 높아지는 계기가 됐다. 2008년 '문화예술을 통한 도시 경쟁력 강화'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서울시의 문화예술정책 방향으로 '컬쳐노믹스'가 제시되면서, 공공기관의 산업·행정 유휴공간을 비롯해 활용도가 떨어지는 민간 문화시설까지 아우른 종합적인 서울시 창작공간 조성사업이 시작된다.

서울문화재단이 구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기 시작한 것은 2008년 9월, '창작공간 조성 TFT'를 운영하면서부터다. 3명의 직원을 신규 채용하고 이전부터 유사한 업무로 운영되던 '청계창작스튜디오', '서울연극센터', '대학로연습실' 공간운영팀장이 TFT팀장을 겸직했다. 이후 이선철, 김윤환, 조재원 등 3명의 전문가를 '창작공간추진단으로 위촉', 2009년 1월 『유휴시설을 활용한 서울시 예술창작공간 조성 전략보고서』를 발간, 서울시 창작공간 조성사업의 주요 전략과 비전을 제시하면서 창작공간 조성이 구체화 되었다.

『유휴시설을 활용한 서울시 예술창작공간 조성 전략보고서』 서울문화재단

서울시 예술창작공간조성 사업 비전

- 컬쳐노믹스 전략 구현을 통한 창의문화도시 실현
- 도심 유휴시설을 기반으로 한 예술적 창의 공간조성을 통해 지역과 도시 시민이 발전하는 새로운 모델 제시
- 예술가 및 단체의 혁신적이고 실험적인 창작활동의 기반을 만드는 창의적 예술 활동의 플랫폼 구축
- 단순한 창작공간이 아닌 예술가 지역주민과의 연계성을 통해 지역의 사회적, 문화적 예술 생태계 구성
- 예술가와 지역민의 자발적 운영을 통한 문화공간 구축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
- 지역 및 서울을 브랜딩하는 사업으로써 세계적인 경쟁력 창출에 기여

유휴공간, 청사, 공장 이적지, 상권이 쇠락한 지하상가 등 도시구조 변화로 인해 낙후된 지역에 창작공간을 조성하여 국내외 예술인의 창작 및 교류 공간으로, 예술성이 접목된 독창적이고 실험적인 문화명소를 만들어 도시재생 및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의 거점으로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서울시 창작공간 조성사업은 2009년 4개소를 시작으로 지난 15년간 공간과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방식으로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왔다.

8개 창작공간 개요

창작공간	개관일	이전 시설	운영방향
서교예술실험센터	2009.06.19.	서교동사무소	공동운영단을 중심으로 홍대 지역의 특화된 문화예술 생태계 활성화
금천예술공장	2009.10.07.	대규모 인쇄공장	예술가의 창의력과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의 기술력이 만나는 예술+산업 특화 국제 레지던시 스튜디오
신당창작아케이드	2009.10.16.	서울중앙시장 지하상가	공예디자인 작가의 연구, 실험 및 창제작지원 창작공간
연희문학창작촌	2009.11.05.	시사편찬위원회	서울시 유일의 문학 창작촌, 문인 집필실 지원 및 문학 활성화 사업
문래예술공장	2010.01.28.	철공소	자생적 예술마을인 문래창작촌을 중심으로 한 다원예술 창작플랫폼
서울장애예술 창작센터	2007.10.05. 개관 (2011년부터 재단 운영)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2022년 대학로 이전)	창작역량을 갖춘 장애예술인의 예술활동 지원
서울무용센터	2016.04.08. (2011.05.11. 홍은예술창작센터 개관)	서부도로 교통사업소	무용 분야 창작 및 단계별 인큐베이팅 지원
청년예술청	2020.08.21.	신축	청년 예술가들의 동반성장을 지향하는 다양한 방식의 창작실험 플랫폼

장르별 특성화에서 지역의 거점공간으로

2009년부터 조성된 각각의 특성에 따른 사업을 운영하며 성장하고 있던 창작공간들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 만큼 독립적이고 특성화된 강점을 가지고 지역에 스며들었고, 그러한 과정에서 최초 기대했던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기도 했다. 예술지원과 지역생태계 활성화 측면에서 창작공간의 중요성이 더해지던 2014년에는 예술지원체계가 변화하면서 장르별 특성화 공간으로 집중되기도 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재단에서 창작공간을 중심으로 한 장르별 특화지원 방식으로 예술지원사업이 변경, 창작공간의 특수성, 전문성, 현장성을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재단과 예술가의 파트너십이 강화되는 성과를 가져온 것도 주목할 만한 변화 중 하나다. 이후 지원사업이 다시 통합되면서 지역의 예술 생태계를 활성화시키는 거점 공간이자, 동시대의 예술지형과 흐름을 선도하는 공간별 특성화에 집중하고 있다. 다만, 창작공간이 지금껏 기능해왔던 다양한 역할과 성과 이면에는 또 다른 측면의 공간 운영에 대한 고민이 남아있다. 지역과의 연계, 지역거점 공간으로서의 확장, 지속성을 기반으로 한 체계적 시스템 등이 그렇다. 2021년 서울문화재단이 진행한 『서울문화재단 예술공간 운영 재구조화 전략방향 연구』 역시 이러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임을 시사하고 있다. 해당 보고서에서 '예술공간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 다각적인 측면을 고려한 운영공간 재구조화 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창작공간의 발전방향을 제시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서울문화재단이 설립 20년을 맞이한 지금, 지난 15년간 다양한 방식으로 예술가들의 창작공간으로, 시민들의 문화향유 현장으로, 지역의 문화예술 생태계를 확장하는 역할을 해왔던 만큼, 그간의 성과와 흔적들을 더 확장시킬 수 있는 다양한 연구와 시도가 필요한 때다.

	창작공간	주요시사점●●●
	서교예술실험센터	홍대 지역 기반의 예술현장 주체들과 긴밀한 소통을 위한 민관거버넌스 방식인 공동운영단 제도를 처음 도입해 문화예술 생태계 전반에 의미있는 시사를 제공해 왔으며 다양한 사업 방식을 통해 증명해 온 예술의 가치, 다방면의 네트워크 등 예술공간에 축적된 예술적 경험은 예술 현장 및 지역 주체들과 새로운 운영체계 방식을 모색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서 의미를 지님
	금천예술공장	금천문화재단 출범 이후 지역 주체 중심으로 지역과 연계한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2023년에는 서울시립미술관 분관인 서서울미술관이 개관할 예정으로 금천지역 내 예술생태계 기반이 형성되고 있는 시점임. 이러한 지역 환경 변화를 고려해 시각예술 전문 레지던스로서 역할, 지역주체와의 연계 방안 모색 등 공간 운영과 관련해 새로운 운영방향을 검토할 수 있음
	신당창작아케이드	신당창작아케이드는 공예·디자인 창작공간으로, 동대문과 을지로 등 주변 창작권을 중심으로 한 입지적 인프라 네트워크환경을 갖추고 있으나, 1970년 건축된 시설 노후화 등 안정성이 취약하여 쾌적한 창작지원을 위한 공간이전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연희문학창작촌	레지던시로 제공되는 집필실의 입지 조건은 적합한 편이나 노후된 시설로 인해 안전과 편의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문학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요구되는 시점임
	문래예술공장	2013년 출범한 영등포문화재단은 영등포, 구로, 문래 지역을 기반으로 예술 현장 주체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도시재생사업, 예비문화도시 사업 등 다양한 정책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음. 영등포재단을 비롯해 지역 문화예술 관련 기관/단체들과의 협의 과정을 지속하며 문래예술공장의 정체성과 역할을 모색해나가야 함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	모든 예술 활동인을 위한 표용적 관점에서 장애, 비장애의 구분 없는 창작환경 마련을 지향하고 있는바, 다양한 활동 범위 예술인들이 교류하고 협업할 수 있는 공간 차원에서의 개선을 고려할 수 있음
	서울무용센터	특히 무용장르의 경우 교육제도권의 특성상 다른 장르와의 교류나 협업이 어려운 편이라 시각예술, 영상 등 다양한 장르와의 교류 및 협업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단은 무용 장르 생태계 내에서 명확한 포지셔닝을 지니고 있음. 국내 무용단체/협회, 무용 관련 기관 등과의 적극적인 연계를 통해 무용 예술 주체들의 시각과 관점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청년예술청	청년예술인 당사자가 직접 논의하고 기획함으로써 창작 과정 중심의 다양한 지원 유형이 개발되고 있음. 예술공간 운영 외에 재단의 타 사업에 적용해 볼 수 있는 모델 실험의 유의미성, 공공과 현장을 매개하는 중간 지원조직인 재단 역할과의 연계성 속에서 문화예술인 협치 기반 공간으로 성장시킬 필요가 있음

●●●
『서울문화재단 예술공간 운영 재구조화 전략방향 연구』 2021.7 ㈜메타컨설팅

4.2.1.

창작공간

- 서교예술실험센터
- 금천예술공장
- 신당창작아케이드
- 연희문학창작촌
- 문래예술공장
-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
- 서울무용센터
- 청년예술청

서교예술실험센터

위치
서울시 마포구 잔다리로 6길 33

개관일
2009년 6월 19일

시설현황
지하 1층-지상 2층
다목적실, 전시장, 아트인포,
예술다방, 세미나실

서교예술실험센터는 서교동사무소를 리모델링하여 2009년 6월, 서울시 창작공간 중 가장 먼저 개관했다. 서교동이라는 지리적 특성을 반영하여, 홍대를 중심으로 파생되는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며 함께 성장했다. 특히 2013년부터는 예술인으로 구성된 문화예술 민관 거버넌스 '공동운영단'을 중심으로 홍대 앞 문화예술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활동을 이어왔다. 예술 현장에서 필요로 하지만 아직은 만들어 내지 못한 새로운 지원방법론에 대해 고민하여 예술가와 함께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하고 지원했다.

서교예술실험센터 공동운영단

1기	김동희, 김혜연, 이성재, 이정화, 정문식, 초원
2기	김솔지, 김혜연, 박준영, 양윤희, 이성재, 정문식
3기	류승완, 박선옥, 양윤희, 이종민, 현소영, 호야
4기	강정아, 박형원, 봄로야, 류승완, 이종민, 임나래
5기	강정아, 강지윤, 봄로야, 안부, 임나래, 조말
6기	강지윤, 김민관, 불나방, 성진영, 안부, 조말
7기	김맑음, 김미현, 김민관, 노정화, 불나방, 성진영
8기	김나현, 김맑음, 윤찬묵, 이강호, 황유택
9기	김나현, 윤태균, 이강호, 이려진, 채종혁, 황유택
10기	김민수(엠케이), 박하늘, 박휘민(진저팝), 신민준, 윤태균, 정보경(자림)
11기	김민수(엠케이), 박하늘, 박휘민(진저팝), 신민준, 정보경(자림), 조규혜

서교예술실험센터의 가장 특징은 2012년부터 고민된 공동 운영 시스템이다. 서울시와 재단의 민관 거버넌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던 시기, 자생적인 문화예술 생태계가 공존하고 있던 홍대 지역에 위치한 센터는 2013년 **공동운영단**이라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후 홍대 앞 예술 생태계에 대한 변화를 꾀하며, 현장에 적합한 새로운 소액 지원방식(소액多컴) 사업을 시도한 것은 물론, 홍대 앞 문화자원 맵핑, 네트워크 사업 등을 운영하며 창작공간으로서의 입지를 다져갔다.

2015년 장르별 특성화를 위한 창작공간의 역할이 집중되던 시기부터 '예술작품지원', '유망예술지원', '청년예술지원' 등의 사업을 운영하며 시각예술 지원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했다.

2019년부터는 홍대라는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하여 홍대 앞 인디음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서울라이브** 사업을 운영하며 지역거점 공간으로서 역할을 강화했다. 2022년에는 공동운영단이 최초로 설계했던 지원사업 **소액多컴**을 과정중심의 지원사업 **링크**로 개편하였고, 홍대 지역에 특화된 인디음악 중심의 **서울스테이지11**을 운영하는 등 예술인과 공공기관의 상호 협력을 통한 실험적 공간의 대표적인 사례로 주목받았다.

지난 2009년부터 15년간 운영해 온 서교예술실험센터는 2023년 12월 31일 공간 계약만료로 운영이 종료되었으나, 그간 예술인들과 함께 예술 현장에 적합한 사업을 개발, 독창적이고 참신한 지원 방식을 제시해 온 창작공간으로서 다양한 이슈와 담론을 생산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주요 사업 및 내용

소액多컴	홍대 지역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소소하지만 창의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한 소액 지원 사업
링크(LINK)	예술가 간 네트워크 협업을 통해 신진예술가의 창작역량을 강화하기 추진된 사업
서교레코즈	신진 인디뮤지션과 그들의 음악을 대중들에게 소개한 프로젝트
같이, 가치	홍대 앞에서 자생적으로 활동 중인 다양한 복합문화공간들과의 교류를 꾀하는 홍대 앞 공간 교류 사업
서울라이브	뮤지션을 비롯한 인디음악 생태계 구성원들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생태계 활성화 사업

주요 연혁 및 사업 변화

연도	주요 내용
2013	민관거버넌스를 위한 새로운 운영모델로 공동운영단 출범
	유망예술지원_시각분야 99℃ 시작
	'작은예술지원 소액多컴' 시작
2014	민-관 거버넌스를 위한 홍대앞 커뮤니티(통합 협의체) 조성
	홍대앞 예술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미래구상 연구사업 추진
	홍대앞 예술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홍대앞 문화연구포럼〉 개최
2015	홍대 인포메이션 공간 설치: 아트인포 조성 운영
	정기공모 지원사업 장르별 특화하여 창작공간으로 이관운영: 시각분야
2016	서교예술실험센터 고유사업화
	최초예술지원 신설: 시각분야
	중견작가 작품집 발간지원 이관운영: 시각분야
2018	서울시-마포구 간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2018.1.1.-2020.12.31.)
	서울청년예술단 지원 이관운영: 시각분야
2019	시각예술분야 지원사업 예술지원팀으로 재 이관
	상주형 청년예술단 사업 신설
	인디음악분야 거버넌스 서울라이브 추진단 출범
	홍대 인디음악 생태계활성화 사업 추진
2020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서교멤버스 및 공동운영단 중심 공간대응TF 구성, 「서교예술실험센터 운영모델 개발 연구」 실행
2021	홍대 인디음악 생태계활성화 사업 서교예술실험센터 사업으로 편입
	소액多컴 ⇒ 서교예술실험센터 공간 중심의 과정중심 지원 '링크' 개편 운영
	서울시-마포구 간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2021.1.1.-2023.12.31.)
2022	서울스테이지11 운영
	서울라이브 추진단→서울라이브 자문단으로 역할 및 기능 변경 운영
2023	서교예술실험센터 무상 사용기간 만료 및 공간 운영 종료

금천예술공장

위치
서울시 금천구 범안로15길 57

개관일
2009년 10월 7일

시설현황
지하 1층- 지상 3층,
창고동(대형 작업공간)
스튜디오 19실, 호스텔 5실,
전시장, 미디어랩,
워크숍룸, 공유주방, 남녀샤워장,
세탁실 외

금천예술공장은 2009년 인쇄공장을 리모델링한 시각예술 전문 국제 레지던시다. 국내외 예술가에게 24시간 사용 가능한 창작스튜디오를 제공하며, 오픈스튜디오, 다빈치 크리에이티브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 예술가, 지역과의 접점을 만들어 왔다. 시각예술 전문 창작공간으로 입주작가 정기공모를 통해 국내외 유수 작가들을 선발하여 안정적인 창작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오픈스튜디오를 개최해 예술가의 창·제작 역량 강화와 활동 기반을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10년 '첨단산업도시'라는 지역 정체성과 상징성을 지닌 다빈치 아이디어 공모 사업을 시작했고, 2014년부터 공모 사업을 다빈치 아이디어 페스티벌로 확장하여, 예술+산업+기술 기반 융복합 예술 작품을 선보이는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2014년 시범사업 이후 코로나19 이전까지 시민들의 상상력을 촉진하는 시민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던 서울 상상발전소 프로젝트 역시 지역을 고찰하고 커뮤니티와 공존을 고민했던 금천예술공장의 정체성을 엿볼 수 있는 주요 사업 중 하나로 꼽을 수 있다.

2020년 융합예술 사업 이관 이후, 금천예술공장은 오픈스튜디오, 기획전시, 비평 지원, 제휴사업 등으로 사업 운영을 재편하면서, 입주작가● 창작역량 지원 프로그램 강화와 예술인 활동 기반 확장을 위한 국내외 교류 기회 확대 등 레지던시 중심의 고유 운영 목적에 더욱 집중하고 있다.

● 1기부터 14기까지
총 266명 입주작가 활동

주요 프로그램	사업내용
국내 입주 작가 정기공모	매년 1회 국내 작가를 대상으로 입주 작가 정기공모를 진행. 선발된 국내 시각예술분야 예술가들에게는 24시간 사용 가능한 창작 스튜디오를 제공하고, 1:1 전문가지원 프로그램, 기술워크숍, 기획전시 등 창작역량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창작공간 지원	창작을 위한 개인 스튜디오 및 공동작업실(대형작업실, 목공실)과 창작 실험과 전시 발표 기회 제공을 위한 전시공간 무상 사용 지원
입주 작가 지원	입주작가간 협업과 예술적인 실험을 지원하는 〈실험프로젝트〉, 문화예술계 전문가의 1:1 자문과 비평문 제작을 지원하여 예술가의 작업역량을 강화하고 문화예술계 교류 확장을 돕는 〈1:1 전문가지원 프로그램〉, 작품 창작 기술 습득을 위한 〈기술워크숍〉, 입주작가 활동 대내외 홍보 등
오픈스튜디오	연 1회 공간의 모든 스튜디오를 개방해 입주 작가들의 작품과 작업공간을 접할 수 있는 프로젝트. 오픈스튜디오 기간 동안 개인 스튜디오 오픈, 전시, 퍼포먼스, 영상 스크리닝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예술가, 미술관계자, 시민이 함께하는 행사로 운영

주요 연혁 및 사업 변화

연도	주요 내용
2010	〈다빈치 아이디어 공모〉, 〈커뮤니티아트 프로젝트〉 운영
2011	입주작가 정기공모 국제성 강화: 해외입주작가 비율 확대
	국제성 강화된 오픈스튜디오 개최
	해외 예술가 교환프로그램
	입주작가-지역 산업체 및 주민 연계 프로젝트 진행
2012	해외 크리틱 지원 프로그램 운영
	〈예술재능나누기〉(예술가의 방, 아티스트 인 스쿨, 예술가와 1박2일) 운영
2014	아랍 에미레이트 마라야 아트센터-금천예술공장 국제교류·협력체결
	다빈치 아이디어 페스티벌, 상상력발전소 프로젝트 시범사업 운영
2015	서울 상상력발전소 프로젝트: 다시 만나는 세운상가
	2-3기 입주작가, 임홍순 '2015 베니스비엔날레 은사자 수상'
2016	입주작가 및 비평가 간 상시 1:1 전문가지원 매칭 프로그램 운영
	다빈치 아이디어 마켓(다빈치 크리에이티브) 개최
	예술가 전문 교육프로그램 〈예스(예술공장 스터디)〉 운영
2017	해외 교류 기관으로 '스페인 앙가아트센터' 협업
	해외 파견 국내 작가 체재비 증액, 해외 체류 중 창작 환경 개선
2018	다빈치 아이디어 공모 선정작가 대상: 〈다빈치랩〉 강연 개최
2019	〈다빈치 크리에이티브〉 개최
	〈금천예술공장 오픈 스튜디오&기획전〉 개최
2020	입주작가 공모 국내 작가로 운영
2021	기획전시 별도 운영으로 입주작가 및 작품 교류 플랫폼 기능 확장
2022	대내외 교류 프로그램 운영 - 입주작가 창작활동 확장을 위한 국내외 기관 및 전문가 교류
	창작공간 가을 시즌제 - 오픈 스튜디오 개최

2017 다빈치 크리에이티브

2019 오픈스튜디오&기획전

신당창작아케이드

위치
서울시 중구 마장로 87
(서울중앙시장 지하)

개관일
2009년 10월 16일

시설현황
창작공방 35개실, 공동작업장,
사진실, 아트마켓, 교육실,
작가 휴게실, 커뮤니티실,
공유 오피스 등

지원장비
전기가마, 공업용 미싱, 목공용
장비 등

2009년 개관 당시 서울시 도시재생 기조에 따라 유휴공간을 활용한 예술가 지원 공간으로 조성된 이후, 도심 속 공예 공방촌 이미지 구축을 위해 시민대상 프로그램 등의 사업을 운영했다. 공공미술을 통한 환경개선, 시민공예체험 사업에 주력한 효과로 어린이, 성인, 가족단위의 시민들이 입주작가가 진행하는 공방 프로그램에 연간 7천여 명 넘게 참여하는 등 창작공간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

2013년부터는 예술가와 지역 상인들이 자생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사업의 방향을 재설계하여, 실험적 사업시스템을 구축 및 외부 네트워크 확장에 주력하며 거버넌스를 강화했다.

입주작가 생산자협동조합 발기인 총회를 시작으로 대안적 방식의 예술가 창작지원 시스템을 도입, 협동조합과 연계한 다양한 기업(기관)과의 외부 협력사업을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다. 특히 2012년 시작한 지역활성화사업인 **황학동별곡** 사업의 성공은 신당창작아케이드가 도시재생 우수사례로 꼽히게 된 전환점이 되었다.

2016년부터는 예술가 창작지원 체계마련에 집중하여, 노후화된 시설의 리모델링을 시작으로 공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체계 마련 및 공간을 벗어난 대외사업(기획전시, 제휴사업 등), 상품유통(아트페어, 에스스토어)을 위한 매개사업 진행을 통해 창작공간으로서의 역할 확장에 기여했다. 2019년 개관 10주년 기획전시를 시작으로 신당창작아케이드 입주작가 기획전시를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등 입주작가●의 창작지원 강화를 위한 사업과 공간운영을 하고 있다.

●
2015-2023
총 324명 입주작가 활동

주요 프로그램	사업내용
입주작가 창작지원	입주작가 역량강화 프로그램, 작가 간 공동 협력 프로그램, 지역연계 프로그램, 국내외 기관 연계를 통한 기획전시 개최 등 적극적인 대외활동을 통해 입주작가 프로모션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신당아트랩	작품 제작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실무형 창작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공예장르 작가 역량 강화와 자생력 증대를 위한 프로그램
신당 파트너 프로젝트	작가 간 공동협력 프로그램, 지역 연계 프로그램 등을 통해 문화상품 개발,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입주작가 지원 프로그램
기획전시	도자, 금속, 디자인, 섬유, 가구, 유리와 설치미술 등 공예 전 장르를 아우르며, 매년 하나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외부 공간에서 개최되는 전·현직 입주작가 기획전시

2013 황학동별곡

홍콩 PMQ 교류 팝업 스토어

주요 연혁 및 사업 변화

연도	주요 내용
2009	신당창작아케이드 개관
	지역 환경개선을 위한 공공미술 프로젝트 추진
2010	시장골목 살리기 등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유지
	시민체험공방 프로그램 집중('나도 예술가')
2011	입주작가 창작역량 발표를 위한 외부사업 개시(기획전시, 아트페어 참가)
	시민체험공방 프로그램 활성화
2012	지역축제 〈황학동별곡〉 시작, 시민체험공방 프로그램 지속
2013	입주작가 생산자협동조합 온라인 플랫폼 구축
	공공미술 프로젝트 〈황학동별곡_100인 이야기〉 개최
2014	입주작가 협동조합을 통한 외부 기관(기업)과의 협력사업 추진 : 한성자동차, 넵스, 이생문화재단 등
	지역축제 황학동별곡 개최
	입주작가 판로 개척을 위한 아트페어 참가 시작
2015	기업 연계 공공미술 프로젝트 추진(도시게릴라 프로젝트 in 구로)
	입주작가 기획전시, 아트페어 참가 집중(공예트렌드페어 등)
	지하상가 환경개선 프로젝트 황학동별곡 운영
2016	중구청 시장현대화사업 및 외부 환경변화로 인한 지역축제 사업 축소 ⇒ 오픈 스튜디오 전환
	공예분야 장르 거점화(입주작가 창작지원)에 집중, 역량강화 사업 추진
	홍콩 PMQ 교류 팝업 스토어 추진
2017	청년예술인 창작지원사업 개시
2018	입주작가 역량강화 사업 확대(신당아트랩 개시)
2019	개관 10주년 기획전시 개최(송원아트센터)
	기업 제휴 신세계L&B 협력사업 시작
	신당 파트너 프로젝트(SPP) 시작
2020	11기 입주작가 기획전시 개최(인사동 코트)
2021	12기 입주작가 기획전시 개최(인사동 코트)
2022	13기 입주작가 기획전시 개최(코사이어티 서울숲)
	입주작가 특성 및 시장여건 변화로 인한 온라인 홍보에 주력
2023	시민 참여 오픈 프로그램 개최
	14기 입주작가 기획전시 개최(송원아트센터)

연희문학창작촌

위치
서울시 서대문구 증가로2길 6-7

개관일
2009년 11월 5일

시설현황
지상 1층, 일반주택(4개동, 19실)

연희문학창작촌은 2009년 옛 시사편찬위원회를 리모델링한 서울시 최초의 문학 전문 창작공간이다. '끌림', '홀림', '울림', '들림' 4개 동 총 19개의 집필실과 야외무대, 문학미디어랩 등의 커뮤니티 공간을 운영하고 있다. 작가●에게는 작품 세계관을 확장할 수 있는 창작 환경을 제공하며, 시민에게는 문학을 가까이 접할 수 있는 다양한 문학 기획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문학 창작과 향유, 교류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

안정적인 문학 창작환경 및 교류 플랫폼 조성을 위해 개관한 연희문학창작촌은 시, 소설, 아동문학, 희곡, 수필, 번역, 평론 등 다양한 문학 장르의 문학 작가들의 집필 공간으로 조성되었다. 재단 고유사업으로 전환된 2013년부터 문학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거점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예술가의 예술생태계 자립을 통한 창작과 향유의 선순환 구조를 주요 방향으로 삼고 있다. 2017년부터는 시민들의 문화향유 확대를 위해 **국제작가축제**, **문학캠페인**, **서울스테이지11-**북콘서트와 시민 사업을 통해 문학 분야 저변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2017년 문학 장르 최초, 모바일 전용 웹진 [비유]를 창간●●, 미등단 청년 작가의 작품을 대거 수용하며 문학계 새로운 흐름을 선도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2023년부터는 신춘문예나 문학 전문 매체를 통해 등단을 거치지 않은 청년 예비 작가들에게도 단기 입주작가 공모에 지원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자격을 확대하는 등 문학 생태계 활성화의 거점 공간으로 자리하고 있다.

● 2014-2023 총 846명(국내 744명, 해외 104명) 입주작가 활동

●● 이미상 작가는 2017년 최초예술지원 문학 분야에 소설 〈하긴〉이 선정, 2018년 웹진 [비유]에 이를 발표하며 데뷔했다. 이후 2019년 젊은작가상 수상, 2022년 문지문학상, 〈이중 작가 초롱〉으로 2023년 젊은작가상 대상 등을 수상하며 한국문학을 대표하는 젊은 작가로 발돋움했다.

웹진 [비유] 추진 실적

	구독자 수	페이지뷰	
2018	722	56,811	창간
2019	1,015	54,957	
2020	1,440	73,870	
2021	9,797	73,889	
2022	2,430	72,584	
2023	2,912	95,688	

주요사업 및 내용(2023 기준)

문학작가 레지던스(집필실) 운영	총 4개 동 19개의 집필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공모를 통하여 입주작가 선정 지원
웹진 [비유]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과 웹으로 문학을 즐길 수 있는 '내 손 안의 문학잡지'를 콘셉트로 2017년 12월에 창간한 문학 전문지. 시, 소설, 아동문학, 평론 등 다양한 신작과 문학 분야의 담론을 공유하고 생산하는 플랫폼으로 운영
서울아트스페이스랩_연희	문학 예술가의 창작활동을 확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리뷰, 워크숍, 낭독회 등 지원
시민 문화향유 프로그램	문학 분야의 특성을 활용한 북콘서트, 문학 교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시민과 문학의 접점을 늘리고 문학 인구 저변을 확대하는 교류 프로그램

더 보기

웹진 [비유]

주요 연혁 및 사업 변화

연도	주요내용
2009	연희문학창작촌 개관
2011	한-호주 수교 50주년 기념 문학교류: 〈도시문학콘서트〉, 〈교류 세미나〉
	신진 작가 인큐베이팅을 위한 〈젊은작가주간〉
	문학낭독회 〈연희목요낭독극장〉 운영
2012	문학프로젝트 도입: 창작역량강화
	지역연계 교육프로그램 〈미래문학IN〉
2014	연희문학창작촌 고유의 지면 매체 [연희] 신규 발간: 신작 26편 수록
2015	지역 협력을 통한 시민사업 공동운영: 서대문구 독서모임 우듬지 MOU 체결
2016	지역 연계 확대를 위한 '연희극장' 운영
	아시아문학창작워크숍 개최: 아시아 9개국 참여
	첫 책 발간 지원사업 신설(12명 지원)
	〈연희의 식탁〉, 〈책다방 연희〉 등 입주작가 및 시민 교류 프로그램 운영
2017	문학 웹진 [비유] 창간, 51명의 작가 참여
	아시아문학창작워크숍 개최: 아시아 5개국, 472명 참여
	〈연희극장〉 총 14개 팀, 예술가/지역민 등 449명 참여
	문학청년 활동지원 신설, 경력단계별 지원체계 확립
2018	경력단계별 지원사업, 서울청년예술단 신규사업 운영
2019	서울국제작가축제 공동 기획 운영(한국문학번역원, 서울디자인재단)
	상주청년예술프로젝트 운영
2020	서울국제작가 축제: 총 60명의 문학작가 참여한 신규 콘텐츠 '2020' 문학캠페인 추진
2021	웹진 [비유] '묻다' 확장형 프로그램 운영, '하다' 프로젝트 운영단체 선정 및 운영
2022	〈서울스테이지11〉, 기관협력 대담 프로그램 신규 운영
2023	웹진 [비유] 개편

[비유] 메인 이미지

2021 웹진 [비유] 장르문학 특집좌담 '넷★릭스와 장르문학'

문래예술공장

위치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88길 5-4

개관일
2010년 1월 28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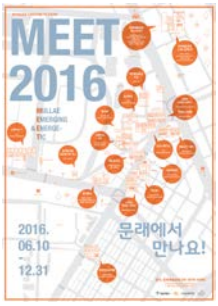
시설현황
지하 1층 - 지상 4층
갤러리M30, 박스씨어터, 포켓갤러리, 녹음실, 영상편집실, 세미나실, 회의실

문래예술공장은 2010년에 조성된 창작공간으로, 장르의 경계를 넘어 자유로운 동시대 실험예술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음악, 사운드아트 등 다양한 분야의 국내외 창작자 및 기획자, 비평가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다원예술 창작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작품 제작과 발표를 할 수 있는 블랙박스 극장, 전시장 등 다목적 공간을 활용하여 예술인의 창작활동, 역량 강화, 발표지원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

다원예술 창작플랫폼으로서 장르의 경계를 넘어 사운드아트, 공연, 전시 등 새로운 예술형식 실험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자생적으로 조성된 문래창작촌을 중심으로 한 지역 예술생태계, 다원예술 장르 활성화라는 두 가지 방향을 운영의 목표로 삼았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예술가(단체), 기획자 등 지역예술 생태계 구성원의 창작 역량을 개발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MEET**(Mullae! Emerging & EnergeTic)(2010-2017년) 사업을 시작으로, 2018년부터 GS홈쇼핑의 후원을 받으며 확장된 **Mullae Effect**(2018-2021년)를 중심으로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해 왔다. 또한 다원예술, 전통 기반 창작예술, 음악·사운드 분야의 신작 창작 프로젝트 지원을 통해 예술가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잠재력 있는 예술가의 성장을 도모했던 장르 특화 프로젝트 **MAP**(Mullae Arts Plus)을 유망예술지원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등 실험적이고 창의적인 예술활동의 거점으로 자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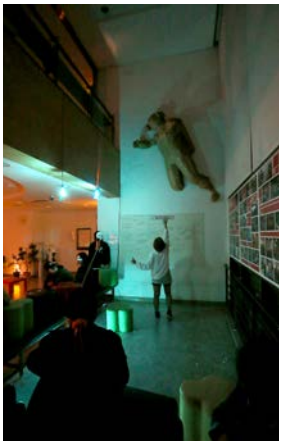
2020년부터 음악·사운드아트 특화사업 **사운즈 온**(Sounds On)을 통해 해당 분야의 예술인, 단체의 프로젝트 리서치, 창작, 쇼케이스 발표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1년 MAP을 **비넥스트**(BENXT)로 새롭게 브랜딩 하고, 비넥스트 페스티벌을 개최하는 등 예술의 다양한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 문래예술공장의 특화사업으로 **문래공진**(Mullae Resonance)과 사운드아트분야 예술인(단체)의 성장 및 환경 조성을 위해 **국제사운드아트 창작워크숍**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원예술 분야의 창작 거점 공간으로 운영해오던 중 2022년부터 융합예술팀으로 통합되어 융합예술 특화 공간으로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 가고 있다.



주요사업	사업내용
음악·사운드아트 특화사업 Sounds On	실험적 음악과 사운드아트 분야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창작자, 기획자, 연구자 및 비평가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창작 준비 과정부터, 네트워킹, 발표 기회까지 선정된 다양한 활동 주체들을 연속적으로 지원

주요 연혁 및 사업 변화

연도	주요내용
2010	문래예술공장 예술가지원 프로젝트 MAP(Mullae Arts Plus) 운영
	문래창작촌 개관 지원사업 MEET(Mullae Emerging & EnergeTic) 운영
2011	국제사운드아트창작워크숍 문래공진(Mullae Resonance) 운영
	문래예술공장-싱가포르 The Substation 공동창작 MOU 체결 및 워크숍 운영
2012	MAP(Mullae Arts Plus) 사업: 유망예술지원과 연계-운영
	청소년 예술창작 워크숍 〈나도 영화감독이다!〉, 〈무대에서 놀자!〉 진행
2014	한-호주 국제교류 프로젝트 〈대홍수 Deluge〉 공연 진행
2015	문래창작촌 커뮤니티 및 프로모션 사업 기획·운영
	문래창작촌 환경개선 프로젝트 공모 및 추진
	예술가 국제교류 프로젝트 추진(한-호주 예술가 2차 공동창작워크숍 진행)
2016	지역 연구 및 공공환경사업 및 지역소통을 위한 공공환경 프로젝트 운영
	국제사운드아트 창작워크숍 개최
2017	지역연구사업 〈문래포럼〉 운영
	예술지원사업 운영을 통한 예술생태계 활성화(음악, 전통, 다원예술 분야)
	청년예술인창작지원사업: 최초예술지원 운영
2018	문래창작촌 지원사업 MEET: GS홈쇼핑 후원 유치
2019	'문래마을예술인회의-지역문화재단-문래예술공장' 거버넌스 추진
	문래창작촌 지도 제작을 통한 지역 정보 제공
2020	음악·사운드아트분야 특화사업 추진: 사운즈 온(Sounds on)
2021	GS홈쇼핑 후원 종료, MEET 최종성과공유 전시 〈그리고 라이브〉 개최
	MAP 사업을 전환, 비넥스트(BENXT)로 운영
2022	문래예술공장 상주형 공연단체 기획 사업 〈문라이트〉 시범운영
	비넥스트(BENXT) 페스티벌 개최
	융합예술팀으로 통합



2016 문래예술공장 MEET

2011 문래예술공장 MAP 선정작 발표 잠비나이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

위치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12길 31 자유빌딩 2층

개관일
2007년 10월 5일

시설현황
지상 1층, 개별 작업공간 6실, 워크숍룸, 휴게실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옛 잠실창작스튜디오)는 장애예술 지원 플랫폼이다. 2007년 개관한 이후 지난 16년간 300여 명의 장애예술인을 지원하며, 장애예술 분야의 상징적인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07년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서울시장애인미술창작스튜디오로 시작했다. 이후 2011년 서울문화재단이 운영하며 잠실창작스튜디오로 이름을 바꾸고 장애예술인을 위한 창작공간으로 성장해 왔다. 종합운동장 리모델링 공사에 따라 2022년 대학로로 공간을 이전하고,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로 명칭을 변경, '신대학로시대'에 맞춰 연결과 협력을 꾀하는 장애예술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입주작가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전시를 지원하는 **입주작가 창작지원사업**과 전 장르 장애예술인의 창작 및 발표를 지원하는 **장애예술인 창작활성화 지원사업**, 장애·비장애 예술인의 교류를 통한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공동창작워크숍**이 있다. 또한 장애아동을 위한 예술교육 프로그램 〈프로젝트A〉(2013-2020)를 비롯 장애·비장애인의 공존을 위한 담론 형성 프로젝트 〈같이 잇는 가치〉(2019-2021)를 운영한 바 있다. 더불어 다양한 기업의 후원 및 협업을 유치하며 더 많은 장애예술인들의 예술창작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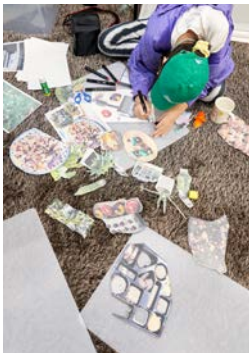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 출연으로 화제를 모은 정은혜 작가, 대통령 집무실에 걸린 그림으로 유명한 독창적 표현의 김현우 작가 등 그간 입주작가로 활동했던 80여명의 작가들은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에 선정되거나 대한민국 미술대전에서 수상하며 예술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정은혜, 니얼굴 은혜씨

2015 프로젝트A 성과전시

2023 장애예술기획전

주요 프로그램	사업내용
입주작가 창작지원사업	매년 정기공모를 통해 12명(대학로 이전 후 6명)의 장애예술인을 선정하여 자신만의 공간에서 창작할 수 있는 작업실 제공, 전문가 매칭 역량강화 교육, 기획전시 등을 통해 입주작가의 예술적 성장 지원
장애·비장애 예술인 공동창작워크숍	서울문화재단 창작공간의 전·현 입주 예술가 간 실험적 공동창작 프로그램으로 문화다양성을 확산하는 장애·비장애 예술인 협업 과정 중심의 공동창작 프로젝트
장애예술인 창작활성화지원사업	장애예술인의 우수 창작발표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창작환경 마련 및 서울 예술생태계의 다양성 증진



프로젝트A

더 보기

잠실창작스튜디오 10주년 백서

주요연혁 및 사업 변화

연도	주요 내용
2007	서울시장애인미술창작스튜디오 개관(한국장애인미술협회 운영)
2011	서울문화재단, 장애인미술창작스튜디오 운영 시작
2012	잠실창작스튜디오로 명칭 변경
2013	조아제약, 장애아동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프로젝트A〉 후원 유치
	잠실창작스튜디오 리모델링 재개관
2016	입주작가 평론가와 1:1 멘토링 개시 및 결과전시 〈기항지〉 개최(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2017	장애예술인 창작활성화 지원사업 신설
	잠실창작스튜디오 10주년 백서 발간 및 10주년 축제 〈잠실 스웨그〉 개최
2018	효성그룹, 입주작가 창작지원사업 후원 유치
2019	장애·비장애 문화예술 동행 프로젝트 〈같이 잇는 가치〉 신설
	장애·비장애 예술인 공동창작워크숍 결과전시 〈멀티탭_감각을 연결하기〉 개최
2020	〈같이 잇는 가치〉 오픈 포럼 및 전시 개최
	기업후원을 통한 장애인 예술상 제정
2022	국립현대미술관 정부미술은행 선정(전·현 입주작가 7인)
	로레알코리아, 장애예술인 친환경 아트공모 및 전시 후원 유치
	대학로 이전,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로 명칭 변경
2023	예술의전당, MOU를 통한 장애예술 기획전시 협업 유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광역문화재단(서울, 부산, 광주) 교류전시 및 포럼 협업

2020 같이 잇는 가치 전시

서울무용센터

위치
서울시 서대문구 명지 2길 14

개관일
2016년 4월 8일

시설현황
지상 1층, 2층
스튜디오 2실(블랙, 화이트),
무용연습실 3실, 입주공간 6실,
커뮤니티룸

서울무용센터는 **국내 유일 무용예술 창작공간**으로 기존 서부도로교통사업소 이전에 따른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하여 2011년 홍은예술창작센터로 개관, 2016년 '서울무용센터'로 재개관하여 무용 분야 특화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무용예술의 다양한 가능성을 실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무용 창작을 지원하고, 국내외 여러 무용 기관 및 예술가와의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예술계 내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슈를 공유하는 등 무용 분야 창작활동 거점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서울무용센터는 무용 창작기반 강화 및 무용예술 가치 확산을 주요 방향으로 입주예술가, 연습실 대관사업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2022년까지 무용계 이슈를 공유하고 아카이빙 하는 플랫폼으로 웹진 [춤in]을 월 2회 발행했으며, 무용계 담론을 확장하는 등 무용 분야 창작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병행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입주예술가 프로그램의 참여 대상을 해외 안무가와 해외거주 한국 안무가로 특화하여 국내외 무용예술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국제 레지던시 공간으로 특화했다.

2019년부터 해외거주 예술가에게 한정되었던 입주예술가 참여기회를 국내 예술가에게 확대하면서 국내 기반 무용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시작, 2022년부터는 국내 무용예술가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전환하고 최대 2개월이던 입주 기간을 4개월로 확대하는 등 무용예술가들의 다양한 시도와 창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회를 확장하고 있다.

2023년부터 프로그램을 4단계 인큐베이팅 지원 방식으로 개편하고, 입주 기간을 상, 하반기 각 5개월로 늘리는 등 국내 무용 예술가의 창작 및 유통 확대를 위한 공연과 아카이빙, 리서치, 작업발표의 전 과정을 통합하여 지원하고 있다.

2016 서울무용센터 개관 행사

주요 프로그램	사업내용
입주예술가 창작지원	레지던시 입주 예술가들을 대상으로 연습실 및 호스텔, 소정의 활동비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창작 활동의 추가적인 유통을 위한 소극장 공연과 작업 아카이빙, 리서치와 작품 발표 등의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지원
서울아트스페이스 랩_무용	창작활동에 필요한 요소들을 실험하고 토론하면서 발전시키는 랩 운영. 입주예술가들의 자발적인 연구모임(워크숍, 렉쳐, 라운드테이블 등)을 지원하여 안무적 접근법, 예술가가 가진 아이디어와 리서치, 창작 과정과 피드백 등을 동료 예술가와 자유롭게 공유하고 확장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
국내외 교류	해외 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프로그램 외에 해외 무용예술가 초청 워크숍 개최, 국내 무용제와의 창작 등 국내외 예술가들을 대상으로 한 교류사업 추진
댄스포피디	서울시 문화약자와의 동행 사업의 일환으로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와 협력하여 파킨슨병 환자와 보호자가 함께 참여하는 무용 교육 프로그램 운영

웹진 [춤in] 추진 실적

	페이지뷰	방문자 수	비고
2016	157,504	20,982	-
2017	161,817	52,569	-
2018	172,022	64,210	-
2019	131,683	55,009	콘텐츠 66건
2020	158,055	27,423	국영문발간 12회, 콘텐츠 79건
2021	152,675	59,309	국영문발간 14회
2022	154,417	60,102	

주요 연혁 및 사업 변화

연도	주요내용
2011	홍은예술창작센터 개관(前 서부도로교통사업소)
2014	입주예술가 창작지원 〈모모한 예술〉, 유망예술 창작지원
	무용대중화를 위한 무용사진 사업 〈댄스토리 서울〉 개최
2015	해외무용기관 MOU 체결 - 뉴욕 무브먼트리서치, 독일 K3, 일본 교토아트센터
2016	서울무용센터 재개관
	국제 레지던시 프로그램 운영: 안무가 교환프로그램
	국제 입주예술가 공모
	웹진 [춤in] 발간
2017	해외 안무가 교환프로그램 〈Space RED〉 운영
	무용인 네트워크 프로그램 운영(눈맞춤인, 청년무용담)
2018	서울국제안무워크숍
	해외안무가 교환프로그램
	국제레지던스 오픈콜
2020	입주예술가 국내 참여 확대
	수시대관 정기대관으로 변경
	안무렉쳐시리즈 운영: 온/오프라인 렉쳐 프로그램
2021	민관협력 거버넌스 '파트너스' 운영
	비넥스트(BENXT)(무용): 예술가 2명 선정, 창작지원 및 과정공유회 운영
2022	전문무용수지원센터: 파킨슨환우 대상 무용 교육프로그램 진행
	서울스테이지11 운영, 웹진 [춤in] 운영 중단
2023	4단계 인큐베이팅 지원으로 입주예술가 체계 개편

2022 서울무용센터

청년예술청

위치
서울시 서대문구 경기대로26-26
지하2층

개관일
2020년 8월 21일

시설현황
지하2층
카페형 공유오피스, 그레이룸,
화이트룸, 회의실, 연습실,
미디어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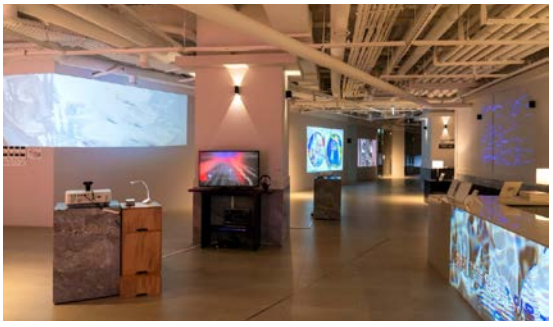
청년예술인이 함께 참여하여 미래변화를 주도하고 실험과 도전이 가능한 문화예술 플랫폼으로 조성됐다. 나이, 경력 경계 없이 모든 청년예술인들에게 열린 공간을 지향하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청년예술청 파트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 예술창작활동을 견인하는 청년예술지원, 유망예술지원과 청년예술인의 경제적, 사회적 가치창출을 독려하는 예술창업지원, 공간 기반의 커뮤니티 운영 등이 있다. 새로운 예술적 실천과 실험이 생산되는 안전한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는 공간이다.

청년예술인의 지속 가능한 창작 활동을 위해 새로운 실험과 도전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을 지향하며 2020년 8월 개관했다. 청년예술인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협력할 수 있는 창작 공간 제공은 물론 동시대를 바라보는 새로운 예술적 관점과 독창적인 접근이 발현될 수 있도록 다층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시도가 상상으로만 그쳤던 실험적 활동을 실현하고, 그 과정에서 창작자 간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예술적 환경의 창작실험 플랫폼으로 운영되고 있다.

행정 및 정책에서 규정하는 특정 연령에서 벗어나 나이, 경력, 장르 경계에서 유연한 태도로 새로움을 추구하는 문화예술 관련 종사자, 미래 문화예술인, 예술 활동에 관심 있는 향유자 모두를 대상으로 한 확장적 사업 운영이 특징이다.

	주요 프로그램	사업내용
예술지원사업	청년예술지원	청년예술인의 첫 작품 발표 지원, 예술인으로서의 예술계 내 진입을 독려하고, 새로운 창작 활동을 위한 실험과 도전이 가능한 환경 제공
	유망예술지원	도전적이고 독창적인 시도로 예술계에 새로운 흐름을 제시할 수 있는 예술인 및 단체 지원
예술창업지원	예술플러스창업	청년예술인 대상 문화예술 창업활동 기반을 위한 기초역량 및 성장 지원
청년예술인 커뮤니티 지원	청년예술인 교류를 위한 역량강화 커뮤니티 프로그램과 안전한 창작환경 조성을 위한 다수 참여 기반 청년예술인 거버넌스 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	
청년문화향유 지원	서울스테이지 2024 in 청년예술청	청년예술청 공간을 활용한 미디어아트 기반의 공감각적 예술공감 콘서트 8회 진행

2020 스페이스랩 프로젝트


청년예술청 로비 전시

4.3.

대학로

공연예술의 중심지로 자리해 온 대학로는 2010년대 중반까지 180여 개의 공연장이 밀집될 만큼 전성기를 보냈으나 젠트리피케이션이 가속화되고, 예술창작 방식이 다변화되면서 이전과 같은 활력을 찾지 못했다. 2020년 발생한 코로나19 사태는 대학로를 움츠러들게 하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되기도 했다. 서울문화재단 대학로센터가 개관한 이후 서울연극센터 재개관,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 이관, 서울예술인지원센터 조성, 2024년 개관예정인 서울연극창작센터를 중심으로 한 '신대학로'를 선언하며 대학로의 새로운 환경을 만들기 위한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마치 예전 남산예술센터, 남산창작센터, 대학로연습실 등 지리적 위치와 상관없이 하나의 문화벨트로서 어우러졌던 '대학로'가 보다 다양한 관점으로 확장되고 있다.

4.3.1.

문화공간

- 서울연극센터
- 대학로극장 쿼드
- 삼일로창고극장
- 남산예술센터

서울연극센터

+ 2007-
÷ 서울연극센터팀

위치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명길3

개관일
2007년 11월 10일

시설현황
라운지, 공유랩, 다목적실, 세미나실, 스튜디오 등

운영시간
화-금 11:00-20:00,
토-일 11:00-19:00
※ 매주 월요일 및 공휴일 휴관

서울연극센터는 옛 혜화동사무소를 리모델링해 2007년 개관했다. 2004년 '문화지구'로 지정된 대학로는 150여 개의 공연장이 밀집해 있었고, 서울 공연예술인의 70%가 활동하는 문화집중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영역에서 운영하는 공연정보센터가 전무했다. 서울문화재단은 대학로의 온·오프라인 공연정보를 제공, 관객의 접근성을 높인다는 목적 아래 초기 운영을 시작했고, 이후 개관초기와는 달라진 환경변화에 맞춰, 연극창작 지원 영역을 강화하는 등 시절에 적합한 연극창작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간으로 자리해 왔다. 2020년 건물 노후화에 따른 리모델링을 거쳐 2023년 재개관, 라운지, 공유랩, 세미나실, 다목적실, 스튜디오 등의 공간을 새롭게 꾸며 운영 중이다.

서울연극센터 운영과 주요사업의 흐름

연극과 관객을 잇는 정보센터

서울연극센터는 '대학로의 연극문화산업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연극문화 종합정보센터'로 기능한다는 취지를 갖고 운영을 시작했다. 개관 당시인 2007년만 해도 시민들이 공연정보를 얻을 수 있는 창구가 현저히 부족했던 상황, 서울연극센터는 일종의 정보 플랫폼의 기능으로서, 대학로를 찾는 모두에게 연극 정보를 제공하는 '공연정보센터'임을 표방했다. 특히 공연예술 자료의 체계적 수집 및 대학로 문화정보포털 기능 강화, 시민참여 문화프로그램의 확대 등을 통해 '신뢰도 높고 편리한 대학로 문화정보 서비스', '민관협력을 통한 대학로 부활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이 과정에서 **대학로 연극투어**라는 시민 체험프로그램이 신설됐다. 시민들을 초청해 함께 공연을 보고, 공연에 참여했던 연극인과 만나 조금 더 생생한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물론, 일반인들에게는 늘 비밀스러운 공간이었던 무대 뒤의 현장을 함께 둘러보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 잠재 관객개발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청소년 특화 단계별 프로그램을 도입(청소년관람 권장공연 선정 배포)하고, 다음 진입단계로 창의적 체험활동을 연계한 단체관람을 진행, 시민들의 참여를 높였다.

초기 서울연극센터 1층

2008년 발행하기 시작한 **대학로 문화지도** 사업은 2008년 당시 100여 개의 대학로 공연장 위치 및 각각의 공연장에서 진행되는 공연정보를 수록했으며, 대학로 식당 할인쿠폰 등 다양한 이벤트를 활용하고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지로 발간하는 등 관객 편의 중심의 사업들로 구성되었다. 이후 2010년, '간접지원제도 확대, 사후지원제도 확대, 전문심의관제도 도입, 시민향유 예술지원'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술지원정책 개선안이 발표되고 국비 매칭 지역협력형 지원사업이 지역으로 이관되면서, 서울시 지원사업 예산이 축소되던 시기에 맞물려, 관객개발 및 향유자 관점에 관한

인식전환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런 연계선상에서 서울연극센터는 관객을 위한 시민참여 프로그램뿐 아니라, 창작자들을 위한 대학로 활성화 사업을 병행했다. 대학로 우수작품 인큐베이팅 프로젝트를 비롯해 연극인 재교육 프로그램 등 창작자들을 위한 간접지원사업도 서울연극센터의 주요 사업으로 고민되기 시작했다.

2013년 '서울시 연극발전 종합계획 및 과제별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서울연극센터 운영개선을 위한 연극인 대상 설문조사'(2013)를 바탕으로, 2014년 리모델링을 진행해 기존 2층 정보자료관을 1층으로 옮겨 통합정보서비스 공간으로, 2층엔 아카데미룸과 세미나실을 신설하며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예술창작지원 강화

2013년 서울시가 수립한 '서울시 연극발전 종합계획'에 따라, 연극 관련 정보전달 위주의 사업에서 연극인의 작품제작 여건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들로 재편되었던 2014년 무렵부터, 서울연극센터는 '정보서비스 공간이자 연극 창작역량 강화 및 관객개발을 지원하는 대학로 연극생태계 활성화의 거점'으로 운영 목표를 확대했다. 특히 창작지원사업이 분야별 창작공간으로 이관되면서 연극지원사업으로 무게중심을 옮겼다. 서울연극센터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직접 수행한 예술창작지원사업은 총 6개 사업으로, 예술작품지원,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공연단체 다년간 지원, 유망예술지원 NEWStage, 최초예술지원, 서울청년예술단 사업 등이 있다.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의 창작역량을 강화하고 우수 창작활동을 촉진하고자 서울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예술단체 및 개인을 대상으로 지원한 **예술작품지원사업(2015-2018)**, 공연장과 공연예술단체 간 상생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창작환경에서 공연예술단체의 예술적 창작역량을 강화하고, 공연장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지역주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고자 시작된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2015-2018)**, 결과물 중심으로 편향된 예술지원제도의 불균형을 깨고, 과정 중심의 예술지원제도를 복원하는 한편, 일회성 소액다건형 지원의 한계를 극복하여 예술단체의 안정적인 창작환경을 조성하고자 시행된 **공연단체 다년간지원(2014-2016)** 등은 서울연극센터가 현장 연극인들과 더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다.

조금 유형이 다르지만, 신진 예술가들이 서울연극센터와 연을 맺을 수 있는 주요한 계기가 마련된 것 역시 예술창작지원사업과 연계되어 있다. 특히 연극 분야의 활성화를 위한 창작자와 작품을 발굴, 지원하고자 시작된 **유망예술지원(2014-2018)**이 그렇다. 39세 이하의 예술인이거나 데뷔 10년 이하의 예술가(단체)를 대상으로 시행된 이 사업은 지원금 외에 연습 및 발표 공간, 홍보, 멘토링 및 크리틱 자문 지원 등의 통합지원방식으로 운영됐고, 이후 신진 예술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서울연극센터의 사업과 협업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었다. 여기에 덧붙여, 공공지원금을 받은 경험이 없고, 서울에서 예술창작활동을 계획하고 있는 청년예술인(단체) 중 39세 이하의 청년예술인(단체)이거나, 데뷔(설립연도) 10년 이하의 청년 예술인들의 예술 활동 경력개발 및 예술계 진입을 위해 시행된 **최초예술지원(2017-2018)**, 35세 이하의 예술인들로 구성된 단체를 대상으로 창작활동비와 사업비를 지원했던 **서울청년예술단지원사업(2018)** 역시 서울연극센터가 신진 예술가들과의 직접적으로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었던 서울연극센터의 주요 창작지원 사업이었다.

전문예술인 지원 및 시민대상 사업 확대

연극 창·제작을 집중 지원한 시기에도 서울연극센터가 초기부터 진행해온 고유사업은 더 확장되어 왔다. 대표적인 사업이 연극인 재교육 사업인 〈PLAY-UP 아카데미〉와 대학로연습실 운영사업이며, 시민대상사업으로 시작되어 고유영역으로 확장된 〈10분희곡 페스티벌〉, [연극in] 발간사업이 있다.

PLAY-UP 아카데미(2012-)는 대표적인 연극인 재교육 사업으로, 서울연극센터 개관 이후 연극인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사업 중 하나다. 현장에서 활동 중인 연극인들의 개인역량과 능력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 과정을 제공하여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고, 연극인들 간의 소통과 교류의 장을 조성하여 창작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목표를 갖고 2012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정규과정(다회차), 특별과정(단회차)으로 구분되며, 움직임, 화술, 텍스트 분석 등 무대에서 필요한 영역별 교육과정을 심화학습 과정으로 제공하고 있다.

웹진 [연극in](2012-)은 공연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축적된 정보의 접근 및 이용 편의성을 향상하는 한편, 생성된 콘텐츠의 아카이브를 위해 시작되었다. 기존 문화지도가 단순정보 전달에 머물렀던 것을 넘어 가치정보를 제공한다는 목적은 물론, 관객을 위한 가이드로서의 연극 매거진을 표방, 웹 특성과 결합한 연극콘텐츠의 전달로 흥미유발을 통한 연극 관객개발을 시도해왔다. 매달 첫 번째와 세 번째 목요일에 발행되는 격 주간지로, 연극인이 만나고 싶은 사람과의 '대화', 다양한 시선으로 바라본 '리뷰', 공연계의 모습을 직접 담아낸 '현장', 극작가들이 꾸리는 '희곡' 등 풍성한 콘텐츠와 자유롭게 댓글과 공연에 대한 꽃점평도 남길 수 있는, 연극인과 관객을 매개하는 소통의 창구로 운영되고 있다.

10분희곡 페스티벌(2014-2018)은 2014년 관객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다. '10분희곡 릴레이'를 통해 소개되었던 10분 단막 희곡 가운데 몇 편을 선정하여 낭독공연으로 선보이는 프로그램으로, 신진 작가에게는 작품 제작의 기회를 제공하고, 일반 관객에게는 격식 없는 공연 체험 기회를 마련하여, 연극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자 기획되었던 사업으로, 기대목표 대비 사업성과가 높아 별도 사업으로 강화하여 운영하였다. 웹진 [연극in]을 통해 138건의 10분 희곡이 소개되었고, 이 중 105편이 10분희곡 페스티벌을 통해 소개되었으며, 363명의 작가, 연출가, 배우, 스태프 등이 참여, 연 평균 330명의 관객이 참여했던 프로그램으로 2018년 종료되었다.●

웹진 [연극in]

● 극작가 배해률은 [연극in]에 단막 희곡을 게재하고, 2016 10분희곡 페스티벌에 참여했다. 이후 남산예술센터 〈7번국도〉 등 재단의 사업에 다수 참여했으며, 벽산문화상 희곡부문 수상, 2023년 두산아트센터 'DAC 아티스트' 선정 등 활발하게 창작 활동을 펼치고 있다.

더 보기

[연극in] 89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해률(2016.04.07.)

신대학로 시대, 서울연극센터의 새 출발

2023년 4월 재개관한 서울연극센터는 기존 2개 층만 사용하던 공간을 지상 4층으로 확장, 연극을 중심으로 시민과 연극인이 보다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했다. 1층에는 대학로를 찾는 시민 누구나 방문해 대학로에서 진행되는 공연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2층에는 연극인들이 연습, 회의, 세미나 등을 할 수 있는 다목적실, 세미나실, 공유랩을 마련했다. 3층은 쇼케이스, 낭독공연, 전시, 교육, 포럼 등 다양한 프로그램 발표가 가능한 스튜디오가 조성되어 있다. 서울연극센터가 지난 3년 동안, 더욱이 코로나19가 유행하던 시절을 지나, 새로운 공간과 함께 내건 방향은 시민과 연극인을 잇는 교류 플랫폼이다. 2022년 7월 개관한 대학로극장 쿼드(QUAD), 2024년 개관예정인 서울연극창작센터와 함께, 서울연극센터가 연극전문 문화공간으로서 연극 생태계에 어떤 선순환구조를 만들어갈지 그 새로운 출발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서울연극센터 주요 이슈 및 사업변화
2007	- 서울연극센터 개관
2008	- 대학로연극투어 운영, 대학로문화지도 발행
2009	- 정보자료관 개관, 대학로연습실 운영, 대학로 희망 연극 프로젝트, 인큐베이팅 사업 운영
2010	- 대학로문화지도 월간으로 변경 발간
2011	- 2011 대학로 환경개선을 위한 연극실태조사 실시
2012	- 웹진 [연극in] 창간, PLAY-UP 아카데미 신설
2013	- 2013 대학로 환경개선을 위한 연극실태조사 - 서울시 연극종합발전계획에 따른 '서울연극센터 운영개선을 위한 연극인대상 설문, 연구조사
2014	- 전면적인 리모델링에 앞서 '서울시 연극발전 종합계획' 및 현장 의견을 반영해 서울연극센터를 예술가 창작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부분 보수('아카데미룸', '세미나실' 조성, 자료관 이동 등) - 기존 정보제공 플랫폼에서 '정보서비스 제공, 연극 창작 역량 강화, 관객개발을 지원하는 대학로 연극생태계 활성화의 거점'으로 운영방향 재설정
2015	- 연극 장르 '창작지원사업' 6개 직접운영 예술작품지원, 공연장상주단체 육성지원, 공연단체 다년간 지원, 유망예술지원 NEWStage, 최초예술지원, 서울청년예술단 - 신진 극작가의 단막희곡 발표를 지원하는 〈10분희곡 페스티벌〉 운영(-2016)
2018	- 예술지원사업 담당부서로 연극 장르 '창작지원사업' 업무 이관
2019	- 대학로 소극장 정보 전달을 제공한 '대학로문화지도' 발행 종료(2008-2019) - 연극 관련 도서 및 대시민 휴게 공간 '정보자료관' 운영 종료(2007-2019)
2020-2021	-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공간 운영 종료 - 공사 기간 중 기존 운영사업 정상 수행을 위해 임시 사무실 이전
2022	- 대학로연습실 운영 종료(2009-2022)
2023	- 서울연극센터 재개관(2023.4.12.) 재개관 기획 프로그램: 연극인 토크 콘서트 〈퇴근 후 공연 전〉, 희곡감각다양화 프로그램 〈희곡제〉, 연극 생태계 활성화 위한 오픈토크 등 - 연극인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 play-up 아카데미 운영 - 연극 전문 웹진 [연극in] 발행

서울연극센터 전경

대학로극장 쿼드
(QUAD)

+ 2022-
÷ 공연기획팀

QUAD
서울문화재단 대학로극장

대학로극장 쿼드(QUAD)는 대학로 유일의 공공극장으로 무대의 모양에 따라 객석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가변형 블랙박스 공연장이다. 극장명 '쿼드QUAD'는 숫자 4와 사각형(Quadrangle)이라는 뜻을 담은 다양한 사각형태의 공간적 의미를 지닌다.

무대와 객석이라는 물리적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장르와 형식에 갇히지 않고 새로운 실험을 시도하는 무한한 가능성의 공간을 지향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연극, 무용, 전통, 음악 등 기초예술분야의 1차 창작초연 제작, 유통극장으로 대학로 공연예술 생태계의 활성화를 견인한다는 목표를 갖고 2022년 7월 개관했다.

실험과 도전,
새로운 가능성

대학로극장 쿼드는 서울문화재단 대학로센터 지하에 조성된 블랙박스 공연장으로, 프로시니엄형 210석 프로시니엄형, 런웨이형, 아레나형 등 다양한 객석 형태로 사용된다. 약 48억 원의 공사비를 투입해 장비와 기반시설을 최신화한 것은 물론, 다양한 형태의 무대 활용이 가능한 가변형 극장으로 리모델링해 무대와 객석을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 또한 객석, 무대, 분장실 등 극장 전 구역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하여 장애·비장애와 관계없이 창작자와 관객 모두의 접근성을 높였다.

위치
종로구 동숭길 122(동숭동 1-5) 지하 1-2층

개관일
2022년 7월 20일

시설현황
가변형 블랙박스 공연장

객석규모
210석(보유객석 총 372석_ 수납식 객석 210석, 이동형 모듈식 객석 162석)

공간구성
지하1층 갤러리, 조정실, 스태프 사무실, 안내원 대기실
지하2층(1,175㎡) 로비, 무대, 객석, 장애인 전용 분장실 포함 분장실
PIT(무대하부) 이동식 객석 및 장비 적재 공간

다양한 무대 연출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상부 배튼 시스템, 레일방식의 포인트 호이스트(23기), 하부 리프트(2기), 무대 트랩도어(7개) 등을 극장 전체에 적용해 무대와 객석의 경계를 없앴고, 모든 방향에 조명과 음향 장비를 설치할 수 있어 시야의 사각지대도 줄였다. 국내 공연장 최초로 국산 스피커시스템을 도입해 극장 특성에 최적화한 음향시스템을 적용한 것도 주요 특징 중의 하나다. '1차 창·제작 중심의 유통극장'을 지향하는 쿼드는 연극·음악·무용·전통·다원 등 1차 제작된 작품이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있는 공공극장에 연중 공급하는 유통극장의 역할뿐 아니라, 재단 내 다양한 연계사업과 공연예술계 주요 예술축제와의 협력을 주요방향으로 삼았다.

2020년부터 약 2년간의 리모델링 과정을 거쳐 개관한 대학로극장 쿼드의 첫 프로그램은 '새로운 시대, 새로운 예술가·관객과 함께, 새로운 극장의 가능성을 열다'라는 콘셉트로 진행된 **개관페스티벌(2022.7.21.-8.28.)**이다. 음악, 연극, 무용, 전통, 다원 등 5개 장르 12개 공연이 진행됐으며, 총 21회 공연에 2,810명의 관객이 공연장을 찾으며 대학로극장 쿼드의 시작을 열었다.

개관페스티벌 이후 9월부터 11월에는 대학로 및 서울지역에서 개최되는 페스티벌과의 협력사업을 중심으로, 12월에는 대학로극장 쿼드 자체제작품 등 총 14개 작품, 47회 공연에 3,716명의 관객이 공연장을 찾았다. 2022년 하반기 개관 이후 약 6개월 동안 기획, 협력, 자체제작으로 총 26개 작품, 68회 공연에 6,526명의 관객이 공연장을 찾으며, 창작초연 및 제작을 중심으로 한 유통극장으로서 새롭게 출발하는 대학로극장 쿼드의 향방을 목격했다고 볼 수 있다.

대학로극장 쿼드 개관페스티벌

연극	1건	극단 풍경 〈OiL(오일)〉	총 12개 작품, 21회 공연 2,810명 관람
음악	3건	몰토 쿼르텟(MOLTO Quartet) 〈JUST BACH〉 이명주, 박종해, 조진주, 이재형, 신경식, 이호찬 〈Classic in QUAD〉 MOON(혜원) 〈A Dream in the Summer Night〉	
무용	3건	99아트컴퍼니 제ver.2 〈타오르는 삶〉 프로젝트 클라우드 나인 〈COMBINATION〉 앰비규어스댄스컴퍼니 〈생 날 몸뚱아리〉	
전통	4건	실크로드뮤직프렌드(Silkroad Music Friends) 〈전통한류 '바람불다'〉 해파리(HAEPAARY) 〈Born by Gorgeousness〉 신노이 〈신노이의 新심방곡〉 천하제일탈공작소 〈풍편에 넌즛 들은 '아가멤논'〉	
다원	1건	권병준 〈싸구려 인조인간의 노랫말2(로보트야상곡)〉	

대학로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쿼드초이스, 쿼드페스타, 기획제작, 협력공연

쿼드의 주요 공연 유형은 예술성과 인지도를 두루 지닌 예술가를 초청해 진행하는 '쿼드초이스'를 중심으로, 각 시즌별 블랙박스 극장을 활용한 라이브 음악 기반의 콘서트 '쿼드페스타', 재단 연계사업 및 공연예술계 주요 예술축제와 협력하여 운영하는 '협력프로그램', 쿼드 자체제작 및 기획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프로그램 유형

유형	내용
쿼드초이스	예술성과 인지도를 두루 지닌 예술가 초청
쿼드여름페스타, 쿼드겨울클래식	시즌별 블랙박스 극장 활용 라이브 음악 기반의 콘서트
기획프로그램	예술가 및 공연단체 등의 기성작 및 신작 초청
제작프로그램	대학로극장 쿼드 자체제작
협력프로그램	서울에서 개최되는 공연예술분야 축제 등 연계

2022년 개관 이후, 총 52편의 기획, 제작, 협력 프로그램이 공연됐으며, 장르별로는 연극 11편, 무용 18편, 음악 9편, 전통 8편, 다원 6편의 새로운 신작 및 우수 공연이 관객을 만났다. 프로그램 유형 중 기획 공연은 25편, 협력 공연은 22편, 제작 공연은 무용 〈2020 휘이잉〉, 〈Zzz〉, 다원 〈환등회〉, 연극 〈다페르튜토 쿼드〉, 〈신파의 세기〉 총 5편이었다.

이는 대학로극장 쿼드가 당초 제시한 새로운 가능성을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하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대학로극장 쿼드가 공연예술계에 지닌 상징성은 사뭇 다르다. 서울문화재단에서 운영하던 남산예술센터가 2020년 폐관된 이후, 2022년 서울문화재단이 동숭아트센터(현 대학로센터)에 새로운 공공극장을 열 것이라고 밝히면서 공연예술인들의 관심은 쿼드의 비전과 미션,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 공공극장의 가치, 운영 방식의 독립성, 실험적 탐구의

쿼드 개관 페스티벌, 앰비규어스 댄스컴퍼니

자율성을 어떻게 담아낼 수 있는지를 고민해 왔기 때문이다. 부지불식간 제대로 대안을 만들지 못하고 폐관된 남산예술센터 종료 과정을 경험한 예술인들이 대학로극장 쿼드의 개관에 부쳐, 현장 예술인이 참여하는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던 것 역시 바로 이러한 연유이다.

쿼드에 대한 공연예술인들의 기대와 염려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대학로 시대를 표방하며 개관한 대학로극장 쿼드가 공연예술 창작 초연 및 유통의 산실로, 장르적 한계를 넘나드는 과감한 시도와 도발적 상상으로 새로운 판을 만들어 갈 수 있을지,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공공 극장으로서의 다음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더 보기

대학로극장 쿼드 리노베이션 과정 기록집 (2022년 7월)

대학로극장 쿼드 누리집

쿼드 공연 (2022년 9월-2023년 12월)

		2022	2023
협력 공연		서울아트마켓 팜스초이스(6건) 서울국제공연예술제(3건) 옵/신페스티벌(3건)	서울아시테지겨울축제(2건) 서울연극제(3건) 서울세계무용축제(5건)
제작 공연		2건(무용 1, 다원1)	3건(연극 2, 무용 1)
기획	쿼드여름페스타	-	7건(무용 3, 전통 2, 연극 2)
	쿼드겨울클래식	-	6건(음악 6)
합계		14개 작품, 47회 공연 3,716명 관람	26개 작품, 125회 12,536명 관람

삼일로창고극장

+ 2018-2023
÷ 삼일로창고극장

과거 삼일로창고극장 입구

삼일로창고극장은 1975년 개관 이후 소극장운동을 이끌었던 역사적 공간이다. 2013년 서울시 미래유산으로 지정되었으나, 2015년 경연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폐관된 이후, 2017년 서울시가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서울문화재단 남산예술센터 통합운영 위탁사무에 포함하여 서울문화재단에서 운영을 시작, 극장 노후화에 따른 보수 및 리모델링을 거쳐, 2018년 6월 재개관 했다. 예술현장과의 소통 및 협업구조를 마련하여 민관 거버넌스형 공동운영 모델을 도입, 창작 현장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동운영단과 함께 실험과 탈경계를 지지하는 청년예술인 창작플랫폼을 기본 방향으로 운영해왔으나 2023년 수탁 운영이 종료됐다.

새로운 가치를 위한 시도와 발견

삼일로창고극장은 민관거버넌스의 방식으로 공동운영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위원회를 중심으로 극장의 방향성과 미션을 세웠다. 운영위원회가 직접 기획하고 제작하는 작품, 청년 예술가들의 플랫폼이라는 운영 방향에 맞는 다양한 창작자들의 기획 프로그램이 개발됐다.

삼일로창고극장 재개관 기념공연으로 공연된 〈빨간피터들〉을 시작으로, 매년 무수히 배출되는 연극 관련 졸업논문에 주목하여 그 저자에게 논문을 수행할 수 있는 무대를 제공하는 〈퍼포논문〉, 삼일로창고극장이 개방성을 가진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극장의 모든 공간을 점거하는 〈창고개방〉, 삼일로창고극장의 운영 방향을 논의하는 〈창고포럼〉 등 타 극장과는 다른 차별화된 기획 사업이 현장 연극인들의 호응을 얻으며, 동시대 플랫폼으로서 기능을 확장했다.

이후에도 기존의 연극 비평에 대한 관심 부족과 기명 담론이 주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기획된 메타비평에 대한 전시 〈익명비평〉, 1인 창작자가 늘어나고 있는 공연예술 창작 환경의 변화를 가성비와 연결해 보는 〈퍼포먼스 포 프라이스(Performance for price): 클린룸〉, 비평의 세계에서 배제됐던 배우들이 모여 '배우의 언어가 비평의 언어로 유효한지, 어떤 유형의 방식으로 기록될 수 있는지, 어떻게 관객과 더 만날 수 있는지'를 고찰하는 〈새-시대 비평클럽〉 등을 통해 새로운 담론을 만들어왔다.

극장을 매개로 활동하는 다양한 주체들의 시각으로 '불필요한 극장'을 상상하고 극장을 둘러싼 여러 이슈를 논의함으로써 '우리에게 극장은 과연 필요한가'에 대해 자문해 본 〈불필요한 극장이 되는 법〉,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활약 중인 문화예술계 창작자들의 부캐(부가적인 캐릭터)를 시민과 공유하는 워크숍 〈부캐대전 2〉 등 극장 대표 브랜드 기획사업 발굴을 통한 외연 확장 및 진입단계 창작자를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이 운영되기도 했다.

위치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9길 12

개관일
2018년 6월 22일

시설현황
극장동 1층-2층 / 사무동 1층-2층

객석규모
50석

공간구성
공연장, 스튜디오, 클린룸, 갤러리

연도	삼일로창고극장 주요 기획사업
2018	- 재개관 기념행사 〈삼일로창고극장 커밍쑨〉, 기념전시 및 기념공연 - 〈창고개방〉(24시간 연극제, 리딩 파티 등)을 2주간 개최, 극장 전 공간을 무대로 창작 및 발표 진행: 개방형 공공극장으로서 프로그램 기획
2019	- 〈창고포럼〉을 통해 동시대 예술계의 제작문화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 마련 - 〈24시간 연극제〉 그룹편 운영 - 〈퍼포논문〉: 연극을 이론화한 텍스트를 다시 무대화하는 새로운 형식의 공연 - 〈랩(LAB)〉: 기술융합형 공연예술 동향 파악과 실질적인 창작법 연구/개발 및 발표의 전 과정을 수행하는 워크숍 - 〈입체열람전〉: 70년대 삼일로창고극장 공연 데이터를 활용한 연극 아카이빙의 새로운 방식 제안 기획전시
2020	- 코로나19 상황 속 비대면 방식의 기획프로그램 다수 진행 - 〈퍼포먼스 포 프라이스: 클린룸〉: 1인 창작자의 활동에 주목한 프로그램으로 각기 1주간 극장에 자발적 격리 진행하여 작품 창작 및 온라인 공연 - 〈퍼포논문 벌어진 연극〉: 퍼포논문을 온라인 공연으로 진행 - 〈창고개방〉: 관객에게 온라인으로 배달하는 콘셉트의 온라인페스티벌 진행
2021	- 〈아트앤테크 랩〉 예술가-기술/IT 분야 전문가 간 담론의 장 마련 - 〈무대기술 워크숍 '스테이지 도어'〉: 창작자들을 위한 기초 무대 운영방법 실습 워크숍 - 〈불필요한 극장이 되는 법〉: 미래극장의 역할과 가능성 탐색
2022	- 〈창작리서치프로젝트〉: 극장에 대한 새로운 역할 모색 프로젝트 공모 지원, 시상금 및 간접지원 등 입체적 지원
2023	- 〈창고포럼〉 4회에 걸쳐 연중 진행 - 필리버스터 형식 〈창고개방〉 개최

민관거버넌스를 통한 공동운영, 또 다른 영역으로의 확장

민관 협업구조를 통해 현장 친화적인 극장 운영 환경을 만들어 온 삼일로창고극장은 민간 소극장의 역사성을 계승하고 예술 현장과 함께하는 동시대 창작플랫폼 구축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 공동운영단을 구성하여 운영했다.

2018년 1기 운영단이 꾸려진 이후, 2020년 2기부터 임기가 3년으로 확대되었고, 2021년 기수제에서 임기제로 변경되어 운영되었다. 선임위원 5명 외 당연직 매니저 1명 등 총 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극장 사업 방향 수립 및 사업 기획/실행 등 극장 운영의 전반을 관리하는 새로운 거버넌스 모델로 주목받았다.

연도	공동운영단 주요 변화
2018	삼일로창고극장 재개관 공동운영단 1기(2017.8-2019), 임기 2년
2020	공동운영단 2기(2020-2022), 임기 3년으로 확대
2021	공동운영단 기수제에서 개인 임기제로 변경
2022	공동운영단 운영수칙 개정, 전담 기획프로그램 기획비 폐지 신규 운영위원 공모(2명)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운영된 삼일로창고극장은 극장과 예술가가 어떤 방식으로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는가를 함께 고민하며 창작방식, 교류와 협력의 방식, 관객과 예술가, 극장의 경계를 자연스럽게 넘어서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소개해 왔다. 지난 50여 년간 쌓아온 삼일로창고극장이 지닌 공연사적 자산을 근간으로, 새롭게 마주한 극장에 대한 고민은 동시대의 연극적 실험과 확장으로 이어지면서 대내외적인 성과를 가져왔다.

독백회

무대기술워크숍 'Stage door'

남산예술센터

+ 2009-2020
÷ 극장운영팀, 무대기술팀, 기획제작팀

위치
서울특별시 중구 소파로 138

운영기간
2009년 6월-2020년 12월

시설현황
중극장_최대 480석(전체면적 1,531㎡, 반돌출무대 330㎡) 원형무대(아레나 스테이지)와 사이드 스테이지

작품수
200편

참여극단
119개 단체

참여예술가
3,074명

관람관객
263,015명

공연일수
1,448일

공연회차
1,642회

남산예술센터(옛 남산드라마센터)는 1962년 남산 중턱에 있는 옛 과학관 자리에 미국 록펠러 재단의 지원금으로 신축되었던 극장이다. 당시 건평 220여 평, 객석 473석 규모의 중형극장으로 개관한 남산드라마센터는 셰익스피어의 〈햄릿〉에 이어서 〈밤으로의 긴 여로〉, 〈포기와 베스〉, 〈한강은 흐른다〉, 〈세일즈맨의 죽음〉, 〈로미오와 줄리엣〉 등 6개 작품을 공연하며 한국연극의 중심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이후 연극 인재 양성을 위한 부설기관인 연극 아카데미를 발족시키며 활동을 이어가기도 했으나, 1963년 1월 재정난으로 운영을 종료하고 후진양성 기관으로 1964년 서울연극학교를 설립, 1974년 서울예술전문대학으로 변경되면서 학생들의 실습전용 무대로 사용되었다. 2008년, 문화예술 창작공간 확충의 일환으로 서울시에서 임대, 서울문화재단이 수탁 운영하게 되면서 '남산예술센터'로 극장명을 변경, 2009년 6월 재개관했다.

1962년 개관한 한국 최초의 근대식 극장, 한국연극계의 걸출한 작가, 연출가를 배출한 연극 아카데미의 산실이었다는 역사 속에서 다시 연극 창작의 거점 공간으로 새롭게 선보이게 된 남산예술센터는 재개관이라는 사실 자체만으로 연극계에 남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일반적인 프로시니엄 무대와는 달리 무대를 둥글게 감싸고 있는 계단 형태의 객석은 물론, 극장 자체가 무대가 될 수 있는 도드라진 특징을 가진 남산예술센터는 희곡 창작의 중심지로서 창작희곡 발굴을 위한 다양한 제작시스템을 개발, 극장만의 특성을 살린 기획프로젝트와 공동제작을 통해 동시대의 다양한 예술적 담론을 제시해왔다. 또한 신진 연극인 인큐베이팅은 물론 공정, 젠더 감수성, 장애인의 극장 관람 환경을 위한 '배리어 프리' 공연 등 공공극장의 역할과 기능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등 새로운 이슈와 흐름을 제시하며, 2020년 12월 운영이 종료될 때까지 12년간 연극계의 상징으로 자리해 왔다.

시기별 남산예술센터의 주요방향 및 프로그램

창작초연 제작극장
(2009-2011)

남산예술센터가 2009년 6월 개관하며 천명한 주요 비전은 창작초연 중심의 제작극장이었다. 특히 '시대의 맥박을 느낄 수 있는 동시대 공연장', '다양한 실험이 가능한 극장', '동시대 희곡 창작의 중심지'라는 방향을 세운 남산예술센터는 차세대 공연양식, 차세대 예술가, 차세대 관객을 만날 수 있는 차별화된 공연장으로서 역할을 지향했다.

재개관 초기부터 동시대 사회이슈를 담은 창작극을 주로 제작·공연했으며, 남산연극포럼 및 학술프로그램에서도 '동시대성'은 꾸준히 극장의 화두로 다뤄졌다. 또한, 기존의 연극적 양식에 머무르지 않는 새로운 방식의 연극 형식과 경향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가는 작업을 시작했다. 2009년부터 3년간 이어졌던 '페스티벌 장(場)' 등의 기획시리즈를 통해 탈장르적이고

융합적인 성격을 지닌 다원예술 프로그램을 선보였고, 참여 예술가들 역시 연극인과 새로운 영역의 아티스트들의 무대 작업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시도는 연극의 형식 및 범위의 경계를 지우고 다각적인 확장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또한, 신진 연극인들의 인큐베이팅에 주력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대학로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젊은 연극인들의 작품을 남산예술센터에서 다시 공연하는 '대학로 우수작품 인큐베이팅 프로젝트'와 젊은 연출가 지원 제도인 '신진 연출가 기획전', '상주극작가 제도' 등을 운영하며 극장의 역할과 기능, 극장의 공공성을 어떻게 확장할 수 있는가에 대한 화두를 제시하기도 했다.

2009-2011 주요 기획프로그램

연도	프로그램	주요내용
2009-2011	페스티벌場	미래지향적 공연양식을 발굴하고 젊은 예술가들의 도전과 무대실험의 장을 제공하는 복합장르 공연예술축제
2010	시즌프로그램 공동제작	국내 우수 현대연극 창작 활성화 및 과감하고 실험적인 공연예술 양식의 발굴을 위한 공동제작 프로그램
2010	신진 연출가 기획전	중극장 무대에서 공연할 기회가 없었던 신진연출가들을 발굴, 소개하는 기획 프로그램
2010-2012	대학로우수작품 인큐베이팅 프로젝트	대학로 소극장에서 작품성을 인정받은 창작극 중 중극장 공연으로서의 발전 가능성이 있는 작품을 선정, 남산예술센터에서 공연할 수 있도록 지원한 프로그램
2010-2013	상주극작가 제도 운영	매년 두 명의 극작가를 선정해 활동비를 지급하고, 장편 희곡을 완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창작희곡의 확장
(2012-2015)

기존 흐름을 답습하지 않고, 새로운 시도와 확장으로 극장의 방향을 세워가던 초기를 지나 남산예술센터의 정체성이 확립된 시기가 바로 2012년-2015년 무렵이다. 2009년 개관 때부터 견지해 온 창작초연 제작극장으로서의 정체성은 창작희곡 및 극작가 발굴을 중심으로 공공해졌다. 특히 '시즌 레퍼토리와 공동제작' 선정에서 번역극이나 번안극, 이미 발표되어 제작된 바 있는 희곡들보다는 초연 연극 창작극만으로 운영하는 등 희곡 창작 중심지로서

2012-2015 주요 기획프로그램

연도	프로그램	주요내용
2012-2017	드라마터그 시스템 도입	국내 최초로 상임 드라마터그 시스템 도입. 극장 프로그래밍, 아카이브 구축, 연극계 동향 분석에 관한 자문
2012-2019	남산연극포럼	'동시대성'이라는 예술적 화두를 내세운 '남산예술센터'의 연극을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포럼
2012-2020	초고를 부탁해	신진작가와 새로운 글쓰기의 발굴과 육성을 위한 창작희곡 상시투고 시스템으로 미발표 장막희곡을 투고 받아 작품의 발전가능성을 검토하고, 남산희곡페스티벌을 통해 낭독공연으로 발표
2012-2015	시즌 프로그램 공동제작 공모	국내 우수 현대연극 창작 활성화 및 과감하고 실험적인 공연예술 양식의 발굴을 위한 공동제작 프로그램 공모(창작초연 연극 대상)
2013-2017	남산희곡페스티벌	새로운 희곡 및 작가 발굴 시스템인 '초고를 부탁해"에서 심사를 거친 낭독공연, 기성 극작가들의 미발표 신작희곡 낭독공연, 그리고 원로 및 중견 극작가들의 마스터클래스로 구성된 프로그램

기능을 강화했다. 또 다른 주요 변화는 국내 대표 작가들의 신작 발굴과 가능성 있는 신진 작가들을 발굴, 육성하기 위하여 운영한 프로그램이다. 그 중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상주 드라마터그' 제도다. 2012년부터 국내 최초로 도입된 드라마터그 시스템을 통해 '초고를 부탁해', '남산연극포럼', '남산희곡페스티벌' 등 작품 및 작가 발굴 프로그램과 학술프로그램이 신설되거나 강화되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남산예술센터가 창작극 중심 극장이라는 인식을 확립하는 것은 물론 타 극장들과의 정체성 차별화에도 성공한 것으로 평가 받았다.

장르 및 영역 확대
(2016-2020)

2016년부터 남산예술센터의 작품들은 국내 창작극을 넘어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된다. 창작극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꾸준히 지속하되, 연극과 소설, 연극과 미술, 설치미술과 다큐멘터리 등 다원예술에 대한 새로운 시도들이 이어졌고, 소설가, 미술작가, 큐레이터, 퍼펫 아티스트 등 장르에 기반을 둔 예술가들과의 협업 역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시즌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극장 운영 프로그램에서도 일부 변화가 있었다. 극장 운영 시스템 중 '초고를 부탁해'를 제외한 다른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교체, 진행되었으며, '드라마터그 시스템' 대신 다양한 시선과 시각을 지닌 예술가, 전문가들의 자문회의를 통해 극장의 방향성을 다듬어갔다. 희곡 텍스트에 초점을 맞추었던 '남산희곡페스티벌'을 다양한 연극적 아이디어의 장인 '서치라이트'로 확대 운영하고 또 다른 담론의 장으로서 극장 공간을 활용한 '남산 아고라'가 새로 신설되었다. 현대일본희곡 낭독공연과 중국희곡낭독공연의 무대로 자리 잡는 등 일본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연극에 대한 관심과 네트워킹을 강화했던 시기이기도 하다.

2016-2020 주요 프로그램

연도	프로그램	주요내용
2016-2020	시즌 프로그램 공동제작 공모	국내 우수 현대연극 창작 활성화 및 실험적인 공연예술 양식의 발굴을 위한 공동제작 프로그램으로 2016년부터 희곡기반 창작연극과 텍스트에 구애받지 않는 개념기반 창작연극으로 확대
2016-2020	이음출판사×남산예술센터 협력희곡집 발간	이음출판사와 협력하여 남산예술센터 시즌프로그램으로 소개되는 창작초연희곡을 희곡집으로 출판, 공연기간 로비와 서점에서 동시에 판매(총 11편의 희곡집 발간)
2016-2017	남산 아고라	개방형 무대와 객석을 지닌 남산예술센터의 특수한 공간 방식에 착안, 공연 예술무대로서의 극장을 넘어, 담론의 장으로서 극장에 초점을 맞추어 기획, 운영
2018	남산예술센터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 제정	공공극장에서 최초로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정. 〈에어콘 없는 방〉 출연 배우의 미투 사건을 계기로 공연 전면 취소 뒤, 공동제작을 한 협력단체와 함께 향후 안전한 창작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마련
2019-2020	배리어프리 공연 시작	2019년 '여기는 당연히, 극장'의 〈7번국도〉 제작과정 중 장애 관객의 극장 접근성 확대를 위한 배리어프리 공연 시작. 이후 음성해설, 수어통역, 문자통역(폐쇄형, 개방형) 및 점자 리플렛 등을 포함한 장애관객 서비스 제공
2019-2020	공연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NFLIX)	코로나19로 인해 극장이 폐쇄되고 또 극장을 찾을 수 없는 관객과 극장의 지속가능한 소통환경 마련을 위해 기획된 프로젝트
2020	장벽 없는 온라인 극장: 베리어프리 공연 영상 상영	코로나19 장기화로 공연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면서 2020년 시즌프로그램 공연 4편을 장애인, 비장애인 관객 모두가 관람할 수 있는 배리어프리 공연영상으로 제작하여 송출.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해설 및 수어통역이 있는 영상과 시각 장애인을 위한 음성해설이 있는 영상 2가지 버전으로 제공

2009 남산예술센터 개관식

연극의 범위를 보다 확장하여 기존 창작 희곡을 기반으로 하는 창작 연극뿐 아니라 텍스트에 구애받지 않으며 새로운 시도와 실험정신을 담은 개념 기반의 창작 작품들이 선보이는 등 동시대 연극에 공존하는 새로운 공연 양식을 소개하며 극장의 역할을 확장해 갔다. 또한 사회적 참사, 블랙리스트, 예술계 내 성폭력, 사회적 소수자 등 한국 사회를 둘러싼 다양한 사회적 이슈와 현상을 담은 작품을 통해, 공공극장의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등 한국 연극사의 대체 불가능한 흔적을 남긴 공공극장으로 자리 잡았다.

남산예술센터 개관에서 폐관까지

남산예술센터 개관 당시에도 서울시와 소유주인 학교법인 동랑예술원 간의 문화사업계약의 '지속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실제, 2009년 이후 서울시와 학교법인 동랑예술원 간의 문화사업계약과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 간 위수탁 협약은 3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1차:2009년-2011년, 2차:2012년-2014년, 3차: 2015년-2017년, 4차:2018년-2020년), 연장해 오던 중 2018년 갑작스러운 연장계약 해지 통보를 받는다. 이후 이 사태에 대한 연극계 전반의 논의가 이어졌지만, 끝내 이렇다 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2020년 운영이 종료되었다.

남산예술센터의 소유주인 학교법인 동랑예술원은 2018년 1월 임차인인 서울시 측에 문화사업계약 종료 의사를 알려왔다. 하지만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이전에 통지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계약기간이 3년간 연장된 것으로 본다"는 문화사업계약에 따라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간 민간 위수탁협약(2018-2020)이 연장되었다. 2018년 새로운 극장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있던 남산예술센터는 이와 관련하여 현장 의견수렴을 위한 연극인 자문회의를 개최, 회의에 참석한 연극인들은 2009년부터 공공극장으로 운영되어 오던 남산예술센터의 일방적 운영 종료 통보에 대해 반발하며, 개인 500여명, 49개 단체의 서명을 통해 '공공극장으로서 드라마센터 정상화를 위한 연극인 비상대책회의'를 조직, 남산드라마센터의 역사성과 공공성 회복을 위한 문제제기를 이어갔다.

2018년 12월, 독립본부로 운영되어오던 남산예술센터와 삼일로창고극장을 지역문화본부 소속 팀으로 편제시킨 조직개편이 발표되고, 삼일로창고극장 운영위원회는 이 조직개편이 극장 운영의 독립성,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판단에 근거, 이에 대한 공개 항의문을 서울문화재단에 전달, 예술계에도 공개했다. 2019년 1월, **공공극장의 운영원리와 독립성·자율성 보장을 위한 긴급토론회**가 개최되고, 2019년 2월, '예술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향한 연속포럼, #1 문화예술 현장은 지자체(정책-행정-제도)와의 관계 속에서 독립성과 자율성을 어떻게 지속할 수 있을까?' 등 공공극장 운영에 대한 공적 논란이 지속된다. 이러한 공론화 과정에서 서울문화재단은 2019년 2월 현장 연극인들이 참여하는 **공공극장 운영 TFT**를 구성하기로 합의, 이후 재단은 '공공극장 운영 TFT' 권고안을 받아들여 극장운영조직은 2020년 다시 '극장운영실' 2팀제(기획제작팀, 무대기술팀)으로 전환, '공공극장 운영 TFT'는 **공공극장 특별운영위원회 준비단**으로 재단 내 극장운영에 관한 현장 의견 소통 거버넌스로서 활동을 지속했다.

더 보기
남산예술센터 아카이브

남산예술센터 주요일지

연월		주요내용
2008	07	서울시 남산드라마센터 창작공간 조성계획
	10	서울시, 동랑예술원 문화사업계약(2009-2011)
2009	06	남산예술센터 준공 및 개관
2011	10	서울시, 동랑예술원 문화사업계약(2012-2014)
2014	07	서울시, 동랑예술원 문화사업계약(2015-2017)
2015	06	남산예술극장 독립본부로 분리, 1본부 1팀(극장운영팀)
	09	남산예술극장 극장장 공개 채용
2017	05	남산예술센터(본관), 삼일로창고극장(분관) 통합운영
	12	서울시, 서울문화재단 남산예술센터 통합운영 위수탁협약(2018-2020)
2018	01	학교법인 동랑예술원 측 서울시로 문화사업계약 종료 의사 표명
	12	서울문화재단 지역문화본부 내 2개 팀으로 조직개편 (극장운영팀, 무대기술팀)
2019	01	공공극장의 운영원리와 독립성·자율성 보장을 위한 긴급토론회 개최
	02	예술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향한 연속포럼
	04	공공극장 독립성과 자율성을 위한 '공공극장 운영 TFT' 결성
	12	극장운영실로 분리, 1실 2팀(기획제작팀, 무대기술팀)
2020	04	서울문화재단 극장 운영 거버넌스, '공공극장 특별운영위 준비단' 활동
	05	공공극장으로서 드라마센터 정상화를 위한 연극인 비상대책회의 출범
	07	서울시와 학교법인 동랑예술원측에 문화사업계약 종료 통보
	12	서울시, 서울문화재단 위수탁협약 종료
		남산예술센터 제57회 동아연극상 특별상 수상
		남산예술센터 마지막 메시지를 담은 가로등 배너 게시

하지만, 2020년 7월 말 서울시가 학교법인 동랑예술원에 문화사업계약 종료를 통보함에 따라, 자동적으로 3년 단위 4차례 지속되어 온 서울시-서울문화재단 간 민간 위수탁 협약은 2020년 12월 31일로 종료가 결정되었다. 2020년 6월 임대계약 연장 및 종료 협의 만기 시점을 앞두고 2018년 이후 드라마센터 소유권 논쟁을 주도해 온 **공공극장으로서 드라마센터 정상화를 위한 연극인 비상대책회의** 등 현장 연극인들은 당시 서울시장 면담과 동랑예술원과 서울시와의 협상을 지속 요구하였으나, 서울시장 유고 사건 이후 별도의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계약종료 결정을 통보받았고, 2020년 12월 남산예술센터 운영이 종료되었다.

더 보기

국가자산 드라마센터, 그 행방을 묻는다 [문화+서울] 2018년 6월호

가로등 배너

2020년 12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 문을 닫는 남산예술센터는 좋은 공연을 선보인 연극계의 상징적 공간이자 ‘공공극장’이라는 화두를 던졌다”는 평가를 받으며 제57회 동아연극상 특별상을 수상하였고, 2020년 12월 21일, 연극인들이 자발적으로 SNS를 통해 ‘남산예술센터에게 보내는 마지막 메시지’를 수집, 12월 25일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남산예술센터 오르는 길(명동역 1번 출구 소파로)에 가로등 배너를 게시했다. 가로등 배너 제작과 기록을 위해 12명의 창작자들이 모금에 참여하였으며, 62개의 가로등 배너 메시지는 페이스북 ‘대학로 X포럼’ 등 SNS를 통해 공유되며, 남산예술센터 운영종료의 마지막을 알렸다.

공공극장과 공공성에 대한 화두 남겨

2008년은 공연예술계에 중극장 공연장이 대거 개관하던 시기였다. 아르코시티(현 대학로예술극장), 이해랑예술극장, 명동예술극장 등이 2008년에서 2009년 사이 개관하던 시기, 남산예술센터 역시 중극장 시대, 공공극장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개관했다.

2009년 개관작이었던 〈오늘 손님 오신다〉를 시작으로 2020년 〈왕서개 이야기〉와 〈휴먼푸가〉까지 12년 간 119개 극단과 총 200편의 작품을 제작했고, 3,074명의 예술가가 공연에 참여, 26만 3,015명의 관객을 만났다. 시절마다 주요한 이슈를 담아내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검열, 세월호, 미투, 성소수자, 장애인 등 문화적, 사회적 현안을 폭넓은 시선으로 다루며, 동시대의 현재성을 작품으로 기록해 왔다.

개관작 〈오늘 손님 오신다〉 연출 고선웅

남산예술센터의 가장 큰 흔적은 공공극장이 지닌 공공성이 무엇인가 하는 화두를 남겼다는 데 있다. 민감하지만 다루어야 할 사안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해왔고, 정치적 흐름에 치우치지 않는 견고함을 얻기 위해 현장 예술가, 관객들과의 소통과 협력의 방식을 개선하면서 획득된 경험은 ‘다양성’이라는 또 다른 모습으로 채워졌다. 더욱이 남산예술센터의 폐관 과정에서 드러난, 공공극장이 독립성과 자율성, 지속성을 갖기 위해서 어떤 과정들이 선행되어야 하는가를 고민하게 된 것 역시 또 다른 연극계의 자산으로 남아있다.

주요 수상 실적

2020년	동아연극상 특별상 - 남산예술센터
2015년-2020년	동아연극상 분야별 수상
	극단 이와삼 〈햇빛샤워〉 광자 역 김정민, 극단 바키 〈그녀를 말해요〉 이경성
	극단 골목길 〈모든 군인은 불쌍하다〉 박상봉
	극단 동 〈그믐, 또는 당신이 세계를 기억하는 방식〉 극단 신세계 〈파란나라〉
	극단 배다 〈왕서개 이야기〉
2021년 12월	과학기술장관상(방송장비)

2014 남산희곡페스티벌, 꼬드득

남산예술센터 무대

4.3.2.

간접지원

- 대학로연습실
- 남산창작센터
- 예술청 & 서울예술인지원센터
- 리스테이지 서울

대학로연습실

+ 2005-2022
÷ 서울연극센터팀

위치
종로구 동숭길 22 한석빌딩

개관일
2004년 12월 27일

시설현황
4개 공연연습실과 다목적실

공간구성
탈의실, 샤워실, 휴게실 등 부대시설

2004년 개관한 대학로연습실은 공연분야의 열악한 창작환경 개선 및 창작활성화를 위해 조성됐다. 예술창작의 중심지인 대학로에서 활동하는 공연예술단체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연습공간 문제를 해결, 저렴한 대관료의 연습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연습공간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켜주는 동시에 공연예술단체의 재정적인 부담을 완화하여 공연단체의 창작활성화를 돕는 간접지원의 일환으로 시행됐다. 2005년 운영을 시작한 이래, 연간 200여개 넘는 단체가 활용하는 대표적인 공공연습실로 운영되었으나, 시설 노후화 및 대학로 창작환경 변화, 임대차계약 종료 등에 따라 2022년 7월 운영을 종료했다.

문화예술 창작활동에 대한 간접지원

대학로연습실은 2005년에 민간 건물을 임차해 조성된 공간으로, 연극을 중심으로 한 공연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 4개의 연습실과 공연예술인의 의견과 정보를 나누는 담론의 장인 다목적실을 운영해왔다. 공연장이 밀집해 있는 대학로의 중심에 위치해 있어 접근성이 뛰어나 연습과 공연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었다.

서울연극센터 개관 이후 2009년부터 관리, 운영해왔던 대학로연습실은 사용시간에 비해 저렴하게 책정된 대관료, 교류·네트워킹·정책행사를 위한 세미나실 운영은 물론 다양한 편의시설 확충 및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대학로 활동 예술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2009년부터 대관운영의 체계화와 홍보에 중점을 뒀다. 공연단체들이 보다 쉽게 연습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학로연습실 운영 및 대관정보를 온·오프라인을 통해 전달하고, 관련단체 이력을 데이터베이스로 축적하여 대관관리 시스템의 전산화를 구축했으며, 이후 대학로연습실은 창작활동의 간접지원, 문화교류의 매개공간으로서 대관건수 및 활용도가 눈에 띄게 늘어난다.

연도	평균 대관율(%)		대관 건수
	연습실	세미나실	
2005-2008	80	55	200

연도	대관율(%)			대관건수	장르별 대관현황(건수)					
	연습실	세미나실	평균		연극	뮤지컬	무용	음악	세미나	기타
2009	94.5	58.1	87.2	340	84	58	27	5	85	81
2010	94.6	40.2	86.8	356	134	65	15	14	50	78
2011	95	48	88	418	147	58	9	9	72	123
2012	98	49	91	506	187	33	39	3	83	161
2013	99	37	88	430	134	79	21	1	100	95

대학로 연극지원 기능 강화

대학로연습실 2관

2014년부터 대학로연습실의 운영목표가 '효율적인 대관운영으로 대학로 연극지원 기능 강화'로 조금 구체화된다. 이를 위해 사용자 및 관리자의 편의성 향상, 대관 접수 및 승인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대관시스템 및 프로세스를 개선했다. 또한 연습실 시설 및 운영방향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수립을 위한 다각적인 의견수렴을 마련했다.

또 다른 변화는 2015년, 기존 세미나실을 다목적홀로 변경, 개선하면서 대관율이 19% 증가하는 성과가 있었다. 기존 세미나실 용도에서 각종 세미나, 행사, 워크샵 등은 물론, 대본리딩, 연극연습까지 가능한 공간으로 확장하고, 대관요금 현행화, 내부시설 개선을 통한 공연단체의 만족도를 향상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했다. 또한 이때부터 별도 운영되던 남산창작센터와 통합대관을 통해 예술단체의 편익을 높였다.

연도	대관율(%)			대관건수	장르별 대관현황(건수)						
	연습실	세미나실 (다목적실)	평균		연극	뮤지컬	무용	음악	전통	다목적	기타
2014	97	36	85	332	111	45	11	2	·	79	83
2015	99	55	90	268	83	26	16	1	1	124	48
2016	98	60	90	320	114	45	5	0	0	109	47
2017	98	54	89	293	87	29	6	0	0	99	72
2018	95.7	60.5	88.7	293	79	38	11	0	0	106	51
2019	98.6	58.2	90.5	335	111	29	10	0	0	139	46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발생된 코로나19 사태 이후, 공연예술계가 직격탄을 맞은 상황에서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이 어려웠던 시절, 2020년에서 2021년까지 대학로연습실은 전년대비 6개월밖에 활용하지 못했다. 또한 개관 이후 17년째 동일 공간을 운영하며 시설 전반이 노후화되고, 1998년 설계된 건물 특성상 안전의 취약점이 다수 발견되면서, 2022년 7월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 대학로연습실 운영이 종료됐다.

연도	대관율(%)			대관건수	장르별 대관현황(건수)						
	연습실	세미나실 (다목적실)	평균		연극	뮤지컬	무용	음악	전통	다목적	기타
2020	40	9.8	34	75	31	5	3	0	0	29	7
2021	62.6	-	-	24	23	1	0	0	0	0	0
2022	48.4	-	-	67	55	8	4	1	0	0	0

남산창작센터

+ 2007-2020
÷ 극장운영팀

남산창작센터 전경

남산창작센터는 1995년 체육관 시설인 테니스 연습장으로 활용되었던 공간을 2007년 문화시설로 용도를 변경, 뮤지컬, 연극 등 예술장르 공연자들을 위한 창작연습실로 운영해 왔다. 연면적 1,686㎡ 면적에 전용 연습실 3개, 음악연습실 3개와 물품보관소 등의 시설을 갖추었으며, 피아노와 최신 음향, 영상 장비를 구비하고 있었다.

특히 제1연습실은 무대면적만 315㎡로 공연 전용 연습실로는 당시 국내 최대 규모였으며, 2007년 개관 이후 〈명성황후〉, 〈노트르담 드 파리〉, 〈돈주앙〉 등의 뮤지컬과 〈라 트라비아타〉, 〈투란도트〉, 〈아이다〉 등의 오페라 외에 다양한 장르의 퍼포먼스나 중 규모 이상의 공연을 제작하는 연극단체의 활용도가 높았다. 2020년까지 14년 간 운영되었던 남산창작센터는 코로나19사태로 인한 공연계 침체시기와 더불어 시설노후화 문제로 운영이 중단되었고, 이후 사용 용도가 변경되면서 2020년 12월 운영이 종료됐다.

위치
중구 퇴계로 26가길 82

개관일
2007년 10월 10일

시설현황
1연습실 (315㎡), 2연습실 (165㎡), 3연습실(265.7㎡)

대형공연 전용연습실 조성을 통한 창작여건 개선

남산창작센터가 개관한 2007년 무렵, 국내 공연예술계에는 뮤지컬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었다. 예술의 문화산업적 측면이 강화되고 공연예술계 저변이 확대되던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대형 무대작품을 연습할 공간은 민간 시설에 한정돼 있었다. 예술단체를 직접지원하고 네트워크를 통한 교류협력 활동의 거점으로 창작공간을 조성하던 시기, 간접지원 방식의 일환으로 리모델링된 남산창작센터는 개관초기인 2007-2008년에도 평균 가동률이 85%를 차지할 만큼 예술단체들의 활용도가 높았다.

연도	평균대관율(%)	
	1연습실	2연습실
2007-2008	87	83

이후 시설개보수를 거쳐 3연습실을 새롭게 조성하고, 다양한 장르의 예술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충했다. 시설개선 및 대관심의절차 간소화, 심사를 통한 대관만족도 향상, 보유 장비 등을 보완하면서, 접근성이 다소 떨어지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2012년 99%, 2013년 94%, 2014년 96% 등 평균 대관율이 눈에 띄게 상승했다.

또한 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재단 내 사업과 연계(극장운영팀, 축제기획팀)하여 공간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면서 남산창작센터에 대한 예술단체의 인식과 인지도가 높아진 것도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연도	대관율(%)			대관건수	장르별 대관현황(건수)						
	1연습실	2,3연습실	평균		연극	뮤지컬	기타	오페라	무용	음악	전통
2012	99	88	99	34	3	28		3		1	
2013	88	97	92	51	5	37	3	1	5		
2014	93	100	96	56	8	35	9	1	2		

뮤지컬 및 오페라 외에 타 예술 장르의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2015년부터 또 다른 시도를 병행, 신진예술가의 공연예술 발표의 장으로 확대하는 한편, 시민과 소통하는 연습실 개방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특히, 2015년 뮤지컬 〈엘리자벳〉, 뮤지컬 〈오캐피〉 연습 당시 예술단체와 조율하여 연습과정을 시민들에게 개방, 공연예술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다각화했다. 연습실 장비 및 비품을 제공하여, 완성도 높은 공연의 작품 제작을 간접 지원하는 등 기존 단순 대관 공간에서 창작공간으로서의 사업 다양화를 모색하는 한편, 공연 홍보, 쇼케이스 촬영지원 등의 공연 지원 기능을 강화해 창작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

연도	대관율(%)			대관건수	장르별 대관현황(건수)						
	1연습실	2,3연습실	평균		연극	뮤지컬	기타	오페라	무용	음악	전통
2015	88	98	98	79	14	45	7	9	3	1	
2016	88	98	91.2	57	8	46	3				
2017	90	89	89.5	36	7	25	1		1	1	1
2018	89	96	92.5	31	8	22		1			
2019	90	84	87	32	3	27	1		1		
2020	84	89	86	21	7	12		1	1		

지난 2006년, 서울의 각 권역별 유휴 공공시설을 문화예술 창작시설로 전환하고, 예술인 레지던스 프로그램, 실험예술 창작소, 무대예술 아카데미, 뮤지컬, 연극 연습실, 아트뱅크 등의 다양한 창작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서울 창작클러스터 조성'의 일환으로 개관했던 남산창작센터는 2007년부터 2020년까지 공연예술단체의 창작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간접지원 공간으로, 대형 무대공연의 창작 과정에서 만나는 또 다른 파트너로서 운영된 주요 시설 중 하나다.

예술청 & 서울예술인지원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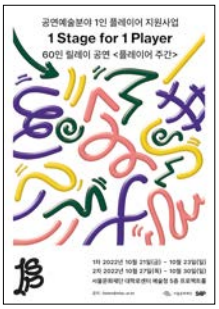
+ 2021-
÷ 예술청팀

위치
종로구 동숭길 122

개관일
2021.10.27.

서울예술인지원센터는 2016년 서울시에서 발표된 예술인지원종합계획 서울예술인플랜의 '예술청 조성계획'으로부터 시작됐다. 동숭아트센터를 리모델링해 민관 협치형 예술공유 플랫폼으로 출발한 '예술청'은 예술인 거버넌스 기반의 연결과 연대, 확장 플랫폼을 목표로 운영을 시작했으며 2023년부터 예술인들을 위한 통합지원 플랫폼의 기능으로 확대해 서울예술인지원센터로 운영되고 있다. 지속가능한 예술환경을 구축하고 예술인들을 서로 연결하는 공간, 예술인들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다양한 공동프로젝트를 시도할 수 있는 공간을 주요 방향으로, 예술인지원사업 및 일자리정보, 계약, 법률자문 등이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예술인 종합지원센터가 주요 목표였다.

2019년 예술청 기획단, 2020년 운영준비단에 이어, 2021년 공모를 거쳐 선임된 공동운영단을 중심으로 시작된 예술청의 주요업무는 예술인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매개사업', 코로나19 피해를 비롯한 예술가의 생존과 복지 문제를 다루는 '권익사업', 안전하게 창작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지원하는 '창작기반 조성사업', 다양한 현장의 이슈나 의제를 확장시키는 '공론화 사업', 지속적인 예술생태계의 기반을 알기 위한 '조사·연구 사업' 등을 시행했다. 특히 문화예술계 주요 의제를 발굴하고 논의하는 〈예술청 아고라〉, 공연예술분야 1인 실연자 대상 발표 공간 등을 지원한 〈1 Stage for 1 Player〉, 창작기반조성사업 〈예술거래 'A to Z'〉, 〈상상 가능한 거래〉 등을 추진하며 창작자와 향유자를 매개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2021-2022 예술청 주요사업

사업명	주요내용
예술청 창작소	예술청 공간 활용 창작, 실험 아이디어 발굴 및 실행 지원사업: 〈1 Stage for 1 Player〉, 〈텅-빈-곳: 새 집의 모양〉
예술청 아고라	문화예술계 주요 의제를 발굴하고 논의하는 공론장
예술인 통합상담지원센터	예술인 심리 상담, 법률컨설팅 제공
2022 1S1P 〈1 Stage for 1 Player〉	공연예술분야 1인 실연자 대상 발표 공간 등 지원
〈예술거래 'A to Z'〉 〈상상 가능한 거래〉	예술인 대상 예술거래 관련 정보제공 및 실행 아이디어 수렴('오픈포럼', '아이디어 공모전'으로 운영)

2023년부터는 개방성과 확장성을 보완하는 한편, 예술작품 중심 지원에서 예술인 지원으로 예술지원정책 방향이 확장, 전환되면서 '예술인 지원과 예술기반 지원' 기능을 강화했다. 특히 예술인 대상 법률·심리 상담, 각종 지원정보 제공 창구 운영, 예술인 공통역량교육, 발표공간 제공 등을 통해 서울 예술인의 실질적인 필요 충족을 위한 창작 안전망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맞춰 2023년 10월 서울예술인지원센터를 개관, 서울 예술인의 지속가능한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예술인 지원 플랫폼으로 새롭게 운영을 시작했다.

서울예술인지원센터

예술인 전용 대관공간으로 전시와 공연을 할 수 있는 '프로젝트룸', 강연과 워크숍이 가능한 '아고라', 소규모 회의를 위한 '미팅룸', 예술가 전용 공유오피스 등을 재구성했다. 또한 예술인 법률·심리상담, 생활기반 지원 협력사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공연 무대용품 공동이용 플랫폼 등의 서비스를 통합해,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필요한 다각적 요소에 대해 예술가 개개인의 필요에 따라 활용이 가능하도록 운영된다.

예술인 법률상담은 예술창작활동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에 관해 직접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노무사 등 전문가의 컨설팅을 제공받는다. 예술인 심리상담은 권역별 심리상담센터에서 전문 심리상담사와 개별 상담을 지원하며, 집단상담을 특화과정으로 운영한다. 예술인 생활기반 지원사업은 위기 상황 속 예술인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작품활동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장르별·분야별 전문기관과 긴밀히 연계해 진행하며, 앞으로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예술인 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는 장르별 전문가와 주제별 특강을 만날 수 있는 〈예술가의 인생수업〉, 〈주제별 세미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직업예술인으로서 자생력 강화를 지원하고 사회안전망 기반을 확대할 예정이다. 재단은 서울예술인지원센터를 통해 '예술인이 안정적으로 지속가능한 창작활동을 위한 서울'을 위하여 예술인의 삶(생활)과 창작활동 기반을 지원하는 '예술인 사회안전망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예술인지원센터 주요사업

생활기반 서비스	긴급지원	장르별 전문기관 간 협력을 통해 예술인의 생활 속 어려움을 해소하고 창작활동에 매진할 수 있는 예술인 기반 지원
	의료비 지원	예술인의 건강권 보장과 의료비(상해치료, 재활, 중증이상 질병 등) 부담 해소를 통한 안정적 창작 기반 조성
	학업 지원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을 지속하지 못하는 예술인에 대한 안정적 활동 지원
권익보호	법률상담	문화예술관련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노무사가 예술창작 활동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 저작권, 근로 및 노무, 세무·회계 등 다양하고 세분화된 법률 컨설팅 제공
	심리상담	예술창작 과정의 심리적·정신적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예술인의 다양한 내면의 어려움을 진단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전문 심리상담사와 개별 상담을 지원
	청소년심리상담	예술계 진입의 안정정착을 위한 청소년 예술인 대상 심리상담 시범사업 추진
자생환경조성	역량강화	예술인의 자생력과 직업 활동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장르별 전문가와의 만남, 장르분야별, 예술활동 전반에 필요한 법률(세무, 노무, 계약 등)등 주제별 특강 진행
정보서비스	예술지원정보 제공	재단 예술지원 정보 제공 및 예술인 상담창구 운영
공간지원	예술인 전용공간 대관	창작실험, 워크숍, 네트워킹, 전시, 발표 등 정시/수시 대관 운영
	열린공간 운영	예술가, 향유자, 매개자 등이 함께 하는 편의공간, 기획전시 및 문화향유 콘텐츠 운영

Re:Stage Seoul
(리스테이지 서울)

+ **2023-**
÷ **무대기술팀, 무대기자재공유센터**

위치
서울시 성동구 성수일로 111
선명스퀘어 지하2층

개관일
2023년 5월(시범운영)
2023년 12월 20일(정식운영)

운영시간
평일 10:00-17:00,
토요일 및 공휴일 휴무

누리집
www.restageseoul.or.kr
@restageseoul

문의
02-758-2163
(사전 예약 후 방문)

공연물품 공유 플랫폼 'Re:Stage Seoul(리스테이지 서울)'은 공연물품을 공유하고, 재사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익 목적의 플랫폼이다. 'Re:Stage Seoul'이라는 명칭은 '재공연하다'라는 'restage'라는 뜻과 '다시', '재생'을 의미하는 'Re'와 공연이 진행되는 'Stage'를 결합했다. 한번 쓰고 버려지는 무대 용품을 최소화하고, 공연예술계의 자원순환을 실천함으로써, 공연 물품이 다시 무대에 설 수 있게 재사용한다는 '공유'의 뜻을 담아 조성됐으며, 공연이나 연습 과정에서 필요한 의상과 소품 등을 대여할 수 있다.

Re:Stage Seoul(리스테이지 서울)은 공연 기자재, 공동이용 창고 조성을 통한 친환경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2021년부터 서울시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2022년 '무대 곳-간'이라는 이름으로 시범사업을 시작, 2022년 8월 성수동에 공연 의상과 소품 등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공연단체로부터 물품 1,800여 점을 위탁받았다. 2023년 서울문화재단으로 사업이 이관되었고, 2023년 홈페이지를 개편해 2024년부터 정식 운영한다.

공연이 예정되어있는 창작자 누구나 연습 및 공연의 목적으로 물품을 대여할 수 있으며, 대여 서비스는 유료로(일부 물품 무료 대여 가능) 운영된다. 전화나 메일을 통해 방문 예약 후 직접 물품을 보고 대여할 수 있으며, 물품의 최대 대여기간은 30일이다. 수량에는 제한이 없으나, 대여와 반납은 모두 오프라인 창고에서 직접 방문으로 진행된다. 공연창작자는 공연 물품을 저렴한 가격에 빌려서 사용하고, 공연 후 보관이 어려운 물품의 보관 및 관리를 위탁할 수도 있다. 2024년 하반기에는 서울연극창작센터로 이전하여 창작자들 더 가까이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리스테이지 서울 이용안내
대여하기: 대여물품 검색부터 예약·결제까지
위탁하기: 위탁물품 신청 후 보관·공유
Re:마켓: 개인·단체별 물품 등록 판매·대여·나눔 방식으로 회원 간 직거래

대여 소품

리스테이지 서울 창고 전경

SECTION 5

CULTURE

문화

5.1.

축제

2004년 설립된 서울문화재단이 예술지원과 함께 일상에서 누리는 문화예술의 가치 확산을 위해 시절마다 다른 이름으로 확장해 왔던 문화예술축제는 재단이 어떻게 예술가와 시민을 만나왔는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주요 활동 중의 하나다. '시민의 자발성'이라는 주요 키워드는 시민들과 함께 서울을 대표하는 축제가 어떤 모습으로 형성되어야 하는가를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고, 재단 설립부터 시작한 하이서울페스티벌에 이어 서울거리예술축제,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아트페스티벌 서울로 연계되어 동시대의 시민문화를 확장하고 있다. 축제는 그 어떤 분야보다 어떻게 지속성을 만들어 갈 수 있는가에 따라 완성도가 달라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독창적이고 참신한 콘텐츠를 가지고 있더라도, 축제를 운영할 수 있는 예산과 조직, 인력, 동시대의 화두를 공유하고 확산할 수 있는 현재성이 발견되지 못할 때 생명력을 이어가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 20년 동안 재단이 지속 가능한 기반을 형성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이어간 이유도 이와 같다. 축제 활성화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인프라의 확장은 서울예술축제의 다양성을 만들어 가는 또 다른 초석으로 자리하고 있다.

5.1.1.

예술축제

- 하이서울페스티벌
- 서울거리예술축제
- 고궁뮤지컬
- 서울빛축제
- 청계천축제
-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
- 아트페스티벌 서울
- 한강노들섬클래식

배경

재단의 축제사업은 2003년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했던 '하이서울페스티벌'을 2004년 재단설립 이후 '시민참여형 종합축제'로 운영하면서부터 시작됐다. 2002년 시청광장과 광화문 일대에서 치러진 '월드컵 거리응원'이 축제성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바꿔버린 이후, 재단 역시 '시민의 자발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축제를 새롭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행정기관에서 개최하는 보여주기식 축제의 태생적 한계를 전문 축제로 브랜드화해야 한다는 인식이 생겨난 것도 이때부터다. 2004년 축제의 공동주체로 **하이서울페스티벌 시민모임**이라는 민간 거버넌스를 조직, 시민과 함께 축제를 기획하며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높이고자 했던 노력은 예술가와 시민들의 새로운 파트너십을 만들며 축제의 외연을 확장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이후 축제전문가를 통한 브랜드화는 물론, 일상 문화의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거리예술축제의 성공은 시절에 적합한 문화예술의 대중화를 고민해 왔던 축제의 과정을 엿볼 수 있다.

2008년 사계절 축제로 확장된 하이서울페스티벌은 봄 궁축제, 여름 한강축제, 가을 예술축제, 겨울 빛축제로 주제를 달리하며 운영되었고, 하이서울페스티벌과 연계한 **서울빛축제** 역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서울광장 일원에서 개최되며 새로운 시도를 선보였다. 2007년부터 2012년까지 개최된 고궁뮤지컬 프로젝트는 경희궁 일대의 고궁을 활용, 서울의 특수한 역사적 자원을 문화공간으로 환원하는 것과 동시에 국내외에 '서울문화재단'이라는 브랜드를 인식시켰던 중요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또 다른 의미로 협업하고 확장된 축제들도 있다. 2006년 '청계천축제'로 시작돼 2008년 명칭을 바꾼 이후 2012년까지 개최되었던 **청계천 예술축제**는 거리예술가들은 물론 시민들이 참여 주체로 활동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거리예술가 지원을 통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다양한 방식의 공간 및 제작 기회를 제공했던 축제로서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하이서울페스티벌 기간에 함께 운영되기도 했다.

실내악 저변을 넓히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부터 시작된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 역시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대표적인 축제프로그램이다. 재단과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 조직위원회가 2012년까지 함께 개최한 실내악 페스티벌로 다소 어렵고 힘들다는 클래식 장르에 대한 편견을 상쇄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 조직위원회에서 2013년부터 독립적으로 운영하며 역량을 키워가고 있다.

재단 축제사업의 또 다른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는 시기는 2013년부터 진행된 '서울거리예술축제'로의 변모다. 2012년 '도심형 축제'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방향으로 '거리예술'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 하이서울페스티벌에는 공간특화형, 시민참여형 작품 등 다양한 거리예술 프로그램들을 선보였다. 2013년 '축제조직위원회'가 구성되고 2015년까지 약 2년간 '거리예술'을 중심으로 예술의 확장을 시도한 이후 2016년, 13년간 브랜딩 되었던 '하이서울페스티벌'이라는 이름을 '서울거리예술축제'로 개칭하여 새롭게 출발했다. 해외 예술가와의 교류를 통한 공동제작, 국내 예술가의 창작을 지원하는 등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은 물론 국내 단체가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등 새로운 변화를 시도했다.

2015년 거리예술 지원 공간인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가 개관, 창작지원 외 연습, 제작, 교육, 교류 등 거리예술 활성화에 필요한 특화된 선순환 구조가 마련되었다는 것 역시 주요 변화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2022년부터 서울문화재단이 제시한 새로운 축제의 방향성은 연간 상시 즐길 수 있는 문화의 일상화다. 여기에 거리예술, 공연예술, 생활예술, 융합예술 등 재단에서 운영하는 특화된 예술축제를 하나로 묶어 **아트페스티벌 서울**이라는 새로운 통합 브랜딩을 내세웠다. 단순히 재단 축제를 결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계절 내내 서울시민과 서울을 찾는 관광객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예술축제를 선보임으로써 서울의 문화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데 목적이 있다.

봄에 개최되는 서울서커스페스티벌을 필두로, 여름에는 서울비댄스페스티벌(옛 서울비보이페스티벌), 가을에는 서울생활예술페스티벌, 서울거리예술축제, 한강노들섬클래식, 겨울에는 서울융합예술페스티벌 등의 다양한 예술축제를 통해 국내 순수예술의 확장성은 물론,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문화도시 서울의 새로운 비전을 담고 있다.

서울문화재단 축제 변화 과정

<table>
<tr><td>2004</td><td rowspan="4">하이서울페스티벌</td><td rowspan="4"></td><td rowspan="3"></td><td rowspan="3"></td><td rowspan="3"></td></tr>
<tr><td>2005</td></tr>
<tr><td>2006</td></tr>
<tr><td>2007</td><td rowspan="2">서울빛축제</td><td rowspan="3">청계천축제</td><td rowspan="3">서울 스프링실내악 축제</td><td rowspan="3">고궁뮤지컬</td></tr>
<tr><td>2008</td><td>하이서울페스티벌 사계절 축제</td></tr>
<tr><td>2009</td><td rowspan="7">하이서울페스티벌</td><td rowspan="13"></td></tr>
<tr><td>2010</td></tr>
<tr><td>2011</td></tr>
<tr><td>2012</td></tr>
<tr><td>2013</td><td rowspan="3"></td><td rowspan="3"></td><td rowspan="3"></td></tr>
<tr><td>2014</td></tr>
<tr><td>2015</td></tr>
<tr><td>2016</td><td rowspan="6">서울거리예술축제</td></tr>
<tr><td>2017</td></tr>
<tr><td>2018</td></tr>
<tr><td>2019</td></tr>
<tr><td>2020</td></tr>
<tr><td>2021</td></tr>
<tr><td>2022</td><td colspan="5">아트페스티벌 서울</td></tr>
<tr><td>2023</td><td colspan="5">(서울서커스페스티벌, 서울비보이페스티벌, 서울생활예술페스티벌, 서울거리예술축제, 한강노들섬클래식, 서울융합예술페스티벌)</td></tr>
</table>

하이서울페스티벌

+ 2004-2015
÷ 축제팀

2003년 1회는 세종문화회관에서 주관했고, 2004년 2회부터 서울문화재단이 주관단체 역할을 맡았다.

재단의 시작과 함께 한 **하이서울페스티벌**은 서울광장을 주요 공간으로 시민이 축제의 주인공이 되고 국내외 관광객이 함께하는 종합문화축제를 지향하면서 출발했다. 축제 1기라고 말할 수 있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광장문화의 태동이라고 할 수 있는 공간의 확장은 시민들의 일상 공간을 문화예술을 만날 수 있는 만남과 관계의 장소로 확장시켰다. 서울광장을 중심으로 이뤄지던 페스티벌은 서울 동서남북으로 개최 장소를 넓혔고, 남산, 북한산, 서울숲, 월드컵경기장, 한강 등으로 공간이 확대되는 등 이전과는 또 다른 역동성을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기간	장소	테마	내용	행사주최
2003. 5.24.-5.25. (2일간)	시청앞, 태평로, 세종문화회관 등	서울을 열자 서울을 담자 (Open Your Seoul)	하이서울페스티벌 시민문화형 종합축제	하이서울페스티벌 시민모임, 서울특별시, 한국관광공사
2004. 5.1.-5.9. (9일간)	서울광장, 태평로, 월드컵공원, 고궁 등	Refreshing! Exciting! Dynamic! (RED)	어울림을 컨셉으로 한 종합축제	
2005. 4.30.-5.5. (6일간)	서울광장, 월드컵공원, 명동, 고궁 등	서울마니아 & GreenSeoul Mania	우리 신명을 주제로 서울마니아를 위한 축제	
2006. 5.4.-5.7. (4일간)	서울광장, 태평로, 청계천, 명동 등	서울마니아! 서울人, 서울in	서울광장에서 펼치는 친환경 축제	서울특별시, 서울문화재단
2007. 4.27.-5.6. (10일간)	한강시민공원, 시청 앞, 태평로, 청계광장, 북촌, 서울숲 등	전통과 미래가 하나되는 미라클 서울	왕실이 재현되는 고궁, 세계와 만나는 서울광장, 예술이 흐르는 한강 축제	

또 다른 주요 변화 중 하나는 2008년 사계절 축제로의 확장이다. 봄 궁축제, 여름 한강축제, 가을 예술축제, 겨울 빛축제 등 계절별 각기 다른 테마와 주제로 운영되었다. 시민들과의 만남과 소통을 넘어 축제 콘텐츠에 대한 고민이 확장되던 시기, 재단은 예술감독제로 시스템을 개편하고, 축제의 주제성을 명확하기 위해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참여시켰다. 연중 상시 개최되는 사계절의 특색 있는 프로그램은 페스티벌의 고유한 색깔을 만들기 시작했고, 새로운 장소성의 발견은 하이서울페스티벌이 특성 있는 축제로 변모시켰다.

그 중하나가 궁축제로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궁(宮)'의 이미지를 전환하는 역할을 했다는 평을 받았다. 경복궁에서는 세종대왕 즉위식 재현행사 〈세종, 용상에 오르다〉가 열렸고, 궁중 탈놀이 〈대나의〉를 최초로 복원하며 시민들이 원형 복원된 2000여 개의 서울 탈에 직접 색칠하여 착용하는 프로그램도 운영됐다. 창덕궁에서는 명인명창의 〈천년만세〉가, 창경궁에서는 역사적 인물이 등장해 궁궐의 일상과 체험을 들려주는 〈동궐실록, 궁중광대와

놀다〉와 같은 프로그램이 운영돼 시민들의 관심을 끌었다. 석조전이 있어 가장 근대화되었다고 여겨지는 덕수궁에서는 퓨전 콘서트 〈퓨전, 아름다움으로 만개하다〉를 비롯해 전통의 소리와 미디어아트가 접목된 〈미디어아트, 전통을 깨우다〉, 경희궁에서는 고궁뮤지컬 〈명성황후〉와 시립교향악단의 고궁 음악회가 개최되기도 했다.

2009년 하이서울페스티벌은 5개 궁궐과 청계천, 서울광장 등에서 궁축제로 이어졌다. '개막 길놀이', '기억-다섯 가지 궁궐 이야기', '희망-오월의 궁', '나눔-나눔 청계천'의 4가지 콘셉트를 중심으로 한 공연과 시민참여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 '개막 길놀이'인 〈꽃분홍길〉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행사로 진행됐으며, '기억-다섯 가지 궁궐 이야기'는 경복궁, 창경궁, 창덕궁, 덕수궁, 경희궁의 서울 5대 궁에서 진행되었고, 〈세종대왕 이야기〉, 〈궁궐의 하루〉, 〈고종 근대를 꿈꾸다〉, 뮤지컬 〈대장금〉 등 궁궐의 일상을 주제로 각종 전시와 공연을 통해 기존 전통적인 '궁'이 가지고 있는 닫히고 권위적인 이미지를 탈피, 축제의 공간으로 발전시켰다는 평을 받았다.

이러한 긍정적 변화는 2010년 '시민참여형 공연예술축제'를 지향하며 더 구체적으로 확장된다. 바로 예술의 대중화다. 축제와 공간의 연계를 통한 예술의 대중화는 예술을 향유하는 시민들의 진입경로를 넓히고, 일상에서 언제든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고민이 모아졌다. 예술의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일상 공간 속에서 다양화 될 수 있는 방식으로 대두된 것이 바로 넌버벌과 거리예술의 확장이었다.

기간	장소	테마	내용	행사주최
2008. 5.4.-5.11. (8일간)	서울광장, 청계천, 5대 궁궐	봄_ 궁축제 여름_ 한강축제 가을 _예술축제 겨울_ 빛축제	서울 전역에서 펼쳐지는 사계절 축제	서울특별시, 서울문화재단
2008. 8.9.-8.17. (9일간)	한강공원 (여의도, 선유도, 뚝섬 등)			
2008. 10.3.-10.25. (23일간)	서울광장, 청계광장, 서울 도심			
2008. 12.19.-2.15. (31일간)	서울광장, 청계천 등			
2009. 5.2.-5.10. (9일간)	서울광장, 5대 궁궐, 청계천	서울의 봄, 희망으로 피다	궁을 배경으로 한 궁축제	
2010. 10.2.-10.10. (9일간)	한강공원 및 서울도심 일대	서울의 몸짓, 세계의 몸짓	넌버벌 퍼포먼스 몸짓, 소통 축제	
2011. 5.5.-5.10. (6일간)	여의도 한강공원 및 도심 광장	봄을 부르는 몸짓, 봄짓		

2012년부터 하이서울페스티벌은 거리예술을 중심으로 한 콘텐츠로 확대되기 시작했다. 언어와 소통의 장벽 없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넌버벌 퍼포먼스부터 대중과의 소통이 중요시되는 거리예술 통해 예술가와 관객의 경계를 무너트리는 새로운 축제성은 다각적인 정책과 환경변화를 통해 공고해졌다. 2012년 구의취수장 공간 활용에 대한 의견수렴이 시작되고, 현재의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2015년 개관)를 조성하는 방향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기도 했다.

2013년부터 '축제조직위원회'가 구성돼 페스티벌을 직접 주관하며 독립성을 확보하는 한편, 3년간의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예술감독을 위촉해 전문성을 강화한 것은 물론, 거리예술 전문가 양성 및 거리예술시즌제 사업을 신설하여, 거리예술 작품의 창작 및 전문가양성 과정을 지원하는 거리예술 활성화사업이 2014년부터 운영되는 등 거리예술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 이후 2016년, **하이서울페스티벌**은 **서울거리예술축제**로 축제명을 개칭했다.

기간	장소	테마	내용	행사주최
2012. 10.1.-10.7. (7일간)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및 도심 일대	도시를 움직이는 몸짓	도시를 움직이는 몸짓을 주제로 한 축제	서울특별시, 서울문화재단
2013. 10.2.-10.6. (7일간)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및 도심 일대	거리에서 놀자	길에서 놀자라는 주제를 담은 거리예술축제	서울특별시, 서울문화재단, 축제조직위원회
2014. 10.1.-10.5. (5일간)	서울광장, 시민청, 서촌, 도심일대	거리에서 놀자		
2015. 10.1.-10.4. (4일간)	도심 광장,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역, 시민청 및 도심 일대	길에서 놀자		

다양한 변화의 시기를 맞이했던 하이서울페스티벌의 주요성과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공간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시켰다는 것이고, 둘째는 그 공간을 채울 **주제성**으로 담론을 확장시켰다는 점이며, 마지막으로는 그렇게 확장된 페스티벌을 어떻게 **대중화**시킬 수 있는가 하는 고민을 열었다는 데 있다. 재단설립 이후 2004년부터 2015년까지 다양한 모습으로 변주하며 고유의 색깔 찾기를 시도했던 하이서울페스티벌이 남긴 성과와 문제의식은 중요한 화두를 남기며 서울거리예술축제로 이어졌다.

2004-2013 관람객 및 예산 현황

연도	관람인원(단위, 만 명)	축제예산	연도	관람인원(단위, 만 명)	축제예산
2004	160	16	2009	181	30
2005	202	15	2010	189	35
2006	130	15	2011	176	15
2007	445	24	2012	133	29
2008	(사계절 축제 운영) 1,099	(빛축제 17억 포함) 102	2013	110	16

2009 하이서울페스티벌

2009 하이서울페스티벌

2011 하이서울페스티벌

2012 하이서울페스티벌

2006 하이서울페스티벌

서울거리예술축제

+ 2016-
÷ 축제기획팀

하이서울페스티벌을 전신으로 하는 **서울거리예술축제**(Seoul Street Arts Festival)는 다양한 장르의 예술작품을 서울광장 일대에서 만나볼 수 있는 재단의 대표 축제로 성장했다. 쉽게 보기 어려운 대형작품부터 대중성 있는 거리예술, 서커스, 미디어아트, 사운드 등 예술적 상상력이 결합된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중심으로 2016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9월-10월 사이 개최되고 있다.

기간	장소	테마	내용
2016. 9.28.-10.2. (5일간)	플랫폼창동61, 길음뉴타운, 서울광장 및 도심 일대	서울 도시공간의 재발견	일상과 예술의 경계를 허물고, 도시와 예술의 만남을 꿈꾸는 거리에서 펼쳐지는 놀라운 상상
2017. 10.5.-10.8. (4일간)	서울로7017, 문화비축기지, 무교재생공간 및 도심 일대	유쾌한 위로	무심코 지나치던 거리에서 발견하는 예술경험
2018. 10.4.-10.7. (4일간)	서울광장 및 도심 일대	따로, 또 같이	따로 또 같이, 거리에서 만나는 예술 체험
2019. 10.3.-10.6. (4일간)	서울광장 및 도심 일대	틈	시간의 틈, 고여있는 기억에 관한 축제
2020. 9.18.-10.4. (공연취소)	서울도심 (종로, 을지로)	낯선, 일상	거리예술축제 국제포럼 추진
2021. 11.10.-11.14. (5일간)	노들섬, 문래동 및 도심 일대	사라지는, 살아나는	상실과 전환에 관한 주제로 사라지는, 살아나는 것들에 대한 축제
2022. 9.30.-10.2. (3일간)	서울광장 및 노들섬 일대	당신과 나의 거리	당신과 나의 거리를 주제로 멀어진 거리를 회복하는 축제
2023. 9.29.-10.1. (3일간)	서울광장, 청계광장, 무교로 일대	원	예술이 거리로 나왔던 근원을 탐색하고, 코로나 시기가 끝난 후 축제의 원점을 함께 고민함

'서울 도시 공간의 재발견'이라는 테마로 개최된 2016년, 도심 광장 중심에서 마을의 일상 공간(도심재생지, 동네, 시장)으로 축제 프로그램이 찾아가는 방식을 추진하며 **시민참여형** 축제로의 확장을 모색했다. 2017년에는 참여방식의 다양화를 통해 '시민주도형 축제'로 확장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등 시민들의 일상 문화를 확장하는 예술축제로서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특히 새롭게 발굴한 도심 재생 공간 등의 공간 활용 확대와 공간에 맞는 작품 구성을 통해 거리에서 발견하는 예술 경험의 다양성을 꾀했으며, 축제가 개최되는 4일간 100만 명이 넘는 관객이 찾을 만큼 축제의 인지도와 관심이 증폭되기도 했다.

2018년 '따로, 또 같이'라는 테마를 주제로 시민과 예술가들의 협력을 통한 주제공연을 구성, 다양한 시민 예술가들이 대규모로 참여하여 시도한 공동체 예술의 모델을 제시하는 등 축제의 외연을 확장하는 시도를 이어가는 한편, 2019년에는 거리예술 분야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확장된 영역의 다양한 작품을 초청하여 창작과 유통의 거점으로서 거리예술축제의 다음을 화두로 던졌던 것 역시 주목할 만한 성과 중의 하나다.

시민들의 밀집도가 높은 축제였던 만큼, 2020년 1월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개최 20여 일을 앞두고 계획된 공연을 전면 취소하는 상황을 맞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 포럼 추진, 축제 콘텐츠 기록 및 공연단체 홍보 지원을 위한 아카이빙 책자를 제작하여 배포하면서 숨 고르기에 들어간 이후, 2021년 노들섬과 문래동, 도심 일대에서 '사라지는, 살아나는'이라는 주제로 축제를 개최 온/오프라인 프로그램을 병행하며 팬데믹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페스티벌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남기기도 했다.

2022년부터 '당신과 나의 거리'라는 주제로 새롭게 시작된 축제는 '회복'이라는 키워드에 맞춰 시민들과의 새로운 관계맺기를 시작하는 등 아시아의 대표적인 거리예술축제라는 목표를 이뤄가기 위한 새로운 항해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거리예술축제 추진 개요

	프로그램	관람인원	사업예산(단위, 백만원)
2016	총 47개 작품, 126회 공연	753,730명	1,600
2017	총 48개 작품, 151회 공연	1,322,343명	1,600
2018	총 46개 작품, 161회 공연	880,695명	1,700
2019	총 42개 작품, 174회 공연	920,109명	1,800
2020	'서울거리예술축제 2020 포럼' 진행	(온라인) 3,498명	1,800
2021	총 30개 작품, 215회 운영 - 대면 및 비대면 통합	253,149명	1,400
2022	총 30개 작품, 81회 운영	117,357명	1,700
2023	총 36개 작품	201,537명	2,300

2018 서울거리예술축제 개막작 따로또같이

2023 서울거리예술축제

고궁뮤지컬

+ 2007-2012
÷ 문화사업팀

재단에서는 2007년부터 경희궁 일대의 고궁을 활용하여 창작 뮤지컬 개발 및 공연 시설 인프라 구축을 통한 공연 브랜드 구축을 목적으로 '고궁뮤지컬'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서울의 특수한 역사적 자원을 문화공간으로 재탐색한 프로그램으로 공모를 통해 국내 창작 뮤지컬 중 우수 작품을 선정하고, 고궁이라는 공연 공간에 맞게 각색하여 운영되었다.

2007년 봄 〈화성에서 꿈꾸다〉와 가을 공연 〈공길전〉 등이 총 9회 무료 공연으로 13,300여 명(외국인 982명)이 관람, 92%의 객석점유율을 기록하며 성공적인 시작을 보였던 이후 2009년부터 '고궁을 무대로 한 뮤지컬'로 사업명을 바꿔 서울시 위탁사업으로 2012년까지 추진했다. 2008년 창작뮤지컬 〈명성황후〉와 〈대장금〉이 41회 공연에 35,606명(외국인 2,272명)이 관람, 티켓이 조기 매진돼 연장공연을 진행하기도 했다. 서울시 문화예술행사 시민 만족도 및 현장평가단으로 운영된 종합평가에서 평가 사업 중 1등을 차지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보여줬던 사업이기도 했다. 2007년부터 2012년까지 6년간, 총 133회 공연에 112,013명이 관람했다.

고궁뮤지컬 프로그램 운영 현황

구분	공연명	공연내용	공연회차 | 관객수 (유료)
2007	〈화성에서 꿈꾸다〉	정조대왕의 꿈과 사랑을 그린 대형 역사 뮤지컬	5.4.-5.6. 3회 공연 | 6,000명(무료공연)
	〈공길전〉	영화 "왕의 남자"로 알려진 '爾'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새롭게 뮤지컬로 제작	10.12.-10.17. 6회 공연 | 8,350명(무료공연)
2008	〈명성황후〉	국내 대표 창작 뮤지컬 명성황후의 최초의 야외 공연	5.4.-5.13. 9회 공연 | 13,459명(10,767명)
	〈대장금〉	드라마 "대장금"을 새롭게 야외 뮤지컬로 제작	9.5.-10.12. 32회 공연 | 22,147명(11,408명)
2009	〈대장금〉		5.1.-5.24. 20회 공연 | 15,738명(9,733명)
2010	〈대장금〉		5.1.-5.26. 21회 공연 | 16,664명(9,733명)
2011	〈왕세자 실종사건〉	조선의 어느 날 밤, 왕세자가 실종되며 벌어지는 이야기	9.1.-9.21. 20회 공연 | 13,226명(6,313명)
2012	〈천상시계〉	15세기 최고의 과학기술자 장영실의 파란만장한 삶을 노래한 뮤지컬	9.5.-10.1. 22회 공연 | 16,429명(3,963명)

2008 고궁뮤지컬 대장금

서울빛축제

+ 2007-2009
÷ 축제팀

서울빛축제는 서울시와 재단이 공동주최한 행사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서울광장과 청계천 일원에서 개최돼 총 1,234만 명의 관객이 다녀간 페스티벌이다.

2007년에 처음 개최된 서울빛축제의 주제는 '하이서울 루체비스타'다. 이탈리아의 빛 조형물 프론토네와 스팔리에라를 비롯하여 다양한 빛의 작품들이 전시돼 시민들에게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광화문-청계천-서울광장으로 이어지는 서울 도심을 빛으로 물들여 시민들에게 새로운 도심 축제의 즐거움을 선보였다.

2008년 하이서울페스티벌 겨울 빛 축제로 개최된 '순백의 겨울, 순수의 서울'은 LED 조명을 활용한 전시로 이목을 끌었다. 은백의 스크린, 눈꽃과 동심원 문양의 조명, 디지털 꽃, 소망트리 등의 다양한 작품들을 선보였으며, 에너지 절약과 미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했다는 평을 받기도 했다.

2009년 선보인 '빛으로 행복한 도시 서울'은 미디어아트, 빛 전시, 스케이트장, 새해맞이 카운트다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였고, 국내외 정상급 미디어 아티스트들이 연출한 초대형 미디어파사드가 세종문화회관, KT 건물 등에 전시되었다. 서울의 역사와 문화, 기술과 창의력, 현재와 미래를 빛으로 표현한 서울형 빛 축제로 백남준의 미디어아트 '프랙탈 거북선'이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 전시되기도 했다. 국내기술을 활용하여 아트+테크놀로지를 구현한 서울형 빛 축제를 개발하고 국내외 미디어 작가의 참여를 통해 예술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구분	기간	장소	테마	주요 프로그램
2007	12.6.-'08.2.10. (66일간)	서울광장, 청계천	하이서울 루체비스타	이탈리아 빛 조형물 프론토네, 스팔리에라 설치
2008	12.19.-'09.1.18. (30일간)	청계광장	순백의 겨울, 순수의 서울	은백의 스크린, 순백의 연못, 약속의 기둥
2009	12.19.-'10.1.24. (37일간)	광화문광장	빛으로 행복한 도시 서울	백남준의 프랙탈거북선, 미디어파사드, 빛의 심포니

2008 서울빛축제

2009 서울빛축제

청계천축제

+ **2006-2012**
÷ **문화사업팀**

2012 청계천축제

2003년 7월부터 시작된 서울시의 청계천 복원사업이 2005년 완료되면서 22개 '문화의 다리'와 청계광장을 비롯해 광통교 위, 우당교 아래, 두물다리 부근 등이 다양한 문화공간으로 새롭게 조성, 청계천 복원 1주년을 맞은 2006년부터 **청계천축제**가 개최됐다.

2006년 국내 젊은 조각가와 설치미술가와 해외 작가의 작품을 포함한 총 40점의 전시를 담은 '청계천 미술제'로 출발한 청계천축제는 '환경과 인간'이라는 화두로 진행됐다. 복원을 통해 도로 아래 어두운 공간으로 묻혔던 옛 다리들이 드러나면서 사라졌던 역사가 살아나고, 폐수가 흐르던 청계천이 생태적으로 다시 부활했다는 의미를 함축, 청계천의 역사를 되새기고 환경의 소중함을 공유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2007년부터는 문화예술, 디지털/산업, 환경/역사, 시민참여 등의 다양한 테마를 지닌 도심 축제로 운영된다. 청계천 시민 걷기대회, 청계천민속놀이, 거리예술제, 디지털영화상영 등 직간접적 시민참여형 프로그램 등을 선보였다. 2008년부터는 '청계천예술축제'로 이름을 바꿔 운영하기 시작했다. 단순히 눈으로 보고 즐기는 수동적 축제성에서 탈피, 예술적 경험을 함께 나누는 과정을 통해 시민들이 직접 만들어 가는 참여자 주체의 축제를 지향했다. 이 시기에 진행된 대표적인 시민참여형 프로젝트는 〈청계천 소망의 달 만들기-청계의 밝〉, 〈시민들이 완성하는 청계 산수〉, 〈아트마켓〉, 〈청계장인 꿈의 프로젝트〉 등으로 구성되었다.

타 축제와 차별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청계천의 지역성을 대표하는 청계천 상인의 축제 참여를 독려하고, 청계천상인연합회로 축제 조직위원회를 구성, 산업과 예술의 협업과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성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특히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하이서울페스티벌 기간에 축제를 개최하여 홍보 등의 효과를 높였다.

2010년 청계천이라는 특수한 공간을 배경으로 진행된 설치미술 〈오색찬란〉, 2011년 22명의 작가가 참여한 설치미술전 〈모천회귀〉는 한국을 떠나 해외에서 활동하는 작가들과 국내 작가가 함께한 전시로 주목받았다. 2012년 청계천을 통해 과거의 서울을 기억하고 오늘의 모습에 주목하며 내일을 기원하자는 의미를 담아 '파란만장'을 주제로 나눔, 기억, 역사, 유랑, 거리만장이라는 다섯가지 테마를 구성하였으며, 시민들이 직접 참여한 대규모 마임공연 〈풍경2012-천변천변〉은 약 90여 명의 시민 참가자들과 예술가들이 사전 워크숍을 통해 준비한 공연으로 주목받았다. 축제가 진행된 7년 동안 538만 명의 시민들이 관람하는 등 청계천 축제는 도심 축제의 또 다른 가능성을 발견하게 된 독창적인 축제로 평가받고 있다.

서울문화재단은 새롭게 태어난 청계천에 불어넣을 서울의 문화콘텐츠로 '거리예술'을 택했다. 대규모 시설이나 장치 없이 소규모 인원으로도 언제 어디서든 공연이나 전시가 가능하다는 거리예술의 특성이 청계천이라는 공간에 적합하다는 판단은 적중했다. 재단은 다양한 장르의 거리예술가들이 청계천을 무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2005년 '청계천 아티스트' 사업을 신설, 거리예술가들에게는 창작공간을 제공하고 시민들에게는 다양한 문화적 볼거리를 제공하며 시민들의 호응을 얻어 연중 상설 공연으로 확장되는 성과로 이어지기도 했다.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

+ 2006-2012
÷ 문화사업팀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Seoul Spring Festival of Chamber Music, SSF)는 문화도시 서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음악축제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갖고 2006년 시작되었다. 서울시 곳곳의 주요 음악 전문공연장 및 고궁, 문예회관 등에서 매년 5월 개최되고 있으며, 2008년부터는 프린지축제 개최를 통해 거리, 박물관 등 열린 공간으로 확장했다. 또한 신진연주자들의 등용문으로도 발전하며 서울을 대표하는 도심형 음악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 운영 개요

구분	기간	장소	테마
2006	04.28.-05.07.(10일간)	호암아트홀, 예술의전당, 노원문화예술회관, 서울시립미술관, 덕수궁	동서양의 만남
2007	05.2.-05.13.(12일간)	세종문화회관, 예술의전당, 호암아트홀, 나루아트센터, 덕수궁, 서울시립미술관	민속음악 하모니
2008	05.02.-05.13.(12일간)	세종문화회관, 예술의전당, LG아트센터, 세종M씨어터, 명동성당, 덕수궁 외	삶의 이야기
2009	05.05.-05.18.(14일간)	세종문화회관, 예술의전당, 영산아트홀, 성공회성당, 구로아트밸리, 덕수궁 외	베토벤과 함께 시련을 넘어 희망으로…
2010	05.05.-05.18.(14일간)	세종문화회관, 예술의전당, 영산아트홀, 호암아트홀, 노원문화예술회관, 용산문화예술회관 외	못다한 여정
2011	05.10.-05.22.(13일간)	세종문화회관, 예술의전당, 호암아트홀, 덕수궁 외	건반 소리 향기에 취하다
2012	04.30.-05.13.(14일간)	세종문화회관, 예술의전당, LG아트센터, 용산아트홀, 덕수궁 외	신비의 소리

실내악 저변을 넓히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된 시작한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는 서울문화재단과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 조직위원회가 함께 개최한 클래식 실내악 페스티벌이다.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이나 '바이로이트 페스티벌'과 같은 세계적인 음악 축제들과 비견될 수 있는 한국의 대표적인 음악축제를 만들기 위해 각계각층의 문화예술 애호가들이 주축이 돼 진행됐다. 클래식에 대한 문턱을 낮춰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람료를 낮추는 등 보다 많은 시민들이 클래식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를 이어왔다.

2012년까지 서울문화재단과 조직위원회에서 공동 추진하였으나, 2013년부터는 축제의 자생력을 강화, 조직위원회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아트페스티벌 서울

+ 2022-

아트페스티벌 서울은 서울의 대표적인 예술축제들을 모은 서울문화재단의 축제 통합 브랜드로, 2023년은 계절의 특성과 축제의 성격을 맞춘 7개의 예술축제로 운영됐다. 그간 지속해 온 축제와 새로운 축제를 하나로 모아 사계절 내내 시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서울을 대표하는 축제로 성장시키기 위해 2022년 5개 축제를 중심으로 시범 운영을 시작한 아트페스티벌 서울은, 2024년부터 다양한 장르를 포괄하는 재단의 대표 예술축제로 확장 운영할 계획이다.

2023년, 사계절로 편성된 축제들은 계절별로 콘셉트를 가지고 진행됐다. 봄은 가정의 달에 맞춰 가족 단위로 찾을 수 있는 축제, 여름은 휴가 기간 한강공원 등에서 대중성 있는 예술축제를 운영한다. 가을에는 국내외 다양한 거리예술과 야외 공연예술을 관람할 수 있는 축제, 마지막으로 겨울은 다음 시대를 위한 새로운 형태의 융·복합 예술을 즐길 수 있는 축제로 각각 계절에 맞는 맞춤형 페스티벌로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장하고 있다.

2022 서울비보이페스티벌

2023 서울서커스페스티벌

구분	축제	특징
봄	서울서커스 페스티벌	국내 유일의 서커스 축제다.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의 작품 제작 지원을 받은 신작과 해외 초청 작품을 선보이며 서커스를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 플리마켓 등으로 구성돼 있다.
여름	서울비보이 페스티벌	초여름 한강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열정적인 브레이킹 문화를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축제다. 서울문화재단에서 지난 10년간 서울시 대표 비보이단을 운영하며 공연과 교육, 작품 제작으로 비보잉 문화를 지원해 왔던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2022년부터 개최되고 있다.
가을	서울거리 예술축제	서울을 대표하는 야외 공연예술 축제다. 2003년 하이서울페스티벌(Hi Seoul Festival)로 시작해 대표적인 거리예술축제로 자리 잡았으며, 2016년부터 서울거리예술축제로 개최되고 있다. 거리예술을 비롯한 다양한 장르로 구성된 예술작품을 서울광장, 청계광장 등 서울 도심 일대에서 진행된다.
	한강노들섬클래식 - 한강노들섬오페라 - 한강노들섬발레	2022년부터 서울의 랜드마크 노들섬에서 펼쳐지는 클래식 공연예술 축제다. 한강의 자연과 어우러진 대형 야외 특설무대에서 발레와 오페라 제작 공연을 진행한다.
	서울생활 예술페스티벌	서울생활예술페스티벌은 약 1,000여 명의 생활예술 동호회 및 생활예술인이 함께 만드는 서울의 대표 생활예술축제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생활예술인, 동호회 등 시민 누구나 예술가로 활동할 수 있는 서울의 대표 생활예술축제다.
겨울	서울융합 예술페스티벌	기술 기반 예술의 지속 가능한 창작 환경을 만들기 위한 융합예술페스티벌이다. '다빈치 크리에이티브' 사업을 모태로 한 융합예술 창·제작 지원의 혁신적인 융합예술플랫폼으로 확장하고자 '언폴드엑스(Unfold X)'라는 이름으로 관객을 만나고 있다.

한강노들섬클래식

+ 2022-
÷ 축제기획1팀

한강노들섬클래식은 서울의 랜드마크로 자리한 노들섬에서 2022년부터 개최한 클래식 공연예술축제다. 2022년에는 서울거리예술축제와 연계한 특별공연으로 오페라 〈마술피리〉, 2023년에는 '시대를 초월한 고전'이라는 주제로 발레 〈백조의 호수〉, 오페라 〈세비야의 이발사〉 등의 대형 야외공연을 진행했다. 한강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클래식 공연예술 축제'라는 새로운 시도를 통해 서울 시민들에게 일상 속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글로벌 문화도시를 지향하는 서울의 대표적인 문화 콘텐츠로의 성장하고 있다.

2022년에는 '음악이 흐르는 노들섬'을 주제로 〈팔도보부상〉 안해본소리, 〈랄랄라 패밀리쇼〉 음악당달다, 〈팔팔〉 콜렉티브 쿠치, 〈스러지다〉 봉앤줄, 〈도시소리〉 지온 등 거리예술과 서커스 작품이 노들섬 야외 곳곳에서 이루어졌으며, 저녁 시간에 오페라 〈마술피리〉를 진행했다. 2023년에는 발레와 오페라 2개의 장르로 공연을 확대 운영하면서 1,800석으로 객석 규모를 넓히고, 돗자리석을 운영하는 등 보다 자유로운 공연 관람 문화를 조성했다. 또한 소외계층을 초대해 문화예술 향유 진입 문턱을 낮추고, 대형 LED 화면에 국·영문 자막을 제공, 해외 관객의 접근성을 높이는 등 다양한 세대가 함께 볼 수 있는 야외공연 페스티벌로 정체성을 확장하고 있다.

2022-2023 공연개요

2022년	한강노들섬오페라 〈마술피리〉 • 공연 일시: 2022.10.1.(토)-10.2.(일) 19:30 (2일 우천 취소)	연출_이회수, 지휘_여자경 출연_콜로라투라 소프라노 유성녀(밤의 여왕), 테너 이명현(타미노), 소프라노 장혜지(파미나), 바리톤 최은석(파파게노), 소프라노 이세(파파게나), 베이스 박준혁(자라스트로), 테너 오정율(모노스타토스)
2023년	한강노들섬발레 〈백조의 호수〉 • 공연 일시: 2023.10.14.(토)-10.15.(일) 18:00	총감독_문훈숙, 연출_유병헌 출연_강미선(오데트), 지현준(지그프리드), 유니버설발레단, 발레 STP협동조합(와이즈발레단, 서울발레시어터)
	한강노들섬오페라 〈세비야의 이발사〉 • 공연 일시: 2023.10.21.(토)-10.22.(일) 18:00	연출_표현진, 지휘_김건, 음악코치_정호정 출연_바리톤 안대현(피가로), 소프라노 박혜상(로지나), 테너 김성현(알마비바), 바리톤 김경천(바르톨로), 베이스 김철준(바질리오)

한강노들섬오페라 〈세비야의 이발사〉

5.1.2.

축제 지원 및 인프라

- 서울축제지원센터
- 서울예술축제지원
-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 서울 연희단 육성지원
- 서울시 대표 비보이단

서울축제지원센터

+ **2013-2021**
÷ **축제기획팀, 축제팀**

서울축제지원센터는 서울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축제와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2013년 설립되었다. 공공과 민간의 축제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던 상황, 각기 다른 특성과 방향을 갖고 있는 축제의 고유성과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평가, 컨설팅 및 교육, 조사연구, 아카이빙 등 전반적인 축제 운영을 지원했다. 또한 축제 진행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 등을 제공하고, 축제 기획 및 예산 작성 등의 전반적인 행정지원 등 서울축제문화를 활성화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매년 서울시에서 열리는 30여 개의 주요 축제를 대상으로 현황분석, 컨설팅 지원, 평가연구를 통해 축제의 통합적 관리와 발전 방향에 대한 장기적 계획의 수립을 지원하는 목적을 갖고, 재단의 축제 지원사업이 서울시로 이관(2022년, 예술축제지원사업 이관)되기 직전인 2021년까지 9년간 운영됐다.

서울축제지원센터의 설립은 2010년 초반부터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당시 서울에서 개최되는 축제들이 넘쳐나지만, 정작 자생력을 기반으로 한 지속성을 갖출 수 있는 제대로 된 '축제 정책'을 찾아볼 수 없다는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했다. 이후 2012년 서울축제 정책개선을 위한 '축제 현황 기초연구 조사'가 진행되었고, 2013년 서울문화재단 내에 서울축제지원센터 TFT 조직, 2014년부터 서울축제지원센터가 본격 운영됐다. 이후 센터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며 발견된 과제들이 센터의 주요 사업으로 운영됐다.

주목할 만한 것 중 하나는 2014년 처음 운영된 '축제 모니터링단'이라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축제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신규 인력에 대한 초기 교육 과정의 형식으로 진행된 사업으로 축제지원센터의 중요한 미션 중 하나인 '축제 전문인력 양성 사업'의 초기모델이 2014년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눈여겨 볼 수 있다.

사업은 총 5가지 영역으로 구분돼 있다. 그중 '평가 및 컨설팅'은 센터의 핵심 사업으로 축제의 강점과 개선점이 무엇인가를 인식하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화 사업'은 축제를 운영하는 공공과 민간의 교류를 확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제도개선을 정착시켰다.

'연구 조사 및 정책기획'은 센터가 생기기 전부터 진행돼 온 사업 중의 하나로, 서울에서 개최되는 축제의 현황과 타 사례를 비교, 분석하고 우수한 사례를 발견함으로써 축제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공유하며 확장되었다, '전문인력 육성 및 축제 인큐베이팅'은 축제 신규 인력 양성과 현장 축제 인력에 대한 재교육 등을 중심으로, '통합 홍보마케팅'은 시민 및 축제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 통합 홍보 채널 개발 및 시범운영 사업 등을 추진하는 등 서울축제지원센터는 서울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축제의 곳곳을 들여다보며 축제의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역량 강화는 물론, 축제 환경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병행해 왔던 대표적인 기관으로 인식되어 있다.

서울축제지원센터 주요사업

영역	주요내용
평가 및 컨설팅	• 연간 서울축제 종합평가 - 지원목적 달성도와 주요축제의 연차별 비교분석을 위한 종합평가 추진 • 분야별 평가 - 평가대상 축제 전체에 대한 조직체계 및 인력운영에 대한 평가, 컨설팅 추진 • 특정유형 종합평가 - 특정유형을 선정하여 실시하는 유형별 종합평가 및 맞춤형 컨설팅 추진 • 상시자문 및 맞춤형 컨설팅 - 평가위원 중 일부를 컨설턴트로 위촉, 연간 상시 컨설팅 추진
네트워크구축 및 정보화	• 전문가 네트워크 파티 개최 - 축제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한 사업 설명회 및 전문가 네트워크 파티 개최 • 자치구 및 서울시 축제담당자 워크숍 추진 - 축제 정책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축제행정 담당 공무원간의 교류촉진 워크숍 • 서울축제 온라인 정책플랫폼 구축 - 지원정보 및 행정지원 사항 공유, 축제 간 상호 정보교류를 위한 플랫폼 구축 • 서울축제정보 DB구축 - 서울축제 전문정보 아카이빙을 위한 DB구축과 정보화 시스템 구축
연구 조사 및 정책기획	• 국내외 축제 평가 체계 비교분석 및 재원조달 유형 등의 사례조사연구 • 서울축제연감 발행 - 격년마다 서울시 지원 및 개최 축제연감 발간 등
전문인력육성 및 인큐베이팅	• 축제 현장 전문인력 상상력 아카데미 -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문학적 축제교육 추진 • 축제 신진 전문인력 양성 교육 - 축제감독, 축제코치, 축제 컨설턴트로 활동할 수 있는 30대 신진 전문인력 발굴 •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축제인턴쉽 프로그램 - 축제조직과 청년 축제기획자를 매칭시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교육 • 서울시 축제 유형별 운영매뉴얼 제작 - 유형별 축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기획. 운영매뉴얼 제작 및 보급
통합 홍보 마케팅	• 서울시 시정홍보 매체 및 운영체계 조사 • 서울시 문화관광 홍보협력 기관 MOU체결 • 통합 홍보 마케팅을 위한 매체 개발

2015 제1회 서울축제포럼

2016 제2회 서울축제포럼

서울예술축제지원

+ 2014-2021
÷ 예술지원팀, 축제기획팀, 축제팀

지원대상
문학, 시각 음악, 연극, 전통,
건축, 다원 분야의 민간예술축제

유형
대표예술축제 3년 연속 지원
(5천만 원-3억 원)
우수예술축제 단년 지원
(1천5백만 원-5천만 원)

서울예술축제지원은 서울 내의 다양한 축제를 지원하여 예술가의 창작기반과 활동 기회를 넓힘으로써 시민이 다양한 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사업으로 재단의 대표적인 축제지원사업이다. 서울에서 개최되는 우수하고 발전 가능성 있는 축제를 발굴, 육성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물론, 전문 예술축제를 지원함으로써 예술단체 및 예술인의 창작 기반을 강화하여 활동 기회를 확대한다는 목적을 갖고 운영되었다.

재단의 예술축제 지원사업은 2004년 서울문화재단의 출범과 함께 문예지원사업 내 '축제' 장르에서 지원하면서부터 출발하였다.

이후 2007년 서울시에서 별도의 공모와 심사과정 없이 지정지원 방식으로 운영하던 '서울대표예술축제'가 재단으로 이관되었고, 서울연극제, 서울무용제, 서울아시테지축제 등 3개 축제를 지원, 2008년 서울국제공연예술제가 추가 되어 총 4개의 사업을 지원했다. 대표예술축제 지정지원 외에 2010년부터는 우수예술축제를 창작영역에서 분리하여 공모방식으로 전환하였으며, 2011년 서울대표예술제 역시 지정 지원 방식이 공모지원으로 전환, '서울대표예술축제 및 우수예술축제 육성 지원사업'으로 지 운영되다 2014년 예술지원체계 개선과 함께 '예술축제 지원사업'으로 통합하여 공모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이 과정에서 축제사업의 전담부서가 2012년 예술지원팀에서 축제기획팀으로 변경되어 예술축제 지원사업의 독립된 사업 분야로 체계를 만들어 갔다.

서울예술축제지원 변화과정

연도	주요내용	주요변화
2007	연극제, 무용제, 아시테지 축제 지원	서울시에서 재단으로 사업 이관
2008-2009	서울예술축제 지원사업(지정지원)	서울국제공연예술제 추가
2010	서울대표예술축제 지정지원 우수예술축제 육성지원(공모)	창작지원에서 축제사업 분리
2011-2013	서울대표예술축제 지원(공모) 우수예술축제 육성지원(공모)	2012년 예술지원팀에서 축제기획팀으로 사업 이관
2014-2021	예술축제지원사업 통합 공모	
2022	예술축제지원사업 서울시로 이관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사업과 통합 운영

2020년 기획재정부의 지방사업 이양에 대한 요구에 따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지원하던 '지역대표공연예술제'가 각 지방에 이양되었고, 서울시가 '서울대표공연예술제'를 직접 운영하게 되면서 예술축제 지원사업은 서울시와의 통합 운영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다만, 재단의 예술축제 지원사업 중 연속지원 종료 일정(대표예술축제 3년 연속지원의 경우 2021년 종료) 등의 사유로 '서울대표공연예술제'와의 통합은 2022년으로 연기되었다.

서울시로 예술축제지원사업이 통합될 것이라는 예측에도 불구하고 서울문화재단은 예술축제 지원사업의 체계개선을 위한 연구 과제(2020년 기초연구, 2021년 체계개선 연구)를 진행, 그간 예술축제 지원사업의 한계로 제기되었던 문제를 들여다보고 예술현장에 적합한 사업 방향이 무엇인가를 찾는 과정을 거쳤다. 즉, 단순히 대표/우수예술축제로 이분화되어 있을 뿐 명확한 체계라고 볼 수 없었던 구조와 신규축제 진입이 어려운 체계를 탈피하고, 예술단체의 지향과 목적에 따른 주도적 성장 경로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 변화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2021년 서울시장 공약사항으로 제시된 '서울축제지원센터' 건립을 통한 축제 기반 조성 등 통합적인 축제 지원의 역할과 방안이 쟁점화된 이후. 2022년부터 예술축제 지원사업은 재단에서 분리돼 서울시 지역대표공연예술제와 통합 운영되고 있다.

서울예술축제지원 추진 실적

구분		선정단체	예산(단위: 천원)	선정단체	총 예산 (단위: 천원)
2014	대표예술축제	7	1,242,000	30	1,764,000
	우수예술축제	23	522,000		
2015	대표예술축제	7	1,242,000	35	1,801,000
	우수예술축제	26	559,000		
2016	대표예술축제	7	1,220,000	27	1,817,000
	우수예술축제	20	597,000		
2017	대표예술축제	7	1,240,000	31	1,950,000
	우수예술축제	24	710,000		
2018	대표예술축제	7	1,240,000	26	1,880,000
	우수예술축제	19	640,000		
2019	대표예술축제	8	1,320,000	25	1,920,000
	우수예술축제	17	600,000		
2020	대표예술축제	8	1,360,000	26	1,981,000
	우수예술축제	18	621,000		
2021	대표예술축제	8	1,300,000	26	1,850,000
	우수예술축제	18	550,000		
소계				226	14,963,000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 2015-
÷ 거리예술축제팀,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위치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710

개관일
2015년 4월 24일

시설현황
제1취수장, 제2취수장,
아뜰리에, 야외마당, 레지던시,
3동 연습실

제1취수장 전경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는 수돗물을 공급하던 옛 구의취수장을 2015년 리모델링 한 국내 최초의 거리예술, 서커스 창작공간이다. 거리예술과 서커스 분야의 작품 제작을 지원하고 국내외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해당 분야의 교육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거리예술축제 및 서울서커스페스티벌을 통해 시민과의 접점을 만들고 있다.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의 공간은 대형작품 연습이 가능한 제1취수장 메인홀, 실내연습과 교육을 위한 제2취수장 연습실, 야외공연 연습을 위한 야외마당, 서커스 텐트와 공연 구조물을 제작할 수 있는 목/철공제작소 아뜰리에, 예술가 레지던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조성은 2012년 4월 구의취수장 공간 활용에 대한 의견수렴으로부터 논의가 시작된 이후, 그해 9월 '거리예술'을 중심으로 조성하는 방향에 대한 시장보고 및 쇼케이스 공연이 진행되면서 구체화 되었다. 2013년 재단은 '구의취수장 공간재활용 연구사업'을 통해 향후 공간에서 운영할 프로그램을 준비, 공간활용 및 콘텐츠 적합성 실험을 위한 구의취수장 오픈스튜디오를 개최하였다. 2014년 1차 리모델링 이후, 서울문화재단이 위탁운영 기관으로 지정되고, 시범운영을 거쳐 2015년 4월 개관했다. 개관 이후 거리예술과 서커스 분야의 창작지원, 전문가 양성, 예술교육, 교류 및 네트워크, 연구 및 관리 등 종합적인 지원 공간으로 활동반경을 넓혀가고 있다. 2017년부터 서울문화재단 고유사업으로 전환되어 안정적인 운영체계를 만들어 가고 있는 센터는 거리에서 펼쳐질 수 있는 다양한 예술작품을 창작하고, 시민의 문화향유를 확장할 수 있는 예술가를 양성하는 등 거리예술, 서커스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작품이 연중 상시 제작될 수 있는 창작 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발표 공간(국내외 축제 및 도심의 공공 공간)에서 공연이 가능한 공공예술로서의 거리예술, 서커스 작품의 제작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창작지원 사업**과 유망예술가 양성 및 거리예술·서커스 예술인의 창작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사업**, 거리예술과 서커스 분야의 창작 및 배급을 활성화하고, 실용적인 정보 공유를 위한 국내외 교류사업을 추진하는 **네트워크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그간 지원해 온 제작 작품 및 관련 자료에 대한 아카이브 구축, 관련 연구 및 비평 등의 **연구사업**과 센터에서 창작되거나 지원을 받은 거리예술·서커스 작품의 유통 및 배급이 이뤄지는 축제도 협력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2014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개관 행사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주요 사업 및 내용(2023 기준)

창작지원	준비지원	작품 창작을 위해 장기 계획을 세우고 있는 단체의 지속성 있는 작품 제작 지원(창작 진입단계)
	제작지원	거리예술·서커스 작품을 계획하고 있는 단체의 신작 제작을 통해 장르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재단 내외의 유통·배급과 연계하여 단체 성장 지원
	상주지원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의 공간과 서커스 예술단체 간 상생협력을 통해 예술단체가 안정적인 창작 환경에서 신작 개발, 우수 레퍼토리 확보, 공간 기반의 다양한 공공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년 지원
교육사업	거리예술	거리예술에 관심이 있는 신진 및 중견 예술인 대상으로 거리예술 전문가 양성 교육 및 공공 공간 예술창작 워크숍 운영, 이후 서울거리예술축제를 통해 발표 연계
	서커스	서커스 장르 접근성 강화 및 신진예술가 양성을 위한 기예 워크숍, 서커스 전문가 재교육 및 국제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예술 워크숍, 축제 현장을 찾은 시민을 대상으로 서커스 예술 체험 프로그램 등 운영
축제사업	서울서커스페스티벌	서커스 전문 축제로 매년 국내외 서커스 공연과 함께 다채로운 서커스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페스티벌
	서울거리예술축제	서울을 대표하는 야외공연 예술축제로 거리예술을 비롯한 다양한 장르의 예술작품을 서울의 도심 광장 등에서 개최

2014-2023 창작지원사업 현황

연도	사업운영	예산(백만 원)	선정
2014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구의취수장) 공동제작 지원 운영	150	7건
2015	거리예술(제작/프로젝트 지원) 운영	150	6건
2016	거리예술 창작지원(제작 지원) 운영, 서커스 지원 신설	230	9건
2017	거리예술·서커스 창작지원(제작 지원) 운영	200	9건
2018	거리예술·서커스 창작지원(리서치/제작 지원) 운영	200	13건
2019	창작지원(리서치/제작/국제공동제작 지원) 운영, 서커스 상주형 지원 신설 ※ 서커스 상주형 1기 2단체 선정(2019-2021)	465	26건
2020	창작지원(리서치/제작/서커스 상주형 지원) 운영, 연구 지원 신설	475	25건
2021	창작지원(리서치/제작/서커스 상주형 지원), 연구 지원 운영	300	16건
2022	창작지원(리서치/제작/서커스 상주형 지원), 연구 지원 운영 ※ 서커스 상주형 2기 2단체 선정(2022-2024 예정)	350	19건
2023	창작지원(준비/제작/상주형 지원) 운영	280	14건

거리예술 확장을 목적으로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에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진행된 **거리예술활성화사업**은 공공지원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거리예술 분야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별도의 예산으로 운영되던 시기, 거리예술 창작공간 조성 사업(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아트마켓(선유도 거리예술장터) 등과 연계된 서울시의 거리예술 육성 정책 사업으로, 거리예술 작품을 상시로 발표할 수 있는 장을 제공, 거리예술 장르의 양적, 질적 확대를 모색하는 한편, 도심 공간(광장, 거리, 공원 등)에 예술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일상에서의 문화향유 기회 증대를 중점 방향으로 삼았다.

주요사업	내용
거리예술·서커스 시즌제 (-2022)	봄, 가을 시즌(각 8주 동안) 주말마다 정해진 도심공간(광장, 공원)에서 거리예술 작품 발표(시즌별 약 40회 공연)
거리예술·서커스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거리예술가 재교육, 제작/연출/기획 워크숍, 해외 리서치 프로그램 등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
거리예술·서커스 이동형 전시 (-2022)	이동이 가능한 전시 형태로 운영하여 거리예술과 서커스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시민의 생활 속 문화향유 기회 증대

거리예술·서커스 시즌제 프로그램 운영, 거리예술·서커스 전문가 양성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운영되었으며 축제라는 형식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었던 거리예술·서커스를 일상에서 보다 쉽게 만나는 기회로 확장했다는 평을 받았다. 2016년 이동형 전시 프로그램을 신설, 본 장르가 생소한 시민들에게 거리예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했으며, 거리예술·서커스 전문가 양성 과정은 2017년부터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의 교육사업과 통합하여 운영되고 있다.

2015 개관 행사(창작중심 단디, 단디우화-구의취수장)

2015 거리예술시즌제 가을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개관 1주년 행사

2016 서커스 예술놀이터 광대학교

거리예술활성화사업 주요변화 및 추진실적

	사업변화		추진실적
2014	거리예술활성화사업	거리예술 시즌제/거리예술 전문가양성/ 거리예술 프로젝트 지원	17개 단체, 107회 공연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9명 선발 3개 프로젝트 지원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개관 전		
2015	거리예술활성화	거리예술 시즌제/거리예술 전문가 양성	거리예술시즌제: 19개 단체, 126회 공연 거리예술 및 서커스 신작 발굴: 7건 거리예술 및 서커스 전문가 육성: 34명 서커스 예술교육을 통한 시민향유: 60명
	거리예술	제작지원/프로젝트 지원	
	서커스	창작지원/예술가 양성 예술교육/학술 프로그램	
2016	거리예술활성화	거리예술 시즌제/전문가 양성과정/ 거리예술 이동형 전시	거리예술시즌제: 14개 단체, 84회 공연 거리예술 이동형 전시: 8회 운영, 6,520명 관람 거리예술 및 서커스 신작 발굴: 9건 거리예술 및 서커스 전문가 육성: 148명 서커스 예술교육을 통한 시민향유: 306명
	거리예술	창작지원	
	서커스	창작지원/전문가 양성과정 공연지원/예술교육	
2017	거리예술활성화	거리예술 시즌제/거리예술 이동형 전시	거리예술시즌제: 21개 단체, 132회 공연 거리예술 이동형 전시: 7회 운영, 16,910명 관람 거리예술 및 서커스 신작 발굴: 9건 거리예술 및 서커스 전문가 육성: 145명 서커스 예술교육을 통한 시민향유: 370명
	거리예술	창작지원/전문가 양성과정	
	※2017년부터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예산으로 활용		
	서커스	창작지원/전문가 양성과정/예술교육	
2018	거리예술	창작지원/전문가 양성과정	거리예술 및 서커스 신작 발굴: 14건 거리예술 및 서커스 전문가 육성: 76명 서커스 예술교육을 통한 시민향유: 1,215명 거리예술시즌제: 26개 단체, 135회 공연 서커스 캬바레: 10개 단체, 11,684명 관람 오픈스튜디오 '싹브리핑': 16개 단체, 867명 관람
	서커스	창작지원/전문가 양성과정/예술교육	
	유통배급	거리예술 시즌제/ 서커스 페스티벌 '서커스 캬바레'/ 오픈스튜디오 '싹브리핑'	
2019	창작지원	거리예술 창작지원/서커스 창작지원	거리예술 및 서커스 창작지원: 26건 거리예술 및 서커스 전문가 육성: 93명 서커스 예술교육 시민 참여자: 2,170명 거리예술·서커스 시즌제: 32개 단체, 84회 공연 서커스 캬바레: 14개 단체, 71,181명 관람 싹브리핑: 17개 단체, 1,493명 관람
	전문가양성	거리예술·서커스 전문가 양성	
	예술교육	서커스 예술교육	
	유통배급	거리예술 시즌제/서커스 시즌제/ 서커스 페스티벌 '서커스 캬바레'/ 오픈스튜디오 '싹브리핑'	
	※장르로 구분짓지 않고 센터 추진체계 (창작지원-전문가양성-예술교육-유통배급-교류 및 네트워크)로 운영		
2020	창작지원	거리예술 창작지원/서커스 창작지원	거리예술 및 서커스 창작지원: 25건 거리예술 및 서커스 전문가 육성: 78명 리예술·서커스 캬라반: 21개 단체, 40일 36회 운영 (영상송출 포함) 서울서커스페스티벌 '서커스 캬바레': 10개 단체, 5,298명 시민 관람 오픈스튜디오 '싹브리핑': 예술가 22개 단체, 1,232명 시민 관람
	전문가양성	거리예술·서커스 전문가 양성	
	유통배급	거리예술 시즌제/서커스 시즌제/ 서커스 페스티벌 '서커스 캬바레'/ 오픈스튜디오 '싹브리핑'/ 이동형 전시 콘텐츠 업데이트및 운영	
	코로나19로 인해 시즌제 -> 캬라반으로 명칭 변경		
2021	창작지원	거리예술 창작지원/서커스 창작지원	거리예술 및 서커스 창작지원: 16건 거리예술 및 서커스 전문가 육성: 156명 서커스 캬라반: 13개 단체, 34회 운영 서울서커스페스티벌 '서커스 캬바레': 예술가 10개 단체, 1,294명 관람 서커스 기획 공연: 예술가 2단체, 380명 관람 오픈스튜디오 '싹브리핑': 예술가 23개 단체, 967명 시민 관람
	전문가양성	거리예술·서커스 전문가 양성	
	유통배급	서커스 페스티벌 '서커스 캬바레'/ 서커스 캬라반/서커스 기획 공연/ 이동형 전시 콘텐츠 업데이트 및 운영	
2021	창작지원	거리예술 창작지원/서커스 창작지원	거리예술 및 서커스 창작지원: 19건 거리예술 및 서커스 전문가 육성: 82명 서커스 예술교육 시민참여자: 1,086명 서울서커스페스티벌 '서커스 캬바레': 13개 단체, 17,934명 관람 거리예술·서커스 시즌제: 33개 단체, 52회 공연 싹브리핑: 22개 단체, 1,013명 시민 관람
	교육사업	거리예술·서커스 전문가 양성/ 서커스 예술교육	
	유통배급	서커스 페스티벌 '서커스 캬바레'/ 거리예술·서커스 시즌제	

서울시 연희단 육성지원

+ **2019-2020**
÷ **예술축제팀, 축제팀**

연희단 '연화' 공연

서울시 연희단 육성지원은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서울의 대표적 문화콘텐츠로 동시대 연희예술 창작 및 개발을 지원하고 관련 생태계 조성을 위한 종합지원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시작된 사업이다. 국내 연희예술 작품 제작을 위한 리서치 지원사업이 없는 상황에서 처음으로 단계별 지원 트랙을 도입했으며, 연희 예술가(단체)가 직접 참여하는 기회를 통해 예술 현장에 적합한 방식의 창작 연희 작품 개발 등 실효성 있는 연희 육성지원의 모델을 구축했다는 평을 받은 사업이다.

사업 시행 첫해인 2019년, 리서치 과정 및 동시대적 창작 작품 제작 지원은 물론 연희예술가 창작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 연희 활성화 및 축제를 통한 연희 작품 유통(시민 대상 연희 체험 프로그램 개발운영) 사업 등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였다. 2020년에는 보다 정교하게 지원 방식을 구분하여 작품개발지원 단계에서 사전 조사형과 발표형을 구분하여 리서치 과정을 지원하였으며, 다양한 양식의 신규 창작 작품 발표를 위한 제작 지원을 병행하는 것은 물론, 신진, 중견 예술가를 대상으로 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다만, 전통연희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이 존재하고, 재단 내 유사 사업(거리예술지원사업, 신진예술가 양성 교육사업 등)과의 통폐합으로 2020년을 마지막으로 사업이 종료되었다.

서울시 연희단 육성지원사업은 비록 짧은 기간 운영되고 폐지되었지만, 작품 제작에 필요한 단계별 지원을 통해 일회성 작품이 아닌 수준 높은 동시대 연희 작품을 개발하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연희 예술가(단체)가 직접 참여하는 정책실험을 추진하는 등 전통 연희자의 예술 활동 확장 가능성은 물론, 신진 연희자 육성, 발굴의 기초 모델을 마련했다는 부분도 주목할 만한 성과로 남아있다.

연도	주요 사업내용	추진실적
2019	• 동시대 연희 창작지원(직접지원) - 작품제작을 위한 사전 작품개발 과정(리서치) - 연희 창작작품 제작 지원(신규作) - 연희 창작작품 업그레이드 지원(기존作) • 종합지원체계 구축 지원(간접지원) - 전통연희 생태계 조사연구를 통한 동시대 연희 방향성 설정 - 연희예술가 창작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연구운영 - 연희 활성화 및 시민 향유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 연희예술가 연습, 작품제작, 교류, 발표 등을 위한 거점공간 조사, 발굴	• 직접지원 11건: 리서치 6건, 작품제작 2건, 작품개선 3건 • 간접지원 - 연희생태계 조사 연구: FGI 3회 실행 - 전통연희 증강랩(LAB) 운영: 연희예술가 8명 선발 - 연희활성화 및 시민 향유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서커스 캬바레〉 - 서울거리예술축제 연계운영(7개팀, 14회 공연완료) - 시민 체험 프로그램 〈연희놀이터〉 개발, 운영
2020	• 작품 개발 지원(리서치) 단계에서 두 방향으로 분리하여 지원 - 사전조사형(자료집, 발간물 등), 발표형(쇼케이스, 전시 등) 구분 지원 • 다양한 양식의 신규 창작 작품 제작 지원 • 현대 연희 육성 기획·지원 - 신진, 중견 예술가를 대상으로 창작 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 연희 창작 생태계 활성화 기여	• 직접지원 9건: 사전작품개발 연구/발표 8건, 신작 1건, • 연희 창작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기획지원) - 신진예술가 8명, 중견 예술가 8명 선발 운영 • 과정 공유 프로젝트 〈연희, 안녕!〉 개최

서울시 대표 비보이단

+ 2013-
÷ 축제기획팀, 예술축제팀, 축제팀, 축제기획1팀

서울시 대표 비보이단 사업은 브레이킹 문화가 서울을 대표하는 문화콘텐츠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13년도에 처음 시작된 사업이다. 서울시 및 자치구, 국외 초청 등으로 진행하는 브레이킹 공연 이외에도 브레이킹 전문 교육 강사진 양성과 예술놀이교육 프로그램 개발, 타 장르 예술가와 협업을 통한 작품 제작 등 다양한 방식으로 브레이킹 문화의 대중화를 위해 서울시 대표 비보이단의 활동을 넓혀나가고 있다. 사업 초기 연속지원을 통한 사업의 안정성 확보 후, 지원 기간을 조정하여 보다 다양한 브레이킹 단체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운영한 것은 물론, 2022년부터 시작된 '서울비보이페스티벌'과 연계하여 비보이단 선발전을 공개 프로그램으로 진행했다. 또한 시민평가단을 선발, 운영하여 서울시민이 직접 서울시 대표 비보이단을 뽑을 수 있도록 확장하여 선정 단체의 대표성을 강화했다.

서울시 대표 비보이단 제작 작품 및 운영실적

년도	작품명	팀명	안무 및 연출	비고
2015	신포니아	갬블러크루	김설진	2015년 하이서울페스티벌 초연
2017	들리는 몸	드리프터즈크루	류장현	2017년 서울거리예술축제 초연
2018	필드홀러	갬블러크루	류장현	2018년 서울거리예술축제 초연
2019	지금이면:裏面	갬블러크루	갬블러크루	2019년 서울거리예술축제 초연
2020	마당	엠비크루	김재덕	2020년 단독 작품 발표(백암아트홀)
2021	마당-인터렉션	갬블러크루	김재덕	댄스필름 제작 및 영화제 출품
2023	얼쑤, 얼쓰	갬블러크루	지경민, 임진호	2023년 6월 30일-7월 1일 초연(대학로극장 쿼드)

지난 10년간 비보이단 사업을 운영해 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축제를 통한 브레이킹 활동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서울비보이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기존 배틀 중심 페스티벌과 달리 브레이킹을 중심으로 스트릿댄스, 그래피티 등을 결합한 확장된 장르의 축제로서, 서울시 대표 비보이단 선발전뿐만 아니라 올장르 및 브레이킹 댄스 배틀, 국내외 우수 브레이킹 크루 초청 공연, 전문가 대상 워크숍, 예술놀이교육, 전시 및 체험존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로 확장하는 등 비보이 문화 활성화의 또 다른 전환점으로 자리하고 있다.

서울시 대표 비보이단 사업은 우수한 역량을 가진 브레이킹 단체를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브레이킹 문화를 활성화하는 것은 물론 양질의 문화콘텐츠를 확산한다는 목적으로 운영 되어왔다. 특히 비보잉 예술놀이교육을 통해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문화 활성화 등 문화예술의 사회적 역할을 수행한 것은 물론, 자생력 있는 우수 예술단체를 육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무엇보다 놀이를 바탕으로 한 창의적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브레이킹 활용의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것 역시 지난 11년간 쌓아온 주목할 만한 성과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2013-2023 서울시 대표 비보이단 추진실적

	공연운영		예술교육		예산(천원)	해외 공연
	운영 횟수	관람 인원	운영 횟수	참여자		
2013	52	34,725	30	570	200,000	총 19개국 21개 도시
2014	69	33,550	38	418	200,000	
2015	89	38,200	49	441	250,000	
2016	56	22,040	49	426	200,000	
2017	66	31,528	48	1,548	200,000	
2018	53	49,719	25	325	200,000	
2019	72	32,262	22	306	200,000	
2020	6	3,842	18	76	170,000	
2021	1	54	4	44	100,000	
2022	13	10,495	9	153	500,000	
2023	26	32,525	6	84	400,000	
합계	503	289,443	308	4,391	2,620,000	

〈지금이면:裏面〉 갬블러크루, 2019 서울거리예술축제

5.2.

문화향유

‘문화향유 기회 확대’는 문화정책 영역에서 사업 목표를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쓰는 표현 중 하나이다. 서울문화재단도 예외는 아니었다. 서울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재단의 행보는 설립연도부터 20년 동안 계속되고 있다.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장르별 동호회 대상 공모 지원 사업에서 시작해, 거리아티스트 공연과 찾아가는 공연과 전시, 문화취약계층을 위한 직접 지원과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문화복지’ 사업, ‘책 읽는 서울’과 같은 서울형 캠페인, 서울 도심을 시민의 무대로 만든 ‘서울댄스프로젝트’, 동아리 네트워킹과 활동 발표를 결합한 연합 축제, 시민 개개인 ‘일상’에서의 예술 활동 지원, 매월 첫째 목요일 공연이 펼쳐지는 ‘서울스테이지11’과 25개 자치구와 연계한 ‘서울생활예술페스티벌’에 이르기까지, 패션에서 유행이 돌고 돌듯 비슷하면서도 다른 수많은 사업들을 형형색색의 옷을 갈아입듯이 선을 보였다.

5.2.1.

생활문화

- 시민문화예술지원
- 좋아서-예술동아리
- 서울댄스프로젝트
- 생활문화 활성화

시민문화예술지원

+ 2005-2013
× 우리동네문화가꾸기(2004), 서울시민예술축제(2005)
시민문화예술지원(2005-2013)
÷ 문예지원팀, 예술지원팀, 시민문화팀

2013 시민 예술가 협력형 문화예술지원

서울문화재단의 시민 예술활동 지원의 역사는 재단 출범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먼저 1994년부터 서울시에서 진행한 '서울시 문예진흥기금' 사업이 재단 설립과 함께 이관되면서 2004년에는 '일반 문예지원 공모'로 진행했다가, 기존 사업과의 차별화를 위해, 2005년부터는 예술창작 지원과는 별도의 '시민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를 위한 **시민문화예술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초기에는 전문예술영역과 시민예술영역 구분 없이 서울시민의 직접적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과 서울시민을 위한 전문예술단체의 활동 지원 성격이 혼재되어 있었다. 시민들이 보다 쉽게 문화예술을 누리도록 접근성 높은 생활 근거리권의 문화행사,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행사, 문화저변 확대를 위한 문화예술교육 사업, 시민의 아마추어 동호회 활동 등을 지원했다.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시각예술, 문학, 영화, 문화일반, 축제 9개 분야로 구분되어 있었고 '소액다건' 방식으로 전체 지원건수가 250~200건에 달했다.

시민문화예술지원사업(2004-2013)

	공모 사업명		지원건수	지원금액(천원)
2004	일반 문예지원 공모		248	1,760,000
2005	시민문화예술활동지원		293	1,753,000
2006	시민문화예술활동지원		284	1,780,000
2007	시민문화예술활동지원		275	1,770,000
2008	시민문화예술활동지원		297	1,850,000
2009	생활 속 예술지원		205	937,000
	시민축제지원		24	450,000
2010	시민예술활동지원		90	237,500
	시민축제지원		20	252,000
2011	시민예술활동지원	동호회지원	61	122,000
		생활속예술시장지원	31	127,800
	시민축제지원		20	228,000
2012	시민예술활동지원		98	240,000
	시민축제지원		22	220,000
2013	시민예술활동지원		71	150,000
	시민축제지원		17	150,000
	시민-예술가 협력형 문화예술지원		15	147,340

자료: 서울문화재단 백서 2004-2006, 07-08, 시민문화 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57쪽.

시민문화 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53쪽

2008년까지는 사업 형태를 불문하고 시민의 아마추어 동호회 활동과 함께 전문예술단체의 향유 프로그램, 교육, 세미나, 워크숍, 출판, 전시, 정보화 사업까지 지원하다가, 2009년부터 아마추어 예술 동호회를 지원하는 '생활 속 예술지원'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개최하는 축제를 지원하는 '시민축제지원'으로 유형을 정리했다. 이때 처음으로 '생활'이라는 단어가 공모 사업명에 포함되었지만. 2010-2012년에는 다시 '시민예술활동지원'으로 변경되었다. 일반 동호회 지원과 분리해 우수 단체의 작품을 지원한 '생활 속 예술시장'이 2011년 일시적으로 운영되기도 했다. '시민축제지원' 분야에서는 지역문화 조성과 지역문화 커뮤니티 활성화를 목표로 서울시민으로 구성된 예술단체 또는 축제운영 조직을 지원했다. 2013년에는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의 영향을 받아 '시민-예술가 협력형 문화예술지원' 사업도 단년 진행됐다. 사업 규모와 운영 방식에 변화는 많았지만 재단 출범 시기부터 시민들이 아마추어 예술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자생력 있는 아마추어 예술단체와 시민축제를 공모 방식으로 꾸준히 지원했다.

'시민문화예술지원' 외에 **우리동네 문화가꾸기(2004)**와 **서울시민예술축제(2005)** 또한 재단이 설립 초기부터 생활 속에서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이다.

재단 설립과 동시에 시작한 사업 중 하나인 '우리동네 문화가꾸기'는 시민 문화예술 활동의 기초가 되는 순수 아마추어 예술단체와 관련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했으며, 시민들의 직접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자치구별로 시민 참여를 유도했다. 때문에 지원 조건을 일반 시민의 구성 비율이 80% 이상인 단체로 설정했고, 5개 분야 23개 단체에 2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지원했다. 여기에는 문화원, 문화의 집, 주민자치센터에서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도 포함되어 있었다. 다음해에는 장르별 경연과 시상이라는 새로운 형식의 '서울시민예술축제'가 열렸다. 주부, 직장인, 대학생 등 최소 4인 이상의 시민으로 구성된 아마추어 문화예술단체, 동호회를 대상으로 했다. 음악, 전통예술, 무용, 연극 등 4개 장르별 예술제를 단계적으로 열어 연중 축제 분위기를 만들고, 연말에 분야별 우수 수상 단체의 합동공연을 개최해 '종합예술축제'로 승화시켰다. 연간 75개 단체, 1,422명의 동호인이 참여했으며 종합축제는 총 5,114명이 관람하는 성황을 이뤘다. 연극 부문 대상을 수상한 '유리구두'는 1993년 현대백화점 문화센터에서 당시 유인촌 배우에게 수업을 받던 주부들이 만든 주부극단으로 30년이 지난 2023년에도 정기공연을 올리며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시민들의 직접적인 예술 참여 활동을 장려하고 순수 아마추어 예술단체를 발굴해 시민 예술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했던 종합 시민예술축제는 2023년 서울생활예술페스티벌에서 경연 방식이 부활하면서 그 역사를 잇고 있다.

2005 서울시민예술축제 연극 부문 대상 '유리구두'

제 2회 서울생활예술페스티벌-시상식

좋아서-예술동아리

+ 2014-2016
× 서울시민예술활동활성화(2014-2015), 좋아서-예술동아리(2016)
÷ 시민문화팀

"동아리들이 자발적이고 장기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생각하다 보니 페스티벌을 시작하게 되었다. 정말 재미있고 하고 싶은 것만 하던 분들인데, 각자의 관심사가 아니라 다른 장르의 동아리들과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에 당황스러워하시는 분들도 많았다. 하지만 결과물에 대한 성취감은 어떤 예술가들보다 높았다. 특히나 첫 페스티벌을 개최한 세종문화회관은 전문 공연자들도 쉽게 설 수 있는 무대는 아니지 않나. 그 사실만으로도 시민들의 만족감이 컸던 것 같다."

서금슬, 당시 시민문화팀, 서울문화재단 10년

재단 설립 20주년을 맞이한 2014년부터는 기존의 개별 동아리에 지원금을 직접 교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 동아리가 팀을 이뤄 함께 발표를 준비해 페스티벌에 참여하는 기획형 사업으로 변화가 생겼다. 시민 주도의 예술 활동 확산을 위해 신설된 사업이 바로 **좋아서-예술동아리(2014-2016)**이다. '뭉치면 즐겁다! 일상이 예술인 동아리 모여라!'를 슬로건으로 공모를 통해 만 19세 이상의 서울시민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연극, 음악, 무용, 미술, 전통예술, 문학 등의 예술 장르에서 활동하는 동아리를 선정했으며, 개별 동아리들은 연합팀을 이뤄 협력하면서 시민예술축제에 참여했다. 재단은 연합팀에 전문가 멘토를 연결해주고 역량 강화 워크숍을 진행하고 발표 기회를 제공하는 플랫폼 역할을 맡았다.

2015년에는 참여 동아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과정을 보완하고, 시민기획단 '유쾌한'을 운영해 공연·전시 전공 학생에게 현장 활동 기회를 제공했다. 이어 2016년에는 운영 방식을 변경해 자치구별 운영기관이 지역문화기관과 협력해 자치구별 동아리 프로그램과 생활예술 동아리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자치구별 활동을 총괄하는 광역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이와 같은 실험은 2017년부터 본격화된 자치구 협력형 생활문화 사업 추진의 기점이 되었다. '좋아서-예술동아리' 사업을 통해 장르별로 각자 활동하던 동아리들이 자연스럽게 교류하며 타 장르를 이해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었으며, 연합 축제 참여는 동아리 활동에 새로운 동기 부여가 되었다.

2014 좋아서 예술동아리 페스티벌

더 보기

2015/2016 좋아서-예술동아리 스토리북

	2014	2015	2016
주요 내용	• 동아리 개별 공모 및 연합팀 결성 • 페스티벌 공연 및 전시 참여 지원	• 역량 강화 교육 보완 • 시민기획단 운영	• 자치구별 지원 방식으로 변경 • 자치구별 운영기관 공모 • 시민기자단 운영
페스티벌	• 공연: 2014.10.7.-12. 세종문화회관 M시어터 • 전시: 2014.10.28.-11.02. 시민청	• 2015.10.13.-31. • 국립한글박물관, 시민청, 강동아트센터, 구로아트밸리예술극장 등	• 2016.9.27.-10.2. • 시민청 • 청계광장
운영 결과	• 49개 동아리(약 590명), 9개 연합팀 • 공연: 연합팀 7개 (38개 동아리) • 전시: 연합팀 2개 (11개 동아리) • 멘토 8명	• 48개 동아리(약 742명), 15개 연합팀 • 공연 31회, 전시 3회 개최 • 멘토 10명 • 시민기획단 8명	• 5개 자치구 운영기관 (마포문화재단, 구로문화재단, 성북문화재단, 은평구 평생학습관, 놀자엔터테인먼트) • 동아리 65개, 시민 1,514명 참여 • 관람객 39,630명 • 시민기자단 12명

출처: 서울연구원, 2016, 서울시 생활문화예술동아리 활성화 방안. p.32

서울댄스프로젝트

+ **2013-2016**
÷ **축제기획팀**

2013년, 개별 동아리 대상의 공모 지원이 종료되는 시점에 축제기획팀에서는 '시민의 예술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해 동아리 단위가 아닌 시민 개인이 참여할 수 있는 대형 춤판을 벌이기 시작했다. **서울댄스프로젝트(2013-2016)**는 춤을 매개로 서울 시민에게 삶의 활력과 해방감을 선사해, 개인의 행복과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2013년 5월 '춤바람 선포식'으로 시작된 '서울댄스프로젝트'에서는 약 6개월 간 '춤추는 서울'이라는 슬로건 아래 다양한 연령과 계층이 참여하는 댄스 페스티벌을 진행했다. 일회성이 아닌 연중 다양한 장소에서 행사가 열렸으며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시민 춤꾼 '춤단'과 시민기획단 65명, 춤바람 커뮤니티 39팀 586명, 일일춤단 178명 등 10,461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첫해부터 신선한 기획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았으며, 서울연구원 주최 '2013 서울 스토리텔러 대상' 투자출연기관 부문을 수상했다.

"'서울댄스프로젝트'는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외로움, 고립감, 피로감을 주는 고된 서울살이에 지친 '서울시민들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으로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사람과 사람의 만남, 그리고 이를 이어주는 몸의 움직임이 가장 주요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가장 효과적인 매개체로서 '춤'을 선택하게 되었다. '서울댄스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일상성과 장소성, 그리고 공동체성이다. 시민들의 삶 속에서, 일상공간 속에서 함께하는 문화가 꽃피우길 바라는 마음에서부터 나온 방향이다. 특히 '서울댄스프로젝트'는 이러한 춤판을 만들어내는 프로젝트의 주체가 '춤단', '춤바람 커뮤니티' 등의 시민들이라는 점도 큰 특징이다."

김수연, 당시 축제기획팀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확인한 다음해에는 규모를 키워 10대 초등학생부터 60대 이상 노년층까지 다양한 세대로 구성된 춤단 100명을 선발했으며, 일상 속에서 춤과 함께하는 '춤바람 커뮤니티(26개)', 춤의 공공성을 탐구하는 '커뮤니티 댄스 랩'을 운영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춤출 수 있는 도심 속 시민 참여 축제 '서울무도회'를 개최했다. 춤바람은 2015년에도 이어져 춤단 100명이 한강을 따라 벌이는 '게릴라춤판'의 주역으로 활동했고, 춤문화 확산을 위해 일상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체어댄스 교육 영상도 제작했다. '서울무도회'는 9월 19일 선유도 공원에서 열렸으며 1만 명 이상의 시민이 참여했다. 2016년에도 춤을 사랑하는 120명의 서울시민 '춤단'과 도심 곳곳에서 펼치는 '게릴라춤판', '춤바람 커뮤니티', '커뮤니티 댄스 랩' '체어댄스'에 더해, 선배 커뮤니티가 직접 춤판을 꾸리는 '춤 다:방', 청년이 개최하는 춤 반상회 '청년참×춤' 등을 추가 운영했다. 서울댄스프로젝트의 피날레를 화려하게 장식한 '서울무도회'는 전년과 같은 선유도공원에서 9월 24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밤 10시까지 열렸으며 시민 춤단이 축제에 참여한 시민들을 춤의 세계로 이끌었다.

4년 동안 서울을 춤추게 한 '서울댄스프로젝트'는 일방적인 관람 형식에서 벗어나 누구나 쉽게 어울리고 즐길 수 있는 시민 춤판을 실현하며 시민들에게 건강한 삶의 에너지를 전달하고 일상에서 춤 문화를 확산하는 역할을 했다.

더 보기 [문화+서울]

- 서울댄스프로젝트 누리집
- 서울 댄스프로젝트 〈서울무도회@선유도〉 사람, 삶을 춤추다, [문화+서울] 2014년 11월호
- 서울댄스프로젝트 '춤 다:방', [문화+서울] 2015년 8월호
- 서울 도심 곳곳을 춤으로 누빌 〈2016 서울댄스프로젝트〉, [문화+서울] 2016년 9월호

"춤단 활동 이후 도시에 대한 감정이 중요해졌어요. 한강을 건너고 대교를 걷고 도시가 가진 공기를 느끼며 시야가 넓어지는 과정은 도시에게 말 걸기를 시도하는 느낌이었습니다."

2015년 춤단 도상훈

"참여하신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서울댄스프로젝트'는 시민이 저절로 성장하게끔 한다고 말씀하셨다. 2013년 1기와 2014년 2기에 같이 참여한 부녀가 있는데, 춤단에서 춤을 추면서 경험한 서울과 그렇지 않았던 예전의 서울은 너무 다르다고 고백하셨다. 1기 때 춤추면서 마포대교와 동호대교를 건너는 행사가 있었는데, 춤단이 아니면 평생 생각지도 못했을 경험 아닌가. 그 경험들은 곧 시민력으로 자라난다."

오진이, 당시 문화사업본부장

2013 서울댄스프로젝트 춤바람선포식 시민청

2013 서울댄스프로젝트 게릴라춤판@광화문광장

2013 서울댄스프로젝트 서울무도회@선유도 서울그루브나이트 불꽃놀이

2015 서울댄스프로젝트 서울무도회@선유도 서울그루브데이

시민 예술활동 참여형 사업의 흐름(2014-2023)

<table>
<tr><td></td><td colspan="2">공모 지원사업</td><td colspan="3">광역 기획형</td></tr>
<tr><td></td><td colspan="2">개별 동호회 지원</td><td>개별 축제 지원</td><td colspan="2">연합형 축제</td><td>네트워크</td></tr>
<tr><td>2004</td><td colspan="3">우리동네문화가꾸기</td><td colspan="2"></td><td></td></tr>
<tr><td>2005</td><td colspan="3" rowspan="4">시민문화예술활동지원</td><td colspan="2">서울시민예술축제(동호회 경연)</td><td></td></tr>
<tr><td>2006</td><td colspan="2"></td><td></td></tr>
<tr><td>2007</td><td colspan="2"></td><td></td></tr>
<tr><td>2008</td><td colspan="2"></td><td></td></tr>
<tr><td>2009</td><td colspan="2">생활 속 예술지원</td><td>시민축제지원</td><td colspan="2"></td><td></td></tr>
<tr><td>2010</td><td colspan="2">시민예술활동지원</td><td>시민축제지원</td><td colspan="2"></td><td></td></tr>
<tr><td rowspan="2">2011</td><td colspan="2">시민예술활동지원</td><td rowspan="2">시민축제지원</td><td colspan="2" rowspan="2"></td><td rowspan="2"></td></tr>
<tr><td>동호회지원</td><td>생활 속 예술시장지원</td></tr>
<tr><td>2012</td><td colspan="2">시민예술활동지원</td><td>시민축제지원</td><td colspan="2"></td><td></td></tr>
<tr><td>2013</td><td colspan="2">시민예술활동지원</td><td>시민축제지원</td><td rowspan="3">서울댄스프로젝트
(개인)</td><td></td><td></td></tr>
<tr><td>2014</td><td colspan="2"></td><td></td><td colspan="2" rowspan="2">좋아서-예술동아리</td><td></td></tr>
<tr><td>2015</td><td colspan="2"></td><td></td><td></td></tr>
<tr><td>2016</td><td colspan="2"></td><td></td><td colspan="2">좋아서-예술동아리
(5개 자치구)</td><td></td></tr>
<tr><td></td><td colspan="3">자치구 협력 사업</td><td colspan="2"></td><td></td></tr>
<tr><td>2017</td><td colspan="3" rowspan="2">생활문화 거버넌스 25</td><td rowspan="4">위댄스</td><td colspan="2" rowspan="4">서울생활예술오케스트라</td><td></td></tr>
<tr><td>2018</td><td rowspan="2">동아리 네트워크/
생활예술해커톤(개인)</td></tr>
<tr><td>2019</td><td colspan="3" rowspan="2">거버넌스 25</td><td rowspan="2"></td></tr>
<tr><td>2020</td><td>동아리 네트워크</td></tr>
<tr><td>2021</td><td colspan="3">자치구 협력형 생활문화 활성화</td><td colspan="2"></td><td></td></tr>
<tr><td>2022</td><td colspan="3">생활문화 25</td><td colspan="2">서울생활예술페스티벌_오케스트라,
합창 스트리트 댄스(개인)
동호회 공연</td><td></td></tr>
<tr><td>2023</td><td colspan="3">N개의 서울</td><td colspan="2">서울생활예술페스티벌_오케스트라,
합창(개인)
동호회 경연</td><td></td></tr>
</table>

2014 좋아서-예술동아리 페스티벌 전시 〈머리-가슴-배〉

2014 서울댄스프로젝트 '춤바람 커뮤니티' 도시의 노마드

생활문화 활성화

+ **2017-2023**
×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2017-2022), 지역문화 및 생활문화 진흥사업(2023)**
÷ **생활문화사업팀(2017-2019), 생활문화팀(2020-2022), 지역문화팀(2023-)**

배경

서울문화재단 생활문화 사업은 2017년을 기점으로 대규모로 확대되는 큰 변화를 맞이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의 제정과 '제1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영향도 있었지만, 2016년 6월 서울시가 발표한 '비전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이 가장 큰 계기였다. '비전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의 10대 과제 중 하나가 '시민을 객석으로, 무대로'였으며, 여기에 아마추어 예술가의 자발적 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장르 기반 문화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일상의 생활문화공간을 확충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기존의 시 중심의 문화정책 체계는 2020년까지 자치구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2016년 10월 '생활문화도시, 서울' 기본계획이 발표되었고, 2017년 1월 5일 「서울특별시 생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서울문화재단은 조례를 통해 2017년 1월 조직 내 생활문화지원단을 신설하고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을 시작했다. 개별 동호회 직접 지원 방식이 아닌 자치구 기반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고, 생활예술축제 개최, 생활예술공간 지원, 동아리 네트워킹 등의 광역형 기획사업, '생활문화 활성화' 예산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생활문화 인력(매개자)' 사업까지 연계한 복합적인 구조로 운영되었다.

2014. 1. 28.	◆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2015. 7.	◆ 제1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2015-2019)	
2016. 6. 28.	'비전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 발표	
2016. 10. 24.	'생활문화도시, 서울 기본계획' 발표	
2016. 12. 20.	서울시민 문화권 선언식	
2017. 1. 05.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시행	
2017. 1.	서울문화재단 내 생활문화지원단 신설	
2017. 6. 22.	'생활문화도시, 서울 시행계획' 수립	
2019. 11.	생활문화정책2.0 수립 연구	
2020. 2.	◆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2020-2024)	◆ 문화체육관광부

초기에는 '25개 자치구'와 '생활예술동아리'에 주목해, 자치구별로 발굴한 생활예술동아리가 문화예술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게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생활예술동아리 중심의 민관협의체를 구축해 서울시 전역에 생활문화를 확장한다는 방향을 설정했다. 이후 2019년 하반기 수행한 「생활문화정책2.0 수립 연구」를 바탕으로 장르별 동아리보다는 시민 개인도 참여할 수 있고 25개 자치구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기획형 사업도 동아리와 생활예술인 네트워크 중심에서 코로나19 시기 시민의 '일상'에 주목하며 생활밀착형 사업으로 전환했다. 생활예술축제는 장르별 오케스트라와 춤 동호회 중심의 교류와 발표의 장으로 운영되다가, 개인과 전시 분야도 참여할 수 있게 확장하고 자치구에서 활동하는 동호회와 연계한 '서울생활예술페스티벌'로 재개했다. 2022년 말 조직개편으로 생활문화팀이 지역문화팀으로 통합되면서 2023년부터는 '생활문화 활성화'가 아닌 '지역문화 및 생활문화

진흥사업'과 '생활예술 활성화' 사업으로 분리·운영되고 있다. 재단은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을 통해 시민 누구나 생활 속에서 문화를 접하고 예술 활동을 즐길 수 있게 자발적인 활동을 지원하고 문화 주체로서의 성장을 돕고자 했다.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 구성 변화(2017-2023)

<table>
<tr><th>구분</th><th>자치구 협력</th><th>공간</th><th>인력(별도 예산)</th><th>축제</th><th colspan="2">광역형 기획</th><th>캠페인·플랫폼</th></tr>
<tr><td>2017</td><td rowspan="2">생활문화
거버넌스 25</td><td rowspan="4">생활문화
공간 지원</td><td rowspan="2">생활문화
인력양성:
생활문화매개자</td><td rowspan="3">서울생활예술
오케스트라

위댄스
(서울춤자랑,
페스티벌 등)</td><td colspan="2"></td><td>연간 캠페인 '1인 1악기'
생활문화주간
'아티팟카니발'</td></tr>
<tr><td>2018</td><td rowspan="2">동아리네트워크</td><td rowspan="2">일상예술
활성화
(생활예술
해커톤)</td><td>생활문화플랫폼
우리동네동아리맵</td></tr>
<tr><td>2019</td><td rowspan="2">거버넌스 25</td><td>생활문화브랜드
'날마다 예술'</td></tr>
<tr><td>2020</td><td>생활문화
인력양성:
생활문화활동가</td><td>일상예술역량강화</td><td rowspan="2">일상문화
탐색지원</td><td rowspan="2">시민참여 캠페인</td></tr>
<tr><td>2021</td><td>자치구 협력형
생활문화 활성화</td><td></td><td>(자치구 협력형
사업 통합 운영)</td><td></td><td>시설(도서관)·
활동·연구
네트워크 지원</td></tr>
<tr><td>2022</td><td>생활문화25</td><td></td><td></td><td>서울생활예술페스티벌
(합창, 오케스트라,
스트리트 댄스)</td><td colspan="2"></td><td>서울생활문화플랫폼 구축</td></tr>
<tr><td>2023</td><td>N개의 서울
(지역문화+
생활문화)</td><td></td><td></td><td>서울생활예술페스티벌
(합창, 오케스트라)</td><td colspan="2">생활예술 활성화</td><td>서울생활문화플랫폼 운영
서울생활예술주간</td></tr>
</table>

자치구 협력형

2017년부터 시작된 자치구 협력형 사업은 자치구와 생활문화동아리 네트워크, 생활문화 인력을 중심으로 25개 자치구별 민관협의체(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모델에서, 생활문화 활동을 하는 개인으로 범위를 넓히고 자치구별 여건에 맞는 사업 추진을 위해 자율성을 강화하고 사업 구분 없이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형태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였다.

첫해인 2017년은 생활문화 거버넌스 구축의 시작 단계로 재단에서 자치구 대상으로 직접 공모를 진행했으며, 18개 자치구가 참여해 1,943개의 생활예술동아리를 발굴했다. 이를 통해 장르별 생활예술동아리 네트워크의 기초를 다지고, '자치구 - 생활예술매개자 - 생활예술동아리'가 참여하는 민관협력 생활문화 협치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했다.

다음해인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자치구의 행정 편의를 위해 서울시에서 직접 지원금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자치구 생활문화 협력체계 구축사업**으로 운영했다. '서울시(공모 및 교부) - 광역문화재단(운영 및 관리) - 자치구(사업 진행)'가 협력하는 사업의 추진체계를 만든 것이다. 시민의 주체적 문화 활동이 생활권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자치구별로 생활문화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해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공간, 인적자원, 콘텐츠 등 다양한 자원을 연계한 활동을 진행하게 했다.

2020년부터는 생활문화동아리 네트워크 중심의 협력체계를 벗어나 생활문화 활동을 하는 주민, 지역공동체 등 지역 생활문화 생태계를 만드는 주체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내 활동 기반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확대했다. 이후 자치구 분권과 자율성 강화를 위해 2021년부터 자치구 자율·통합형으로 사업의 큰 방향을 틀면서, 별도의 **자치구 협력형 생활문화 활성화**로 분리해 지역문화팀에서 사업을 운영했다. 사업명은 '자치구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사업이었으며 서울시 자치구 문화기관(문화재단, 구청)을 중심으로 자치구별 계획과 사업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식이었다. '서울문화재단-자치구문화재단(자치구)'으로 사업 구조가 단순화되면서 광역문화재단과 자치구문화재단 중심의 사업 운영이 가능해졌으며 자치구는 분리되어 있던 '인력·거버넌스·사업·공간'의 사업 영역을 자치구 내에서 통합·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2022년에는 다시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예산과 합쳐 생활문화팀에서 **생활문화25**로 운영했으며, 자치구 단위에서 자치구별 특성과 주민 수요에 기반해 자율적으로 생활문화 기반을 조성하고 필요한 주민 참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관련 인력을 운용할 수 있게 했다. 월별 작은모임, 지역문화아카데미, 성과공유회 등 네트워킹 프로그램은 지역문화팀 'N개의 서울'과 함께 운영했다. 이전에도 자치구 기반 사업을 공동 운영했던 지역문화팀과 생활문화팀이 2022년 말 재단 조직 개편으로 하나의 팀이 되면서 '자치구 협력형' 사업도 지역문화 진흥사업 'N개의 서울'과 통합되었다. 별도의 **생활예술 활성화**사업을 신설해 '서울생활예술페스티벌'과의 연계를 위한 자치구문화재단, 민간단체와의 협력 체계를 만들고 있다.

자치구 협력형 사업 변화 및 운영 결과(2017-2023)

연도	구분	사업명	주요 변화	운영 결과
2017	(생활문화 추진단 공모)	**생활문화 거버넌스 25**	**생활문화 협치시스템 구축** 지역모델형 생활문화 활성화 계획 추진 생활예술동아리 발굴	**18개 자치구** (강남 강동 관악 구로 금천 노원 도봉 동작 마포 서대문 서초 성동 성북 송파 양천 은평 종로 중구) 동아리 1,943개 발굴 570개 동아리 네트워킹 참여
2018	자치구 생활문화 협력체계구축 (서울시 공모)	**생활문화 거버넌스 25**	**생활문화 협치시스템 확대** 생활예술동아리 네트워크 구성 자치구-생활예술동아리 민관 거버넌스 구축 지역모델형 생활문화 도약기 계획 추진	**25개 자치구** 3,178개 동아리 발굴 1,029개 동아리 네트워킹 참여
2019		**거버넌스 25**	**생활문화 협치 시스템 안정 및 체계 확립** 지역모델형 생활문화 안정기 계획 추진	**25개 자치구** 3,570개 동아리 유지 및 발굴 1,142개 동아리 네트워킹 참여
2020		**거버넌스 25**	**사업 대상을 '생활문화동아리'에서 '생활문화' 주체로 확대** 평가 기준 개선 등 사업 목적성 강화	**25개 자치구** 찾아가는 컨설팅 75회
2021	자치구 협력형 생활문화 활성화 (지역문화팀)	**자치구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자치구 자율·통합형 전환** 서울문화재단-자치구문화재단 직접 교부 방식 변경 생활문화 인력양성 사업 통합 운영(선발·운영권한 이행)	**25개 자치구** 평균 4천만 원 지원 동아리 1,523개, 개인 5,391명 참여 시민 관람 48,609명
2022	자치구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생활문화팀)	**생활문화25**	**자치구 자율성 강화** 자치구별 주민 수요 기반 자율기획형 생활문화 프로그램 선택과 집중 자치구별 여건에 따른 차등 지원 운영기관 직접 보유(운영) 생활문화시설 활용 권장	**24개 자치구(중랑구 미신청)** 평균 3,100만 원 지원 프로그램 92개 생활문화공간 316개소 생활문화 동아리 약 70팀 생활문화인력(기획자, 예술가) 465명 시민 참여 26,850명

연도	구분	사업명	주요 변화	운영 결과
2023	지역문화 및 생활문화 진흥 사업 I 생활예술 활성화 지원 (지역문화팀)	**N개의 서울**	**생활문화25, 지역문화 진흥사업 'N개의 서울' 통합** 지역문화 범위 내 생활문화 영역 확장 지역문화 생태계 활성화 및 생활문화 활동 지원 (광역-기초 협약 체결)	24개 자치구 평균 6700만원 지원 예술가·전문가 8,356명 시민 107,868명
		[신규] 생활예술 활성화	자치구(문화재단, 자치구청, 문화기관 등) 및 문화예술단체 공모 생활예술페스티벌 연계 운영	20개 자치구, 6개 민간단체 참여예술가수 7,100명 시민 111,902명

광역형 기획

동아리 활성화(네트워크)(2018-2019)와 **일상예술 역량강화(2020)**에서는 연극, 뮤지컬, 음악, 사진·영상, 미술 6개 장르에서 활동하는 3인 이상의 동아리와 생활예술인 대상으로, 장르별 공연 및 전시 발표 축제 '동아리페스타', 교육 프로그램 '동아리 메이트'와 같은 게더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전체 동아리가 참여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개별 동아리 지원이 아닌 생활예술동아리의 네트워킹 활동을 지원해 시민이 주체가 되고 생활예술이 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

시민 일상예술 활성화(2018-2019)를 통해 일상에서 창조적 활동을 하는 '생활예술인'을 공모해 생활예술해커톤, 결과 공유회(페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생활예술 해커톤'은 서울에서 활동하는 생활예술인이 한자리에 모여 제한된 시간 내에 결과물을 기획하고 완성하는 마라톤 형식의 아이디어 대회로 2018년부터 2년간 운영했다.

광역형 기획사업 운영 결과(2018-2020)

2018	생활예술 해커톤 I 2018.10.03. I 생활예술인 15팀 99명 아마추어 페어 I 2018.10.27.-28. I 성수동 에스팩토리 I 68팀 808명
2019	동아리 페스타 89개팀 생활예술 해커톤 I 생활예술인 21팀 194명 생활예술인 페어 I 2019.10.16.-27. I DDP 알림 2관 I 생활예술인 22팀 122명 참여, 3,269명 관람
2020	일상예술 역량강화 I 생활예술인 61팀 선정, 사이버 결과공유회 54팀 204명 참여 일상문화 탐색 지원 I 10개 모임(비대면), 294명 참여

2020 생활을바꾸는예술

2020 온택트 일생탐색 포럼2

일상문화 탐색 지원은 '시민 일상예술 활성화' 사업의 후속으로 2020년 생활예술인에게 주체적인 생활문화 탐색 기회 제공을 목표로 준비했다가 코로나19를 맞아 내용을 변경·운영했다. 일상 속 작은 실천을 통해 타인과 관계를 맺는 새로운 형식의 생활문화 활동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으로 10개의 '목표달성 인증모임'에 294명이 참여했다. 이를 바탕으로 2021년에는 **일상문화[BLANK]**라는 이름으로 시민이 직접 기획한 생활문화 활동을 일상에서 실행해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했다. 이외에도 팬데믹 이후 시대 변화를 반영해 일상 속 생활문화의 가치 확산을 위한 기획 사업을 다양하게 운영했다. 생활밀착형 생활문화시설로 공공 도서관이 다시 등장했으며, '생활을 바꾸는 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시민 참여 생활문화 캠페인을 운영하는 한편 생활문화 연구를 통해 미래 생활문화의 전환 지점을 모색했다.

광역형 기획사업 운영 결과(2021)

	생활문화시설 활성화 지원	생활밀착 예술활동 지원	일상문화 탐색 지원	생활문화 연구·조사	생활문화 캠페인
사업명	도서관에 가면, ○○도 있고	생활을 바꾸는 예술	일상문화 [BLANK]	생활문화 연구자 네트워크	2064 환상로켓: 탑승하시겠습니까?
운영 결과	13개 도서관 지원	36인(단체) 지원	45건 지원	연구자 5인 지원	시민 참여형 전시 2021.12.13.-19.

공간

생활문화공간 지원(2017-2020)사업은 서울시 전역에 있는 유휴 공간과 문화 기반 커뮤니티 공간을 생활문화 거점 공간(생활문화지원센터)으로 조성해 자치구 단위에 생활문화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었다. 2017년 사업을 시작해 서울 시내에서 80㎡ 이상의 유휴공간을 보유하고 그 공간을 주민 생활문화 활동 공간으로 조성해 운영하고자 하는 공공 및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 50개소를 지원했다. 이어 2018년 9개소, 2019년 6개소, 2020년 13개소를 신규 선정했으며, 일부 기존에 선정된 공간을 연장 지원했다. 2020년 자치구와 기초문화재단,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해 공간조성비, 인건비, 사업운영비 등을 지원한 것을 마지막으로 사업은 종료되었지만, 공간 지원 사업을 통해 자치구 곳곳에 생활문화 활동을 펼칠 수 있는 물리적 기반이 구축될 수 있었다.

2017	2018	2019	2020
50개소 선정 및 조성 지원 (생활권형 7개소, 디딤형 43개소)	20개소 선정 및 지원 (신규 선정 9개소, 연장 지원 11개소)	13개소 선정 및 지원 (신규 선정 6개소, 연장 지원 7개소)	13개소 신규 선정 지원 (기초형 9개소, 생활권형 4개소)

인력

생활문화 인력양성(매개자)(2017-2021)사업은 서울시민의 일상 속 문화예술 활동을 매개·기획·지원할 수 있는 인력을 발굴하고 양성하기 위해 운영했다. 생활문화 인력은 초기에 생활예술매개자(Facilitating Artist, FA)로 불렸으며, 이는 '서울시민의 자발적 생활예술 활동을 촉진하는 전문가'를 의미했다. 생활예술에 관심이 있는 시민을 참여자로 이끌고 인적자원·공간자원·문화콘텐츠를 발굴해 생활예술 동아리와 단체를 연결함으로써 시민이 문화주체로 성장할 수 있게 돕는 역할을 맡았다. 재단에서 일정 경력이 있는 문화예술 분야와 동아리 영역 활동가 중에서 일괄 선발한 후, '생활문화 거버넌스25' 사업과 연계해 25개 자치구에 파견하거나 재단이 직접 운영하는 생활예술 사업 분야에서 일하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활동비는 2019년까지 월 30시간 기준 120만 원에서, 2020년 실활동 시간을 반영해 1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2020년부터는 연구 결과를 반영해 지역 현장에서 주체적인 활동이 가능한 생활문화 전문인력을 의미하는 '생활문화활동가'로 명칭을 변경하고, 재단에서는 네트워킹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학습 모임을 지원했다. 2021년에는 각 자치구에서 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선발·관리 권한을 이양하고 '생활문화 인력양성' 예산을 '자치구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과 통합했다. 재단은 '생활문화 기획자 아카데미'를 운영해 자치구에서 활동하는 생활문화 전문인력의 교육과 네트워킹

자리를 마련했다. 이후에는 자치구에서 인력 운영을 포함해 포괄적으로 생활문화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정착되면서 광역 차원의 인력양성 사업은 별도로 운영하지 않았다.

생활문화 인력양성 주요 변화 및 운영 결과

연도	주요 내용
2017	**생활문화매개자** 선발 및 파견 시작: 생활예술매개자(FA) 65명, 생활예술MCN 44명, 자치구 56명, 총 165명 활동 공통교육, 역량강화 워크숍, 최종공유회 운영
2018	총 70명 선발(지역매개자 50명. 장르매개자 20명), 최종 65명 활동 양성 교육, 문화공간 투어, 교류 프로그램 운영
2019	총 64명 선발, 최종 62명 활동(지역매개자 49명, 장르매개자 13명) 양성 교육, 학습 모임 운영 지원, 월간 네트워킹 간담회
2020	**생활문화활동가**로 명칭 변경: 총 49명 선발, 최종 48명 활동 자치구 이양 준비(선발 과정에 자치구 참여), 역량 강화 교육 및 네트워크 프로그램 지원 확대
2021	'자치구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사업' 통합 운영, 자치구 선발 및 운영 권한 이양 생활문화 인력 41명 활동, 생활문화기획자 아카데미 운영

축제

서울생활예술오케스트라축제(2017-2020)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차례 진행되었으며, 생활예술오케스트라 동호회를 위한 참여의 장이자 무대에 오른 생활예술인이 주인공이 되는 축제였다. 2017년 첫해에는 2014년부터 축제를 주관해온 세종문화회관과의 협업 하에 '4회 서울국제생활예술오케스트라축제(SICOF)'로 열렸으며 31개국에서 4,600여 명이 참여했다. 2018년부터는 재단에서 통합 운영하며 '서울생활예술오케스트라축제'로 다시 태어나 29개국, 생활예술음악인 50팀이 참여했다. 2019년부터 '국내'에만 집중하며 8일간 진행한 축제에는 시민오케스트라 41팀에서 2,323명이 참여하는 성황을 이뤘고 14회 진행된 공연을 10,144명이 관람했다. 2019년에는 생활합창 활성화 사업을 자치구문화재단(강북, 노원, 성북, 은평)과 시범 운영하기도 했다. 2020년 7회 축제는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비대면 운영했으며, 26개의 오케스트라가 참여해 6,018명이 온라인으로 관람했다.

위댄스 스윙댄스

위댄스(WeDance)(2017-2020)는 기존의 '서울댄스프로젝트'와 마찬가지로 '춤'을 주제로 했지만, 시민 참여 기반 커뮤니티 댄스가 아닌 장르별 춤 동호회 경연 대회와 합동 공연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시민이 일상에서 춤과 함께 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춤추고 싶은 시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준비했다.

서울춤자랑(2017-2019)은 주민센터, 문예회관, 복지관 등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 운영 기관에서 춤을 배우는 수강생들이 결성한 춤 동호회에게 발표 기회와 지역 내에서의 더 많은 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한 경연 대회이다. 공모를 통해 40~80세 시민으로 구성된 자치구 춤 동호회를 모집했으며, 예선을 거쳐 본선에 오른 20팀이 서울 여의도 KBS홀에서 경연, 전문가와 시민 심사를 거쳐 으뜸상과 시민상을 시상했다. 경연 이전에는 대회에 참가하는 6개 장르별 춤 동호회 대상으로 위댄스캠프(2018-2020)를 운영했다. 2020년에는 장르 댄스와 경연 방식을 탈피하고 일반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커뮤니티 댄스 워크숍 '위무브(2020)'를 일시 운영했다.

프로그램	서울춤자랑	위댄스캠프(WeDance Camp)	위무브(WeMove)	위댄스 페스티벌
대상	자치구 생활예술 춤 동호회		춤추고 싶은 일반 시민(개인) 누구나	춤 동호회, 일반 시민
규모	본선 20팀	총 50팀 내외	기수 별 최대 50명(5기)	
장소	여의도 KBS홀	서울 시내 공연장, 광장 등	서울 시내 안무 연습실, 광장 등	2017.10.14.-15. 동대문구 장한로 일대. 113팀, 650명, 1,452명 관람 2018.10.13. 여의도 한강공원. 39팀, 1,800명, 67,765명 관람 2019.09.21. 여의도 한강공원. 39팀, 44,270명 관람 2020.10.10. 온라인, 비대면. 34팀, 270명
활동내용	2017.10.24. 19팀 243명 참여, 972명 관람 2018.10.09. 20팀 277명 참여, 1,310명 관람 2019.09.05. 20팀 548명 참여	워크숍 마스터클래스 온스테이지: 실내 공연 영상 촬영(2020)	커뮤니티 댄스 워크숍, 위무브 투게더(야외 공연) 253명 참여(2020)	
	(공통) 위댄스 페스티벌 공연 참여			

2020 위댄스 ON 페스티벌

위댄스 페스티벌(WE dance festival, 2017-2020)은 생활예술 춤 동호회의 교류 기회와 개별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웠던 공간에서의 공연 기회를 제공한 축제였다. 2017년 제1회 위댄스 페스티벌은 동대문구 대표 축제 중 하나인 '세계거리춤축제'와 결합해 장안동 사거리에서 막을 올렸다. 재단에서는 탱고·스윙·살사 3개 분야의 생활예술 동아리를 초청했다. 2~3회 축제는 재단 자체 기획을 강화하고 발레·어반·재즈까지 6개 장르로 확대해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개최했다. 축제 전에는 같은 장르 동아리가 모여 서울시 곳곳을 누비며 소규모 합동 공연도 열었다. 초기에는 춤 동호회 중심으로 운영되다가 축제 현장에서 일반 시민(개인)도 춤을 배우거나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점차 늘려나갔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위댄스 ON 페스티벌'로 10월 10일 하루 동안 비대면 운영됐다.

팬데믹 여파로 인한 숨 고르기 1년이 지난 후,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생활예술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서울생활예술페스티벌**(2022-)이 새롭게 선을 보였다. 서울문화재단 축제 브랜드 '아트페스티벌 서울' 중 하나로 기존 자치구 협력 사업인 '생활문화25'와 연계해 서울 25개 자치구 기반으로 활동하는 생활예술 동호회와 예술을 취미로 즐기는 서울시 전역의 생활예술인이 한자리에 모이는 종합 발표 축제의 장으로 기획했다. 기존의 음악과 무용 등 공연 장르에 회화와 공예를 포함한 전시와 체험까지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자리로 만들어졌다. 1회 축제는 '예술 같은 생활, 생활 같은 예술'을 슬로건으로 2022년 10월 3일 장충체육관에서 열렸다. 'COMMUNITY 25'에서는 25개 자치구 추천 35개 동호회의 공연 및 전시 발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COLLABO 250'에서는 합창, 오케스트라, 스트리트 댄스 3개 장르별로 공개 모집한 시민 약 250명과 예술가의 공동 발표 무대가 펼쳐졌다. 이를 위해 재단은 멘토링, 워크숍, 쇼케이스 등 페스티벌 참여와 준비를 위한 전 과정을 지원했다. '약자와의 동행' 시정 기조에 발맞춰, 발달장애 청소년 오케스트라 하트하트오케스트라, 한국입양어린이합창단, 통합문화이용권(서울문화누리마켓)과도 협력했다. 1회 페스티벌에는 42개 동호회, 814명의 생활예술인이 참여했고 관람객은 2,340명이었다.

2023 서울생활예술페스티벌

2023년 2회 서울생활예술페스티벌은 전년보다 확대된 규모로 9월 23일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렸다. 서울시민합창단과 동행오케스트라의 개막 공연과 함께 25개 자치구 대표 생활예술 동호회 40팀의 경연 무대, 전시·체험 프로그램 등이 마련되었다. 서울시민합창단(지휘 우주호)은 25개 자치구 구민 200명이 3개월의 연습을 거쳐 무대에 올랐고, 동행오케스트라(지휘 안두현)는 공모로 선발된 시민 단원과 발달장애인 오케스트라 '하트하트오케스트라'까지 100명이 협연했다. 동호회 공연은 경연 방식을 가미해 전문가 심사와 관객 투표를 통해 25팀 중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을 선정하여 상장과 상금을 시상했다. 재단은 축제일로부터 한 달(9.23.-10.22.)을 '서울생활예술주간'으로 지정하고 25개 자치구에서 열리는 다양한 생활문화 행사와 프로그램을 모아서 홍보했다.

지난 2017년에도 10월 21일부터 11월 4일까지 서울시청 시민청, 서울숲, 홍대, 압구정 등 시내 곳곳에서 '생활문화주간'이 진행되었고, 동호회 경연 방식의 축제로는 재단 설립 초기인 2005년 '서울시민예술축제'가 있었다. 서울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즐기는 문화예술 활동을 확대하기 위한 재단의 고민과 노력은 20년의 시간을 잇고 있다.

서울생활예술플랫폼

서울 시민의 생활문화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생활문화 관련 정보를 한데 모아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2022년 생활예술 동호회, 강사, 공간, 자료 등 서울 생활예술 관련 정보 종합 DB를 구축했다. 2023년 2월 24일 서울생활문화플랫폼으로 정식 운영을 시작했으며 2024년부터 '서울생활예술플랫폼'으로 운영된다.

더 보기

연구보고서

- 서울문화재단, 2013, 시민문화 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 서울연구원, 2016, 서울시 생활예술동아리 활성화 방안 연구
- 서울문화재단, 2017, 서울 생활예술 2031 액션플랜 연구
- 서울문화재단, 2019, 2019년 생활문화정책2.0 수립연구
- 서울문화재단, 2020, 서울시 자치구문화재단 현황 기초연구
- 서울문화재단, 2021, 자치분권형 서울 지역문화 활성화 전략 수립 연구
- 서울연구원, 서울문화재단, 2021, 서울시-자치구 간 문화정책 협력방안

아카이브

- 2017 생활문화 거버넌스25 프로젝트북
- 2018 생활문화 거버넌스25
- 2019 생활문화 활성화 거버넌스25 × 생활문화 지원센터
- 2020 생활문화 공간 지원사업(생활문화지원센터) 아카이빙북
- 2021 생활문화 기획자 아카데미 기록집
- 2021 생활문화 연구담론집 돌아보다, 너머보다: 생활문화의 경계에서
- 2021 생활문화 다양성 인터뷰집 당신은 어떤 일상을 보내시나요?
- 2021 생활문화 [인 서울]: 생활문화활성화사업과 함께한 사람, 그리고 공간
- 2021 도서관의 재발견: 그동안 알지 못했던 도서관의 숨은 매력
- 2021 36 Ways: 2021 생활을 바꾸는 예술 참여자 36인의 인터뷰집

5.2.2.

문화복지

- 통합문화이용권
- 서울청년문화패스
- 서울 사랑의 문화나눔
- 예술로 희망드림 프로젝트

통합문화이용권

+ 2012-2023
÷ 문화나눔팀, 문화향유팀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은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기 어려운 문화취약계층이 다양한 문화예술·관광·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문화복지 사업이다.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문화소외계층의 삶의 질 제고와 문화격차 완화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관 하에 전국의 광역시도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06년 '문화바우처'라는 사업명으로 처음 시작된 이후 2013년 '문화이용권'을 거쳐 2014년부터 여행과 스포츠 관람 이용권을 통합하면서 현재의 이름으로 운영 중이다. 재단은 2012년부터 사업을 수탁 운영하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전국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울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한다. 2014년 통합문화이용권 최초 발급 당시 지원금은 가구당 10만 원이었다. 이후 2015년부터 가구가 아닌 개인별 5만 원으로 변경됐고, 해마다 1만 원씩 상향돼 2023년 기준 1인당 11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인원은 20만 명대에서 45만 명대까지 확대되었고 누적 이용 인원과 금액은 총 244만 명, 1,693억 원에 달한다. 이중 문화예술 분야 이용액은 1,403억(82.9%)을 차지한다.

재단은 문화누리카드 발급률과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가맹점 신규 발굴과 전수 조사, 이용자 고객만족도 조사, 홍보 등을 진행했다. 2015년까지는 카드 미발급 계층과 자발적 관람이 어려운 대상자를 위해 맞춤형 기획사업을 운영하기도 했다. 2021년 통합이용권 홍보를 위해 서울 문화누리카드 대표 캐릭터 '누리·서리'를 제작한 사업 담당자 김성은 주임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을 받기도 했다. 2023년에는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 기조에 맞춰 장애인·고령층·청년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점자 카드과 가정(시설) 방문 발급을 지원하고, 권역별 가맹점 점자·큰글씨 안내 책자를 배포했다.

2012 문화바우처 기획프로그램

문화누리카드

서울청년문화패스

+ 2023-
÷ 문화향유팀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이 2023년 시작한 '서울청년문화패스'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연극, 뮤지컬, 클래식·오페라, 발레·무용, 국악, 전시 관람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예술 분야를 활성화하기 위해 1인당 연간 20만 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원하는 문화이용권 사업이다.

신청 후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한은행에서 서울청년문화패스 연계 계좌를 개설하고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서울청년문화패스 누리집에서 원하는 공연이나 전시를 예매하면 된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은 신한은행, 신한카드와 4자 간 협약을 맺었다. 상반기에 진행된 1차 모집에서는 만 19세(2004년생)만을 대상으로 했다가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반기 2차 모집부터는 19세부터 22세 청년으로 범위를 넓혔다.

서울청년문화패스 누리집에서는 예매 서비스와 함께 작품추천위원회를 통해 장르별 전문가의 추천 공연 목록을 제공하고 청년들에게 인기 있는 작품을 모아서 소개하고 있다. 청년들이 문화예술을 적극적으로 소비하는 '예술애호가'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예술 생태계 저변을 확대하고 예술 소비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지원대상

연령: 19세부터 22세 청년 (2023년 기준 2001.1.1.-2004.12.31. 출생자)
주거: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외국인등록대장상 서울 거주
소득: 중위소득 150% 이하 (2023년 건강보험료 기준)

지원내용

문화예술 관람 지원비 1인당 20만 원 문화이용권(카드) 지급
신한은행 계좌 및 카드 개설을 통한 서울청년문화패스 누리집 (https://www.youthculture seoul.kr)에서 제공하는 공연·전시 예매

신청

청년몽땅정보통 (youth.seoul.go.kr)

서울 사랑의 문화나눔

+ 2005-2011
÷ 문화사업팀

서울시가 시민의 문화예술 향수 기회 확대와 '함께하는 문화복지 도시 만들기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서울 사랑의 문화나눔' 사업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재단에서 위탁 운영했다. 다양한 장르의 공연단체가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하기 어려운 문화소외계층을 직접 방문해서 공연하는 프로그램으로 양질의 문화공연을 차별화된 방식으로 제공했다. 예산 규모는 2005년 3억 원에서 시작해 해마다 증가하면서 2010년 9억 원을 넘어섰다.

찾아가는 무료 순회공연 진행을 위해 가장 먼저 할 일은 공연단 선정이었다. 공모를 통해 국악·연극·음악·무용·일반 등 장르별 공연단 풀(pool) 30팀을 구성해 종합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병원, 아동복지센터, 재활원 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공연단을 파견했다. 2005년 **사랑의 문화행사 나눔**이라는 사업명으로 시작한 첫해에는 인지도 높은 공연 작품 위주로 구성해 세종문화회관, 예술의전당, 충무아트홀과 서울열린극장 창동에서 공연을 열었고, 자치구 복지시설을 찾아가는 순회공연 등을 진행했다. 2006년부터는 '찾아가는 문화공연'에 집중해 25개 자치구 132개 복지시설을 중심으로 24개 팀이 순회공연을 했다. 2007년은 총 300회 열린 공연을 67,538명이, 2008년에는 총 317회의 공연을 71,204명이 관람했다. 공연 프로그램을 일방적으로 공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시설에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맞춤형' 운영으로, 서울시 문화예술행사 중 시민 만족도 1위, 서울시 출연기관 고객만족도 1위를 달성했다. 4년째를 맞이한 2008년에는 공연을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교육·체험을 통해 관객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공연을 진행했다. 2010년에는 기존의 공연, 시각, 문학 분야 '맞춤형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묶어 **찾아가는 문화배달 서비스**라는 브랜드로 진행했으며, 공연 분야에서는 서울 시내 복지시설 등에서 351회 공연을 개최했다.

2011 서울 사랑의 문화나눔

'서울 사랑의 문화나눔' 사업은 2011년부터 서울시 정책 변화에 따라 수혜자 범위를 확대하고 각 자치구와 연계한 문예회관 공연을 시도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노약자 혹은 아이들에게는 버스를 보내 공연장까지 이동을 도왔으며, 관객 300~500명 대상의 공연을 선보였다. 2012년 재단이 당시 '문화바우처' 사업을 신규로 수탁 운영하게 되면서, 소외계층 대상 문화복지 프로그램 중복 운영 방지를 위해 '서울 사랑의 문화나눔' 사업은 서울시로 이관했다. 2013년 문화이용권 기획사업에서 서울 소재 사회복지시설, 학교, 자치구 공연장 등을 전문 공연단체가 찾아가는 공연을 진행할 때 '사랑의 문화나눔'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기도 했다.

2015년에는 당시 사회를 강타한 메르스 사태로 긴급 추경 예산이 편성되며 '사랑의 문화나눔'을 계승한 **함께서울 문화나눔**이 일시적으로 진행되었다. 메르스로 침체된 문화예술분야 지원을 위해 특별 기획한 사업으로, 모셔오는 문화나눔 '함께서울 나눔극장', 찾아가는 문화나눔 '우리동네 순회공연'을 총 346회 운영해 51,636명이 참여했다. 추경 예산으로 함께 진행한 **학교야! 문화로 놀자**에서도 서울 279개 초·중·고등학생 95,448명의 문화예술 단체 관람을 지원해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위기에 처한 문화예술단체도 간접적으로 도왔다.

이후 '찾아가는 공연' 형태의 사업은 맥이 끊겼다가 2023년 서울스테이지11에서 **찾아가는 서울스테이지**를 시작하면서 재개되었다.

예술로 희망드림 프로젝트

+ 2009-2015
÷ 예술지원팀

서울시복지재단과 함께 2009년 시작한 '예술로 희망드림 프로젝트'는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에게 예술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예술적 창의력을 키우고 예술 꿈나무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재단의 대표 문화복지 사업 중 하나였다.

서울시와 서울시복지재단이 운영하는 희망플러스통장과 꿈나래통장 가입 가정 자녀 가운데 예술교육을 희망하거나 예술을 전공하고 예술가가 되기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나이와 수준에 맞는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했다. '씨앗나눔'에서는 예술을 접할 기회가 없었던 저소득층 아이들이 주거지 근처 학원을 자유롭게 선택해 음악·무용·미술·전통예술 분야 실기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배려했다. '꿈나무키움'에서는 예술에 재능이 있는 전공 희망자를 대상으로 전문예술교육을, '인재육성'에서는 예술 전공자 대상으로 학비 등의 경비를 지원했다.

예술로 희망드림은 아이의 재능을 발견하고 본격적인 전문 교육을 시켜봐야 할 것 같으나, 도저히 경제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던 눈앞이 캄캄하던 나에게 하늘에서 내려준 금동아줄과 같았다.

2015 월곡종합사회복지관 꿈나무키움 참가 가정 부모

'예술로 희망드림 프로젝트'는 '2011 서울시 창의페스티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며 대외적으로도 공로를 인정받았으며, 재단의 지원을 받은 재능 있는 인재들이 유수의 예술학교에 진학하고 다수의 대회에서 수상하는 성과를 올렸다. 2013년에는 '꿈나무키움' 지원을 받은 초등학생(바이올린)은 '제33차 금호영재콘서트' 오디션에 합격하는 동시에 '아랍에미리트 뮤직페스티벌'로부터 초청받았으며, 2014년 당시 서울대학교 피아노 전공 1학년이던 우용기 학생이 제3회 예술의전당 음악영재 캠프&콩쿠르 피아노 부문에서 음악영재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우용기 학생은 이후 서울대학교를 최우수로 졸업하고 독일 폴크방 예술대학교에 유학 중이며 '2023 스코티시 국제 피아노 콩쿠르' 공동 2위에 입상하기도 했다.

사업이 해를 거듭할수록 전문 예술가의 재능기부와 조건부 기부, 객석 기부가 증가했으며, 우리금융그룹, 올림푸스한국과 같은 기업의 후원을 끌어내며 기업 메세나 활동과 공공 예술교육 사업의 연계 모델을 구축할 수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술교육 경험을 통해 저소득층 가정 자녀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문화예술의 가치를 공유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는데 일정 부분 기여했다.

2015 예술로 희망드림 프로젝트 결과발표회

2009 예술로 희망드림 오디션 심사

희망드림 현악앙상블

구분	씨앗나눔	꿈나무키움	인재육성
신청자격	서울 희망플러스·꿈나래 통장 가입 가구 자녀		
지원대상	(미취학)초~중학생	음악: 중~고등학생 *전국 대회 수상 실적 초등학생 미술: 고1	기초예술(무용, 음악, 전통예술, 시각예술) 장르 전공 중인 중·고·대학생
내용	기초예술(음악, 무용, 미술, 전통예술)교육 수강비 지원(월 10만 원)	예술가 멘토링 지도(1:1)를 통한 전문예술 교육 지원(월 40만 원 이내)	예술 전공 학생 학비 지원 (연간 500만 원 이내)
운영 결과	1,852명 지원	132명 지원	29명 지원
비고	- 초기에는 미취학 아동 포함	- 초기에는 초등학교 고학년 포함 - 서울거주 다문화가족·결혼이민자 자녀 포함(2015)	2013년까지 운영

유형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합계
씨앗나눔	203	482	300	276	176	207	208	1,852
꿈나무키움	6	15	30	27	25	5	24	132
인재육성	3	7	13	11	5	-	-	39
계(명)	**212**	**504**	**343**	**314**	**206**	**212**	**232**	**2,023**

5.2.3.

시민문화

캠페인

- 서울문화예술탐방 프로젝트
- 책 읽는 서울
- 바람난 미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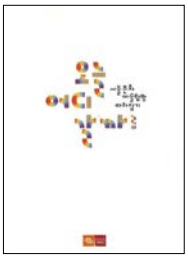
관람형

- 문화와 예술이 있는 서울광장
- 서울거리아티스트
- 서울스테이지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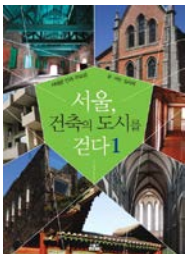
캠페인

서울문화예술탐방 프로젝트

+ 2007-2011
× 문화는 내 친구(2007)
서울문화예술탐방 프로젝트(2008-2011)


서울문화예술탐방
따라잡기 - 오늘 어디 갈까?

서울, 문학의 도시를 걷다



서울, 건축의 도시를 걷다

'서울문화예술탐방 프로젝트'는 시민들이 함께 탐방을 다니며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고 숨겨져 있는 서울 문화예술 명소의 문화적 가치를 재발견하는 프로젝트였다. 2007년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시민들이 보다 의미 있고 즐겁게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을 탐방해 보자는 취지에서 **문화는 내 친구**라는 이름으로 시작했고, 2008년 서울의 문화예술 명소 탐방과 발굴의 성격을 강화하면서 **서울문화예술탐방 프로젝트**로 정착했다. 2007년 '문화는 내 친구'는 83회 진행되어, 매회 30여명, 총 3,350여명의 시민이 참가했고, 2008년 '서울문화예술탐방 프로젝트'는 114회 진행되어 3,450여명의 시민이 참가하는 성황을 이뤘다. 시민들은 서울광장에서 출발하는 버스를 타고 전문가의 해설을 들으며 서울 시내 미술관, 아틀리에, 박물관, 근대건축물 등 다양한 분야의 문화예술 명소를 탐방했다. 요일별, 주별, 분야별로 테마가 나눠져 있어 선택해 참여할 수 있었으며, 사업 홍보를 위해 탐방지 홍보 책자를 서울시내 20여 곳의 미술관, 박물관에서 배포하기도 했다. 재단이 단독으로 주최하기 보다는 한국PD연합회, 한국박물관협회, 한국건축가협회 등 분야별 관련 협회와 협업하는 사업 모델을 구축했다.

'서울문화예술탐방 프로젝트'는 시민들이 서울의 이야기와 문화자원에 보다 쉽게 접근하고 서울을 바라보는 다양한 문화적 시각을 제공했다는 데 의의가 있었다. 시민 각자가 서울 문화예술 탐방가가 되어 탐방 장소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문화적 콘텐츠를 홍보하는 역할을 하면서, 입소문이 나고 더 많은 시민에게 알려지는 효과가 있었다.

2010년에는 '서울문화예술탐방 프로젝트'로 개발된 탐방 코스 31개를 소개하는 책 '오늘 어디 갈까?(Explore Seoul in a day)'의 국·영문판이 출간되었다. 문학산책 코스 12개를 소개하는 '서울, 문학의 도시를 걷다'(허병식·김성연 저, 2017년 개정판 출간), 서울의 의미 있는 건축물 312채를 32개의 코스로 소개한 '서울, 건축의 도시를 걷다'(임석재 글·사진)도 단행본으로 나왔다. 시민들이 스스로 코스 개발자로 참여할 수 있게 '서울문화예술탐방 공모전'도 진행했다. 사업 마지막 해인 2011년에는 조선시대 역사적 현장에서 일어났던 스토리를 짧은 연극으로 보고 4대 궁 중심으로 탐방을 하는 **연극과 함께 하는 역사탐방**을 새롭게 진행했다. '서울문화예술탐방 프로젝트'는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서울연극센터의 '대학로 연극투어', '통합문화이용권'의 기획사업 문화와 함께하는 '역사탐방' 등으로 이어졌고, 2013년 서울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메모리[人]서울 프로젝트'의 마중물 역할을 했다.

서울문화예술탐방 프로젝트 버스

책 읽는 서울

+ 2004-2012
÷ 문화사업팀

서울문화재단은 독서 캠페인을 통한 독서 저변 확대와 도서관 등 독서 관련 기관, 단체와의 네트워크 형성에 초점을 두고 2004년부터 2012년까지 9년 동안 '책 읽는 서울' 사업을 추진했다. **한 도서관 한 책 읽기**라는 서울을 대표하는 범시민적 독서캠페인을 펼쳐 공공도서관을 활성화하고, 책을 매개로 시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연계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2006 책읽는서울낭독회

첫해인 2004년에는 9월 독서의 달 첫 토요일에 서울광장에서 다양한 부대행사를 열고 9월과 10월 31개 도서관과 독서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가, 2005년부터는 해외의 성공 사례인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을 서울에 맞게 바꿔 연중 캠페인으로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운동을 16개 공공도서관과 시작했다. 재단은 서울의 도서관과 시민의 거리를 가깝게 하고 도서관이 시민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독서운동 네트워크의 연결자이자 지원자 역할을 했다. 2006년에는 '저자와 함께 학교에 가다' 등 시민·청소년·아동을 대상으로 각 특성에 맞는 주제를 정하고 프로그램으로 진행했다.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운동은 2007년 57개의 공공도서관이 참여하며 규모가 커졌다. 기존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을 확대해 교사와 학생이 함께 하는 독서 교육 프로그램 '움직이는 서가'를 기획했으며, 청소년 프로그램 KBS '도전 골든벨'에 '움직이는 서가' 특집 프로그램을 마련해 전국에 소개하기도 했다. 2008년부터는 '올해의 주제'를 선정해 공공 도서관이 주도적으로 독서 운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지원했다. '한 도서관 한 책 읽기'에는 2009년 72개 도서관, 2010년에는 85개 도서관이 참여했으며, 음악, 영화 분야 전문가가 음악, 영화와 관련 주제로 책 이야기를 진행하는 '책, 음악(영화)을 만나다'와 도서관에 문학과 연관된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한 '책, 예술과 만나다'도 운영했다. '움직이는 서가'는 '책 읽는 카페' 사업으로 추진해 커피전문점 20개 지점에서 서가를 운영한 후 25개 복지기관에 책을 기증했으며, 다음 해에는 야외로 나가 여의도, 뚝섬, 난지 한강공원에서 운영했다. 2012년에도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참여 도서관이 96개까지 확대되었고, '책, 예술과 만나다'에서는 12개 단체가 70개 공공도서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지원했다.

2007 빅북

재단 출범과 함께 시작된 '책 읽는 서울'은 2012년 10월 26일 서울도서관 개관에 따라 2013년부터 서울도서관으로 이관되어 계속되고 있다. 2005년 10월 16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책 읽는 서울광장 도서관'은 서울광장을 일일 도서관으로 만들어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책 읽는 서울을 홍보하는 행사였다. 이때 처음 시도한 야외도서관 콘셉트는 서울도서관에서 2022년 4월 23일 '세계 책의 날'에 시작한 '책읽는 서울광장'으로 이어져, 연간 20만 명이 참여하는 행사로 큰 인기를 끌며 운영되고 있다.

바람난 미술

+ **서울형 미술은행(2012), 바람난 미술(2013-2016)**
× **시민문화팀(2012-2014), 공공예술센터(2015-2016)**

캘리그래퍼 강병인 재능기부

아트캠페인 '바람난 미술'은 시작 당시인 2012년에만 해도 흔치 않았던 미술작품 대여·구매·펀딩의 개념을 공공 영역에 도입해 미술계에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킨 사업이다. 일상에서 미술을 향유하는 '바람(wish)'에서 시작된 '바람(wind)'으로, 미술관 문턱을 넘어 누구나 쉽게 미술을 만나고 즐기는 방법을 제안했다. 2012년 **서울형 미술은행**에서 출발해 '전시장을 나온 미술, 예술이 넘치는 거리'를 슬로건으로 구매 중심의 기존 미술은행 방식에서 벗어나 공모를 통해 선정된 작가의 작품을 대여하고 시민 일상과 가까운 장소에 작품을 전시하는 방식으로, 작가에게는 작품 대여료를 통한 간접 지원과 작품 소개와 홍보 기회를, 시민들에게는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미술작품을 감상하고 소장하며 작가를 응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바람난 미술사업 착수를 위해서는 먼저 작품을 대여할 작가풀 구성이 필요했다. 2012년 처음 진행한 공모에는 작가 160명이 556개 작품을 응모해, 최종 작가 40명의 53개 작품을 풀로 구축했고, 2013년 61명이 추가 선정되면서 작가 101명, 114개 작품으로 늘어났다. 2014년 공모에서는 5: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하며, 작가 72명의 작품 75점을 추가로 선정했다. 2015년부터는 공모와 함께 작가 추천제 방식을 더해 64명의 작가, 98개 작품이 참여했다.

찾아가는 전시는 2013년 1월 시민청 지하 1층 시민플라자에서 첫 전시를 개최한 이후 2015년까지 시민청, 병원, 공원, 공공 기관, 쇼핑몰, 백화점, 학교 등 생활밀착형 신규 공간을 추가로 발굴하면서 운영했다. 2014년에는 작가들이 직접 창작한 소품으로 구성한 그림장터 '트렁크숍'을 DDP 어울림마당에서 진행하기도 했다. 이동 전시의 아쉬움을 덜기 위해 2015년 8월 26일 시민청에 소규모 작품을 상설 전시하고 판매할 수 있는 공공갤러리 **그림가게**를 오픈했으며, 서울 지하철역 유휴 광고판을 활용해 주요 지하철 6개역에서 10개 작품을 시민들에게 연중 소개하기도 했다.

사업 4년 차를 맞은 2016년에는 오프라인 중심의 미술 플랫폼을 시공간 제약이 없는 온라인 중심으로 전환하는 변화가 있었다. '찾아가는 전시'를 중단하는 대신 오프라인 '그림가게'를 지속 운영했으며, 온라인 '그림가게' 구축을 위해 카카오(Kakao)와 손을 잡았다. 참여 작가는 일반 공모가 아닌 서울권역 시각 분야 전문 미술공간에서 추천 받아 심사를 통해 선정했으며, 그 결과 32명의 작가가 다음(Daum) '스토리펀딩' 서비스의 개별 작가 펀딩에 참여했다. 작가 창작활동 소개와 이미지 전시, 작품 유통 서비스를 결합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작가 후원과 작품 판매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다.

바람난 미술이 작가들에겐 물감 살 돈을 마련하는 것 이상의 효과를 내기도 한다. 참여 작가들 중 윤신혜라는 젊은 작가는 한 갤러리스트의 눈에 띄어서 프라하 등 외국 전시도 개최하게 되었고, 역사박물관에서 그의 작품을 구입하기도 했다. 작가들이 그런 기회를 맞을 수 있게 한 것이 바로 바람난 미술의 가장 큰 성과가 아닌가 싶다.

김효진, 당시 시민문화팀, 서울문화재단 10년

바람난 미술 운영 결과

	2012	2013	2014	2015	2016
작가풀 구축	작가 40명 작품 53점	작가 61명 작품 61점	작가 72명 작품 75점	작가 64명 작품 98점	-
찾아가는 전시		찾아가는 전시 10회	찾아가는 전시 16회	찾아가는 전시 7회 관람시민 229,735명	-
행사			그림장터 '트렁크숍' (DDP 어울림마당) K-아트 거리소통 프로젝트 (광화문 시민열린마당)	지하철 플랫폼 전시 (2014.12.15.-2015.01.14. 2015년 상설) 6개역(고속터미널, 왕십리, 종로3가, 충무로, 동대문, 서울역), 10개 작품	-
그림가게				공공갤러리 '그림가게' 시민청 오픈(2015.08.26.) 및 상설 전시 운영 작가 38명, 작품 93점	
					온라인 그림가게 (다음 스토리펀딩) 2016년 8월-11월 작가 32명 선정 및 참여 후원자 1,396명 페이지뷰 1,415,154회 작품 판매 117건

2014 바람난미술 팝업갤러리

바람난 미술을 운영하며, 일상에서 우연한 기회에 작품을 처음 접하고 마음 맞는 작가를 만나 직접 작품을 구입하러 오는 분들을 볼 때 매우 뿌듯함을 느낀다. 사업의 취지에 딱 맞기도 하지만, 그렇게 되는 계기가 작품과 소통이 되어서, 그저 자녀가 마음에 들어 한다는 이유로, 생애 첫 예술작품 구매로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면 소소한 놀라움을 주기도 한다. 마음 맞는 작품을 만나고, 나만의 작품을 기꺼이 소장해보고자 하는 문화와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데 '바람난 미술'의 역할이 있는 것 같다.

황현정, 2013년 사업담당자, 서울문화재단 10년 백서

'바람난 미술'은 소규모 작품을 중심으로 소개해 작품 구입 문턱을 낮추며 일반 시민을 콜렉터의 세계로 이끄는 역할을 했다. 신진 작가 입장에서는 미술시장에 진입하는 동시에 본인의 작품을 좋아하고 소장하고 싶어하는 시민을 만나면서 창작 동기가 부여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었다. '바람난 미술'은 오프라인에서 시작해 온라인으로 영역을 넓히며 예술가와 시민이 만나는 예술향유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무엇보다 미술작품 소장 문화 확산에 기여하며 새로운 미술시장의 흐름을 만든 사업으로 회자되고 있다.

더 보기

- [서울문화재단 총서] 바람난 미술: 전시장을 나온 미술 예술이 넘치는 거리
- 바람난 미술 참여작가 대담 '전시장을 나온 미술, 새로운 좌표를 찾아서', [문화+서울] 2015년 2월호
- 〈바람난 미술〉 '그림가게' with 카카오 전시장을 나온 미술, 온라인에서도 '바람'나다, [문화+서울] 2016년 7월호
- 〈바람난 미술×카카오 스토리펀딩〉 프로젝트 '누구나 생활에서 미술을 즐긴다'는 가능성, [문화+서울] 2016년 12월호

관람형

문화와 예술이 있는 서울광장

+ 2004-2008
× 서울광장 예술프로그램 '일상의 여유'(2004-2007), 문화와 예술이 있는 서울광장(2008)

2006서울광장예술프로그램
일상의 여유

서울문화재단은 같은 해 생긴 서울광장(2004년 5월 1일)을 일상 속 문화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2004년 6월부터 서울광장 예술프로그램 **일상의 여유**를 운영했다. 서울광장을 시민에게 돌려준다는 취지 아래 시민들이 일상에서 즐길 수 있는 작지만 알찬 공연을 개최했다. 서울광장 한쪽에 상설 무대를 갖추고 월요일을 제외한 평일 점심시간과, 주말 오후에 시민들이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을 진행했다. 클래식·대중음악·발레·스트리트 댄스·연극·뮤지컬·시각예술·문학 등 장르를 넘나드는 우수한 프로그램을 구성해 선보인 결과, 매년 60회 이상의 공연에 약 3만 명이 관람하는 재단 대표 시민향유 행사로 자리 잡았다.

'일상의 여유'로 사업을 지속하다 2007년 7월부터는 서울시에서 재단을 포함한 시문화기관·단체, 자치구 문화기관까지 함께하는 사업으로 구상한 '문화가 흐르는 서울광장'의 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었다. 다음해 서울시가 예산과 규모를 확대해 **문화와 예술이 있는 서울광장**이라는 이름으로 사업 운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4년의 노하우와 전문성이 쌓인 재단에 사업을 위탁했다. 2008년에는 촛불집회로 인해 다수의 공연이 취소되면서, 예정보다 적은 50회 공연을 진행했고 6만 8천여 명이 관람했다. 2008년 재단의 위탁 운영은 종료되었지만 이후에도 서울시에서 사업을 계속 운영하면서, 2015년 **문화가 흐르는 서울광장**이라는 초기 이름을 되찾았다. 2022년부터는 노들섬 잔디마당으로 자리를 옮겨 **문화가 흐르는 예술마당**으로 새롭게 태어났으며, 2023년 광화문광장까지 확대되어 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문화와 예술이 있는 서울광장'은 서울광장을 초기부터 시민을 위한 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게 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2022년부터 시작해 매월 첫째 목요일 점심시간 전후로 열리는 '서울스테이지11'은 재단 설립 초기 서울 시민에게 '일상의 여유'를 주기 위해 고민했던 흔적이 발현된 결과 아닐까.

2008년 공연별 요일별 관람객 추이 분석에 따르면 평균 관람객이 가장 많은 요일은 토요일로 약 3,600명의 집객을 기록했고, 그 뒤로 목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순으로 나타나 이는 향후 사업계획 수립 시 유용한 데이터로 활용할 예정이다.
서울문화재단 07-08 백서

2004-2008 서울광장 예술프로그램

구분	기간	공연횟수	출연진	관람인원
2004	6월-11월	55회	68개 팀	25,000명
2005	4월-11월	63회	71개 팀	31,000명
2006	4월-11월	70회	459명	21,000명
2007	5월-10월	64회	1,108명	26,820명
2008	5월, 7-10월	62회	1,300명(110팀)	68,380명

서울거리아티스트

+ **2005-2012**
× **청계천아티스트(2005-2007), 서울거리아티스트(2008-2012)**

버블드래곤컴퍼니

'서울거리아티스트'는 2005년 **청계천아티스트**로 시작한 사업으로, 대학로, 서울광장, 주요 축제 현장 등으로 공연 장소가 확대되면서 2008년부터 **서울거리아티스트**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음악·극·무용·국악·시각예술·문화일반 등 서울의 주요 거리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통해 예술가에게는 공연 기회를 시민들에게는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한 사업이다.

2005년 10월 복원된 청계천을 따라 조성된 간이 무대에서 활동할 '1기 청계천 아티스트'를 공모한 것이 사업의 시초다. 초기에는 오디션 자체를 거리 축제화 하기 위해 공개 오디션으로 진행했다. 당초 10월 한 달 운영을 계획했으나 시민 반응이 좋아 12월까지 연장됐고, 2006년에도 이어져 1월부터 3월까지는 주말, 4월 이후는 주말과 평일 공연을 진행했다. 초기 청계천아티스트들에게는 공식 활동 인증서를 발급하고 관객에게 기부금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재단은 재단 누리집과 홍보자료를 통해 활동 팀과 공연을 알리고, 소규모 음향 장비 지원, 보험 가입, 자원봉사 안내요원 배치 등을 지원하며 공연 진행을 도왔다.
2007년 주 1회 수시 오디션, 2008년 월 1회 정규 오디션 방식을 거쳐 2009년부터 연 1~2회 정기 오디션을 통해 아티스트를 선발했다. 새로 선발된 아티스트는 유예 기간과 예비 평가, 인증서 발급 방식으로 공연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매월 아티스트 활동 평가를 통해 활동지원금을 지급했다. 서울거리아티스트로 등록된 아티스트는 정기 공연 외에도 '하이서울페스티벌'을 비롯해 2009년 서울디자인올림픽, 2010년 문화와 예술이 있는 서울광장, 2011년 서울시창작공간페스티벌 등에도 참여하며 시민과 만나는 접점을 늘였고 그 과정에서 성장할 수 있었다. 서울거리아티스트의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청계천을 비롯한 공연장소를 찾는 시민이 많아졌으며 거리아티스트 활동을 기반으로 꿈을 키운 아티스트들은 다른 서울시 행사, 축제에서도 주목받으며 대중에게 사랑을 받기 시작했다.

서울문화재단은 8년간 사업을 지속했지만, 비슷한 거리예술 공연이 증가함에 따라 거리아티스트의 홀로서기를 돕는 파트너로 남기로 결정하고 사업을 마무리했다. 시민청, 가든파이브와 같은 신규 공간으로 활동 거점을 넓히고, 청계천을 중심으로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거리아티스트를 알리고 매개하는 역할을 하며 이들의 미래를 응원했다.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아티스트(팀)	36	64	78	94	121	137	152	152
공연횟수	63	-	1,617	3,239	4,814	6,631	7,108	7,596

더 보기
2012 서울거리아티스트 결과보고서

거리아티스트가 남긴 한마디

영광된 시간, 크나큰 자부심,
잊을 수 없는 추억입니다.
Seoul Street Artist from 2007.7. to 2013.1.
-두바퀴(BMX 자전거 묘기)-

서울거리아티스트를 통해
제2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톰앤제리 오카리나 듀오-

거리아티스트 그 이후

그라운드 잼

2011년 서울거리아티스트 등록 아티스트로 KBS '남자의 자격', MBC '나는 가수다', tvN '코리아 갓 탤런트2' 등 다수의 방송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렸다. 2023년 현재도 탭 퍼포먼스 팀으로 활발히 활동한다.

홍대광

2008년-2009년 '노창어쿠스틱'으로 서울거리아티스트 활동을 한 홍대광은 2012년 슈퍼스타K의 최종 파이널 4인으로 선정된 이후 가수로 데뷔했다. 방송에서 서울거리아티스트로 활동하며 버스킹을 했던 추억을 떠올리며 노래하기도 했다.

매직플레이

2008년 무명의 젊은 거리예술 단체였던 매직플레이는 당시 인기 프로그램 SBS 〈스타킹〉에 출연해 3연승 신기록을 세웠으며, '그림자 쇼'라는 독창적인 공연으로 사랑 받고 있다.

강준우

2010-2012년까지 어쿠스틱 밴드 '나겸과 두부'의 리더로 활동한 강준우는 육중완(기타·보컬)과 함께 2011년 '장미여관'을 결성했으며 데뷔 미니 앨범 '붕숙이'로 이름을 알렸다. 2018년부터는 육중완 밴드 멤버로 활동하고 있다.

그라운드잼

농구보이

서울스테이지11

+ **2022-**
÷ **문화향유팀**

2022 서울스테이지11 문래예술공장

'서울 스테이지11'은 매월 첫째 목요일, 재단이 운영하는 11개의 창작공간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예술공감 콘서트이다. 2022년 1월 발표한 '3대 전략, 10대 혁신안' 중 '서울시민의 일상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목표로 재단 5개 단·본부, 12개 팀(11개 창작공간)이 참여해 신규 사업으로 추진했다. 재단이 운영하는 창작공간 11개에서 매월 첫째 목요일 오전 11시에 시민을 위한 공연예술 콘텐츠를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 2022년 4월 7일, 3개 공간에서의 시범 공연을 시작으로 클래식·국악·대중음악·무용·문학 등 다양한 장르 예술인 285명이 참여해 63회의 공연을 선보였으며, 6,358명의 시민이 관람했다. 평일 오전 시간, 일상에서 접하는 수준 높은 공연에 시민들은 관람만족도 96%, 재관람 의향 92%로 화답했다. 2023년에는 리모델링을 마친 서울연극센터까지 참여해 '11'을 완성하고, 더 많은 시민의 일상 속 문화향유를 위해 축제 현장과 서울 곳곳으로 무대를 확장했다. 시민 수요에 맞춰 시간을 오후 12시와 2시로 변경했으며, '약자와의 동행'과 연계해 '찾아가는 서울스테이지11'를 신규로 추진했다. 5월에는 서울서커스페스티벌이 열린 열린송현녹지광장, 이태원 활성화를 위해 6호선 녹사평역에서 공연을 열었으며, 10월에는 서울특별시립 은평의마을 생활인과 인근 주민, 12월에는 북한이탈주민 자녀, 장애우 재활 전문 병원 등을 직접 찾아가서 공연을 펼쳤다.

예술가에게는 코로나19 이후 침체되었던 시기에 주어진 소중한 실연의 기회이기도 했다. 2022 문래예술공장 상주단체 '가야금LAB오드리', 2021 유망예술지원 선정단체 '안해본소리' 등 재단 입주 작가나 지원사업 선정 단체·예술가가 '서울스테이지11' 출연하며 예술지원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2023년 6월 청년예술청 공연 'SUMMER BREEZE'에 출연한 바이올리니스트 김계희는 이후 참가한 '17회 차이콥스키 국제 콩쿠르'에서 기악 부문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을 차지했다.

'서울스테이지11'은 재단 최초의 대규모 협력 사업으로 산발적으로 각기 진행해온 창작공간의 시민향유 프로그램을 하나로 집약하며 재단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기존 예술가 중심이었던 창작공간의 역할이 시민의 문화공간으로 확장되며 재단 인지도를 높이는 효과도 있었다. 무대와 객석의 경계가 없고 관람 연령 제한이 없는 무료 공연으로 진행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많은 시민들이 '서울스테이지11'을 즐기고 있다.

더 보기
서울스테이지11 누리집

11개 공간

거점 대학로센터,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용산, 청년예술청, 시민청
특화 서울무용센터, 연희문학창작촌, 서교예술실험센터, 서울연극센터,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양천
일반 금천예술공장, 문래예술공장

사실은 11이 아니다

'오전 11시 공연, 11개 공간'의 의미를 담아 시작했지만, 2022년에는 서울연극센터가 리모델링 공사와 재개관 준비로 참여하지 못하면서 10개 공간에서 진행되었다. 2023년부터는 11개 공간이 채워졌지만,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 오전 11시 외에 오후12시, 오후 2시로 시간이 변경되었다. 2024년부터는 노들섬 복합문화공간이 추가되고, 자치구와 협력해 찾아가는 공연을 확대하면서 '서울스테이지 2024'로 개편된다.

2014 바람난미술 지하철플랫폼

바람난미술 찾아가는 전시

2022 서울스테이지11 서교예술실험센터

2010 서울거리아티스트

2022 서울스테이지11 대학로센터

5.3.

예술교육

서울문화재단은 동시대 예술가의 창작 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서울형 예술교육을 추구하며, 시민 누구나 일상에서 예술가를 만나고 예술을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사회 이슈와 정책 흐름에 한발 앞서 새로운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여 왔다.
특히 미적체험 예술교육 철학과 통합예술교육이라는 독창적인 서울형 예술교육 모델을 정립해 2006년부터 2022년까지 공교육 현장에서 학교예술교육TA들과 아동·청소년을 만났으며, 2016년 국내 최초의 예술교육 전용공간 개관, 2021년 서울시 거점형 키움센터와 연계한 지역예술교육TA 도입, 2023년 서울예술교육 통합 브랜드 '서울시민예술학교' 개설 등을 통해 국내 예술교육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시민과 예술가가 함께 예술교육에 참여하며 같이 성장할 수 있게 예술교육의 가치를 확산하고 지속 가능한 예술교육 정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도 놓치지 않았다.
재단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며 축적한 예술교육 방법론을 일반 시민을 위한 새로운 통합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확산에 적용하고, 신규 조성 중인 3개소를 포함한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를 중심으로 서울형 예술교육의 저변을 더욱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

서울문화재단 예술교육 20년

탐색기
2004-2006

2004년 재단 출범 당시 예술교육 분야의 비중이 높지 않았지만, 예술교육 영역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다양한 시도를 하며 기반을 다졌다. 출범 첫해인 2004년에는 '시민문화예술지원 공모'에 교육형 프로그램을 포함해서 지원했으며, 개별 사업은 교육의 성격이 포함된 청소년 동아리 지원사업 '청소년 문화벤처단'이 유일했다. 2004년 문화관광부가 발표한 '창의한국'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이 주요 의제로 부각되면서, 2005년 2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설립되었고 2005년 12월에는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이 제정되었다. 국가적으로 문화예술 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추세에 따라 재단도 2005년부터 시민의 문화접근성을 향상하고 문화예술 매개자와 예술가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2005년 **서울문화예술교육과정**이라는 이름으로 기존의 문화예술교육과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해 '즐거운 넷째 토요일'과 같은 일반 시민, 청소년 대상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전문예술인 대상 미국 뉴욕 링컨센터예술교육원(당시 LCI: Lincoln Center Institute for Arts in Education, 현 LCE: Lincoln Center Education, 이하 링컨센터)연수, 프랑스 코메디아 델 아르떼(Comedia dell'arte) 초청 워크숍, 문화예술 매개자 워크숍을 병행해 운영했다. 2005년 시작된 링컨센터와의 인연은 다음해에도 이어졌으며, 2009년 MOU 체결을 통해 정식 협력 관계를 맺게 된다. 2006년에는 국비 매칭으로 **방과후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이후 예술로 돌봄)**을 시작했으며 이는 서울문화재단 고유의 **학교예술교육TA**(Teaching Artist, 이하 TA)● 사업의 근간이 되었다

● TA는 재단 내에서도 예술교육가, 예술가교사, 교육예술가 등으로 다양하게 표기되었으나, 최근 '교육예술가'로 통일해서 사용한다.

조성기
2007-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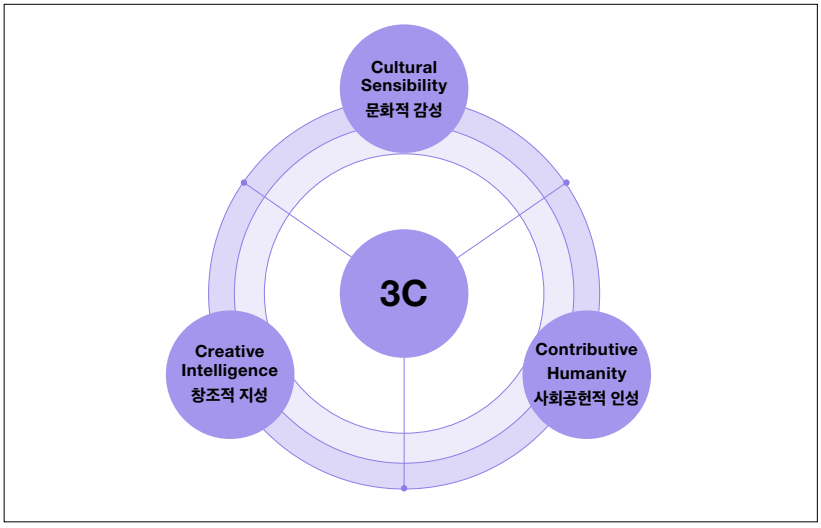
중앙 정부의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등 문화예술교육 지원이 양적으로 확대되는 시기에, 재단은 프로그램 공급과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재단만의 예술교육 철학과 방법을 정립하고 인력을 양성하는데 집중했다. 중앙 지원사업에 의존하지 않고 **Arts-Echo Project(아츠 에코 프로젝트)**를 통해 '예술가의 창작활동으로서 예술교육'에 특화된 TA 양성과 학교 교육 현장의 변화를 주도할 예술교육의 새로운 모델 개발과 실험을 이어나갔다. 링컨센터의 '미적체험 예술교육' 철학과 TA 제도를 도입했으며, 2008년 서울특별시교육청과 MOU를 체결해 초등학교 돌봄교실 TA 파견을 본격화하고 2009년부터 초등학교 정규 교과 연계 **어린이 창의 Arts-TREE(이후 예술로 플러스)**를 시작했다.

한편 2007년 중앙 정부의 '사회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과 서울시의 '시민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이후 꿈꾸는 청춘예술대학)'을 재단에서 수탁 운영하게 되면서 재단의 문화예술교육 사업 규모는 더욱 커지게 된다. 2009년 문체부에서 지정하는 광역 단위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인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재단에 설치되면서 재단만의 독특한 철학과 방식의 예술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기능과 중앙 정부나 서울시 사업을 수행하는 기능이 재단에 공존하게 되었다. 학교예술교육TA와는 별도로 진행한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에도 서울의 특성을 반영하고 재단의 예술교육 방향을 녹여 진행했다.

성장기
2011-2017

재단은 2011년 「서울문화재단 창의예술교육체계 구축을 위한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를 진행하면서 재단 예술교육사업의 핵심 용어인 '미적체험'과 '통합예술교육', 'TA(Teaching Artist)'의 개념을 정의하고 가치 체계, 교육방법론을 확립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재단 예술교육의 보다 명확한 예술교육 사업별 비전과 목표, 전략 체계를 수립했다. 재단의 차별화된 창의예술교육을 **서울창의예술학교(이후 서울창의예술교육)**라는 통합브랜드로 구축하고 양질의 예술교육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문가 및 교육 기관과의 파트너십을 확대하며 국제 심포지엄 개최, 예술교육총서 발간 등을 통해 예술교육의 가치 확산에도 힘썼다. '서울창의예술학교'의 3C철학-Creative Intelligence(창조적 지성), Cultural Sensibility(문화적 감성), Contributive Humanity(사회공헌적 인성)-에 기반해 매년 선발된 TA가 팀을 이뤄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 학교로 들어갔다. 2017년부터는 초등학교 교과 연계 예술교육에 이어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청소년 인문예술교육 **예술로 함께**를 시작했다.

한편 창작공간에 속해 있던 '성북예술창작센터'와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가 2015년 6월부터 예술교육본부에 편입되면서 교육의 성격이 강해졌고, 국내 최초 예술교육 전용공간이자 1호 권역별 문화예술교육센터로 서서울예술교육센터가 2016년 10월 개관한 것을 기점으로 예술교육 공간이 새로운 이슈로 부각했다.



출처: 서울문화재단 서울예술교육 10 to 100

개선 및 확대기
2018-2022

서울문화재단의 예술교육 사업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안정되었지만, 중앙 정부의 지방분권 흐름에 따른 지역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변화가 많았던 시기이다. 2018년 문체부에서 '제1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18-2022)'을 발표함에 따라 서울시도 **제1차 서울시 문화예술교육 기본계획(2018-2022)**을 수립했고, 이는 서울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정책 방향 수립의 기반이 되었다. 기본계획에 따라 2020년 5월 19일 **「서울시 문화예술교육지원 조례」**가 제정되면서 법적 지원 근거도 마련되었다.

2020년 재단은 갑작스런 코로나19 상황에도 기존의 예술교육사업 운영 기준을 완화하거나 유연하게 적용하면서 진행했고, TA와 예술교육단체는 비대면·온라인 예술교육에 즉각 대응하면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연구와 실험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다. 2021년부터는 서울시여성가족재단과 협력해 초등학생 방과후 지역 돌봄 시설인 키움센터에서 **지역예술교육TA** 사업을 시작하면서 학교 밖 지역사회로 영역을 확장해 나갔다. 동시대의 이슈를 돌아보고 서울예술교육의 의미를 되짚어보는 '2021 서울예술교육 라운드테이블'을 총 6회에 걸쳐 온라인으로 개최하기도 했다. 2022년에는 최초로 학교, 지역, 예술공간 TA 통합 공모를 진행했으며, 서울예술교육의 진화를 위해 TA를 포함한 예술교육실천가의 역할을 다변화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워크숍, 학습모임 운영도 지속했다.

2016년부터 재단에서 직접 운영해온 서울예술치유허브와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가 2021년 운영 종료되고, 서서울예술교육센터에 이어 서울시에서 두 번째 권역별 예술교육센터로 조성한 **서울예술교육센터**(현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용산)이 2020년 11월 개관하면서 예술교육 공간은 권역별 센터 체제로 바뀐다.

예술교육 영역에도 '지역화'가 이슈로 등장하면서, 자치구 예술교육 기반 조성을 위한 협력 사업을 추진했으며, 2019년부터 광역지자체로 이관된 유아예술교육과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사업을 서울의 상황에 맞춰 기획하고 운영했다.

서울문화재단만의 독자적인 모델이자 예술교육의 큰 축을 담당해온 학교예술교육TA 사업은 서울시 재정운용 방향에 따라 2022년을 마지막으로 종료되었다. 이에 따라 '가르치는 예술에서 경험하는 예술로'를 지향하며 다양한 분야를 통합한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2006년부터 공교육 현장에서 수많은 아동·청소년을 만나온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예술교육TA** 중심의 시민 밀착형 예술교육을 이어나가게 되었다.

전환기
2023-

서울문화재단은 **제2차 서울시 문화예술교육 기본계획**(2023-2027)수립과 예술교육의 전환기를 맞아 시대의 흐름에 맞는 새로운 예술교육을 준비했다. 먼저 2022년 중앙의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이 100% 이관되면서, 2023년부터 지원사업을 전면 개편해 **서울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으로 통합 운영했다. 또한 기존의 지역밀착형 예술교육센터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권역별 문화예술교육센터 3개소의 추가 개관을 준비하며 운영 중인 2개소의 명칭도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로 통일하고, 5개 권역별 센터에 공통 적용될 서울형 예술교육 대표 브랜드 **서울시민예술학교**를 선보였다. 2024년 하반기 5개의 **권역별 문화예술교육센터**가 모두 문을 열면, 서울형 예술교육을 확산하고 시민과의 직접 교류가 가능한 거점 공간이 서울시 전역에 마련된다.

2023년부터 적용하는 새로운 예술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why)서는 다음에 주목했다.
"서울문화재단(Who)은 연중 시즌제(when)로 권역별 예술교육사업이 전개되는 플랫폼(where)에서,
전 연령대의 시민을 대상으로 서울형 예술교육(what)을 인근의 관계자와 협력하고
교육예술가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대상별 맞춤형(how)으로 제공한다."
이규승 예술교육실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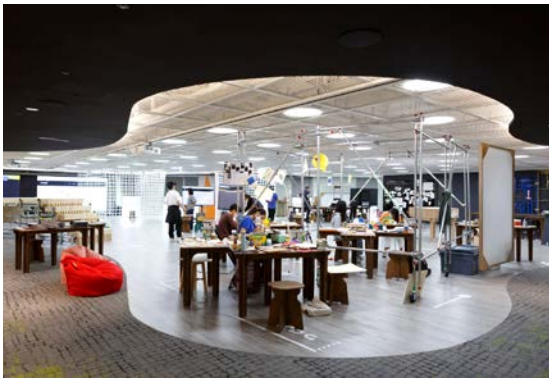
더 보기

- 예술교육 히스토리 Since 2004, [문화+서울] 2023년 2월호
- 서울예술교육 HISTORY 2006-2018, 서울문화재단 서울예술교육 10 to 100, 14쪽

조직

서울문화재단은 2006년부터 예술교육 기능을 조직 내에서 독립시키기 위한 검토를 시작했다. 2006년 1월 문화교육팀이 잠시 신설되었다가 6월 타 팀과 통합되었으며, 1년 후인 2007년 6월 다시 전담부서인 문화교육팀이 생겼다. 이후 2008년 문화교육센터, 2009년 창의예술센터 내 예술교육팀으로 이어지면서 재단 예술교육 사업도 영역을 넓혀갔다.

2012년 8월부터 예술지원본부 소속으로 이동했다가, 2015년 6월 조직 개편에서 '예술교육본부'를 신설하면서 본부 단위로 확대되었다. 이후 2019년 1년 동안 예술창작본부 내 예술교육팀으로 있던 기간을 제외하고는 본부 체제가 유지되었다. 2022년 7월 재단 조직이 '실'단위로 세분화되면서 문화진흥본부 내 예술교육실로 변경되었다. 2023년 하반기 조직 개편으로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역할을 했던 예술교육지원팀이 예술교육정책팀과 통합되었고,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양천·용산 이외에 개관을 준비 중인 강북·서초·은평 문화예술교육센터가 팀 단위로 신설되었다. 현재는 예술교육정책팀이 선임부서 역할을 하면서 향후 5개 권역별 문화예술교육센터의 전략 수립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용산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양천

2017 청소년 창의예술교육 예술로 함께 장승중학교

2022 서울예술교육랩 질문의 진화

연혁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서울형 예술교육	브랜드					Arts-Echo Project(아츠 에코 프로젝트)			서울창의예술학교	
	기본계획/조례									
	예술로 돌봄			방과후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국비매칭)		어린이 창의 Arts-Tree			어린이 창의예술교육:	
	예술로 플러스						어린이 창의 Arts-Tree		어린이 창의예술교육:	
	생각하는 호기심 예술학교				방과후 문화예술교육 지원_연극 시범 운영		교육공연을 통한 창의문화예술교육 프로젝트		어린이 창의예술교육:	
	예술로 함께	청소년 문화벤처단				청소년 비전 Arts-Tree			청소년 인문예술교육:	
	예술로 가까이									
	서울형 예술교육 아카데미		서울문화예술 교육과정 (2005-2007) *2005년 링컨센터 연수 지원 포함		서울 문화예술 아카데미	문화매개자 전문교육센터(2008) TA 및 문화매개자 양성(2009) * TA/문화매개자 Arts-Tree 명칭 사용		TA arts-Tree(2010-2011) 창의예술교육가양성(2012)		
								문화매개자 Arts-Tree 문화매개자 양성사업(2010-2012)		
	서울형 예술교육 가치 확산						해외 문화 예술교육 우수기관 교류		교육과정개발 및 교사양성 시스템 구축	
지역형 예술교육	서울시민 예술학교				시민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꿈꾸는 청춘예술대학) *서울시 수탁(2008년부터)					
	서울문화 예술교육 지원사업		사회문화예술교육지원(서울문화예술교육과정)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자치구특성화 문화예술 교육지원 2009				
예술교육 공간	서울예술치유 허브							[개관] 성북예술창작센터		
	관악어린이 창작놀이터							[개관]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권역별 서울문화예술 교육센터									

<table>
<tr><th></th><th>2013</th><th>2014</th><th>2015</th><th>2016</th><th>2017</th><th>2018</th><th>2019</th><th>2020</th><th>2021</th><th>2022</th><th>2023</th></tr>
<tr><td colspan="5" rowspan="2"></td><td colspan="5">서울예술교육</td><td rowspan="2">제2차 서울시
문화예술교육
기본계획</td></tr>
<tr><td colspan="2">서울 창의예술교육</td><td colspan="2">제1차 서울시 문화
예술교육 기본계획</td><td colspan="3">조례 제정</td></tr>
<tr><td colspan="4">예술로 돌봄</td><td colspan="2"></td><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4">예술로 플러스</td><td colspan="3">어린이 통합 예술교육</td><td colspan="2">서울 예술교육실천가 양성</td><td></td></tr>
<tr><td colspan="4">생각하는 호기심 예술학교</td><td colspan="4">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td><td></td><td></td></tr>
<tr><td colspan="4">예술로 함께</td><td colspan="3">청소년
인문 예술교육: 예술로 함께</td><td colspan="2">서울 예술교육실천가 양성</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 colspan="3">지역 예술교육TA: 예술로 가까이</td></tr>
<tr><td rowspan="2"></td><td colspan="4" rowspan="2">서울 창의예술교육 아카데미</td><td rowspan="2"></td><td rowspan="2">서울형
예술교육
아카데미</td><td rowspan="2"></td><td rowspan="2">서울
예술교육
아카데미 및
가치확산
(서울예술
교육랩)</td><td rowspan="2">서울
예술교육랩</td><td></td><td rowspan="2"></td></tr>
<tr><td></td><td>문화
예술교육
실천가들을
위한
소소테이블</td></tr>
<tr><td colspan="5">서울형 창의예술교육 체계 구축</td><td colspan="2">서울형
예술교육
가치확산</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 rowspan="2">서울시민
예술대학</td><td></td><td></td><td></td><td></td><td></td><td></td><td>[시범]
서울예술
학교, 오늘</td><td>서울시민예술학교</td></tr>
<tr><td colspan="3"></td><td></td><td></td><td></td><td></td><td></td><td colspan="2">생애전환
문화
예술학교
*국고보조금</td><td></td></tr>
<tr><td colspan="10">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지원 *지역협력형(서울시 매칭 수탁)</td><td rowspan="3">서울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생애주기형/
자율기획형/
지역협력형)</td></tr>
<tr><td colspan="10">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서울시 매칭 수탁</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 colspan="3">유아예술교육/문화예술교육사/자치구 협력 지원
*지역이관</td></tr>
<tr><td colspan="5">*지역협력형(서울시 매칭 수탁)</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11">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역협력형(서울시 매칭 수탁)</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 colspan="2">자치구 예술교육 활성화</td><td>기반조성
지원</td><td>거점지원
(수탁 예산)</td><td></td></tr>
<tr><td colspan="3"></td><td>예술
교육본부</td><td colspan="4">고유사업화
[명칭변경] 서울예술치유허브</td><td>운영 종료</td><td></td><td></td></tr>
<tr><td colspan="3"></td><td>예술
교육본부</td><td colspan="4">고유사업화</td><td>운영 종료</td><td></td><td></td></tr>
<tr><td></td><td></td><td>어린이
창작공간
확산</td><td>[개관준비]</td><td colspan="7">[개관] 서서울예술교육센터
* 권역별 어린이·청소년 전용 예술교육공간</td><td>[명칭변경]
서울문화예술
교육센터 양천</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 colspan="2">[개관] 서울예술교육센터</td><td>[명칭변경]
서울문화예술
교육센터 용산</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개관준비]
서울문화예술
교육센터
강북·서초·은평</td></tr>
</table>

5.3.1.

서울형 예술교육

학교예술교육TA

- 예술로 돌봄
- 예술로 플러스
- 예술로 함께

지역예술교육TA

- 예술로 가까이

- TA(Teaching Artist) 제도
- 서울형 예술교육 아카데미
- 서울형 예술교육 가치 확산

학교예술교육TA

예술로 돌봄

+ 2006-2011
× 방과후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2006-2007)
어린이 창의 Arts-TREE(2008-2010)
어린이 창의예술교육: 예술로 돌봄(2011-2017)

'예술로 돌봄'은 다양한 분야의 TA를 학교에 파견해 미적체험 통합예술교육을 시행한 서울문화재단 학교예술교육의 첫 번째 사업이자 2006년부터 2017년까지 12년 동안 진행된 장수사업이다.

'예술로 돌봄'을 포함한 '학교예술교육TA'의 시초는 2006년 당시 문화관광부와 함께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방과후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이다. 시범사업으로 시작했지만 추후 '어린이 창의예술교육'과 '예술로 돌봄'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초등학교 방과후교실에 연극·무용 강사를 파견해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며, 서울시교육청에서 학교를 직접 선정하고 강사는 관련학과 졸업 이상 교직이수자를 대상으로 총 12명을 선발했다. 시범사업 이후 2007년 '방과후학교 보육교실'을 활용해 저소득층 자녀 중심의 **방과후학교 보육교실 문화예술교육 수업 지원**으로 사업이 본격화되었다. TA양성 아카데미와 병행 추진하면서, 이 시점부터 재단 고유의 전문 양성 과정을 이수한 예술가를 TA라 부르기 시작했다. 만화·애니메이션 분야가 추가되어 총 3개 분야에서 12명의 TA가 주 1회 학교에 파견되었다. 2007년에는 저명예술가를 1일 교사(Arts-Educator)라 칭하고,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 파견하는 '저명예술가 예술공헌 프로젝트'도 함께 운영했다.

2008년부터는 재단의 예술교육 브랜드 'Arts-Echo Project'의 **어린이 창의 Arts-TREE**에 포함되면서, 초등학교 정규 교과 연계 예술교육(예술로 플러스)과 별도의 방과후학교 연계 예술교육으로 운영되었다. 서울특별시교육청과는 '방과후 문화예술 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2008. 02. 27.)했다. 방과후학교 TA는 매년 30여 명이 활동했으며, 향후 재단 고유의 예술교육 운영 방식으로 자리잡은 '2인 팀티칭'으로 장르 통합 교수법을 선보였다. 초기 저소득층 자녀 대상에서 일반 학생으로 확대되면서 공교육 내 어린이 예술교육을 확산할 수 있었다.

2011년부터는 **어린이 창의예술교육(2011-2016)**으로 사업 체계가 개편되면서 방과후학교 연계 예술교육에는 **예술로 돌봄**이라는 이름이 생겼다. 2010년부터 방과후학교 초등교육교실 명칭이 '초등돌봄교실'로 변경된 영향도 있었다. 2011년부터 서울시내 300개 이상의 초등돌봄교실에 TA를 파견해 통합예술 수업을 진행한 결과, 2011년 교육과학부 주최 '제3회 방과후학교대상' 지역사회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예술로 돌봄 수업은 학기별 12주, 연간 24주 진행되었으며, 참여 학교는 94개교에서 시작해 2013년 352개교까지 급증한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17년 192개교로 마무리되었다. 돌봄교실 전담사 등 학교 돌봄교실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재단 고유 TA 시스템의 산실과도 같은 '예술로 돌봄'은 2017년까지만 운영되었으며, 새로운 돌봄 지원 체계를 고민하던 재단은 2022년 학교 밖 돌봄 시설인 서울시 거점형 키움센터와의 연계를 시작하게 되었다.

예술로 돌봄을 통해 다양한 전공의 TA들이 공동 개발한 연극, 무용, 시각예술, 음악, 문학 기반의 통합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경험한 아이들은 친구들과 함께 놀면서 감각과 창의성을 깨우고, 협동심과 배려심 등 사회성을 발달시킬 수 있었다.

2011년 '예술로 돌봄' 참여자 반응

창의성 "2011년 서울 초등 돌봄교실, 예술교육으로 창의성 높아져" (조선일보. 2012. 01. 29.)

행복감 "표정의 변화가 부족했던 아이가 감정에 대한 다양한 표정을 지을 수 있게 되면서, 평범한 어린이로서의 전반적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전담교사 변화 관찰 사례 中)

사회성 "집에서 외동이라 아이들과 모둠활동할 때 많이 힘들어했는데, 이 수업 시간에 스스로 의견 조율을 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고 놀랐어요." (학부모 인터뷰 응답 中)

예술로 돌봄 운영 결과(2006-2017)

연도	지원학교/학급	참여학생	프로그램 수
2006	94개교 109학급	-	-
2007	100개교 100학급	-	-
2008	163개교 212학급	4,221명	-
2009	176개교 239학급	5,000명	8개
2010	250개교 250학급	4,457명	6개
2011	300개교 300학급	5,761명	6개
2012	306개교 306학급	6,115명	6개
2013	352개교 352학급	6,716명	16개
2014	248개교 248학급	4,890명	12개
2015	236개교 236학급	4,687명	10개
2016	252개교 252학급	4,901명	6개
2017	192개교 192학급	1,286명	6개

2011 어린이 창의예술교육 예술로 돌봄

예술로 플러스

+ **2009-2022**
× **어린이 창의 Arts-TREE(2009-2010)**
어린이 창의예술교육: 예술로 플러스(2011-2017)
어린이 통합예술교육: 예술로 플러스(2018-2022)

'예술로 플러스'는 초등학생의 창의력과 예술적인 상상력을 키우고 미적 감수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재단 고유의 학교예술교육 프로그램으로, 서울시교육청과 협력해 초등학교 정규 교과 내용과 다양한 예술 장르를 융합한 예술교육 수업을 진행했다. 학교 교사와 TA의 지속적인 공동 연구를 통해 초등학교 정규 수업이 예술을 기반으로 창의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지원했으며, 아이들의 학습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스스로 정답을 찾아내는 창의력 발달에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했다.

예술로플러스 수업 현장

예술로 플러스는 2009년 **어린이 창의 Arts-TREE**의 '초등학교 정규 교과 연계 문화예술교육 연구 개발 및 시범학교 운영사업'을 통해 5개 초등학교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2011년부터 '어린이 창의 Arts-TREE'가 **어린이 창의예술교육**으로 바뀌면서, 어린이 창의예술교육 사업의 새로운 모델로 초등학교 정규 교과 연계 예술교육 **예술로 플러스**가 본격화되었다. 2011년 20개교 40학급을 시작으로, 2012년에는 초등학교 국어, 사회 과목과 연계한 창의예술교육 수업을 16개교 61학급에서 진행했다. 초등학교 교육 과정에 따라 교사와 TA의 협력 수업 모델을 도출하고, 차년도에 수업할 커리큘럼을 사전에 개발하는 운영 방식이 자리를 잡았다.

예전에 복지 차원에서 하던 것들을 정규 교과와 연결해서 진행하고,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느끼는 시점보다 앞서 준비해서 적시에 제공을 하니까 예상보다 재단의 예술교육 사업에 대한 학교의 관심도가 높았다. 그래서 청소년 사업도 문화예술동아리를 지원하던 것에서 정규 교과와 연계한 창의적 체험 지원사업으로 만들어지게 됐고, 어린이 사업도 교과 연계 사업을 비교과 지원사업보다 비중을 크게 하는 방식으로 전략을 세워서 진행하게 됐다.

임미혜 당시 예술교육본부장, 서울문화재단10년 백서

2017년부터 재단의 예술교육이 2개 이상의 예술 장르와 초등학교 정규 교과 수업이 만나는 통합예술교육을 지향하면서, '예술로 플러스'에서는 서울 시내 초등학교 어린이 대상 교과 연계 통합예술교육 수업을 개발하고 운영했다. 초등학교 정규 교과목 수업을 예술적으로 재구성해 TA 2인 팀티칭과 담임교사의 협력 수업 방식으로 학기당 6주를 운영하면서, 학교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 '예술로 플러스'의 마지막 해인 2022년에는 학급별로 주 1회 80분의 수업을 6주(5학년 1학기 과학, 2학기 국어)간 진행했다. 2009년부터 14년 동안 지속되며 초등학교 공교육 내 예술교육 모델을 확립해 온 '예술로 플러스'는 서울시 교육재정지원 평가에 따라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일몰되었다.

예술로 플러스 수업 현장

연도	지원학교/학급	참여학생	운영교과	비고
2009	5개교 5학급	154명	2학년 2학기 즐거운 생활	어린이 창의 Arts-TREE 시범학교 운영
2010	6개교 20학급	497명		
2011	20개교 40학급	1,103명	5학년 2학기 국어	
2012	16개교 61학급	1,519명	5학년 2학기 국어 / 3학년 2학기 사회	어린이 창의예술교육 예술로 플러스
2013	15개교 61학급	1,625명	5학년 2학기 국어 / 3학년 2학기 사회 / 2학년 2학기 통합	
2014	30개교 122학급	3,144명	2학년 1학기 국어 / 5학년 2학기 국어	
2015	30개교 127학급	3,158명	3학년 1, 2학기 수학	
2016	55개교 219학급	5,238명	4학년 1, 2학기 국어	
2017	79개교 383학급	11,520명	5학년 1학기 국어·사회 / 4학년 2학기 국어·과학	어린이 통합예술교육 예술로 플러스
2018	159개교 768학급	15,360명	5학년 1학기 국어·사회 / 2학년 2학기 통합 6학년 2학기 수학	
2019	82개교 576학급	13,520명	3학년 1학기 국어 / 2학기 국어	
2020	59개교 275학급	6,257명	3학년 2학기 과학	
2021	44개교 216학급	4,809명	4학년 2학기 과학	
2022	44개교 216학급	5,244명	5학년 1학기 과학 / 2학기 국어	

예술로 함께

+ 2004-2022
× 청소년 문화벤처단(2004-2007)
청소년 비전 Arts-TREE(2008-2010)
청소년 창의예술교육(2011-2016)
청소년 인문예술교육: 예술로 함께(2017-2022)

'예술로 함께'는 청소년들이 미적체험과 인문적 사고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친구와 공감하며 균형 있게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장르로 구성된 TA가 팀을 이뤄 중학교 교육 과정과 연계해 공동 개발한 인문예술교육 프로그램이다. '예술로 함께'의 기원은 재단 창립연도인 2004년 시작한 청소년 문화벤처단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6 청소년 문화벤처단 발대식

청소년 문화벤처단(2004-2007)은 재단 예술교육의 역사를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사업이다. 설립 첫해부터 적극적인 문화생산자이자 문화리더인로서의 청소년에 주목해 청소년 동아리를 대상으로 기획·운영한 사업이기 때문이다. 단순 재정 지원이 아닌 전문 강사를 학교에 파견해 청소년 동아리의 성장을 돕고, 지역사회와 문화취약계층과 연계한 발표 활동을 통해 사회에 환원하며 청소년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했다. 연극, 음악, 전통예술, 미술·도예 등 순수예술뿐만 아니라 영상, 사진, 독서 토론, 댄스, 밴드, 응원, 마술, 애니메이션 등 대중 분야까지 아울렀으며, 2004년에서 2007년까지 연간 1억 원 규모로 매년 25~28개 동아리를 지원했다. 청소년을 자신의 문화를 만들어가야 할 생산적 주체로 보고, 문화예술을 통해 성장하고 사회적 활동을 창조하고 공유하는 경험을 지원해 향후 청소년 대상 예술교육 사업의 마중물이 되었다.

	2004	2005	2006	20007
지원 동아리수	27개	25개	25개	28개

청소년 문화벤처단은 이후 **청소년 비전 Arts-TREE**(2008-2010)로 발전했다. 재단이 예술교육을 미적체험교육으로 체계화하기 위해 시작한 'Arts-Echo Project'의 일환이었다. 2008년 체결한 서울특별시교육청과의 업무협약에 따라 저명예술가와 전문 강사가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공동 추진했다. 첫해 서울 시내 15개 중·고등학교가 참여했으며, 연극, 뮤지컬, 음악, 전통예술 4개 분야 예술가 6명, 전문강사 23명이 강사로 나섰다. 이어 2009년 17개교 동아리 청소년 550명, 2010년 24개교 동아리 청소년 680명에게 저명예술가와 전문강사를 매칭해 특별한 예술교육을 지원했다.

	2008	2009	2010
지원학교/참여자수	15개교 431명	17개교 547명	24개교 680명

이어 2011년에는 사업명을 **청소년 창의예술교육: 서울창의예술 중점운영학교**(2011-2016)로 변경하고 사업 운영 방식과 내용을 대폭 변경했다. 2011년 재단이 새롭게 선보인 예술교육 통합 브랜드 '서울창의예술학교'의 슬로건인 '가르치는 예술에서, 경험하는 예술로'에 따라,

학생 동아리 중심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을 하지 않는 나머지 아이들에게는 체험의 기회나 예술가들을 만날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1년에 청소년 예술교육 지원 구조를 대폭 개선하게 된다. 문화예술 동아리가 아닌 일반 학급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강사 1명이 아닌 예술가 그룹이 학교에 파견되는 방식으로 전환됐다.

장재환 당시 사업담당, 서울문화재단10년 백서

예술로 함께 수업 현장

동아리 활동을 하는 일부 학생만이 아닌 일반 학급과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창의적 예술교육으로 사업의 지향이 명확해졌다. 학교와의 연결성을 높이기 위해 '2009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 영역으로 도입된 '창의적 체험활동'과 적극 연계한 모델로 설계했다. 서울 소재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급 단위로 공모해 전문예술교육단체와 매칭시켜 주는 방식으로 연극, 문학, 전통예술, 시각예술 등 장르가 통합된 창의·인성 함양 중심의 미적체험 교육을 진행했다. 청소년 창의예술교육 사업 참여 학교는 재단과 시 교육청 공동으로 '서울창의예술중점운영학교' 인증을 받을 수 있었다. 2011년 사업 첫해 참여한 단체는 극단 북새통, 넘나들이, 프락시스 등 5개 단체로 지금까지 예술교육 영역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2015년부터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 시범학교가 늘어남에 따라 현장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중학교로 확대했고, 2016년부터 자유학기제가 전면 도입되면서 재단은 청소년을 위한 인문예술교육 연구를 진행하고 시범과정을 개발·운영하면서 청소년 예술교육 사업의 변화를 준비했다.

준비 과정을 거쳐 2017년부터 청소년이 예술창작활동을 통해 인문적 사고와 발상법을 키울 수 있는 인문예술교육을 개발하고, 자유학기·학년제, 창의적 체험활동 등 중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청소년 인문예술교육 **예술로 함께**(2017-2022)로 개편했다. 이에 따라 2017년 청소년TA 180명을 선발해 국내 최초로 3인 팀티칭 방식의 통합예술교육을 서울 시내 중학교에서 정규 교육 과정과 연계해 진행했다. 2021년부터 3인에서 2인 팀티칭으로 변경되었으며, TA규모는 연간 42명으로 축소되었다.

서울문화재단이 개발 운영한 미적체험 기반 통합예술교육과 인문예술교육은 과거의 기술적, 장르별 예술교육 혹은 결과 중심의 예술교육과 가치와 방식, 운영 전략에 있어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프로그램은 문학, 철학 기반의 인문적 사유 활동과 장르별 예술 언어(연극, 무용, 음악, 영상 등)로 표현되는 신체적 예술활동이 통합적으로 재구성되는 원리를 따랐다.

'예술로 함께'는 정규 교육과정 내에서 성장 단계에 있는 청소년이 예술창작 활동을 통해 인문적 사고와 발상법을 키울 수 있는 인문예술 수업으로 운영해 참여 학교와 학생의 만족도가 높았다.

인문예술교육은 각자 다른 예술가들의 방법론을 경험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이들에게 굉장히 다른 사고방식과 관찰하는 눈이 있지만 표현을 할 수 없다면 사회적 참여로 이어지지 못할 텐데, 그 표현 방법을 TA가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다른 생각과 관점을 각자 다른 예술언어로 펼칠 수 있는 전문가들이니까요.

전혜주 작가, 2017 청소년TA. [문화+서울] 2017년 6월호

청소년 창의예술교육(2011-2016)/예술로 함께(2017-2022)

연도	지원학교/학급	참여학생	구분
2011	6개교 16학급	487명	청소년 창의예술교육
2012	11개교 37학급	1,201명	
2013	10개교 38학급	1,107명	
2014	9개교 33학급	1,005명	
2015	12개교 35학급	977명	
2016	14개교 60학급	1,257명	
2017	81개교 542학급	10,755명	청소년 인문예술교육: 예술로 함께
2018	103개교 540학급	11,880명	
2019	51개교 248학급	5,456명	
2020	27개교 105학급	2,625명	
2021	18개교 72학급	1,619명	
2022	41개교 144학급	3,077명	

지역예술교육TA

예술로 가까이

+ 2021-
× 예술교육정책팀

예술로 가까이는 2006년부터 학교 중심으로 진행되던 TA 사업을 지역과 생활권으로 확장해 일상에서도 예술가와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쉽게 만나기 위해 2021년 처음 시작한 사업이다. 예술교육 환경 변화에 따라 재단 TA의 우수한 역량을 서울 각 지역으로 연결하기 위해 서울시 지역 돌봄 기관인 '거점형키움센터'로 영역을 넓힌 것이다.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해 먼저 해당 영역의 전문 파트너 서울시여성가족재단, 거점형키움센터(돌봄종사자)-우리동네키움센터·지역아동센터(보육교사)와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2021년 서울시여성가족재단과 MOU 체결을 시작으로(2021.4.29.) 서울시 거점형 키움센터 1호(노원.도봉권), 2호(동작.영등포권), 2022년에는 3호(종로.서대문권)까지 사업을 확대해서 진행했다.

지역예술교육TA는 지역과 돌봄 현장에 대한 탐구를 기반으로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기획·개발, 운영하며 확장된 예술교육의 가치를 실현하는 협력 파트너이자 예술교육 전문가이다. 2021년부터 연도별로 12명(4팀)이 지역예술교육TA로 선발되어 활동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전용 연구개발 공간,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을 지원받았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상반기 중 리서치와 연구 개발 기간을 가졌으며, 실제 프로그램은 하반기에 '3명 팀티칭'으로 운영했다. 2023년부터는 예술교육지원팀에서 사업 운영을 맡아 키움센터 5호(성북.동대문권)까지 추가해 총 4개소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공적 돌봄 기관인 거점형키움센터와 연계한 '예술로 가까이'를 통해 지역 기반 예술교육 콘텐츠 연구·개발 시스템을 구축하고 TA의 활동 영역을 지역으로 확산할 수 있었다.

2023 지역예술교육TA 수업 현장

TA(Teaching Artist) 제도

서울문화재단 TA●는 서울문화재단 예술교육의 핵심이 되는 예술교육 전문가 그룹으로 예술창작 과정과 활동을 매개로 창조적 소통 방식과 미적 태도를 길러주는 예술교육 전문가를 말한다. 서울문화재단의 '미적체험·통합예술교육' 철학과 방법론에 의한 교육과 연구 과정을 거쳐 학교 교육과정 내 수업을 통해 새로운 예술교육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전문가로 성장한다. 예술에 대한 통합적 활용 능력과 교육적 역량을 함께 갖추고, 시각예술·연극·무용·음악·문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이 동료 TA, 학교 교사와의 공동 연구를 통해 미적체험 예술교육을 실제 개발하고 운영했다. 서울문화재단 TA는 초·중등 공교육과 연계된 '학교예술교육 TA'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활동해왔으며, 2017년 예술교육 공간 기반의 예술놀이LAB TA, 2021년부터는 학교 밖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지역예술교육 TA'로 분야를 확장했다.

재단은 2006년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교실 대상 시범사업' 진행과 동시에 TA 양성 아카데미를 시작했다. 기존 단일 예술 장르의 기량 중심 예술교육과는 차별화된 문화예술 교육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어린이들이 양질의 예술을 경험할 수 있게 이끌어 주는 사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였다.

'TA(Teaching Artist)'는 원래 미국 뉴욕 링컨센터 내 교육전담기관인 링컨센터에듀케이션이 1970년대 초반부터 저명한 교육철학자 맥신 그린(Maxine Greene) 콜롬비아대학교 교수와 함께 개발해온 '심미적 교육(Aesthetic Education)' 철학의 실천 주체로서 예술가이자 교사인 사람을 지칭하는 링컨센터 고유의 용어였다.

TA라는 용어는 재단이 2005년 미국 링컨센터예술교육원과 교류하면서 국내에 처음 소개했다. 기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예술강사와 차별화된 지원의 방향을 가진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Teaching Artist, 즉 '교육하는 예술가'라는 의미로 사용했다. 2007년 국내 최초의 교육예술가 양성 사업인 'TA 양성과정'을 선보였고 2011년 외부 전문가와 함께 연구를 진행해 2012년부터 전면 개편된 독자적 커리큘럼으로 구성한 '창의예술교육과정(AiE: Arts in Education)'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임미혜 당시 예술교육본부장, 2014년 서울국제창의예술교육심포지움 자료집, 58쪽

2012 서울국제예술교육워크숍

링컨센터의 TA 개념에 착안한 재단의 TA 제도는 2007년부터 시작되어 독자적인 운영 체계를 구축하면서, 점차 국내의 지역문화재단, 예술교육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지원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초창기에는 장르별 외부 전문가를 MTA로 위촉해 어린이 TA들을 지도하는 방식이었고, 2012년부터는 어린이TA의 경력과 역량을 고려해 역할을 구분하고 TA 내부에서 스스로 상호 평가와 학습, 성장을 이끄는 구조로 전환했으며, 기존의 코치(CTA, 2010-2012)제도를 폐지하고 연구 중심의 PTA-TA(2012-2018) 체계로 개편했다. 이후 연구리더(PL, 2019-2022)●●제도를 통해 TA의 경력별 커리어 개발을 위해 활동을 단계화하고 급여에도 차등을 두었으며, 연구 개발 활동을 위해 주중 수업이 없는 연구일을 지정 운영했다.

● 서울문화재단 TA는 예술가교사, 예술교육가, 교육예술가 등으로 다양하게 표기되었으나 '예술가'로서의 정체성에 초점을 둔 '교육예술가'로 정착되었다.

●● PTA는 서울문화재단 예술교육 사업에 3년 이상 참여한 경력 예술가 중 선발하여 연구뿐만 아니라 교사 연수 및 TA 모니터링 등을 진행했다. PL(Project Leader)는 5년 이상 예술 창작 경력이 있는 TA를 대상으로 해마다 5명 내외를 선발했다.

장르별 리더 역할을 하는 TA는 공모로 선정했으며, 일반 TA에게 조언을 하고 팀별 공동 연구를 이끌며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주도했다.

2008년부터 교수급의 경력을 갖춘 'MTA' 마스터(Master) TA 제도를 운영하고, 이후에는 TA 중 경력이 많은 사람들을 뽑아 운영한 'CTA' 코칭(Coaching) TA가 TA들을 전문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 왔다. 2012년에는 'PTA' 프로그램(Program) TA라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특화된 연구 TA 제도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이어갔다. 이러한 과정에서 재단 직원들과 어린이 TA들이 재단의 어린이 창의예술교육 미적체험교육의 방향성을 잡을 수 있었던 것 같다.

이현지, 당시 예술교육팀, 서울문화재단 10년 백서

2017년부터 '예술로 플러스'에서는 '어린이 통합예술교육 TA' 2인 팀티칭과 담임교사의 협력수업 방식으로 한 학기 해당 과목 수업의 1/3(학기당 6주) 분량을 대체했으며, 중학교 자유학기제 및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해 '청소년 인문예술교육 TA'를 육성했다. TA와 교사가 함께 다음해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연구하는 모임을 2014-2017년 서울시교육청 지원 교사연구동아리 중 하나로 지정하는 등 TA와 교사의 탄탄한 협력 체계를 만들었다.

해를 거듭할수록 체계화된 TA 제도를 운영하며 재단이 일관성 있게 강조했던 것은 예술가로서 TA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예술 창작 활동의 지속이었으며, 이를 위해 심사 단계에서 창작 활동 여부와 포트폴리오를 반드시 확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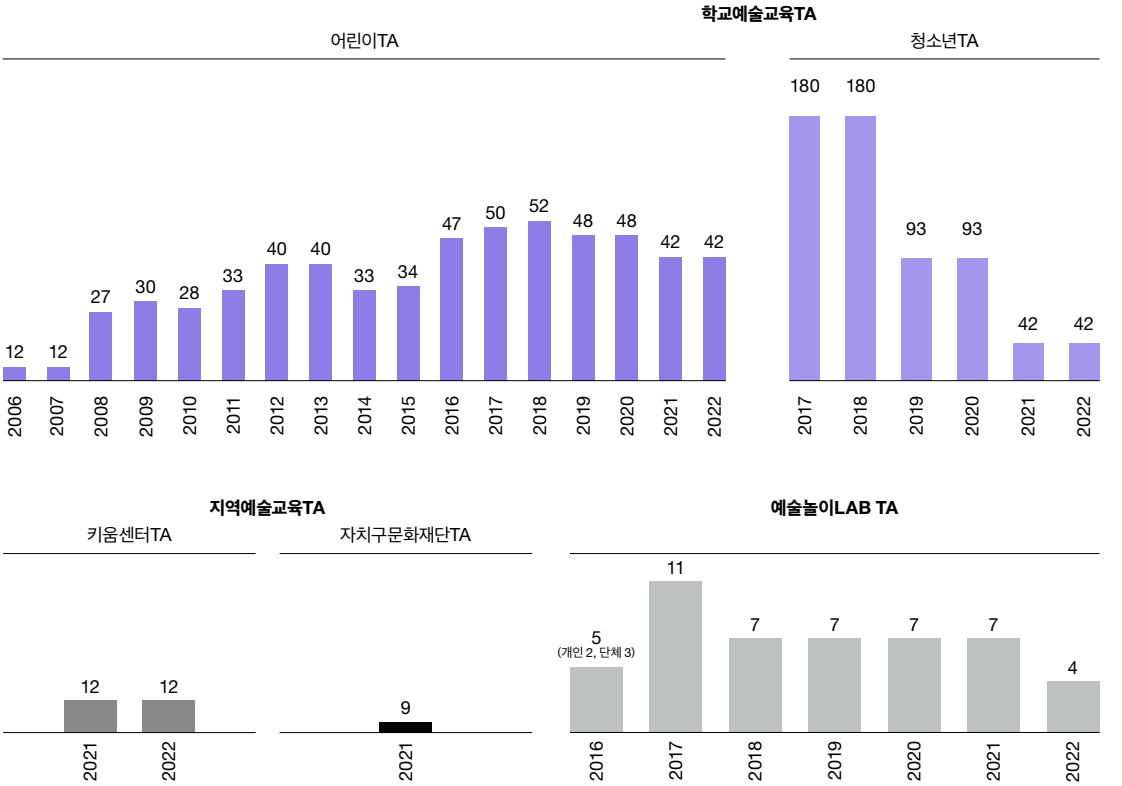
서울형 예술교육 TA의 가장 큰 특징은 프로그램 공동 연구 개발 과정과 아카데미를 통해 연구와 재교육의 기회를 보장한다는 점이었다. 다양한 인문, 예술 장르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팀티칭으로 활동할 수 있게 모든 과정을 지원하며, 특히 프로그램 개발 연구와 교육 활동을 통한 경험과 노하우를 환류하고 통합하는 서울문화재단TA만의 차별화된 활동 시스템은 TA의 지속적인 성장과 양질의 학교예술교육 콘텐츠 확산에 기여했다.

문화예술교육이 실행하는 사람의 역량과 자질에 따라 좌우된다는 가장 기본적인 사실을 인정하고 다른 무엇보다 역량 있는 TA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예술가의 예술교육을 창조적으로 재해석하고 새롭게 시도하는 꾸준한 실천을 지속한 결과였다. 사람을 믿고 성장할 수 있는 현장과 필요로 하는 것들을 지원하면서 시간을 투자하자 TA 경험과 역량이 축적·공유되고 전수, 확산되면서 사업 현장에 그 효과와 영향력이 질적 차이로 나타났다.

서울형 예술교육 2.0, 34쪽

2023년부터는 학교 밖 일상 속 시민예술교육으로 방향을 전환하면서, 시각예술, 연극, 무용, 음악 등 다양한 예술 분야에서 활동 중인 예술가들이 공적 돌봄(보육)시설 등에서 서울문화재단TA로 참여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서울문화재단 TA는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예술놀이 LAB TA'와 '아츠포틴즈 LAB TA', 지역사회의 돌봄 영역에서 초등학생과 만나는 '지역예술교육 TA'가 활동하고 있다.

TA 운영 현황(2006-2022), 단위: 명



2023년 서울문화재단 TA 운영 현황

구분	자격 조건	교육 대상	활동 거점	인원
지역예술교육 TA '예술로 가까이'	3인으로 구성된 예술가 그룹	아동(초등학생)	서울시 거점형 키움센터 4개소	12명(4개 단체)
예술놀이 LAB TA	예술 창작/교육 활동 경력 3년 이상 예술가(개인)	아동 및 가족 지역주민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양천	4명
아츠포틴즈(Arts For Teens) LAB TA	예술 창작/교육 활동 경력 3년 이상 예술가(개인)	청소년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용산	4명

어린이TA 교육 현장

청소년TA 교육 현장

서울형 예술교육 아카데미

+ **2005-2023**
× **서울문화예술교육(2005-2007), 서울문화예술아카데미(2007), 문화매개자전문교육센터(2008), TA 및 문화매개자양성(2009), TA Arts-Tree(2010-2011), 문화매개자양성사업(2010-2012), 창의예술교육가양성(2012), 서울창의예술교육아카데미(2013-2017), 서울형예술교육아카데미(2018-2019), 서울예술교육아카데미 및 가치확산(2020), 서울예술교육랩(2021-2023)**

서울문화재단이 '서울형 예술교육'의 정체성을 뚜렷하게 해온 바탕에는 2007년 도입한 재단 고유의 '아카데미'가 있었다. 아카데미는 크게 TA 양성 전문과정, 서울형 TA 역량 강화, 공무원과 교사 대상의 문화매개자 양성 과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TA·문화매개자 양성 과정	전문가 Arts-Echo	서울창의예술교육 아카데미	서울예술교육아카데미
- 방과 후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전문강사 양성 지원	- TA Arts-TREE - 문화매개자 Arts-TREE	- 서울창의예술교육아카데미 전문과정(AIE) - 서울형 예술가교사 역량강화아카데미 - 서울국제예술교육워크숍 - 교과연계(서울형 통합예술교육 방법론) 워크숍 - 문화매개자 대상 창의예술교육	- New AiE; 예술교육창작과정 - 서울형 TA 역량강화 아카데미 - TA 글로벌 역량강화 지원 프로그램
2007-2009	2010-2011	2012-2017	2018-2019

TA 양성 전문과정

2007년부터 서울문화재단이 자체 개발해서 운영한 **TA 양성 전문과정**은 2010년 **전문가 Arts-Echo**, 2012년 서울창의예술교육 아카데미 **창의예술교육 AIE과정**으로 개편된 후 2018년 **NEW AIE; 예술교육창작과정**으로 통합·개편 운영되었다. 처음부터 재단 자체 기획으로 커리큘럼이 개발되었으며, 예술가, 철학(미학)자, 교육자, 행정가, 사회학자, 과학자 등 다양한 영역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했다. 정규 과정 이외에 분야별 최신 이슈를 다루는 특강과 현업 예술가의 창작 작업 안에서 교육적 가능성을 탐색하는 장르 통합 공동 워크숍도 추가로 운영했다.

재단은 예술교육 도입 초기부터 국내 최초로 독자적인 교육 과정을 개발해, '미적체험 통합예술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우수한 예술교육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했다. 이에 따라 2007년 방과후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시범 운영과 동시에 '방과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전문강사 양성 지원'을 시작했다. 2007년에는 '서울문화예술아카데미' 프로그램 중 하나로 예술가 대상 전문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2008년 12월에는 링컨센터 예술교육 전문가를 초청해 '미적체험교육(Aesthetic Education)-상상력, 그 무한한 가능성으로 소통하는 삶 속의 예술교육'을 주제로 공개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자리에서 재단TA 대상으로 링컨센터 워크숍을 시연했다. 이는 2009년 링컨센터와의 MOU를 체결로 이어지며 'TA 양성과정'으로 전문화되었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워크숍으로 경험했던 링컨센터 프로그램을 모델로 한 **TA Arts-TREE**를 만들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커리큘럼을 개발했으며, 전문 지도교수 연구 시스템, 강사 교육을 위한 집중 워크숍 등을 진행했다.

2014년 스웨덴의 예술단체 '서커스 시르쾨르(Cirkus Cirkör)'를 초청해 특별 워크숍을 진행했으며, TA가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2011년 서울형 창의예술교육 체계 확립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존 'TA Arts-TREE'도 전면 개편을 준비한다. 2012년부터 **창의예술교육(AiE:Arts is Education) 과정(2012-2017)**으로 개편하고 창의예술교육의 기획과 설계, 실행이 가능한 전문 예술가를 양성하기 위해, 입문 과정, 심화 과정, 특별 과정, 연구모임(CoP), 인턴십 등으로 과정을 세분화해서 개설했다. 이 기간에는 특정 예술 장르의 미적체험을 통해 예술의 기본 언어를 이해하고 미적 요소를 탐구하는 **AiE; 미적체험워크숍**도 운영했다. 기존의 기초 예술 장르를 벗어나 서커스(2014), 그림책(2016), 애니메이션(2017)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현장 예술가와 공동으로 기획·연구해서 진행했다. 2016년 워크숍에는 2022년 아동문학계 노벨상으로 불리는 안데르센상을 수상한 이수지 작가가 강사로 참여한 바 있다.

2018년에는 '가르치는 예술에서 경험하는 예술로'라는 모토 아래 **New AiE; 예술교육 창작과정(2018-)**를 새롭게 선보였다. 2007년부터 재단이 자체 개발하고 운영해 온 TA 양성 과정(입문, 심화)을 통합해, '예술작업으로서의 예술교육'의 연장선에서 예술과 교육이 하나로 융합될 수 있는 예술 작업 고유의 교육적 특성에 집중한 교육 과정으로 구성하고 현장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예술가, 교육예술가들과 함께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New AiE; 예술교육창작과정은 2018년 9월 6주간 주 2회, 총 45시간의 과정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개설되지 않았으며, 2020년부터는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대부분의 아카데미와 워크숍 등이 중단되면서, 서울예술교육아카데미 '질문의 진화'로 전면 개편되었다.

재단이 운영해 온 TA 양성 전문과정은 예술의 미적 요소가 다양한 장르에서 발현되는 것을 체험함으로써, 자신의 예술 언어를 매개로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방법적 원리를 이해하며 기초 수업 설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고유의 과정으로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2010 창의예술교육 시범 워크숍

더 보기

AiE심화과정 연구 및 운영 교수 3인 '예술, 그리고 예술교육의 의미, [문화+서울] 2016년 7월호

TA 양성 전문과정 운영 결과

브랜드	과정명	연도	전문		연구	기타/단기 (미적체험워크숍)	비고
			입문	심화			
TA Arts-TREE	TA 양성 과정	2007	1~2기 70명 (수료 70명)	1기 41명 (수료 34명)			
		2008	3~5기 112명 (수료 102명)	2기 39명 (수료 37명)	연구 7명 (수료 7명)		
		2009	6~8기 97명 (수료 88명)	3기 35명 (수료 35명)	연구 24명 (수료 24명)		
		2010	9~11기 113명 (수료 103명)	4기 37명 (수료 30명)	연구 26명 (수료 25명)	집중워크숍 200명 (수료 167명)	
		2011	12~15기 160명 (수료 158명)	5기 40명 (수료 34명)	연구 9명 (수료 9명)	집중워크숍 68명 (수료 68명) CoP지원 5팀 (20명) TA 인턴십 19명	
서울창의 예술교육 아카데미	창의예술 교육(AiE) 과정	2012	1기 입문 25명 (수료 21명)		CoP지원 5팀 (14명) 인턴십 2팀 (7명)	1회 37명 (수료 31명)	
		2013	2기 입문 27명 (수료 26명)	1기 심화 25명 (수료 24명)			
		2014	3기 입문 32명 (수료 31명)	실습 3명 (수료 3명)		1개 프로그램(서커스) 60명(수료 54명)	
		2015	4~5기 69명 (수료 62명)				
		2016		2기 심화 16명 (수료 13명)		1개 프로그램(그림책) 30명(수료 29명)	심화과정 개편
		2017	6기 입문 189명 (수료 134명)			2개 프로그램(문학, 애니) 50명(수료 40명)	
서울 예술교육 아카데미	New AiE 예술교육 창작과정	2018	1~2기 50명			232명	입문 및 심화과정 통합 개편

교과연계
(서울형 통합예술교육 방법론)
워크숍(2016-2019)

서울문화재단 통합예술교육 프로그램 연구 방법론과 사례를 경험할 수 있는 과정으로 2016년 시작되었다. 서울문화재단 TA가 직접 강사로 나서 다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통합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방법적 원리를 나누는 워크숍으로, 미적체험 예술교육의 국내 학교예술 환경 적용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었다. 교육예술가 네트워크 형성과 교육 콘텐츠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2017년부터는 전국 광역문화재단과 기관을 대상으로 운영했으며, 2019년 기초문화재단까지 확산되었다. 지역문화재단을 대상으로 재단이 구축한 미적체험 예술교육을 설계하는 워크숍을 운영함으로써 서울형 예술교육의 확산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연차가 쌓인 경력 TA들에게 새로운 동기를 부여하는 역할을 했다.

연도	교육대상	기관	참여자
2016	예술가, 교사, 교육예술가	서울문화재단	20명
2017	예술가, 교사, 교육예술가	서울문화재단	21명
	예술가, 교사, 교육예술가	세계미술교육학회(INSEA)(한국 총회)	55명
	사회·학교문화예술교육 관계자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40명
2018	예술가, 교육예술가	대전문화재단	60명
	예술가, 교육예술가	대전문화재단	28명
	예술가, 교사, 교육예술가	대구문화재단	30명
	예술가, 교사, 교육예술가	광주문화재단	23명
	예술가, 교육예술가	부산문화재단	14명
2019	서울 외 지역 (교육)예술가	춘천문화재단	40명

서울형 TA 역량강화 아카데미

어린이·청소년 학교예술교육을 담당하는 TA를 대상으로 진행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 매년 초 당해 연도 선발된 TA들에게 사업의 특성과 교육 대상을 이해하고 교육 과정을 설계하는 역량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아카데미 대표 프로그램인 'AiE'의 노하우를 반영해 강의, 미적체험 워크숍, 소그룹 활동 등의 프로그램을 총 30시간 내외로 구성했다. 창작 활동의 주체였던 예술가들은 아카데미 과정을 이수하며 재단 고유의 예술교육 철학과 교육과정, 설계방법론을 공유하는 '서울문화재단TA'로 거듭나면서 미적체험 예술교육을 확산하는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상황으로 기존의 역량강화 아카데미 이외에 비대면 교육을 위한 온라인 콘텐츠 제작 아카데미와 연구 과정을 추가로 운영했다.

문화매개자 교육(2007-2019)

재단은 재단의 예술교육을 다른 영역에도 적용하고 확산하기 위해 문화매개자의 성장을 지원하는 역할도 병행했다. 서울의 교육과 문화예술 분야 공무원, 문화예술 행정가, 교사 등을 대상으로 미적체험 예술교육 연수 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하면서, 해당 직무 역량을 강화해 문화매개자로 양성하고자 했으며, 주로 공교육 현장의 변화를 이끌기 위해 재단의 예술교육

사업에 참여하는 학교 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집중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초기의 **문화매개자 Arts-TREE**는 교육, 행정, 사회 분야 등의 전문가(공무원, 교사, 복지사, 돌봄전담강사 등)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2012년에는 '서울창의예술교육아카데미' 내에서 '문화매개자 대상 창의예술교육'으로 운영되었으며, 교사와 공무원이 재단의 미적체험 통합예술교육을 체험할 수 있게 했다. 서울시교육청 특수 분야 교원직무연수도 진행했으며, 서울국제예술교육워크숍(SEW)에 '교사반'을 개설하기도 했다. 초기에는 공무원과 교사의 비중이 비슷했으나, 2013년부터는 **창의예술교사 양성 과정**으로 변경하고 주로 어린이·청소년 학교예술교육 참여 학교 담임교사 대상 워크숍으로 진행했다. 워크숍을 통해 교사들과 재단이 지향하는 미적체험과 통합예술교육의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예술교육의 중요성을 전파했다.

구분	공무원 연수	교사 연수	기타 연수	총
2007	62명	60명	472명(복지사)	594명
2008	105명	290명		395명
2009	126명	290명	25명	441명
2010	150명	494명	108명(기업 사회공헌 담당자)	752명
2011	223명	368명		591명
2012	59명	537명	35명(서울국제예술교육워크숍)	631명
2013		460명		460명
2014		265명		265명
2015	29명	406명	24명(문화예술전문연수)	459명
2016		514명	86명(문화예술전문연수)	600명
2017		612명		612명
2018		776명		776명
2019		369명		369명

서울예술교육랩(2020-2023)

2020년부터 서울예술교육아카데미로 진행된 '서울예술교육랩'은 교육예술가를 비롯한 예술가, 교육가, 활동가, 매개자들이 상호 교류하며 학습하는 장으로, 동시대 예술교육의 이슈와 가치를 탐구하고 예술교육 현장 담론을 발굴해 공론장을 형성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해왔다. 기존의 아카데미 운영 방식과는 달리 토크 프로그램, 학습모임, 워크숍 등을 통해 교육예술가 스스로 활동을 성찰하고, 동료와 함께 동시대 이슈와 예술교육을 연구하고 실험할 수 있게 운영했다.

코로나19 시기 처음 시작한 서울예술교육랩 '질문의 진화'는 기존의 생각과 태도에 거리를 두고 경험과 지식을 재구성해 재난 시대에 예술교육의 가치와 방향을 찾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감각 확장 워크숍, 강연과 토크, 학교예술교육TA 학습모임, TA 인터뷰 프로젝트 등을 통해 혼란의 시기, 학교예술교육의 변화 방향과 고민을 나눌 수 있었다.

2021년 '질문의 진화'는 서울예술교육의 진화를 위한 강연, 대담, 국제포럼 중심의 '오픈 토크'와 '감각확장 워크숍', '질문의 진화'를 되돌아보는 '리뷰세션'으로 구성되었다. 비대면으로 진행된 '월간 웨비나'는 예술교육실천가들이 예술교육 현장의 이슈를 제시하고 논의하는 열린 토론의 장으로 총 7회 운영되었다. 2022년에는 '오픈 토크'에서 예술교육의 실천, 협력, 플랫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으며, 교육예술가가 직접 준비한 워크숍을 통해 동료 교육예술가와 만나 각자의 방법론과 고민을 공유했다. 문화예술교육 실천가들을 위한 소소테이블 '우리 함께 해볼까'는 청년자율예산제로 2022년 운영되었으며, 교육예술가 역량 강화를 위한 15개의 자발적인 연구 모임(CoP)을 지원하며 상호 학습의 장을 마련했다.

서울예술교육랩은 2023년 학교 중심에서 시민 중심 예술교육으로 전환기를 맞이함에 따라 미래 예술교육의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현시대 이슈를 탐색하고 예술교육 분야 의제를 발굴하고 실험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서울예술교육의 주체인 예술교육실천가의 자발적 학습과 역량 강화를 지원하면서, 예술교육을 둘러싼 다양한 주체와의 연구·개발 협력의 플랫폼 역할을 하고 진화하는 서울예술교육의 가치를 확산할 수 있었다.

2010 문화매개자 Arts-TREE

2014 예술로 돌봄 보육전담강사 창의연수

2022 예술로 함께 1학기 담당교사 연수

2022 서울예술교육랩 질문의 진화 (감각 확장 워크숍 불편에 유연하게 맞서기)

서울형 예술교육 가치 확산

+ 2010-2022
× 미적체험 전략개발 프로젝트(2010-2011)
서울형 창의예술교육체계 구축(2012-2017)
서울형 예술교육 가치 확산(2018-2022)

브랜드

서울문화재단은 예술교육 사업의 고유 모델을 개발하고 관련 인프라 확보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 다양한 예술교육 사업을 통합적으로 기획·관리하고, 이를 토대로 서울형 예술교육 체계를 확립하고자 했다

서울문화재단의 예술교육 브랜드는 2007년 창의적인 미적 체험교육으로 싱그러운 문화예술의 숲을 키워나가는 **Arts-Echo Project**(아츠 에코 프로젝트)에서 시작해, 2011년 재단 예술교육사업 통합브랜드 **서울창의예술학교·서울창의예술교육**으로 이어졌다. 브랜딩 변경에 따라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를 진행해 '서울창의예술학교' 인프라와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미적체험 예술교육 프로그램과 창의예술교육 가치 확산을 위한 총서, 교재를 개발하는 등 재단 예술교육의 철학과 가치를 재조명하고 확산해 나갔다. 2018년에는 '제1차 서울시 문화예술교육 기본계획(2018-2022)'수립과 더불어 **서울예술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서울을 대표하는 서울형 예술교육 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확산하는 예술교육 대표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했다. 2023년은 '제2차 서울시 문화예술교육 기본계획(2023-2027)' 수립에 따라 재단 예술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는 해로 삼았다.

국제교류

서울문화재단은 세계 유수의 예술교육 전문 기관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교류하며, 해외 연수 지원, 워크숍, 심포지움, 포럼 등을 개최해 국내외 예술교육의 트렌드와 우수한 콘텐츠를 공유하고 담론을 형성하는데 앞장서 왔다.

2005년 처음 인연을 맺은 링컨센터와 2009년 9월 12일 아시아 최초로 5개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두 기관의 협력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2009년 이전에도 연간 4명 내외의 방문 연수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했으며, 2008년 12월 링컨센터 초청 심포지엄과 워크숍을 통해 구체적인 협력 가능성을 확인한 바 있다. MOU를 계기로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링컨센터의 '미적체험교육' 핵심 노하우와 서울문화재단 예술교육 철학을 결합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첫 협력 사업으로 2010년 5월 링컨센터 초청 '서울국제예술교육워크숍(SEW_Seoul Educators Workshop with LCI 2010. 5. 21.-25.)'을 개최했다. 2011년에도 총 3개 과정이 개설되었으며, 2013년에는 예술작품 감상과 연계해 남산예술센터 드라마센터에서 개최했다. 2015년 6월 10일 MOU를 갱신하며 다시 입문 과정을 2016년과 2017년 개설했으며, 2019년에는 경력 3년 이상 TA 대상 전문성 향상 프로그램 'TA-D랩: TA Development Lab'을 최초로 열어 교육예술가 27명이 참여했다.

또 하나의 주요한 협력 기관은 핀란드 헬싱키의 아난딸로아트센터(Annantalo Arts Centre)●●였다. 재단이 2013년 아난딸로아트센터를 답사하면서 관계가 시작되었고, 2018년 11월 21일부터 26일까지 아난딸로아트센터 관계자 4명이 서울을 방문해 국내 첫 예술교육 전용 공간인 서서울예술교육센터를 둘러보고 상호교류 워크숍과 포럼을 개최하면서 교류의 물꼬를 텄다. 이후 2019년 2월 11일 아난딸로아트센터와 MOU를 체결하고 서울과 헬싱키의

● '서울문화예술교육' 사업의 전문 예술인 대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링컨센터 예술교육 워크숍 참가 지원'(2005-2006), 'TA Arts-TREE' 내 링컨센터 워크숍 입문 과정 연수 지원(2007-2008)에 이어 2018년까지 'TA 글로벌 역량강화 지원' 프로그램으로 재단TA 2~5명을 선발해 링컨센터의 예술교육 워크숍 'LCE Summer Forum' 참가 기회를 제공했다.

●● 핀란드 헬싱키에 위치한 아난딸로 아트센터는 시에서 운영하는 아동·청소년 대상의 예술교육기관이다. 1987년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지역 커뮤니티 기반으로 설립되었으며, 오래된 학교 건물을 개조해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특화된 문화예술교육을 제공한다.

더 보기

- 남산창의예술센터 LCI 2013 서울국제예술교육워크숍 [문화+서울] 2013년 9월호
- 미국 링컨센터 에듀케이션 대표이사 러셀 그래닛 [문화+서울] 2014년 2월호
- 서울문화재단-아난딸로아트센터 교류협력 포럼 [문화+서울] 2018년 12월호
- 2019 서울문화재단-링컨센터에듀케이션 좌담회 [문화+서울] 2019년 10월호

MOU

- 2009.09.12. 2015.06.10.(2차) 링컨센터에듀케이션(Lincoln Center Education)
- 2019.02.11. 아난딸로아트센터(Annantalo Arts Center)

예술교육 정책과 문화를 교류하고 예술교육 콘텐츠 개발, 전문 인력 역량강화, 예술교육 공간 조성과 운영을 위한 공동 협력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아난딸로아트센터와의 첫 협력 프로젝트는 2019년 시작한 'TA 글로벌 역량강화 지원 프로그램'으로 재단 TA와 아난딸로 아티스트티처(AT, Artist Teacher)를 대상으로 기획했으며, 아난딸로아트센터에 재단 TA 2명이 직접 방문해 진행했다.

서울문화재단은 폭넓고 지속적인 국제교류를 통해 '예술가'로서 TA의 정체성을 살리면서 예술교육의 시야를 넓힐 수 있는 해외 예술(교육)가와의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며 서울예술교육의 발전과 TA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었다.

서울국제예술교육워크숍 운영 결과

교류 기관	연도	입문과정	심화과정	
링컨센터에듀케이션	2010	72명	-	TA
	2011	95명	29명	TA, 교사
	2012	75명	-	TA, 교사
	2013	-	62명	
	2016	62명	-	
	2017	53명	-	
	2019	-	27명	TA-D랩 전문성 향상 프로그램
아난딸로아트센터	2018	40명		초청 워크숍
	2019	2명		방문 워크숍

서울국제창의예술교육 심포지엄

서울국제창의예술교육심포지엄(SISAC, Seoul International Symposium for Arts and Creativity 이하 SISAC)은 예술교육 관련 세계적인 석학과 국내외 다양한 창의적 예술교육의 우수 사례 주인공이 한자리에 모여 현장에 뿌리를 둔 예술교육의 미래를 논하는 자리로 3년 주기로 2017년까지 총 3회 개최되었다. 글로벌 문화예술교육 트렌드와 창의예술교육에 대한 국내외 사례를 공유하고 담론을 형성하며, 예술가, 교육예술가, 교사 등의 실질적인 협력 네트워크의 장을 열었다.

	일시 및 장소	주제	참석
제1회	2011.08.12.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	예술교육으로 창의교육의 변화를 이끌다 Leading Change in Education through Arts in Education and Creativity	213명
제2회	2014.11.03.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예술가, 교사, 예술가교사: 정체성과 실천, 그 성찰과 확장 Artist, Teacher, Teaching Artist: Reflections on Identity, Expansions of Practice	354명
제3회	2017.08.21. DDP 디자인나눔관	예술가의 작업, 교육을 넘어; 미적체험교육의 진화와 확장 Artists' Work, Beyond Arts Education; Evolutionary&Expanding Cases of Aesthetic Education	202명

서울예술교육포럼

서울의 문화예술교육 흐름을 주도하는 열린 토론의 장으로 2012년 처음 시작해 2019년까지 연 1~2회 개최되었으며, 국내 예술교육 현안과 트렌드 발제와 토론을 통해 정책의 변화가 현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했다. 2018년에는 서울문화재단과 아난딸로아트센터 교류 협력을 위한 '도시문화자본과 예술교육공간' 포럼으로 개최했으며, 2022년 11월에는 서울예술교육페스티벌 기간에 아난딸로 아트센터 디렉터 등을 초청해 국제포럼 '예술교육의 미래를 위한 협력과 연결'을 개최하며 팬데믹으로 주춤했던 국제 행사를 재개했다.

2012	2012.12.06. 유네스코홀 현장의 목소리로 새로운 문화예술교육 정책을 그려보다.	비고
2013	2013.01.17. 시민청 콜라보레이션; 문화예술교육의 무한한 가능성과 새로운 지평	
2014	2014.05.12. 가톨릭청년회관 예술이 교육이다; 어린이와 통합예술교육	
2014	2014.12.22. 서울연극센터 예술이 교육이다; 예술교육의 새로운 지평, 시민예술대학	
2015	2015.05.27. 예술가의 집 노년의 삶과 문화예술교육	
2015	2015.12.15. 예술가의 집 어린이·청소년의 예술적 놀 권리와 전용공간의 필요성	
2016	2016.07.06. 숙명여자대학교 명신관 창조의 시대, 예술을 통한 시민 참여: 서울시민예술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2018	2018.11.22.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핀란드 아난딸로아트센터 초청: 도시문화자본과 예술교육공간	국제포럼
2019	2019.12.06. 신촌 Arc&Book 서울예술교육 2.0을 준비하는 연구 공유포럼	
2022	2022.11.01. 서울문화재단 대학로센터 예술교육의 미래를 위한 협력과 연결	국제포럼

종합 행사

서울문화재단 예술교육 사업을 한자리에서 선보이고 관련 정보를 교류한 종합 행사로는 제1회 **서울예술교육페어(2013.01.17.-19.)**가 있었다. '사람을 연결하고 삶을 나누는 예술교육 이야기'를 주제로 시민청에서 열렸으며, 3일 동안 19개의 프로그램에 16,898명이 참여하는 성황을 이뤘다. 예술교육 관계자를 한자리에 모아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계기이자, 시민들에게는 다양한 예술교육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이후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주관으로 지원사업 참여자들이 직접 창작한 문화예술 작품과 프로그램을 공유하는 예술교육 통합발표회 '예술로뽐 - 나의 예술가 데뷔전'(2015), 다음해에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 체험의 장 '예술로 무한상상' 페스티벌이 시민청에서 열렸다.

이후 종합 행사는 한동안 개최되지 않다가 2022년 서울문화재단 예술교육의 다양한 면모를 살펴보며 예술교육의 의미를 묻고 앞으로의 예술교육을 위한 새로운 방향을 찾는 축제

서울예술교육페스티벌(2022.10.17.-11.01.)이 서울문화재단 대학로센터,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용산과 양천에서 진행되었다. 서울예술교육의 역사와 축적된 자원을 공유하는 기록 전시 〈Since 2006〉, 서울예술교육 대표 강좌, 포럼, 워크숍,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6,291명이 참여했다.

2013	2015	2016	2022
서울예술교육페어 2013.01.17.-19. 16,898명	문화예술교육 통합발표회 '예술로 뽐' 2015.11.14. 1,907명	문화예술교육 통합행사 '예술로 무한상상' 2016.10.14.-15. 3,275명	2022 서울예술교육 페스티벌 2022.10.17.-11.01. 6,291명

출판

서울문화재단에서는 국내 예술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양질의 프로그램을 확산하기 위해 예술교육총서 시리즈를 출간했다. 서울문화재단 미적체험 예술교육의 철학적 배경, 과정 개발에 필요한 이론적 지식, 실제 교육현장에서 축적된 수많은 경험 등을 도서 형태로 출판해 예술교육 관계자들 및 시민들과 공유했다. 2011년 12월 25일 미적체험 예술교육도서 「블루기타 변주곡」을 번역해 발간한 것을 시작으로 2019년 「청소년을 살게 하는 연극교육」까지 총 7권의 예술교육총서를 발간했다. 한편 재단 고유의 미적체험 통합예술교육 가치와 방법론이 내포된 콘텐츠를 교재화한 어린이 창의예술교육 교재 5권과 미적체험 통합예술 교육프로그램 개발 사례집도 냈다.

"우리가 여기서 하는 모험의 주요한 측면은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서 우리의 점진적인 의식이라 하겠습니다. 우리는 가치, 표준, 기교의 감각, 무엇이 수월한지에 대한 느낌을 공유합니다. 서로서로 각자의 이야기들을 나누고, 각자를 인지하기 시작하면서 이 모든 것을 나눕니다. 이 모든 것이 교실에서도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면서 말입니다."
맥신 그린, 「블루기타 변주곡」

예술교육총서
1. 블루 기타 변주곡 | 맥신 그린 저 | 문승호 역 | 2011
   (Variations on a blue guitar | Maxine Greene)
2. 미적체험과 예술교육 | 전미숙, 곽덕주, 최우정, 정연심, 남인우 저 | 2014
3. 유럽에서 만난 예술교육 | 곽덕주, 남인우, 임미혜 저 | 2015
4. 통합예술교육이란 무엇인가? | 백령 저 | 2015
5. 예술이 교실을 바꿔요 | 서울문화재단TA 저 | 2016
6. 수업이 예술을 만났어요 | 서울문화재단 저 | 2017
7. 청소년을 살게 하는 연극교육 | 이시이 미치코 저 | 고주영 역 | 2019

예술치유총서
1. 예술은 어떻게 마음을 치유하는가? | 서울문화재단 서울예술치유허브 | 2017
2. 더 힐링스쿨(상처 입은 청소년을 위한 예술처방) | 서울문화재단 서울예술치유허브 | 2018

통합예술교육 교재
1. 예술로 만나는 돌봄교실 Ⅰ·Ⅱ·Ⅲ: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교실
   - 세계의 신화 A, B, C (A. 상상을 통한 신화와 발명, B. 신화, 말을 걸다, C. 예술 작품 속 숨은 신화를 찾아서)
   - 예술로 만나는 자연, 자연을 담은 예술작품
   - 예술과 나
2. 예술로 플러스: 초등학교 교과 연계
   - 사회로 예술하기: 3학년 사회
   - 국어로 예술학기: 2학년 국어, 5학년 국어
   - 통합교과로 예술하기: 2학년 통합(가을, 우리나라)

더 보기

서울문화재단 예술교육 연구보고서

- 전문예술교육·전문예술교육가(TA) 양성을 위한 미적체험교육시스템 구축 연구(2010)
-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효과성 분석연구(2010)
- 서울문화재단 창의예술교육체계 구축을 위한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2011)
- 어린이 창의예술교육 방과후 돌봄교실 지원사업 효과성 분석 연구(2011)
- 어린이 통합예술교육과정 설계 매트릭스 개발 연구(2013)
- 서울시민예술대학 모델 및 운영체계 연구(2014)
- 청소년 인문예술교육 운영체계 및 TA 교육방법론 기초연구(2016)
- 서울형 학교예술교육 효과성분석을 위한 기초연구(2018)
- 2019 서울형 예술교육 2.0 전략계획 수립 연구 보고서(2020)
-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현황분석을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2020)
- 서서울예술교육 리뉴얼 전략 연구(2022)
- 서울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고관여자(교육수혜자, 중간매개자) 분석 연구(2023)

사례집·결과보고서

- 2011 서울문화재단 창의예술교육 사업보고서
- 2011 서울문화재단 미적체험 통합예술 교육프로그램 개발 사례집
- 2012 서울문화재단 창의예술교육 사업보고서
- 2017 지역특성화(사회)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결과자료집
- 2019 서울문화재단 서울예술교육 10 to 100
- 2019 영유아 예술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 2020 유아예술교육 접근을 위한 시선집 〈사심가득: 내 아이를 위한 예술교육〉
- 2021 지역예술교육TA 프로젝트 리뷰집 〈삶과 더 가까이 관계 맺는 예술적 실천〉
- 2022 지역예술교육TA 프로젝트 리뷰집 〈예술교육의 시각, 돌봄의 시간〉

2013 서울예술교육페어

2011 서울국제창의예술교육 심포지엄

2017 링컨센터에듀케이션 워크숍

2022 서울예술교육페스티벌

5.3.2.

지역형 예술교육

-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 서울시민예술학교
- 서울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 2009-2023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이하 서울센터)는 서울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지정받아 서울문화재단이 운영하는 광역 단위 문화예술교육 지원조직이다. 2009년 17개 광역시도에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이하 광역센터)를 설치한다는 중앙 정부 정책에 의해 서울의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설치와 운영을 서울문화재단이 담당하게 되면서 서울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의 보급과 확산이라는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초기에는 문체부와 서울시가 매칭한 사업을 위탁받아 지역과 밀착한 방향으로 전환해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추진했다.

2009년 2월 25일 출범 당시에는 예술교육팀에 설치되었다가 2012년 별도 팀 단위의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로 분리되었으며 사업비 외에 매년 3억 원의 예산으로 운영되었다. 초기 주요 사업은 2007년 시작한 '사회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이후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2010년에 시작한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2012년 시작한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였다. 이외에 관계 기관 네트워크, 예술교육정보자료관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했다.

2009년 재단에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설치되면서 그 때부터 재단만의 독특한 철학과 방식을 가진 예술교육사업을 추진하는 기능과 중앙 정부나 서울시로부터 내려오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능이 재단에 공존하게 된다. 서울문화재단만의 특화된 예술교육사업이 발전되고 고도화되고 정비되는 와중에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서 하는 이관 사업들도 그 규모가 비약적으로 성장하게 된다.
장재환 당시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장, 서울문화재단 10년 백서

2019년부터 중앙의 방침이 변경되면서 광역센터에서 각각 운영하던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지역연계 프로그램,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 지원, 3개 사업 예산을 자율적으로 통합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추가로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과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이후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역량강화)'이 광역으로 이관되어 서울센터에서 운영을 맡게 된다. 2021년부터는 문화예술교육의 지역화 기조에 따라 서울센터도 '서울시자치구문화재단연합회(이하 서문연)'와의 협력으로 '자치구 문화예술교육 거점지원' 사업을 추진해 광역·기초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별 문화예술교육 실행의 기반을 마련했다. 2022년 그간 국비와 시비 매칭으로 운영되던 국고 보조금 사업이 지역으로 100% 이양되어 서울시 예산으로 운영하게 되었으며, 2023년 공모 지원 사업부터는 서울형 예술교육의 방향성을 정립해 '서울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으로 전면 개편을 단행했다.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예술교육본부 내 별도 팀 단위로 있다가 2022년 예술교육실 내 예술교육지원팀, 2023년 예술교육정책팀에서 기존 광역센터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2023년에는 재단의 예술지원 사업과 예술교육 지원사업 공모 일정을 통합해 공통 운영 지침을 마련하고, 서울문화예술지원시스템(SCAS)을 도입해 편의성을 높였다.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2005-2023)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지역별 특성이 반영된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주민과 (교육)예술가가 상호 연계하여 교류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으로 사회문화예술교육 분야에서 가장 역사가 길다. 재단 설립 초기 ‘사회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은 서울시와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가 1:1로 재원을 매칭해 재단에서 위탁 운영했으며, 주로 취약계층 대상 공모 사업으로 진행했다. 첫해인 2005년에는 ‘서울문화예술교육과정’으로 재단에서 8개의 교육 과정을 직접 기획·운영했으나, 2006년부터는 서울 소재 문화예술교육 관련 단체 대상 공모 지원 방식으로 재설계해 직장인, 가족, 취약계층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2007-2008년에는 예술교육 단체를 선발해 노인, 장애인, 저소득가정 아동·청소년, 다문화가정 등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했다. 2009년부터 ‘지역특성화 사회문화예술교육지원’ 사업이 지역으로 이관되면서 서울시 위탁 사업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2010년에는 자치구(마포, 성북, 구로 등) 연계 사업, 기획 사업, 일반 공모 사업 등으로 다양화해서 운영했다. 매년 공모를 통해 25개 내외의 단체를 선정해 지원했으며, 2023년에는 서울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개편으로 연속형 2개만 운영되었다.

‘서울’이라는 지역적 특성이 가장 많이 반영된 사업으로 사업 초기에는 문화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추진했으나, 점차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운영되었다. 시민들은 동네별 다양한 이슈와 현안, 특성을 연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예술적으로 소통하며 지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다.

연도	프로그램 수	연인원	비고
2005	8개	-	서울문화예술교육과정(자체 기획)
2006	32개	-	공모 지원 변경
2007	22개	-	노인, 장애인, 취약계층 대상
2008	24개	-	저소득층,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
2009	23개	14,970명	21개 단체
2010	31개	33,960명	28개 단체
2011	27개	20,765명	26개 단체
2012	33개	28,049명	33개 단체
2013	50개	30,577명	27개 단체
2014	36개	31,045명	27개 단체
2015	26개	21,012명	24개 단체
2016	44개	12,239명	24개 단체
2017	30개	11,182명	22개 단체
2018	30개	8,969명(910명)	22개 단체
2019	-	(522명)	20개 단체
2020	-	(462명)	23개 단체
2021	34개	12,979명(536명)	25개 단체
2022	41개	971명(92명)	25개 단체
2023	6개	971명(92명)	5개 단체(연속형)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2012-2023)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는 '주 5일 수업제' 전면 실시와 창의·인성교육을 중요시하는 공교육의 변화 속에서 2012년 시작된 아동·청소년과 가족 대상의 학교 밖 주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이다. 교육 대상을 고려해 문화예술교육 단체의 특성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한 프로그램 공모를 통해 선정해 서울 곳곳에서 진행했다. 서울의 문화예술 전문 단체(기관), 시설이 참여해 장르 또는 강의형 교육에서 벗어나, 체험·실연·캠프 등 다양한 과정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했으며, 또래·가족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건전한 여가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했다.

연도	프로그램 수	참여 연인원(실인원)
2012	12개	11,017명
2013	30개	20,262명
2014	34개	22,197명
2015	35개	22,935명
2016	56개	33,934명
2017	58개	32,051명
2018	42개	17,258명
2019	28개	944명
2020	28개	560명
2021	27개	14,553명(528명)
2022	24개	6,233명(544명)
2023	2개(연속형)	528명(56명)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2010-2016)

학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초·중·고등학교에 전문 예술 강사를 선발해 파견하는 사업으로 문체부와 교육부 협력 하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관한다. 재단은 광역센터 지정 후 서울 지역 사업을 위탁 받아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운영했다. 2010년 학교에 배치된 강사와 학교 관리, 강의료 지급의 행정 업무에서 시작해, 2011년부터 직접 예술강사를 선발하고 학교에 배치하게 되었으며, 2014년에는 예술강사의 교육 활동과 학교 협조도 등에 대한 평가까지 담당하며 역할이 확대되었다. 초기 4년(2010-2014)은 국악을 제외한 7개 분야(연극, 영화, 무용, 만화·애니메이션, 공예, 사진, 디자인), 이후 2년간은 국악 포함 8개 분야의 예술강사를 선발, 배치하고 운영했다.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7개 분야 391명 / 387개교	7개 분야 501명 / 469개교	7개 분야 509명 / 544개교	7개 분야 537명 / 566개교	7개 분야 616명 / 659개교	8개 분야 776명 / 1,094개교	8개 분야 865명 / 1,108개교
국악 제외					국악 포함	

생애전환 문화예술학교
(2021-2022)

신중년(50~64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국고 보조금 사업으로 재단은 2021년부터 2년 연속 공모에 선정되어 사업에 참여했다. 재단은 자치구 협력운영 체계와 지역 문화예술교육 기반 구축의 일환에서 자체 기획 사업으로 추진, 중장년 세대를 분석하고 자치구 문화재단과 협력해 신중년 특성을 고려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했다. 2021년에는 도봉·성북문화재단과 협력해 2개의 프로그램을 2022년에는 자치구문화재단(금천·도봉·성북·중랑)과 프로그램 4개, '서울예술학교, 오늘' 연계한 프로그램 2개를 기획하고 운영했다.

구분	운영 결과
2021	2개 자치구(도봉문화재단, 성북문화재단), 46명(158명) 참여
2022	4개 자치구(도봉, 성북, 금천, 중랑), 6개 프로그램, 72명(472명) 참여 * 2개 프로그램 '서울예술학교, 오늘' 연계 운영

자치구 문화예술교육 지원
(2019-2022)

서울문화재단은 2019년부터 자치구별 지속가능한 예술교육 생태계 기반 조성을 위해 자치구 협력형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을 추진, 자치구 주도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문화자치와 지역분권을 실현하고자 했다. **자치구 예술교육 활성화(2019-2020)**사업은 서울지역 내 자치구 문화기관 대상 공모로 운영했으며, 지역 중심 예술교육 자원 발굴, 연구 지원, 네트워크 등을 지원해 지역 내 문화예술 거점 기관의 역할과 자율성을 강화했다. 2021년에는 **자치구 예술교육 기반 조성(2021)**사업으로 자치구 문화기관 11개의 지역 내 예술교육 자원 연계와 거점 조성 과정을 지원하는 한편 지역 특화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위해 TA 9명을 선발해 자치구문화재단(동작구·성동구·중구)에 지원했다. 2022년부터는 광역센터 기본 운영 예산으로 편성, 서문연과 협력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면서 사업명도 **자치구 문화예술교육 거점 지원(2022)**으로 변경했다. 자치구문화재단의 예술교육 실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자치구문화예술교육 추진 협의체를 구성하고 5개 권역별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후 제2차 서울시 문화예술교육 기본계획에 따라 자치구 중심 문화예술교육 추진체계의 실현을 위해 2023년 하반기, 지역 문화예술교육 지원체계 구축 사업으로 새롭게 개편되었다.

	사업명	참여자치구	평균지원금	참여시민	비고
2019	자치구 예술교육 활성화	13개	5천2백만 원	2,200명	
2020		13개	4천3백만 원	1,676명	
2021	자치구 예술교육 기반 조성	11개	3천2백만 원	6,580명	자치구TA 9명(3개구)
2022	자치구 문화예술교육 거점 지원	-	-	-	5개 권역별 지원

출처: 서울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위한 정책 방안, 14쪽

더 보기

지역과 함께 나아가는 문화예술교육, [문화+서울] 2022년 2월호

문화예술교육 정보 플랫폼

서울문화재단은 문화예술교육 정보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며 2020년부터 서울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아카이브 페이지 '모아, 담아(MODA)'를 통해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과 참여 단체 정보를 온라인 아카이브를 구축해 제공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 정보의 허브 역할을 수행했다. '예술교육정보자료관'은 문화예술교육 관련 자료 및 다양한 예술 장르의 도서, 연구자료, 정기간행물 및 영상 등을 소장한 국내 최초의 예술교육 전문도서관으로 2009년 9월 26일 개관했다. 현재는 전자도서(E-Book)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정보자료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더 보기

서울예술교육 아카이브
모다 MODA

서울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아카이브

2022 서울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러닝캠프

2023 서울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운영 현장

서울시민예술학교

+ 2008-
× 꿈꾸는 청춘예술대학(2008-2015)
서울시민예술대학(2015-2022)
서울시민예술학교(2023-)

'서울시민예술학교'는 예술가와 직접 소통하며 배움의 과정을 이어가는 서울문화재단의 대표적인 평생학습 브랜드이다. 만 19세 이상 서울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연극, 무용, 전통, 시각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교육 과정을 운영한다. '서울시민예술학교'의 전신인 **서울시민예술대학**은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만 19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운영하며, 선정된 문화예술(교육)단체 대상으로 최대 1~3년 연속지원을 통해 심화형 문화예술교육 개발 및 실행을 촉진했다. 2015년까지 운영된 노인 대상의 **꿈꾸는 청춘예술대학** 참여자를 전체 시민으로 확대하면서 '서울시민예술대학'으로 전환했다.

서울시민예술대학은 문화예술(교육)단체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해 운영단체를 선정하고 운영단체가 서울 시내 복지관, 창작공간, 복합문화공간, 예술단체공간, 청년 공간, 개인 작업실 등을 활용해 참여자를 모집하는 형태로 운영되었다. 예술로 특화된 장르별, 단계별, 생애주기별 교육과정을 운영했으며, 공모 프로그램 이외에도 유관 기관 또는 민간 협력 프로그램 등이 진행되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재단 자체 공간 활용도가 낮은 부분과 관련해 변화를 모색하던 중, 2022년 공모 사업 규모를 축소하고 자체 기획 시범 사업으로 '서울예술학교, 오늘'을 시작해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등 재단 주요 거점에서 운영했다. 서울 시민이 일상에서 동시대 활동하는 예술가와 함께 '예술하는 즐거움'을 느끼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장르와 단계의 예술 수업을 제공했다. 2023년 '서울시민예술대학'과 '서울예술학교, 오늘'은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용산과 양천의 운영 예산에 통합되면서 또 다시 변화를 맞는다. 2023년 9월 서울형 예술교육 대표 브랜드 **서울시민예술학교**로 다시 태어나 양천과 용산센터를 필두로 운영하게 된 것이다. '서울시민예술학교'는 공연, 전시, 토크콘서트인 '감상형', 예술가와 직접 소통하는 '체험형', 창작의 과정을 직접 공유하고 나눠보는 '창작형' 등 3개의 유형으로 전개된다. 2024년 말 권역별 문화예술교육센터 3곳이 문을 열면 서울 어느 지역에서든 쉽게 접근하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재단은 학교와 아동·청소년 중심이었던 예술교육 현장을 보완하며 성인 대상 심화형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다양한 시민예술 콘텐츠를 기반으로 지역 거점 연계 협력 캠퍼스로 확산해 지역 참여 확대를 유도하고자 한다.

연도	프로그램 수	진행 자치구	참여 연인원(실인원)	비고
2015	10건	4개	2,145명	공모8, 기획2
2016	37건	14개	14,217명	공모30, 협력4, 기획3
2017	34건	14개	12,254명	공모28, 협력5, 기획1
2018	38건	12개	7,798명(645명)	공모30, 협력7, 기획1
2019	28건	13개	6.033명(254명)	공모17(일반, 심화, 창작)
2020	14건	13개	2,766명(182명)	공모15
2021	25건	11개	2,451명(232명)	공모15
2022	18건	8개	2,567명(315명)	공모10, 기획8
2023	4건	3개	1,193명(54명)	공모 3

*2022년 서울예술학교, 오늘: 5건, 8개 프로그램, 145명 참여

꿈꾸는 청춘예술대학(2008-2015)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운영한 '꿈꾸는 청춘예술대학'은 노인 스스로 문화예술을 즐기고 예술을 통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노년층의 삶에 활력을 심어 주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다. 2007년 서울시의 '시민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을 위탁 받아 조사 연구 단계를 거쳐, 2008년 하반기부터 '노인'을 대상으로 설정하고 사업을 시작했다. 공모를 통해 운영단체를 선정해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자치구 내 문화예술기반 시설과 노인복지시설에서 다양한 장르의 통합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고령화 사회를 맞아 문화예술교육 대상으로 '노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시점에서, 재단의 선도적인 측면을 엿볼 수 있는 사업이다.

연도	프로그램 수	진행 자치구	참여 연인원
2008	18개	15개	16,200명
2009	20개	16개	23,440명
2010	21개	15개	26,861명
2011	27개	25개	29,067명
2012	27개	25개	30,037명
2013	26개	23개	29,861명
2014	24개	16개	18,975명
2015	25개	18개	21,103명

2011 꿈꾸는 청춘예술대학 졸업 축제

2023 서울시민예술학교 용산

서울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 2019-
×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2019-)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역량강화 지원사업(2019-)

서울문화재단은 '제2차 서울시 문화예술교육 기본계획'의 기본 방향 및 현장 의견을 반영해 2023년 문화예술교육 분야 공모 지원사업을 전면 개편해 운영했다. 지원사업의 목적은 예술교육 주체 지원을 통한 수요자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예술교육 주체 성장과 신규 주체의 발굴·진입 촉진을 위한 기회 확대, 예술교육 지원체계의 안정적 운영으로 설정했다. 가장 큰 변화는 교육 운영 필수 기준을 완화하고, 문화예술교육 주체의 신규 진입과 성장을 위한 자율기획형 신설, 더 나아가 '단체' 및 '개인'으로 지원자격 확대를 시도한 것이다. 크게 '생애주기형', '자율기획형', '지역협력형'으로 구분했으며 문화예술교육 기획·운영 역량을 가진 문화시설, 단체, 개인을 지원한다.

2023년 서울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구성

구분		지원 목적	지원 대상	교육 대상	지원 내용
생애주기형	A트랙	유아부터 성인까지 누구나 예술을 경험하고 창작 역량을 증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발굴 및 지원	예술(교육)단체 및 문화시설	유아	- 프로그램 운영 지원금 최대 2,500만 원 - 워크숍, 전문가 컨설팅, 통합 홍보 지원 등
	B트랙		예술(교육)단체	아동청소년	
	C트랙			성인(19세 이상)	
자율기획형		창작 활동(작품)을 기반으로 참신한 시도와 변화를 모색하는 프로젝트 발굴 및 실행 지원	예술(교육)단체 및 개인(예술(교육)가, 기획자 등)	제한없음	- 문화예술교육 프로젝트 실행 지원금 최대 3,000만 원 - 워크숍, 전문가 컨설팅, 통합 홍보 지원 등
지역 협력형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역량강화	지역 문화시설에 문화예술교육사●를 지원해 지역자원 활용 프로젝트를 다양화하고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 기회 확대	서울 소재 문화시설	지역주민	- 시설당 지원금 3,200만 원 ※ 문화예술교육사 인건비 및 프로젝트 운영비 포함
	자치구 문화예술교육 지원	자치구 문화재단이 지역 문화예술교육의 기반 강화 및 질적 제고, 활성화를 도모하는 프로젝트 지원	자치구 문화재단	제한없음	프로젝트 운영 지원금 최대 3,700만 원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2019-2023)

●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2008년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2009년부터 학교문화예술교육 예산을 활용해 시범 사업으로 운영하다가, 2016년부터 정규 사업 예산으로 편성하면서 본격 시작되었다. 2017년부터 전국의 문화기반시설과 연계해 유치원·어린이집에 프로그램과 예술강사를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했으며 2019년 광역지자체로 사업을 이관했다.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의 첫 단계인 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춘 예술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서울 소재 문화시설과 협력해 누리과정에 특화된 만 3~5세 유아 대상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연구 개발하고 이를 지역 내 영유아 교육기관(유치원, 어린이집)을 방문해 진행하는 형태로 운영한다. 매년 공모를 통해 4개소 안팎의 문화시설을 선정하고 600여 명의 영유아와 만난다. 문체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직접 운영하다가 2019년 광역지자체로 이관을 시작하면서 서울센터가 운영을 맡았다. 2021년까지는 문체부와 서울시 예산 매칭으로, 2022년부터는 지자체에 완전 이관되어 서울시 예산으로 운영한다. 서울의 풍부한 인적, 물적 자원과 재단의 고유 인프라를 활용해 지역의 유아교육기관을 통해 개정 누리과정의 '예술 경험' 영역과 연관되면서도 차별화된 예술교육 과정을 선보여 유아교육 현장에서 환영받는 콘텐츠로 자리잡을 수 있었다.

공모 사업과는 별도로 유아 예술교육의 지평을 확산하는 다양한 기획사업도 추진해 차별화를 도모했다. 유아예술교육에 있어 매개자(부모, 예술가, 유아교사 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확산을 위해 연차별로 연구, 워크숍, 콜로키움, 담론집 발간을 추진했다. 2022년에는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과 협업해 유아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고 서울예술교육페스티벌에 특별 프로그램도 선보였다. 2023년부터는 통합·개편된 '서울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에서 **생애주기형 A트랙(유아)**으로 운영하고 있다.

	2019	2020	2021	2022	2023
기획사업	*유아교사 대상 매개자 교육 (서울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 ***「영유아 예술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진행	* 부모·예술가 워크숍 **'일상과 예술의 만남: 너의 나라, 나의 고향'**	*유아예술교육 콜로키움 **〈놀이하는 예술가들; 유아, 예술가, 부모〉** 개최(2021. 11.) *유아예술교육 접근을 위한 담론집 **「사심가득: 내 아이를 위한 예술교육」** 발간	*플레이 퍼포먼스, 연극놀이 등 **놀이로서의 유아예술교육**(3종) 진행 *서울예술교육페스티벌 유아예술교육의 날 **예술로 감각하는 아이와 어른** 특별 프로그램 운영	*현장예술가 역량강화 워크숍 **태어나는별** *전국 문화예술교육사업 담당자 워크숍 및 라운드테이블 **내 안의 어린이를 깨우는 특별한 외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산하 어린이집 유아 대상 특별 교육프로그램 운영
공모사업	3개 시설, 37개 기관, 753명	4개 시설, 39개 기관, 1,983명	4개 시설, 22개 기관, 444명(1,075명)	4개 시설, 21개 기관 / 5개 단체, 6개 프로그램, 532명(2,434명) / 315명(441명)	6개시설, 25개기관 / 6개 단체, 6개 프로그램, 448명(1,971명)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역량강화 지원사업

(2019-2023)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역량강화 지원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역 문화예술교육 인력 지원과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소지자의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실무 경험과 경력 개발을 목적으로 2019년 16개 광역지자체에서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으로 시작했다.

서울문화재단은 서울소재 문화시설과 시설이 위치한 지역이 문화예술(교육) 프로젝트를 통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문화시설과 청년 문화예술교육사를 선발해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젝트를 기획·개발·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업을 통해 지역 문화시설과 자원을 활용한 문화예술교육 프로젝트가 다양해지고 주민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 기회가 확대되는 성과가 있었다. 2023년에는 '서울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에서 **지역협력형**으로 운영했다.

●●
문화예술교육사는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외 문화예술교육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2012년 2월 17일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의 개정으로 문화예술교육사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2013년 2월 18일부터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교부가 시작되었다. 2023년 12월 기준 서울에는 9,671명이 2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

추진년도	주요 운영 결과
2019	• 지역 이관(예산 2억1천만 원) • 7개 문화시설 선정, 7명 지원, 8개 프로그램, 참여 인원 359명 • 은평·성북·강남·동작·영등포문화재단, 피치마켓, 제2창의예술교육센터
2020	• 6개 문화시설 선정, 문화예술교육사 6인 채용(7개월 근무) • 13개 프로그램 운영, 참여 인원 1,371명(시설별 평균 228명) • 관악·영등포·중구·도봉문화재단, 마포구립서강도서관, 아트선재센터
2021	• 6개 문화시설 선정, 문화예술교육사 6인 채용(8개월 근무) • 16개 프로그램(총 78회차) 운영, 참여 인원 494명 • 관악·동작·성북·중구·중랑문화재단, 아트선재센터
2022	• 5개 문화시설 선정, 문화예술교육사 5인 채용(8개월 근무) • 9개 프로그램 63회 운영, 참여 인원 430명(1,166명) • 동작·성북·양천·중구문화재단, 아트선재센터
2023	• 5개 문화시설 선정, 문화예술교육사 5인 채용 • 12개 프로그램(총 105회) 운영, 참여인원 1,067명 • 구로·동작·성북문화재단, 김근태기념도서관, 아트선재센터

5.3.3.

예술교육 공간

- 서울예술치유허브
-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양천
-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용산
-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강북·서초·은평

서울예술치유허브
(옛 성북예술창작센터)

+ **2010-2021**

개관
2010년 7월 28일

운영 종료
2021년 7월 28일

위치
서울시 성북구 회기로 3길 17

면적/연면적
787㎡/1,997㎡

규모
지하 1층~지상 4층, 옥상

서울문화재단 서울예술치유사업 2010-2020년의 치유기 「서울, 예술, 치유」를 바탕으로 정리했다.

서울예술치유허브(옛 성북예술창작센터)는 과거 주민을 치료했던 성북구보건소 건물을 리모델링한 서울문화재단의 창작공간 중 하나로 2010년 개관했다. 공간의 장소성을 살려 초기에는 자체 기획과 정기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예술가(단체)와 전문 예술치료사들이 개발하고 운영하는 예술치료 프로그램과 주민창작실, 밴드실, 공방과 텃밭 등 센터를 거점으로 한 시민 커뮤니티의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이 진행되었다. 개관 초기 지하 1층과 지상 4층의 넓은 공간에 미술, 음악, 무용 활동이 가능한 프로그램실과 공방과 음악 연습실까지 갖추고 있어 주민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았다. 2015년부터는 예술교육본부에 편성되면서 예술치유와 예술교육 영역으로 특화하고 장르 간 사업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내고자 했으며, 2016년 4월 '서울예술치유허브'로 명칭을 변경하고 예술을 통해 시민을 위로하는 예술치유공간으로 거듭났다. 이후 예술치유 작가들에게는 창작과 실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들에게는 예술가와 만나 다양한 예술을 체험하는 네트워킹 공간 역할을 담당했다. 코로나19 시기 사회적으로 예술치유 수요가 늘어나면서, 예술을 통한 시민의 정서적 치유와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지속 가능한 예술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치유예술가를 대상으로 변화된 환경에 필요한 교육을 진행하며 예술치유의 사회적 역할과 가치를 확산했다. 성북구의 무상 사용 허가 기간이 끝나면서 2021년 7월 28일부로 운영이 종료됨에 따라, 서울예술교육치유허브에서 운영하던 '예술로 힐링' 사업은 예술교육본부 예술교육팀으로 이관되었다. 서울예술교육치유허브는 지역주민과 일반 시민뿐만 아니라 위기청소년, 싱글맘, 50+세대, 경력단절여성 등을 대상으로 예술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네트워킹을 지원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했다.

성북예술창작센터 초기 공간 구성

구분	주민창작실	밴드실	성북예술다방	스튜디오 1	스튜디오 2	갤러리_맺음	스페이스_공감	기획연구실	스튜디오 3
면적	65.15㎡	56.16㎡	60.3㎡	64.64㎡	60.3㎡	116.1㎡	68.31㎡	65.15㎡	56.16㎡
구분	스튜디오 4 (미술치료실)	스튜디오 5 (음악치료실)	스튜디오 8	스페이스 _소통	스튜디오 6	스튜디오 7	스페이스 _나눔	하늘공방	하늘마당
면적	60.3㎡	64.64㎡	60.3㎡	116.1㎡	68.31㎡	46.17㎡	116.1㎡	34.55㎡	115㎡

예술치유 프로그램

개관 초인 2010년에는 전문 예술치료단체(개인)의 기획 초청 입주를 우선 추진해, 미술치료와 음악치료를 기반으로 한 지역주민을 대상 예술치료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2011년 하반기부터는 초청 입주를 종료하고 예술치료 부문 일반 공모 **예술, 시민과 마주하다(2011-2012)**를 시작했다. 예술성과 전문성을 고루 갖춘 예술치료사 단체를 선정해,

2017 서울예술치유허브

2012년까지 아동과 엄마, 임산부, 새터민, 이주여성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음악·미술치료 프로그램을 꾸준히 진행하며, 예술치료 프로젝트의 운영 범위와 내용을 정교화해 나갔다. 2013년에는 '커뮤니티 아트 창작공간'이라는 종전의 방향성을 정리하고, '예술을 통한 치유'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를 계기로 예술가가 실현하는 '치유'를 본격 고민하기 시작했다. **힐링아트랩 프로젝트**(2013-2015)를 시작해 '예술을 매개로 한 시민과 사회, 공동체의 치유'를 주제로 전문 예술치료사가 개입하는 예술치료프로그램과 '예술치유적 속성을 지닌 예술창작활동(예술가 중심의 예술치유 프로젝트)'을 지원하는 두 부문으로 공모를 진행했다.

같은 기간 '예술치료'에 대한 시민들의 거리감을 줄이고자 공간 내 미술치료실, 음악치료실을 개방해 시민이 자율적으로 방문하는 상설 예술치료 프로그램 **예술보건소**(2013-2014)를 함께 운영했다. '음악보건소'와 '미술보건소'로 운영되었으며, 기존 입주치료사의 오픈스튜디오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이후 2015년에는 새로운 장르 융복합 예술치유 콘텐츠를 개발·운영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특정 집단 대상의 파일럿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일반 시민뿐만 아니라 다양한 대상군을 아우르는 예술치유 프로그램 개발과 전문성 강화에 주력했다.

2016년은 공간의 성격에 큰 변화가 생긴 해로 서울시 위탁사업에서 재단 고유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광역 단위 예술치유 거점'으로 역할을 재설정했다. 이에 따라 성북예술창작센터에서 서울예술치유허브로 명칭을 변경했으며 주요 사업 역시 재편했다. '힐링아트랩 프로젝트'는 '예술보건소' 사업으로 통합되었고 예술가와 예술치료사를 더 이상 구분하지 않게 되었다. 개편된 '예술보건소'를 통해 2018년까지 시민과 예술가의 상호적 예술 경험을 추구하면서도 궁극적으로 치유를 지향하는 다장르의 시민 대상 예술치유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다.

예술, 마음, 치유(2015-2018)는 2015년 당시 사회적 위기 계층으로 이슈가 된 지하철 기관사, 콜센터상담원, 독거 어르신,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 특정 집단과 특수 직군 대상 예술치유 콘텐츠를 개발·운영하는 예술치유확산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었다. 2016년에는 특화형 주제 공모 사업으로 추진되었고, 2017년부터는 공모를 중단하고 중장기적으로 예술치유 지원이 필요한 특수 직군과 특정 집단에 초점을 맞춰, 사회적 배제 문제를 반영한 심도 깊은 예술치유 프로그램을 입주작가, 서울도시철도공사, 서울시한부모가정지원센터, 서울노인복지센터 등 다양한 전문기관과 협력·운영했다.

2019년부터는 예술치유 확산형 플랫폼으로서의 서울예술치유허브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예술치유 주체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집중했다. 다양한 주체 간 예술치유 연구와 협력 활성화를 위해 예술치유 프로젝트 **예술로 힐링**(2018-2019)을 시작했다. '예술로 힐링'은 기존 '예술보건소'와 '예술, 마음, 치유'를 통합한 형태로 일반 시민과 특정 계층 대상 예술치유 프로그램이다. 주제, 대상, 형식이 열려 있는 자율 기획을 지원하며 타 기관에서 실행한 적 없는 신규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초점을 맞췄다. 2020년에는 기관 협력 프로그램을 추가해 사회 밖 청년, 위기청소년, 노인 등 특정 계층을 포함한 서울시민의 정서적 치유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일반대상·특정계층·기관협력' 3가지 형태로 지원했다. 특히 2020년은 코로나19로 대면 중심의 예술치유 활동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참여 예술단체가 자유롭고 실험적인 기획과 시도를 할 수 있게 지원한 결과 새로운 비대면 예술치유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었다. 학교 밖 청소년의 예술치유 모델 연구 개발과 시범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예술치유랩**(LAB)(2019-2020)**'**을 추진했으며, 운영 과정에서 청소년, 청년, 노인 등 관련 기관 10곳과 협력했다.

<table>
<tr><th>구분</th><th>2010</th><th>2011</th><th>2012</th><th>2013</th><th>2014</th><th>2015</th><th>2016</th><th>2017</th><th>2018</th><th>2019</th><th>2020</th><th>2021</th></tr>
<tr><td rowspan="3">예술치유
프로그램</td><td colspan="3">예술치료 프로그램</td><td colspan="3">힐링아트랩</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 colspan="6">예술보건소</td><td colspan="2" rowspan="2">예술로 힐링</td><td rowspan="2">예술
교육팀
이관</td></tr>
<tr><td></td><td></td><td></td><td></td><td></td><td colspan="4">예술, 마음, 치유</td></tr>
<tr><td rowspan="3">협력 운영
프로그램</td><td></td><td colspan="7">초록나무 프로그램</td><td></td><td></td><td></td><td></td></tr>
<tr><td></td><td>방과후
학교</td><td colspan="3">힐링스쿨</td><td></td><td></td><td>더힐링
스쿨</td><td>예술로
힐링스쿨</td><td colspan="2">사회적예술치유랩
(LAB)</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 colspan="3">명지대, 키움센터:
예술×힐링아지트</td><td></td></tr>
<tr><td rowspan="7">커뮤티니,
공간
운영 등</td><td></td><td>레지던스
프로그램</td><td>커뮤니티
아트
프로젝트</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 colspan="5">예술로 토요일</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 colspan="8">옥상공방</td><td></td><td></td><td></td></tr>
<tr><td></td><td colspan="3">주민창작프로그램</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 colspan="4">시민축제프로그램</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 colspan="5">공감시네마</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 colspan="5">시즌프로그램</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전시</td><td></td><td colspan="8">갤러리맺음 기획전시</td><td></td><td></td><td></td></tr>
</table>

협력 운영 프로그램

서울예술치유허브는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폭넓게 전파하기 위해 10여년의 운영기간 동안 총 92개 기관과 연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했다. 서울시 내 여러 기관과 협력해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예술치유 기회를 제공하고 예술치유가 서울 곳곳에 확산될 수 있도록 힘써왔다. 2011년부터 7년 동안 이어진 **초록나무 프로그램(2011-2018)**은 대표적인 기관협력 프로그램으로 제약회사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를 포함한 수도권 지역 병원 총 20개 기관과 연계해예술가와 미술·음악 치료사들이 미술치료, 음악치료, 연극, 사진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을 환우들에게 제공했다. 성북구청을 포함한 총 24개 기관과 함께 4년간 운영한 **방과후학교(2011)**와 **힐링스쿨(2012-2014)**은 지역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예술경험을 통한 정서 안정과 자존감 향상 등을 목적으로 미술치료, 음악치료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더힐링스쿨(2017)과 **예술로 힐링스쿨(2018)**에서는 아시아나항공(2018)을 포함 총 10개 기관과 연계해 위기청소년과 잠재적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마음 건강 회복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예술, 마음, 치유(2015-2018)**는 성북구노인종합복지관, 서울도시철도공사 등 총 17개 공공기관, 단체들과 연계하면서 예술치유 지원 범위를 폭넓게 확장할 수 있었다. **예술×힐링 아지트(2018-2020)**는 오픈스튜디오 형태의 상설 프로그램으로 2018년부터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예술심리치료학과와 협력 운영했다. 청소년들이 상주 예술치료사를 방문해 다양한 예술 작업을 함께하는 프로그램이었다. 2020년은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전환하고 서울시 거점형 키움센터와 연계해 키움센터를 이용하는 초등학생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서울예술치유허브가 다양한 기관과 연계해 진행한 활동은 서울예술치유허브의 토대를 마련하고 발전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커뮤니티 및 공간 활용 프로그램

서울예술치유허브는 개관 당시만 해도 낯선 개념이었던 '예술치유'를 지역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다양한 예술 장르와 각 연령대를 고려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친밀감을 쌓아갔다. 시민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에 공모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 방식을 개선했고, '내부순환텃밭' 등 옥상을 활용한 콘텐츠를 도입해 지역 주민들의 힐링 공간과 참여 프로그램을 확보했다.

2011년 '레지던스 프로그램'은 입주 예술가와 지역과 시민의 교류를 강조한 프로젝트를 지원했으며, 2012년에는 **커뮤니티 아트 프로젝트(2012)**로 명칭을 변경해 지역 수요와 이슈를 반영해 입주예술가가 제안한 프로젝트 실현을 지원하여 시민과 예술가를 연결하는 매개 프로그램으로 거듭났다. **예술로 토요일(2011-2014)**은 '놀토'를 활용해 4년간 175개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어린이와 동반 가족에게 예술 참여 기회를 제공했다.

내부순환텃밭

옥상공방은 시민에게 문화예술 창작과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꾸준히 운영됐다. 주민들은 예술가와 함께 버려지는 목재를 활용해 자신만의 새로운 가구를 만드는 목공 체험을 통해 자원의 순환과 재생을 경험할 수 있었다. 성북예술창작센터 시기에는 밴드, 색소폰, 통기타 프로그램을 통해 아마추어 음악인을 육성하고, 주민 중심의 지역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창작프로그램(2010-2012)**을 운영했다. 시민들과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시민축제에서는 쿠킹클래스, 공연, 오픈스튜디오와 같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상업영화, 예술영화,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작품을 구비하고 시민들이 언제든 편하게 찾아올 수 있도록 상시 운영한 **공감시네마(2011-2014)**는 주부, 가족, 어린이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갤러리맺음(2010-2020)**에서는 공간 운영 기간 동안 총 165회의 기획 전시가 열렸고 주민 대상 프로그램의 결과 전시, 입주 예술가와 외부 예술가의 개인전과 그룹전 등을 통해 다양한 작품이 소개됐다. 이외에도 1층 예술다방, 공간 대관, 커뮤니티 활동 지원 등을 통해 시민에게 열려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서울예술치유허브는 2013년을 기점으로 예술치유의 이론적 기틀을 다지고, 예술치유 평가모델·콘텐츠 개발 등 실제 사업에 필요한 사례연구를 진행했다. 기존 예술치유 사업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발전 방향의 기초를 세우는 작업을 진행했으며, 2019년에는 다양한 영역과의 협력을 통해 예술치유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해보는 '2019 서울예술치유 네트워크 콜로키움-서울, 예술치유를 상상하다'를 개최했다.

지난 10여 년 동안 4천명이 넘는 예술가와 11만 2천여 명의 시민이 서울예술치유허브를 거쳐 갔다. 운영 초기에는 지역 재생을 기대하는 주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도 진행했지만, 점차 예술치유활동 지원과 인식 전환에 집중하면서 과거 보건소 자리였던 서울예술치유허브의 장소성과 기능을 강조했다. 서울예술치유허브는 예술가와 함께 연계와 협력을 통해 예술치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시키고, 다양한 예술 활동을 매개로 서울시민의 상처를 치유하고 삶을 행복하게 하는 예술의 사회적 가치와 역할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데 기여한 서울의 대표적 예술치유공간이었다.

경찰관 대상 치유 프로그램

서울예술치유허브 연혁

2010	• 서울문화재단 창작공간 '성북예술창작센터'로 개관 • 예술가와 주민의 공동 창작 및 시민문화예술 향유 표방 • 레지던시 공모사업 개시(최초의 예술치료 레지던시) • 지역 복지 연계 차원의 취약계층 대상 문화예술교육 지원
2011	• 국내 최초 예술치료 프로그램 특화 • 지역과 예술을 연계한 커뮤니티 아트 전문 예술기관으로 성장 모색 • 예술치료, 커뮤니티 아트 중심의 프로젝트 공모사업 운영 • 지역 복지 연계 차원의 성북구 방과후학교 지원
2012	• 지역 중심의 커뮤니티 아트 창작공간으로 전환 • 커뮤니티 아트 프로젝트 공모 • 예술치료 프로그램 분리, 시민향유 사업으로 특화 운영
2013	• 예술을 매개로 한 치유공간으로 특화 • 예술치유 모델 및 평가체계 개발 • 시민 예술창작 프로그램 통폐합 및 예술치유 프로그램 집중
2014	• 사회문제 해결형 예술치유 프로젝트 개발 집중 • 예술치료사의 치료 프로그램(예술치유 콘텐츠) 개발, 육성 및 확산
2015	• 예술치유 레지던시 및 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 • 사회적 예술치유 프로그램(예술, 마음, 치유) 시범 운영 및 연구 확산 • 서울문화플랜2030 핵심과제에 치유 공간의 필요성 명시
2016	• '서울예술치유허브'로 명칭 변경(재단 고유사업으로 전환) • 지역에 국한된 주제와 대상을 서울 전역 예술치유의 사회 이슈로 확대 • 사업명 브랜드화 및 통합 공모 추진(예술보건소, 예술, 마음, 치유 등)
2017	• 거점형 및 확장형으로 예술치유 사업 구조화 및 운영 • 사회적 예술치유(더힐링스쿨 등) 개발 확산
2018	• 서울예술치유허브 중장기 발전계획 기초연구 추진 • 예술치유 레지던시에서 랩(Lab) 공간으로 변화 모색 • 예술치유 특정 계층 발굴
2019	• 서울예술치유 네트워크 콜로키움-서울, 예술치유를 상상하다 개최(9월-11월, 총 4회) • 청년예술단체 예술치유활동 지원 • 입주 프로젝트 운영 중단(공유와 협력 가능 공간으로 변환 시도)
2020	• 코로나19 대응 비대면 방식 예술치유 프로그램 전환 • 기반 공간 활용을 통한 치유 플랫폼 활성화 방안 모색 • 예술치유단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다각화 추진

운영 예산	참여 예술가	참여 시민	사업 협력기관
6,181,756,000원	4,381명	112,425명	92개
*연평균 561,977,820원	*연평균 398명	*연평균 10,220명	*연평균 8.4개

공간이 부각되면서 원론적인 센터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자 개관 초기부터 고민하던 '치료'와 '치유'의 차이점에 대한 인터뷰로 많은 시간을 보냈었다. 서울예술치유허브에서 다년간 고민하고 경험에 근거한 답은 치료와 치유의 용어는 구분돼야 하나 예술치료, 예술치유, 예술교육, 예술창작 등 모든 행위가 예술을 키워드로 전개되고 있음은 분명하다는 점이다.

나희영 전 서울예술치유허브 매니저

시간이 흐를수록 예술치유는 예술, 그 자체에 내재된 치유로서의 존재 의미와 가치를 우선 바라다보고 이를 통해 예술치유 사업과의 적용점을 찾아가는 것이 우선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예술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그 탐구와 경험의 과정을 만들어갔고, 예술가들이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개인으로 시작된 마음의 정화와 정서의 회복은 공동체라는 넉넉한 마음의 관계로 확장되는 것도 경험했다. 이것이 예술의 힘이고, 예술치유가 존재하는 이유였던 것이다. 이런 과정을 함께하고, 이를 위해 애쓰는 아름다운 예술가를 만날 수 있었던 곳, 그곳이 서울예술치유허브였다.

이유나 전 서울예술치유허브 매니저

더 보기

연구보고서

- 2013 예술치유 모델/평가체계 개발 및 발전방향 연구
- 2014 예술치유 모델/평가체계 적용 사례 연구
- 2015 예술치유프로그램 콘텐츠 개발보고서 '내마음+예술'
- 2018 서울예술치유허브 중장기 발전계획 기초연구

발간물

- 서울, 예술치유를 상상하다(2019 서울예술치유 네트워크 콜로키움 결과자료집)
- 서울문화재단 서울예술치유사업 2010-2020년의 치유기 「서울, 예술, 치유」

지하철 기관사 예술치유 프로그램

무더위테라피 프로그램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 2010-2021

개관
2010년 12월 17일

운영 종료
2021년 12월 31일

위치
서울시 관악구 은천로 10길 3

면적/연면적
308.8㎡(대지), 403.17㎡(건물)

규모
1개동(지하 1층, 지상 2층, 옥상)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아카이빙 북(관악, 어린이, 창작, 놀이터)과 아카이빙 웹페이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했다.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는 '아이들이 예술로 뛰어놀 수 있는 곳'을 목표로 한 어린이 특화 예술체험 및 놀이 공간으로 옛 은천동주민센터의 이전으로 생겨난 유휴공간을 활용해 2010년 12월 개관했다. 어린이에게는 예술가와 직접 교류하며 다양한 예술 분야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예술가에게는 어린이와의 직접적 만남을 통해 예술 작업의 범위와 역할을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실행까지 가능하게 한 공간이었다. 지역 주민 대상 예술체험 프로그램, 공연 위주의 극장 프로그램, 지역 주민과의 협력 사업을 중심으로 운영했다. 관악구 소유 시설로 재단에서 수탁 운영하다가 2016년부터 재단 고유 사업이 되었고, 2021년 12월 관악구의 무상 사용 허가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문을 닫았다.

운영 초기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는 '창작공간'으로 분류되었다. 예술체험 프로젝트를 위해 예술가 공모·선정, 작업·협업, 프로모션까지 하는 과정 자체가 예술가 지원이고, 참여 예술가도 고유의 작업과 활동 중심으로 아이들과의 경험에서 많은 영감과 도움을 받고 단순 예술교육 강사가 아니라 작가로서 협업할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이다. 2010년부터 2011년까지는 6~10세 어린이를 위한 **5대 영역 프로그램**(2010-2011)을 개발·운영했다. 조사를 토대로 학령기 어린이의 놀이 형태를 '놀잇감이 있는 놀이'와 '놀잇감이 없는 놀이'로 구분하고, 다양하고 체계적인 예술 체험을 목적으로 미디어·시각·복합·공연·문학 영역으로 세분화해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2012년부터 5대 영역 프로그램은 어린이의 통합예술 경험을 위해 형식과 장르의 구분이 없는 예술체험 프로젝트로 발전시켰다. 이로써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는 어린이의 능동적인 참여를 통한 다양한 예술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예술가들이 새로운 예술체험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실험하는 장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예술체험 프로젝트 씨**(2012-2015)라는 이름으로 예술체험 자유제안형, 지역아동센터 연계형, 지역거점형으로 공모 유형을 세분화해 예술지원 체계를 정교화했다. 특히, 전업 작가가 교육예술가로 활동 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지원의 문을 열었다.

2016년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가 창작공간에서 예술교육본부로 편재되면서 사업에도 교육의 색이 입혀졌다. 창의예술교육사업 체계화의 일환으로 '예술체험 프로젝트 씨'의 이름이 '예술로 놀이터'로 바뀌었으며 이 명칭은 2021년까지 이어졌다. 이 시기에 주목할 점은 '예술가의 창작활동 기반의 어린이를 위한 예술적 놀이, 미적체험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한다'는 사업의 목적성이 분명해진 부분이다. '예술가의 창작 기반'이라는 모토는 '예술로 놀이터'뿐만 아니라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의 다양한 세부 사업을 이루는 토대가 된다.

예술로 놀이터(2016-2021)는 예술가들이 자신의 작품과 창작 활동을 예술교육과 연계해 새로운 어린이 예술교육 모델을 개발하고 실현하는 프로그램으로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에서 가장 오랜 기간 진행된 사업이다. 어린이가 예술가의 창작 과정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결과보다 과정에 집중하는 경험을 해볼 수 있는 다양한 장르의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확산했다. 2020년에는 예술가의 예술교육 활동 진입을 독려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1년 연간 과정

공모 유형을 신설했다. 예술가의 활동 경력에 따라 다양한 시도가 가능하도록 공모의 유형에 변화를 준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불가피하게 프로그램이 축소 운영되었고, 2021년에는 어린이의 일상 속 지속 가능한 대면-비대면 융합 예술교육 프로젝트 개발을 시도했다. 예술로 놀이터는 어린이와 예술가가 예술을 가지고 마음껏 놀면서 서로의 존재를 통해 예술적 영감을 나눌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준 사업이었다.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운영 프로그램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어린이	5대 영역 프로그램		예술체험 프로젝트 씨				예술로 놀이터					
공연			관악명랑방석극장				예술로 상상극장					
공간 기반			관악창작공방				창작채움공방				공간(기반) 예술프로젝트	
부모								예술로 부모플러스				
유아										유아예술교육 프로젝트		
아카이빙												아카이브 프로젝트
운영			운영위원회 With맘(위드맘)								해봄: Do something (2020-21)	

한편 '어린이가 있는 곳 어디나 극장이 된다'를 지향한 **예술로 상상극장(2016-2021)**은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를 상징하는 사업 중 하나였다. 무대와 장치의 제한을 받지 않는 일상 공간에서 공연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소규모(1~3인) 어린이극을 개발해 공연했다. 매년 공모를 통해 연극·무용·음악·전통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를 발굴해 공연 전문가들과 함께 예술가의 상상과 실험이 극으로 완성되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었다.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어린이극 21편을 개발했으며, 이를 통해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뿐 아니라 관악구 지역의 어린이 시설과 학교에서 300회 이상, 20,000명 이상의 어린이와 가족을 만났다. 예술로 상상극장 이전에는 6~10세 어린이를 위한 **관악명랑방석극장(2012-2015)**으로 운영되었다. 체험, 감성, 음악을 테마로 기획 작품을 초청 섭외했으며, 주말 공연을 통해 가족 대상의 친근감 있는 문화예술 공간이라는 인식이 지역에 생겼다. 2016년부터 관람 의미가 강한 '방석극장'에서 감상과 참여를 포괄하는 '상상극장'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어린이 참여형 극을 지향함과 동시에 공간 이동을 고려한 소규모 공연으로 변화되었다. 기존에는 재연 작품에 국한되었지만, 예술로 상상극장에서는 어린이극 신규 제작을 희망하는 예술가를 모집했으며 선정 예술가들은 예술감독 총괄하에 전문가팀과 함께 작품 개발과 제작 워크숍을 거쳐 신작을 선보였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예술로 상상극장을 통해 개발된 작품들은 관악구청의 관악혁신교육지구사업과 연계해 '학교 속 예술로 상상극장'이라는 이름으로 초등학교로

확산하며, 다양한 어린이들에게 예술 체험의 기회를 제공했다. 2020년에는 재연 작품을 제외한 초연 작품 제작 지원으로 통일하고 장르 확대와 복합장르 등 실험적인 작품 개발과 코로나를 염두에 둔 야외 공연 형태도 지원했다. 예술로 상상극장은 전문가들과 심도 있게 작품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작품이 오래갈 수 있는 토대를 다졌으며, 창작 단계부터 어른의 시점이 아닌 어린이의 시점을 고려한 덕분에 양질의 어린이극으로 사랑받을 수 있었다.

2011 생각하는 호기심 예술학교

생각하는 호기심 예술학교

- **방과후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_연극 시범 운영(2007-2008)**
- **교육공연을 통한 창의문화예술교육 프로젝트(2009-2010)**
- **어린이 창의예술교육(2011-2015)**

'생각하는 호기심 예술학교'는 연극적 상상력과 예술적 효과를 더한 초등학생 대상의 공연 연계 통합예술교육 프로그램으로 방학 기간에 운영되었다. 초기에는 초등학교 강당을 찾아가거나 연습실을 빌려 무대를 꾸미고 연극놀이를 중심으로 다양한 융복합형 예술체험 프로그램이었다. '방과후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을 통해 2007년 '마법예술학교', 2008년 '토우마을 상상여행'이라는 체험형 통합교육 공연을 개발해 시범 운영했다. 2011년부터는 '어린이 창의예술교육' 사업에 정식 포함되어 교육 요소가 가미된 어린이극 창작 활성화와 보급을 위해 어린이 참여 공연과 사후 교육 워크숍으로 구성된 독립된 프로그램으로 진행했다. 60분의 짧은 공연과 30분의 워크숍으로 구성, 짧은 시간 동안 집중된 체험을 하며 어린이들의 창의적 감수성을 높였다. 2012년 여름방학에는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 '생각하는 호기심 예술학교'를, 겨울방학에는 공연형 창의예술교육 프로그램 '찾아가는 예술학교'를 운영하기도 했다. 2013년에는 재단이 자체 기획·제작하고 전문 연극인과 재단 어린이TA가 공동으로 창작한 소리감각극 '구구셈과 물방울 그리고 씨앗'을 시민청 바스락홀에서 공연해 큰 호응을 얻었다. 2015년 재단 TA가 개발에 참여한 '깜깜상자와 밤의 아지트'를 마지막으로 운영이 종료된 이후, 2016년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의 '예술로 상상극장'으로 옮겨가 어린이극의 맥을 이어 갔다.

생각하는 호기심 예술학교 운영 결과(2007-2015)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공연명	마법예술학교	토우마을 상상여행	신종플루로 취소	상상속 잠수함 여행	달과 그림자	달과 그림자2	구구셈과 물방울 그리고 씨앗	구구셈과 물방울 그리고 씨앗2	깜깜 상자와 밤의 아지트
운영 결과	2개교 180명	5개교 300명		5개교, 10학급 294명	42개교, 42학급 1,087명	40회, 1,068명 81개교 105학급 3,122명	40회, 1,914명	40회, 1,797명	38회, 1,658명 (공연 821명, 워크숍 837명)

2017년 시작한 **예술로 부모플러스**(2017-2021)는 일방적 강의 형식의 기존 부모 교육과는 차별화한 구성으로, 예술의 본질을 경험하면서 자아 존중감, 공감 능력, 부모 효능감 등 부모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 2017년 어머니 대상 프로그램으로 시작해 2018년 아버지 대상 교육과 찾아가는 부모 예술교육으로 사업을 확장했으며, 아이보다는 부모가 중심이 되어 부모가 직접 체험하는 방식의 장기 프로그램으로 개발했다. 오랜 기간 서울문화재단 어린이·청소년 TA로 활동해 온 6명의 예술가와 5년 동안 대상별 프로그램 자문과 기획 회의·개발·운영을 함께 하면서,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사업 프로세스를 체계화하여 결과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었다.

이 프로그램은 저 스스로 해답을 찾으라고 유도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음악이든 미술이든 예술은 어떤 정답을 강요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아이를 대할 때도 스스로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관점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017년 아트, 맘을 두드리다. 참여자

아이와 함께하는 삶에 예술이 없어도 살 수 있다. 그러나 예술이 함께하는 삶은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본질에 대한 미를 함께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과정을 통해 세대 간의 다른 관심사를 가까이 연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대화를 통해 소통하는 방법만이 아닌 다양한 예술 활동을 통한 소통은 숨어 있던 다른 감각을 깨우고 자신을 새롭게 알아가고 발견하는 뜻 깊은 과정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아이를 알고 싶다면, 아이와 함께 놀고 싶다면 함께 예술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018년 아버집TA 윤푸름

공간기반 예술프로젝트는 공간 상시 방문객을 위한 사업으로 이전에는 관악창작공방, 창작채움공방으로 진행되었고, 2020년부터 공간 기반 예술프로젝트로 큰 방향을 이어갔다. 동시대 예술가의 작업과 연계한 창작 과정을 기반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예술 체험 기회를 제공했으며 그 과정에 운영위원회 With맘(위드맘)이 프로그램 기획과 보조강사 역할로 참여했다. 초기 **관악창작공방**(2012-2015) 시절에는 대기와 휴식 공간으로 사용되던 2층을 예술창작공간으로 변신시켜 신당창작아케이드 입주작가 정기 강좌를 운영했다. 2016년부터는 **창작채움공방**(2016-2019)으로 변경하고, 공예 위주의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업사이클링 아트와 다양한 장르예술가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학교와 타 기관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시각예술 장르로 프로그램을 구성했고, 상설 공방을 위드맘과 공동 기획·운영하면서 지역 내 문화예술체험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공간기반 예술프로젝트**(2020-2021)는 코로나19 기간 공간 방문 제한과 휴관에 대비, 일상에서 지속 가능한 상설 놀이로 기획되었다. 공동 참여형 예술체험 공간에 업사이클링 아트 기반의 예술가 상설 프로젝트를 운영해 방문객 스스로 예술을 체험하게 하고 작업물을 공간에 함께 전시했다.

한편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는 지역의 학부모, 주부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With맘**(2012-2021)을 운영했다. 2012년 관악운영위원회 'With'로 시작해 운영위원회 'With맘'이 매해 기수별로 운영되며 프로그램 모니터링, 공방 프로그램 보조강사 등의 역할을 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는 소수정예로 구성된 지역 인사 전문위원과 공간을 이용하는 주부 활동가로 역할을 구분해 운영위원회를 운영했다. 2012년부터 2013년까지 1기 20명, 2014년 2기 10명, 2015년 3기 8명이 활동했고, 공식 임기가 종료된 위드맘 중 일부는

통합위원이란 이름으로 활동을 이어갔다. 이어서 2016년 12명, 2017년 14명, 2018년 17명, 2019년 20명의 대표위원이 활동했고 2020년부터는 신규위원을 따로 선발하지 않고 기존 위원 중심으로 활동을 진행했다. 외부기획자와 함께 위드맘 위원의 문화예술기획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 **해봄: Do something**(2019-2020)을 진행하기도 했다. 공간에 애정과 열의를 가진 학부모들이 공간 운영에 실제 개입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둔 결과, 'With맘'은 공간 운영 전반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주었으며 긴 시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서로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받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는 서서울예술교육센터,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와 협력해 유아 문화예술교육지원 기획사업인 영유아 예술교육 프로젝트도 진행했다. 2019년 진행한 기초 연구를 바탕으로 관악에서 2020년 부모예술가 워크숍 '일상과 예술의 만남' 프로젝트를 기획·운영했으며, 2021년 담론집 발간과 콜로키움으로 확장해나갔다.

예술가 창작 활동을 기반으로 어린이·가족 대상 예술 체험 콘텐츠를 개발하고 운영하며 생활권 중심의 예술교육을 확산하고, 어린이와 부모, 예술가가 어우러져 일상이 예술이 되는 공간이었던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는 2021년 12월 31일자로 운영을 종료했다. 11년의 운영 기간 동안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는 지역 안에서 어린이와 부모, 가족에게는 예술 경험의 장으로, 예술가에게는 예술교육 활동을 위한 지원과 실행의 장으로 자리매김했다. 운영 종료 후인 2022년 1월,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는 아동·청소년 공연 발전에 이바지한 단체나 개인에게 주는 제18회 아시테지상을 수상하며 유종의 미를 거두었다.

더 보기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아카이빙

발간물

- 2019 With맘 공동기획 해봄프로젝트_또
- 2020 With맘 공동기획 해봄프로젝트_버리기vs버리지 않기
- 「아빵가르드 Appant-garde: 두 명의 예술가와 네 명의 아버지의 대화」 2021
-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2012-2021 아카이브 북 「관악, 어린이, 창작, 놀이-터」 2021

-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예술체험프로젝트 '씨', [문화+서울] 2014년 9월호
-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예술로 상상극장〉 예술감독 임도완, [문화+서울] 2016년 10월호
-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예술로 상상극장〉, [문화+서울] 2017년 9월호
- 부모 예술가와 함께하는 유아 예술 프로젝트 〈일상과 예술의 만남〉 결과 공유 좌담회 [문화+서울] 2021년 10월호

예술로 놀이터

관악명랑방석극장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는 당신에게 어떤 공간이었나요? ▼

저의 육아와 함께한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육아는 언제나 힘이 들었지만, 정말 힘들 때 만난 곳이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였습니다. 이곳에서 아이와 엄마가 함께하는 프로그램도 참여하고 공방 체험을 하며 다른 가족을 보며 부모의 역할과 아이에게 엄마란 존재는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많이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쉽게 접할 수 없는 다양하고 새로운 예술 프로그램을 가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많이 경험해 볼 수 있었던 우리 아이에게 창작놀이터는 큰 선물이었네요. ...언제나 고마웠고, 함께 할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우리 동네에 이런 좋은 시설이 있다는 것이 너무 좋았고, 아이들이 청소년이 되어 창작놀이터를 이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땐 무척 아쉬웠었어요. 그래도 길을 오갈때마다 창작놀이터를 보며 옛날 아이들과의 추억을 떠올리곤 했는데...추억의 장소가 사라진다고 하니 추억이 한 덩어리가 같이 사라지는 느낌입니다. 그때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고, 한 명은 대입을 앞두고 있네요.^^ 아이들이 프로그램에 정말로 즐겁게 참여했고, 그때 작품도 아직 집에 간직하고 있어요.

댓글 달아본 적 없는데~ 꼭 수고하셨다고, 감사했다고 인사드리려고 용기 내어 씁니다. 정형화되지 않은 창작~ 진심 참신한 창작의 세계를 집 가까운 곳에서 경험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특히 연극을 직접 볼 수 있어서 더욱 좋았습니다.

우리 고딩이 운영종료 소식 듣고 문 닫기 전에 한번 가봐야 한다며 많이 섭섭해 합니다. 문 열 때부터 동생이랑 친구들이랑 자주 다녔습니다. 만들기도 하고 공연도 보고...이런 소중한 공간이 없어진다는 것이 너무 아쉽습니다. 예고 재학 중인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받았던 소중한 추억을 다른 어린이들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소중한 공간들이 다시 또 만들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집에서 너무 멀어도 이런 공간에서 너무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해서 상상극장도 꼬박꼬박 보러오고 아이 유치원 일찍 빼가며 수업도 10주 동안 들으러 왔었습니다. 아이는 코로나 직전 6살 때 들었던 수업을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최고의 수업으로 꼽습니다.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높은 퀄리티의 예술창작 활동을 접할 수 있어 나만 알고 싶은 곳이었는데 닫는다니 아쉬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네요. 이런 공간이 없어질 게 아니라 앞으로 더욱 많이많이 생겨나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아이가 한 뼘 성장할 수 있게끔 많은 좋은 자극 제공해주신 관악놀이터에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저희 아이도 저도 기억할 공간이에요.

집 처럼 편안했던 공간

저의 회사생활 첫 걸음을 시작한 곳,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첫 회사 생활이라 어려움도 많았지만 공간에서 만나는 좋은 분들과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분들의 웃는 얼굴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보람과 기쁨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공간에 지내면서 배운 많은 것들이 삶의 밑거름이 된 것 같아요.

우리 가족 놀이터

우리 아이 7살부터 갔으니 다닌 지 3년이 넘었네요. 덕분에 맘 편히 놀고 어디에서도 만나지 못할 좋은 프로그램도 참여했어요. 우리 부부는 부모 교육에 참여했는데 다른 곳에서 하던 것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대부분 자녀와 교감 방법 이런 것만 하는데 여기는 예술가와 활동하며 나를 먼저 찾고 부모 역할을 스스로 생각하게 하는 게 신기했어요. 울 남편은 첫날은 안 간다고 짜증내더니 둘째 날은 자기가 도시락 싸가지고 가더라고요. 이렇게 이곳은 우리 가족의 놀이터였는데 아쉽습니다.

*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아카이브 '관악, 어린이, 창작, 놀이 - 터'에 공간을 사랑했던 분들이 남겨주신 마지막 인사입니다.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양천
(옛 서서울예술교육센터)

+ 2016-

개관
2016년 10월 8일

위치
서울시 양천구 남부순환로64길 2

면적
연면적 1,190㎡
대지면적 7,586㎡

주요 시설
예술놀이LAB TA 연구실, 교육 스튜디오 3개, 미디어랩, 예술교육자료 열람실, 교보재실 등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양천(옛 서서울예술교육센터)은 서울 서남권을 대표하는 국내 최초 아동·청소년 예술교육 전용 공간으로 서울 시민에게 수돗물을 공급하던 옛 김포가압장을 리모델링해 2016년 10월 8일 개관했다. '어린이와 청소년 누구나 예술적으로 놀고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을 지향하며 장기간 방치되어 있던 김포가압장을 어린이와 청소년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문화 플랫폼으로 재탄생시켰다. 시민의 삶과 예술이 만나는 서남권 거점 예술교육센터로 예술가의 창작을 기반으로 자연 친화적 환경 속에서 '예술'에 몰입할 수 있는 차별화된 예술놀이 콘텐츠와 어린이·시민·가족 대상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했다. 서서울호수공원 입구에 위치해 있고 대형 야외 수조 공간이 있는 장점을 살려 실내뿐 아니라 드넓은 야외까지 확장해 예술교육을 진행했다,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야외 수조 공간은 상시 개방되어 있을 뿐 아니라, 계절에 따라 전시장, 야외 수영장, 지역 축제의 장으로 변신했다.

김포가압장

구분	면적	주요 구성
지상 1층	493.8㎡	스튜디오A, 예술교육(예술놀이LAB) 연구실, 교보재실, 로비, 운영사무실 등
지하	696.37㎡	스튜디오B, C, 미디어랩, 예술교육 자료열람실, 로비, 수유실
야외 수조	2,866㎡	야외 개방 공간

팬데믹 시기에는 미래지향적 비대면 예술놀이 콘텐츠를 개발해 운영하고, 지역과 밀착한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해 시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며 삶 속에서 예술교육을 경험할 수 있었다. 대면·비대면·혼합형 등으로 운영 방식을 다각화하면서, 주제 면에서도 기후 위기, 인공지능, 생태계 공생과 같은 동시대 이슈에 대응하는 예술놀이 콘텐츠를 제작했다. 팬데믹 이후에는 예술놀이LAB TA 제도와 지역 커뮤니티 사업 운영 체계를 안정화하고, 양천구, 강서구, 영등포구 등 자치구, 유관 기관, 기업 등과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서남권 예술교육 공간 플랫폼으로서의 인지도를 높이고 위상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2023년 권역별 예술교육센터 추가 개관을 준비하며 서남권에 위치한 서서울예술교육센터의 명칭도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양천'으로 변경되었다.

연도	업무 협약 체결 및 주요 수상 실적		주요 사업 변화
2016	10월		서서울예술교육센터 개관
2016	11월	서울문화재단-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업무협약	
2016	12월	서울문화재단 서서울예술교육센터-서울특별시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업무협약	

연도	업무 협약 체결 및 주요 수상 실적		주요 사업 변화
2017	7월	서울문화재단 서서울예술교육센터- 서울시립청소년작업체험센터 업무협약	예술놀이LAB 시작
2018	5월	서울문화재단 서서울예술교육센터-강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업무협약	
2020	5월		코로나19로 프로그램 잠정 중단 비대면 프로그램 전환 운영
2021	4월	서울문화재단-조아제약, 지역을 품은 가족 소통 프로젝트 업무협약	가족 소통 프로젝트 빼꼼(Fa:Com) 시작 문화예술 같이 만남 'MoMo' 운영
2022	12월	조아제약, '서울시 민관협력 우수기관' 표창 수상	
2023	5월		학교 및 가족 대상 대면 프로그램 전면 재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시작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양천'으로 명칭 변경

예술놀이랩

예술놀이LAB은 예술가의 창작과 센터 공간을 기반으로 한 놀이 형식의 예술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확산하는 사업으로, 2017년부터 공모를 통해 TA로 선정된 예술가가 예술놀이 LAB에 1년간 상주하며 본인의 창작 활동을 바탕으로 센터 주변 환경과 지역 자원을 활용한 놀이 형식의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다. **내일은 예술놀이**는 상주 TA가 개발한 양질의 예술교육 콘텐츠를 서남부 지역의 학교, 어린이와 가족,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참여자는 일상에서 예술가와 만나며 놀이 형태로 자연스럽게 예술가의 창작 활동과 예술 작품을 간접 경험할 수 있다. **모두의 예술놀이**는 2020년 코로나19 예술가 창작 지원 사업으로 시작되어 온라인 기반 비대면 예술놀이와 예술교육 콘텐츠 제작 활동을 지원했으며, 2021년부터 정규 사업으로 전환해 키오스크를 활용한 1인 셀프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상설 운영한다.

예술놀이LAB이 학교 예술교육과 차별화된 점은 예술가들의 창작 과정을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17년에는 예술가들이 상주하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아트랩'의 성격이었다면, 2018년부터 '예술놀이랩'으로 이름을 바꾸어 놀이적 성격이 강해졌다.

황기성, 당시 서서울예술교육센터

커뮤니티랩(LAB)은 지역과 소통·협력·교류하는 운영 시스템을 구축해 지역 특화 예술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확산하는 역할을 한다. 센터 인근의 강서·양천·영등포 등 서남권 지역 예술가, 공공 기관, 민간 단체와 협력해 가족 대상의 체험 프로그램, 시즌별 축제 등을 진행한다. 2021년부터는 강서·양천 공공기관과 민간 단체 모임인 문화예술 같이 만남 'MoMo'를 운영해 서남권 지역 커뮤니티를 구축하고, 열린지역축제, 포럼 등을 공동 개최하며 지역 연계와 협력 활성화에 박차를 가했다. 조아제약과는 업무협약을 맺고 가족 간 소통과 유대감 향상을 위한 **가족 소통 프로젝트 빼꼼(Fa:Com)**을 운영하며 ESG 경영을 실천했다. 2023년에는 신규 시정 역점사업으로 육아에 지친 엄마아빠 위한 예술 힐링 프로젝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시작해 거점 공간의 인지도를 향상했다. 2022년 '서울예술학교, 오늘' 시범 운영을 거쳐,

2023년에는 '서울시민예술학교 양천'으로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와 함께하는 시민 대상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외에도 서서울호수공원과 연계한 계절별 특화프로그램으로 수조를 물놀이장으로 만든 '예술로 바캉스', 건축 프로그램, 공공 미술, 비보잉 예술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 사회와 공간을 연계하고 시민들의 예술 활동 참여를 이끌었다.

오히려 교육 대상자보다 내가 더 수혜자라고 느껴진다. 내 작업에 좋은 영감을 많이 받았다. 나처럼 커뮤니티 작업을 하거나, 장소 특정적인 작업을 하는 TA의 경우, 아이들 혹은 지역 주민들과의 관계를 통해 창작의 영감을 많이 받았을 것이다.

커뮤니티 프로그램 참여 TA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양천 운영 사업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예술놀이LAB	내일은 예술놀이								
	모두의 예술놀이(상설)								
	문 앞의 예술놀이(비대면)								
커뮤니티LAB	커뮤니티 프로그램								
	지역기획단 '놀이몰이'					준비	실행		
	문화예술 같이 만남 MoMo								
	예술로 바캉스, 열린지역축제								
	조아제약 가족 소통 프로젝트 빼꼼								
	봄소풍 프로젝트								
대내/외 협력 프로그램	비보잉 예술교육 '프리즌 브레이크'								
	서울 스테이지 11								
	서울시민예술학교 양천							시범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양천은 상대적으로 문화 기반이 부족한 서남권에 문화적 활력을 불어넣는 문화 거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놀이를 통해 창조적·교육적 역량을 키우는 어린이·청소년 예술공간 운영 모델을 확립했다. 국내 최초 예술교육 전용 공간으로 이름이 알려지며, 문화체육관광부의 '꿈꾸는 예술터'를 비롯한 예술교육 공간 조성을 준비하는 타지역·외부 기관의 필수 답사지가 되었다.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양천은 시민이 삶 속에서 예술교육을 경험할 수 있는 시민 친화적 예술교육 전문공간으로 서남권 학교·지역사회·지역공동체를 매개하고 결집하는 거점형 문화예술교육센터의 새 역사를 만들고 있다.

팬데믹 시기, 택배로 주고받는 '문 앞의 예술놀이'

운영 기간

2020.05.07.-07.31.

참여 예술교육가

김은지, 기매리, 양선용, 유소영, 이동엽, 이수진, 흑표범

서서울예술교육센터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대면 교육이 불가능해지자, 택배의 발송·회수 시스템에 착안한 비대면 예술교육 프로그램 '문 앞의 예술놀이'를 개발해 운영했다. 비대면 상황에서 가족들이 함께 모여 호기심과 상상력, 창의성을 발휘하며 작품을 제작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예술놀이 키트로 제작했다. 하루에 300개의 키트를 발송하기 위해 예술놀이LAB TA와 운영사무실 전 직원은 물론 미화, 경비, 영선 반장님까지 총동원되어 함께 택배 박스를 포장하고 옮겼다. '택배로 주고받는 예술놀이'라는 참신한 발상에서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키트 발송으로 끝나지 않고, 발송된 키트의 결과물을 참여자로부터 회수해 예술가와의 교감을 시도한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형 예술교육 프로그램으로 팬데믹 상황의 교육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조아제약, ESG 활동 사회공헌 기여 '서울시 민관협력 우수기관' 표창 수상

가족 소통 프로젝트 '빼꼼(Fa:Com)'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점차 줄어드는 가족 간 소통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문화예술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1년 조아제약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처음 선보였다. 서울 서남권 지역 7개 자치구(강서·관악·구로·금천·동작·양천·영등포)에 거주 중인 가족들이 참여해 좋은 반응을 얻었으며, 사업 파트너 조아제약은 문화예술 협력 사업을 통한 사회공헌 공로를 인정받아 '2022년 서울시 민관협력 우수기관' 표창을 받았다. 2023년에는 서울 지역 전체에 거주하는 가족으로 참여 대상의 범위를 확대해 진행했다.

더 보기

발간물

- 2021 서서울예술교육센터 예술놀이LAB 운영 결과 자료집
- 2022 서서울예술교육센터 예술놀이LAB 운영 결과 자료집

- 서서울예술교육센터 개관 의미와 방향, [문화+서울] 2016년 11월호
- 2018 예술놀이 LAB TA(Teaching Artist) 윤윤상 [문화+서울] 2018년 5월호
- 버려진 정수장의 추억을 찾아가는 길, 신월동, [문화+서울] 2022년 8월호
- 서서울예술교육센터를 찾은 세 모녀 이야기, [문화+서울] 2023년 5월호

학교 연계 프로그램 비밀의 수조, 동물들은 알고 있다

학교 연계 프로그램 SPACE 2016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용산
(옛 서울예술교육센터)

+ 2020-

개관
2020년 11월 5일

위치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17
센트럴파크타워 1층,
공공시설동 5~6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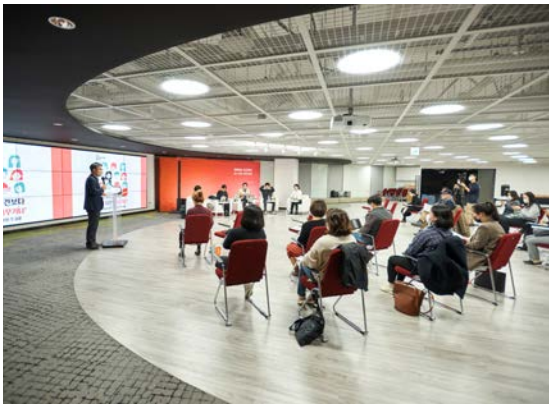
면적
연면적 2,143㎡

주요 시설
1층 감정서가: 라운지,
원탁테이블, 전시실, 워크숍룸 등
5층~6층 아츠포틴즈: 오픈
작업장, VR룸, 녹음실,
영상편집실, 다목적홀 등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용산(옛 서울예술교육센터)은 어린이와 청소년에서 성인까지 모든 시민이 예술가와 함께 일상에서 예술을 경험할 수 있는 예술교육 전문 공간이다. 개관 초기에는 도심권 예술교육센터로 예술가와의 만남과 협업을 기반으로 하는 청소년과 성인 대상 예술교육 공간으로 운영되었다. 센트럴파크타워 1층과 공공시설동 5~6층으로 공간이 분리되어 있어, 1층은 개개인의 사유와 기록을 모으고 나누는 라운지 '감정서가'로, 5층과 6층은 청소년을 위한 아지트 '아츠포틴즈(Arts For Teens)'로 성격을 달리했던 것이다.

2020년에는 개관을 준비하며 공간별 운영 콘셉트를 정하고 시민참여형 설치미술 프로젝트, 청소년 예술표현 프로젝트, 교육예술가 역량강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11월 5일 개관과 함께 공간의 정체성과 향후 운영 방향을 보여주는 심포지움 '형편없는 참견보다 더 나은 '아무거나"를 이틀 동안 개최했다. 개관 후 본격적인 운영 궤도에 접어들기 전 코로나19를 맞은 용산센터는 비대면·대면 병행 방식을 실험하며 예술교육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기획·개발하고 센터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집중했다. 2022년에는 지역 기관과 협력해 청소년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며, 시민 참여 프로젝트 '감정문답'과 비대면 키트를 기획해 팬데믹으로 사회적 단절을 경험한 시민을 예술로 연결했다. 모든 시민을 환대하는 라운지형 열린 공간인 **감정서가**에서는 시간 제약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상설 체험 프로그램, 북콘서트, 책만들기 워크숍 등 다채로운 기획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아츠포틴즈**는 청소년들이 예술가와 공동창작자로 만나 협업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청소년 전용 창작공간의 명칭이자 청소년 대상 융합예술교육 브랜드이다. 2022년에는 청소년이 예술가와 함께 아이디어를 실현해보는 공동 창작 프로젝트 '창작지원터' 등을 운영했으며, 2023년부터는 아츠포틴즈 LAB TA 4명이 센터에 상주하며 14~19세 청소년과 함께 미디어 기반 융합예술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운영했다. 이외에도 청소년 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예술가 대상 역량강화 사업 '아뜰리에로의 초대', 지역 학교, 청소년 시설 등과의 예술교육 접점 확대를 위한 '예술가의 방'을 운영했다.

2023년 하반기에는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용산'으로 이름이 변경되면서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전 연령대를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권역별 문화예술교육센터 3곳의 추가 개관을 앞두고 시민을 위한 센터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두 번째로 개관한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용산 공간별로 대상과 프로그램을 구분하지 않고 시민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 것이다. 이에 시범사업으로 '서울시민예술학교 용산'을 운영했고, 시각·문학·음악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 24명과 함께하는 예술교육 프로그램 19개를 운영했다. 1층에는 예술을 상상하고 누릴 수 있는 예술 체험 공간 **예술상상 오아시스**를 새롭게 조성해, 2023년 10월 17일부터 어린이와 가족도 참여 가능한 '이야기를 품은 의자'를 상설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용산은 모든 시민을 위한 권역별 문화예술교육센터로 거듭나고 있다.



2020 개관콜로키움

2023 서울시민예술학교 용산

구분	사업명	2020	2021	2022	2023
청소년	미디어 기반 공동창작 워크숍 '아츠포틴즈'		■	■	■
	청소년 일상상상 프로젝트 '창작지원터'		■	■	
	학교 연계 예술상상 프로젝트 '예술가의 방', '마음산책예술'			■	■
	교육예술가 역량강화 '아뜰리에로의 초대'		■	■	
	'관찰과 기록'		■		
	콜로키움 '형편없는 참견보다 더 나은 '아무거나''	■			
시민	감정서가	■	■	■	■
	서울스테이지11			■	■
	시민참여 예술 프로젝트 '감정문답'			■	
	서울시민예술학교 용산				■
	예술상상 오아시스(상설)				■

더 보기

발간물

- 「관찰과 기록 vol.1」
- 2020 서울예술교육센터 콜로키움 결과자료집 「형편없는 참견보다 더 나은 '아무거나' 10대들과 함께 서기 위한 첫 걸음」
- 2022 청소년 일상상상 프로젝트 창작지원터 기록집

- 서울예술교육센터 공간 소개, [문화+서울] 2020년 10월호
- 10대들의 삶이 예술과 만나는 공간 서울예술교육센터, [문화+서울] 2021년 3월호
-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용산,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문화+서울] 2023년 11월호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강북·서초·은평(개관 준비)

서울문화재단은 앞으로 권역별 5개의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교육기관, 예술가와의 연계 협력을 통해 다양한 세대와 수요자 맞춤형 문화예술교육을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존의 서서울예술교육센터와 서울예술교육센터의 명칭도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양천·용산)'로 통일했다. 2024년에는 강북·서초·은평 3개의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가 차례로 개관을 앞두고 있다. 서울시에서 신규로 조성하는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를 통해 권역별로 특화된 장르 기반의 예술교육을 선보이며, 서울문화재단은 3곳의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를 서울시로부터 수탁 운영한다.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강북은 공연예술 창작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연극·뮤지컬·전통예술 중심의 극에 특화된 문화예술교육을, 규모가 가장 큰 동남권의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서초는 클래식 등 음악 중심으로 운영되며 음악애호가, 저소득층 음악영재 예술교육을 지원한다. 서북권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은평은 무용을 기반으로 하며 수준 높은 공연장을 갖추고 있어 창작, 교육, 향유의 선순환에 기반을 두고 운영할 예정이다. 앞으로 권역별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는 다양한 수요층을 아우르는 체계적 예술교육을 통해 시민들의 창의성과 예술적 감수성을 높이는 동시에 동시대적이고 새로운 예술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는 랩 역할을 하며 지역과 시민과 예술교육을 이어주는 공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북권_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강북

위치 강북구 미아동 811-2
분야 연극, 뮤지컬, 전통예술
개관 2024년 하반기 예정
연면적 4,725㎡(지하 1층~지상 4층)
시설 다목적스튜디오, 프로그램실, 연습실 등

동남권_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서초

위치 서초구 반포동 1-1번지 / 신반포3차 재건축
분야 음악(클래식)
개관 2024년 하반기 예정
연면적 7,819㎡(지하 2층~지상 5층)
시설 공연장, 레슨실, 강의실 등

서북권_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은평

위치 은평구 수색동 358-10 / 수색13구역 재정비
분야 무용
개관 2024년 하반기~2025년 상반기 예정
연면적 2,942㎡(지하 1층~지상 4층)
시설 공연장, 연습실, 다목적실 등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양천 가족과 함께하는 공연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양천 커뮤니티LAB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용산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용산 아츠포틴즈

시민 참여 워크숍

SECTION 6

SEOUL

서울
TOGETHER

6.1.

문화환경

서울열린극장 창동, 가든파이브 문화특구, 시민청, 삼각산시민청은 재단에서 운영했던 대표적인 공공공간이다.
지난 20년간 지역을 기반으로 예술가의 활동 지원은 물론 시민들이 일상에서 더 가깝게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지역의 거점으로 자리했다. 공간을 중심으로 확장한 문화사업 외에 '서울'이라는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한 공공예술 사업 역시 문화예술의 저변 확대를 위해 진행됐던 재단의 역점사업 중 하나다. 문화예술이 특별한 누군가의 점유물이 아닌,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일상에 있다는 것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던 공공예술 사업은 현재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공공공간

- 서울열린극장 창동
- 가든파이브 문화특구
- 시민청
- 삼각산시민청

서울열린극장 창동

+ 2004-2011
÷ 서울열린극장 창동 운영팀

위치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4동

개관
2004년 9월

폐관
2011년 5월

시설현황
객석 879석, 로비, 어린이 놀이방

2004년 9월 10일 개관, 2011년 5월 폐관되기까지 약 8년 동안 운영되었던 **서울열린극장 창동**은 국내 최초의 대형 상설 천막극장이었다. 서울 시내 중심지역에 몰려 있는 문화예술공간의 쏠림 현상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동북부 지역의 부족한 전문공연장 시설을 보완하여 서울 시민의 문화적 욕구를 해소하는 거점 공연장으로 운영됐다.

2004년 서울 도봉구 창동운동장 부지에 세워진 **이동식 천막극장** 서울열린극장 창동은 약 3,500평 부지에 800-1,000명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제작비 30억 원을 투입해 제작했다. 당시 유인촌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는 "강북이 상대적으로 문화인프라 구축이 부족하다. 다양한 공연예술로 시민들이 자기 지역에서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던 것처럼, 서울열린극장 창동은 서울 동북부 지역의 문화명소를 지향하며 운영을 시작했다.

서울열린극장 창동 전경

개관프로그램으로 극단 미추의 〈정글이야기〉, 넌버벌 퍼포먼스 〈점프〉, 마당놀이 〈뺑파전〉, 음악극 〈이중섭 그림속 이야기〉 등을 시작으로 〈시카고〉, 〈그리스〉 등의 대형 뮤지컬, 〈파워레인저〉, 〈뽀롱뽀롱 뽀로로〉, 〈어린이 난타〉와 같은 가족 단위의 관객들을 위한 공연에 이어 〈금난새와 함께하는 브런치 콘서트〉, 〈호두까기 인형〉 등의 다양한 클래식 장르를 선보이며 지역의 거점 공연장으로 자리해갔다.

사실, 서울열린극장 창동은 최초 이동식 극장으로 계획됐다. 이를 위해 호주에서 제작해온 특수 천과 킹 폴리아로 불리는 주 기둥을 중심으로 한 최첨단 장비를 투입, 국내 최초의 이동식 천막극장을 꿈꿨으나, 텐트를 내리고 다시 설치하는 비용 문제 등 제반여건의 어려움을 인지한 이후 지역의 거점극장으로 운영방향을 전환했다.

공연장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았던 지역에 세워진 서울열린극장 창동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2004년부터 2007년까지는 공연을 볼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 주요 운영방향이었다. 신혼부부, 아이를 둔 가족 단위 관객을 주요 대상으로 한 어린이 공연을 많이 올렸던 것도 같은 이유다. 이후 2007년부터 극장의 인지도가 올라가면서 새로운 시기를 맞았다. 지명도나 인지도가 있는 공연을 저가에 볼 수 있는 프로그램들에 대한 소문이 나면서 관객들도 눈에 띄게 늘었다. 국립발레단, 국립오페라단, 서울시향 공연은 물론, 차별화 전략으로 해설이 있는 발레, 오페라, 콘서트 등을 통해 동북부 지역에 순수예술, 클래식 장르의 마니아층이 형성되는 성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는 천막의 특성상 유지보수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폐관할 수밖에 없었던 아쉬움이 있지만, 극장이 운영되던 8년간 공동제작 및 기획공연 등 연간 30개 정도의 공연 콘텐츠로 2011년까지 63만 명이 넘는 관객이 찾았던 서울열린극장 창동은 지역극장이 지역민들과 어떻게 만나고 성장할 수 있는가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로 남아있다.

가든파이브 문화특구

+ **2010-2014**
÷ **극장운영팀**

위치
서울시 송파구 충민로 66
가든파이브

운영기간
2010년 6월 10일(시작)
2014년 12월 31일(종료)

시설현황
가든파이브 아트홀, 중앙광장, 옥상정원, 창작스튜디오 등

가든파이브 문화특구는 청계천 복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청계천 주변 상인들의 이주 상가를 마련하기 위해 2003년 7월부터 건설된 동남권 유통단지다. 2008년 10월 조성이 완료되었지만, 생각보다 저조한 입주율 등 공간이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가든파이브 문화특구의 운영 주체인 SH공사가 유통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2010년 가든파이브 문화특구 사업을 시작했다.

서울문화재단은 단순 시설 위탁운영이 아닌, 송파 일대에 부족한 문화 인프라를 보완하고, 서울시 동남권 지역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교두보로 활용, **문화숲프로젝트**를 기획 운영했다. 재단이 진행한 문화숲프로젝트는 '가든파이브, 문화로 꽃 피우다'라는 슬로건 아래 가든파이브 내 아트홀, 광장, 아이스가든 등에서 공연예술, 미술, 야외 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2012 문화숲프로젝트

사업명	가든파이브 문화특구 사업 '문화숲프로젝트'
주제	슬로건: 가든파이브, 문화로 꽃피우다 부제: 일년내내 축제기간▶일상이 축제가 된다
일시	2010-2014
장소	가든파이브 內 문화공간
주요방향	• 상설문화 프로그램 - 양질의 공연, 전시, 문화예술교육 등을 통해 시민들의 문화수준 향상 기여 • 복합공연장 운영 - 어린이 전용 공연장 운영으로 동남권 지역주민들의 문화적 욕구 해소 기여 • 시민참여형 예술프로젝트 추진 - 예술가와 입주상인, 지역주민이 함께 하는 공공예술프로젝트 추진

가든파이브 문화특구사업은 복합문화쇼핑 공간이었던 가든파이브 문화특구 내에서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 행사가 연중 펼지는 문화 프로젝트로 인기를 끌었다. 가든파이브 문화특구의 각 공간을 활용한 차별화된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문화예술 창작 인프라로 조성, 중앙광장과 옥상정원, 지하스프링 플라자 등에서 공연, 전시, 시민참여형 문화행사를 동시다발적으로 벌여 서울 **동남권의 문화특구**로 발돋움시키겠다는 게 '문화숲프로젝트'의 지향점이었다.

예술가, 지역주민을 비롯해 상인이 참여하는 문화예술 서비스를 운영하며, 계절에 따라 다양한 장르와 테마의 공연 및 전시가 열리는 등 가든파이브 문화특구가 문화와 휴식이 접목된 서울의 대표적인 문화공간으로 인식되었던 것은 주요한 성과로 남아있다. 특히 합창단, 댄스, 기타, 사진 등으로 구성된 상인 동아리(가든인클럽)를 지원하여 발표회, 전시회, 전국합창대회 참가를 이끌어내는 등 입주민들의 문화 참여를 통한 공동체 형성과 유대관계 개선에 기여했던 긍정적인 평가를 남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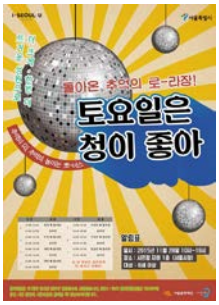
시민청

+ **2013-2023**

위치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지하1, 2층

개관
2013년 1월 12일

운영 종료
2023년 12월 31일



'시민이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시민생활마당'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2013년에 개관한 시민청은 시민의 소통 공간으로 운영을 시작한 이후 재단에서 수탁 운영했다. 타 문화공간과 달리, 시민들 스스로가 공간을 활용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가장 큰 특징인 시민청은 서울시 신청사 이전 이후 시민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방향이 재설정되면서 시민들을 위한 상징적인 문화공간이자 서울시내 대표적인 시민 향유 공간으로 되었다.

시민청의 대표적인 거버넌스 사업이었던 **시민기획단**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시민청 서포터즈'로 운영되었다. 이후 2015년부터 시민기획단으로 개편되어 전문적인 교육, 현장체험 등 다양한 지원과 함께 2022년까지 '시민기획단'이라는 이름으로 확대 운영되었다.

시민청 주요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소개
웨이브	시민청 시민 기획전시 공모 사업으로 미디어아트 전시(소리갤러리/담벼락미디어)와 설치미술(시민청갤러리) 등 총 3개 분야 지원
다이음	시민들의 다양한 모임을 지원하는 시민모임 활성화 프로그램
공간지원사업	시민활동 확대를 위해 상·하반기 공모를 통해 선정, 시민청갤러리, 시민플라자A·B, 바스락홀, 태평홀 등의 공간 대관 무상지원
대관사업	시민청갤러리, 시민플라자A·B, 태평홀, 바스락홀, 동그라미방, 워크숍룸 공간에 대한 수시 유상대관
시즌제 시민청	시즌별 시민들이 다채롭게 즐길 수 있는 공연, 전시, 워크숍, 체험 등으로 구성된 시민청 대표 사업
활력콘서트	공모를 통해 선발된 '시민청예술가'가 매주 화·목 정오에 국악, 재즈, 클래식, 팝, 대중가요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펼치는 시민청 정기공연
담벼락미디어	6개 벽면 내 66개 모니터의 미디어월 공간인 담벼락미디어에서 시민청 공모 〈웨이브〉를 통해 선정된 작품 전시
소리갤러리	5채널 영상과 사운드로 구성된 소리갤러리에서 시민청 공모 〈웨이브〉를 통해 선정된 작품 전시
시민청갤러리	회화, 설치, 미디어 등 다양한 장르의 전시를 시민들에게 유상으로 수시 대관
도시사진전	매년 다양한 주제로 시민 대상의 사진공모를 통해 시민들의 다양한 일상 속 사진 작품을 선정, 전시 및 워크숍 진행
시민 서포터즈	문화예술에 관심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선발, 시민청 프로그램 현장 운영과 안내에 함께 참여. 전문가 교육, 현장 탐방 등을 지원

2014 시민청 1주년 기념 행사

2022 시민청 프로그램

2016년에는 시민청 운영에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회를 마련하는 〈반상회〉, 〈정책카페〉 등 시민중심 프로젝트가 운영되었다. 또 다른 주요 프로그램이었던 사업은 **시민청 결혼식**이다. 고비용 결혼문화를 탈피, 내 손으로 직접 만드는 작지만 의미 있는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부부를 위해 매주 일요일과 매월 둘째 주 토요일에 진행한 시민청 결혼식은 2013년 처음 시작됐다. '스몰웨딩' 열풍과 함께 예비부부들 사이에서 결혼식장으로 인기가 높아 한때 경쟁률이 30대 1에 이르는 등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다. 결혼식은 취지에 맞게 축의금을 제한했고, 시민청에서 선정한 업체와 최저 예산으로 결혼식을 진행할 수 있게 지원했다. 새로운 결혼문화를 선도한 시민청 〈작은 결혼식〉 사업을 통해 2019년, 팬데믹 발생 이전까지 총 203커플이 탄생했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 이후 거버넌스(운영자문 위원회. 시민기획단) 중심의 내용이 아닌 온오프라인 시민문화향유를 위한 시민청예술가 〈뮤직비디오 제작〉(쇼는 계속된다) 및 시민공모 확대(〈웨이브〉(미디어아트 장르), 〈도시사진전〉) 등으로 사업을 전환했다. 이후 2023년까지 도심 중앙에서 시민 누구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향유하고, 다양한 공모 프로그램을 통해 예술가와 시민이 만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공간의 역할을 확대하여 운영했다.

더 보기

문화로 연결한 시민의 사랑방
2013-2023, [문화+서울]
2023년 12월호

삼각산시민청

+ 2018-2020

위치
서울특별시 도봉구 삼양로 592

개관
2018년 4월 28일

수탁 운영 종료
2020년 12월 31일

시설현황
시민청1동_활짝라운지(144㎡), 북카페, 담벼락미디어
시민청2동_삼각산시민청갤러리, 워크숍룸, 쉼터

삼각산시민청은 동북권 대표 시민 소통 공간이다. 1동과 2동으로 나뉘어 있으며, 우이신설 도시철도 솔밭공원역 1번 출구와 2번 출구에 각각 위치해 있다. 2015년 시민청 확대 조성계획을 시작으로 2018년 서울문화재단과 제2시민청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 2018년 4월 28일 '삼각산시민청'으로 개관했다.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동북권 대표 시민소통 공간으로 공연, 체험, 교육, 전시 등 시민이 원하는 다채로운 행사 진행과 시민 누구나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운영되었다.

삼각산시민청은 예술가, 시민기획단, 시민기록가 등 시민 중심 거버넌스와 함께 운영되었으며, 2019년부터는 지역 맞춤형 기획 프로그램을 주도하는 **공동운영단**을 구성, 지역의 문화예술 활성화를 목표로 지역 연계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는 등 시민 거버넌스 연계를 강화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운영된 삼각산시민청은 제2의 시민청으로서 운영 안정화, 지역연계 활성화, 권역형 시민청 모델 확산을 중점으로 운영하다 2021년 민간으로 이양되었다. 최초의 권역형 시민청이자, 강북구에 서울시 직영으로 만든 최초의 문화공간으로, 특히 삼각산 시민청 2동은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해 지역 연계에 교두보 역할을 했다는 성과를 남겼다.

연도	주요 운영방향	주요 사업
2018년	• 삼각산시민청 운영 안정화 - 시청 시민청 연계 안정화 - 시민청 브랜드 이미지 확산 - 지역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 대표 프로그램 〈찾아가는 삼각산시민청〉, 〈토요일은 삼각산청이좋아〉, 〈삼각산 활력콘서트〉
2019년	• 삼각산시민청 지역연계 활성화 - 지역연계 프로그램 확대 - 편의시설 추가 및 안정화 - 대외적인 적극적 홍보 추진	• 지역 연계 프로그램 〈할머니 동화책〉, 〈삼각산살림장〉, 〈내 마음대로 모임〉, 〈사랑방워크숍-J 이야기〉, 〈사랑방워크숍-불어라청춘바람〉, 〈우리동네 사진관〉, 〈삼각산 어린이 수요창작소〉
2020년	• 삼각산시민청 모델 확산 - 권역형 시민청 모델 제안 - 동북권 대표 시민소통공간 - 주도적 지역 연계	• 유관기관 연계 프로그램 〈우리마을 소극장〉, 〈삼각산 문화철도〉, 〈삼각산 화요극장〉

2018 삼각산시민청 개관식

삼각산시민청 개관 1주년 행사

6.1.2.

공공예술

- 문화가 있는 놀이터
- 우리동네 문화가꾸기
- 시청사 모뉴먼트 프로젝트
- 도시게릴라 프로젝트
- 메모리[人]서울
- 문화자원기증센터
- 달리는 문화철도

문화가 있는 놀이터

+ 2004-2012
÷ 문화사업팀

● 2009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대상, 2010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위너 Best of the Best 부문. 「서울문화재단 10년 백서」

●● 내 손안에 서울, 2005.11.30.

문화가 있는 놀이터(2004-2012) 사업은 아이들이 찾지 않는 놀이터에 꿈과 상상력을 불어넣어 지역 시민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획된 서울시의 대표적인 공공놀이터 리모델링 사업으로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운영되었다. 창의적인 놀이터 개발을 통해 놀이터가 지역 커뮤니티의 중심이자, 문화적 공간으로서 기능을 확대한다는 목적을 갖고 진행되었으며, 서울 시민들은 물론 전국적인 관심을 받으며 공공디자인 부문의 각종 시상●과 언론의 주목을 받았던 사업이기도 하다.

2004년 문화놀이터 만들기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과 연구개발에 초점을 두며 사업의 첫 단추를 끼웠다. 서울시 주택국, SH공사 등 유관기관과의 사전협의를 통해 사업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고민하고,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물론, 2004년 7월 워크숍을 열어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후 한국여성건설인협회와 공동으로 문화 놀이터 모델 연구개발을 시범사업으로 운영, 아파트, 주택가, 보육시설 등 3개 유형의 구체적인 장소를 개발 대상으로 공간디자인 및 프로그램 계획을 구성하면서 사업의 기초를 다졌다. 2005년부터 문화놀이터를 구현하기 위한 본격적인 모델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예술, 교육, 환경, 건축, 안전성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 자문위원단을 구성, 홍익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연세대학교, 서울시립대 등 4개 대학팀과 더 톤(The Tone), 현대미술프로젝트AG, 퍼블릭디자인혁신센터 등 3개의 전문 디자인 기획팀이 참여하여 독특한 사업모델을 개발했다.●●

사업추진 과정 및 주요내용	
2004	네트워크 구축 및 연구개발
	유관기관 협력 및 타당성 평가
	시범사업 운영 (아파트, 주택가, 보육시설 등 3개 유형)
	연구개발 성과발표
2005	자문위원회 운영 (신동주, 민선주, 박영택, 박운정, 장정화)
	4개 대학, 3개 디자인팀 참여 - 모델 개발

2005년 개발모델 및 특징

사업명	주요특징	개발팀
시각체험놀이터	공공미술의 개념을 도입하여 단순한 어린이 놀이터가 아닌 시민들의 휴식공간 및 어른과 어린이들이 교감할 수 있는 장소	홍익대학교
빛과 소리의 놀이터	어린이의 시각적, 청각적, 공간지각적 감각 능력 발달에 주안점을 둔 교육놀이터	한국예술종합학교
별자리가 두둥실 천체 놀이터	별자리와 12간지를 이용한 해시계를 테마로 공원기능을 확대한 가족 중심의 놀이터	서울시립대
문화마을만들기	긴밀함과 친밀감을 느끼게 하면서도 활동적인 성격을 모두 지니는 공간이자 골목길을 연상하게 하는 문화놀이터	연세대학교
앨리스 따라가기	어린이들이 동화 속 주인공인 앨리스가 된 것처럼 다양한 놀이기구를 따라 놀면서 모험을 상상할 수 있도록 설계	더 톤
거꾸로 놀이터	집, 그네, 가로등 등 모든 것이 거꾸로 세워진 것이 특징. 거꾸로 이야기하고, 상상해 보기를 좋아하는 아이들의 상상력을 반영한 놀이터	현대미술프로젝트G

"〈문화가 있는 놀이터〉는
서울의 각 지역 안에,
그리고 일상 공간 안에 들어있는
놀이터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사업이었다. 이 사업이 지닌
큰 의의는 놀이터의 외형을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공간을
채우는 프로그램까지
함께 제시했다는 점에 있다."

오진이 문화사업본부장
「서울문화재단 10년 백서」

2004년 사업 시작 이후 2006년까지 10여 개의 놀이터 모델을 개발했지만, 실제 시공 실적이 그에 미치지 못한 상황에서 재단은 국내 주요 기업을 상대로 사업설명회를 개최, 기업후원이란 방식을 통해 파트너를 모색했다. 이후 2007년부터 현대건설과 업무 협약을 맺고, 전문 설계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실질 설계를 완료한 이후 2007년 2개소, 2008년 19개소가 건설되는 등 서울시내 20여 군데에 문화가 있는 놀이터를 조성하는 성과를 남겼다.

공공놀이터를 지역주민과 연계가 이루어지는 문화예술 향유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예술이 자생할 수 있는 창조적 도시의 생활환경을 조성한다는 목적으로 진행되었던 **문화가 있는 놀이터**는, 창의적인 디자인 도입뿐만 아니라, 새로운 놀이문화를 개발하고 확산하는 방식 등 다양한 시각에서 공간의 변화를 시도한 사업으로 호평받았다. 이후 서울시가 2008년부터 추진하던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과 통합되어 2012년 사업이 종료됐다.

●●●
「서울문화재단 10년 백서」

2004-2011 문화가 있는 놀이터 개발 및 시공 내역●●●

	개발모델(건수)	시공(건수)	수상실적	
2006	1	1		
2007	5	2	산업자원부 굿 디자인(GD) 상품 선정	호기심 놀이터
2008	4	24	지식경제부 굿 디자인(GD) 상품 선정	거꾸로 놀이터 코끼리 놀이터
2009	9	9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대상 수상	
2010	7	13	독일 Red Dot Design Award - Best of Best 수상	자연에너지 놀이터
2011	9	14	이든아이빌에 기부 설치 〈유니온 랜드〉	포크레인 놀이터 외
총	32	63		

우리동네 문화가꾸기

+ 2005-2009
÷ 문화사업팀

우리동네 문화가꾸기 사업은 문화 복지와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체험미술 교육프로그램으로 2005년 시행됐던 **예술사랑 문화나눔**을 이어 확장한 사업이다. 문화 소외지역의 주민들이 참여형 예술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을 아름답게 변화시키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자긍심을 갖도록 한다는 목표를 갖고 추진된 새로운 형태의 참여형 공공미술 프로젝트로 운영됐다. 문화예술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도를 높이고, 시민들의 삶 속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 지역 주민들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주체적으로 프로젝트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사업모델을 운영하면서 차별화에 성공했다.

2005 예술사랑 문화나눔 사업 현황

지역	장소	프로젝트 명	
관악구	동명아동복지센터	우리들세상 우리동네	총 5개 단체 약 300여 명 참여 *소외계층, 복지기관, 탈북청소년 등 소외계층 청소년 대상으로 운영
강남구	사랑손 장애인작업 활동시설	멋있는상상	
도봉구	해바라기어린이집	숲속이야기	
강서구	가양종합사회복지관	훨훨날다	
서대문구	송죽원놀이터	흔들흔들	

2008년도까지 총 15개 지역 1,000여 명의 주민들이 참여해 공공공간을 변화시켰으며, 2009년에는 작가와 주민의 프로젝트 공동기획을 도모하는 등 주민 주체적 프로젝트가 될 수 있도록 확장한 것도 주목할 만한 시도로 남아있다. 특히 2008년에는 370여 명의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4개의 프로젝트를 진행, 이중 **생각의 놀이터 만들기**에 참여한 시내 한 중학교 사례는 서울시 고객감동 창의경영 발표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2008 우리동네 문화가꾸기 추진 실적

지역	담당 복지관	참여자	프로젝트 팀	프로젝트 명	주요 내용
강남구 천호동	천호동 갱생원	갱생원 입소아동 17명	황은화 외 13명	골목길에 피어나는 꿈틀	아이들이 그린 상상의 집으로 꾸민 타일벽화
도봉구 도봉동	도봉서원종합사회복지관	방과후교실 아동·청소년, 지역주민 230여 명	공공미술 놀이터	생각의 놀이터 만들기	아이들과 함께 꾸미는 도봉동의 작은 쉼터
동작구 상도동	청운지역아동복지센터	방과후교실 아동·청소년 30여 명	퍼블릭 아트피바	소리를 그리다	시·청각적 감각의 횡단 전개를 이용한 작품 및 예술교육
강남구 개포동	하상장애인복지관	장애인 60여 명, 지역주민 40여 명	㈜문화우리	함께 만드는 하상쉼터	예술활동을 통한 장애인과 지역주민과의 소통과 쉼터 가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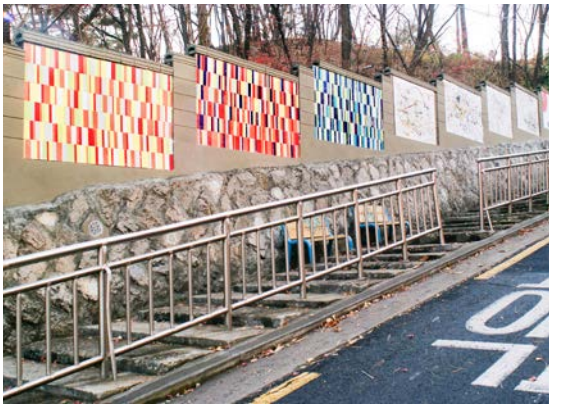
2009년에는 2억 3,733만원을 투입하여 노원구 동광 어린이집, 금천구 시흥2동 등 문화소외 지역 6곳에 공공공간 환경을 조성하였고, 2010년에는 **서울사랑 예술단 '나랑, YOU랑'**, **예술마을 가꾸기**, **책 읽는 서울** 등 3가지 사업으로 구성된 **문화배달서비스** 브랜드로 통합 운영되며 **예술마을 가꾸기**로 사업명을 변경했다. '아름다운 고발'이라는 방향을 세우고, 자신이 거주하는 동네를 개선하기 위해 주민들이 직접 신청, 재단은 가장 적합한 예술가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매칭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시민들에 의한', '시민들의 예술'이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되었으며, 5개 지역 5개 프로젝트에 총 3억 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시절에 따라 이름을 달리하면 진행된 재단의 대표적인 공공예술 프로젝트였던 **우리동네 문화가꾸기** 사업은 시행 초기 복지시설 및 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 개선 위주로 진행되었으나, 이후 시민 누구나 예술의 손길이 필요한 지역의 열악한 공간을 '제보', '고발'하는 형태로 확산되는 등 공공미술이 지역의 일상에 밀착하여 예술의 가치를 발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리 마을에 핀 예술,
'2010 예술마을 가꾸기'
홍경한_ [문화+서울] 2011년 1월호

2010 예술마을 가꾸기 추진 실적

지역	프로젝트 팀	프로젝트 명	사업장소
성북구 정릉동	공공미술그룹 ABC	우리들의 꿈이 자라는 시간 3분 45초	정릉 청덕초 정문 인근에서 정릉 복지관 하단에 이르는 7개 공간
서대문구 홍제동	예술그룹 컬쳐앤아이리더스	예술이 숨쉬는 'e HAPPY ROAD'	서대문구 홍은1동, 홍제3동 일대 1km 거리
용산구 청파동	공공미술 그룹 스펙트라	만리시장 프로젝트	만리시장 2길, 만리시장 3길, 청파새싹길 300m 구간
종로구 청운효자동	퍼플릭 아트 달무지개	예술마을 서촌 사람, 겸재 그리고 나	인곡정사 등 서촌마을 일대
성북구 돈암동	Art&Communication	미아유랑기(mapping project)	성북구 동선동과 돈암동 사이 미아리고개 일대



2010 예술마을 가꾸기

시청사 모뉴먼트 프로젝트

+ 2005-2010
÷ 문화사업팀

2005 태극기 휘날리며

2006 청사초롱

2007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2008 내 마음의 태극기 담아

2009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2009 희망서울 2010

건축물과 공공미술을 결합해 새로운 미술 활동의 가능성을 열었던 **시청사 모뉴먼트 프로젝트**는 2005년 광복 60주년을 기념하며 시행된 공공미술 프로젝트로 매년 8월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광복음악회와 연계하여 2010년까지 추진된 사업이다.

근대 역사의 상징적인 공간이었던 서울 시청사에 설치미술을 통해 서울광장을 또 다른 문화공간으로 자리하게 한 사업으로 행정도시로 인식되어 있던 서울을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재인식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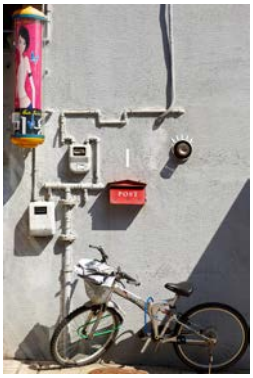
2005년 사업 시행 당시 **근대건축물 활용 모뉴먼트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시작, 이후 몇 번의 사업명을 달리하며 운영됐으며, 2010년 **시청사 공공미술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시민들이 참여하여 제공한 1천여 명의 사진으로 제작한 대형 설치미술 '손에 손잡은 서울의 소통 2010'을 마지막으로 사업이 종료됐다.

추진내용 및 사업변화

	사업명	프로젝트	주요내용
2005	근대건축물 활용 모뉴먼트	태극기 휘날리며	태극기 3,600장을 이용하여 건물에 그물망을 치고 태극기를 덮는 방식으로 한 설치미술
2006	광복절 모뉴먼트 프로젝트	청사초롱	흰색, 검은색, 청색, 적색 청사초롱 13,000개로 태극기를 형상화
2007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25cm 지름의 PET 소재로 만든 무궁화 3만 4천여 송이로 대형 무궁화를 형상화
2008		내 마음의 태극기 담아	투명 PET 소재의 반원구 2만 7천 개에 태극기 9천 개를 삽입하여 빨강, 파랑, 검정, 흰색의 4색으로 구성된 개체로 만들고 이를 조합해 대형 태극기를 표현한 설치미술
2009	시청사 모뉴먼트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애국가의 가사를 활용한 카피와 백두산 천지 및 독립운동가의 이미지를 담아 115,000개의 모빌아트를 활용하여 풍향에 따라 움직이는 특징을 살린 설치미술
		서울사랑	한국전통의 조각보를 모티브로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한국의 색채인 오방색으로 표현
2010	시청사 공공미술 프로젝트	희망서울 2010	호랑이해를 맞아 서울을 둘러싼 북한산맥을 호랑이로 표현하고 그 위로 2010년 희망을 주는 해가 떠올라 오늘을 사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
		손에 손잡은 서울의 소통	시민참여 사진 1,000장을 조합하여 서로 손잡은 형상의 이미지로 구성한 대형 설치미술

도시게릴라 프로젝트

+ **2013-2016**
÷ **공공예술센터**



2013 서울-밤 길에 드로잉 조심

2014 Wonder-Present

도시게릴라 프로젝트(2013-2016)는 일상공간에서 만나는 공공문화 캠페인으로 동주민센터와 연계한 **찾아가는 공공미술 사업**, 마음치유를 위한 문화콘텐츠 처방을 제공하는 캠페인 **마음약방**, 일상 공간에서 문화예술 경험을 지속하는 공공문화 플랫폼 **Wonder-Present** 사업을 중심으로 진행됐던 공공미술 프로젝트다.

기발한 예술가의 작품으로 공공미술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일상의 재미와 활력을 제공하자는 취지로 출발했다. 2013년 첫 번째 작업으로 소소한 길거리 예술과 게릴라 습격이라는 콘셉트의 **서울-밤 길에 드로잉 조심!**이라는 테마로 5개 지역에 작가들의 소소한 작품을 남겼다. 2014년에는 '거리 메이크업(Make-up)하기'를 테마로 서촌 일대, 이태원 우사단로 등의 지역서의 특성을 담은 작품을 그리고 설치, 주민과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거리를 메이크업(Make-up)할 수 있는 공공미술 도구인 **골목화가 꾸러미**를 제작해 시민이 직접 문화예술의 참여자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 공공미술의 개념을 확장시켰다.

2015년부터 시민의 마음을 문화예술로 위로하고 처방하는 마음치유 캠페인의 일환으로 **마음약방** 사업을 시작했다.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한 '기본형 마음약방'을 서울시청 시민청에 설치한 이후, 같은 해 11월 서울연극센터에 2030 청년세대를 대상으로 한 '테마형 마음약방'을 추가 설치, 시민들이 소소한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으로 확장됐다.

DDP, 여의도 한강공원, 신촌 등 시민의 일상공간에 이동식 공공미술과 결합된 문화예술 체험프로그램과 공연을 선보였던 선물상자 모양의 종합문화플랫폼 **Wonder-Present** 사업 역시 도시게릴라 프로젝트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운영되었다. 낙후된 도심을 예술적으로 환기시켜 시민들에게 도시의 색다른 매력을 선사했던 공공미술 프로젝트 등 상상하지 못했던 순간에 만나게 되는 예술의 흥미로움을 발견하게 했던 도시 문화프로젝트로서 2016년까지 서울을 즐기는 색다른 재미를 선보였다.

마음약방 사업의 경우 2016 칸 국제광고제 '라이언즈 헬스(Lions Health)' 분야 '의약(Pharma)' 부문 은상/동상, 한국광고학회 주관 제23회 올해의 광고상 '옥외/SP' 부문 대상, 한국광고주협회 주관 제24회 국민이 선택한 좋은 광고상'OOH(Out of Home)' 부문 좋은광고상 등 국내외 유수 광고제에서 수상하는 성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주요사업

	프로그램	추진실적
2013-2014	서울-밤 길에 드로잉 조심!	8개 지역, 7개 팀, 400여 점 작품 제작 설치 및 전시
	거리 메이크업(Make-up) 하기	
	골목화가 꾸러미	
2015-2016	마음치유 캠페인 〈마음약방〉	1, 2호점 총 참여시민 59,407명 - 기부금 29,703,500원 모금
	공공문화플랫폼 〈Wonder-Present〉	문화예술행사 진행(공연, 강연, 전시 등) - 2016 한강몽땅축제, 서울거리예술축제 연계 운영
	공공미술프로젝트 〈거리의 재발견: 청계9가〉	최정화 작가의 〈과일나무(Fruit Tree)〉설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연계 공공미술	삼청동(건축), 창신1동(설치미술), 독산4동(커뮤니티 아트) 시범사업 운영

메모리[人]서울

+ **2013-2016**
÷ **공공예술센터**

메모리[人]서울(2013-2016)은 서울시민들의 역사적 기억을 목소리로 아카이빙하고, 서울미시사로 수집, 보존함으로써 서울의 역사를 미래 세대들에게 전수한다는 목적을 갖고 2013년부터 추진됐다. 사업 초기에는 다양한 기억과 기록을 수집하기 위해 고정식·이동식 스튜디오와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기억수집가 그룹이 운영, 서울시민들의 역사적 기억을 이야기로 풀어낸 아카이빙 자료를 삽화, 웹툰 등 새로운 콘텐츠의 2차 문화콘텐츠로 창출했다.

	기획사업	기억수집가
2014	서울을 기억하는 세가지 방법 〈서울의 아픔 삼풍백화점〉, 〈서울의 추억 동대문〉, 〈서울의 환희 2002월드컵〉	37명
2015	〈여성생애사〉, 〈전통시장〉, 〈종로3가〉	24명
2016	〈피맛골〉, 〈오래된 상점과 상인〉, 〈IMF '서울'〉, 〈외국인의 서울 기억〉	54명

2014년부터 상설 프로그램과 기획 프로그램을 운영, 서울의 사건·장소에 대한 전방위적 기억수집과 서울도서관 메모리스튜디오 상설운영을 통해 안정적인 프로젝트 참여인원을 확보하고, 역사·문화적으로 가치가 있는 사건·장소를 주제로 기획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2015년, 565명의 시민이 기억제공에 참여하였으며, 574회의 인터뷰를 통해 사업을 고도화하는 성과를 가져왔다. 2016년에는 총 54명의 기억수집가들이 136건의 기억 수집 활동을 진행, 수집한 음성자료를 효과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청음전시를 기획하여 수집된 기억 확산의 거점공간인 '메모리스튜디오'의 사업효과를 높였다.

또한 기존 수집된 자료의 편집을 통해 온라인(SNS)을 통한 '서울이야기'를 확산, 시민 파급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의 내실을 다졌다. 2차 콘텐츠로 제작된 삼풍백화점 구술집 『1995년 서울, 삼풍』은 3쇄까지 발행되고, 2016년 세종도서 교양부문 우수작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메모리[人]서울을 통해 모인 서울 시민의 기억들은 서울도서관 메모리스튜디오 청취부스를 통해 오프라인으로 시민들에게 제공됐으며, 홈페이지와 모바일 페이지를 통해 1,000여 개의 에피소드가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등 시민과 예술가 모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기억 도서관이자 아카이브로 활용됐다.

2015 서울도서관 메모리스튜디오

더 보기 [문화+서울] 2017년 7월호
메모리[人]서울
'서울의 아픔, 삼풍백화점'을 말하다

문화자원기증센터

+ 2015-2016
÷ 문화자원기증센터

문화자원기증센터(2015-2016)는 시민이 보유하고 있는 일상적 문화자원에 의미를 부여, 개인의 소유물로만 보던 시각에서 벗어나 사회 공공자산으로의 인식을 전환하고자 추진된 사업이다. 서울시 박물관진흥과 등 관계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박물관 도시 서울**의 콘텐츠를 확보하는 것은 물론, 서울시민의 일상생활 유산을 발굴하여 가치를 부여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1950년 이후 개인적, 사회적으로 가치를 지닌 물품의 정보 수집을 주요 사업방향으로 설계하고, 2015년 6월, 재단 내 전담조직인 문화자원기증센터를 설치했다. 2015년 11월 문화자원 기증 공유 플랫폼을 구축을 모색하는 한편, 문화자원 가치 인식 캠페인인 **서울을 모아줘**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2016년까지 사업을 운영했다.

문화자원기증센터 사업 추진실적

2015	- 전문 컬렉터 15명 인터뷰, 물품 약 80만 건 등록 - '응답하라 2015' 페이스북 이벤트 실시, 참여자 189명, 물품 371건 등록
2016	- 전문 컬렉터 78명 인터뷰, 물품 약 80만 건 등록 - 온라인(가상박물관 9개 운영) 참여자 697명, 물품 1,045건 등록
	- 기획전시: '서울을 모아줘' 캠페인 참여자 물품 사진전(2016.4.27. 시민청 바스락홀) - '시그널' 〈그 시절 그 날의 널 기억해〉(2016.9.27.-10.8. 서울도서관) - 캠페인 홍보 및 잠재 기증자 네트워크를 위한 오프라인 행사 - 〈서울, 어디까지 기억하니?〉(2016.4.27. 시민청 바스락홀): 120명 참여 - 〈20세기 소년, 21세기 아재의 장난감 창고〉(2016.6.7. 시민청 갤러리) 40명 참여 - 〈빽투더 서울, 8090〉(2016.8.26.-28./시민청) 495명 참여, 1,000여 명 방문

2015 서울을 모아줘

2016 〈20세기 소년, 21세기 아재의 장난감 창고〉 전시

달리는 문화철도

+ 2017

달리는 문화철도(2017)는 일상 공간인 지하철에서 시민들이 이동하면서 문화예술을 즐기는 문화 모빌리티 구연을 목적으로 진행한 사업이다. 사업 광고가 없는 우이신설선(우이경전철)의 문화예술 홍보매체 운영을 통해 시민의 문화정보 접근성 개선 및 문화예술단체를 간접적으로 지원한 공공예술 프로젝트다. 열차 내부 작품 설치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으로 운영하였으며, 역사 내 공간에 거리예술존을 조성하여 음악, 퍼포먼스 공연을 진행하는 등 6개 지하철 역사 내 광고 공간을 활용한 작품 전시 및 문화예술관련 홍보를 진행했다. 2017년 신설되어 운영하다, 2018년 서울시 문화정책과로 사업이 이관돼 종료됐다.

문화예술을 시민들의 일상과 지역으로 연결한다는 목적으로 운영되었던 만큼, 지하철의 일차적인 목적인 이동수단에서 벗어나 유럽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세계적인 문화 트렌드인 **문화적 이동성**(Cultural Mobilities)을 실현하고, 수익 위주의 상업광고로 채워져 있던 지하철 광고매체를 다양한 문화예술행사의 정보제공 및 문화예술적 이미지를 담은 문화예술 전용 공간으로 조성했다.

운영 결과

경전철 내 전시프로그램 〈달리는 미술관〉 및 도서관 연계 프로그램 〈달리는 도서관〉 운영	달리는 미술관: 1편 2량, 달리는 도서관: 1편 2량
경전철 내 문화예술 광고 설치	와이드칼라(37개), 레일형 전지 포스터(104개), A1전지액자(138개), 모서리광고(631개)
아트스테이션 5개 역 운영	신설동역 와이드칼라 6개 및 전시벽면 2개소, 성신여대입구역 와이드칼라 1개 및 벽면 래핑 1개소, 보문역, 솔샘역, 북한산우이역: A1 전지 액자 138개
역사 내 공간을 활용한 설치미술 〈우잉아트〉	성신여대입구역, 북한산우이역
경전철(개통일) 내 문화예술 공연프로그램 및 시민 체험프로그램 진행	마임, 캐리커쳐 등 공연 프로그램 (총 2개 단체/4회 운영) 역사(성신여대입구역) 내 음악 공연 프로그램(총 2개 단체/4회 운영) 체험 프로그램(북한산우이역 2번 출구 앞, 1회 운영)

달리는 북한산 열차 내부

아트스테이션

6.2.

지역문화

서울은 25개 자치구라는 서로 다른 크기와 모양의 조각으로 이뤄져 있다. 그 조각 안에는 삶의 터전인 마을과 골목을 들여다보기 시작한 예술가와 기획자, 잠재력은 있지만 참여 기회가 많지 않았던 청년예술가, 오랜 시간 도심을 지키며 묵묵히 일해 온 기술 장인 등 각양각색의 더 작은 'N개의 서울'이 있었다. 2014년 1월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이후 '지역 분권'과 '문화 자치'가 강조되고, 사회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예술 관련 다양한 주체가 등장하면서 지역 내에서도 다양한 영역을 넘나드는 문화 활동이 증가했지만, 광역문화재단과 지역 현장과의 연결고리는 약했다. 이에 서울문화재단은 'N개의 서울'의 문화적 다양성과 활력으로 서울의 문화와 예술을 채워나가기 위해 25개 자치구, 지역 현장의 주체, 시민들과 손잡고 지역문화 사업을 넘어선 수평적인 관계망과 정책을 함께 만들어 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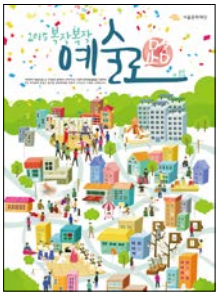
6.2.1.

지역 활성화

- 복작복작 예술로 골목길 프로젝트
- 서울 상상력발전소 프로젝트
- 예술의 사회적 활동 지원
- 도시문화LAB

복작복작 예술로 골목길 프로젝트

+ **2015-2016**
÷ **시민문화팀, 공공예술센터**



'복작복작 예술로 골목길 프로젝트'는 지역 주민의 예술적 잠재력과 지역 예술가의 역량을 결합해 일상 생활공간인 동네와 골목길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변화시킨 지역 활성화 사업으로 2015년 시작해 2년간 진행되었다. 서울 곳곳의 마을과 골목을 '예술마을'과 '예술로(路)'로 만들기 위해 '복작복작 예술로(路) 골목길'과 '예술마을 만들기' 2개 유형의 사업을 진행했다.

복작복작 예술로 골목길 프로젝트는 골목길, 공터, 지하도, 재래시장, 유휴공간 등 시민의 일상과 가까운 공간에서의 커뮤니티 중심 예술 활동을 지원하며,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단체를 발굴하고 동네 문화와 지역 공동체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첫해인 2015년 8개 자치구에서 12개 프로그램을 선정해 진행한 후 지역 예술단체의 관심과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다음해 공모 참여 건수는 26건에서 64건으로 증가했다. 이를 통해 지역 기반으로 활동하는 특색 있고 우수한 지역 문화예술 단체와 프로그램을 발굴해 지원할 수 있었고, 사업 장소도 목욕탕, 상가, 공업사 골목, 기차역, 창고, 숲길 등으로 다양화해서 진행했다.

예술마을 만들기는 지역의 문화 자원과 예술 인력을 기반으로 문화예술을 활성화하는 지역재생 프로젝트로 첫해 시범사업 대상지로 성북구 정릉동을 선정해 성북문화재단과 협력으로 2년 연속 추진했다. 2016년에는 사업 대상 지역을 확대하기로 하고 공모로 선정된 성동문화재단과 협력해 '성수 예술마을 만들기'를 추가 진행했다. 자치구 단위 특정 생활권을 중심으로 기초문화재단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내 흩어져있던 문화자원, 예술단체, 예술가, 주민을 연계하고 참여시키는 새로운 사례를 보여주었다. 특히 광역문화재단과 자치구문화재단과의 협력 모델 구축과 2017년 시작된 '지역문화 진흥사업'의 시초가 되었다.

주민들은 예술을 경험하며
주민예술가로 거듭나고
예술가들은 이웃으로서
주민으로서의 예술가인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전은정, 당시 정릉 예술마을
만들기 PM, 2015 서울문화재단
연차보고서

구분	복작복작 예술로 골목길	예술마을 만들기
2015	8개 자치구, 12개 프로그램, 88회 운영, 4,649명 참여	1개 시범 사업(정릉), 예술마을학교 5개 학과, 축제 진행 프로그램 133회 진행, 예술가 22명, 시민 2,262명 참여
2016	9개 자치구, 11개 프로그램, 99회 운영, 5,749명 참여	2개 사업(정릉, 성수) 23개 프로그램, 136회 진행, 시민 10,112명 참여

주요 일지

2015.10.31.-11.07.
2015 복작복작 예술로(路) 축제 주간 '8일간의 복작복작 서울일주'

2015.11.15.
2015 정릉 예술마을 만들기 축제

2016.09.23.-25.
2016 복작복작 예술로(路) 페스티벌

2016.10.22.
2016 정릉 예술마을 만들기 축제

2016.10.15.-23.
2016 성수 예술마을 만들기 〈어쩌다 마주친 전시〉

정릉 예술마을 만들기

서울 상상력발전소 프로젝트

+ 2014-2019
÷ 금천예술공장, 공공예술센터, 지역문화팀

성수동을 알리는 기사와 책자의 문구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지금 가장 핫한', '입소문을 타고 뜨고 있는 동네', '숲세권', '힙스터들', '환상적인 한강 뷰', '브랜드 아파트', '매력적인 땅', '한국의 브루클린'…. 하지만 화려한 문구 뒤로 직접 마주한 살풍경은 다른 인상이었다. 수제화의 메카로 불리지만 노동자들은 권리를 찾기 위해 분투 중이었고, 유명한 가게로 불리지만 매상은 점점 떨어져서 언제 떠날지 모르는, 변화의 속도가 조금은 버거운 느낌이었다. 찌그러진 외제차가 정비를 기다리는 골목 뒤쪽에는 길에서 폐지를 줍는 노인이 있었고, 낡은 건물을 개조한 힙한 카페 창밖으로는 종을 울리며 두부를 파는 상인이 지나갔다. 재개발을 축하하는 현수막 너머로는 토박이로 계속 살고 싶은 주민들의 열망이 있었다. 매끄럽게 포장된 광고 문구 속 도시의 외피와 달리, 길을 걸으며 만난 성수동은 부동산과 문화, 정신과 물질, 모든 것이 혼재한 공간이었다. 지형은 평지지만 도시가 품은 다양한 굴곡과 변곡점들이 느껴졌다.

2018년 허나영 작가의 성수동, [문화+서울] 2018년 9월호

'서울 상상력발전소 프로젝트'는 2013년 11월 서울시의 추진으로 '2014년 금천예술공장 다빈치 아이디어 공모'와 연계해 시범 사업으로 시작했다. 이후 '상상력발전소'는 당시 메이커 운동(Maker Movement) 트렌드를 반영해 장인의 기술력과 예술가의 상상력을 결합해 도시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플랫폼으로 자리 잡으며 2014년부터 2019년까지 5년의 장기 프로젝트로 진행되었다.

2014년 금천예술공장에서 운영한 시범사업에서는 '놀이의 진화'를 주제로 공모를 진행해 관객참여형 융복합 창작물 5점을 개발하고 시민청에서 전시를 개최했다. 시범사업 이후 2015년부터는 세운상가를 중심으로 3년간 사업을 진행했다. 1968년 문을 연 국내 최초의 주상복합 건물이자 전자상가로 숙련된 기술자들이 입주해 있는 세운상가는 '상상력발전소' 개념을 구현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였다. **다시 만나는 세운상가**라는 이름으로 세운상가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주변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시, 프로그램, 워크숍, 토크쇼 등을 운영한 결과, 세운상가에 대한 예술가들의 관심이 높아졌고 사회적 예술 실천 플랫폼의 기반을 확보할 수 있었다. 2015년 열린 〈멋진 신세계〉 전시 참여 작가 명단에는 2023년에도 활발하게 활동하며 뉴욕 구겐하임미술관 '한국 실험미술 1960-70년대'전에 출품한 한국의 1세대 실험미술가 김구림, 성능경 작가의 이름도 올라와 있다. 2016년부터는 세운상가 여러 주체들과 예술가들이 교류하고 조명, 아케이드 게임기, 음향 등과 관련한 시민 참여 워크숍 등을 진행하며 세운상가 장인의 기술력을 재조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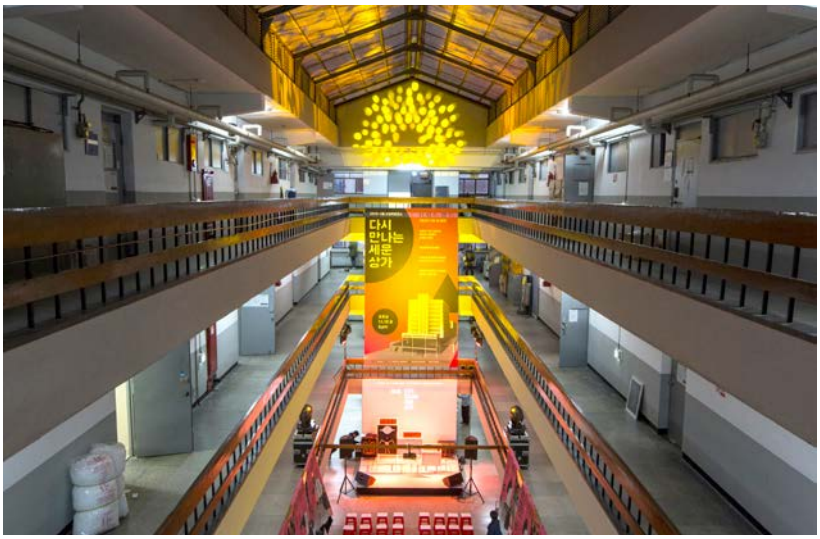
2017년부터는 '서울을 바꾸는 예술' 사업과 연계해 **청년편 Y-메이커스** 공모를 통해 17팀(54명)을 선정해 서울과 다양한 사회 문제에 메이커적 접근을 시도하는 기술 기반 문화예술 분야 메이커의 활동을 지원했다. 세운상가 내 비어 있던 561호를 청년 메이커스 플랫폼 공간으로 조성해 장인, 청년 메이커, 예술가, 일반 시민의 협업을 지원하고 워크숍,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을 진행했다. 이후 561호는 서울시가 추진한 '다시 세운 프로젝트'에서 이어받아 '세운 561호 교육장'으로 운영되었다.

세운상가에서의 3년 이후 한창 뜨는 동네 '성수'로 사업의 거점을 옮겼다. 2018년에는 자동차 정비 공장, 수제 구두 거리, 인쇄공장, 카페, 레스토랑 등이 공존하는 성수에서 **빠른 발, 따라가는 시선**이라는 주제 아래 '개방형 창작 문화'확대를 목표로 사업을 진행했다. 특히 새로운 창제작 주체 발굴을 위해 휘경공업고등학교 학생들과 상상력워크숍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공연 형식으로 발표하기도 했으며, 성수동 장인과 예술가의 교류 결과물을 선보이는 기획 전시, 성수와 세운상가가 함께한 포럼, 시민참여 워크숍 등을 개최했다.

도심 제조 산업과 메이커와 예술의 교차점을 모색해 온 '서울 상상력발전소'는 마지막 해에 새로운 관점으로 전환했다. 서울의 도시 문화로 시야를 확장하고 서울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바라보게 하는 도시 플레이어의 활동과 사례에 주목한 것이다. 서울 상상력발전소 포럼 시리즈로 열린 **2019 도시플레이어 포럼**은 확장의 서울, 이면의 서울, 오작동의 서울이라는 3개의 주제로 진행되었다. 도시 기획, 건축, 공간 브랜딩에서부터 전시 공간, 공연장, 지역 잡지,

출판, 다큐멘터리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해 온 19명의 도시플레이어가 각자의 생생한 사례를 공유하며 '서울 상상력발전소' 5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서울 도심 제조 지역을 중심으로 예술과 기술을 결합해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시도를 거듭하며,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는 도시 플레이어의 활동을 지원하는 '서울을 바꾸는 예술', '도시문화LAB'과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룰 수 있었다.

연도	팀	구분	지역	주요 내용
2014	금천예술공장	예술가 중심 시범사업	-	- 시범사업: '놀이의 진화' 주제 공모, 예술가 5명 선정, 관객참여형 융복합 창작물 발표 - 전시〈놀이의 진화〉 2014.10.01.-15. 시민청 갤러리
2015		도심 활성화	종로구 세운상가	**다시 만나는 세운상가** 2015.11.13.-27. 세운상가 5층 실내광장 - 기획전시〈멋진 신세계〉, 강연, 공연 퍼포먼스, 워크숍 - 예술가 19팀, 10개 상가, 2,955명 관람
2016	공공예술센터	기술 장인 주체 발굴		- 장인 10명, 메이커 4팀 참여 - 기술교류 13회, 아마추어 메이커 피드백 4회 - 4개 워크숍 8회 진행 **세운상가 그리고 메이커스** 2016.10.07.-30. 세운상가 5층 실내광장 : 쇼케이스, 워크숍, 세운뮤직마켓, 부대 프로그램, 시민 약 3,300명 참여
2017	지역문화팀	예술의 사회적 활동 연계		- '서울을 바꾸는 예술: 청년편 Y-메이커스' 연계 공모 - 세운상가 561호 공간 운영 - **메이커스, 생각하는 손** 2017.10.27.-29. 세운상가 5층 실내광장, 세운 561호
2018		대상지 추가	성동구 성수동	**빠른 발, 따라가는 시선** 2018.09.13.-21. 성수동 에스팩토리 - 기획전시 9팀, 30여 작품, 공연 '스페이스 오딧세이', 포럼 '성수, 세운을 초대하가: 세운상가의 네트워크, 협업, 도시재생', 시민 참여 프로그램
2019		도시 전체 확대	서울 전역	2019 도시플레이어 포럼 도시플레이어 19명 발제 2019.11.27.-29. 홍대 라이즈호텔 Space홀



2015 다시 만나는 세운상가

더 보기

- 보물기지의 재발견, [문화+서울] 2015년 12월호
- 예술과 기술, 사람이 세운 시간을 만났을 때, [문화+서울] 2016년 11월호
- 청년 메이커스 코워킹 스페이스 '세운 561호', [문화+서울] 2017년 9월호
- 2018 서울 상상력발전소 예술이 기술을 만났을 때, [문화+서울] 2018년 9월호

예술의 사회적 활동 지원

서울을 바꾸는 예술

+ 2017-2020
÷ 공공예술센터, 지역문화팀, 문화기획팀, 지역문화팀

‘예술의 사회적 활동 지원’은 문화예술을 매개로 사회 변화와 이슈에 개입하는 다양한 시도와 활동을 지원해, 장르 예술을 넘어 다변화되고 있는 예술의 공공성과 다양성을 확장하고 예술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고자 했던 사업으로 그 시작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6년 10월 19일 발표한 ‘서울예술인플랜’의 ‘민간 활동 기회 창출 기반 마련을 위한 사회적 예술단체 발굴 과제’와 연계해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기존의 장르예술 활동 범위와 방식을 넘어, 사회·문화적 이슈와 예술을 연결하는 새로운 예술 활동을 발굴하고 지원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현장의 주체는 다변화되었고 활동 규모는 이미 커졌지만 재단의 지원사업 영역과는 접점이 많지 않은 상황이었다. 재단 내부적으로는 2015년 예술 활동의 확대된 개념으로 가칭 ‘사회적 예술’ 지원 체계를 정책연구팀과 문화정책위원회에서 제안하고 관련 소위원회 활동을 진행했다. 이 시점에 재단은 문체부가 추진하는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기관을 신청해 2015년 하반기부터 2016년 말까지 운영했다. 이때 강의자로 동네형들, 플러스마이너스1도씨 등 지역 기반으로 활동하는 기획자가 등장하며 지역문화와의 접점이 처음 형성되었다. 2016년에도 ‘사회적 예술 전문인력 육성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12월에 포럼을 진행했는데 여기에서 **서울을 바꾸는 예술**(약칭: 서바예)이라는 명칭을 처음 사용하게 되었다. ‘서울을 바꾸는 예술: 문화기획자의 지역 생존’ 포럼은 현장에 550명이 참여하고, 온라인 생중계도 1,300여 명이 시청하는 성황을 이뤘다.●●

● 2015년에는 제주문화예술재단과 협력 운영해 이론 교육, 현장실습, 워크숍 등에 25명의 전문강사가 참여하고 최종 26명이 수료했으며, 2016년에는 강의, 멘토링, 워크숍, 현장실습, 성과보고회 등을 운영해 최종 24명이 수료했다.

●● 전체 흐름은 5년간 사업 담당자이자 팀장으로 참여한 김진환의 포럼 발제문에서 발췌해 정리했다.

포럼의 12팀이 보여 준 사례를 통해 예술 활동의 다변화와 확장성을 말하려 했고, 이를 묶는 언어로 너무 타이트하지만 ‘서울을 바꾸는 예술’을 선택했다.‘서울을 바꾸는 예술’이 행정에서 예술에게 ‘서울을 바꾸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을 바꾸는 예술’(의 한 그룹)은 이미 서울의 동네, 동네 현장에서 생존하고 있는 문화기획자들로서 존재한다는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것이었다... 그간 과정에서 발견한 다양한 문화기획, 문화활동 현장의 주체와 활동이 문화정책 영역에서, 그리고 서울문화재단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다뤄지기를 제안하는 차원에서 기획된 행사였다. 당시에는 문화정책 차원의, 특히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공론장은 정책연구, 해외정책사례 중심이었고 이와 같은 국내 현장의 변화를 대규모로 다룬 경우는 많지 않았기에, 많은 관심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2017년 관련된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겠다는 판단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김진환 당시 지역문화팀, 담론집 113쪽, 2019년 포럼 자료집 발제문

2017 사회적 문제에 대한 청년의 문화예술적 개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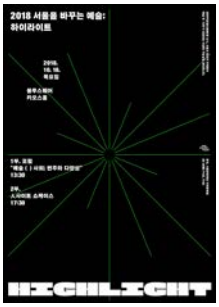
2016년 12월 포럼에서 가능성을 확인한 후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서울을 바꾸는 예술’이라는 이름의 사업이 시작되었다. 당시 또 다른 정책 이슈였던 ‘청년예술인’지원을 위해 대규모로 시작된 ‘청년예술지원사업’ 분야 중 하나로 **서울을 바꾸는 예술: 청년편(Y)** 공모가 진행되었다. Y-아이디어(35팀), Y-프로젝트(28팀), Y-메이커스(17팀) 3개 분야로 구분했으며, 이중 Y-메이커스는 ‘서울 상상력발전소 프로젝트’와 연계해 진행했다. 당시 전체 지원금은

7.7억원에 달했다. 문화기획자, 매개자 등으로 활동하는 만 39세 미만 청년을 대상으로 총 80팀을 지원하며 새로운 현장 주체를 발굴하고 예술의 다변화 가능성과 현장의 다양한 시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첫해는 그간 서울문화재단의 전체 지원사업에서 공백 지점을 해소한 동시에 사회적 예술 사업의 차별점을 만들어가야 할 필요성을 확인한 해였다. 사례 발굴과 아카이빙, 네트워킹 관점에서 진행한 1차년도 연구에서는 '예술의 사회적 활동'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예술의 사회적 활동' 정의

작가 개인의 산출물로 관객이 관람하는 예술이 아니라, 집단과 지역, 사회, 개인 속에 작용하여 예술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변화 유발자로서 예술. 혹은 보다 적극적으로 변화를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작가와 대상이 참여하는 공동의 협력의 과정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그 과정 속에서 관람이 아닌 체험과 실천을 통해 공진화하는 예술.

예술활동의 다변화와 사회적 실천, 2017



2018 예술의 사회적 활동

다음 해에는 '청년예술지원사업'예산에서 분리되면서 '청년'보다는 '사회적 이슈' 중심으로 '서울을 바꾸는예술'을 사업 전면에 내세워 4개 분야로 확대하고 전방위적으로 지원했다. 공모 지원사업 '소셜 프로젝트'에서는 전년 대비 선정 건수를 줄여 사업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했다. 현장에 진입하는 주체를 위한 사회적 예술 기획자 양성과정 '소셜 인(人)사이트'도 운영했다. 이외에도 담론 형성을 위한 포럼, 2차 연구, 네트워크 모임 등을 통해 예술의 사회적 활동 지원의 다각화를 실험한 해였다.

2019 사회적 이슈·솔루션 중심의 예술 활동

2019년 이후에는 사회적 예술을 통한 실질적인 변화와 사회적 가치 확산에 주목해 공모 지원사업으로 '선택과 집중'했고, '작업 주기'관점에서 준비 과정을 위한 리서치 지원을 신설했다. 이는 2020년 시작한 '플레이어 워크숍'과도 연결된다. 공모, 네트워킹, 포럼, 연구 등 각 사업을 유기적으로 운영했으며 성과 측정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함께 추진했다.

2020 사회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예술 활동

2020년은 4년차를 맞이한 지원사업 선정단체 활동의 완성도와 영향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공모를 설계했으며, '자문단' 구성과 활동을 정례화해 현장 밀착형으로 운영했다. 현장 활동 사전 점검 차원에서 공모 심사 전에 '플레이어 워크숍'을 진행하고 사업의 일몰을 앞두고 향후 유사 사업 설계 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사업의 성과와 노하우를 담은 담론집을 제작했다.

'서울을 바꾸는 예술'은 2016년 12월 포럼으로 시작해 2021년 3월 마무리 포럼으로 막을 내렸다. 사업 일몰에는 4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재단 내에 다변화된 예술 활동 지원 채널이 다양화된 배경이 있다. 리서치, 연구 활동을 포괄하는 예술창작지원, 당사자를 주체로 한 예술청과 청년예술청 개관, 장애예술이나 실천으로서 예술교육, 일상의 변화와 맞닿고자 하는 생활문화와 지역문화 등이 플레이어의 활동과 자연스레 연결되고 있었다.

'예술의 사회적 활동 지원'은 현장과 관계자의 피드백을 받아 매년 유연하게 운영하고, 예술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다양한 정의를 시도하며 선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 단순한 공모 지원 형태에 머무르지 않고 포럼형 사업설명회, 심사 후기 공개 행사, 리뷰와 아카이빙 방식의 모니터링, 담론집 발간 등을 통해 현장과 연결하고 논의를 공유하기 위한 실험을 계속했다. 재단이 예술의 사회적 활동 지원을 시작한 이후 예술경영 지원센터 '문화예술사회적경제지원사업(2018-202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신나는 예술 여행(청년형)-사회문제해결형(2019-2020)', 부산문화재단 '부산을 변화시키는 예술(2019)'처럼 유사한 형태의 사업이 신설되고 확대되었다. 공공 영역 외 민간 영역에서도 텀블벅과 같은 펀딩 플랫폼 등을 통해 사회적 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은 이어지고 있다.

예술과 사회의 관계에서부터 시작해, 사업이 다루는 현장, 사업에서 사람들을 호명하는 방식과 서바예가 호출한 흐름,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구성과 체계 및 방식, 현장과 지원기관의 (함께 진화하는) 관계, 예술과 공공행정의 관계 등에서 다양한 가능성들을 실험해 봤던 사업이라고 자평한다.

김진환 당시 지역문화팀, 담론집 13쪽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담론형성 및 공론화 [포럼]			서울을 바꾸는 예술 : 문화기획자의 지역생존		서울을 바꾸는 예술 : 하이라이트(HIGHLIGHT) - 포럼, 쇼케이스 모-임(모여서 만드는 임팩트)	서울을 바꾸는 예술 : 연말수다파티 -미니포럼, 라운드테이블	서울을 바꾸는 예술: 예술의 사회적 활동, 다시 질문하기
사례발굴 및 육성 [지원사업]				청년편Y -아이디어 1-2차, 프로젝트, 메이커스 (80팀, 274명)	소셜 프로젝트 (16팀)	리서치·프로젝트 (12팀)	-플레이어 워크숍 -프로젝트(10팀)
인력양성 및 역량강화 [교육사업]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1기)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2기)		소셜 인(人)사이트		
기반조성	연구			예술의 사회적 개입 심층연구(1차년도)	예술의 사회적 개입 심층연구(2차년도)	예술의 사회적 활동 임팩트 측정 지표 설계 연구	
	출판			연구보고서: 예술활동의 다변화와 사회적 실천	• 연구보고서: 예술의 사회적 실천 방향과 저변 확대를 위한 라운드테이블 • 결과자료집: 소셜 프로젝트 • 결과자료집: 하이라이트	• 결과자료집: 리서치·프로젝트 • 결과자료집: 라운드테이블 • 연구보고서: 임팩트 측정 지표 설계 연구	결과자료집 -플레이어 워크숍 담론집-서울을 바꾸는 예술: 4년간의 질문들
	아카이빙					현장스케치 인터뷰	인터뷰

「서울을 바꾸는 예술 4년간의 질문들 2017-2020 담론집」

더 보기

- 진실 혹은 대담-문화기획자의 지역생존 '서울을 바꾸는 예술', [문화+서울] 2017년 1월호
- 예술을 바꾸는 서울, 서울을 바꾸는 예술, [문화+서울] 2018년 8월호
- 진실 혹은 대담-서울을 바꾸는 예술, 두 번째 이야기, [문화+서울] 2018년 9월호
- 2018 서울을 바꾸는 예술: 하이라이트(Highlight), [문화+서울] 2018년 10월호
- 서울을 바꾸는 예술 R3028, [문화+서울] 2018년 11월호

* [문화+서울]에서 '서울을 바꾸는 예술'로 검색하시면 관련 기사를 읽을 수 있습니다.

도시문화LAB

+ **2019-2021**
÷ **지역문화팀**

2019년 이전 2017-2018년 진행된 '서울청년예술단'은 장르별로 '단체'를 지원하는 예술지원사업으로 운영했다.

'예술의 사회적 활동 지원'에 이어 재단은 청년예술인이 다변화하는 지역과 도시 현장 이슈에 대응해 관련 활동을 시작하고 성장할 수 있게 지원하는 '도시문화LAB' 사업을 운영했다. '도시문화LAB'은 2019년 지역에서 예술 활동을 하고자 하는 청년예술가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진행한 지역형 청년예술단 지원 사업 **서울청년예술단X00구**가 시초가 되었다.● '예술의 사회적 활동 지원'일환에서 운영한 시범사업으로 청년 109명에게 월별 활동비와 프로젝트 실행비를 지급했고, 19개의 자치구와 협력해 33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자치구 입장에서는 청년예술인과 함께 다양한 지역 내 문화자원을 발굴하고 활용하는 기회가 되었다. 다음 해에도 청년예술인들이 지역 문화기관과 협업해 예술적 실험을 시도해 볼 수 있도록 지원했다. 공모 경쟁률이 2019년 7.8:1에서 14:1로 상승할 정도로 청년예술인의 관심이 높았으며, 75명의 청년예술인이 선발되어 15개 자치구에서 활동했다. 재단에서는 자치구별 공모 사업 외에 2019년 선정 청년예술인 대상 후속 지원 사업 '작은 작당'을 직접 진행하기도 했다.

지역연계형 사업 진행 경험을 발판 삼아 2021년에는 **도시문화LAB**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개편해 서울시 청년자율예산으로 운영했다. 청년예술인이 서울의 다변화된 도시 문화 현장을 탐색하고 접점을 만들어 활동할 수 있게 서울 전체와 민간으로 범위를 넓혀 협력 과정을 지원했다. 기존의 자치구문화재단과 협력하는 연구·실행형의 'In' 트랙 외에 예술대학생, 20대 초중반 청년예술인 대상으로 민간 문화예술 단체와 함께하는 교육형 'Out' 트랙을 추가로 운영했다. 청년예술인 103명이 참여해 도시·지역·사회와 연계한 활동을 하며, 학교와 장르를 벗어나 다양한 진로를 탐색하고 도시문화 현장을 경험할 수 있었다. 도시문화LAB은 교육과 연구 과정을 지원하고 그간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예술대학생까지 참여 대상으로 넓혀 추진한 결과 당사자와 유관 기관의 주목을 받았다.

구분	2019	2020	2021
사업명	지역형 청년예술단 지원 **서울청년예술단X00구**	지역연계형 청년예술활동 지원 **015(young 아티스트, 15개의 서울)**	**도시문화LAB** 운영 지원 [In: 지역에서], [Out: 학교/장르 밖으로]
예산	청년예술지원	지역문화 진흥사업	서울시 청년자율예산
대상	39세 이하 청년예술인 및 기획자 39세 이하 예술인 및 기획자		In: 자치구문화재단, 39세 이하 청년예술인 Out: 민간단체, 29세 이하 청년예술인
결과	19개 자치구문화재단 청년예술인 109명 40개 프로젝트 참여예술가 1,380명 33,467명 관람	15개 지역문화기관(자치구문화재단 14개) 청년예술인 75명 48개 지역연계형 프로젝트 68개 프로젝트/작품 발표 40,064명 관람	In: 10개 자치구문화재단 , 청년예술인 53명, 16개 프로젝트. 46개 작품 발표, 1,506명 관람 Out: 5개 민간 단체, 청년예술인 50명 25개 프로젝트, 47개 작품 발표, 21,441명 관람
아카이빙	아카이빙 북	015 아카이브 누리집	로컬투서울 누리집

6.2.2.

자치구 협력

- N개의 서울
- 극장동네, 동네극장
- 자치구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지역문화 진흥사업

+ 2017-
÷ 지역문화팀(2017-2018), 문화기획팀(2019), 지역문화팀(2020-)

'지역문화 진흥사업'은 서울의 각 자치구문화재단, 문화예술회관 등 문화예술 거점 기관과 협력해 지역문화 사업 운영과 거버넌스·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며 서울의 지역문화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2014년 1월 28일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이후,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의 1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발표, 2016년 서울시 문화기본계획 '비전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 수립을 바탕으로 2017년 서울문화재단도 '지역문화 진흥사업'을 시작했다. 첫해에는 총 13억 규모로 출발했으며, 2018년 수립된 국가 기본계획 '문화비전2030, 사람이 있는 문화'는 문화분권의 방향성을 공고히 하는 근거가 되었다.●

2019년과 2020년은 지역문화 진흥사업 예산 규모가 최대로 팽창했던 시기로, 지역 분권형(비경쟁 공모)을 기반으로 다각적인 지원을 시도했다. 서울문화재단이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지역'의 관점에서 보고, 지역문화 사업의 협력 파트너로 설정한 기관이 바로 자치구문화재단이다. 사업 시작 당시 10개에 불과했던 자치구문화재단은 2017년부터 설립이 가속화되어 2019년 16개 자치구에 설립되었으며, 2021년 22개(88%)가 되었다. 서울문화재단은 2021년부터 광역문화재단으로서의 역할과 협력적 리더십을 부각하기 시작했으며, 25개 자치구의 문화적 다양성, 고유성, 자생성에 기반해 지역문화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서울의 문화예술에 활력을 주기 위한 광역-기초 간 협력을 강조했다. 2022년 하반기 조직 개편으로 지역문화팀●●과 생활문화팀이 통합되면서, 2023년부터는 기존 지역문화 범위 내에서 생활문화 사업으로 영역을 확장해 '지역문화 및 생활문화 진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 서울문화재단(2020). 자치분권형 서울 지역문화 활성화 전략 수립 연구. p63~64.

●● 지역문화팀은 2019년 '지역문화 진흥사업' 외 타 분야(청년예술지원, 예술교육) 예산을 활용해 '지역형 청년예술단', '자치구 예술교육 활성화' 사업을 진행한 바 있으며, 2021년에는 '자치구 생활문화 활성화'지원사업을 1년만 진행하고 다시 생활문화팀으로 이관한 이력이 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대응 기획자 지원 사업, 예술인 문화기획활동 긴급지원 '190시간' 사업(230명 지원), 공연예술단체 지원 사업 '서울 기초 공연예술단체 창작 역량강화 지원 사업'(254개 단체 지원)을 진행하기도 했다.

로컬투서울

서울문화재단에서 201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지역문화 사업은 서울을 지역적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던 기존의 흐름에 의도적으로 제동을 걸어, 어디에만 존재하는 지역문화가 아닌 '어디에나 존재하는 지역문화'를 추구해 왔다. 그리고 지역문화를 국소 영역의 세부 분과로 접근하는 것 대신 지역문화가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문화정책의 그릇, 무대, 즉 플랫폼이 될 수 있음을 사업을 통해 보여주었다. 그리고 신규 사업을 만들고 기존 사업을 점차 보강해 가는 과정을 통해 귀납적인 방식으로 구성적 관점의 지역문화를 구축해 왔다. 부연하면 먼저 체계적인 사업 설계를 통해 지역문화가 나아갈 방향을 선언적으로 제시한 것이 아니라, 보편적 플랫폼 위에 다양한 자율적인 움직임이 창발하도록 촉진하여 사후적으로 지역문화가 거쳐온 방향을 정리하도록 도왔다.

제도가 포함하지 않는 다양한 가치를 위하여, 성연주, 2021, 로컬투서울 아카이브 누리집

지역문화 진흥사업 주요 흐름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시, 서울문화재단
2014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2015	제1차 지역문화진흥계획(2015-2019)	
2016	생활문화진흥원(현 지역문화진흥원) 설립	'비전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 계획 수립 - 지역의 문화자치 기반 강화, 민관협치 실질화
2017		지역문화 진흥사업 신설 - 공모 선정 14개 자치구 지원
2018	'문화비전2030, 사람이 있는 문화' 수립 - 지역문화분권 실현	유형 폐지, 서문연 협력형 전환
2019		지역문화사업 확대, 기반형 지원 시작 자치구문화재단 22개 설립, 예술교육 및 청년예술 분야 추가
2020	제2차 지역문화진흥계획(2020-2024) - 기초지자체 역할 제고 사업●●● 신설·확대	예산 규모 최대 및 안정화 자치구 지역문화 종합계획 연구 지원
2021		예산 축소, 자치구 생활문화 활성화 단년 운영 기존 사업 + 지역극장 모델 발굴 시범사업
2022		생활밀착형 소극장 지원
2023		생활문화 진흥사업 통합 자치구문화재단 협약 체결

지역문화 진흥사업 연도별 변화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자치구 협력형	**자치구 지원**	자치구 지원	자치구 지역문화 네트워크 프로젝트 지원	N개의 서울				
	지역 소극장			지역극장 모델 발굴 시범사업		지역극장 모델 발굴 지원	생활밀착형 지역소극장 활성화	
	청년예술 활동			지역형청년예술단 (예술지원예산)	지역연계 청년예술 활동 지원 '015'	도시문화LAB (청년자율예산제)		
	자치구 연구 지원				자치구 지역문화 종합계획 연구 지원			
서문연 협력형	**거점 기관 네트워크**	자치구 문화예술회관 네트워크 지원	자치구 문화예술회관 네트워크 활성화	지역 문화 거점(지역 거점기관) 네트워크 활성화		자치구문화재단 네트워크 활성화		서문연 협력사업 (권역형)
	지역 청년 그룹				지역현장 청년문화그룹 성장 지원			
기반 지원형	**역량강화 및 네트워크**			역량강화 공동연수	역량강화 (코로나19 취소)	코로나19 미추진	아카데미, 네트워크	연수, 네트워크, 아카데미
	연구/비평			기초연구	지역문화연구	공동연구 (서울연구원) 비평분석콘텐츠	통합비평, 온라인 콘텐츠	
	홍보/ 아카이빙			지역문화 플랫폼구축	아카이빙	지역문화플랫폼개편, 아카이빙	아카이빙	생활문화플랫폼 운영
예산		13억원	14억원	25억원	40억원	26억8천원	22억원	34억5천원 (N개의 서울 16억2천5백. 네트워크 4억8천)

●●●
지역문화진흥원: 지역문화 생태계 구축 통합공모(2020), 지역형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시범사업(2021), 협력형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2022), 모두의 생활문화(2023),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 구축 지원(2020-2022)

N개의 서울

+ **지역문화 진흥사업(2017-2023)**
÷ **지역문화팀**

'N개의 서울'은 서울의 25개 자치구가 고유의 지역문화 활동을 활발하게 하면서 각각의 지역문화 생태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문화재단 **지역문화 진흥사업**의 대표 사업이라 할 수 있는 'N개의 서울'의 씨앗은 2015년 시작한 **예술마을 만들기**였다. 2016년 사업에 참여한 성북문화재단과 성동문화재단의 의견을 수렴하고 '예술마을 만들기'의 추진 체계를 확대해 2017년 신설된 지역문화 진흥사업에 적용하면서 그 싹을 틔웠다. '자치구 지원' 분야를 '예술마을 만들기'를 비롯한 지역문화 특성화 사업, 지역사회 변화 프로젝트, 지역문화 네트워크 만들기 4개 유형으로 나누고, 공모를 통해 14개 자치구를 선정해 지원했다. 2018년부터는 유형 구분 없이 자치구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화했으며, 2019년 **N개의 서울**이라는 고유의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하며 22개구에 총 17억 5천만 원을 지원하는 규모로 확대되었다. 'N개의 서울'에 참여한 자치구는 지역문화 생태계 관점에서 주요 주체와 활동 영역에 관계없이 종합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공모 없이 지원금을 지원하는 기초 분권형 사업으로 자치구문화재단에 우선 신청 권한을 주되, '자치구청+민간', '자치구문화재단+민간'의 컨소시엄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열어두어, 자치구문화재단이 설립되지 않은 3개 자치구 포함 25개 자치구 전체가 최소 1회 이상 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다. 재단은 자치구문화재단 설립까지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분	사업명	운영 결과
2017	지역문화 진흥사업: 자치구 지원 - 예술마을 만들기 - 지역문화 특성화 사업 - 지역사회 변화 프로젝트 - 지역문화 네트워크 만들기	- 14개 자치구, 429개 네트워크 - 예술가·전문가 1,546명, 주체적 참여주민 2,220명, 단순관람 16,927명 참여
2018	자치구 지역문화 프로젝트·네트워크 지원	- 16개 자치구, 97개 프로젝트 - 예술가·전문가 3,487명, 주민 33,844명, 총 37,331명 참여
2019	39세 이하 청년예술인 및 기획자 39세 이하 예술인 및 기획자	In: 자치구문화재단, 39세 이하 청년예술인 Out: 민간단체, 29세 이하 청년예술인
2020	N개의 서울	- 22개 자치구 130개 프로젝트 - 예술가·전문가 5,708명, 주민 82,052명, 총 87,760명 참여
2021		- 22개 자치구 - 예술가·전문가 5,719명, 시민 204,819명 참여
2022		- 24개 자치구(용산구 미참여) - 예술가·전문가 7,159명, 시민 181,873명 참여
2023	N개의 서울 (생활문화25 통합)	- 24개 자치구(광진구 미참여) - 예술가·전문가 8,356명, 시민 107,868명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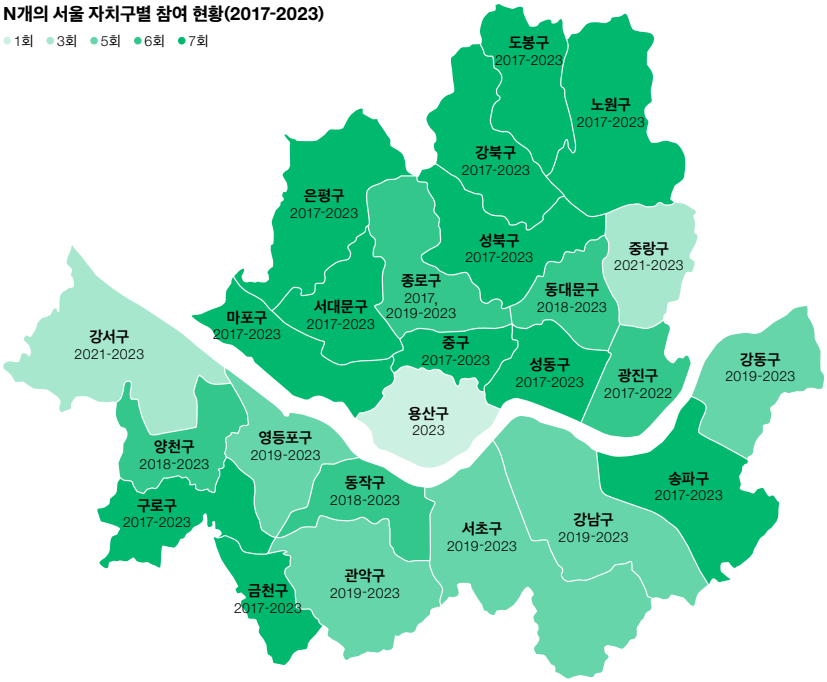
서울의 지역문화 사업의 가치가 유의미한 제도의 균열로 남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이유는 이 사업이 그동안 '사람'을 만들어왔기 때문이다. 지역문화라는 개념, 작업, 작품의 수준을 넘어 이 사업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체득한 새로운 유형의 예술가가 사업을 통해 성장해왔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기존 제도의 관성과 문법이란 큰 의미가 없다. 아니, 제도로부터 멀어져도 괜찮다는 것을 직접 경험을 통해 체감한 사람들이다. 지역문화를 안전망 삼아 새로운 창작과 생활의 가능성을 경험해 본 사람들의 작업이 계속 유지될 수 있다면, 설령 이 사업의 이름과 흔적이 모두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그 사람이란 유산을 통해 사업이 개척해 온 가치의 참의미가 단단하게 발아하고 있을 것이다.

성연주, 2021, 로컬투서울 아카이브 누리집

강서구·용산구·서대문구 구청의 소관과와 소통 채널을 유지하고 있다. 2023년부터는 '생활문화25' 사업을 통합해 자치구 지원형 'N개의 서울'로 일원화하고, 광역-기초 간 협약 체결을 통해 생활문화와 시민 향유형 사업 수요에 대응하며 현장에 맞게 탄력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N개의 서울'은 초기부터 자치구간 경쟁을 유발하는 공모 방식이 아닌 수평적 협력 체계를 전제로 한 사업 구조를 유지하면서, 자치구별 편차를 고려해 신생부터 10년 이상 된 자치구문화재단까지 각자의 상황과 여건에 맞춰 포괄적으로 지원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광역의 개입은 최소화하면서 자치구에 최대한 자율성을 부여하고 다양한 기획을 해볼 수 있도록 유연하게 운영한 것이다. 특정 영역이나 유형을 한정하지 않고 자치구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과제를 선택하게 한 방식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그 가치가 드러났다. 각각의 자치구는 'N개의 서울'을 통해 지역의 문화자원을 새롭게 읽어내고, 지역 단위의 활동 주체를 발굴하고 관계망을 형성하며 지역문화 생태계 조성과 문화자치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지역의 수많은 주체는 N개의 서울과 함께하며 성장했고, 각자의 활동을 지속하고 지역의 이슈를 논의하면서 공동의 장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서울의 지역문화 생태계도 동시에 확장되었다.

N개의 서울 자치구별 참여 현황(2017-2023)



극장동네, 동네극장

생활밀착형 지역소극장 활성화

+ **2019-2022**
÷ **지역문화팀**

서울 시내 곳곳에 위치한 소극장은 지역의 주요 문화자원 중 하나이자 공연예술인이 생활권에서 활동하며 교류할 수 있는 창작플랫폼이다. 2019년 기존의 자치구 협력형 사업 외에 지역 문화 공간을 기반으로 한 다각적인 지원을 시작하며, 지역성과 공공성을 갖춘 새로운 민관 협력형 지역극장의 안정적인 운영 모델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구상하게 되었다. 시범사업은 현장 예술가와 거버넌스 방식으로 지역극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치구문화재단과의 협력으로 추진되었으며, 영등포문화재단(경험과 상상), 성북문화재단(천장산우화극장)과 동작아트갤러리의 극장 전환을 준비 중이던 동작문화재단이 참여했다.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2021년과 2022년 서울시내 객석 300석 미만 소극장을 대상으로 리서치, 학습, 연구 등을 통해 생활권 소극장 운영 모델을 개발하고 체계화하는 과정을 지원했다. 2021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8개 소극장을 긴급 지원하기도 했다.

공모 지원 외에도 동네 소극장의 정체성과 담론을 공유하기 위한 간접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2019년에는 지원사업 설계를 위해 지역 6개 극장과 현장 참여형 연구(2019 지역극장 모델 발굴 및 지원사업 연구)를 진행했으며. 이어 대학로 이외 48개 지역극장 답사와 인터뷰를 통한 온라인 아카이빙을 지원하고, 서울시립대학교와 협업해 소극장 주제별 정보화 지도를 제작하기도 했다. 2023년부터는 'N개의 서울'에서 지역 소극장을 포함한 자치구별 문화자원을 활용한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통합되었다. 문화 공간이 부족한 자치구 중심으로 지역 소극장 운영 모델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해 서울 일부 지역에 집중된 공연예술 편중 현상을 해소할 수 있었으며, 지역에서 주민들과 예술인이 교류하며 창작플랫폼과 역할을 하는 소극장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확인했다.

자치구	극장명	참여년도
관악	광태소극장	2022
도봉	그린트리마을극장	2022
동대문	동네극장	2021, 2022
성북	라이트하우스	2022
강동	문화예술창작소 '우리'	2022
종로	뭐든지소극장	2022
용산	창작예술집단 보광극장	2021, 2022
성북	성북마을극장	2022
서대문	신촌극장	2022
강남	야기스튜디오	2022
영등포	창작플랫폼 경험과상상	2022
광진	충동소극장	2021, 2022
서대문	플랫폼팜파	2022
강남	예인아트홀	2022

자치구	극장명	참여년도
은평	카페극장 옴니버스	2021, 2022
성북	놀터예술공방	2021
광진	블라인드아트홀	2021
관악	틈새소극장	2021
성북	고래 스튜디오	2021
영등포	스페이스 T	2021
용산	대안공간 사유	2021
성북	천장산우화극장	시범사업, 2021
영등포	경험과상상	시범사업, 2021
마포	성미산마을극장	2021
서대문	연희예술극장	2021
종로	북촌창우극장	2021
동작	동작아트갤러리	시범사업

자치구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서문연 협력형

+ **2017-2023**
÷ **지역문화팀**

2019년 '서울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서울시자치구문화재단연합회'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서문연'이라는 약칭은 동일하게 사용한다.

지역문화 진흥사업의 또 다른 한 축은 **서울시자치구문화재단연합회**(이하 서문연)와의 협력사업이었다. 서울문화재단의 후원으로 2007년 12월 12일 창립한 옛 서울문화예술회관연합회는 2008년부터 예술지원팀의 **자치구 문화공간 활성화 지원사업**과 같은 다양한 협력사업을 서울문화재단과 추진해 왔다. 지역문화 진흥사업이 신설된 2017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거점 문화 공간인 문화예술회관을 중심으로 사업을 개발하고 실행했다. 첫해는 공모 지원 형식으로 진행했지만 2018년에는 협력사업 방식으로 전환해 '지역관객 개발 공연 지원', '문예회관 네트워크 활성화', '운영인력 역량강화 사업' 등을 추진했다. 2019년부터는 문화예술회관이 아닌 자치구문화재단 중심의 '서울시자치구문화재단연합회'로 기관 성격이 변하면서, 자치구문화재단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형태로 전환해 자치구 콘텐츠 특성화 지원, 정책 담론 형성, 역량 강화 지원 등의 사업을 연간 2~3억 원 규모로 운영했다. 2007년 설립 당시에는 15개 자치구(16개 문예회관)만 회원이었으나, 2023년 10월 기준 서울시 22개 자치구문화재단 전체가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서문연과 서울문화재단은 자치구문화재단 네트워크의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되었다. 서울문화재단은 서문연과 자치구문화재단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정체성을 확립하는 공동 사업 추진하면서 협력적 리더십을 바탕으로 한 광역 차원의 조력 역할을 강화하고 자치구문화재단과 지속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할 수 있었다.

2023년부터는 25개 자치구 단위로 추진하는 'N개의 서울'과의 중복 방지를 위해 2~3개 자치구문화재단이 협업하는 권역형 사업으로 전환하고,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역할 분담과 상호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면서 자치구문화재단 간 교류와 연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연도	사업명	결과
2017	자치구 문화예술회관 네트워크 지원	- 19개 기관, 9,587명 관람
2018	자치구 문화예술회관 네트워크 활성화	- 12개 기관, 15,874명 관람, 종사자 약 130명 참여
2019	지역문화 거점 네트워크 활성화	- 네트워크 활성화 18개 기관, 789명 - 콘텐츠 특성화 17개 기관, 39,014명
2020	지역문화 거점 네트워크 활성화 지역현장 청년문화그룹 성장지원	- 콘텐츠 특성화: 20개 기관, 131,737명 - 청년문화그룹: 15개 자치구, 개인 7인, 단체 29팀
2021	자치구문화재단 네트워크 활성화	- 22개 자치구문화재단, 95,418명 관람 향유
2022	자치구문화재단 네트워크 활성화	- 서문연 22개 자치구문화재단 교류, 47,632명 - 아카데미 112명
2023	광역-기초 협력 네트워크 지원: 서울시자치구문화재단연합회 협력사업	- 자치구 권역별 사업 12,037명 참여 - 국외연수(영국, 일본) 총 25명 참여

서울문화재단은 자치구, 서문연과의 협력 사업 이외에도 지역문화 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문화 담론을 형성하고 확산하기 위한 기반조성형 지원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전체 예산이 25억으로 급증한 2019년부터 기반지원형 사업을 시작해, 아카데미, 워크숍, 광역-기초 공동연수 등 지역문화 종사자 대상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했으며, 지역문화 통합 온라인 플랫폼 '로컬 투 서울'을 구축하고, 아카이빙, 통합비평 등을 진행했다. 지역문화 사업의 토대를 마련하고 중장기 비전 수립을 위한 연구로 2019년 3개의 기초 연구, 2020년 종합 지역문화정책 연구, 2021년 서울연구원과 공동 연구를 진행했으며, 2020년에는 각각의 자치구가 지역문화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연구비를 지원하기도 했다.

서울문화재단은 지역문화 진흥사업을 통해 25개 자치구 단위 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가며 자치구 문화기관과 협력적인 관계망을 구축하고, 지역 민간단체, 청년예술인, 지역극장 등 민간 영역과의 협력도 활발히 추진했다. 서문연과 협력해 자치구 연계의 거점 역할을 하며 자치구문화재단 간의 수평적 네트워크 형성과 소통을 이끌기도 했다. 자치구 협력을 기반으로 추진한 지역문화 진흥사업은 서울시와 자치구, 지역의 주체가 공동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를 통해 서울의 지역문화 생태계가 더욱 다채로워질 수 있었다. 광역 단위 기관으로서 서울 지역 단위 문화정책 연구, 역량강화 교육, 아카이빙 역할도 병행하면서, 서울문화재단은 자치구청, 자치구문화재단, 민간단체와 신뢰를 형성하고 수평적인 협력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

연도	연구보고서 및 결과자료집
2019	서울 지역문화정책 기초연구: 〈서울 지역문화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초연구〉, 〈서울 지역현장 문화예술공간의 실태에 관한 연구〉, 〈서울 자치구문화재단 현황 기초연구〉
2020	자치구 지역문화 종합계획 연구 지원: 14개 자치구(예술교육 포함) 지역문화 정책연구: 자치분권형 서울 지역문화 활성화 전략 수립 연구 결과자료집: 2020 N개의 서울 아카이빙 북-N개의 시선
2021	지역문화 정책 연구: 서울시-자치구 간 문화정책 협력방안 연구(서울연구원 공동) 지역문화 전문가 비평분석 콘텐츠 제작 결과자료집: 2021 N개의 서울 아카이빙 북
2022	종합비평 총 5편, 온라인 콘텐츠 15편 제작 결과자료집: 2022 서울 지역문화 리뷰 자치구문화재단 ESG지표 개발을 위한 기초환경 선행연구(서문연)

6.3.

정책협력

서울문화재단은 미래 전략을 수립하고 문화정책 실행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사와 연구를 꾸준히 추진했다. 정책 거버넌스 협의 채널은 2004년 '서울문화포럼'으로 시작해 2006년 '서울문화예술네트워킹 생생목요토론회'로 이어졌고, 2012년부터는 '문화정책위원회'가 직제상의 공식기구로 운영되었다가 현재는 2022년 출범한 '서울문화예술포럼'이 그 명맥을 잇고 있다.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서울시자치구문화재단연합회, 세계도시문화포럼 등 국내외 정책교류 활동의 폭도 넓혀 나갔다. 지난 20년 동안 기업과의 제휴, 협력 사업은 점차 증가했으며, 오랜 후원 관계를 통해 돈독한 파트너십이 형성되면서 서울의 문화예술은 더욱 풍성해질 수 있었다. 서울문화재단의 소식과 문화예술 정보를 보다 많은 시민에게 알리고, 예술가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과 서비스를 확장하는 노력도 멈추지 않았다.

6.3.1.

정책·네트워크

- 정책 연구
- 지역 네트워크
- 정책 거버넌스
- 국제교류
- 세계도시문화포럼

정책 연구

+ 2021-
÷ 미래전략팀

서울문화재단의 정책 연구 기능은 설립 초기 경영에 필요한 전략 과제 연구 중심에서 서울의 문화예술 현황을 파악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기반 연구 중심으로 진화해 왔다. 2005년 정책연구를 전담하는 TF팀을 잠시 설치했으며, 초기에는 주로 경영 전략 관련 연구를 진행했다. 광역문화정책 전문기관으로의 역할 요구가 커짐에 따라 2011년 정책연구실TF을 설치한 데 이어, 2012년 8월 경영 4기에 정책연구팀이 정식 부서로 편제되면서 정책 연구 기능이 더욱 강화되었다. 2013년부터 서울시 문화정책 관련 주요 통계와 지표 관리 연구에 집중하여, 문화정책 방향 설정에 기초가 되는 「서울문화지표 조사연구」와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가 정례화되었다. 현재 정책 연구 기능은 정책협력실 미래전략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대내외 경영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중장기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 연구·조사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재단의 사업 전략 개발을 지원하며 지속가능경영과 문화예술정책 실행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2021년부터는 연구관리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며, 연구·조사·평가·개발 등 연구 사업의 타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책 연구 담당 조직 변화

정책연구팀TF	전략기획팀	비전정책팀	비전전략팀	정책연구실TF	정책연구팀	미래전략팀	경영기획팀	미래전략팀
2005.03.- 2005.10.	2006.01.- 2007.05.	2007.05.- 2009.03	2009.03.- 2011.02.	2011.02.- 2012.08.	2012.08.- 2018.01.	2018.01.- 2018.12.	2019.01.- 2021.04.	2021.04.-

재단 설립 이후 처음으로 발주한 연구는 「문화제휴 전략모델 및 프로그램 개발 연구」(2004)였다. 당시 서울시정개발연구원(현 서울연구원)에서 진행했으며, 서울문화재단의 위상과 역할 정립을 토대로 민간과의 문화제휴를 위한 전략 모델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진행되었다. 「서울시 공연장 현황 및 실태 조사」(2004-2005)는 서울시 공연장 전수 조사에 이어 실측 조사까지 후속으로 진행하면서, 표준 매뉴얼을 개발하고 공연장 도면 등의 기술 정보를 제공해 공연예술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 기간 동안 「서울문화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서울문화 활성화방안 연구」와 같은 기초 연구도 진행되었다. 2009년 이후 정책 연구는 잠시 중단되었다가, 2011년 정책연구실(이후 정책연구팀)에서 「지역협력 예술지원정책에 대응한 서울문화재단의 역할 설정」, 「2011 서울시 문화정책 연차보고서」 등을 진행했으며, 문화정책 동향 정보를 정기적으로 발행하기 시작했다.

문화정책동향 보고서(SFAC Policy Review)는 문화정책 관련 국내외 주요 이슈를 정리한 보고서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7년간 발간되었다. 초기에는 격주 발행되다가 2016년 3월부터 월간으로 변경되었으며, 매월 다양한 이슈를 선정해 연구 자료와 기사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해당 이슈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과 배경을 담아내고 소개했다. 정책연구팀이 '미래전략팀'으로 재편되면서 2017년 12월 이후 발행이 중단되었으나,

2022년 3월 문화예술정책 동향을 소개하는 문화정책이슈페이퍼 [문화+정책]으로 부활, 정책협력실에서 발행되고 있다.

연도	주요 정책연구 보고서
2004	문화제휴 전략모델 및 프로그램 개발 연구 서울시 공연장 현황 및 실태 조사
2005	서울문화재단 조직개선 및 중장기 발전전략 개발 연구 공연예술자료관 건립 연구
2006	문화예술로 행복한 서울 만들기를 위한 2기 경영전략 보고서 문화예술을 통한 도시가치 창출전략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문화예술기관 프로그램 운영 방안 연구
2008	서울시 자치구 문화예술회관 운영 현황조사 및 운영 매뉴얼 개발 연구 창작공간조성 전략보고서 작성을 위한 현장조사 연구 - 문화 생태계적 관점의 접근 창작공간조성 전략보고서 작성을 위한 현장조사 연구 - 공간 맥락적 관점의 접근
2009	2009 서울시 문화예술교육 현황 조사 연구 공연장 상주예술단체 육성 지원사업 평가지표 개발 연구 유휴시설을 활용한 서울시 예술창작공간 조성
2011	서울문화재단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지역협력 예술지원정책에 대응한 서울문화재단의 역할 설정 2011 서울시 문화정책 연차보고서
2012	서울문화재단 조직재설계 및 비전수립 연구 서울문화재단 직무분석 및 인력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 서울문화재단 비전과 전략 2012 - 문화가 꿈, 文化 가꿈 서울문화기업 육성 전략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 시행 지역협력 예술지원정책에 대응한 예술지원제도 개선 연구
2013	서울문화재단의 지나온 10년, 앞으로 10년 전략 연구 서울 문화예술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창작공간의 전략 시민문화활성화 방안 연구 세계도시문화리포트 2013 서울
2014	2014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 서울문화지표 체계 구축 연구 세계도시문화리포트 2014 서울
2015	2015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 세계도시문화리포트 2015 서울
2016	2015 서울문화지표 조사연구 2016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 개선연구
2017	2016-2017 서울문화재단 문화정책위원회 활동결과: 문화와 민주주의 I 문화정책의 지역화 2017 세계도시문화포럼 서울총회_창조도시를 넘어 문화시민 도시로 서울시민 문화생활 리포트_삶과 문화에 대한 116명 시민과의 수다 기록
2018	사회적 예술치유 중장기 발전방안 기초연구(서울예술치유허브 협력) 2017 서울문화지표 조사연구 2018 예술인 좌담기록 - 예술인이라는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 각 사업 부서별 추진 연구 목록 제외

더 보기

서울문화재단 누리집
정책·연구자료

연도	주요 정책연구 보고서
2019	2018 서울시민문화향유 실태조사 세계도시문화리포트 2018-서울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기록물 목록화 기초조사 연구
2020	2019 서울문화지표 조사연구 서울문화재단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분류체계 연구
2021	2020 서울시민문화향유 실태조사 서울문화재단 예술공간 운영 재구조화 전략방향 연구 문화예술 분야 협력방안 모색을 위한 사회공헌활동 트렌드 분석 연구
2022	2021 서울문화지표 조사연구 서울문화재단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중장기 전략수립 연구
2023	2022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 세계도시문화리포트 2022

서울 문화통계 조사

서울문화재단에서는 서울시 문화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서울시민의 문화향유실태와 문화생활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서울문화지표 조사'와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 연구를 2014년부터 정기적으로 진행한다. 2개의 연구는 매년 진행되다가 2016년을 기점으로 2년 주기로 교차 진행되고 있다.

2015 서울문화지표 조사연구

서울문화지표 조사연구(2014-)는 서울시 문화정책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기초 단위(자치구별) 문화지표를 비교 분석하고 서울시 문화예술 관련 통계를 종합하는 기초 통계 데이터 기반의 연구 조사이다. 2014년 「서울문화지표 체계구축 연구」를 통해 지표 체계를 개발하고 시범 조사를 진행했으며, 2016년 최초 조사 이후 2년 주기로 조사를 진행해 격년으로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2021년 기준까지 조사가 5회 진행되는 동안 대분류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중분류와 세부지표는 서울시 정책 변화를 반영해 조금씩 조정되었다. 2022년 발행된 보고서에서는 권역별 표기를 자치구별 표기로 변경해 자치구별 수치를 보다 확인하기 쉽게 했다.

2020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2014-)는 서울 시민의 문화활동 동향 파악과 사회의 변화, 문화생활 트렌드 파악을 통해 문화정책의 개선점을 도출하기 위해 '서울문화지표'와 격년으로 진행한다. 2014년 첫 번째 조사 대상은 서울문화재단 누리집 회원과 재단 사업 참여 경험자인 '문화고관여자'로 한정되었다. 2016년 조사부터 기존의 문화고관여자 외에 온라인 조사 패널(일반 시민)을 추가로 진행했으며, 문화고관여자는 서울시 문화행정 서비스 이용자로 범위를 넓히고 명칭도 '문화관심자'로 변경했다. 2020년 조사부터는 일반 시민 유효 표본이 5,000명을 넘어서며 객관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었다. 조사 주기는 2016년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 개선 연구」를 계기로 격년으로 변경했다. 2022년 조사에는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 정책 기조에 따라 문화 약자의 향유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장애인과 다문화 이주민 시범 조사를 진행했다.

서울문화지표 조사연구와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는 10년을 지속해 오면서 서울시민을 위한 문화 사업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시민의 문화향유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연구로 자리 잡았다.

지역 네트워크

+ 2012-
× 시·도 문화재단 대표자회의(2012-2016),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2016-)
생활속 문화예술거점 육성사업(서울문화예술회관연합회운영지원)(2009)
서울문화예술회관연합회(2007-2020)
서울시자치구문화재단연합회(2020-)

광역문화재단 네트워크

서울문화재단의 광역문화재단 네트워크 참여는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연대와 협력 활동을 해온 **시·도 문화재단 대표자회의**(이하 대표자회의)로 시작되었다. 대표자회의는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을 앞두고 전국 13개 광역시도 문화재단의 협력 네트워크로 결성되어 2012년 10월 26일 발족했다. 재단은 초기에 정책간사 기관으로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대정부 정책 제안과 현안 대응을 주도하고 토론회 및 포럼을 주관했다. 2014년 첫 번째 공동협력 사업으로 창작공간과 레지던시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전국 12개 시·도문화재단이 참여하는 최초의 대규모 행사 '전국 창작공간 통합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이외에도 대표자회의 소속으로 정책세미나, 포럼, 학술대회, 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 정책제안서와 성명서 등을 발표하며 활발하게 활동했다.

대표자회의는 지역문화진흥의 기반을 마련하는 정책 대안 제시와 지속적인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2016년 5월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로 정식 출범했으며, 2017년 2월 사단법인으로 등록하였다. 현재 서울문화재단을 비롯 전국 17개 시·도문화재단이 회원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2023년 2월 1일부터 재단 이창기 대표이사가 제6대 회장으로 선출되어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광역의 문화정책을 선도하며 보다 실효성 있는 지역문화진흥 정책을 개발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2019 서울문화재단-자치구문화재단 공동연수 결과공유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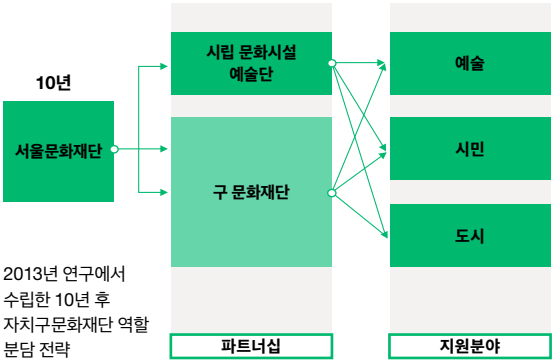
2013 시·도 문화재단 대표자회의

자치구 문화재단 네트워크

2004년 재단 출범 당시 자치구 문화재단은 중구문화재단 1곳, 설립 10년을 맞은 2014년까지만 해도 7곳에 불과했지만 2023년 기준 3개구를 제외한 22개 자치구에 문화재단이 설립되었다. 서울문화재단은 광역-기초 문화재단 간 문화예술의 다양한 가치를 발현하고, 자치구 문화재단 간 협력적 정책 기반을 강화하고자 서울의 자치구 문화재단

네트워크 협의체인 (사)**서울시자치구문화재단연합회**(옛 서울문화예술회관연합회)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2007년 12월 **서울문화예술회관연합회**(이하 서문연) 창립 당시 서울문화재단은 서문연 출범을 후원하는 역할을 했고 2008년부터 별도의 운영 지원사업과 협력사업(자치구 문화공간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2008-2010), 자치구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2009)을 운영해왔다.

지역문화진흥법 시행을 앞두고 지역문화진흥을 담당할 지역문화재단의 역할이 늘어나면서, 서울문화재단은 광역문화재단으로서 직접 사업 수행 방식에서 위임·지원·협력 방식으로의 역할 전환을 고려해 왔으며, 2013년 「서울문화재단의 지나온 10년, 앞으로 10년」 전략 연구에서는 자치구 문화재단의 역량 확보에 따른 점진적인 역할 변화 전략을 제시하기도 했다. 자치구와의 협력을 통한 정책 개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2014년에는 문화정책위원회 2기 멤버에 자치구 문화재단 대표와 문예회관 관장을 위촉하기도 했다.



2013년 연구에서 수립한 10년 후 자치구문화재단 역할 분담 전략

이후 2017년부터 지역문화팀의 자치구 협력형 사업이 본격화되었고, 서문연과의 협약을 근거로 **자치구 문화재단 네트워크 활성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더 보기

2019 서울 지역문화재단 좌담회 '변화의 시작 희망의 씨앗', [문화+서울] 2019년 5월호

서울시 22개 자치구문화재단

강남문화재단, 강동문화재단, 강북문화재단, 관악문화재단, 광진문화재단, 구로문화재단, 금천문화재단, 노원문화재단, 도봉문화재단, 동대문문화재단, 동작문화재단, 마포문화재단, 서초문화재단, 성동문화재단, 성북문화재단, 송파문화재단, 양천문화재단, 영등포문화재단, 은평문화재단, 종로문화재단, 중구문화재단, 중랑문화재단 (2023년 3월 기준)

문체부장관 - 광역문화재단 대표자 간담회(2024년 1월)

정책 거버넌스

+ 2004-
× 서울문화포럼(2004-2005)
문화정책위원회(2012-2018)
서울문화예술포럼(2022-)

서울문화재단은 설립 초기부터 문화예술계 전반의 흐름을 파악하고 정책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다양한 형태의 거버넌스를 운영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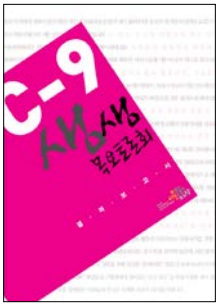
서울문화포럼(2004-2006)은 재단 설립 초기 문화예술계 원로, 전문가, 오피니언 리더들이 참여하는 정기적인 모임이었다. 문화예술인의 자연스러운 정보 교류와 논의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문화정책의 대안을 제시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담당했다. 문화예술 전문가와 오피니언 리더들의 의견 청취 창구를 마련하여 상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테마별 주제 토론과 초대 특강, 교환초청 문화행사 등 다양한 소통 프로그램을 통해 자연스러운 교류의 장을 마련하며, 문화예술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2004년 7월 '서울의 문화예술의 발전방향 모색'을 주제로 한 1회 서울문화포럼 이래로 2004년 총 3회, 2005년 총 8회, 2006년 2월 1회의 서울문화포럼을 개최했다. 간담회, 평가회, 토론회 등 다양한 형태로 열렸으며 2006년 8월 동일한 명칭의 사단법인이 발족하면서 혼선을 피하기 위해 '서울문화예술네트워킹토론회(부제: 생생목요토론회)'로 개칭했다.

서울문화포럼

구분	주제
2004	7월 서울의 문화예술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11월 지역문화재단 네트워크 모임
	12월 문화가꿈CEO 클럽
2005	3월 문화도시에 대한 문화예술인 간담회
	3월 해외 국제교류 관련 공공기관 간담회
	3월 재단 1주년 기념행사 개최
	5월 극장장 네트워킹 간담회
	6월 지역문화재단 관계자 간담회
	9월 서울의 공공디자인 토론회
	9월 문예지원정책 간담회
	12월 문예지원사업 진단과 모색 토론회
2006	2월 미술 창작 지원사업 토론회

생생목요토론회(2016)는 재단 청사 이전에 따른 'C-9 생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열렸으며, '서울문화포럼'의 발전된 형태로 보다 심층 토론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2016년 8~9월 매주 목요일 서울문화재단 청사에서 총 8회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C-9 생생목요토론회 결과보고서'와 '문화예술을 통한 도시 가치 창출 전략 보고서'를 발간하기도

했다.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까지 참가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었으며, 네트워킹 체계를 갖추고 담론과 기초 여론을 형성해 문화정책의 방향성을 정립하는 역할을 했다.



생생목요토론회 운영 내용

구분	주제	운영결과
제1회(8.10.)	도시 '공공'공간을 '생생한 문화' 공간으로 바꾸기	총 57명 패널/ 430명 참석
제2회(8.17.)	서울시 자치구 문예회관의 오늘과 미래	
제3회(8.24.)	시민문화예술지원, 그 진보를 위하여	
제4회(9.7.)	지역축제가 우리네 삶에 미치는 영향 살펴보기	
제5회(9.14.)	지역문화진흥법과 지역문화재단의 실천 방안 고민하기	
제6회(9.21.)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지역문화재단의 조화로움을 위하여	
제7회(9.28.)	문화NGO와 서울문화재단의 아름다운 문화거버넌스 만들기	
제8회(종합토론)	창조적 지역문화를 만드는 서울문화재단의 역할과 비전	

서울문화재단 문화정책위원회(2012-2018)는 2012년 11월 신설되어, 2018년 2월까지 서울시 문화정책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문화 거버넌스 구현과 문화정책 자문 역할을 담당하는 상시 기구로 운영되었다. 2012년 8월 거버넌스형 문화정책 수행 방식을 제도화하기 위해 정규 직제로 설치했고, 문화정책위원회 운영을 정례화하고 정기 회의와 소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2012년 11월 1기 15인이 위촉된 이후, 2기 14인, 3기 16인, 4~5기 24인이 위원으로 활동, 정책세미나, 대토론회, 종합포럼 등을 개최하며 문화예술계와 시민과 소통하며 의견을 나누고 서울시 문화정책을 제안하는 역할을 했다. 다양한 분야의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해 재단의 사업 전반에 걸쳐 자문하고, 재단 중장기 전략 수립 시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했다. 위원회 활동 결과를 상세히 수록한 결과보고서를 꾸준히 발간해, 당시 문화예술계 이슈와 치열했던 논의 내용, 현장감을 확인할 수 있다.

문화정책위원회 운영 결과

연도	주요 내용	운영 결과
2012-2013	문화정책위원회 위원 위촉 및 1차 회의(2012.11.20.) 문화정책위원회 1기 운영 (총 15인, 위원장 박신의)	4개 소위원회 구성, 총 4회 정기회의 개최 서울문화재단 10+10 정책 대토론회 '서울문화재단, 이랬으면 좋겠네' 개최(2013.06.28.) '서울시 문화정책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정책세미나' 개최 (2013.12.20.)
2014	문화정책위원회 2기 운영 (총 14인, 위원장 박신의)	총 4회 정기회의 개최 '서울문화플랜 의제 발굴을 위한 열린 토론회' 개최(2014.12.05.)
2015	문화정책위원회 3기 운영 (총 16인, 위원장 송혜진)	4개 소위원회 구성, 총 4회 정기회의 개최, 열린토론시리즈 15회 개최 종합포럼 '서울예술회의' 개최(2015.12.14.) 재단 및 서울시에 정책제안서 작성 「서울문화재단에서 서울문화정책을 함께 모여서 이야기하다」 발간

연도	주요 내용	운영 결과
2016	문화정책위원회 4기 운영 (총 19인, 위원장 이창현)	4개 소위원회 구성, 총 5회 정기회의 개최, 세미나 20회 개최 '정책포럼_문화담론 순환선' 총 4회 개최 재단 및 서울시에 정책제안서 작성 「서울시 문화정책의 지역화전략 보고서」 발간
2017	문화정책위원회 5기 운영 (총 18인, 위원장 이창현)	총 3회 정기회의 개최, 문화정책 포럼 총 3회 2017 세계도시문화포럼(WCCF) 서울 총회 아시아 최초 개최 및 연계 정책세미나 발표 「2016-2017 문화정책위원회 활동보고서」 발간

2019년부터는 예술가, 기획자, 정책연구가, 공공기관 종사자 등을 모아 분야별 현장 전문가 그룹 **SFAC 정책라운드테이블**(2019-2020)을 운영했다. 논의 이슈에 따라 관련된 다양한 그룹을 초대해 발제와 토론을 진행하고 현장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소통 채널을 마련해 현장 기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했다. 중장기 경영 전략과 정책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재단 내부 직원도 구성원으로 참여했다. 2019년에는 각 분야별 정책 위원을 구성해 예술현장의 이슈를 나눴고, 2020년은 장기 전략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온라인 의제 공유회를 진행했다. 예술가의 권리, 문화적 다양성, 도시재생 등 문화예술계 현안에 당사자와 현장 목소리가 반영된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담론을 형성하고 거시적인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역할을 했다.

SFAC 정책라운드테이블

2019	현장 전문가 거버넌스 100인의 정책위원회 구성 'SFAC 정책라운드테이블' 신설	문화 분야 창업 및 일자리 포럼: 2회 정책라운드테이블 준비 TF회의 및 포럼: 4회
2020	'SFAC 정책라운드테이블' 운영 (총 15명)	6개 주제 소발제와 토론 총 9회 온라인 의제 공유회 '지속가능한 전환을 위한 문화예술의 위치와 의미에 관하여' 개최 (2020.12.11.) 2020 SFAC 정책라운드테이블 결과집 발간

팬데믹 시기 재단의 거버넌스도 잠시 휴지기를 거친 이후, 2022년 '3대 전략 10대 혁신 과제'에 따라 더 넓은 거버넌스를 지향하는 정책 협력 거버넌스 **서울문화예술포럼**(2022-)을 출범시켰다. 서울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각 분야의 예술가, 문화기획자, 전문가 등 다수가 참여해 문화예술의 미래 가치와 다양한 이슈를 주제로 정례 포럼을 개최한다. 2022년 6월 문화예술 전문가 48명을 운영위원으로 위촉해 운영위원회를 발족했으며 포럼을 2회 개최했다. 2023년에는 운영위원을 62명으로 확대해 보다 많은 전문가가 함께 교류하고 협력하는 네트워크의 장을 만들어가고 있다.

더 보기

- 서울문화예술포럼
- 서울문화재단에서 서울문화정책을 함께 모여서 이야기하다, 2016
- C-9 생생목요토론회 결과보고서, 2016
- 2016-2017 문화정책위원회 활동결과, 2018
- 2020 SFAC 정책라운드테이블 결과집, 2020

서울문화예술포럼

2022	서울문화예술포럼 출범 (총 48명, 공동회장 박상원·최태지)	2022.06.10. 2022.06 2022.09.07. 2022.09.07. 2022.11.29.	서울문화예술포럼 준비회의 개최 서울문화예술포럼 운영위원회 구성 및 위촉 서울문화예술포럼 발족 제1회 '포스트코로나 문화예술 전망과 서울의 문화전략' 제2회 '기후위기와 문화예술'
2023	서울문화예술포럼 운영위원 추가 위촉 (총 62명, 공동회장 박상원·최태지)	2023.02.09. 2023.03.31. 2023.06.08. 2023.09.12. 2023.11.30	서울문화예술포럼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제3회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와 정책방향 모색' 제4회 '매력도시 서울을 위한 광화문 일대 문화·관광 활성화 방안' 제5회 '서울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예술의 사회적 역할' 제6회 '온·오프라인공간의 진화와 우리 삶의 변화'

2013 창립 10주년 정책 대토론회

2015 문화정책위원회 서울예술회의

2022 제2회 서울문화예술포럼

2023 제5회 서울문화예술포럼

국제교류

+ 2004-

재단은 2004년 출범 직후부터 국제 네트워크 기반 형성에 주력하며 축제를 중심으로 국제교류를 활발히 추진해 왔고, 2010년부터 예술교육 국제심포지엄, 창작공간 국제심포지엄, 2012년 ISPA 총회 유치 등을 통해 해외의 문화정책 파트너와 지속적으로 교류해 왔다. 연희문학창작촌, 금천예술공장, 문래예술공장, 서울무용센터 등 국제 레지던스와 작가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창작공간들은 한국을 대표하는 예술가 레지던스로 국제 문화교류의 중요한 거점 역할을 한다. 2013년부터는 세계 주요도시 간 문화정책을 통한 교류 네트워크인 세계도시문화포럼(WCCF)의 회원 도시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금천예술공장, 서울무용센터, 연희문학창작촌과 같은 레지던시형 창작공간과 링컨센터예술교육원, 아난딸로 아트센터 등 예술교육, 서울 대표 비보이단과 서울거리예술축제와 같은 축제 분야에서도 국제교류 프로그램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잠시 중단되었지만, 2022년부터 다시 국제교류를 재개하며 세계 각국 문화도시, 유수의 문화예술기관·단체와 교류하고 있다.

서울국제축제기획자 네트워킹 세미나

재단은 설립 초기 서울의 국제적 문화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교류 10개년 계획을 세웠다. 핵심 과제 중 하나로 해외 기관이나 단체와의 네트워킹 확보를 위해 국제 규모의 **서울국제축제기획자 네트워킹 세미나**(SINSFO: Seoul International Networking Seminar for the Festival Organizers)를 기획해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회 개최하며 세계 각지 유명 축제기획자와 관계자를 초청해 국제 문화교류의 발판을 다졌다. 2004년 1회 세미나에서 진행했던 쇼케이스는 2005년 서울아트마켓(PAMS)의 창설로 이어졌으며, 2회 세미나는 제1회 서울아트마켓과 공동 주관으로 열렸다. 2006년부터는 '페스티벌 생존 전략, 문화거버넌스 구축(From Festival to Cultural Governance)'이라는 3개년 동일 테마로 기획되었고 2007년 제4회는 하이서울페스티벌 개최 시기에 맞춰 '창조도시'를 테마로 열렸으나, 2007년을 마지막으로 폐지되면서 2008년 3년차 행사는 열리지 못했다.

서울국제축제기획자 네트워킹 세미나는 국제공연예술협회, 아시아예술축제연합(AAPAF), 국제예술위원회 및 문화기구 연합(IFACCA), 유럽축제연합(EFA) 등과 교류의 장을 넓히면서 우리나라 공연예술의 해외 진출에 적지 않은 기여를 했다. 당시 국내 공연예술계에서는 드물게 국제 세미나를 지속 개최하면서 국내외 공연예술 현장 네트워크 조성의 기반을 마련했다. 재단은 세미나를 통해 인연을 맺은 ISPA, AAPAF 등 주요 국제 문화기구의 회원으로 가입해 활동했다.

연도	개요
2004	제1회 서울국제축제기획자 네트워킹 세미나(2004.11.26.-12.08.) 축제의 활성화와 이를 통한 도시마케팅 전략
2005	제2회 서울국제축제기획자 네트워킹 세미나(2005.09.30.-10.08.) 축제 운영과 국제 공연예술 유통
2006	제3회 서울국제축제기획자 네트워킹 세미나(2006.10.20.-21.) 도시재생 환경과 지역축제의 도전(City Lives Alive:Urban Revitalization Milieu and Festival)
2007	제4회 서울국제축제기획자 네트워킹 세미나(2007.05.02.-04.) 창조 도시의 미래와 축제(River, Festivity and Asian Creative Cities)

서울시의 자매결연도시(북경, 이스탄불, 올란바토르 등)의 대학생과 한국문화가 생소한 국내 유학생들이 서울의 문화예술 창작 현장, 작품, 인프라를 직접 체험하게 하고 국제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해외대학생 초청 국제문화교류 프로그램(2005-2006)**도 진행했다. 2005년 제1회 행사에는 카자흐스탄 유라시안대, 중국 칭화대 학생 등 25명, 2006년 제2회 행사에는 칭화대, 몽골국립대 학생, 국내 거주 각국 유학생 등 30명을 초청해 6박 7일의 프로그램으로 진행했다. 해외 대학생과 국내에서 유학하고 있는 다양한 국적의 학생이 참가하면서 다양한 국제 문화교류의 장이 마련되었다.

서울국제축제기획자 네트워킹 세미나를 통해 회원으로 가입한 국제공연예술협회(ISPA, International Society for the Performing Arts)는 1949년 미국 공연장협회로 출발한 이후 각국 공연예술계 리더와 전문가들이 회원으로 가입한 국제 네트워크 단체로 확대된 공연예술 분야의 대표적인 국제협회이다. 연 2회 총회를 개최하며 뉴욕에서 열리는 정기 총회와 더불어 각국을 순회하면서 지역 총회를 개최한다.

2012 ISPA 서울총회

국제공연예술협회 2012 총회의 서울 개최는 2009년부터의 유치 활동과 준비, 재단 설립 초기부터의 꾸준한 회원 활동이 바탕이 됐다. 2009년 국제공연예술협회 주요 이사진을 초청한 데 이어 2012년 총회 유치 제안서를 제출해 2010년 1월 개최가 확정되면서 2011년부터 재단 내 전담 사무국 TFT를 구성해 **국제공연예술협회 2012 서울총회(2012.6.11.-16.)** 준비에 본격 돌입했다. '문화변동(Cultural Shifts)'을 주제로 한 2012년 서울 총회는 34개국, 96개 도시와 432명(국내 231명, 해외 201명)의 공연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로 세종문화회관, 국립극장, 예술의전당, 한예종 음악원, 명동예술극장 등지에서 개최되었다. 국제공연예술협회 2012 서울 총회를 통해 재단은 서울의 문화예술과 예술가를 소개하고 궁극적으로는 서울이라는 도시 브랜드를 알릴 수 있었다. 국제공연예술협회 2012 서울총회를 통해 국제적 공연예술 분야 플랫폼으로서 재단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재단의 국제행사 개최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아시아 허브로서의 위상도 높일 수 있었다.

서울 총회의 성공적인 개최 이후 재단은 2013년 '서울 예술한류 진흥사업' 중 하나로 **국제공연예술협회 SFAC 레거시 프로그램**을 운영해 서울에서 활동하는 국내 공연예술 전문가 4명의 국제공연예술협회 뉴욕 정기 총회 참가비용 일부를 지원했다. 국제공연예술협회 서울 총회를 통해 확보된 국제 네트워크를 활용해, 국내 문화예술 종사자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한국 공연예술단체의 해외 진출 등을 지원했다.

서울-북경 문화교류 프로젝트(2013-2016)는 서울-북경 자매결연 20주년을 기념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문화예술을 매개로 북경과 진행한 프로젝트이다. 교류 첫 해인 2013년에는 예술가들이 각 도시를 방문하고 받은 예술적 영감을 함께 토론하며 서로의 도시에 대한 기억을 작품으로 만들어 〈두 도시의 기억: 광화문에서 천안문까지〉라는 전시로 소개했다. 다음해는 '미디어 아트'를 중심으로 양 도시를 대표하는 미디어 아티스트 6팀이 두 도시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관통하는 주제 '달'을 탐구하고 공동 전시회 〈같은 달 아래서〉를 개최했다. 2015년에도 양국 예술가의 상호도시 탐방과 교류 워크숍이 이뤄졌고 공동전시회 〈On the way to Red〉를 북경에서 개최했다. 2016년 회화, 금속, 도자, 미디어아트 분야의 여성 예술가 12인이 교류하며 '꽃'을 재해석하고 공동전시회 〈꽃, 함축의 시간〉(서울역사박물관)을 선보이며 끝을 맺었다.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사업은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를 주축으로 양국의 거리예술·서커스 관련 전문기관과 단체의 협력으로 진행되었다.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공식 사업으로 인증되어 양국의 문화부로부터 지원을 받았다.

'거리예술 공동창작 및 배급 지원사업'으로는 '창작그룹 노니+프랑스 서커스 아티스트', '예술불꽃 화(花, 火)랑+까르나비흐', '올웨이즈 어웨이크+극단 오스모시스' 총 3개의 거리예술 공동창작 프로젝트를 지원해 양국의 축제에서 선보이며 국내 거리예술 작품의 국제 공동제작을 실현했으며, 국내 거리예술 창작과 교류 활성화에 기여했다. 전문가 양성을 위해서는 프랑스 거리예술 전문가 양성기관(FAI-AR)과 공연구조물 기획·제작 전문단체(Sud Side)와 협력해 '거리예술 전문가 양성과정'을, 프랑스 국립서커스예술센터(CNAC)와 '서커스 전문가 양성과정'을 진행했다. 거리예술·서커스 분야 협업 결과물은 프랑스와 한국에서 교차로 발표했다. 2016년 5월 프랑스 마르세유 거리예술 지구(Citédes Arts de la Rue)에서 진행된 '한국의 봄' 행사와 11월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에서 열린 '프랑스의 가을'에서 2년간 추진된 양국의 교류 사업을 총망라한 축제 형태로 시민들에게 선보이면서 마무리되었다.

국제교류 주요 사업 및 변화(2004-2023)

연도	주요 사업	주요 변화
2004	제1회 서울국제축제기획자 네트워킹 세미나 시작, 쇼케이스 진행	축제기획자, 해외대학생 교류
2005	제2회 서울국제축제기획자 네트워킹 세미나, 제1회 서울아트마켓과 공동 주관 제1회 해외대학생 초청 국제문화교류 프로그램	
2006	제3회 서울국제축제기획자 네트워킹 세미나 개최 제2회 해외대학생 초청 국제문화교류 프로그램(2005-2006)	
2007	제4회 서울국제축제기획자 네트워킹 세미나, 창조도시 주제로 개최	
2009	링컨센터예술교육원(당시 LCI) 1기 업무협약 체결 (2009.09.12.)	예술교육 국제교류 본격화
2010	국제공연예술협회(이하 ISPA) 2012 서울총회 개최 확정(1월)	국제공연예술협회 총회 유치
2011	ISPA 2012 서울총회 전담 사무국(TFT) 설치	
2012	ISPA 2012 서울총회 개최(2012.6.11.-16.)	
2013	ISPA SFAC 레거시 프로그램 운영 시작 [북경] 서울-북경 문화교류 프로젝트 시작(〈두 도시의 기억: 광화문에서 천안문까지〉 전시)	
2014	[뉴욕] ISPA 뉴욕총회 참가 ISPA SFAC 레거시 프로그램(우수 문화예술 기획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북경] 서울-북경 문화교류 프로젝트(〈같은 달 아래서〉전시)	서울-북경 교류 프로젝트 시작
2015	[프랑스] 한불 상호교류의 해(거리예술 공동창작 및 배급 지원사업, 거리예술 전문가 양성과정) [북경] 서울-북경 문화교류 프로젝트(아티스트 상호도시 탐방, 교류 워크숍, 〈On the way to Red〉 전시) [호주] 한국-호주 파트너십 기반 공연 제작 협업 프로젝트(교류기관: REM Theatre) 한-호 공동제작 세월호 1주기 추모공연 〈Deluge: 물의 기억〉(2015.04.16.-25.) 〈사물이야기〉(2015.04.23.-24.) 한국(아시아나우) 호주(Legs On The Wall) 협력 IETM(현대공연예술네트워크) 서울카라반 회의 'Looking for Common Ground(2015.09.10.-12.)	아시아-태평양 문화네트워크 확대
2016	[홍콩] 서울-홍콩 협력 네트워크 확대(기관: PMQ): 입주예술가 교류 [북경] 서울-북경 문화교류 프로젝트 공동전시회 〈꽃, 함축의 시간〉 [프랑스] 한불 상호교류의 해(프랑스 마르세유 '한국의 봄',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프랑스의 가을' 행사)	신규 교류기관 발굴 및 협력 확대
2017	레지던시형 교류 중점 추진: 6개국(미국, 일본, 대만, 아랍에미레이트, 스페인, 독일) 7개 기관 프로젝트형 교류 해외 문화예술기관, 협회 주관 교류행사: ISPA, Res Artis	
2019-2023	창작공간 국제교류: 서울무용센터, 금천예술공장, 연희문학창작촌 등 예술교육: 링컨센터예술교육원, 핀란드 아난딸로 아트센터 등 축제: 서울시 B-boy단, 서커스, 거리예술 등 코로나19로 국제교류 온라인 전환 운영 및 잠정 중단(2020-2021), 2022년 이후 재개	창작공간 및 사업별 운영으로 전환

*예술교육 국제교류 세부 내용, 서울시창작공간 국제심포지엄, 세계도시문화포럼(WCCF)은 별도 정리.

제7회 서울시창작공간국제심포지움

서울시창작공간 국제심포지엄(2009-2018)은 재단 20년사에서 대표적인 국제행사 중 하나로 꼽을 수 있다. 2009년 첫해(금천예술공장 개관기념 국제심포지엄)를 제외하고는 '서울시창작공간 국제심포지엄'이라는 이름으로 2018년까지 10회가 열렸다. 금천예술공장의 기획으로 커뮤니티 아트, 예술가의 노동, 젠트리피케이션, 작업실 등 해마다 예술계의 이슈와 쟁점이 되는 주제를 선정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심도 깊은 논의를 펼쳤으며, 해마다 사전에 준비한 자리가 부족할 정도로 높은 관심 아래 진행되었다. 창작공간 운영 10년을 맞아 '창작공간 패러다임 시프트'를 주제로 진행된 10회 심포지엄으로 10년의 대장정이 마무리되었다.

연도	개요
2009	제1회 금천예술공장 개관기념 국제심포지엄: 창작공간의 현재와 미래 International Symposium on Commemoration of Seoul Art Space_Geumcheon: The Present and Future of Art Space 2009.10.08. 금천예술공장 PS333
2010	제2회 공적 영역에서 예술의 역할: 지역재생의 과제와 커뮤니티 아트 The Role of Art in the Public Domain: Issues of Local Regeneration and Community Arts 2010.11.04. 금천예술공장 PS333
2011	제3회 예술의 실험: 예술가, 기업 그리고 산업단지 Experiments of Arts: Artist, Enterprise and Industrial Complex 2011.10.27. 금천예술공장 PS333
2012	제4회 신화 또는 현실: 정책, 예술가, 커뮤니티 Myth or Reality: Policy, the Artist, Community 2012.11.01. 서울역사박물관 강당
2013	제5회 제도의 팽창, 창의적 동기: 예술가 공적 지원의 쟁점 The Institution's Expansion, Creative Motivation: Issue in Public Support of the Artist 2013.11.28. 서울시청 신청사 3층 대회의실
2014	제6회 노동하는 예술가, 예술환경의 조건 Working Artists, Aspect of Arts and Labour 2014.11.27. 서울시청 신청사 3층 대회의실
2015	제7회 예술가, 젠트리피케이션과 도시재생 Artist, Gentrification and Urban Regeneration 2015.11.27. 서울시청 신청사 3층 대회의실
2016	제8회 최소한의 작업조건, 예술가의 작업실: 작업실은 부동산이 아니다 The artist's studio at the core of creativity 2016.11.23. 서울시청 신청사 3층 대회의실
2017	제9회 풍요와 격차: 기술 혁신 시대의 예술 The Bounty and the Spread: Art in the New Era of Innovation 2017.12.14. 서울시청 신청사 3층 대회의실
2018	제10회 창작공간 패러다임 시프트 Paradigm Shift on Art Space 2018.01.29. 서울시청 신청사 3층 대회의실

세계도시문화포럼

× **세계도시문화포럼 (2013-)**
아시아도시문화포럼 (2017-2019)

세계도시문화포럼(WCCF: World Cities Culture Forum)은 문화정책 정보와 교류를 목적으로 런던시의 주도 하에 2012년 설립된 세계 도시 간 문화정책 네트워크다. 서울문화재단은 2013년부터 서울시와 공동으로 참여해 왔으며, 세계도시문화포럼 회원 도시 가입은 재단이 문화정책을 통한 국제교류에 적극 나서는 계기가 되었다. 2012년 9개 도시에서 시작해 2023년 기준 28개 국가 42개 도시가 회원 도시로 활동 중이며, 서울문화재단은 매년 10월 개최되는 정기 총회(Summit), 세계도시문화리포트(WCCR: World Cities Culture Report) 발간 및 공동 연구, 온라인 회의 등 세계도시문화포럼 활동에 참여하며 서울의 문화정책을 알리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문화예술의 역할을 고민해왔다. 2017년에는 '창조도시를 넘어서: 문화시민도시에서의 문화와 민주주의(Beyond the Creative City: new civic agendas for citizens and by citizens)'라는 주제 아래 아시아 최초로 서울에서 정기 총회를 개최했으며 서울시의 문화시민도시 비전과 시민의 참여로 변혁을 이뤄낸 서울의 사례를 소개하고 밀도 있는 토론을 진행한 바 있다. 재단은 세계도시문화포럼과의 네트워킹을 기반으로 도시 간 문화정책 교류를 본격 전개하며, 국제 도시 네트워크에서 서울의 대표 문화정책기관 역할을 하고 있다.

연도	개최 도시	서울 활동 내용
2012		- WCCF 설립
2013		- 1회 총회 개최한 런던시(문화부시장)의 공식 가입 요청 및 시장 명의 참여 의사 전달
	이스탄불	- 서울시 창작공간 사례 발표(11.12.-17.)
2014	암스테르담	- 10주년 기념 프로젝트 '소소한 상상, 소소한 변화' 발표(11.12.-14.)
2015	런던	- 서울시 문화관련 재정구조 발표(11.18.-20.)
2016	모스크바	- 비전 2030, 생활문화정책 등 발표(10.05.-07.)
2017	서울	- 서울 총회 개최 주제: 창조도시를 넘어서: 문화시민도시에서의 문화와 민주주의 일정: 2017.11.1.-3. 장소: DDP, 세종문화회관, 서울돈화문국악당, 세운상가, 낙원상가, 시민청 등 참석: WCCF 28개 회원도시 대표단 74명, 국내외 문화정책 전문가 등 총 100여 명 프로그램: 정책세미나, 분임토의, 사례공유 워크숍, 현장탐방 등
2018	샌프란시스코	- 서울시 문화와 기술의 융합사례 발표(11.14.-16.)
2019	리스본	- 도시 정체성 보존수단으로서의 박물관 사례 발표(10.23.-25.)
2020	온라인 총회 (코로나19)	- 코로나가 문화예술계에 미친 영향 및 대응방안 발표
2021		- 자치구 협력형 문화정책 관점에서의 문화인프라 활성화 발표
2022	헬싱키	- 코로나 이후 문화정책 변화 및 시민 일상회복을 위한 사례 공유·토론(10.05.-07.)
2023	상파울루	- '새로운 세계를 위한 문화, 그리고 용기와 리더십' 주제 사례 공유·토론(10.25.-27.) -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문화 분야 목표 추가를 위한 '상파울루 선언문(A Goal for Culture: São Paulo Manifesto)' 채택

한편 **아시아도시문화포럼(ACCF: Asia Cities Culture Forum)**은 문화적 다양성과 공통점을 지닌 아시아 권역 도시 간 상호교류를 통해 도시정책 현안을 논의하고 문화적 대안을 찾기 위해 2017년 서울에서 시작했다. 서울을 비롯해 방콕, 상하이, 선전, 싱가포르, 시드니, 후에, 도쿄, 홍콩, 타이페이 등 아시아·태평양 주요 도시 문화정책 전문가들이 정책 목표와 과제를 깊이 있게 논의하는 네트워크로 2019년까지 3년 연속 서울에서 포럼이 개최되었다.

더 보기

- WCCF 홈페이지
- 세계도시문화리포트
- 저스틴 사이먼스(런던 문화부시장) 이창현(서울문화재단 문화정책위원장) 대담, [문화+서울] 2017년 4월호
- 2017세계도시문화포럼 서울총회, [문화+서울] 2017년 11월호

연도	기간	주제
2017	2017.10.30.-11.02.	생활 속 문화를 통한 도시 활력 (Revitalization of City by Citizens' Engagement in Culture)
2018	2018.09.05.-07.	문화의 집적- 문화도시의 과제 (Clustering the Culture: What would be the manet?)
2019	2019.11.06.-18.	공간의 재발견: 재생, 혁신, 창조 (Rediscovering Spaces: Regeneration, Innovation, and Creation)

2017 WCCF 서울 총회

2023 WCCF 상파울루 총회

6.3.2.

제휴협력

- 문화제휴
- 사회적 가치 실천
- 서울메세나 지원
- 아트서울 기부투게더

2005 문화서울후원상

공공과 기업, 예술가와 시민이 함께 문화예술의 가치를 나누고 확장하는 새로운 방식의 선순환 구조를 꿈꿨던 재단이 주목했던 것이 문화기부와 제휴사업이다. 2004년부터 **서울메세나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한 제휴협력 및 예술후원사업은 재원 조성의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고자 했던 기능적 측면뿐 아니라, 예술의 사회적 가치 확대에 주요 방향을 지닌 사업이기도 하다. 특히, 기업과의 협력사업을 통해 진행하고 있는 **창작지원**은 물론,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는 **공공프로젝트**, 기업뿐 아니라 시민들이 자발적인 예술후원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판을 열었던 **문화기부캠페인** 등 지난 20년간 다양한 방식의 문화제휴사업을 운영하며 성장해 왔다. 시절에 적합한 방식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수치로 환산할 수 없는 문화예술의 가치와 저변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예술과 사회를 잇는 또 다른 경로로서 문화제휴 활동이 중요시되는 이유다.

제휴협력 사업의 흐름과 전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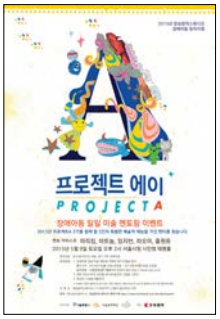
2004년 서울문화재단 설립 시기부터 예술에 대한 기부 및 후원, 문화제휴 협력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해 왔던 재단은 **문화예술 문화가꿈 CEO모임** 구축 등 외부 네트워크 및 대외협력을 통한 민간 후원 확대를 모색했다. 또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문화서울후원상** 시상제도를 운영, 문화예술에 대한 후원을 지속하는 기업의 영예를 높이는 등 문화제휴 파트너로서 재단의 역할과 입지를 넓혀갔다. 재단 홈페이지에 온라인 기부시스템을 마련하고, 문화제휴 활성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등 문화기부의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활동이 재단 초기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연도	주요 추진 내용
2004	기업의 문화공헌 세미나 개최, 문화예술 문화가꿈 CEO모임 운영
2005	문화예술후원상 제도 마련(2004-2007)
2007	재단 홈페이지에 온라인 기부 시스템을 마련, 싸이월드 등을 통한 기부 채널 운영
2008	문화제휴 활성화 프로그램 추진: 한화손해보험, YES24, 볼보코리아 등과 공동 마케팅 사이월드 도토리 소액기부 운영
2009	문화기부의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자선 콘서트 개최
2010	문화제휴 웹진 발행, '2011 Creative 포럼' 개최 온라인 소액기부 시스템인 '네이버 해피로그' 구축

재단의 메세나 사업이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한 것은 2012년부터다. 서울메세나사업을 전담하여 추진하는 별도의 부서(문화제휴팀)가 편제되면서, 기부금 유치뿐만 아니라 공공지원금을 통한 예술지원 외 민간기업 후원에 더해 지원금을 매칭 지원하는 **서울메세나 지원**을 신설하고, 기업의 참여를 독려했던 **서울메세나 아츠워크** 행사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예술에 대한 기부문화를 확산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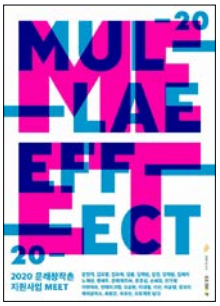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부뿐 아니라, 시민들의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2014년부터 추진한 온라인 기부플랫폼 **아트서울 기부투게더**는 서울메세나사업의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일반 시민들도 자유롭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문화예술은 삶 속에서 모두가 함께 키워가야 하는 사회적 가치이자 자산이라는 것을 인식시킨 캠페인이다. 크라운드 펀딩 기반의 문화예술지원 **소소한 기부**와 문화예술후원기금 창구인 **창창한 기부**가 개설됐고, 예술을 '살찌우다'라는 의미를 담은 8m 크기의 거대한 돼지 **미스터 기부로**라는 문화예술 후원의 가치를 상징하는 캐릭터를 개발, 시민들이 자전거로 공기를 주입해 거대한 캐릭터 인형을 완성하는 프로젝트 등을 통해 기부문화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성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연도	주요 추진 내용
2012	메세나 지원사업 신설: 기업후원금 및 재단 지원금 매칭
	서울메세나 아츠워크
2013	예술제휴 체계 수립 및 기업 제휴사업 유치 강화
	서울메세나 감사의 밤, 서울메세나 얼라이언스 구축
	㈜조아제약 〈프로젝트A〉(2013-2020): 장애아동 대상 예술교육
	서울메세나아츠위크 "광화문 문화기업벨트" 구성: "로비를 열고 예술로 채우다" 프로젝트 진행
2014	온라인 기부플랫폼 〈아트서울 기부투게더〉(2014-) - 크라운드 펀딩 문화예술지원 〈소소한 기부〉, 문화예술후원기금 〈창창한 기부〉
	예술 후원 캠페인, '미스터 기부로' 설치, 운영
	한성자동차 〈황학동 별곡〉 연계 신당중앙시장 환경개선 프로젝트

다양한 방법으로 기업의 문화제휴 및 시민의 문화기부 운동을 확산해 오면서 기업의 후원과 참여가 눈에 띄게 늘어났다. 2015년부터는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예술창작지원 사업은 물론, 지역의 문화예술 생태계 활성화, 시민 참여 프로젝트, 공공예술 프로젝트 등 문화예술의 전방위적인 부분에서 기업과 예술가, 시민이 참여하는 다각적인 협력사업이 추진되는 성과로 이어졌다.



연도	주요 추진 내용
2015	올림푸스한국㈜ 〈엉뚱한 사진관〉(2015-2019): 시민 참여 프로젝트 지원
	한성자동차 〈도시게릴라 프로젝트 in 구로〉 지원
2016	한성자동차 〈서서울예술교육센터 리모델링 연계 공공미술 프로젝트〉 지원
2017	한성자동차 〈서울거리예술축제 연계 광화문 공공미술 프로젝트(with 키프레임)〉 지원
2018	한성자동차 〈서울거리예술축제 연계 미디어 콜라쥬 프로젝트(with KompleX KapharnauM)〉 지원
	효성화학 〈굿모닝스튜디오〉(2018-2022): 장애예술인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GS홈쇼핑 〈MEET〉(2018-2021): 문래동 문화예술 생태계 활성화 지원
2019	한성자동차 〈덕수궁 돌담길 공공미술프로젝트 '소원반디'(베리어프리 캠페인 연계)〉
	신세계L&B 〈공예분야 예술지원 특화사업〉(2019-2022) : 신당창작아케이드 입주 작가들과 테이블웨어 공예·디자인 상품 개발 지원

2020	㈜더블유티씨서울 〈WTC Seoul〉: 삼성동 무역센터 미디어 송출 후원
	㈜삼육오엠씨네트웍스 '아트건강기부계단'(2020-2022): 장애예술인 이동 지원사업
	올림푸스한국㈜ 〈엉뚱한 시리즈〉: 시민 참여 프로젝트 지원
	㈜아모레퍼시픽: 〈서울미디어아트 프로젝트(SMAP)〉 공공예술사업
	신한카드 〈공연예술단체 온라인 공연 대관 지원〉(2020-2022) : 공연장 및 무대장비, 인력 지원
2021	포르쉐코리아 〈포르쉐 두 드림 사이채움〉(2021-2023): 공연장 객석 수입 지원사업
	포르쉐코리아 〈포르쉐 드림 아트 따릉이〉 : 서울시의 공공자전거 '따릉이'에 예술적 상상을 덧입힌 공공예술 프로젝트
	㈜조아제약 〈Fa:Com(빼꼼)〉(2021-): 가족 공동체를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교육 사업
	㈜아모레퍼시픽: 〈서울미디어아트 프로젝트(SMAP)〉 공공예술사업
2022	로레알코리아(법인명: 엘오케이(유))〈크리에이트 유어 뷰티(Create Your Beauty)〉(2022) : 장애예술인 친환경 예술작품 창작 지원사업
	도미노피자(법인명: 청오디피케이㈜) 'Have More Fun(즐거움)'(2022) : 시각예술 분야 신진작가 창작 지원사업
	올림푸스한국㈜ 〈감정문답〉: 서울예술교육센터 시민 참여 프로젝트(2022)
	㈜디피에스컴퍼니, ㈜엠컬쳐컴퍼니 〈연극 공연 좌석기부 프로젝트〉(2022-)
	포르쉐코리아 〈포르쉐 드리머스 온 시티 해커스〉(2022-) : 미디어아트 작품 제작 지원 및 송출 지원

그 결과 외부 재원이 꾸준히 증가한 것은 물론,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예술인들에 대한 후원이 급증하면서 가장 높은 유치실적을 보이기도 했다. 기업경영의 사회, 환경적 활동이 중요한 가치로 대두되었던 2021년부터 기업의 사회공헌팀, CSR팀이 ESG팀으로 변경, 기업의 경영방침 역시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가치 중심의 사업으로 전환되었다. 재단 역시 「2021년 문화예술분야 협력방안 모색을 위한 사회공헌활동 트렌드 분석」 연구를 추진하는 등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향을 고민해 왔다. 2022년부터는 기업의 ESG경영에 맞는 문화예술사업의 협력을 위해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최초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2023년 역시 '지속가능 사회를 위한 문화예술 협력 제안'을 주제로 기업설명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지난 11년간 기업과 협력해 온 서울문화재단의 최근 활동과 제휴사업 사례를 소개, 사회적 역할에 초점을 맞춘 협력 모델을 제시하며, 기업과의 문화제휴 활동과 협력사업을 다각적인 방법으로 모색하고 있다.

사업 추진 성과

수상기업	수상내역
올림푸스 한국	2016 서울시 민관협력 우수기관 선정 및 서울시장 표창 수상
㈜한성자동차	2017 서울시 사회공헌대상 서울시장상 수상
조아제약	2018 서울시 사회공헌대상 서울시장상 수상
신한카드	202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올해의 후원인 대상 프론티어 부문 수상
GS홈쇼핑	2020 서울시 민관협력 우수기관 선정 및 서울시장 표창 수상

효성화학	2020 서울시 민관협력 우수기관 선정 및 서울시장 표창 수상
포르쉐 코리아	202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올해의 예술후원인 대상 중견·중소기업 부문 수상
신세계 L&B	2021 서울시 민관협력 우수기관 선정 및 서울시장 표창 수상
조아제약	2022 서울시 민관협력 우수기관 선정 및 서울시장 표창
서울문화재단	대한상공회의소. 포브스 선정: 문화예술/사회공헌대상 수상
	디지틀조선일보 선정, 사회공헌대상 특별상 수상

2004-2023 외부재원 유치실적

2004-2013 외부재원 유치실적 (단위: 백만)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기부금	22	121	16,127	7,106	7,002	10,005	7	10	8	10
조건기부금	630	1,935	2,453	41	82	308	224	70	249	782
총계	652	2,056	18,580	7,147	7,084	10,313	231	80	257	792

2014-2023 외부재원 유치실적 (단위: 백만)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기부금	699	674	794	1,007	1,135	1,414	2,070	1,148	994	1,201
기타 재원	113	139	100	167	240	170	155	76	160	50
협력 협찬	161	180	217	250	351	257	91	131	163	266
총계	973	994	1,111	1,425	1,727	1,842	2,317	1,355	1,318	1,517

서울메세나 감사의 밤

굿모닝스튜디오(효성화학)

서울메세나 아츠워크

포르쉐 두 드림 사이채움 시즌3

문화제휴

× **굿모닝스튜디오(2018-), 문래창작촌 지원사업 MEET(2018-2021), 공예분야 예술지원 특화사업(2019-), 서울미디어아트 프로젝트(2020-2021), 사이채움&시티 해커스(2021-), 시각예술 분야 신진작가 창작 지원사업(2022)**

굿모닝스튜디오
- 협력기업: 효성화학㈜
- 사업기간: 2018-
- 사업장소: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 외

효성화학과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굿모닝스튜디오**는 장애 예술인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이다. 장애와 사회적 편견 등으로 창작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예술인의 예술적 역량을 강화하고, 예술가로서의 자립을 돕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장애 예술인들이 다른 작가·장르와 협업하며 예술적 확장을 모색하는 워크숍, 예술계 전문가를 통한 비평집 제작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장애 예술인들의 예술적 역량을 강화해 왔으며, 매년 대규모 기획전시를 개최하여 장애예술의 가치와 참여 작가들의 작품세계를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와 함께 48명의 장애 예술인을 지원하였으며, 총 4,635명의 시민들이 전시회를 찾았다.

문래창작촌 지원사업 MEET
- 협력기업: GS홈쇼핑
- 사업기간: 2018-2021
- 사업장소: 영등포구 문래창작촌 일대

문래예술공장과 함께 GS홈쇼핑과의 협력사업으로 추진했던 **문래창작촌 지원사업 MEET**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영등포에 위치한 자생적 예술마을인 문래창작촌을 지원한 사업이다. 지역의 예술생태계와 기관, 기업의 협력으로 문래예술창작촌의 예술가와 예술작업의 발굴, 창작지원, 지역 커뮤니티 지원, 전시 개최 등 문래동의 문화예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했다. 사업이 진행된 4년간 총 1,077명의 지역예술가가 참여하였으며, 123건의 문화예술 프로젝트를 지원, 22,194명의 시민들이 참여하는 성과를 남겼다.

공예분야 예술지원 특화사업
- 협력기업: ㈜신세계엘앤비
- 사업기간: 2019-
- 사업장소: 신당창작아케이드 외

신세계L&B와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예분야 예술지원 특화사업**은 신당창작아케이드 입주작가들 함께 도자, 유리, 금속, 목공 등 다양한 재료를 통해 테이블웨어 상품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공예 분야 작가들의 자생력 강화와 안정적인 창작 환경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작가 간 협업과 공예 세부 장르 간 융합을 바탕으로 다양한 작품의 개발을 지원한다. 또한 개발된 작품의 전시는 물론, 기업의 유통망을 통한 상품 유통까지 후속 지원하는 등 기부를 통한 예술지원-예술상품 제작-전시 및 유통이라는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만들어 가고 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공예 분야 42명의 예술가를 지원, 6,730명의 관객이 전시회를 찾았으며, 이 사업을 통해 총 9개의 개발 상품이 유통되는 실적을 보이는 등 현재까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신진작가 창작 지원사업
- 협력기업: 도미노피자(법인명-청오디피케이㈜)
- 사업기간: 2022
- 사업장소: 국내 전역

도미노피자와 협력하여 진행한 시각예술 분야 **신진작가 창작 지원사업**은 2022년 진행됐다. 'Have More Fun(즐거움)'이라는 슬로건이 담긴 신진작가의 작품을 공모, 선정하여 기업의 제품 패키지 디자인으로 활용한 프로젝트다. 회화, 디자인, 미디어, 공예 등 다양한 장르의 작가들의 관심을 받으며 200건에 가까운 작품이 접수되었으며, 최종 선정된 6개 작품(대상작 1개, 입선작 5개)이 2023년 3월까지 월 100만 판의 피자 박스에 프린트 되어 전국으로 배달됐다. 대상에 상금 500만원, 입선작 300만원의 시상금이 주어졌으며, 독특한 아이디어로 예술의 접근성을 높이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포르쉐 두 드림 사이채움
- 협력기업: 포르쉐코리아㈜
- 사업기간: 2021 - 현재
- 사업장소: 서울시 전역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감소된 공연예술 단체의 객석 수익 보전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시민들의 공연예술 향유 활성화에 기여하는 **포르쉐 두 드림 사이채움**은 포르쉐코리아와의 협력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공연 객석 수익의 일부를 지원, 77개의 공연예술 단체와 2천여 명의 예술인을 지원했다. 포르쉐코리아와 협력하는 또 다른 사업은

미디어아트 작품 제작 지원 및 송출을 지원하는 **포르쉐 드리머스 온 시티 해커스**다. 2022년 새롭게 추진된 사업으로 재단과 기업(포르쉐코리아 및 WTC Seoul)의 다자 간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통한 미디어아트 분야의 새로운 지원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예술가 최성록의 〈서울환상소경〉이 선정되었으며, 완성된 작품은 삼성동 무역센터 아티움 외벽 미디어를 통해 6주간 전시됐다.

서울미디어아트 프로젝트(SMAP)

- 협력기업: ㈜아모레퍼시픽 (설화수)
- 사업기간: 2020-2021
- 사업장소: 삼성동 코엑스,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서울미디어아트 프로젝트(SMAP)는 아모레퍼시픽의 대표브랜드인 설화수와 함께 한국 전통의 아름다움을 현대적 감각으로 표현하는 공공예술 사업이다. '전통의 현대적 재해석'을 주제로 선발된 국내 아티스트 2인의 미디어아트 작품 〈Pivotal Tree(당산나무)〉(장수호), 〈정중동(靜中動), 동중동(動中動)〉(이예승)이 한국무역협회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후원을 받아 코엑스광장 내 SM Town 외벽 미디어아티움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대형미디어 3개소에서 전시되었다. 기업(아모레퍼시픽) 및 기관(한국무역협회/인천국제공항공사)과의 다자 간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통한 초대형 미디어아트 전시로서 예술계는 물론 일반 시민에게도 큰 관심을 일으킨 사업으로 도심 속 일상에서 감상할 수 있는 개방형 전시로 운영됐다.

2022 서울미디어아트 프로젝트 선정작. 이예승. 〈정중동(靜中動), 동중동(動中動)〉

사회적 가치 실천

× **프로젝트A(2013-2020), 엉뚱한 사진관, 엉뚱한 시리즈(2015-2020), 소원반디(2019-2020), 공연예술단체 온라인 공연 대관 지원(2020), 삼성동 무역센터 미디어 송출 후원(2020-), 장애예술인 이동 지원사업(2020-2022), Fa:Com(빼꼼)(2021-), 장애예술인 친환경 예술작품 창작 지원사업(2022), 연극 공연 좌석기부 프로젝트(2022-), 감정문답(2022)**

프로젝트A

- 협력기업: ㈜조아제약
- 사업기간: 2013-2020
- 사업장소: 잠실창작스튜디오 외

조아제약과 협력한 **프로젝트A**는 2013년부터 8년간 잠실창작스튜디오(현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와 함께 예술 활동 참여가 어려운 장애아동들이 전문 예술가와의 일대일 멘토링을 통해 예술적 재능을 발굴하고 예술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공헌 프로젝트로 진행됐다. 총 40여 명의 장애아동·청소년들이 재능기부로 참여한 유명 작가 멘토들과 함께하는 멘토링, 워크숍, 작품 전시회 등을 진행, 잠재되어 있던 예술적 재능을 발현하고 미래의 예술가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2013년 1기 참여 아동이었던 신동민, 한승민 씨의 경우, 프로젝트A를 통해 시각예술 분야 작가로 데뷔, 개인전과 그룹전을 개최하는 등 예술가로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참여 아동들의 작품 전시회에는 8년간 약 8만 명의 시민들이 참여하는 성과를 남기기도 했다.

엉뚱한 사진관

- 협력기업: 올림푸스한국㈜
- 사업기간: 2015-2020
- 사업장소: 서울시 전역, 서교예술실험센터

2015년부터 올림푸스한국과 협력사업으로 추진한 **엉뚱한 사진관**은 '사진'이란 장르를 매개로 서울이라는 지역과 관련한 청년실업, 1인 가구, 최저임금, 주거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와 이슈를 예술가와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 수집하고, 그 결과물을 전시하는 시각예술 프로젝트로 운영됐다. 2020년에는 사진 매체의 틀을 벗어나 **엉뚱한 시리즈**로 사업을 확장, 팬데믹 상황으로 물리적 관계가 단절된 생활 속에서 생겨나는 새로운 사회적 이슈를 바탕으로 일상에서 겪는 어려움과 상처를 극복해 가는 과정을 시민들의 글과 그림, 예술가의 설치·영상 작품, 퍼포먼스 등으로 제작한 시민 참여형 프로젝트와 전시를 개최하며 17,208명의 시민들과 만났다.

소원반디

- 협력기업: 한성자동차㈜
- 사업기간: 2019-2020
- 사업장소: 서울시 전역

소원반디는 한성자동차와 추진한 협력사업으로 '배리어프리(Barrier Free)' 문화를 확산하고, 시민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공공예술 프로젝트로 운영된 사업이다. 2019년 배리어프리 확산에 뜻을 함께하는 5천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해 만들어진 태양광 소형등 '소원반디' 5,000개를 덕수궁 돌담길에 전시하였으며, 한성자동차가 참여 시민 수만큼 기업후원금을 매칭했다.

이 사업을 통해 재단은 2020년 국내 최초로 공연예술 분야 수어통역 전문가 양성 과정을 개발·운영하여 총 15명의 관련 전문가를 배출하는 것은 물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배리어프리 공연 지원, 공연예술 관련 배리어프리 확산의 필요성을 알리는 영상 등을 제작, 배포하는 사업을 발전시켰다.

공연예술단체 온라인 공연 대관 지원

- 협력기업: 신한카드㈜
- 사업기간: 2020 (공연운영: 2020. 5-6월)
- 사업장소: 신한카드 판스퀘어

코로나19로 창작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연예술 분야의 온라인 작품 제작을 지원한 **공연예술단체 온라인 공연 대관 지원**은 신한카드의 협력사업으로 추진됐다. 신한카드가 운영 중인 '신한카드 판스퀘어' 공연장과 무대장비, 인력을 무료로 제공한 사업으로, 공연예술 단체들의 무관중(Untact) 온라인 공연과 온라인 콘텐츠 제작, 유튜브 송출을 지원했다. 사업기간 동안 연극, 전통예술, 대중음악, 클래식, 무용, 재즈, 월드뮤직, 다원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13개 단체의 작품이 사업에 참여했다.

삼성동 무역센터 미디어 송출 사업

- 협력기업: ㈜더블유티씨서울
- 사업기간: 2020-
- 사업장소: 삼성동 무역센터 일대

삼성동 무역센터 미디어 송출 사업은 2020년부터 WTC Seoul과 협력하여 재단이 지원하고 제작한 예술작품과 사업홍보 영상 송출을 연중 후원하고 있는 사업이다. 2022년 WTC Seoul이 포함된 무역센터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민관합동협의회가 주최한 '2022 서울미디어아트위크' 행사에 유일한 문화예술 분야 공공기관 파트너사로 참여하는 등 재단은 삼성동 무역센터 일대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내 총 57개 실내외 외벽 미디어에 재단 지원사업을 통해 선정된 5개의 미디어아트 작품을 선보이는 등 다양한 홍보 후원사업으로 확장하고 있다.

장애예술인 이동 지원사업

- 협력기업: ㈜삼육오엠씨네트웍스
- 사업기간: 2020-2022
- 사업장소: 서울문화재단 운영 공간 4개소

㈜삼육오엠씨네트웍스, 서울교통공사와 함께 운영한 **장애예술인 이동 지원사업**은 '아트건강기부계단'을 통해 조성된 기부금을 재단에 기부, 장애 예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추진한 시설물 설치 사업이다. 지하철 7호선 강남구청역에 설치된 아트건강기부계단을 이용하는 시민 1명이 계단을 이용할 때마다 ㈜삼육오엠씨네트웍스에서 기부금 20원씩을 적립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이렇게 조성된 기부금을 통해 서울문화재단 본관,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 서울문화재단 대학로센터, 서울연극센터 등 재단이 운영 중인 예술공간에 장애예술인들을 위한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를 설치, 장애예술인의 접근성 향상과 배리어프리 문화확산에 기여한 사업이다.

Fa:Com(빼꼼)

- 협력기업: ㈜조아제약
- 사업기간: 2021-
- 사업장소: 서서울예술교육센터 외

서울 지역 내 가족 공동체를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교육 사업인 **Fa:Com(빼꼼)**은 서서울예술교육센터와 조아제약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가족 소통 프로젝트다. 코로나19 확산과 장기화로 인해 소통이 어려워진 가족과 지역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기획된 사업으로 가족의 작은 시도와 활동이 모여 지역과 세상을 밝게 비춘다는 의도를 담았다. 가족과 함께하는 다양한 예술교육 워크숍 프로그램, 참여 가족들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 제작, 사업결과 전시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일부 작품은 조아제약과 제휴를 맺은 약국의 탁상 캘린더 디자인에 활용되고 있다.

장애예술인 친환경 예술작품 창작 지원사업

- 협력기업: 로레알코리아 (법인명: 엘오케이(유))
- 사업기간: 2022
- 사업장소: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 외

로레알코리아(법인명: 엘오케이(유))와 서울장애예술인창작센터가 협력하여 추진한 **장애예술인 친환경 예술작품 창작 지원사업**은 국내 장애예술인을 대상으로 친환경을 주제로 한 창작 예술작품 공모전 '크리에이트 유어 뷰티(Create Your Beauty)'를 운영, 이를 통해 6인의 장애예술인을 선정했다. 이후 본 공모전에서 선정된 작품들로 이뤄진 기획전시를 롯데백화점 명동점에서 개최하고, 우수 작품 2점은 로레알코리아의 제품 패키지 박스 디자인으로 활용했다. ESG 지속가능경영 가치에 기반한 친환경적 가치(Environmental)를 주제로 장애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사회적 가치(Social)를 지닌 사업으로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이 협력해 추진한 우수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연극 공연 좌석기부 사업

- 협력기업: ㈜디피에스컴퍼니, ㈜엠컬쳐컴퍼니
- 사업기간: 2022-
- 사업장소: 대학로 인근 극장 2개관

DPS컴퍼니&M컬쳐컴퍼니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연극 공연 좌석기부 사업**은 DPS컴퍼니에서 진행하는 연극 〈운빨로맨스〉의 회차별 VIP석 2석과 M컬쳐컴퍼니에서 진행하는 연극 〈라면〉의 회차별 VIP석 4석을 지정 기부 좌석으로 운영, 판매 수익 전액을 문화예술계를 위한 기부금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예술계 스스로 문화예술계를 위해 기부금을 조성한 특별한 사례로서, 해당 기부좌석을 할인가로 판매하여 관객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것은 물론, 시민들의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본 프로젝트를 통해 모금된 기부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공연예술계 지원에 사용되고 있다.

감정문답

- 협력기업: 올림푸스한국㈜
- 사업기간: 2022
- 사업장소: 서울예술교육센터

감정문답은 예술을 매개로 회복과 연결의 경험을 공유하는 서울예술교육센터와 올림푸스한국이 함께 추진한 시민참여 프로젝트다. 올림푸스한국의 대표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고잉 온(Going-on) 캠페인**과 연계, 23명의 암 경험자들이 참여하기도 한 감정문답은 국내 웹아트 1세대로 불리는 설은아 작가의 〈Reflection: 내 마음을 비추는 순간〉이라는 참여형 설치 전시를 통해 암 투병, 코로나19 팬데믹 등을 겪으며 시민들이 느끼는 외로움, 고립 등의 정서적 감정과 단절된 사회관계를 회복하는 경험이 예술적으로 표현된 전시로 운영됐으며 총 1,375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Fa:Com(빼꼼) (조아제약)

소원반디(한성자동차)

온라인 공연 지원사업 공연 현장(신한카드)

엉뚱한 사진관(올림푸스)

'크리에이트 유어 뷰티' 공모전 시상식(로레알코리아)

서울메세나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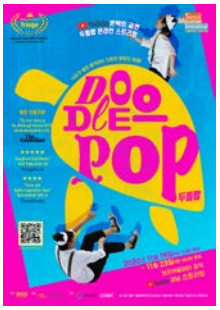
+ 2012-
÷ 제휴협력팀

서울메세나 지원은 2012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재단의 대표적인 제휴사업 중 하나다. 공모를 통해 공연, 전시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젝트를 준비 중인 문화예술 단체와 예술지원을 통한 사회공헌에 관심 있는 기업을 선정,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예술생태계의 기반을 다지는 기업-예술인 매개 지원이다. 매년 기업의 기부가 확정돼 있고, 서울에서 발표할 예정인 연극, 무용, 음악, 전통, 다원, 시각, 문학 등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예술단체를 대상으로, 선정된 예술단체의 프로젝트에는 후원 기업의 기부금과 함께 서울문화재단의 지원금(최대 2천만원 이내)을 추가 매칭, 기업의 문화예술 기부문화 활성화는 물론 우수한 예술단체의 창작 역량 강화를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서울메세나 지원 유형 변화

연도	사업유형	비고
2012-2015	- 매칭기금 지원형 - 프로젝트 지원형	- 작품지원 - 공익형 문화예술 프로젝트 지원
2016-2020	- 매칭지원(일반공모) - 기업특화형(스페셜 트랙 운영)	- 작품지원 - 한국무역협회(공연예술): 기금 외 코엑스 공연장 무상 지원
2021-	일반공모	작품지원

서울메세나 Brand Six(2013)	
에이블 메세나	장애를 가진 예술가들의 전문 창작활동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예술교육활동 지원
뉴 아트 메세나	퍼포먼스 혹은 실험과 예술 경계에 있는 분야(서커스, 댄스스포츠, 미디어아트 등)를 예술장르로 개발하는 사업 지원
힐링 메세나	수험생, 직장인 등 경쟁과 스트레스에 지친 이들을 위한 예술 프로그램 지원
그린 메세나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예술 인프라 구축, 환경을 주제로 하는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실버 메세나	장·노년층 및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예술교육사업 및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
영 메세나	



'공공-민간 파트너쉽을 통한 문화예술진흥을 장려'한다는 목적으로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이 공동으로 추진한 서울메세나 지원사업은 2012년 9월 시작했다. 기업의 참여와 사업의 확장을 위한 캠페인으로 2012년 11월 '서울메세나 아츠워크(Arts Walk)' 론칭 행사를 개최하였고, 31개 기업과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가 참여하며 서울메세나 지원사업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기업의 참여를 독려, 사업 첫해인 2012년 **매칭펀드 지원형**으로 7개의 예술단체가 기업과

2020 서울메세나 지원사업 선정작 〈라스트 세션〉

매칭·지원되었고, **프로젝트 지원형**으로는 6개의 공익형 문화예술 프로젝트가 선정되며 사업을 시작했다.

2013년에는 메세나 우수사례 발굴 및 문화예술 창작과 향유 활동을 유형화한 6개의 공익형 문화예술사업, **서울메세나 Brand Six**로 브랜드화해 예술의 사회적 가치 및 역할 확장을 시도하기도 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매칭기금형과 프로젝트 지원형으로 총 86개 기업을 매칭하고, 80여 팀의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한 성과를 냈던 서울메세나 지원사업은 2016년 일반공모를 통한 매칭기금 지원형 외에 재단이 직접 기업을 섭외하여 운영한 **스페셜 트랙**을 추가 신설했다. ㈔한국무역협회의 후원으로 진행된 스페셜트랙은 연간 2개 단체를 선정하여 2천~3천만원의 제작지원금은 물론 코엑스 공연장을 무상 제공하여 예술단체의 창작활동을 지원한 유형으로 2020년까지 5년간, 사업유형에 적합한 공연예술단체 10여 개를 지원하기도 했다.

2021년부터는 일반공모 유형으로 집중했다. 예술단체의 프로젝트(작품)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며, 연간 25건 내외의 공연예술단체와 기업을 매개하는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 재단에서 운영하는 타 사업과 달리 2012년부터 지난 12년 동안 일관된 정책 방향을 갖고 확장되어 온 서울메세나 지원사업은 그간 약 280개의 기업이 참여, 약 285개의 예술단체를 지원하는 성과를 가져오는 등 기업의 사회 환원을 통해, 예술단체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가 확장되는 선순환 구조의 역할을 하며 성장하고 있다.

2012-2023 서울메세나 지원 추진실적

연도	후원기업	예술단체	기업 기부금	재단 지원금	총예산
2023	27	27	450,000,000	340,000,000	790,000,000
2022	27	27	412,000,000	340,000,000	752,000,000
2021	26	26	438,000,000	316,000,000	754,000,000
2020	21	20	419,030,000	270,300,000	689,330,000
2019	24	25	448,830,000	303,000,000	751,830,000
2018	22	23	379,040,000	330,000,000	709,040,000
2017	23	23	365,000,000	325,000,000	690,000,000
2016	25	25	438,000,000	390,000,000	828,000,000
2015	24	24	328,000,000	280,000,000	608,000,000
2014	23	23	276,000,000	397,000,000	673,000,000
2013	29	29	300,000,000	500,000,000	800,000,000
2012	10	13	180,000,000	330,000,000	510,000,000

아트서울 기부투게더

× **소소한 기부(2014-2022), 만만한 기부(2014-2022), 창창한 기부(2014-2022), 미스터 기부로(2014-), 소원반디(2019)**
÷ **제휴협력팀**

광역문화재단으로서는 최초로 진행한 문화예술 크라우드 펀딩형 기부플랫폼 **아트서울 기부투게더**는 작지만 의미 있는 소규모 예술 프로젝트부터, 공공예술, 문화도시 사업까지 기부를 통해 나눔을 실천하는 서울문화재단의 예술기부 브랜드다.

2014년 11월, 기업의 기부문화 확산 뿐 아니라, 예술가와 시민 누구나 손쉽게 기부에 참여하고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마련된 온라인 플랫폼으로 확장, 문화예술 프로젝트에 대한 소액 기부인 소소(少笑)한 기부, 만원으로 사회를 치유하는 예술에 참여하는 만만(滿萬)한 기부, 문화재단과 특정 사업에 기부하는 창창(昌暢)한 기부 등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2014 온라인 기부플랫폼, 아트서울 기부 투게더 유형

- 소소한 기부: 연 2회 공모를 통해 단기형 소액기부형 문화예술 프로젝트 지원
- 만만한 기부: 만원으로 참여하는 공공 문화예술 프로젝트 지원
- 창창한 기부: 재단의 순수기부금 활용 시민들의 문화향유, 예술교육, 예술창작

소소한 기부는 소규모의 개성 있는 문화예술 프로젝트에 재정적 도움을 제공하고자 만들어진 크라우드 펀딩형 기부 프로그램이다. '작은(小) 힘을 모아 예술가를 웃음(笑) 짓게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시민들은 3천원부터 10만원까지 소액으로 모금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다. 주요한 특징은 1과 1/2 매칭 시스템이라는 차별화된 방법으로 예술 프로젝트를 추가 지원했다는 데 있다. 최대 150만원의 목표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액만큼, 목표 금액을 달성만 해도 달성액의 1/2만큼을 재단에서 추가하여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2014년 개설 당시, 예술가의 프로젝트를 시민들이 지원하는 방식이었으나 2017년부터는 예술가뿐 아니라 다양한 예술 활동을 하는 시민들의 프로젝트도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 운영했다.

만만한 기부는 만원으로도 참여할 수 있는 기부 프로그램이다. 장애아동을 위한 예술교육이나 어린이 병원으로 찾아가는 전시 등 소외계층을 돕고 사회를 치유하는 공공 문화예술 프로젝트에 만원 단위로 기부할 수 있도록 운영했다.

창창한 기부는 서울문화재단의 순수기부금으로써 서울시민을 위한 문화향유와 예술교육 사업 운영, 예술가들의 예술창작지원 등을 지원하는 기부활동이다. 기업과의 협력사업을 통한 문화제휴 사업으로 확장되어 다양한 장르와 분야의 예술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 이처럼, 소소·만만·창창한 기부 사업은 2014년 시작된 아트서울 기부투게더의 핵심사업으로 진행된 문화기부 확산 캠페인으로 2022년 종료될 때까지 9년 동안 문화예술의 저변을 확장하고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예술생태계를 조성하는 기회를 마련했다.

기부로 아트모금함

참여작가	작품명
홍원표	돈워리 비해피
아트놈	돈조마니
라오미	수호돈_지켜주면돼지
신동민	갈라 동물원
찰스장	마릴린 돈너
김태중	힘을내용 슈퍼소울
김서진	돈벼락 복벼락

펀펀기부의 한 형식이었던 **미스터 기부로**는 아트서울 기부투게더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기획된, 문화예술 후원을 상징하는 캐릭터다. '예술을 살찌우는 돼지'라는 의미를 담고 제작된 8m의 초대형 공공미술 프로젝트로 2014년 팝아티스트 아트놈에 의해 디자인됐다. 21명의 시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해 대형 풍선에 공기를 주입하여 완성하는 퍼포먼스로 첫 사업을 시작한 이후, 2016년 일러스트레이터 이철민의 '시민 기부로'로 재탄생됐다. 총 7인의 팝아티스트들이 7개의 모금함을 제작, 2015년 진행된 하이서울페스티벌 개막과 함께 선보이는 등 기부문화 확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2019년 예술후원 캠페인이자 공공예술 프로젝트로 진행된 **소원반디**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은 모두의 예술'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진행된 시민 참여 캠페인으로 진행됐다. 배리어프리 문화확산에 동참하는 5천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하여 태양광 충전으로 스스로 충전/발광하는 소형등을 제작, 1개당 1만원의 후원금이 배리어프리 공연제작을 위해 지원되는 성과를 보여준 캠페인으로 남아있다. 마찬가지로 2019년 진행된 **스테이 스트롱(Stay Strong)**는 버드와이저가 코로나19 사태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젊은 아티스트를 응원하기 위해 창작집단 스튜디오 콘크리트와의 협업으로 한정판 티셔츠를 제작, '카카오 선물하기'를 통해 판매한 이후, 판매금 전액과 추가로 동일한 모금액을 매칭 방식으로 재단에 기부한 사업이다.

아트서울 기부투게더 추진 경과

연도	주요내용
2014	온라인 기부 플랫폼 〈아트서울 기부투게더〉 런칭 및 운영 - 소소한 기부, 만만한 기부, 창창한 기부 개설
2015	팝아트 작가(아트놈)와 함께 캐릭터 '미스터 기부로' 제작 초대형 공공미술을 통한 캠페인 본격 운영
2016	디자인 리뉴얼, 캐릭터 확장 개발, 유관 축제에 캠페인 부스 참여(한강몽땅 여름축제, 서울거리예술축제)
2017	오프라인 캠페인(아시테지, 코엑스페스티벌, 서울거리예술축제) 부스 참여, 문화철도사업(지하철 광고사업)과 연계하여 캠페인 광고 진행
2018	대규모 시민 참여 행사(서울거리예술축제)와 연계한 체험 중심의 캠페인 운영, [문화+서울] 후원기업 CEO 연재
2019	〈소원반디〉 연계, 배리어프리 문화확산 캠페인 운영 〈스테이 스트롱(Stay Strong)〉 연계, 젊은 아티스트 지원
2020	예술후원 DIY 키트 개발 아이디어 공모
2021	기업의 문화예술 후원 유형과 재단 사업 매칭하는 레이블링 게임 개발 - 문화예술분야 최초 기업설명회 운영
2022	온라인 기부(소소, 창창, 만만) 사업 종료

미스터 기부로 모금함

6.3.3.

홍보마케팅

- 통합 홍보
- 문화+서울
- 정보화

통합 홍보

+ 2004-
÷ 홍보마케팅팀

언론홍보&뉴미디어

서울문화재단은 2004년 출범 이후부터 기관의 인지도를 높이고 서울시민을 위해 펼치는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 사업을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해 왔다. 재단 설립 3년 차에 접어든 2007년부터 재단 사업 체계가 안정화됨에 따라 보다 효과적이고 통합적인 홍보 전략이 필요해졌다. 이에 따라 홍보 역량 강화를 위해 언론홍보 등을 포함해 기관 통합 홍보 체계를 수립했으며, 2009년에는 홍보 매체를 다각화하고 시민과의 접점을 확대하기 위해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재단 공식 블로그를 개설했다. 2014년에는 제7회 대한민국인터넷소통대상 소셜미디어 대상을 수상하며 공공 기관 SNS 활용에 있어서의 선도적인 역할을 인정받았다. 이후에도 시민과 예술가 가까이에서 소통하고 문화예술 정보와 이슈를 빠르고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플랫폼을 다양화해서 운영했다. 시민이 직접 참여해 양질의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온라인 전용 채널을 개설해 생생한 현장을 영상을 통해 전달했다.

2022 신년 기자간담회

서울문화재단에서는 다매체·다채널 환경에 맞는 언론홍보 전략에 따라 신문, 방송, 라디오 등 매체를 통한 통합 홍보 시스템 구축하고, 주요 사업별로 기자간담회, 설명회를 개최하며 맞춤형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있다. 재단 공식 온라인 채널로는 네이버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이 있으며, 이외에도 재단 대표 영상 플랫폼 '스팍TV'를 공식 유튜브 채널과 네이버TV에 운영하며, 행사 생중계, 현장스케치, 숏폼 등 다양한 포맷의 콘텐츠를 제작해 업로드하고 있다.

구분	보도자료 배포	보도 실적	뉴스레터 구독자	온라인 홍보 채널 콘텐츠 발행
2007	57건	238건	-	-
2008	68건	1,272건	-	-
2009	60건	1,288건	-	-
2010	72건	1.373건	-	-
2011	76건	1,799건	-	-
2012	52건	2,190건	-	-
2013	92건	2,012건	-	-
2014	107건	3,304건	-	-
2015	124건	5,402건	-	-
2016	141건	5,711건	74,638명	-
2017	121건	6,813건	84,000명	-
2018	98건	7,428건	87,700명	-
2019	137건	6,942건	85,200명	-
2020	105건	8,609건	89,732명	1,404건
2021	99건	9,632건	91,772명	1,587건
2022	88건	8,696건	99,540명	1,683건
2023	89건	11,002건	105,154명	1,658건

온라인 홍보 채널 운영 현황

	네이버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팍TV	
				유튜브 채널	네이버TV
개설일	2009.11.19.	2012.03.07.	2015.04.	2013.03.15.	2017.10.31.
운영 현황	이웃 41,838명, 누적 방문자 수 88만명 이상, 누적 게시글 6,000개 이상 등	팔로워 7.7만명 이상, 누적 좋아요수 7.5만개	팔로워 5.7만명 이상, 누적 포스트 3,000개 이상	구독자 10,000명 이상, 동영상 3,000개 이상, 전체 213만 뷰 이상	구독 1,000명 이상, 동영상 780개 이상
URL	blog.naver.com/i_sfac	facebook.com/sfac2004	hinstagram.com/sfac2004	youtube.com/@sfacmovie	tv.naver.com/sfacmovie

시민기자단
(2011-)

서울의 문화예술 소식을 시민의 입장에서 취재하고 전달하는 서울문화재단 공식 **시민기자단**은 2011년 10월 1기부터 활동을 시작했으며, 2023년 기준 13기가 활동하고 있다. 2022년 12기부터는 **스팍기자단**으로 이름이 변경되었다. 매년 초 시민기자단을 선발(연속 활동 가능)하며, 1기 10명에서 출발해 9기부터는 5명 내외를 선발하고 있다. 재단 공식 블로그에 소개할 취재기사 또는 기획기사 등 월 1건 이상의 기사를 작성하고 서울문화재단 공식 SNS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재단의 행사나 사업 소식을 시민들에게 친근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재단을 가까이에서 접하며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인만큼 재단 입사를 꿈꾸는 대학생의 지원이 많았으며, 실제 재단에서 일하거나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시민기자도 있다.

시민PD
(2017-2021)

시민PD(아무나 PD, 시민 크리에이터)제도는 청년 문화 크리에이터의 활동을 지원해 양질의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확산하기 위해 운영되었다. **시민PD**는 생활 속 문화예술 정보를 창의적인 영상 콘텐츠로 만들어 재단 온라인 채널을 통해 소개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2017년에는 1기와 2기 44명이 활동하며 615편의 영상을 제작했으며 작품당 30만 원의 활동비를 지원했다. 2018년에는 시민PD 3기 15명이 활동했으며, 서울산업진흥원(SBA)과 MOU(2018.07.09.)를 체결해, SBA에서 운영하는 미디어콘텐츠센터 시설을 활용해 영상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게 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동안은 서울의 문화예술 현장의 콘텐츠를 발굴하고 영상으로 제작해 시민에게 소식을 전하는 **청년 크리에이터**를 35명 내외로 선발해 편당 50만 원의 영상 제작비와 함께 역량 강화 교육, 전문가 멘토링을 지원했다.

서울예술인희망캠페인
(2022-)

서울문화재단은 예술지원사업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서울에서 활동하는 예술가의 소식을 폭넓게 소개해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홍보 캠페인을 시작했다. 2022년에는 주요 포털 사이트와 앱에 배너 광고를 집행해 홍보 효과와 함께 시민들의 재단에 대한 관심도를 함께 높였다. 2022년 6월 재단 누리집 내 문화계소식 게시판을 개편해 홍보 플랫폼 **오늘의 서울**을 오픈하고 서울에서 활동하는 예술인과 예술단체 누구나 문화예술행사 정보를 직접 등록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에 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매체(월간지[문화+서울], 유튜브 채널, SNS 등)를 통해서도 전시, 공연, 행사를 적극 홍보했다.

문화+서울

× 문화예술정책 간행물 발간(2005-)
÷ 홍보마케팅팀

[문화+서울] 창간호(2005년 5월)

[문화+서울] 2008년 3월호

2005년 창간된 서울문화재단 월간지 [문화+서울]는 재단 소식과 국내외 문화예술계 최신 동향을 수록해 시민에게 재단을 홍보하고 문화예술 정보를 제공하는 정기간행물이다. 서울시 유관기관, 재단 운영 공간. 주요 문화시설 등을 통해 문화예술계 관계자와 시민에게 무료로 배포하며 재단의 다양한 활동을 알리는 홍보 창구 역할을 한다.

[문화+서울]은 2005년 6월 서울시 문화예술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다양한 담론을 형성하는 정책 무크지로 창간되었으며, 전문 정책지와 정보지의 성격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상·하반기 연 2회, 총 4호까지 발간되었다. 이후 2007년 7월호(5호)부터 월간지로 전환되면서 단순히 재단 사업을 소개하는 기관지가 아닌 문화예술계 최신 정보와 콘텐츠를 전달하는 소식지역할을 하게 되었다. 2010년 3월호부터는 재단에서 지원하는 예술가, 입주작가의 작품으로 표지를 디자인해 홍보 측면에서 간접 지원하고자 했다. 2013년에는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브랜드마케팅 협회장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온라인 환경 변화에 따라 2013년 8월 오프라인 잡지와 동일한 콘텐츠로 구성된 웹진을 시작으로 재단 공식 블로그 등 배포 수단을 다양화하고 콘텐츠를 확산했다. 이 시기에는 대대적인 개편을 통해 시의성 있는 문화예술계 주요 이슈와 쟁점을 다루는 전문 시사지로서 또 한 번 역할 변화를 꾀했다. 한때 호당 88페이지로 구성해 월 10,000부씩 발행했던

연도	주요 변화	발행호	총 발행부수
2005	6월 창간(무크지, 반년간지)	1-2	4,000
2006	연 2회 발행(반년간지)	3-4	4,000
2007	월간지 전환(7월호)	5-10	30,000
2008	캘리그라피 제호 적용(3월호)	11-22	67,000
2009		23-34	76,000
2010	지원 작가 작품 표지(3월호)	35-46	82,000
2011		47-58	94,000
2012		59-70	96,000
2013	웹진 서비스 오픈(8월호)	71-82	96,000
2014		83-94	96,000
2015	100호 발행(6월호)	95-106	96,000
2016		107-118	116,000
2017		119-130	120,000
2018		131-142	120,000
2019		143-154	100,000
2020		155-166	86,000
2021		167-178	72,000
2022	현장 사진 표지(3월호)	179-190	52,000
2023	200호 발행(10월호)	191-202	38,000

더 보기

[문화+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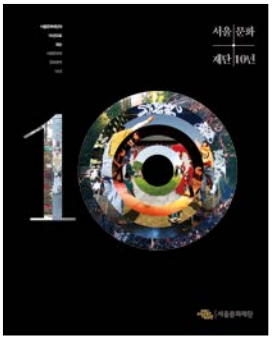
- 2015년 6월호 100호 특집
- 2023년 10월호 200호 특집

[문화+서울]은 2020년 이후 또 다른 변화의 기로에 선다. 2013년 웹진 구축 때와 비교해 폭발적으로 늘어난 인터넷 사용량과 예산 삭감 등을 이유로 수많은 문화예술 공공 기관의 간행물이 잠정 휴간 또는 폐간에 들어간 것이다. [문화+서울] 역시 이 시기 발행주기 변경, 온라인 완전 전환, 폐간 등을 놓고 고민했으나, 현재 발행부수와 페이지 수를 축소해 문화예술 공공 기관 월간지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으며 2023년 10월 200호를 발간하기에 이르렀다. 2005년 1호부터 2023년 12월호까지 총 1,445,000부가 발행된 [문화+서울]은 앞으로도 분야별로 전문성 있는 다양한 필진을 확보하고, 재단 주요 사업을 비롯한 서울 안의 문화예술 소식, 해외 문화예술계 동향, 유명 예술인 인터뷰 등을 통해 폭넓은 문화예술 정보를 서울시민에게 제공해 나갈 것이다.

서울문화재단 발행 백서&연차보고서

월간 [문화+서울] 이외에 재단 전체 사업의 연간 운영 현황과 결과를 자세히 기록한 연차보고서(2015, 2021, 2022)는 총 3회 발행되었다. 백서 형태로는 초기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운영 내용을 담은 3개년 백서, 이후 2년을 묶은 「서울문화재단백서 0708」을 발간한 이후 10주년 기념 「서울문화재단10년」 백서가 발간된 바 있다.

- 서울문화재단백서 2004-2006
- 서울문화재단백서 0708
- 서울+문화+재단+10년
- 2015 서울문화재단 연차보고서
- 2021 서울문화재단 연차보고서
- 2022 서울문화재단 연차보고서



2010년 3월호

2015년 6월호(100호)

2023년 10월호(200호)

정보화

÷ 정보관리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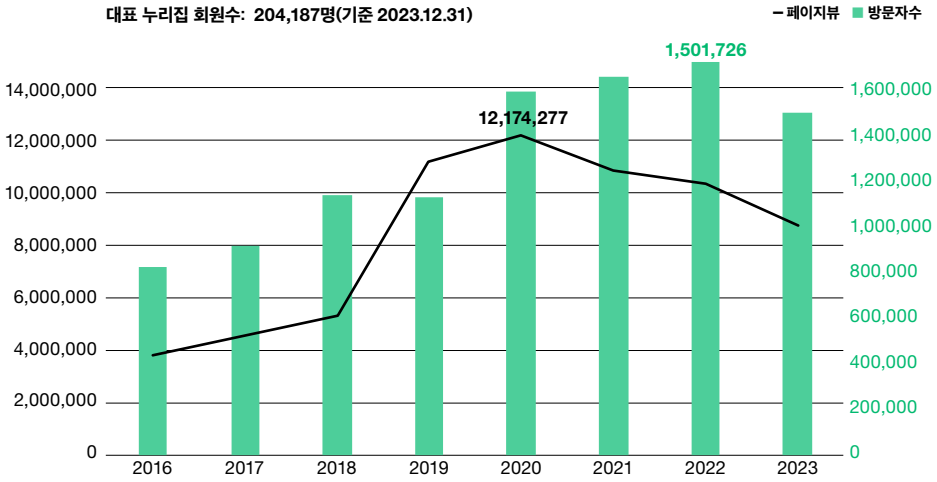
서울문화재단은 2004년 출범 시부터 대표 누리집을 비롯해 다양한 온라인 문화정보 플랫폼을 구축하고 운영해왔다. 2004년 재단 출범식에 맞춰 임시 누리집을 구축해 재단 관련 기본 정보와 문화예술정보 서비스를 시작했고 2005년 콘텐츠 개발과 누리집 전면 리뉴얼을 추진했다. 2009년 창작공간이 문을 열고 개별 사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다수의 사업별 누리집이 운영되기 시작했다. 광역 최초로 '서울문화예술지원시스템(SCAS)'을 별도로 구축해 시민과 예술가가 원하는 맞춤형 문화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예술가와 시민, 자치구와 편하고 효율적으로 소통하고자 한다.

대표 누리집

서울문화재단 대표 누리집(www.sfac.or.kr)을 정기적으로 리뉴얼하며 사용자 중심의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다. 2009년에는 서울시 출연기관 최초로 서울시 통합 홈페이지 회원이 별도 가입 없이 재단 회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SSO기능을 적용했다. 2023년에는 대표 누리집이 '웹어워드코리아 2023' 문화 분야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대표 누리집과 별도로 구축 운영했던 **Arts@Net(2004-2009)**은 서울의 예술가, 문화공간, 문화시설, 예술단체, 월별 문화 행사, 무료 문화 프로그램 등 문화예술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플랫폼이었다. 2009년부터 대표 누리집으로 통합·운영되었으며, 2023년에도 '정보공유' 메뉴의 서울예술인희망캠페인과 연계한 '오늘의 서울', '자치구문화소식' 등을 통해 소식을 전하고 있다. 누구나 유용한 정보를 직접 등록하고 공유할 수 있다. 모바일 시대에도 발 빠르게 대응해 2011년 **대학로 공연정보 앱(App)**을 시작으로,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알찬 문화정보를 제공하는 **무료 문화정보 앱**, 서울시내 다양한 공공미술 작품을 지리 정보와 함께 제공하는 **공공미술산책 앱(2015)**을 개발한 바 있다.

대표 누리집 회원수: 204,187명(기준 2023.12.31)



서울문화재단 정보화 사업 흐름(2004-2023)

연도	주요 내용
2004	서울문화재단(sfac.or.kr), Arts@Net, 서울열린극장 창동 누리집 구축
2006	서울시창작공간(seoulartspace.or.kr), 남산예술센터(nsartscenter.or.kr) 누리집 구축
2007	서울연극센터(e-stc.or.kr) 누리집 구축
2009	서울문화재단 대표 누리집으로 Arts@Net 통합, 재단 누리집 통합회원제 운영
2010	대표 홈페이지 웹 접근성(WA) 품질인증 마크 인증 취득
2011	모바일 서비스 시작 '대학로 공연정보', '무료 문화정보' 모바일 앱(App) 서비스 오픈
2013	서울댄스프로젝트, 메모리[人]서울 누리집 구축
2014	아트서울 기부투게더, 도시게릴라 프로젝트, 서울창의예술학교 누리집 구축 모바일 웹(Web) 서비스 확대(아트서울 기부투게더, 메모리[人]서울)
2015	서울축제지원센터 누리집 오픈 공공미술산책 모바일 앱(App) 서비스 오픈
2016	대표 누리집 메인 페이지 리뉴얼, 영문 누리집 전체 리뉴얼 웹진 [춤in] 신규 구축
2017	제14회 웹어워드 코리아 공공기관 분야 최우수상 수상
2018	2018 앤어워드(&어워드) 공공서비스부분 위너 수상
2019-2020	특성화 누리집 통합(11개)
2021	대표 누리집 메인 개편 서울문화예술지원시스템(SCAS) 서비스 구축 및 운영 시작
2022	서울스테이지11, 아트페스티벌서울, 서울예술인NFT 마이크로사이트 구축 및 운영 대표 누리집 메인 화면 개편, 서울문화예술지원시스템(SCAS) 회원 통합
2023	대표 누리집 '웹어워드코리아 2023' 문화 분야 대상 수상

서울문화재단 대표 누리집 2016년

서울문화재단 대표 누리집 2023년

서울문화예술지원시스템 (SCAS)

서울문화재단은 2004년 출범 이래 예술지원 체계와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해마다 규모가 커지는 예술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산 시스템을 유지·보수해왔다. 2009년 9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www.ncas.or.kr) 구축과 관련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MOU를 체결하고, 2010년 상반기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시스템(sfac.artskorea.or.kr)을 도입해 운영했다.

현장의 예술가들은 그동안 지원사업 공모에 참여하려면 'e나라도움'과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사용해 왔으나, 분야와 지역 특성을 살린 시스템이 필요성하다는 의견을 내왔다. 이에 따라 광역 단위 최초로 서울의 문화예술인에게 특화된 **서울문화예술지원시스템**(SCAS, Seoul Culture and Arts Support System, www.scas.kr)을 신규 구축해 2021년 2월 22일 서비스를 시작했다. 실제 지원 시스템을 이용하는 예술가의 의견을 수렴해 기존 시스템의 한계를 보완했다. 매년 130억 원 규모로 추진해 온 재단의 모든 예술지원 사업을 한눈에 살펴보고 지원 신청부터 보조금 교부, 정산, 성과보고 작성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은행 정보와 연동한 교부금 통합 관리와 정산, 원천세 자동계산, 온라인 서류 발급, 자주 쓰는 메뉴 재구성 등 편리한 서비스는 스마트폰 전용 **서울예술지원 앱**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2021년 서비스 시작 이후 공간별 입주작가 신청도 가능하게 범위를 확장하고, 재단 누리집과 SCAS 회원을 통합해 1개의 아이디로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개선했으며, 장애인 접근성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더 보기
서울문화예술지원시스템

종합 대담

예술+문화+서울

20년을 되돌아보며, 20+를 그리다

일시: 2024년 2월 26일 (금)

대담: 김영호(예술창작본부장)
백승우(경영본부장)
임미혜(문화진흥본부장)
정일한(정책협력실장)
한지연(문화사업실장)

진행: 김해보(정책협력실 전문위원)

#1

김해보 각자 재단 안에서 20년 동안 거쳐 온 경로를 주마등처럼 되돌아보면서 얘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백승우 사람들은 제가 경영 파트에 오래 있었다고 오해하지만, 실제로 계산을 해보니 사업부서 '8', 경영기획파트 '2' 정도의 비율로 근무를 했더군요. 창작공간추진단 총괄팀장도 했고, 극장운영팀 빼고는 모든 부서를 겪어봤습니다.

한지연 예술지원으로 시작해서, 예술교육 그리고 여러 문화사업 파트를 다 경험했네요. 특히, 문화사업과 국제교류가 제휴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해외, 기업 등과 협업하는 제휴 업무를 가장 많이 한 것 같아요

임미혜 재단에 오기 전에는 극장에서 일했어요. '재단에 오면 예술가를 지원하는 일을 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대부분 문화사업이더라고요. 예술교육 파트에 가장 오래 있었던 것 같아요.

김영호 2003년 당시에 나름 '벤처'라고 사업을 하던 중, 매우 어려운 시기를 겪었어요. 그때 재단 창립 채용 공고를 마지막 희망처럼 봤어요. 지금까지 문화사업, 예술지원에서 경영파트, 감사까지 거의 모든 부서를 거쳤습니다. 그러고 보니 예술교육 실무는 못해봤네요.

#2

김해보 그 경로 위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사업이나 장면을 소개해주세요.

백승우 저는 2009년에 갑자기 축제팀으로 발령을 받았어요. 하이서울페스티벌 사계절 축제 예산이 100억이 넘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런데 전과 달리 총괄 대행사를 쓰지 않고 직원들이 직접 집행하게 했죠. 너무 바쁘다보니 예산은 이미 집행이 되어 있고,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축제담당부서 전 직원이 감사에서 징계를 받았어요. 저는 조직 차원에서 책임을 져주기를 기대했는데 그렇지 않아서 화가 났어요. 그래서 김영호 당시 축제실장님께 항명을 했고, 잠시 잠적해버리기도 했어요. 객기라기보다는 문화행정가의 고뇌였다고 해주시지요.(웃음)

한지연 초기에는 서울시가 하라는 사업을 그대로 하기보다는, 우리가 트렌드를 분석하고 제안, 예산도 편성해서 추진해 볼 수 있는 사업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 '문화정책'으로도 연결될 수 있게 사업의 철학을 담아 기획하고 설계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았고, 그래서 더 열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특히 거대 도시 안 개인의 이야기를 끌어내 콘텐츠가 되고, 담론이 되게 하는 사업을 시도했던 것이 기억에 남아요. '메모리[人]서울'이라는 사업이었는데 여기서 '인'은 사람 '人'이면서 전치사 'in'이기도 해요. 즉 '서울 안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의미였죠. 서울을 살아간 시민들의 이야기에서 문화역사적 흐름을 포착하고 이를 아카이빙 했습니다. 삼풍백화점 사고 희생자의 이야기를 모아 책을 발간하기도 했고요. 사업이 종료된 뒤에도 일부 콘텐츠가 서울기록원과 서울생활사박물관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바람난 미술'은 사실 처음에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아트뱅크' 사업으로 추진하라고 지시된 것을 어쩌다 우리 재단에서 맡아서 하게 된 사업이었습니다. 수장고를 찾아다녔지만 실패했고, 차라리 많은 예술가들이 집에 보유하고 있는 작품을 꺼내 보따리장수처럼 돌아다녀보자고 대안으로 기획한 사업이었죠. 전시는 갤러리가 아닌 일상 공간에서 하는 '뜻밖의 전시'가 되도록 했어요. 참여 작가에게는 작품 대여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했습니다. 재단 초창기 시작했던 '우리동네 문화가꾸기' 사업은 후에 '도시게릴라 프로젝트', 이후 서울시의 '서울은 미술관'으로 이어지기도 했죠. 이렇게 작은 아이디어가 담론을 형성하고, 문화적으로 변화의 흐름을 만들어갔어요.

임미혜 사계절 축제를 담당하는 축제제작팀장일 때 쉴 새 없이 축제를 진행하느라 무리를 해서 목디스크가 생겼어요. 일하다 늦으면 집에 갈 기운도 없어서 사무실 책상을 붙여놓고 올라가 쪽잠을 자기도 했고요. 고생은 많이 했지만 굉장한 규모의 축제를 운영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우선 안은미 예술감독, 조민석 건축가와 함께했던 2009년 봄(궁) 축제인데요. 서울광장을 현대적 의미에서 '시민들이 주인인 궁'이라는 개념으로 탈바꿈시킨 공공 설치 작품을 선보이면서 서울광장을 둘러싼 건물을 통천으로 연결하는 아이디어를 실현시키기 위해 당시 김영호 축제기획실장님이 주변 모든 건물을 일일이 방문해

협조를 구하기도 했죠(웃음). 또 하나, 2009년 겨울 빛 축제 'Delight, The Light'이 생각나는데요, 백남준 작가의 '프랙탈 거북선'을 현재 융합예술팀장인 이정훈 당시 대리와 함께 대전시립미술관에서 빌려와서 광화문광장에 유리돔을 설치하고 전시했어요. 당시 개막식에서 오세훈 시장님이 엄청난 인파와 호응에 감동받아 축제 인사말 대신 축제 연장을 선언하기도 했죠. 대규모 사업이 일하는 사람들로서는 큰 도전이고 어려운 과제이기는 했지만 이런 행사를 통해 재단 초기에 대외적으로 재단을 효과적으로 알리고 인지도를 높이는데 기여했다고 봅니다.

백승우 지금은 고궁을 활용하는 문화재청 사업들이 활발한데, 첫 단추가 하이서울페스티벌 궁 축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보수적인 조직을 바꿔서 궁에서 페스티벌까지 하게 된 것이지요.

김영호 당시 궁궐 철옹성 관리소장님과 친하게 지내기 위해 막걸리도 먹고 했던 게 도움이 되었죠(웃음)사실 2008년 초 안호상 대표님이 점심을 사주신다고 해서 불길한 마음으로 갔는데, 축제실로 가라는 거예요. 당시 축제는 일이 너무 많아 모두 기피하는 부서였거든요. 제가 밥숟가락을 떨어뜨렸던, 끔찍한 꿈같은 날이었어요. 그리고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2006년 청계천 오픈 기념으로 '청계미술제'를 했을 때, 토요일 한낮 폭우에 청계천이 범람해서 신현중 작가님의 '공화국 수비대'라는 4미터 정도의 도롱뇽 작품이 떠내려가 버렸어요. 너무 참혹했던 기억인데 세월이 지나서 보니 옛날의 고통이 지금의 기쁨으로 남은 것 같아요. 그때는 서울이라는 도시브랜드를 적극 마케팅하려는 상황에서 직원들에게 참 어려운 도전이 많이 던져졌었어요. 그것을 다 이겨냄으로써 재단이 이렇게 성장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서울시가 전문가 집단인 우리 재단에 요구사항이 많았어요. 짧게는 1년 길어야 3년짜리 단발성 사업을 요청해 오기도 했지만, 창작지원사업은 가장 길게 이어져오는 사업이죠. 재단이 그동안 탄탄한 시스템으로 자리 잡아 왔는데, 한편으로 이제는 사업 구조가 안착되니 새로운 모험을 하는 사업을 만나는 재미는 덜 한 것 같습니다.

#3

김해보 다들 개인적인 회고이지만 그 안에 에피소드만이 아니라 정책적인 평가도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본격적으로, 현재 총괄하고 계신 업무를 기준으로, 재단 사업 영역별로 20년을 되돌아보고 평가해보겠습니다. 서울시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문화정책의 흐름까지 고려해서 우리가 해왔던 일들의 의미를 짚어주세요.

김영호 예술지원은 20년 동안 사업비가 10배, 그러니까 20억 규모였는데 이제 200억으로 늘었어요. 예술지원사업이 제도적 구조 차원에서는 매우 탄탄해졌죠. 그런데 그 탄탄함이 현장과는 멀어지고 소통이 부족한, 좀 경직된 예술지원 체계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좀 더 현장과 소통하며 탄력성 있는 예술지원이 필요한데 말입니다. 그리고 작품 창작지원에서 점차 예술가 지원, 즉 '작품'에서 '사람'으로의 지원이 확대되어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서울 전체 예술인이 몇 만 명인데, 어떻게 다 대응하느냐고 난색을 표했죠. 하지만, 이 또한 분명 재단이 감당해야 할 새로운 과제입니다. 재단은 발 빠르게 2~3년 전부터 서울예술인지원센터를 준비해왔고 2024년은 개관 후 새롭게 맞는 첫 해입니다. 2016년 즈음 우리

재단이 지원사업의 자기부담금 의무 사용 비율을 제일 먼저 폐지했고, 청년예술지원도 그 무렵 생겼습니다. 작년에는 원로예술인지원까지, 서울문화재단의 지원사업은 더 촘촘하고 넓은 예술지원을 통해 작품 지원에서 예술가 지원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한지연 재단이 자랑할 수 있는 젊은 예술가 지원 제도였던 '나트(NArT)'는 '유망예술지원'이면서 '청년예술 지원'에도 가까웠어요. 특히 실연 심사를 하고 피드백을 통해 이후 창작지원으로 다시금 연결되게 했습니다. 시대 흐름에 맞게 또 한 번 변형되어 현재 재단 창작공간인 서울무용센터에서 인큐베이팅 지원으로 새롭게 시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당시에도 실연 심사에 대한 예술가의 입장은 좀 다르긴 했습니다. 예술가에게 완벽히 준비되지 않은 작품을 실연하는 것은 늘 부담스러우니까요. 지금 서울무용센터에서는 사전

실연 심사의 개념보다는 창작을 위해 스터디하고 안무한 작품의 과정공유회, 결과공유회 등으로 인큐베이팅의 과정을 나트에서 변형해 이어나가고 있다고 봅니다.

김영호 이후 'NArT in 하이서울페스티벌'도 했어요. 축제를 통해 새로운 사조의 작품을 많은 시민에게 소개하고 작품 유통도 지원한다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시도였죠. 다시 생각해볼만한 사업입니다.

백승우 지금 문체부 장관님이 다시 얘기하는 '사후지원'도 우리 재단에서 시작했고, '다년지원'도 재단에 있었습니다. 정치적 이유로 짧게 마감되었던 지원 프로그램들이 아쉽네요.

임미혜 저는 '문화매개'라는 키워드로 이야기하고 싶어요. 문화재단의 핵심 기능은 문화매개적 역할을 통해 시민들이 다양한 문화예술을 해석하고 스스로 즐길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매개의 대상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술교육인데요, 재단은 특히 창의예술교육을 통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예술을 이해하는 바탕 위에 문화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었죠. 2006년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이 시행되기도 전인, 재단이 설립된 2004년부터 시민문화예술지원을 통해 시민들이 주도하는 축제, 문화교육, 생활예술동아리 등을 지원했어요. 그 전통 위에 2007년에는 문화교육팀을 신설해서 '방과후 돌봄교실'에 예술교육을 지원하기 시작해 이후 어린이, 청소년 TA 사업 등으로 키워내며 우리나라 문화예술교육정책 초창기에 미적체험과 통합예술교육이라는 철학적 방향과 구체적 방법론을 제시하는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도 했어요. 또 하나 문화매개의 중요한 영역인 축제에서는 하이서울페스티벌의 변화를 살펴보면 재단의 기여를 확인할 수 있어요. 사실 하이서울페스티벌은 2002 한일월드컵 때 서울광장에서 표출된 시민문화와 시민정신을 기념하기 위해 '하이서울축제 시민위원회' 주도의 시민문화축제로 출발한 것이었죠. 이후 전문가 집단에 의해 예술축제로 변화하지만요. 그 과정에서 초창기 절반쯤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축제팀 직원들이 스스로 기획자가 되어 축제를 만들어냈어요. 궁 축제 때는 5대 궁과 앞서 말한 서울광장 '오월의 궁'을 각각 맡아서 프로그램을 모두 직접 기획하고 운영했어요. 지금은 재단 문화사업이 너무 시스템화 되어서 새로운 사업을 기획할 기회 자체가 매우 드물죠. 직원들이 사업 기획을 하거나 스터디하고 연구하는 것을 충분히 기다려주지 못하고 정책 기조와 행정 절차에 맞춰 사업이 진행되는 경직성이 켜졌다는 점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문화행정을 담당하는 매개자들이 문화에 대해 가지는 이해와 수용의 정도가 사업의 성패, 즉 시민의 문화적 해석을 선도하거나 영향을 좌우한다는 겁니다. 우리 직원들의 그런 매개 역량을 키우는 것이 앞으로 재단이 문화예술계에 미칠 영향력과 성과를 결정할 것입니다.

한지연 크게 보면 문화사업이란 '정-반-합, 노마드, 다시 연대'의 단계를 거치는 것 같아요. 초창기에는 '문화의 민주화' 관점으로 질 높은 프로그램을 일상 속에서, 경제적 부담 없이 즐길 수 있게 하려는 시도가 많았죠. 서울광장에서 점심시간에 공연을 진행한 ' 일상의 여유', '책을 꼭 도서관 안에서 조용히 읽어야 하나, 밖에서 책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지'하며 발상의 전환을 한 '책 읽는 서울' 같은 사업에서 야외에서 '북콘서트'를 하고 '독서골든벨', '빅북전시회' 등을 시도한 것이 모두 '정'의 단계라고 할 수 있죠. '반'은 '좋아서-예술동아리', '생활예술' 같은 사업들로 실행된 '문화 민주주의' 관점이었어요.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직접 참여하는 문화의 흐름이었죠. 그러다가 문화의 민주화와 문화 민주주의가 함께 '합'이 되어가는 과정에서는 예술교육이 크게 확장되어 퍼지고 길게 이어져 나간 것 같아요. 그렇게 정반합으로 균형이 맞춰지는 과정에서 또 다시 '노마드' 현상이 일어납니다. 모두 각자 자기가 중요하고 특색 있다고 주장하다 보니 어떤 시스템 안에 들어오는 것이 싫고, 다양한 사업들도 이를 향유하는 사람들도 모두 저마다의 의미를 가지며 유목민처럼 흘러 다니는 거죠. 개인, 단체, 기관 모두 각자의 방식대로 문화와 예술을 기획하고 즐기고요. 재단 입장에서는 공통의 담론을 묶어내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솔직히 너무 어렵기도 했죠. 그러다가 힘을 합쳐야 문화의 흐름이 확장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연대'로 나아가게 된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거의 연대는 개념과 정치적으로 묶이는 연대였다면 지금의 연대는 매우 세련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무조건 네트워킹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필요에 따라 묶이는,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네트워킹을 하는 경향이 있죠. 재단의 규모도 커지고 사업 영역도 더욱 많아진 만큼, 예전의 네트워킹이나 고착화된 연대의 방법은 시대에 뒤떨어진 고집스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현장을 많이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실용적 연대를 통해 재단이 정치적 행보에 따라 묶인다고 바라보는 사람들의 편견을 깨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백승우 5개의 키워드로 저는 '1.서울시 2.리더십 3.행정스태프 4.인사 5.공간'을 준비했습니다. 2004년 재단 출범일, 아니 그 전 합격자 워크숍 때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이슈가 서울시와 관계에서의 독립성입니다. 그리고 대표이사님마다 리더십 스타일이 매우 다양했습니다. 그 편차가 크기도 했고, 직원들이 이에 적응하는 속도, 마음가짐도 많이 바뀌어왔죠. 재단을 이끌어 온 사람들 중 행정스태프라는 인력을 외부에서는 잘 모르는데요. 규모가 갑자기 커진 사업을 이끌어가기 어려울 때, 우리를 지원하고 보조해 준 이 분들 덕분에 다양한 사업 현장에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는 인턴 시스템 같은 역할도 했던, 재단 인력 시스템을 떠받쳐 온 보이지 않는 한 축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영역인데, 우리 재단은 형평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 효율이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평가의 변별력이 적어서 예측 가능한 승진이 어렵습니다. 변별력 있는 인사평가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당면한 미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4

김해보 경영본부장님 말씀처럼, 지금 우리 재단이 당면한 중요한 변곡점, 해결할 과제, 희망하는 모습에 대한 말씀으로 대담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영호 현장에서 다년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레퍼토리가 개발되면 해외로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다년지원은 형평성과 함께 예산의 한계라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서울예술상' 처럼 시상제도까지 추가로 생겼는데, 이제는 안정적 예산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서울 예술인이 6만 7천 명이고, 더불어 전국의 모든 예술가들이 놀 수 있는 마당이 서울입니다. 지원할 재원이 탄실해야 꾸준히 현장의 변화에 대응하면서 지원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야 지금 요구되는 다년지원, 후속지원, 레퍼토리 개발 집중지원, 해외 지원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임미혜 재단이 당면한 중요한 미래 과제 중 하나가 예술인 복지일 것 같은데, 당연히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는 차별화되어야 하겠습니다. 한편 코로나19를 겪었으면서도 순수예술과 기술의 결합에 대한 지원과 성과는 부진한 것 같아요. 종합적으로는 향후 장르 기반의 작품 지원과 예술인 지원이 통합된 프로젝트 지원 방식으로 확장해야만 창작 활동과 생활을 병행해야 하는 예술인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줘야지 물고기를 그냥 주는 것, 그것도 토막토막으로 전달하는 것으로는 효과를 보기 어려워요. 시민 문화향유에서는 단순히 양적 확대 이상의 성과 목표를 개발해야 합니다. 시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확대되고 다양해지고 예술의 산업화까지 진행된 지금, 공공이 담당하는 시민 문화향유의 성격과 목표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보여주거나 참여하게 하는 시민 문화향유의 매개가 아닌,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스스로 운영해 나가는 생활예술의 강화라든가, 보이지 않는 손으로서 재단의 지원 역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간 공공지원의 우선 대상으로 고려되지 못했던 대중예술에 대해서도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지 고려해야 합니다. 재단은 문화예술의 지원에서 늘 새로워야 하고, 새롭지 않으면 차별화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현재 시점에서 고민하고 논의하고 '리셋'해야 할 것입니다.

한지연 우리가 2024년부터 새롭게 운영하게 된 노들섬 복합문화공간으로 다양한 문화예술을 수용하라는 요구가 폭풍처럼 몰려올 것 같아요. 순수예술만 '예술'이라는 편견에 따르기 보다는 '문화' 재단으로서 다루는 영역이 넓어져야 하는 상황을 접하게 된 거죠. 지금은 각자 선택하는, 취향이 존중되는 시대인 만큼 직원들도 여전히 구획을 지어서 예술을 보는 외부 시선에 제약을 받지 않아야 할 것 같아요. 서울'예술재단'이 아닌 서울'문화재단'이라는 점을

상기하면서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향할 가장 핵심적인 가치로서 예술을 놓치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재단을 탄생하게 한 정체성이기도 하니까요. 따라서 그 예술의 가치를 어떻게 확장해서 시민들에게 보여줄 것인가가 재단이 고민해야 할 가장 중요한 매개의 영역입니다. 핵심 가치를 놓지는 말되 사회 변화를 관찰해서 우리의 관점을 정립하고 시야는 확장하고 타자의 시선에서는 해방되면 좋겠어요. 특히 지금 K-문화 붐이 한창인데, 어느 순간 재단의 국제교류가 코로나19를 지나며 약간 침체되었던 점이 너무 아쉬워요. 전 세계적으로 한국문화에 대한 호감이 커진 이 흐름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술 유통이나 교류에 있어서 로컬도 중요하지만 글로벌 또한 중요한 만큼, 국제교류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내부적으로 보면, 재단이 작았을 때는 아주 큰 사업이 들어오면 직원들이 기초부터 열정으로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졌지만, 지금은 열정을 발휘할 수 있는 틈을 안 주는 것 같아요. 직원들이 자기 의견을 당당하게 말하도록 하고, 동기를 부여 해주는 것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백승우 우리 재단은 중앙정부로 치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모든 역할을 하나로 묶어서 담당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없던 예술인 복지 영역이 확대되고 있고, 정말 다양한 일들이 펼쳐지고 있죠. 예측되는 사업의 변화에 상응해서 인사, 재무 등 경영 파트의 변화를 준비를 하는 '경영지원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탁사업이 마구 도입되다 보니 어려움이 컸습니다. 지금도 권역별 문화예술교육센터와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운영이 재단 사업으로 들어오면서 재단이 중요한 변곡점 위에 섰다고 생각합니다.

정일한 20년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동시에 앞으로 사회 환경과 정책 변화에 따른 미래 대응 전략을 고민해야 합니다. 다양화, 개인화, 다각화되는 사회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중앙정부 정책과의 역할 분담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지방과 다르게 그 규모가 매우 큰 서울의 고유한 문화정책을 구조적으로 분리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재단의 20+ 전략기획에 오늘 대담 내용이 소중한 자원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임직원 명단

선임직 임원

성명	취임일	퇴임일	직위
김재철	2004-01-19	2006-12-31	이사
이춘호	2004-01-19	2006-12-31	이사
전택수	2004-01-19	2013-01-26	이사
최경희	2004-01-19	2013-01-26	이사
유종호	2004-03-09	2006-12-31	이사
이정춘	2004-03-09	2006-12-31	이사
이조안	2004-03-09	2010-01-01	이사
이철수	2004-03-09	2005-08-10	이사
장명수	2004-03-09	2006-12-31	이사
정연희	2004-03-09	2006-12-30	이사장
한용외	2004-03-09	2006-12-31	이사
유인촌	2004-03-13	2006-09-04	대표이사
안영철	2006-01-19	2013-02-22	감사
노준의	2007-01-01	2013-01-26	이사
박범신	2007-01-01	2011-10-03	이사장
신동엽	2007-01-01	2010-01-27	이사
원담(정화평)	2007-01-01	2013-01-26	이사
이남기	2007-01-01	2012-03-26	이사
이조안	2007-01-01	2013-01-26	이사
이호재	2007-01-01	2013-01-26	이사
최태지	2007-01-01	2013-01-26	이사
안호상	2007-02-01	2011-12-30	대표이사
성석환	2010-01-27	2016-01-26	이사
이호재	2010-01-27	2013-01-26	이사
최태지	2010-01-27	2013-01-26	이사
김승종	2010-03-17	2012-10-07	이사
최수영	2010-03-17	2013-01-26	이사
김정헌	2012-03-26	2015-03-25	이사장
조선희	2012-03-26	2016-08-30	대표이사
김선정	2013-01-27	2015-03-26	이사
김성규	2013-01-27	2016-01-26	감사
박은희	2013-01-27	2016-01-26	이사
박재동	2013-01-27	2016-01-26	이사
유진룡	2013-01-27	2013-02-19	이사
이동연	2013-01-27	2016-01-26	이사
이수문	2013-01-27	2016-01-26	이사
조성룡	2013-01-27	2016-01-26	이사
차병직	2013-01-27	2016-01-26	이사
천호균	2013-01-27	2013-08-01	이사
김광림	2015-05-27	2018-05-26	이사장
김수현	2015-05-27	2018-05-26	이사
김영하	2015-05-27	2016-09-19	이사
박영정	2015-05-27	2018-05-26	이사
장인주	2015-05-27	2018-05-26	이사
김종화	2016-04-15	2022-04-14	감사
김창남	2016-04-15	2019-04-14	이사
이영욱	2016-04-15	2019-04-14	이사
임재용	2016-04-15	2019-04-14	이사
정혜신	2016-04-15	2016-11-11	이사
허정숙	2016-04-15	2019-04-14	이사
주철환	2016-09-01	2018-07-30	대표이사
박장렬	2017-05-01	2020-04-30	이사
안미영	2017-05-01	2020-04-30	노동이사
이선철	2017-05-01	2020-04-30	이사
심두보	2017-05-25	2020-05-24	이사
김종휘	2018-09-20	2021-09-15	대표이사
유다희	2018-09-20	2021-09-19	이사
이경자	2018-09-20	2021-09-19	이사장
이원재	2018-09-20	2021-09-19	이사
김영남	2019-06-07	2020-03-31	이사
차진엽	2019-06-07	2020-12-04	이사
홍기원	2019-06-07	2022-06-07	이사
김휘	2020-06-24	2023-06-23	이사
남인우	2020-06-24	2023-06-23	이사
신동석	2020-06-24	2022-06-02	노동이사
신현수	2020-06-24	2023-06-23	이사
심한기	2020-06-24	2023-06-23	이사
장영남	2020-06-24	2023-06-23	이사
박상원	2021-10-18	재임중	이사장
이창기	2021-10-18	재임중	대표이사
서성교	2021-10-18	재임중	이사
이은미	2021-10-18	재임중	이사
이창희	2021-10-18	재임중	이사
이영석	2022-06-20	재임중	감사
고정균	2023-01-13	재임중	이사
허성훈	2023-01-13	재임중	이사
강득주	2023-02-08	재임중	노동이사
김수정	2023-06-24	재임중	이사
노소영	2023-06-24	재임중	이사
문창기	2023-06-24	재임중	이사
신창섭	2023-06-24	재임중	이사
한철호	2023-06-24	재임중	이사

당연직 임원

성명	취임일	퇴임일	직위
김기성	2004-01-19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 재임시	이사
임재오	2004-01-19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장 재임시	이사
최계락	2004-01-19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 재임시	이사
김충선	2004-07-09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장 재임시	이사
권영규	2004-08-19	서울시 문화국장 재임시	이사
조규성	2004-11-02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 재임시	이사
최령	2005-08-10	서울시 경영기획실장 재임시	이사
정연희	2006-07-13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장 재임시	이사
김병일	2006-07-22	서울시 문화국장 재임시	이사
나재암	2006-09-12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 재임시	이사
나진구	2007-01-05	서울시 경영기획실장 재임시	이사
정효성	2007-01-05	서울시 문화국장 재임시	이사
권영규	2007-12-21	서울시 경영기획실장 재임시	이사
오신환	2008-07-14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 재임시	이사
이종은	2008-07-14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장 재임시	이사
권혁소	2009-01-02	서울시 문화국장 재임시	이사
안승일	2010-01-01	서울시 문화국장 재임시	이사
김상범	2010-07-01	서울시 문화관광기획관 재임시	이사
최항도	2011-01-01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재임시	이사
정효성	2012-01-01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재임시	이사
한문철	2012-01-01	서울시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재임시	이사
류경기	2014-07-16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재임시	이사
이창학	2014-07-16	서울시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재임시	이사
장혁재	2015-07-01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재임시	이사
고홍석	2016-01-01	서울시 문화본부장 재임시	이사
한영희	2016-11-09	서울시 재정기획관 재임시	이사
이원목	2017-01-01	서울시 재정기획관 재임시	이사
서정협	2017-07-01	서울시 문화본부장 재임시	이사
박대우	2018-01-01	서울시 재정기획관 재임시	이사
마채숙	2018-07-20	서울시 재정기획관 재임시	이사
이병한	2019-01-01	서울시 재정기획관 재임시	이사
백일헌	2019-07-01	서울시 재정기획관 재임시	이사
유연식	2019-07-01	서울시 문화본부장 재임시	이사
이상훈	2020-01-01	서울시 재정기획관 재임시	이사
김태명	2021-01-08	서울시 재정기획관 재임시	이사
곽종빈	2021-07-19	서울시 재정기획관 재임시	이사
주용태	2021-07-19	서울시 문화본부장 재임시	이사
조미숙	2023-01-02	서울시 재정기획관 재임시	이사
박숙희	2023-03-21	서울시 문화예술과장 재임시	감사
강석	2023-07-06	서울시 재정기획관 재임시	이사
최경주	2023-01-02	서울시 문화본부장 재임중	이사
김미정	2024-01-01	서울시 재정기획관 재임중	이사
이창훈	2024-01-01	서울시 문화예술과장 재임중	감사

직원 명단

286명

2024.01.31. 기준(현원)

강득주	시설안전1팀
강민정	청년예술팀
강민혜	지역문화팀
강수영	청년예술팀
강지은	제휴협력팀
강지훈	무대기술팀
강한중	시설안전1팀
강훤주	노들섬사업팀
고영명	융합예술팀
고은아	예술교육정책팀
고은혜	예술청팀
고지혜	서울연극창작센터팀
곽해리나	융합예술팀
구슬아	예술지원2팀
구실희	예술지원2팀
권영지	예술지원정책팀
권해정	융합예술팀
권회성	예술지원1팀
김경원	노들섬사업팀
김경화	인사팀
김규태	재무회계팀
김근형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서초팀
김다엘	인사팀
김도균	시설안전1팀
김명식	윤리경영실
김민정	청년예술팀
김민정	제휴협력팀
김민준	시설안전1팀
김보정	예술지원2팀
김상근	서울연극센터팀
김상민	노들섬운영팀
김상원	노들섬사업팀
김성은	제휴협력팀
김성현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용산팀
김성훈	노들섬사업팀
김세연	노들섬운영팀
김소희	노들섬사업팀
김수경	노들섬운영팀
김수빈	예술교육정책팀
김수아	연희문학창작촌
김수연	인사팀
김수현	예술지원실
김아름	미래전략팀
김아름	인사팀
김아연	서울연극창작센터팀
김영규	예술지원정책팀
김영민	서울연극센터팀
김영선	재무회계팀
김영지	홍보마케팅팀
김영호	예술창작본부
김예원	인사팀
김용진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양천팀
김원용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서초팀
김유리	문화향유팀
김유리	무대기자재공유센터
김유진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
김윤경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은평팀
김은나	공연기획팀
김은지	홍보마케팅팀
김이경	제휴협력팀
김익권	지역문화팀
김인겸	시설안전1팀
김재광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강북팀
김재희	서울연극창작센터팀
김정란	재무회계팀
김정훈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서초팀
김주현	문화향유팀
김지선	인사팀
김지승	정보관리팀
김지연	재무회계팀
김지우	경영기획팀
김지은	노들섬운영팀
김지훈	정보관리팀
김진호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김진환	경영기획팀
김채영	예술교육정책팀
김한빈	무대기자재공유센터
김한솔	축제기획1팀
김해나	예술교육정책팀
김해보	정책협력실
김형규	정보관리팀
김혜나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용산팀
김호준	재무회계팀
김홍남	경영본부
김효진	예술지원2팀
김희영	제휴협력팀
나혜린	문화향유팀
나희영	청년예술팀
남궁태윤	청년예술팀
남미진	대학로센터실
남혜승	예술교육정책팀
노은한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노희종	시설안전2팀
도재형	축제기획1팀
동다예솔	미래전략팀
라하령	노들섬운영팀
류재연	인사팀
류한영	인사팀
모민경	노들섬운영팀
문예지	예술교육정책팀
민동훈	시설안전2팀
민홍기	시설안전1팀
박경섭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
박기현	경영기획팀
박도욱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은평팀
박민희	예술지원2팀
박상혁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서초팀
박선영	융합예술팀
박수영	축제기획1팀
박수진	축제기획2팀
박순복	시설안전1팀
박승혜	문화향유팀
박영도	정보관리팀
박영아	시설안전1팀
박은지	예술청팀
박주성	시설안전1팀
박준경	청년예술팀
박태준	홍보마케팅팀
박현주	미래전략팀
박혜림	예술지원1팀
박혜원	공연기획팀
박효정	재무회계팀
방지은	지역문화팀
배소현	예술지원정책팀
백성운	안전관리실
백승우	경영본부
백희숙	시설안전1팀
변기용	시설안전2팀
봉효윤	문화향유팀
빈동준	무대기술팀
서금슬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서동진	서울무용센터
서동휘	노들섬운영팀
서명구	미래전략팀
석주희	서울무용센터
선걸	문화향유팀
성승환	예술청팀
손민현	축제기획2팀
손은정	예술지원1팀
송두희	시설안전2팀
송서연	서울연극센터팀
송지나	축제기획2팀
송지윤	인사팀
송혜리	서울연극창작센터팀
순대성	서울무용센터
승희조	예술교육정책팀
신소정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양천팀
심희경	경영기획팀
안미영	공연기획팀
안미영	홍보마케팅팀
안유라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강북팀
양시내	지역문화팀
양은상	경영기획팀
양지현	제휴협력팀
여은미	예술교육정책팀
연재인	노들섬사업팀
염혜원	재무회계팀
오영호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
오은정	무대기술팀
오인경	재무회계팀
우민혁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우보람	노들섬운영팀
우사랑	미래전략팀
우상욱	노들섬운영팀
우혜인	예술지원1팀
유동균	인사팀
유민곤	무대기자재공유센터
유민성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용산팀
유설아	문화향유팀
유소영	축제기획1팀
유인순	시설안전1팀
윤나영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강북팀
윤다슬	서울연극창작센터팀
윤동주	축제기획2팀
윤정옥	윤리경영실
윤지현	예술지원1팀
윤혜원	서울연극창작센터팀
이가람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서초팀
이경민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강북팀
이고은	신당창작아케이드
이규승	예술교육실
이대욱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양천팀
이도현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강북팀
이동주	무대기술팀
이선미	예술교육정책팀
이세욱	연희문학창작촌
이수영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양천팀
이승주	연희문학창작촌
이승희	노들섬사업팀
이우형	시설안전1팀
이유나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용산팀
이유진	축제기획1팀
이윤실	시설안전2팀
이윤채	금천예술공장
이은미	윤리경영실
이인준	경영기획팀
이인혜	예술청팀
이재경	지역문화팀
이정연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양천팀
이정욱	무대기술팀
이정임	시설안전1팀
이정훈	융합예술팀
이종혁	노들섬사업팀
이종훈	무대기술팀
이주영	홍보마케팅팀
이주영	경영기획팀
이주형	시설안전2팀
이주희	예술교육정책팀
이준걸	홍보마케팅팀
이지예	예술청팀
이지예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용산팀
이지은	공연기획팀
이진	시설안전2팀
이하늘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강북팀
이한솔	예술교육정책팀
이해서	시설안전2팀
이헌	금천예술공장
이현수	시설안전1팀
이현아	축제기획실
이현주	경영기획팀
이현지	예술지원정책팀
이혜선	시설안전1팀
이혜연	축제기획2팀
이화정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
임미혜	문화진흥본부
임승언	금천예술공장
임시우	경영기획팀
임윤	제휴협력팀
임지은	무대기자재공유센터
장연정	지역문화팀
장옥영	축제기획1팀
장재영	무대기술팀
장재환	안전관리실
전은영	재무회계팀
전정우	문화향유팀
전진희	예술지원1팀
정경미	예술청팀
정다인	무대기자재공유센터
정단비	노들섬사업팀
정수연	윤리경영실
정유진	융합예술팀
정일한	정책협력실
정지영	예술지원1팀
정혜성	재무회계팀
조권주	정보관리팀
조성현	공연기획팀
조영은	경영기획팀
조예인	융합예술팀
조주희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양천팀
주자영	인사팀
주한식	창작기반실
진솔	예술청팀
최문환	시설안전1팀
최미리	예술지원2팀
최민하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강북팀
최서연	예술지원1팀
최수연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용산팀
최승혁	무대기자재공유센터
최영한	공연기획팀
최원희	문화향유팀
최유정	지역문화팀
최재훈	축제기획2팀
최정남	시설안전1팀
최정필	신당창작아케이드
최지원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은평팀
최호범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최효주	예술교육정책팀
편형미	신당창작아케이드
표선정	인사팀
피율서	서울연극창작센터팀
한민지	예술지원2팀
한성경	문화향유팀
한정희	서울연극센터팀
한지연	문화사업실
한혜인	예술지원1팀
함수령	청년예술팀
허예은	문화향유팀
허자영	서울연극창작센터팀
허진우	문화향유팀
현의준	서울연극창작센터팀
홍유나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강북팀
황기성	노들섬사업팀
황선영	예술교육정책팀
황유선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양천팀
황현정	경영기획팀
황회철	노들섬운영팀

서울문화재단 20년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2004-2023

발행인 이창기
발행일 2024년 3월 15일
발행처 서울문화재단
ISBN 979-11-86489-96-3 (93060)

총괄 기획 정책협력실 정일한 김해보
미래전략팀 서명구 김아름

집필 전민정 최윤우
연구보조 신가영

편집 전민정
디자인 ㈜디자인인트로
제작 ㈜사월오일

서울문화재단 누리집 www.sfac.or.kr
미래전략팀 02-3290-7067

©서울문화재단
책에 수록된 글과 이미지의 저작권은 서울문화재단에 있습니다.
무단 전재를 금하며 내용의 일부를 인용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히시기를 바랍니다.

일러두기

+ 『서울문화재단 20년』은 서울문화재단 창립 20주년 기념으로 발행된 백서입니다.
+ 2004년부터 2023년까지 서울문화재단의 역사·정책·사업·직원·시민의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 공간, 기관 등의 명칭이 바뀐 경우, 현 명칭을 우선으로 하고 과거 시점에서 서술한 경우 옛 명칭을 사용했습니다.
+ 4·5·6장은 시간순으로 구성하고 서술했으며, 사업명이 바뀐 경우 가장 최근(혹은 마지막)에 사용했거나 대표적인 사업명을 제목으로 썼습니다.
+ 사업명의 기본 표기는 '예산사업명'을 따랐으며, 실제 진행 사업명과 사업 슬로건 등은 예산사업명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주요 사업, 공간, 프로젝트, 행사명은 본문에 굵게 표시했습니다.
+ 사진의 저작권은 서울문화재단에 있으며 별도의 저작권이 있는 경우 명시했습니다.
+ 프로그램 참여 시민의 사진은 촬영 시 사전 동의를 받았습니다.

서울문화재단 아카이브
책에서 언급한 연구보고서, 결과자료집, [문화+서울] 등의 발간물은 서울문화재단 아카이브에서 원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백서 제작에 도움을 주신 모든 재단 직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2004

서울
재단